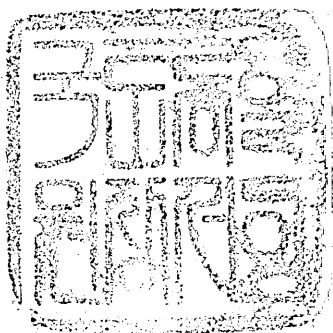


南北對話白書



22452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發刊에 붙여

우리 겨레가 南北으로 갈린지 4半世紀만인 1971년 南北韓間에 첫 公式對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8년의 歲月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南北韓間에 여러 형태의 對話通路가 마련되었지만 冷戰構造的 對決狀態를 脫皮하지 못하고 相互 敵對와 不信의 壁만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民族의 熱望과는 달리 統一은 공허한 觀念次元에 머물렀으며, 南北韓間 異質化의 폭이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간의 南과 北의 接觸과 對話가 南北關係를 實質的으로 改善하는 可視的 成果를 낳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民族의 自尊과 繁榮을 指向하는 正當한 노력으로서 評價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半萬年の 유구한 歷史를 한 핏줄, 한 言語, 한 文化傳統으로 살아왔으며, 우리 모두의 삶의 원형인 民族共同體를 維持·繼承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南北韓間의 오랜 斷絶은 이제 民族共同體 그 자체마저 毀損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동안의 南北對話를 教訓으로 삼아 南北間에 民族의 紐帶感을 增進시키고 民族共同體의 回復을 圖謀하는 노력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第6共和國 出帆以後 國民的 合意로 추진되고 있는 民主化 노력과 더불어 各界에서 統一論議가 활발히 展開되고 있고, 統一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課題로 認識되고 있는 것은 鼓舞的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韓半島 周邊情勢 또한 그러한 民族의 熱望에 副應하는 統一政策을 펴 나가는데 有利한 方向으로 展開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統一努力은 南北韓 關係에 대한 視角과 認識의 大轉換이 不可避해 졌으며, 第6共和國 政府가 前向的이고 積極的인 對北政策을 摸索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狀況變化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北韓은 더이상 敵對와 對決의 相對가 아니며 서로 돕고 協力해 나가며 民族共榮을 追求하는 同伴者입니다.

北韓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開放과 和解의 世界的 趨勢를 거스를 수 없는 狀況에 直面하게 될 것이며, 「南北交流와 協力時代」의 開幕은 歷史的 當爲로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時點에서 反目과 不信의 늪에서 好機를 잃는 愚를 범하지 않고 우리 民族의 未來를 올바르게 設計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난 南北關係史를 省察의 姿勢로 되짚어 보는 일이 무엇보다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國土統一院은 이같은 認識下에 南北對話의 現住所를 정확히 理解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南北關係 進展狀況에 따른 資料를 集大成하여 「南北對話白書」를 새로이 編纂하게 되었습니다.

本 冊子는 75年, 78年, 82년에 이어 4번째로 發刊되는 것이지만, 3版 以後 6年이 經過했으며, 80年代에 들어와 새롭게 展開되어온

南北韓關係를 勘案한다면, 事實上 全面 改訂版이라 할 수 있습니다.

本 冊子는 南北對話를 편의상 時期的으로 區分, 3部로 構成하였으며, 1部는 分斷-80年代初, 2部는 84年-87年, 3部는 第6共和國以後의 關聯事項들을 收錄하였습니다.

아울러 南北韓關係의 研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各種 關聯文案의 原文과 南北對話의 主要日誌를 整理, 附錄으로 담았습니다.

統一論議 活性化에 따른 우리 社會 各界에서의 統一 및 南北關係의 基礎資料에 대한 需要增大에 本 冊子が 副應할 수 있게 되기를 期待하면서, 民族共同體를 回復하고 發展시키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더욱 加速化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88. 12.

國 土 統 一 院 長 官

李 洪 九

〈目 次〉

第 1 部 南北對話의 開幕과 接近 摸索

1. 南北韓關係의 變遷	9
가. 分斷의 背景	9
나. 分斷의 固着化 過程	17
다. 南北韓의 變化	22
2. 70年代 對話成立의 背景	30
3. 南北對話의 開幕	35
가. 南北赤十字會談	35
나. 南北共同聲明 發表	54
4. 對話의 進行	63
가. 南北調節委員會	63
나. 南北赤十字 本會談	75
다. 北韓의 對話中斷 聲明	102
라. 南北調節委員會 副委員長會議	105
마. 南北赤十字 「代表會議」와 「實務會議」	109
바. 南北直通電話의 斷絶	117
사. 南北調節委 서울측 代表 및 北韓 「祖國戰線」 代表 接觸	118
아. 南北韓 卓球協會 會議	131
자. 南北韓 總理會談을 위한 實務代表 接觸	136

第 2 部 南北對話의 多様な 展開와 示範事業 推進

1. 北韓의 對話論理	161
2. 大韓民國의 統一推進 努力	167
가.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 提議	167
나. 「20개 示範實踐事業」의 提議	171
다. 「南北韓 高位代表會談」 提議	174
3. 民族和合 民主統一 方案	176
가. 提案 背景	176
나. 主要 內容	179
다. 主要 特徵	181
4. 分野別 對話의 進行	186
가. 概 觀	186
나. 南北體育會談	190
다. 水災物資 引渡·引受와 南北赤十字 實務接觸	203
라. 南北赤十字會談	211
마.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의 交換訪問	247
바. 南北經濟會談	264
사. 南北國會會談 豫備接觸	293
아. 「로잔느」 體育會談	305
5. 對話의 膠着과 南北韓關係 動向	327
가. 對話 膠着의 背景	327
나. 大韓民國의 對話再開 努力	330
다. 北韓側의 對話關聯 主張	347

第3部 南北韓 交流·協力時代에의 進入

1. 새로운 南北韓關係의 摸索	365
2. 韓半島 周邊情勢와 統一環境	372
3. 「南北高位當局者會談」提議	378
4.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을 위한 「7·7 大統領 特別宣言」	383
가. 背景 및 趣旨	383
나. 意義와 特徵	385
다. 6個項 政策宣言	387
라. 關聯 實踐措置	391
5.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	404
가. 成立 背景	404
나. 會談進行 經過	409
6. 「南北頂上會談」提議	424
7. 開放과 和解의 主導	428
가. 「民主繁榮의 統一時代」指向	428
나. 和解와 統一을 여는 길	432

附 錄

○ 對北提議 關聯文案 原文	443
○ 南北關係 主要日誌	527

第 1 部

南北對話의 開幕과 接近 摸索

1. 南北韓關係의 變遷

가. 分斷의 背景

우리 겨레가 檀君開國이래 4천 3백여년의 연명한 民族歷史와 傳統文化를 가꾸어 온 보금자리인 韓半島(총면적 22만㎢)는 역사적으로 중국·러시아 등 대륙세력과 미국·일본 등 海洋勢力間의 이해관계가 끊임없이 교차해온 戰略的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韓民族은 이러한 韓半島의 地政學的 여건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獨立을 지키기 위해 슬한 異民族과 투쟁해 왔으며 때로는 外侵과 兵禍로 시달림을 당하는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다.

그러나 우리 民族史의 全過程을 통해 볼 때, 韓民族은 領土의 확장이나 다른 민족을 征服하려고 武力을 사용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으며, 오직 單一民族으로서의 民族共同體 의식에 바탕을 두고 고유의 民族文化를 꽃피우며 자유와 평화를 확장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民族은 最近世에 이르러 日本의 무력압제에 의해 國權을 송두리째 박탈당하는 민족최대의 受難을 당하였고, 民族自尊이 根本的으로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韓民族은 日帝의 간악한 민족해체작업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국내외에서 줄기찬 抗日獨立運動을 전개하였다.

1945년 8월 15일 日本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韓半島는 日帝의

強占에서 풀려 났고 韓民族은 解放의 감격을 맛보았다. 그러나 감격은 잠간동안의 일이었고 韓民族에게는 새로운 비극이 시작되었다. 우리 韓民族에게 1,300여년간 하나의 보금자리였던 韓半島가 戰勝國인 美國과 蘇聯에 의하여 北緯 38度線을 境界로 分割 占領됨으로써 南北으로 兩斷되고 만 것이다.

사실 열강이 韓半島의 장래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具體的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의 敗戰이 예측되기 시작한 1943년 11월의 「카이로」회담에서부터라 할 수 있다.

「루즈벨트」美大統領 · 「처칠」英國首相 · 蔣介石中華民國總統이 참가한 「카이로」회담에서 聯合國 首腦들은 전쟁이 끝나는 대로 『韓民族에게는 正當한 順序를 밟아서 自由와 獨立을 賦與』하기로 合意를 하였다.¹⁾

이같은 強大國간의 협의과정에서 韓半島에 대한 신탁통치와 38度線을 경계로 하는 韓半島의 南北分割 논의라는 불행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었다. 「카이로」회담에 앞서 같은 해 4月 「루즈벨트」美大統領은 「이든」英外相과의 회담에서 戰後 韓半島에 대해서는 『美國 · 蘇聯 · 中國이 공동관리하는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합의했다.²⁾ 또한 1943년 11월 28일 「테헤란」에서 「처칠」 및 「스탈린」소련수상과 회담하는 자리에서도 韓國에 대해서는 『독립을 부여하기 전에 최소한 40년간의 信託統治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³⁾, 이에 대한 「스탈린」의 동의를 얻게 되었으며,⁴⁾ 다시 1945년 2월 「알타」에서 열린 美 · 英 · 蘇 3國頂上會談에서도 계속 韓國에 대한 『최소한 20~30년간의 美 · 中 · 蘇 3國信託統治』를 주장했다.⁵⁾ 뿐만 아니라 「알타」회담에서는 소련의 對日參戰에 합의하는 대신 그 대가로 『滿洲지역에서 러시아帝國이 1905년 이전에 향유했던 권리를 인정하기로』함으로써⁶⁾ 결과적으로 戰後 韓半島의 南北分斷 길을 사실상 열어 놓게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韓半島 信託統治案은 美·蘇간에 실무협회가 계속되어 신탁통치국은 美·英·蘇·中 4大國으로 한다는 방향으로 기본적인 양해가 성립되었다. 다만 1945년 7월 「루즈벨트」의 뒤를 이은 「트루만」대통령이 참가한 美·英·蘇 3國의 「포츠담」頂上 회담에서 韓半島문제에 관하여 「카이로」회담의 합의사항을 그대로 재확인함으로써 韓國은 『정당한 순서를 밟아서』 독립하게 될 것이라는 원칙을 재강조하는데 그쳤을 뿐이다.⁷⁾

韓半島 問題에 대한 확고한 청사진을 가지지 못한 채 막상 終戰이 임박해지고 1945년 8월 9일 소련이 日本에 대한 宣戰布告를 하고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게 되자, 美國政府는 美·蘇兩軍이 서로 만나는 線을 어디에 劃定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美國에서도 소련의 기도를 간파하고 있었던 일부 外交官들은 政府에 대해 極東지역에서의 美軍의 군사행동을 加速化시켜 최소한 韓半島全域에 있어서의 日本軍의 항복을 접수함으로써 소련군의 韓半島進入을 막도록 건의했었다.⁸⁾ 그러나 8월 9일 參戰과 더불어 소련군이 北韓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개시하고 있을 때 美軍은 아직도 겨우 冲繩近海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美國政府는 8월 11일 陸軍省 一般參謀部の 「본스틸」(뒤에 駐韓 「유엔」 軍사령관 역임) 「리스크」(뒤에 國務長官 역임) 두 大領의 건의를 받아 들여 北緯 38度線을 경계로 그 南과 北에 美·蘇兩軍이 각각 進駐하여 지역내 日本軍의 降伏을 接受하자는 안을 採擇하고⁹⁾ 이를 8월 13일 英·中·蘇 3國政府에 通報하여 동의를 받는다. 이방, 8월 15일 이를 一般命令 第1號로 「맥아더」사령부에 下達하여 즉각 實踐에 옮기게 했다. 이 일반명령 第1號는 美·蘇兩軍의 韓半島進駐軍 司令官들이 각기 지역내 日本軍의 항복을 접수하는대로 『民政업무에 대한 행정기능을 統合하여 이를 美·蘇兩軍 및 기타 韓半島점령 참가국의 군사령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歸屬시킴으로써 韓半島全域이 單一化된 행

정관할하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規定했으나, 이와 동시에 『항복접수가 진행중인 기간중에는 韓半島의 分割된 두 지역에서의 民政業務에 대한 행정기능은 그 지역에 進駐한 美·蘇兩軍 司令官 各자의 책임사항이 된다』고 규정함으로써¹⁰⁾ 韓半島의 군사적 分斷이 정치적 分斷으로 진행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해 놓았다.

이처럼 우리 民族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강요된 國土分斷은 시일이 경과될수록 더욱 梗塞되어 갔으며, 南北韓은 分斷된 순간부터 서로 쉽사리 다시 합쳐질 수 없는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특히 美軍보다 한발 앞서 韓半島에 들어온 蘇聯軍은 미리 준비된 계획에 따라 점령지역인 北韓지역에 共產主義社會를 건설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1945년 8월 24일 蘇聯軍이 처음 平壤에 入城했을 때 北韓地域의 행정권은 基督教民主黨 黨首 曹晚植을 위원장으로 右翼人士 18名과 國內派 共產主義者 2名으로 구성된 建國準備委員會 平安南道支部가 이미 장악하고 있었다.¹¹⁾

그러나 蘇聯軍政當局은 8월 26일 同支部를 우익과 共產黨이 동수인 平安南道 「人民政治委員會」로 개편하고 9월 2일까지 이러한 「人民政治委員會」를 다른 道에도 설치, 이들로 하여금 蘇聯軍政當局의 指揮, 監督下에 民政業務에 대한 행정권을 형식적으로 행사케 했다.

蘇聯軍政當局은 같은 해 10월 28일에는 北韓지역 5個道 「人民政治委員會」를 하나로 묶어 「5道行政局」으로 改稱했으며, 다음 해인 1946년 2월 8일에는 金日成을 위원장으로 하고 책임부서는 거의 대부분을 共產黨에 의하여 장악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政府體制를 갖춘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를 발족시킴으로써¹²⁾ 분단된 南北韓의 통일문제와는 별도로 우선 北韓만

의 單獨共產政權을 수립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¹³⁾

이보다 앞서 蘇聯軍政當局은 1945년 10월 平壤에서 「北朝鮮 5道 黨責任者 및 熱誠者大會」를 열어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을 설치하면서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에게 낮이 선 金日成(本名 金成柱)을 처음으로 소개했으며, 같은 해 12월의 同分局 제 3 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同分局을 「北朝鮮共產黨」으로 개편하면서 金日成을 「黨責任秘書」(黨首)로 선임케 함으로써 北韓共產黨에 대한 金日成의 絕對權을 확립시켜 주었다.

이처럼 蘇聯軍政當局의 지시를 받은 北韓共產黨은 이미 이때부터 이른바 「北朝鮮民主革命基地理論」¹⁴⁾을 채택, 全 韓半島의 共產化가 보장되지 않는 여건하에서는 統一은 일단 거부하고 우선 北韓만의 單獨共產政權樹立과 南北分斷의 정치적 고정화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南韓地域에서는 美軍의 進駐가 소련군보다 늦어졌을 뿐 아니라, 進駐한 美軍조차도 軍政에 대한 事前準備가 없었기 때문에 軍政 초기에는 격심한 左右 對立으로 혼란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었다.

南韓에 進駐한 美軍政當局은 現地의 政治情勢에 대한 아무런 準備가 없이 다만 韓半島信託統治를 前提로 하면서 左右合作에 헛된 努力을 낭비하였다. 1945년 12월 16~20일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3個國 外相會議는 ① 韓半島에 대해서는 向後 5년간 美·英·中·蘇 4大國에 의한 신탁통치를 실시하되 ② 韓國人들로 구성, 韓半島全域에 대한 일원화된 행정 관할권을 갖는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③ 韓半島內的 「민주적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의 협의하에 과도정부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美·蘇共同委員會를 구성, 운영하며 ④ 美·蘇共同委員會는 과도정부 및 「민주적 단체」들의 참여하에 韓國國民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 및 獨立달성 방안을 마련하여 4大國 신탁통치이사회에 건의하도록 결정했다.¹⁵⁾ 그러나 12월 29일 이같은 「모스크바」 3相會議의 결정사항이 알려지자 國內에서는 일단

南北韓과 左右를 망라한 전 정치세력들이 한결같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蘇聯의 지령하에 움직이는 共產主義者들과 左翼 동조세력들은 불과 2~3일 후에 태도를 豹變하여 찬탁을 부르짖고 나섬으로써¹⁶⁾ 반탁의 기치아래 뭉친 우익세력과의 좌우대립으로 비화되고 말았다.

北韓지역의 「北朝鮮共產黨」은 反託의 기치를 든 曹晩植을 감금하는 한편, 右翼 및 民族陣營 인사들을 「民族反逆者」 또는 「反動·反革命分子」로 몰아 대대적으로 숙청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328만 3천여명의 北韓주민들이 共產主義者들의 彈壓을 피해 고향을 등진채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어 남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¹⁷⁾

「모스크바」 3相會議 결정에 의한 美·蘇共同委員會는 1946년 3월 20일~5월 12일까지와 1947년 5월 21일~10월 1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나 共同委員會를 통한 韓半島問題 해결노력은 美·蘇兩國간의 懸隔한 기본입장의 차이 때문에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蘇聯은 당시 韓半島에서 활동중인 정당과 사회단체들 가운데서 『신탁통치에 반대한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과도정부 참가는 물론 共同委員會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¹⁸⁾함으로써 찬탁을 표명한 좌익세력만을 상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美·蘇共同委員會와는 상관없이 蘇聯軍政當局은 北韓지역의 共產化와 北韓만의 單獨共產政權樹立 努力을 가속화시켜 나갔다. 1946년 11월 3일 北韓에서는 道, 市, 郡, 邑, 面 단위 地方人民委員會 代議員選舉가 실시되고 1947년 2월 17일에는 北韓지역의 最高立法機關으로 「北朝鮮最高人民委員會」가 구성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省과 局 등 완전한 政府編制를 갖춘 「中央人民委員會」가 발족되었다.¹⁹⁾ 뿐만 아니라 北韓 지역에서는 토지개혁,

농기구와 가축 재분배, 産業施設과 銀行, 私企業, 교통, 체신 시설 및 공동 시설의 국유화, 그리고 1個年 經濟計劃 등 「국가정책」이나 「국가계획」 차원의 조치들이 계속 취해졌다. 北韓 지역에는 1946년말 이전에 이미 사실상의 共產單獨政權이 수립된 셈이다.

美軍政下의 南韓地域에서도 北韓地域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같은 일련의事態進展에 무관심할 수만은 없었다. 1946년 2월 軍政廳諮問機關으로 「朝鮮民主議院」을 구성한 바 있는 美軍政當局은 1946년 12월 이를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 개편하여 뒤늦게나마 北韓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1947년 초까지도 美軍政當局은 4개국 신탁통치안을 계속 옹호했으나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은 1947년 1월 20일 이같은 美軍政當局의 정책에 反對하고 信託統治를 거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해 10월 美·蘇共同委員會가 끝내 결렬되자 美軍政當局과 美政府는 그제야 信託統治를 단념하고 그대신 최단시일 안에 韓國人들의 獨立政府樹立을 추진하기로 했다.

美國은 韓國의 독립문제를 새로이 창설된 「유엔」에서 다루기로 결정하고 1947년 9월 17일 이를 총회 의제로 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유엔」에 요청했다. 蘇聯은 물론 이에 반대했으나 「유엔」총회는 찬성 41, 반대 6, 기권 7로 美國의 요청을 받아 들여 韓國의 독립문제를 의제로 채택, 政治委員會의 토의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11월 14일, ①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한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를 韓半島全域에서 실시하여 토착인구 비례원칙에 입각한 國會를 구성하고 國會로 하여금 독립된 統一政府를 수립케 하며 ② 정부수립 후 모든 外軍을 철수시키며 ③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하여 「유엔韓國臨時委員會」을 구성한다는 결의안을 총회에서 찬성 43, 반대 9, 기권 6으로 채택했다.²⁰⁾

1948년 1월 8일 來韓한 「유엔韓國臨時委員團」은 1월 12일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실시되는 南北韓總選 감시절차 협의를 위해 위원단이 平壤을 방문, 蘇聯軍司令官을 예방하겠다는 서한을 蘇聯軍司令官 앞으로 보냈으나 蘇聯軍政當局은 동 서한을 접수도 않은 채 1월 23일 반송함으로써 委員團의 入北을 봉쇄했다.²¹⁾ 이렇게 되자 「유엔」小總會는 2월 26일 『「유엔」韓國臨時委員團은 韓半島 全域을 통한 선거감시에 임해야 하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단의 접근이 가능한 韓半島 지역에서 선거감시에 임해야 한다』고²²⁾ 결의함으로써 南韓 지역에 국한된 선거실시의 길을 열어 주었다. 이에 따라 5월 10일 南韓 全域에서는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총선거에는 등록된 南韓지역 유권자 총수의 75%가 投票에 참가하여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 制憲國會를 성립시켰으며 동 국회에서 제정된 憲法에 따라 李承晩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정부의 수립과 大韓民國의 建國이 이 해 8월 15일 정식으로 선포되고 美國에 의한 軍政은 이날로 종결되었다.

한편 北韓 지역에서는 이보다 앞서 北韓만의 單獨共產政權 수립을 위한 마지막 단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金日成은 이미 1947년 6월 14일 「北朝鮮民主主義人民戰線」에서 행한 보고를 통해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라는 이름의 單獨共產政權 수립 방침을 공식으로 표명해 놓고 있었다.²³⁾

이에 따라 「北朝鮮最高人民會議」는 1947년 11월 北韓共產政權 憲法 기초에 착수, 1948년 4월에 憲法草案을 채택했으며, 1948년 9월 9일에는 北韓共產政權의 수립을 정식으로 공표하였다.²⁴⁾

이와 같이 해서 韓半島는 정치적으로 분단되었다. 그러나 「유엔」총회는 1948년 12월 12일 「유엔」韓國臨時委員團의 보고서를 접수하고 『임

시위위원단이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으며 韓國國民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효과적인 통치 및 관할권을 갖는 合法정부가 韓半島에 수립되었고』『이 정부는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동 지역의 유권자들의 자유 의사가 정당하게 표시된 선거에 기초를 두었으며』, 따라서 『이 정부는 韓半島 내의 유일한 정부』라고 선언하는 「총회결의 제 195 Ⅲ호」를 채택함으로써 大韓民國 정부의 唯一合法性을 확인했다.

나. 分斷의 固着化 過程

1948년부터 分斷된 韓半島의 南과 北에는 이같이 서로 이념을 달리하는 독립된 政治實體가 각기 존재하게 되었으나 이미 이보다 앞서 北韓共產集團 내부에서는 北韓 지역의 共產化에 이은 다음의 단계로 南韓 地域을 武力으로 정복하여 赤化統一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6·25開戰을 위한 음모와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1945년말 蘇聯軍政의 비호 아래 北韓 지역에 대한 實權을 장악하면서부터 장차 「武力에 의한 南朝鮮解放」과 이에 의한 赤化統一의 달성을 夢想, 이에 대비하여 1948년 2월 사실상의 정규군인 「조선인민군」을 창설하는 등 軍隊의 조직과 강화에 착수했다.

1948년 9월 北韓共產政權 수립후에는 中國대륙으로부터 제 2 차 世界大戰 기간 중 中共軍에 편입되어 抗日戰과 國共戰에 참가했던 「朝鮮」籍 軍인들이 대거 入北하여 「人民軍」에 편입되기 시작함으로써 우리 國軍의 병력 수준을 훨씬 능가하기에 이르렀다.

北韓은 1950년 3월까지 10개 步兵師團(30個 聯隊), 1개 戰車旅團, 1개 飛行師團 및 기타 각종 特殊部隊와 海·空軍으로 편성된 19만 8천명의 「人民軍」 병력을 갖게 되었으며, 장비면에서도 6·25開戰 당시 242대의

戰車, 176門의 自走砲, 560대의 武裝「사이드·카」, 380대의 車輛 및 다수의 大·小口徑砲와 211대의 각종 항공기 및 30여척의 함정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²⁵⁾

「인민군」의 이같은 전력증강이 진행됨에 따라 소련은 1948년 12월 27일 북한점령 소련군의 전면 철수완료를 공표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北韓과 함께 駐韓美軍의 철수를 요구하는 일대 宣傳戰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反面 南韓 지역에서는 美國의 소극적 태도와 左翼 세력의 책동으로 독자적 軍隊를 창설하려는 노력이 계속 난관에 봉착했다.

國軍은 6·25 개전당시 陸軍 8개사단 등 총 10만 5천명의 兵力에 불과했으며, 장비면에서도 戰車, 自走砲, 高射砲가 전무하고 항공기 수가 北韓에 비해 9.6대 1의 열세인 점 등 전체적인 군사력면에서 엄청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6·25를 앞두고 北韓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엄청난 武力增強에 경악한 大韓民國政府는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해 國軍의 증강이 필요한 정도로 이루어질 때까지 駐韓美軍의 철수를 늦출 것과 韓國軍 증강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줄 것을 美國政府에 요청했으나, 美國은 1949년 6월 駐韓美軍의 철수를 단행(5백명 규모의 美軍 고문관만 잔류)했으며 軍援 요청에 대해서는 小火器 중심의 경장비 일부만을 넘겨 주었다.²⁶⁾

더우기 1950년 1월 12일 「애치슨」 당시 美國務長官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全美國新聞記者協會에서 행한 「아시아에서의 危機」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韓半島에서 武力 분규가 발생했을 때 美國이 이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²⁷⁾함으로써 北韓 共產政權의 武力南侵 의도를 부추켜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北韓 共產政權은 개전을 불과 며칠 앞두고서 「平和統一呼訴文」을 발표한

다거나 曹晩植선생과 南勞黨 在南總責 李舟河, 金三龍간의 교환을 제의하는 등 일련의 僞裝平和攻勢를 전개함으로써 大韓民國의 관심을 돌리는 한편, 전쟁 발발시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 해줄 근거를 마련코자 했다.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 北韓은 38선 전역에 걸쳐 일제히 奇襲攻擊을 감행함으로써 民族分斷을 고착화시키는 범죄를 저질렀다.

戰車를 앞세운 北韓軍은 開戰 사흘만인 6월 28일 首都 서울을 점령하고 계속 南進했다. 國軍의 戰列은 全戰線에서 붕괴되어 견잡을 수 없이 南으로 밀려 났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美國은 침략 격퇴를 위한 신속한 軍事 行동을 취하기 시작했고, 美國의 요청에 따라 「유엔」은 6월 27일 安全保障理事會에서 蘇聯 代表가 불참한 가운데 北韓의 南侵을 「유엔」憲章에 위배되는 명백한 침략 행위로 규정, 全 「유엔」회원국에 대해 『大韓民國에 대하여 감행된 불법적인 武力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필요한 軍事的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²⁸⁾ 이에 따라 美國을 필두로 英國·濠洲·「뉴질랜드」·「프랑스」·「캐나다」·南阿연방·「터키」·泰國·「그리스」·「네델란드」·「콜롬비아」·「에치오피아」·「필리핀」·「벨지움」·「룩셈부르크」등 16개국이 陸海空軍 병력과 장비를 급거 韓國으로 보냈으며, 印度·「덴마크」를 비롯한 그밖의 많은 나라(모두 40개국)들이 각종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大韓民國에 제공했다.

美國의 「맥아더」將軍을 最高司令官으로 하는 「유엔」군의 반격작전에 밀린 北韓軍이 9월 15일의 인천상륙작전 이후에는 38선 너머로 패주하기에 이르름에 따라 韓民族의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10월말 이후 1백만명이 넘는 中共軍이 투입되기 시작함으로써 戰勢는 다시금 反轉되어 버렸다. 이로부터 2년반 남짓한 기간동안 소모전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1951년 7월 10일부터 휴전협상이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總司令官 「클라크」대장과 北韓軍 總司令官 金日成 및 中共軍司令官 彭德懷사이에 휴전협정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전쟁의 결과는 歷史上 유례가 없을 정도로 참담했다. 협소한 지역에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兵力과 火力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戰爭의 파괴력은 지상과 공중, 바다에서 韓半島의 거의 全域을 휩쓸어 全國土를 폐허로 만들었으며 엄청나게 많은 인명의 피해를 초래했다. 인명의 손실은 군인의 경우 戰死가 국군 22만 9천명, 「유엔」군 3만 8천명, 北韓軍 52만명, 中共軍 90만명, 부상자 국군 71만 7천명, 「유엔」군 11만 5천명, 北韓軍 40만 6천명, 실종이 국군 4만 3천명, 「유엔」군 5백명에 달했으며, 민간인의 경우는 南韓지역에서만 사망 24만 5천명, 부상 23만명, 실종(사망 추정) 33만명, 共產軍에 의한 학살 13만명, 남북 8만 5천명, 警察官 피살자 1만 8천명으로 집계되었다.²⁹⁾ 그 밖에도 30만명의 전쟁 미망인, 33만명의 전쟁 불구자, 10만명의 전쟁 고아, 1백만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했고³⁰⁾ 또 44만명의 南韓의 청소년들이 이른바 「義勇軍」으로 戰地로 끌려 나갔다. 뿐만 아니라 北韓 지역에 진주했던 「유엔」軍이 中共軍의 참전으로 인하여 다시 南韓 지역으로 후퇴할 때 1백만명 이상의 北韓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과 가족, 친척들을 등지고 越南해 나왔다. 이로써 해방 이후 北韓 지역을 탈출하여 南韓으로 넘어온 北韓 주민의 총수는 6·25開戰 이전의 숫자를 포함하여 5백만에 달하여³¹⁾ 오늘날까지 이른바 「斷腸의 비극」의 주역들이 되어 있다.

休戰은 分斷韓國의 통일을 실현시키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듯 처참한 同族相殘의 민족적 비극을 도발한 北韓共產主義者들을 응징하는 결과를 가져 오지도 못했다. 休戰은 전쟁의 확대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제 3 차 世界大戰의 導火線에 불이 당겨질 것을 겁낸 宥和的인 국제

여론의 所産으로 단순히 전투행위의 종결이라는 형태로 現狀을 미봉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다시 새로운 戰禍를 겪게 될지도 모르는 가능성의 불씨를 잿속에 묻어 두게 되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해서 大韓民國 정부는 休戰에 동의할 것을 거부, 休戰協定の 조인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休戰協定에서 交戰 쌍방은 협정체결 후 3개월 이내에 韓半島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外國軍의 철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高位政治會談을 개최하기로 합의, 이에 따라 1954년 4월 26일 「유엔」군축 참전 16개국 및 大韓民國 정부 대표와 蘇聯·中共·北韓 대표가 참가한 정치 회담이 「제네바」에서 열렸으나, 이 회담에서 共產側은 韓半島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있어서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할 것을 거부하고 韓半島의 공산화 통일 방안만을 고집, 회담을 교착시키는 한편, 駐韓「유엔」軍을 포함한 모든 外軍의 事前 철수만을 요구하는 부당한 입장을 고수하여 1954년 6월 15일 동 회담의 결렬을 초래했다. 「유엔」군축 참전 16개국은 이날 「參戰 16個國宣言」을 발표, 회담에 임했던 쌍방의 입장을 공개하여 共產側의 부당한 주장으로 인하여 회담이 실패로 돌아 갔음을 밝히고 韓半島 문제의 정치적 해결은 「유엔」에서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유엔」軍은 韓半島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 이루어져 전쟁 재발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韓半島에 잔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韓半島의 分斷은 전쟁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지만 남은 것이란 오직 「38線」이 「休戰線」으로 바뀌어진 것 뿐이었다. 이로써 5천년간 하나의 핏줄, 言語, 文化, 生活風習으로 이어져 내려온 民族共同體는 인위적인 단절에 의해 그 原形이 毀損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회복하고 새로이 창조해야 할 사명을 우리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다. 南北韓의 變化

1945년 國土分斷 당시만 하여도 대다수 韓國人들이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南北韓間的 단절은 냉전구조의 경색과 더불어 시간이 지날수록 固着化되는 경향을 보였다.

더우기 1948년 南北韓에 각기 상이한 政治理念과 政治·經濟的 制度에 토대를 둔 체제가 성립되어 政治的 分斷이 이루어지고 韓國戰爭을 거쳐 民族分斷의 단계로 돌입하게 됨으로써 대결과 적대상황은 가속화 되어 갔다. 이와함께 南北韓의 두 사회간에는 사회적 이질화가 진행되고 民族共同體的 生活樣式마저도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大韓民國은 오랜 民族歷史와 文化 및 傳統을 훼손함이 없이 이를 순수하게 繼承·發展시키면서 自由民主主義 基本政治秩序에 바탕을 둔 自由開放社會로 성장해 왔으나, 北韓은 외부세계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폐쇄사회 속에서 韓民族에게는 생소하기 짝이 없는 「唯物論的 階級史觀」에 입각하여 전면적으로 개조되는 가운데 神格化된 特定個人의 절대권을 확립하는 劃一社會를 構築해 나갔다.

大韓民國은 우선 건국당시부터 폭력혁명이나 무력정복의 방법으로 大韓民國을 전복시킴으로써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北韓共產集團의 끈질긴 책동으로부터 國家의 존립을 유지하는 것이 제 1의 命題였다.

또한 기본적으로 國民의 自由와 基本權이 보장되고 선거제도에 의해 國民의 대표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보장되는 自由民主主義를 基本政治理念으로 채택했다.

반면 北韓은 단일이데올로기가 사회활동의 모든 영역을 엄격히 통제하고 규제하는 全體主義社會를 목표로 전주민을 金日成 「唯一思想」으로 무장시키기 시작했다. 북한공산집단은 1948년 共產政權 수립이전에 이미 민족진영 인사들을 제거했으며, 韓國戰爭後 南勞黨系에 대한 숙청을 비롯하여 延安派와 蘇聯派 그리고 1960년대 후반에는 甲山派와 軍部에 대한 숙청을 차례로 단행해 나갔다.

이와 병행하여 전주민을 대상으로 여러차례의 思想性分검토를 통해 직업과 거주지를 再配定하는 한편, 철저한 사상교육과 정치적 統制網에 의해 金日成 1人 支配體制의 확고한 기반을 닦았다. 1958年末부터 1959年末까지 實施된 「中央黨集中指導事業」과 이를 補完하기 위해 1962년에 실시한 「住民再登錄事業」도 이러한 사상통제작업의 일환이었다. 「中央黨集中指導事業」기간중 北韓地域의 全住民들은 出身社會性分과 정치적 사상성향에 따라 ① 核心勢力 ② 中間勢力 ③ 反革命勢力으로 분류되었으며, ① 월남자의 가족과 6. 25전쟁중 大韓民國에 협조한 者 및 家族 ② 과거의 종교인, 地主, 企業人, 商工人 및 가족 ③ 休戰에 따른 귀환포로 및 가족 ④ 日帝下에서의 官吏 및 가족 ⑤ 刑服役者 및 出獄者와 家族 ⑥ 共產主義者中 「宗派」(國內派, 延安派, 蘇聯派 및 기타) 行爲로 肅清된 者 및 가족등을 網羅하는 「反革命分子」들은 일정한 地域에 居住가 제한되어 集團強制勞役에 투입되었다.³²⁾

권력구조면에서는 一黨獨裁體制를 구축했다. 勞動黨이 國家機關과 각종 政治組織을 지도 및 통제하며 사회활동의 전영역에 黨의 영향력이 침투되도록 한 것이다. 사회의 모든 組織體 또한 北韓 스스로가 『우리나라 社會團體들은 偉大한 首領 金日成同志에 의하여 創始된 우리나라 勤勞者들의 자원적이며 革命的인 대중적 정치조직이며 「黨의 外廓團體」이다. 우리 당

의 引轉帶이며 적극적인 幫助者인 社會團體들의 基本任務는 黨의 영도 밑에 경애하는 首領 金日成同志의 偉大한 革命思想으로 全體 勤勞者들을 철저히 무장시켜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확립함으로써 金日成同志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그의 敎示貫徹에로 그들을 組織, 動員하는데 있다.]³³⁾ 고 설명하듯이 「勞動黨」의 前衛組織으로 만들었음은 물론이다.

이리하여 北韓은 共產主義國家에서도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주민 전체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敎化和 政治的 감시·억압을 통해 「金日成主義」로 일색화된 사회로 변질되었다.

北韓地域의 全住民들이 「首領님을 절대화하고 政治思想的으로 목숨으로 堅決히 옹호·보위하며 首領님의 敎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찰하여 首領님의 心慮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수령님께 끝없이 忠直한 親衛隊, 決死隊」가 된 것이다.³⁴⁾

특히 金日成 우상화작업은 매우 포괄적이고 완벽한 형태로 추진되어 그 범위와 강도, 지속성에 있어서 前例가 없을 정도였다.

한편 이러한 南北韓의 상이한 政治體制는 양자간의 경제발전도 그 양상을 크게 달리하게 만들었다.

분단이전의 南北韓은 상대적으로 北韓이 工業施設을, 韓國은 農耕地를 더 많이 갖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같이 농업중심의 前産業社會였다.

그러나 韓國은 自由民主主義 이념에 따라 국민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가운데 自由市場 經濟原則에 입각해서 공업화와 도시화를 진행시켜 온 반면, 북한에 있어서는 社會主義 이념에 입각하여 모든 산업을 국유화시켰으며 강력한 中央統制方式으로 공업화를 추진하였다.

解放으로부터 1961년까지 大韓民國의 經濟는 食糧自給마저 이룩하지 못

한 가운데 외국의 무상원조에 의존하여 겨우 나라살림을 꾸려 나가야만 했다. 더구나 韓國戰爭으로 그나마의 産業施設마저 폐허가 된 상황하에서 大韓民國의 경제는 그 어려움이 배가될 수 밖에 없었다.

1961년의 軍事革命을 거쳐 1963年 第3共和國의 성립으로 大韓民國은 政治的 安定基盤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962년에 시작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成功的인 추진으로 계획기간중의 年平均 經濟成長率은 第1次 計劃期間(1962~66)中 8%, 第2次 計劃期間(1967~71)中 10.5%의 高度成長을 記錄했다.³⁵⁾ 大韓民國은 社會間接資本을 확충하여 民間企業의 投資環境을 造成하고 投資財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外資도입을 積極화 하는 한편 國際協力の 확대와 함께 무역면에서도 積極적인 開放體制를 추구, 輸出伸張에 주력함으로써 全世界가 景嘆해 마지 않은 高度經濟成長을 이룩하는데 成功한 것이다.

반면 北韓의 經濟는 金日成 1人 절대권 확립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公산독재체제의 완성 및 對南赤化統一을 위한 물질적 기초의 마련이라는 政治的 目的 추구의 수단으로서의 제한된 가치개념의 테두리 안에서 발전이 모색되어 왔으며, 그 결과 기술부문의 낙후, 경공업의 희생, 住民福祉의 外面, 産業部門間의 불균형등을 초래함으로써 분단당시의 압도적이었던 對南優位를 지켜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1970年代 중반부터는 優劣의 立場이 역전되어 時間의 經過와 더불어 열세가 더욱 심화되었다.

北韓의 經濟政策은 北韓社會의 共產化, 對南赤化統一, 金日成 개인우상화등 政治的 목적에 의해 지배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經濟發展法則들을 無視·外面함으로써 허다한 문제점들이 派生되었다.

더구나 韓國戰爭後에도 武力에 의한 對南 赤化統一野慾에 집착, 軍需產

南北韓 主要 經濟指標 比較 (1960~1975)

區分	單位	國別 年度別	韓 國				北 韓			
			1960	1965	1970	1975	1960	1965	1970	1975
人 口	萬 名		2,499	2,867	3,224	3,528	1,079	1,225	1,400	1,577
人 口 增 加 率	%		2.84	2.62	2.20	1.70	3.82	2.70	2.50	2.50
GNP	億 弗		19.5	30.1	79.9	208.5	15.2	23.4	39.8	93.5
1인당 GNP	弗		94	105	248	591	137	192	286	579
貿 易 總 量	百 萬 弗		376	591	2,819	12,355	320	450	805	1,912
輸 出	"		33	175	835	5,081	154	219	366	819
輸 入	"		343	416	1,984	7,274	166	231	439	1,093
國民經濟的 政 負 擔 率	財 %		17.0	11.6	16.1	15.2	50.4	57.7	58.7	59.3
發 電 設 備 用 量	萬 KVA		19	77	251	472	176	222	339	427
粗 鋼 生 產 能 力	萬 噸		15	32	85	285	66	205	217	240

出處：南北韓 經濟現況比較, 1987, 國土統一院

業 위주의 무리한 重工業優先政策을 강행하여 重·輕工業間에 심각한 불균형을 자초하고, 그 결과 1961년부터 1967년까지의 7個年 計劃은 計劃期間을 3年間이나 연장하고도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북한의 경제는 그것이 지닌 정치적 목적에 의한 定向때문에 외부세계로의 개방을 피하고 폐쇄된 孤立化 속에서 지극히 原始的인 自給經濟의 基調를 고수한 나머지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주민들의 생산의욕 상실, 기술의 낙후, 국제적 경쟁감각 마비등의 현상을 자초한 것이다.

이 같은 北韓의 경직적인 經濟政策은 南北韓間의 경제력 격차를 벌여놓은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南北韓이 각기 채택하고 있는 開放體制와 폐쇄체제, 自由競爭 市場經濟體制와 共產主義 計劃經濟體制, 競爭社會와 統制社會間의 相互 우열을 판가름해주는 結果를 초래했다고 하겠다.

南北韓間의 단절은 이와같이 政治·經濟的 制度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

라 사회관습과 가족제도, 사회적 행동 등의 가치·문화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異質化를 가져왔다.

南北韓間 사회문화체제의 기본적 차이는 한국이 民族史的 정통성을 계승하여 이를 발전시키고 국민각자가 자유롭게 自我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는데 비해, 北韓은 집단주의적 원칙을 획일적으로 준수하여 욕구충족은 개인이 소속된 단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만든 데 있다.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민족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왜곡 날조하고 오직 金日成과 黨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만을 강요한 것이다.

더구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휴머니즘」을 주민들의 금격적인 윤리·도덕이라며 「人民의 敵」이란 상징을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끌어내 사회통합의 주요 메카니즘으로 사용해 왔다.

韓民族의 전통적인 도덕관과 예의범절 또한 『봉건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는데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규칙』으로 그 성격을 규정, 體制維持라는 정치적 목적에 부합된 것만 변형시켜 잔재케 했다. 이리하여 5천년을 두고 같은 歷史, 같은 言語, 같은 風習속에서 하나의 民族共同體로서 살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에는 社會文化的 類似性보다는 差異點이 더욱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狀況이 가속화 되었다.

더구나 北韓은 韓半島全域에 共產主義社會를 건설한다는 基本目標를 버리지 않고 대남폭력도발을 계속해서 자행함으로써 南北韓間의 不信의 벽을 더욱 높이기만 했다.

북한은 전후복구가 어느 정도 끝난 1962年 12月 「勞動黨」 中央委員會

第4期5次全員會議에서 이른바「4大軍事路線」(全人民武裝化·全國主要塞化·全軍幹部化·全裝備現代化)을 결정·채택하고³⁶⁾ 이를 계기로「勞動黨軍事委員會」(委員長=金日成)를 발족시켜 軍需産業의 대대적인 육성을 바탕으로 하는 본격적인 軍備增強에 착수했다. 北韓은 1961년부터 7個年經濟計劃을 시작하고 있었으나『당면한 정세를 감안하여 일부 경제계획을 수정해서라도 軍事力을 강화해야 한다』는 金日成의「敎示」(1966年10月「勞動黨」第2次代表者會議에서의 發言)³⁷⁾에 따라 동 계획을 무리하게 수정하면서 軍需産業 위주의 重工業優先政策과 대대적인 軍장비

北韓의 國防費 推移

(單位：萬圓)

年 度	豫 算 支 出	國 防 費	國家豫算支出中 國防費比重(%)
1953	49,597	7,539	15.2
1954	72,956	5,836	8.0
1955	98,800	6,126	6.2
1956	95,598	5,640	5.9
1957	102,244	5,419	5.3
1958	118,300	5,678	4.8
1959	164,960	6,104	3.7
1960	196,787	6,100	3.1
1961	233,800	6,079	2.6
1962	272,876	7,095	2.6
1963	302,821	5,754	1.9
1964	341,824	19,826	5.8
1965	347,613	27,809	8.0
1966	357,140	35,714	10.0
1967	394,823	120,026	30.4
1968	481,289	155,938	32.4
1969	504,857	156,506	31.0
1970	618,662	191,785	31.0
1971	727,727	218,320	30.0

및 兵力增強 政策을 強行했다.

1964년부터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한 北韓의 軍事費支出로 인하여 國防費가 차지하는 總國家예산에 대한 비중은 1964년 5.8%, 1965년 8%, 1966년 10%, 1967년 30.4%, 1968년 32.4%, 1969년 31%, 1970년 31%, 1971년 30%로 늘어났다.³⁹⁾ 여기에 인용된 수치는 북한이 공식으로 발표한 國防費에 의거한 것으로, 그나마 「人民經濟」 部門 豫算에 감추어진 軍事費支出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秘匿된 軍事費支出까지 포함시킨다면 國家豫算에 대하여 國防費가 차지하는 비중은 위에 나타난 수치보다 훨씬 높을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북한은 이같은 대대적인 武力增強努力과 함께 對南浸透 및 奇襲 攻擊을 위한 非正規 特殊戰 戰力을 크게 強化시키고 이에 의한 對南軍事 挑發을 끊임없이 기도해왔다. 北韓은 「勞動黨」 連絡部 傘下 「695部隊」를 비롯, 「人民武力部」 偵察局 傘下 特殊 8軍團의 5개 여단 40개 大隊 所屬 2만5천명, 前方 3개 集團軍예하의 11개 輕步兵여단 88개 대대소속 5만3천 5백여명등 도합 8萬名以上の 特殊戰 兵力을 養成한 것이다. 이같은 北韓의 對南挑發은 1967년과 1968년에 절정에 달했으며, 1968년 1월 21일 北韓軍 第124軍部隊소속 武裝共匪들에 의한 靑瓦臺奇襲事件, 동년 1월 23일의 「푸에블로」號 拿捕 事件, 동년 10월 北韓軍 第124軍부대소속 「게릴라」 1백 20명의 東海岸 (울진·삼척지역) 침투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듯 1960년대의 南北韓關係는 北韓側의 공공연한 暴力革命煽動과 중요한 對南間諜浸透에 의해 軍事的 緊張 및 不信으로 일관되었고, 평화적 統일을 위한 어떠한 대화의 실마리도 풀리지 않았다.

이와같이 민족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韓民族 전체의 기대와 갈망에 반해 남북한 간에는 異質化의 심화와 더불어 對決意識이 고착화 됨으로써 民族 統一은 空虛한 當爲로만 인식되고 있었다.

2. 70年代 對話成立의 背景

각기 상이한 政治理念하에 敵對關係를 지속해 온 南北韓이 會談테이블에 마주앉게 된 것은 분단시점으로부터 무려 4半世紀라는 세월이 흐르고서야 가능했다.

그때까지 사실상 美·蘇의 양극적 冷戰構造 또는 美·中共의 軍事的 대결체제의 하부구조로서의 南北韓關係는 敵對的 대치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南北韓 내부상황과 韓半島 주변정세는 엄청난 변화에 直面하게 되었다.

우선 南北韓 내부상황을 概觀해 본다면, 韓國은 1960년대이후 공업화를 기조로 한 「祖國近代化」의 집중 추진으로 急速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北韓은 경제건설보다는 「4大 軍事路線」의 강행에 의한 軍事力증강정책에 더 역점을 두어왔을 뿐 아니라 中央統制式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함에 따라 경제활동의 非效率性和 한계성이 노출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결과 韓國의 국민총생산과 1인당 국민소득은 北韓을 능가하게 되어, 1960년 1인당 GNP가 94달러(당시 北韓은 137달러)이던 것이 1975년부터 591달러(당시 北韓은 579달러)로 反轉됨으로써 韓國國民들의 北韓에 대한 자신감이 고취되기 시작하였다.³⁹⁾

이에 따라 1960년대 후반부터 일부 韓國내 學者들은 南北分斷의 현실을 肯定하는 방향에서 韓半島問題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⁴⁰⁾

다른 한편 韓國은 經濟建設分野에서는 北韓을 따라잡고 앞지르는 성과

를 거두었으나 軍事力分野에서는 北韓에 크게 뒤지는 형세로 되는데다 「닉슨 독트린」에 의한 駐韓美軍의 撤收壓力에 의해 스스로의 存立을 모색하는 自救策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先建設 後統一」路線을 견지해오던 政策的 입장을 재고할 필요성에 따라 南北對話의 추진을 신중히 고려하게 된 것이다.

北韓 또한 南北對話에 응해 나온 그들 나름의 판단근거가 있었다.

첫째로, 北韓은 1960년대말을 고비로 美國의 印支戰 개입이 실패로 돌아가고 越盟의 「민족해방전쟁」이 성공을 거둘 展望이 점차 굳어지자, 國內적으로 신고립주의 경향이 팽배해지고 있는 美國이 조만간 韓半島를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자진하여 軍事的으로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다. 월남전의 추이를 지켜본 김일성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韓半島에서도 그와 같은 형태의 「민족해방전쟁」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을 成熟시킬 수 있느냐에 있었고, 그러한 김일성의 觀點에서는 이를 가로막는 唯一한 장애물이 바로 駐韓美軍의 存在였다.

駐韓美軍은 이제껏 「투쟁」에 의한 「추방」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南北間 緊張緩和등 스스로 안심하고 물러갈 수 있는 명분만 마련해 준다면 굳이 쫓아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계산한 것이다.⁴¹⁾

둘째로 北韓은 당시 大韓民國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政治情勢에 대해 커다란 誤判을 하고 있었다. 北韓의 對南戰略은 韓國內 「애국적 민주세력」이라고 일컫는 反體制 세력과 제휴하여 폭력에 의해 大韓民國政府를 전복하는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해 있다. 그런데 1971년 한국의 제 7대 大統領選舉를 둘러싸고 統一問題가 주요 選舉爭點으로 부각되어 이를 둘러싼 격렬한 政治的 논쟁이 벌어지게 되자 北韓은 이같은 새로운 상황에 편승하여 그들의 對南戰略에 이용코자 한 것이다. 즉 南北對話를 成立시킴으

로써 이를 매개로 合法的인 방법으로 「통일전선」을 형성코자 한 것이다. 1972년 9월 서울에서 처음 열린 南北赤十字本會談에 참가한 北韓代表들이 연도의 인파를 보고 『남조선 인민들이 우리를 단순한 적십자대표로서가 아니라 김일성수령의 「통일사절」로 맞아주었다』고 해석한데서도 北韓이 대화에 호응해 나온 意圖를 읽을 수 있게 한다.

세째로 北韓은 그들의 對內經濟가 直面하고 있는 어려움을 克服하는데 대화를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北韓은 1960년대를 통해 「4대군사노선」에 立脚하여 무모한 軍事力增強을 추구해온 나머지, 1961년에 시작된 제 1차 7개년 經濟計劃의 목표를 중도에 修正하고 3년이나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완수에 실패함으로써 심각한 경제난국에 직면하고 있었다.⁴²⁾ 따라서 國家豫算 지출액의 30%선을 상회하는 國防費를 순수 경제부문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南北對話는 韓國軍의 裝備現代化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南北間 軍事力 수준을 동결시키는 명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감되는 재원을 經濟부문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는 점에서 北韓은 대화를 택했던 것이다.

또한 國際情勢의 측면의 시각에서 보자면,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호 부정적 입장에서 패권을 다투던 美·蘇가 相互共存的 관계로 轉換하면서 데탕트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美·蘇를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에 中國·日本·西歐가 새로이 가세하는 多極體制가 서서히 자리잡아 나가기 시작했다.

아울러 東北亞의 세력구조도 종래의 韓國·美國·日本の 자유진영과 蘇聯·中國·北韓의 공산진영으로 兩分化된 勢力陣營間的 均衡이 흔들리게 되었다.

1971년부터 美·中國간 접근이 急進展되기 시작하였고 1972년 2월에는 「닉슨」美國大統領이 北京을 방문, 급기야 中國의 유엔가입과 中國과 美·日간의 외교관계 수립이 합의되는 단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中國의 對美·日 접근은 韓半島 周邊勢力간의 勢力均衡이 새로이 再編되는 현상을 낳았고, 결국 국가이해관계를 중요시 하는 민족주의적 경향이 이데올로기에 의한 맹목적인 결속을 퇴색시키게 하였다.

또한 美國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役割縮小를 전제로 한 「닉슨독트린」은 日本의 군비강화와 역할증대를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다는 점⁴³⁾에서 동북아세력구조의 개편은 우리 韓民族에게 새로운 適應을 요구하고 있었다.

결국 韓半島問題에 대한 周邊勢力들의 입장도 이데올로기가 같은 友邦의 주도하에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는 從前의 입장 대신에 「韓半島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旋回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실제 周邊勢力들이 韓半島 통일문제에 대해 적극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임과 동시에 武力挑發에 의해 韓半島의 현상유지가 와해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의 急進展은 歷史的으로 주변 강대세력간의 交叉點으로 간주되던 韓半島의 南과 北에 커다란 衝擊을 던져 주게 되었으며, 南北韓은 종래의 대결구조를 再省察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은 韓半島를 둘러싼 內外情勢의 변화가 1970년대 초반 南北對話 성립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南北對話에 관한 최초의 이니셔티브가 北韓이 아닌 韓國側에 있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韓國이 國際情報의 유입이 자유로운 개방사회로서 주변정세의 변화를 수용할 능력이 北韓側보다 많았을 뿐만 아니라, 南北간의 상호 개

방에 따른 衝擊요인이 北韓側보다 훨씬 가벼웠다는 사실에 기인한다.⁴⁴⁾

마침내 韓國의 朴正熙大統領은 1970年 8月 15日 光復節 慶祝辭를 통해 人道的 견지와 統一基盤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南北韓에 가로 놓인 人爲的 障壁을 段階的으로 除去해 나갈 수 있는 劃期的이고도 보다 現實的인 方案을 提示할 用意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北韓에게 『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그 어느 體制가 國民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와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평화통일구상」을 선언하였다.

「平和統一構想」의 宣言은 긴장완화로 흐르는 國際潮流를 감안, 南北韓이 軍備競爭을 지양하고, 서로 통일수단으로서 武力行使를 拋棄한다는 전제하에 南北關係를 「開發과 建設과 創造」를 향한 선의의 體制競爭關係로 전환시키고, 이 基調위에서 南北間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段階的으로 제거하여 분단으로 인한 民族的 苦痛과 불행, 불편을 경감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⁴⁵⁾ 그러나 金日成은 같은 해 11월에 있는 노동당 제5차 전당대회 政治報告에서 『…이제 北韓의 전주민은 누구나 총을 쏠 줄 알고, 全地域이 要塞化되었으며, 裝備가 한층 더 現代化되고 全軍이 次上級 指揮能力을 갖도록 幹部化되어 4大軍事路線이 完了된 만큼 中·蘇의 지원없이도 南朝鮮 解放을 主導할 수 있다』고 호언했다.⁴⁶⁾

이처럼 韓半島의 脫冷戰宣言인 「平和統一構想」에 대해 냉랭한 反應을 보였던 北韓側도 南北韓間 直接對話를 바라는 내외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金日成이 1971年 8月 6日 「南北政治協商」의 참가자 범위에 관한 종래의 고집을 완화하면서 대화의 상대로서 韓國의 執政黨을 첫째로 지적했다는 것은 의미깊은 일로서, 이후 韓國側이 제의한 南北赤十字會談이 성과를 거두게 한 前奏曲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南北對話의 開幕

가. 南北赤十字會談

(1) 韓赤의 會談提議와 北赤의 受諾

1971년 8월 12일 大韓赤十字社 崔斗善總裁는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南北韓에 흩어져 살고 있는 離散家族들의 人間的 苦痛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再結合을 주선해 주기 위해 南北赤十字會談을 개최할 것을 北韓赤十字會에 提議했다. 이날 崔總裁의 特別聲明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4半世紀에 걸친 南北間의 障壁은 온갖 民族的 悲劇의 源泉이며 특히 南北으로 갈린 離散家族들의 悲劇은 今世紀 人類의 象徴의 悲劇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人類愛와 災難의 救護를 위한 奉仕를 基本으로 하는 赤十字精神을 具現해야 할 우리에게 있어서 실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이러한 離散家族들의 悲劇은 南北間에 障壁이 解消됨으로써 완전히 終熄될 것이나 이것이 短時日內에 이룩되기 어려운 現實下에서 적어도 1천만 南北 이산가족들의 實態를 確認하고 이들의 소식을 알려주고 再會를 주선하는 「가족찾기운동」만이라도 우선 展開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大韓赤十字社를 代表하여 赤十字精神에 따라 남북간의 순수한 人道的 問題들을 解決할 목적으로 北韓赤十字社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提議합니다.

첫째, 南北間의 家族찾기運動을 具體的으로 協議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南北赤十字社 代表가 한자리에 마주 앉아 會談할 것을 提議합니다.

둘째, 本 會談의 節次上的 問題를 協議하기 위하여 늦어도 오는 10월안으로 「제네바」에서 豫備會談을 開催할 것을 提議합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提議에 대하여 北韓赤十字會가 放送·通信網 또는 國際

赤十字社를 통해서나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그 의사를 우리에게 傳達하여 줄 것을 희망합니다...」⁴⁷⁾

이틀 뒤인 8월 14일 북한의 평양방송은 北赤 중앙위원회 위원장 孫成弼이 韓赤 崔斗善總裁 앞으로 보내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서한내용을 전문 보도했다.

『貴下는 지난 8월 12일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赤十字會에 南北으로 갈려진 血肉들의 家族찾기 運動을 展開할 것과 이와 關聯한 문제들을 協議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안으로 南北朝鮮 赤十字團體들의 豫備會談을 「제네바」에서 가질 것을 提議했습니다. 우리는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親友」들의 절절한 念願에 비추어 볼 때 다만 家族찾기運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認定합니다. 우리는 南北朝鮮 赤十字團體들의 會談에서 家族찾기運動을 包含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討議할 것을 提議합니다.

첫째,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親友」들간의 자유로운 來往과 相互訪問을 실현하는 문제

둘째,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親友」들간의 자유로운 書信去來를 실시하는 문제

세째, 「家族」들을 찾아주고 相逢을 마련해 주는 문제

우리는 오는 8월 20일 12시에 우리 赤十字會의 書信을 가진 2명의 派遣員을 板門店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 時刻에 貴社의 派遣員이 現場에서 우리의 書信을 手交받기를 바랍니다.』⁴⁸⁾

이와 같은 北赤의 反應은 그 가운데 韓赤이 提議한 순수한 人道的 次元의 「가족찾기운동」을 넘어선 政治的 問題들을 포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會談이 열릴 경우 토의될 사업대상을 「친우」문제까지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의도가 人道的 目的보다는 政治的 目的을 위하여 赤十字會談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록 北赤의 反應 속에 그러한 非人道的 意圖가 감추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韓赤은 일단 12일의 提議를 北赤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板門店 접촉을 갖기로 했다. 이로써 실로 分斷 4半世紀만에 처음으로 南北間에 대화가 시작되었으며, 한반도

의 역사에 하나의 새로운 章이 열리게 되었다.

1945년의 國土分斷 이후 韓半島의 南과 北에는 수백만명의 「離散家族」이 발생했다. 이들 「離散家族」이 겪고 있는 人道的 苦痛은 歷史上 어떠한 外國의 경우와도 달라 이들의 경우에는 헤어진 父母·兄弟·姉妹·子女 등과 재회나 書信往來가 안되는 것은 물론 서로의 소식조차 들을 수 없는 完全한 相互斷絶속에서 4半世紀 이상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물론 1953년의 休戰以後 南北간에 이같은 失鄉難民의 문제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첫번째의 노력은 休戰協定 제 3 조 59 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失鄉難民 歸鄉協調委員會」를 통하여 1953년 12월 11일부터 1954년 3월 1일까지의 사이에 전개되었다. 大韓民國측은 公開申告의 방법을 통해 北韓 地域으로의 歸鄉希望을 밝힌 以北出身 失鄉難民 76명 중 최종단계에서 의사를 변경한 39명을 제외한 37명을 1954년 3월 1일 板門店에서 北韓측에 넘겨주었으나 北韓측은 19명(「터키」人 11명과 白系「러시아」人 8명)의 외국인만을 넘겨 보내고 한국인은 한명도 보내지 않았다.

두번째의 노력은 國際赤十字委員會를 통하여 전개되었다. 1954년 大韓民國政府는 제네바의 國赤에 대해 1952년 캐나다에서 열린 제 18 차 赤十字國際會議에서 채택된 결의 제 20 호 「離散家族의 재회알선에 관한 決議」에 근거하여 韓半島에서 발생한 離散家族問題의 人道的 해결을 알선하는데 國赤이 개입할 것을 요청했다. 國赤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1955년 11월 國赤代表團의 南北韓 現地實態調查訪問을 提議했다. 大韓民國은 이 제의를 받아 들이고 구체적인 사업방법으로 ① 安危와 行방의 조사, ② 生存者에 관한 消息通報 및 生存者와 가족간의 통신, ③ 原居住地로의 歸還 등 3段階方案을 提示, 이를 國赤 主管下에 추진할 것을 提議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처음에는 國赤의 介入提議를 묵살하다가 1957년 1월 國赤의 現地實態調査訪問은 拒否하고 그대신 南北赤間의 直接會談을 提議하는 한편 南北赤의 주선으로 雙方地域의 離散家族間에 문안편지를 直接交換케 하자고 주장했다. 이같은 北韓측의 주장은 該當者의 生死與否는 물론 거처의 確認 등 기초절차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오로지 宣傳目的을 充足시키는데 목적을 둔 것이었다. 이 동안 韓赤은 國赤을 통하여 南韓지역에서 1차적으로 신고된 拉北人士 7천 34명의 生死與否와 행방을 北韓측에 문의했으며, 이에 맞서 北赤은 1만 4천 1백 32명의 越南人士들의 安危와 행적을 韓赤에 問議해 왔다. 1957년 11월 北赤은 韓赤이 問議한 7천 34명중 3백 37명의 생존자 名單만을 韓赤에 알려왔고 韓赤은 北赤이 問議한 1만 4천 1백 32명중 1만 4천 1백 12명은 拉致가 아니라 自意에 의한 越南者라고 北赤에 알려 주었다.⁴⁹⁾

1971년 8월 20일 정오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南北 雙方의 赤十字間의 첫 派遣員接觸이 이루어졌다. 韓赤 庶務部長 李昌烈과 涉外部參事 尹汝訓이 北赤 文化宣傳部 副部長 서성철 및 指導員 염종련과 對坐한 이 접촉에서 韓赤은 北赤측에 崔總裁의 「8. 12 제의」를 담은 문건을 넘겨 주었고 北赤측으로부터는 崔總裁 앞으로 보내는 北赤 孫委員長의 書信을 넘겨 받았다.

이들 派遣員들은 8월 26일 제 2 차 접촉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韓赤측은 「예비회담절차에 관한 제의」를 담은 崔總裁의 서한을 北赤側에 수교했다. 崔總裁의 提議內容은 다음과 같았다.

- ① 南北赤十字間의 豫備會談은 오는 9월 28일 상오 11시 板門店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 ② 同 豫備會談에는 雙方에서 각기 5명의 代表가 참가한다.
- ③ 同 豫備會談에 참가하는 쌍방 代表團의 명단은 9월 24일 정오 板門店 중립

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交換한다.

- ④ 人道的 南北赤十字會談의 의제에 있어서 8월 12일자 나의 제의에서 밝힌 바 있는 「家族찾기運動」의 의미는 서신교환·往來等を 포함하여 남북으로 흩어진 離散家族의 苦痛을 解消하기 위한 一切의 人道的 問題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議題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예비회담에서 討議·決定키로 한다.
- ⑤ 本會談의 장소·회의진행에 따른 諸般 節次 및 기타 一切 事項은 豫備會談 代表들이 討議·決定토록 委任한다.」

8월 30일의 제 3 차 派遣員接觸에서 北赤側은 豫備會談 첫 會議날자를 9월 20일로 수정제의했고, 9월 3일의 제 4 차 접촉에서 韓赤側이 北赤側 修正提議 受諾을 통고함으로써 南北赤十字豫備會談 開催準備은 모두 완결되었다. 9월 16일 마지막 派遣員接觸에서 雙方은 豫備會談 代表名單을 다음과 같이 相互 交換했다.

〈韓 赤〉

首 席 代 表 : 金鍊珠(韓赤 保健部長兼 涉外部長)
交 替 首 席 代 表 : 朴善圭(韓赤 忠南支社長)
代 表 : 鄭洪鎭(韓赤 會談事務局 會談運營部長)
代 表 : 鄭喜卿(韓赤 靑少年指導委員·梨花女高校長)
代 表 (代辯人) : 鄭炆年(韓赤 會談事務局 代辯人)

〈北 赤〉

團 長 : 김태희(北赤 中央委 書記長)
副團長(代辯人) : 김덕현(北赤 中央委 報道部長)
代 表 : 조명일(北赤 中央委 文化宣傳部長)
代 表 : 리종학(北赤 中央委 參事)
代 表 : 서성철(北赤 中央委 文化宣傳部 副部長)

(2) 豫備會談의 進行

(가) 南北直通電話 架設

南北赤十字豫備會談 첫회의는 1971년 9월 20일 상오 11시 板門店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公開會議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韓赤측은 會談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板門店地域에 雙方의 상설연락사무소의 設置와 連絡官의 常駐, 그리고 雙方 連絡사무소간을 연결하는 直通電話의 架設·運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北赤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남북간에는 1945년 南北間의 電話運用이 중단된 以來 26년만에 제한된 목적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전화연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 南北赤 쌍방은 板門店 공동경비구역내에 있는 「自由의 집」과 「板門閣」에 각기 상설연락사무소를 設置하고 9월 22일 두 사무소를 연결하는 往復 2回線의 電話線을 가설하여 이를 개통시켰다.

(나) 豫備會談 議題 및 進行節次 合意

그러나 豫備會談은 벽두부터 실무적 차원에서 질서 있게 회담을 이끌어 가려는 韓赤과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성을 띤 포괄적인 제안으로 정치적 선전효과를 노리려 드는 北赤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난항이 시작되었다.

韓赤은 9월 20일의 제 1 차 예비회담에서 예비회담의 토의의제를 결정·채택하기에 앞서 ① 豫備會談의 장소와 시설문제, ② 隨行員의 數와 會談時 座席配置問題, ③ 會談記錄과 內容確認問題, ④ 발언순서와 發言者指定問題, ⑤ 會談公開與否問題, ⑥ 合意內容 발표방법문제, ⑦ 常設連絡事務所 設置問題 等 7個項目의 豫備會談運營 및 進行節次에 관하여 먼저 討議·合意할 것을 제의했다.

반면 北赤은 이같은 豫備會談 進行節次問題는 제쳐놓고 느닷없이 本會談의 議題와 進行節次에 관한 제안을 내놓고 당장 이를 토의·결정하자고 우겨 대었다. 즉 豫備會談에 대하여는 言及도 없이 本會談 장소는 板門店으로 하고, 여기에 北赤이 일방적으로 會談建物을 新築하고, 本會談議題에는 「가족찾기운동」의 범주를 넘어선 「親友」를 포함시키며, 本會談 代表는 雙方 赤十字團體 責任者(南=總裁, 北=委員長)로 한다는 것 등이었다.

北赤側의 이같은 성급한 제안은 豫備會談의 議題와 進行節次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本末을 顛倒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北赤측이 韓赤측의 이같은 정당한 지적을 인정함으로써 9월 29일에 열린 제 2 차 회담에서는 예비회담의 진행절차와 의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1. 豫備會談 場所

- ① 예비회담 장소는 板門店 中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로 한다.
- ② 회의장내 시설은 雙方代表團의 實務者間에 協議 해결한다.

2. 常設連絡事務所의 運營

- ① 大韓赤十字社는 「自由의 집」에, 北韓赤十字會는 「板門閣」에 각각 상설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 ② 쌍방은 상설연락사무소를 연결하는 直通 往復電話를 가설한다.
- ③ 南北赤十字간에 문서전달이 필요할 때에는 常設連絡事務所間의 直通電話로 연락을 취한 후 쌍방 근무자가 中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만나서 전달한다.
- ④ 常設連絡事務所에는 쌍방 각기 2명의 근무원을 배치하되 평일은 09 : 00부터 16 : 00, 토요일은 09 : 00부터 12 : 00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한다.

3. 隨行員數와 座席配置

豫備會談 隨行員數는 장소관계로 각기 10명이내로 한정하고 좌석배치는 代表團座席 후면에 임의로 한다.

4. 會議記錄과 確認

예비회담 회의기록은 각기 하되 쌍방 공히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 확인토록 한다.

5. 發言方式

豫備會談에서의 발언방식은 원칙적으로 首席代表가 발언하되, 필요할 때에는 수석대표가 지명하는 餘他代表도 발언할 수 있다.

6. 會談의 公開與否

- ① 예비회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② 記者들의 取材便宜를 도모하기 위하여 會議開始前까지 會議場內 取材를 허용하며 會議中에는 쌍방 기자실에 확성기를 설치한다.

7. 次期 會談日時

次期 會談日時는 每會談 종료시 또는 常設連絡事務所를 통해 합의·결정한다.

8. 合意內容의 公表

每次의 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한 사항에 관한 공표는 합의사항만을 각각 문서로 작성·교환하여 서로 확인한 후 내용이 일치되면 각기 공표한다.

9. 豫備會談의 議題 및 順位

- ① 本會談場所
- ② 제1차 本會談 開催日時

- ③ 本會談 議題
- ④ 本會談 代表團 構成
- ⑤ 기타 本會談 進行節次

(다) 本會談 場所의 決定

9월 29일의 제 2 차 豫備會談에서 韓赤側은 南北赤十字 本會談의 개최는 分斷된 祖國의 조속한 統一을 갈망하는 南北 5천만 민족의 기대와 염원에 도 부응하는 것임을 지적, 본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北赤側은 이에 대해 교통과 통신사정과 대표단 활동의 安全 및 自由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本會談場所를 板門店으로 할 것을 완강히 주장했으나 10월 6일의 제 3 차 豫備會談에서 들연 태도를 바꾸어 韓赤側의 서울·평양 운번 개최제의를 수락했다.

(라) 本會談議題 協商의 難航

제 6 차 豫備會談에서부터 쌍방은 本會談 議題를 결정하기 위한 토의를 시작했으나 이 議題討議는 豫備會談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고비가 되었다. 왜냐하면 南北赤十字會談의 목적을 赤十字 人道主義事業 본연의 事業領域인 離散家族問題의 해결에 두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北赤측의 企圖가 本會談議題 討議過程에서 적나라하게 표면화되어 이 會談을 순수한 赤十字會談으로 진행시키려는 韓赤側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회담의 교착상태가 무한정 장기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쌍방은 다음 해인 1972년 6월 16일의 제 20 차 豫備會談에서 本會談議題에 완전히 합의하기까지 무려 15회의 예비회담 전체회의와 13회의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어야 했으며 전체 豫備會談期間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8個月의 시간을 本會談 議題에 관한 討議에 소모해야 했다.

제 6 차 會談에서 韓赤側은 다음과 같은 5個項目을 本會談議題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 ①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고 그들의 소식을 알려주는 문제
- ②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의 서신교환문제
- ③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의 재회알선 및 상호방문문제
- ④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의 재결합문제
- ⑤ 기타 부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韓赤이 제의한 議題는 생사와 거처확인→소식통보→서신교환→면회(또는 상봉)→재결합으로 이어지는 國際赤十字 尋人事業에서 통용되는 事業項目과 順序⁵⁰⁾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이같은 尋人事業의 성패가 최대한의 정치성 배제에 걸려 있다고 볼 때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北赤側은 심인사업의 대상에 결코 「離散家族」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고 그 범위조차 애매한 「친우」를 포함시키고 事業의 順位를 「家族」보다는 「親友」를 강조했을 뿐 아니라, 事業展開의 자연스러운 順序를 무시하고 이른바 南北間의 「自由來往과 相互訪問」에 역점을 두는 등 남북간 인도적 비극의 핵심을 이루는 離散家族의 고통을 순수하게 덜어주는 일은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 그러나 韓赤側의 꾸준한 설득에 의하여 北赤이 사업대상에서 「親友」를 유보케됨으로써 사업대상에 관한 타결의 실마리가 풀리기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本會談議題 確定을 위한 討議는 그 뒤에도 6개월간을 더 끌어야만 했다. 踏步의 原因은 議題 文案에 『家族과 親友들 사이의 「自由로운 來往」』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北赤側의 끈질긴 고집에 있었다.

北赤이 議題文案에 「自由로운 來往」이라는 표현을 明記하려고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北赤의 「자유來往」 주장은 尋人事業의 여러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무조건 當事者들이 마음대로 南北을 오가게 하자는 것으로 이것은 남북적십자회담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韓半島 分斷의 現實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말하자면 北赤은 적십자회담을 통해 離散家族의 고통을 인도적 차원에서 덜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정치적 선전선동을 벌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韓赤은 公開會議로 열리는 豫備會談 全體會議에서의 本會談 議題討議가 계속 교착되자 1972년 2월 10일의 제 18 차 豫備會談에서 『本會談議題 文案整理를 위한 非公開 實務會議』를 가질 것을 제의하였고, 北赤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1972년 2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모두 13회의 實務會議를 거듭한 끝에 5개항목의 本會談議題에 합의, 6월 16일의 제 20 차 豫備會談에서 이를 채택·확정시켰다. 5개항목의 本會談 議題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 ②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友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 ③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友들 사이의 자유로운 書信去來를 實施하는 문제
- ④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의 自由意思에 의한 再結合問題
- ⑤ 기타 人道的으로 解決할 問題

(마) 本會談 代表團 構成

1972년 7월 10일의 제 21 차 豫備會談에서부터 南北赤 雙方은 本會談代表團 構成問題를 토의하기 시작했다. 韓赤은 우선 代表團規模와 관련하여 대표단은 쌍방 각기 7명으로 구성하고 隨行員은 각기 20명, 그리고 각기

필요한 수의 지원인원을 대동할 것을 제의했는데, 이에 대해 北赤이 代表團을 쌍방 각기 赤十字機關 책임자를 단장으로 하는 5~7명씩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하여 우선 각기 7명씩의 대표로 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7월 14일의 제 22 차 會談에서 쌍방은 本會談 首席代表는 각기 赤十字機關의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로 한다는데 합의했으나, 北赤側은 난데없이 「諮問委員」 문제를 들고 나와 會談 霧圍氣를 경화시켰다. 北赤側은 『현지에서 代表團의 문제처리에 협력하기 위해서』라는 구실하에 북한측에서는 「最高人民會議」와 政黨·社會團體代表들, 韓國側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國家機關과 政黨·社會團體들로 구성되는 각기 5~7명의 「諮問委員團」을 구성하여 대표단을 수행케 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北赤의 意圖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北赤은 시종일관 어떻게 해서든지 적십자회담을 「政治會談」으로 만들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막바지에 이른 豫備會談의 조속한 종결을 위해서는 韓赤側이 또 다시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7월 19일의 제 23 차 회담에서 韓赤은 『쌍방은 각기 自己側의 필요에 따라 自己側 代表團의 자문에 응하게 될 7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임명하여 대표단을 수행케 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음으로써 대표단 구성문제를 매듭지었다. 쌍방은 또 양측 대표단이 각기 70명 내외의 수행원과 지원인원을 대동하기로 합의했다.

(바) 本會談 進行節次 合意

제 23 차 豫備會談에서 쌍방은 代表團 構成問題 타결에 이어 본회담 진행절차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 本會談 進行節次 토의에서도 北赤側의 완강한 태도로 會談은 난항을 거듭하였다.

北赤側은 우선 첫 本會談 場所로 平壤을 고집했고 70명내외로 일단 합의했던 隨行員과 支援人員數를 대폭 줄이자고 주장하고 나섰으며, 韓赤側

이 내신기자의 대표단수행 취재허용은 물론 외신기자들을 대표단일행에 포함시켜 취재편의를 도모해 주자고 제의하자 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쌍방은 北赤의 제의로 첫 本會談 日字를 1972년 8월 5일로 합의·발표하기까지 했으나 이상과 같은 會議進行節次 討議의 난항때문에 일단 합의된 이 日字는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7월 27일부터 雙方間에는 「本會談 進行節次 協議를 위한 實務會議」가 세차례 (7월 27일, 8월 3일, 8월 9일)에 걸쳐 열린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本會談 其他 進行節次와 本會談 日時에 관한 合意」가 이루어져 8월 11일의 마지막 제 25 차 豫備會談에서 채택·확정됨으로써 豫備會談은 大團圓의 막을 내리고 本會談 개최준비는 완결되게 되었다. 「本會談 기타 進行節次와 本會談 日時에 관한 合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本會談 첫 會議 問題

第1次 本會談은 平壤에서 개최하며 第2次 本會談은 서울에서 개최한다.

2. 身邊 保障

- ① 초청측은 상대측의 代表團과 記者團의 往來와 滯在期間中 그들의 文書, 寫眞, 「필름」, 錄音「테이프」, 取材수첩, 報道資料 및 기타 필요한 휴대품들에 대한 不可侵을 보장한다.
- ② 쌍방은 關係當局이 本會談을 위하여 자기측 지역에 오는 상대측 代表團과 記者團의 신변과 활동상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측 인원 전원을 매번 무사히 돌려보낼 것을 보장하는 내용의 聲明을 相互 往來 開始 1주일전에 발표하고 그 聲明文本을 교환한다.

3. 往來節次

- ① 雙方은 自己側 代表團과 記者團의 명단(성명, 성별, 직책)과 사진을 자기측 지역을 출발하기 3일전에 相對側에 넘겨주고 그 후 변동되는 사항은 直通電話로 통지하고 板門店 連絡事務所를 통하여 이를 문서로 넘긴다.

相對側에 넘기는 往來人員 명단에는 赤十字 責任者가 서명한다. 추후 변동되는 명단에는 위임에 의하여 板門店 連絡事務所 責任者가 서명할 수 있다.

- ② 代表는 自己側 赤十字社 責任者가 발급한 信任狀과 身分證明書を 소지하며 諮問委員, 隨行員 및 記者團은 身分證明書を 所持한다.
- ③ 雙方의 代表團과 記者團은 板門店을 통과지점으로 하며 그 통과 및 접수시간은 쌍방이 협의 확정한다.

④ 板門店을 通過할 때의 節次

- 쌍방은 쌍방 人員들의 板門店 통과와 관련된 업무를 板門店 常設 連絡事務所 責任者와 실무자들이 담당 수행하게 하며, 이들의 명단을 상호 상대측에 통지한다.
- 板門店을 통과할 때의 일체의 업무는 雙方 赤十字社가 전담 수행한다.
- 쌍방의 모든 遮斷所들은 往來하는 인원들과 차량들을 단속하지 않고 통과시킨다.
- 相對側 人員을 접수할 때에는 板門店 常設 연락사무소가 있는 區域의 指定된 장소에서 招請側이 相對側으로부터 3일전에 넘겨 받은 명단에 의거하여 相對側 人員들의 身分證明書を 대조 확인한 후 상대측 인원들을 접수한다.
- 招請側은 板門店 常設 連絡事務所 責任者가 서명하여 접수된 人員

名單을 相對側에 넘겨준다. 돌아갈 때에는 접수된 人員名單에 의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4. 滯留期間과 會談日程

- ① 滯留期間은 4~6일로 하고, 具體的인 滯留日程 및 會談日程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 ② 相對側 地域에 체류하는 代表團과 記者團은 각각 相對側의 秩序와 안내에 따르도록 한다.

5. 標 識

- ① 쌍방의 代表團은 각기 자기측 赤十字社의 휘장을 사용한다.
- ② 쌍방의 기자단은 자기측 赤十字社의 휘장과 자기측이 편리하다고 생 각되는 단일색 바탕에 「記者」라는 글자를 박은 완장을 착용한다.
- ③ 쌍방의 交通手段에는 赤十字旗만 달도록 한다.

6. 裝備 및 所持品

- ① 쌍방은 無線 送受信機를 제외한 通信連絡, 會議記錄, 文件作成 및 取材活動에 필요한 휴대용 技術機材와 救急藥品, 간단한 휴대용 醫療器具, 事務用品 및 기타 회담과 보도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한다.
- ② 쌍방 人員들은 相對側 地域에 滯在中的 생활에 필요한 개인소지품, 出版物 및 기타 물품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 ③ 쌍방 人員들은 武器, 爆發物 등 有害 危險物質을 휴대하지 않는다.

7. 交 通

쌍방은 각기 자기측 地域에 들어오는 相對側 代表團과 記者團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통로와 交通手段을 보장한다.

8. 通 信

- ① 쌍방은 대표단 및 기자단을 위하여 남북사이에 총 20회선의 유선 전신전화선을 보장한다.
- ② 쌍방은 本會談의 진행과 관련한 통신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南北赤十字團體 中央機關 사이에 直通電話 2회선을 常時 開設하며 每次의 會談期間에는 相對側 地域에 가 있는 代表團과 자기측 赤十字 中央機關을 連結하는 直通電話 2回線(1回線은 會談場, 1回線은 宿所)을 보장한다.
- ③ 쌍방은 남북간을 연결하는 전신전화선들을 板門店의 편리한 지점에서 연결한다.
- ④ 南北사이에 연결되는 전신전화들의 용도별 분배 및 그 운영절차는 통신기술 실무자간에 협의한다.
- ⑤ 板門店 상설 연락사무소는 계속 운영한다.

9. 會談場外의 活動

쌍방은 滯在 期間中 相對側 人員들을 각종 참관에 안내할 수 있다.

10. 會談場 施設

- ① 會談場 施設은 招請側에서 會談運營에 필요한 시설을 준비하며, 會談場에서 代表團과 記者團이 자기측에 즉시 연락할 수 있는 通信施設을 설치한다.
- ② 招請側은 每 會談이 진행될 때마다 회의탁자 양끝 중심에 赤十字旗를 놓는다.

11. 會 議 記 錄

- ① 쌍방은 會議記錄을 각기 錄音器와 速記로 한다.

- ② 쌍방은 相對側 地域에 있는 代表團이 會談場에서 直接 自己側 赤字 機關에 증거할 수 있도록 錄音中繼線 2회선을 保障한다.

12. 會議 公開與否

- ① 會議는 원칙적으로 非公開로 하며, 쌍방 合意時 공개로 한다.
② 第1次 및 第2次 本會談의 첫날 會議는 公開로 한다.

13. 報道陣 問題

- ① 쌍방은 會談取材에 필요한 內信 報道陣의 數를 20명으로 한다.
② 쌍방은 每次 會談時 外信記者들을 招請側이 초청하며, 外信記者들에게 최대한의 회담취재 편의를 제공한다.
③ 쌍방은 報道에서 南北共同聲明 정신에 따라 相互 誹謗하지 않으며 南北間의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며 정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14. 會談 運營形式

- ① 會談場의 參席人員은 代表, 諮問委員, 隨行員으로 한다.
② 會談 發言은 首席代表가 하되, 필요시에는 餘他 代表도 발언할 수 있다.
③ 쌍방은 諮問委員의 發言問題에 관하여 討議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보류키로 하였다.

15. 合意文件 作成 및 發表

쌍방은 合意文件을 共同으로 작성 署名하여 동시에 발표한다.

16. 便宜 提供

招請側은 相對側의 代表團과 記者團의 滯在 期間中 宿食, 交通, 通信, 醫療, 報道 및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17. 會談을 위하여 南北을 往來하는 人員數
각각 代表 7名, 諮問委員 7名, 隨行員 20名, 內信 報道陣 20名으로 한다.

18. 本會談 日時
第1次 本會談은 1972年 8月 30日 오전 10시 平壤에서 開催하며,
第2次 本會談은 1972年 9月 13日 오전 10시 서울에서 開催한다.

南北赤 쌍방은 合意된 進行節次에 따라 北赤은 8月 13日, 韓赤은 8月 17日 本會談 代表團 및 諮問委員 명단을 각기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韓 赤

<代表團>

首席代表 : 李範錫(韓赤 副總裁)
交替首席代表 : 金鍊珠(韓赤 保健社會部長)
代 表 : 金達述(韓赤 會談事務局長)
代 表 : 朴善圭(韓赤 忠南支社長)
代 表 : 鄭喜卿(韓赤 青少年指導委員·梨花女高校長)
代表(代辯人) : 鄭炆年(韓赤 會談事務局 代辯人)
代 表 : 徐英勳(韓赤 青少年部長)

<諮問委員>

金 俊 燁 : 高麗大 教授
趙 德 松 : 朝鮮日報 論說委員
梁 興 模 : 中央日報 論說委員
朴 俊 圭 : 서울大 教授
具 範 謨 : 서울大 教授

宋 建 鎬 : 東亞日報 論說委員

北 赤

〈代 表 團〉

團 長 : 김태희(北赤 副委員長)
副 團 長 : 주창준(北赤 書記長)
代表(代辯人) : 조명일 (北赤 常務委員)
代 表 : 궁상호(北赤 參事)
代 表 : 이청일(北赤 常務委員·女)
代 表 : 한시혁(北赤 文化宣傳部長)
代 表 : 김수철(北赤 計劃部 副部長)

〈諮 問 委 員〉

윤 기 복 : 「勞動黨」對外連絡委 副委員長
김 성 룰 : 「民主黨」副委員長
강 장 수 : 「天道教靑友黨」副委員長
김 길 현 :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書記局 副局長
백 남 준 : 「職業總同盟」副委員長
오 광 택 :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副委員長
김 병 식 : 「朝總聯」第1 副議長

8月 16日 쌍방은 「通信實務者會議」를 板門店에서 열어 총 20回線의 南北直通電信·電話回線을 가설키로 하는 내용의 「南北 電信·電話 架設·運用에 관한 通信技術者實務會議 合意書」에 합의하고, 이에 의거하여 8月 17日 南北直通 電信回線들을 가설했다. 이어서 8月 22日에는 韓國側을 代表하여 李厚洛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共同委員長이, 그리고 北韓側을 代

表하여 「社會安全省」이 각기 상대편 赤十字本會談 代表團 一行의 身邊安全을 보장하는 聲明을 발표했으며 8月 26日에는 서울과 平壤의 赤十字中央機關間의 直通電話가 개통되었다.

나. 南北共同聲明 發表

南北赤十字豫備會談이 板門店에서 進行되고 있을 때 南北韓間에는 國內外에 충격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키게 될 역사적인 작업이 막후에서 추진되고 있었다.

1972年 7月 4日 오전 10시 서울과 平壤에서 南北共同聲明이 동시에 발표되었다. 서울에서는 中央情報部長 李厚洛, 平壤에서는 「勞動黨 組織指導部長」 金英柱를 대리하여 「第2 副首相」 朴成哲이 각기 발표한 南北共同聲明의 전문은 다음과 같았다.

〈南 北 共 同 聲 明〉

최근 平壤과 서울에서 南北關係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이 1972年 5月 2日부터 5月 5日까지 平壤을 訪問하여 平壤의 金英柱 組織指導部長과 會談을 進行하였으며, 金英柱 部長을 대신한 朴成哲 第2 副首相이 1972年 5月 29日부터 6月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李厚洛 部長과 會談을 進行하였다.

이 會談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誤解와 不信을 풀고 緊張의 高潮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祖國統一原則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統一은 外勢에 의존하거나 外勢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自主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統一은 서로 相對方을 反對하는 武力行使에 依據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思想과 理念·制度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南北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民族의 연계를 回復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南北사이에 다방면적인 諸般交流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南北赤十字會談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突發的 軍事事故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直接,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平壤 사이에 常設 直通電

話를 놓기로 合意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合意事項을 추진시킴과 함께 南北사이의 諸般問題를 개선 해결하며 또 合意된 祖國統一原則에 기초하여 나라의 統一問題를 해결할 목적으로 李厚洛 部長과 金英柱 部長을 共同委員長으로 하는 南北調節委員會를 構成·運營하기로 合意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一日千秋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上部의 뜻을 받들어

李 厚 洛 金 英 柱

1972年 7月 4日

(1) 實務者간의 秘密接觸과 相互訪問

7·4 南北共同聲明의 탄생을 가져온 南北韓間的 비밀막후교섭은 1971年 9月 20日부터 板門店에서 進行되고 있는 南北赤十字豫備會談과 병행하여 같은 해 11월 이와는 별도로 大韓民國의 李厚洛 中央情報部長과 北韓「勞動黨」의 金英柱 組織指導部長의 「信任狀」을 지참한 實務者間的 비밀접촉이 성립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실무자 접촉은 第9次 南北赤十字豫備會談 다음날인 1971年 11月 20日 韓赤의 鄭洪鎮, 北赤의 김덕현 두 豫備會談 代表가 韓赤 鄭代表의 제의로 단독접촉을 가짐으로써 시작되었다.

- 大韓民國이 赤十字豫備會談과는 별도로 이 같은 비밀 실무자접촉을 제의한 이유는 北韓側이 同意하기만 한다면 赤十字會談과는 별개의 南北間

政治的 對話通路를 마련해 보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이는 다음의 두가지 동기에 기인한 것이다.

첫째로, 赤十字豫備會談의 진행과정을 살펴볼 때 6차회담이래 本會談議題討議가 본격화됨에 따라 北赤側의 기본자세가 赤十字會談을 순수한 赤十字會談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이를 政治會談으로 변질시키려 하는 것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같은 北韓側의 政治會談化 기도를 무산시키고 순수한 赤十字會談으로서의 국한된 임무에 입각하여 진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南北間에 별개의 政治的 對話通路가 마련됨으로써 政治性을 띤 문제들이 赤十字會談에서 討議되지 않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로, 1960年代 중반이래의 세계적인 긴장완화추세에도 불구하고 韓半島情勢는 1960年代 후반에 와서 더욱 격화된 北韓의 對南武力挑發行爲로 긴장상태가 前例없이 고조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大韓民國은 1970年 8月 15日 朴正熙大統領이 內外에 천명한 「平和統一基盤造成에 관한 構想」 宣稱을 계기로 南北間의 과도적인 平和共存關係의 정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南北間의 선의의 體制競爭을 모색하고 있었다. 大韓民國은 南北間에 政治的 對話通路를 마련함으로써 北韓과의 直接對話를 통하여 이 같은 새로운 韓半島 平和定着政策 추진의 계기를 포착하려 했던 것이다.

鄭·金 두 실무자간의 板門店 비밀접촉은 1971年 11月 20日부터 1972年 3月 22日까지 11회에 걸쳐 계속된 끝에 정치적 대화를 트기 위하여 李厚洛·金英柱間的 兩者會談을 개최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朴正熙 大統領으로부터 南北間 政治的 對話 推進任務를 부여받은 李厚洛部長은 그의 北韓側 對話相對役으로 金日成의 實弟이자 「勞動黨」 組織指導部長으로서 北韓의 權力構造內에서 金日成에 버금가는 實權者로 간주되었던 金英柱를 지명했고 北韓側도 이에 同意했다. 大韓民國側은 李·金 兩者會談의

장소로 「제네바」나 「파리」등 第3國의 장소를 제의했으나 北韓側은 李厚洛部長의 先平壤訪問을 주장, 결국 李·金 兩者가 平壤·서울을 交換訪問하되 李厚洛部長이 먼저 平壤을 訪問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李厚洛部長의 平壤訪問에 앞서 南側의 鄭洪鎭은 1972年 3月 28日~31日 平壤을, 北側의 金덕현은 4月 19日~21日 서울을 각기 단독으로 비밀리에 교환방문하여 李厚洛·金英柱 兩者의 平壤·서울 교환방문을 위한 제반 사전준비를 끝냈다. 쌍방은 李·金 兩者의 交換訪問時 서울·平壤間의 통신연락을 위하여 서울의 李厚洛 中央情報部長室과 平壤의 金英柱 「勞動黨」 組織指導部長室을 연결하는 直通電話를 架設·運用하기로 합의, 4月 29日 동 직통전화가 개통되었다.

(2) 李厚洛·朴成哲의 서울·平壤 相互訪問

이와 같은 준비단계를 거쳐 李厚洛部長은 3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1972年 5月 2日 板門店을 經由, 極秘裡 平壤訪問길에 올랐다.

5月 2~5日의 3泊 4日間 平壤에 체류하는 동안 李厚洛部長은 金日成과 두차례, 金英柱와 두차례 會談했다.

金日成과의 會談에서 李厚洛部長은 朴大統領으로부터 지시받은 南北關係發展과 統一問題解決에 관한 大韓民國側의 기본입장을 설명했다. 討議는 南北間의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와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고, 南北間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相互 誤解와 不信을 제거하고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쌍방의 의견이 합치되었다. 李厚洛部長은 南北間 相互 誤解와 불신의 근원은 상호 이념을 달리 하는 상이한 제도의 차이와 아울러 6·25 戰爭 및 戰後에도 계속된 北韓側의 각종 武力挑發과 顛覆陰謀로 인한 大韓民國 국민 일반의 뿌리 깊은 對北韓 不信感에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金日成은 1968년 1월 21일의 北韓軍 124軍部隊 特攻隊에 의한 청와

대 襲擊事件을 시인하고 이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다.

李厚洛部長과 金日成간의 협의는 뒤에 南北이 合意한 統一 3原則중 『통일은 外勢에 의존하거나 外勢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통일은 서로 相對方을 反對하는 武力行使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두가지의 基本 諒解를 바탕으로 쌍방은 南北間 緊張緩和와 誤解 및 不信의 제거, 이해와 신뢰의 造成을 위한 具體的 事業의 전개를 통해 「民族的 團結」을 추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李厚洛部長은 ① 相對方을 中傷·誹謗하지 말고, ② 대외선전목적을 지닌 一方의 統一方案을 제안하지 않으며, ③ 무력으로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우선 ① 南北赤十字會談을 성공시켜 離散家族의 가족찾기운동을 성사시키고, ② 南北間 人的·物的, 그리고 通信交流를 추진하며, ③ 여기서 이루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南北 政治會談을 開催하자고 제의했다. 金日成은 그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南北調節委員會」를 構成·運營하자고 제의하면서 南北韓 相互 軍縮問題를 제기했다.

李厚洛部長의 平壤訪問後에 朴成哲은 5월 29일~6월 1일의 3泊 4日間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했다. 李厚洛部長의 상대역은 金英柱였으나 金日成은 金英柱가 臥病中이라는 이유로 「金英柱의 代理人」으로 朴成哲을 대신 보냈다. 이후 金英柱는 南北對話 席上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의 役割은 계속 朴成哲이 代理했다.

3명의 수행원을 대동한 朴成哲은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李厚洛部長과 두차례 회담했고 朴正熙大統領을 한차례 예방했다. 서울에서 진행된 李厚洛·朴成哲間의 會談內容은 대체로 李厚洛部長이 平壤에서 金日成·金英

柱와의 會談時 討議된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쌍방은 서울측을 대표하는 李厚洛과 平壤側을 대표하는 金英柱가 共同委員長이 되고 각기 3~5명의 쌍방 대표로 構成되는 南北調節委員會를 構成·運營하기로 하고 同委員會안에 分野別 分科委員會를 설치하여 南北間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5月 31日 朴成哲이 靑瓦臺를 禮訪한 자리에서 朴大統領은 南北對話의 성패는 그 관건이 상호 不信을 제거하고 이해와 신뢰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걸려 있음을 강조, 南北分斷의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이 가능한 容易한 문제부터 段階的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그러한 노력의 첫 걸음으로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朴大統領은 南北韓體制의 극단적인 상호 이질성과 아울러 6·25戰爭과 休戰後의 間諜 및 「게릴라」南派등 北에 의한 계속된 武力 및 暴力挑發로 大韓民國 국민들이 北의 共產體制에 대해 뿌리 깊은 不信感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 그 같은 不信이 一朝一夕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不信의 제거 없이 성급하게 한꺼번에 서두른다고 해서 통일이 빨라질 수 없는 것인 만큼 南北쌍방은 통일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우선 體制의 差異를 초월하여 서로 相對方 體制를 시비함이 없이 같은 민족으로서의 民族的 同質性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南北直通電話架設·運用節次」合意

李厚洛·朴成哲의 서울·平壤 相互訪問과 이를 통해 이루어진 쌍방간의 高位會談은 역사적인 7·4南北共同聲明의 탄생을 가져 왔다. 쌍방은 비밀 교환방문을 통해 討議·合意된 내용을 共同聲明의 형태로 정리하여 國內外에 公表키로 합의하였으며, 실무적인 文案調整作業을 거쳐 6월 29일 最終合意된 共同聲明(案)에 李厚洛·金英柱 兩者의 署名을 끝내고 이를 7월 4일 오전 10시 발표하게 된 것이다.

南北共同聲明과 함께 南北쌍방은 李厚洛部長의 平壤訪問에 앞서 4월 28일 架設·開通하여 運用중에 있던 南北直通電話의 존재를 공식화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南北直通電話架設·運用節次에 관한 合意書」에 별도 合意, 이를 7월 4일 共同聲明發表와 동시에 공표했다. 同 合意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南北 直通電話 架設 및 運用에 관한 合意書〉

1. 直通電話의 設置目的

조국의 평화통일을 自主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課業과 기타 南北間에 제기되는 문제 및 不意의 事態에 對備하는 문제를 直接, 신속, 正確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平壤間 直通電話(以下 直通電話라고 함)를 設置 運用한다.

2. 直通電話 設置場所

直通電話는 서울에서는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의 사무실 그리고 平壤에는 金英柱 組織指導部長의 사무실에 각각 설치한다.

3. 運用 時間

直通電話는 日曜日과 公休日을 제외하고 매일 9時부터 12時까지, 16時부터 20時까지의 사이에 運用하며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以上の 指定된 시간과 날짜에 구애됨이 없이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여 運用한다.

4. 通話者

直通電話의 通話者는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한다.

서울에는 李厚洛 中央情報部長과 그가 指名한 3명으로 하며 平壤에서는 金英柱 組織指導部長과 그가 指名한 3명으로 한다.

5. 試驗通話

直通電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 3 項에 指定된 날의 10시에 試驗通話를 한다.

6. 故障修理

直通電話에 이상이 있을 때는 板門店 常設 連絡事務所를 통하여 이를 통보하고 쌍방은 각기 자기 管轄地域을 책임지고 보수하며 板門店 共同警備區域內의 고장은 兩側이 共同으로 修理한다.

7. 秘密保障

쌍방은 通話內容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한다.

8. 修正 또는 補充

本 合意書의 내용을 修正 또는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9. 有効期間

本 合意書는 서로 署名하여 交換한 때로부터 發效하여 쌍방의 합의에 따라 폐기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하다.

서 울

中央情報部長 李 厚 洛

平壤

組織指導部長 金 英 柱

1972年 7月 4日

4. 對話의 進行

가. 南北調節委員會

(1) 共同委員長會議

南北共同聲명의 발표에 이어 南北間에는 세차례의 共同委員長會議가 進行되었다. [제1차회의는 1972年 10月 12日 板門店「自由의 집」, 제2차회의는 11월 2일과 3일 平壤, 제3차회의는 11월 30일 서울에서 개최]

共同委員長會議의 開催目的은 南北調節委員會의 구성 및 발족에 필요한 諸般 절차를 協議·解決하는 한편 南北共同聲明 발표이후 南北관계의 變化를 상호 검토하는데 있었다. 그 결과 쌍방은 11월 4일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에 합의하는 한편 이에 근거하여 11월 30일 南北調節委員會를 正식으로 발족시켰다. 同 合意書의 내용과 共同委員長會議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

쌍방은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南北調節委員會는 1972年 7月 4日附 南北共同聲명의 合意事項을 추진하고 南北 사이의 關係를 改善發展시키며 各분야에서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 合意된 祖國統一原則에 基礎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南北調節委員會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合意된 祖國統一原則에 기초하여 나라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나. 南北의 政黨, 社會團體 및 개별적 인사들 사이의 광범한 政治的 交流를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다. 南北 사이의 經濟, 文化的 및 사회적 交流와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의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라. 南北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軍事的 衝突을 방지하고 軍事的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마. 對外活動에서 南北이 共同步調를 취하며 單一民族으로서 民族的 긍지를 선양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3. 南北調節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南北調節委員會는 쌍방에서 각각 共同委員長과 副委員長 1명, 幹事委員 1명, 委員 2명으로 구성한다. 委員數는 필요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다.

共同委員長은 李厚洛 中央情報部長과 金英柱 組織指導部長으로 한다.

副委員長과 幹事委員 및 委員은 長官(相) 또는 次官(副相)級으로 하되 사전협의를 거쳐 각각 쌍방 共同委員長이 임명한다.

나. 南北調節委員會 안에 幹事會議를 둔다.

幹事會議는 쌍방 共同委員長의 위임에 의하여 南北調節委員會의 休會期間에 제기되는 제반문제등을 協議, 決定하고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幹事會議는 쌍방 幹事委員과 각각 幹事 2명으로 구성한다.

다. 南北調節委員會 안에 政治, 軍事, 外交, 經濟, 文化 分科委員會를 둔다. 各 分科委員會는 南北調節委員會 사업이 진척되는데 따라 설치하며, 그 기능과 구성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규정한다.

라. 南北調節委員會 共同事務局을 板門店에 둔다.

共同事務局長은 쌍방이 각각 1명씩 임명하며, 그 밑에 필요한 數의 人員을 둔다.

4. 南北調節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南北調節委員會는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板門店에서도 할 수 있다.

나. 南北調節委員會 會議는 2~3個月에 1次, 幹事會議는 1個月에 1次 進行하며, 이밖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 南北調節委員會는 公開會議 또는 非公開會議로 한다.

라. 南北調節委員會 會議와 公開會議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數의 専門인원들과 共同事務局 要員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마. 南北調節委員會의 最終合意는 쌍방 共同委員長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합의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共同事務局을 통하여 동시에 발표한다.

바. 南北調節委員會 運營細則은 따로 규정한다.

5. 이 合意書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修正, 補充할 수 있다.

6. 이 合意書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1972年 11月 4日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共同委員長

李 厚 洛 部長

南北調節委員會

平壤側 共同委員長

金 英 柱 部長

(가) 第1次 會議

南北調節委員會 第1次 共同委員長會議는 1972년 10월 12일 서울측에서 李厚洛, 金致烈, 鄭洪鎭, 平壤側에서 朴成哲, 柳章植, 김덕현이 참석한 가운데 板門店 「自由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會議에서 南北雙方은 7·4 南北共同聲明의 合意事項(그중에서도 특히 제1항의 統一 3原則)의 해석과 그 구현방법에 관하여 크게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이 때문에 2시간 30분동안 계속된 이날 會議는 쌍방간에 격렬한 논쟁으로 시종했다.

서울측은 共同聲明 第1項의 自主·平和統一의 달성과 이를 위한 民族的 團結의 도모를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의 창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따라서 남북쌍방은 우선적으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발족시키고 이를 통해 共同聲明 第2~6項의 合意事項을 실천에 옮겨 실적을 쌓아 가는 과정에서 南北間의 오해와 不信의 제거, 이해와 신뢰의 증진, 社會的 異質化의 극복과 民族的 同質性의 回復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서울측은 이 같은 일련의 南北관계 개선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쌍방이 일단 각기 자기의 체제를 보호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體制內的 秩序에 대해서는 간섭함이 없이 交流와 協力, 그리고 나아가서 상호 사회적 개방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양측은 共同聲明에서 쌍방이 統一 3原則에 합의한 이상 大韓民國은 ① 對內的으로 반공정책을 포기, 共產主義를 용납해야 하고, ② 통일과 관련하여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지 말아야 하며, ③ 유엔도 「外勢이기 때문에」 유엔은 어떠한 형태로도 韓半島 統一問題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④ 駐韓美軍은 즉시 철수해야 하며, ⑤ 國軍의 戰力

增強은 물론 軍事訓練도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북한은 이렇게 함으로써 共同聲明에 의거한 남북관계의 개선보다는 共同聲明의 統一 3原則을 이용하여 그들의 이른바 「南朝鮮革命」 路線을 합리화하고 더 나아가 「내것은 내 것이고 네것도 내 것」이라는 共產黨式 協商論理에 立脚하여 문제의 統一 3原則이 大韓民國에만 일방적으로 적용되게 함으로써 소위 「南朝鮮革命」 수행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데 그들의 의도가 있었음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날 會議가 끝난 후 쌍방은 10월 하순경에 제 2 차 共同委員長會議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① 共同聲明 發表以後의 남북간의 諸般問題를 협의하고 共同聲明의 정신을 재확인했으며, ② 共同聲明의 合意事項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남북간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討議했다』고 共同發表했다.

(나) 第 2 次 會議

南北調節委員會 제 2 차 共同委員長會議는 1972년 11월 2일과 3일 2회에 걸쳐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서울측에서 張基榮(副總理), 崔圭夏(大統領特別補佐官), 康仁德(中央情報部 第 9 局長), 鄭洪鎮(中央情報部 協議調整局長), 평양측에서 柳章植(「勞動黨」 組織指導部 副部長 兼 對外事業部長), 李景錫(內閣參事), 韓雄植(「勞動黨」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직속 책임지도원), 김덕현(「勞動黨」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직속 책임지도원)이 쌍방 공동위원장의 「補佐役」으로 陪席했으며 쌍방에서 각기 10명의 보도진과 수행원이 회담행사에 참가했다.

쌍방은 이 회의에서 「南北調節委員會 구성 및 운영에 관한 合意書」에

합의, 이를 서명·교환했으며 이와 아울러 ① 對南·對北放送中止, ② 軍事分界線상에서의 확성기에 의한 對南·對北방송중지, ③ 상호 상대방 지역에 대한 傳單撒布 중지등에 합의, 이를 1972년 11월 11일 0시를 기해 발효시켰다.

그러나 평양측은 제2차 공동위원장회의에서도 계속 공동성명의 統一 3原則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만을 고집, 이를 구실로 大韓民國의 내외정책을 간섭함으로써 회의분위기를 硬化시켰다. 朴成哲은 『공동성명에 입각한 對話와 南朝鮮의 반공정책은 서로 兩立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大韓民國에 대해 ① 內國民에 대한 반공교육·반공선전을 중지하고, ② 反共法·國家保安法을 違反하여 刑事處罰을 받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석방하며, ③ 공산주의자들을 처벌하는 자들을 오히려 처벌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④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⑤ 韓·日間의 友好協力關係를 단절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서울측의 李厚洛 共同委員長은 南北對話는 서로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두 체제간의 대화이므로 서로 상대방 체제내부문제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대화는 계속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 공동성명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南北雙方은 서로 자기 體制를 유지하면서 상대방 체제내부 문제에 간섭함이 없이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초월하여 대화를 추진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회의기간중인 11월 3일 오전 10시 15분부터 4시간 30분동안 李厚洛 共同委員長과 그의 「補佐役」들은 金英柱를 대리한 朴成哲 및 평양측 「보좌역」들의 안내로 평양시내의 「內閣廳舍」事務室로 金日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北韓측에서 金一(제1부수상)과 金仲麟(「勞動黨」政治委員會 委員·秘書局 對南事業擔當秘書)도 배석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金日成은 南北對話에 상당한 열의와 관심을 표명, 마지막 文案調整段階에서 南北間의 의

건이 엇갈려 합의가 지연되고 있던 「南北調節委員會 구성 및 運營에 관한 합의서」에 반드시 합의하도록 평양측 대표들에게 지시하는가 하면 남북간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합작」을 주장하고 南北韓 相互軍縮과 南北韓 「聯邦制」를 거론하기도 했다.

(다) 第3次 會議

제 3 차 共同委員長會議는 1972년 11월 30일 오후 4시 서울시내 영빈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서울측의 李厚洛 共同委員長과 평양측의 朴成哲을 비롯한 양측 「보좌역」들이 참석했다. 양측 「보좌역」들은 모두 제 2 차회의 때와 같았으나 평양측의 경우 李景錫(「內閣參事」)의 사망으로 李完基(「內閣參事」)가 그 자리를 메웠다. 제 3 차 共同委員長會議에서 쌍방은 南北調節委員會의 구성절차를 마치고 이로써 共同委員長會議를 종결시켰다.

쌍방은 南北調節委員會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서울 측〉

共同委員長	李	厚	洛
副委員長	張	基	榮
委 員	崔	圭	夏
委 員	康	仁	德
幹事委員	鄭	洪	鎭

〈평양 측〉

共同委員長	金	英	柱 (朴成哲이 대리)
副委員長	柳	章	植

委 員 李 完 基
委 員 韓 雄 植
幹 事 委 員 金 덕 현

(2) 南北調節委員會 本會議

南北調節委員會는 제 1 차 회의(서울 : 1972년 11월 30일과 12월 1일), 제 2 차 회의(평양 : 1973년 3월 15일), 제 3 차 회의(서울 : 1973년 6월 12일과 13일)등 세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평양에서 열릴 차례인 제 4 차 회의를 앞둔 1973년 8월 28일 北韓측의 돌연한 일방적인 중단선언으로 南北調節委員會의 정상운영이 중지되었다. 每次회의별 회의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南北쌍방은 평양에서 열렸던 제 2 차 共同委員長會議 때의 예에 준하여 서울·평양에서 번갈아 열리는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쌍방에서 각기 5명의 위원과 10명의 수행원이 참가하고 이와는 별도로 각기 10명의 內信記者로 구성된 보도진이 隨行 취재하기로 합의했다.

(가) 第 1 次 會議

南北調節委員會 제 1 차 회의는 서울시내 영빈관 회의실에서 1972년 11월 30일 오후 5시30분~50분과 12월 1일 오전 10시~오후 1시 두차례에 걸쳐 열렸다. 제 1 차 전체회의가 종료된 뒤 쌍방은 공동발표를 통해 ① 쌍방간에는 각분야에서 교류를 실시하고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데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② 南北調節委員會의 實務機能을 조속히 完備하기 위해 단시일내에 幹事會議을 구성하고 共同事務局을 설치하며 필요한 運營細則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7·4南北共同聲明에 의하여 마련된 南北調節委員會가 갖는 첫 公式 모
임인 제1차회의에서도 南北雙方의 대화는 계속 평행선을 걷고 있었다.

서울측의 李厚洛共同委員長은 위원회의 발족에 앞서 있었던 쌍방간의
대화내용을 가지고 볼 때 쌍방은 공동성명의 統一3原則의 해석과 관련하
여 의견을 달리 하고 있어 실무적 차원에서 대화진행이 계속 難航을 거듭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 이의 打開을 위해서는 첫째 위원회의 諸
般 실무기능을 우선적으로 整備하는 한편, 둘째 對話의 원만한 진행을 가
능하게 하기 위하여 쌍방은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① 상호 體制否定
을 지양하고, ② 서로 相對方體制를 이해하며, ③ 相對方體制 내부문제를
간섭·비난하지 않고, ④ 자기 體制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⑤ 각
기 자기 體制에 입각하여 국민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⑥ 體制를 초월하여
민족적 동질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관계를 造成해 나가며, ⑦ 南北
對話는 體制 對 體制의 대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에 입각한 南北關係
를 定立하는데 합의하자고 제의했다. 서울측은 또한 南北調節委員會가 추
진할 구체적인 사업은 남북분단의 현실을 감안하여 먼저 제도와 이념의
차이로 인한 마찰 및 抵抗要因이 비교적 적은 非政治·非軍事分野에서 시
작하여 실적을 축적시키고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해와 신뢰의 증진을
바탕으로 政治·軍事分野의 문제로 옮겨 갈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평양측은 南北調節委員會의 실무적 기능을 정비하는 문제는 관
심도 없었다. 朴成哲은 덮어놓고 『공동성명이 나온 이상 南北은 서로를
信任해야 한다』고 強辯하면서 南北쌍방은 ① 우선적으로 쌍방 軍事代表者
會談을 열어 南北間 軍事的 對峙狀態 해소방안을 협의케 하고, ② 정치·
군사·외교·경제·문화등 5개 分科委員會를 동시에 일괄 발족시키자고
주장했다.

(나) 第 2 次 會議

서울측 南北調節委員會 委員들과 수행원 및 보도진들은 南北調節委員會 제 2 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1973년 3월 14일 板門店을 경유하여 평양에 갔다. 그러나 南北調節委員會 운영에 임하는 평양측의 태도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있음이 제 2 차회의를 전후하여 나타났다. 평양측은 우선 서울측 대표단 일행의 開城·平壤間 왕복에 「헬리콥터」편을 제공하던 것을 자동차편으로 바꾸었고 서울측 대표단이 평양에 체류하는 기간중 반드시 金日成이 서울측 代表團을 만나던 것을 金日成이 『현지 指導訪問次 地方旅行中』이라는 핑계로 중지했다. 이같은 변화는 분명히 북한측이 南北對話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었다.

제 2 차 회의의 내용은 이 같은 북한측의 태도변화를 단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었다.

서울측은 제 1 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南北調節委員會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위원회의 실무기능을 정비하는 것이 急先務임을 지적, 우선 ① 南北調節委員會 運營細則·幹事會議運營細則·共同事務局 설치규정등을 조속히 제정하고, ② 板門店 共同警備區域內 南北調節委員會의 실무 및 행정요원을 수용하고 會議施設을 具備한 共同事務局 건물을 南北이 공동으로 건축하자고 제의했다. 이와 아울러 서울측은 南北調節委員會의 5개 분과위원회 가운데 經濟와 社會·文化등 2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체적 실무문제는 幹事會議에 委任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평양측은 南北調節委員會의 제반 실무기능을 정비하는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또다시 드러내었다. 朴成哲은 『南北간의 現 軍事的 對峙상태를 먼저 해소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대화를 할 수 없고 南

北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도 없으며 나라의 통일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5개항목의 軍事提案을 내놓고 모든 문제에 우선해서 이 문제를 토의할 것을 요구했다. 평양측의 이 5개항목 軍事提案은 ① 南北은 무력증강과 軍備競爭을 그만두고, ② 군대를 각기 10만 또는 그 이하로 줄이고 軍備를 대폭 축소하며, ③ 外國으로부터 일체의 武器와 作戰裝備 및 軍需物資의 반입을 중지하고, ④ 美軍을 포함한 일체 外國軍隊를 철거시키며, 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南北간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해 서로 『擔保』(保障)하는 平和協定을 체결하자는 것으로, 朴成哲은 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南北調節委員會를 改編, 쌍방의 軍幹部들을 여기에 참가시키든가 아니면 軍事分科委員會를 우선적으로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朴成哲은 南北調節委員會 5개 분과위원회(정치·군사·외교·경제·문화)의 동시 일괄설치를 주장, 서울측의 經濟와 社會·文化等 2개 분과위원회 우선 설치제의 거부함은 물론 그들의 軍事分科委員會 우선 설치주장과도 스스로 모순되는 입장을 취했다. 뿐만 아니라 南北調節委員會는 제쳐 놓고 이와는 별도로 「南北政黨·社會團體 連席會議」를 개최하자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제 2차 회의에 임하는 태도로 미루어 볼 때 北韓은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일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것 같으나 당장은 실현 불가능한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對話를 교착시키고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겠다.

이같은 北韓측의 태도로 인하여 제 2차 회의는 회의내용에 대한 공동발표도 없이 끝나야 했다. 그러나 朴成哲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가운데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공개하지 않던 관례를 깨뜨리고 3월 15일 저녁 옥류관에서 있었던 晚餐席上에서의 연설을 통해 그가 회의에서 내놓았던 주장들을

공개함으로써 南北調節委員會를 선전목적을 위해 활용하기 시작했다.

(다) 第3次會議

南北調節委員會 제 3 차 회의는 1973년 6월 12일과 13일 두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나 평양측은 제 2 차 회의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여 역시 아무런 합의없이 끝났다. 평양측은 제 3 차회의에서도 ① 軍事 5개항목 제안의 우선토의, ② 南北調節委員會와 별도로 「南北政黨 · 社會團體 連席會議」 개최, ③ 南北調節委員會 5개 분과위원회의 동시 일괄설치를 거듭 주장했다.

서울측의 李厚洛共同委員長은 南北調節委員會 및 그 산하 기구의 運營細則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共同事務局의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평양측의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한편, 평양측의 상호 비방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합의가 발효된 1972년 11월 11일 이후에도 大韓民國에 대한 각종 비방행위는 물론 간첩 남파를 계속하고 있고 특히 「統一革命黨의 목소리」라는 對南地下放送을 北韓지역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이의 중지를 요구했다. 서울측은 이와 아울러 南北調節委員會 5개 분과위원회중 經濟와 社會·文化 分科委員會를 우선 설치하여 경제분야에서 ① 경제인 교류 ② 물자의 교류 ③ 과학기술의 교류 ④ 資源의 공동개발 ⑤ 상품전시회의 상호 교환개최 ⑥ 쌍방 商社의 상대방 지역 常駐支社 설치 허용을, 그리고 사회·문화분야에서는 ① 학술·문화분야의 교류, ② 체육분야의 교류와 국제체육행사 南北 單一팀 出戰 ③ 영화·舞臺예술의 교류 ④ 考古學과 민족역사의 공동개발과 연구 ⑤ 固有言語의 保存연구 ⑥ 각종 사회인사와 단체간의 교류 ⑦ 記者의 交流와 常駐支社의 교환 ⑧ 書信·電話·電報등 통신의 교류 ⑨ 觀光분야의 교류등을 통해 쌍방 사회간의 사회적 개방을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3) 幹事會議

南北쌍방은 「南北調節委員會 구성 및 운영에 관한 合意書」에 의거한 위원회의 실무운영기구인 幹事會議를 1973년 3월에 구성·발족시키고 1973년 3월 10일, 4월 24일, 5월 23일 세차례에 걸쳐 板門店에서 회의를 가졌다. 쌍방은 幹事會議 구성원으로 南北調節委員會의 양측 간사위원(南=鄭洪鎭, 北=김덕현), 대변인(南=李東馥, 北=진금철) 그밖에 1명(南=白千濫, 北=허필국)을 각기 임명했다.

이들 세차례의 간사회의에서 쌍방은 「南北調節委員會 운영세칙」, 「幹事會議 운영세칙」, 「共同事務局 設置 合意書」 등 3개 합의문건에 대한 문안 질충작업을 계속했다. 이 질충작업은 『南北調節委員會의 會議에 정당·사회단체 대표와 개별인사를 傍聽으로 招請할 수 있다』는 條項을 「南北調節委員會 운영세칙」에 포함시키자는 평양측의 주장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1973년 6월 12일 ~14일의 南北調節委員會 제 3차 서울회의 이후에는 평양측이 南北직통전화를 통한 통화마저 기피함에 따라 幹事會議의 개최 자체가 제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나. 南北赤十字 本會談

(1) 概 要

國土分斷 4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南北對話라는 벅찬 감격과 기대속에 진행된 1970년대의 南北赤十字 本會談은 豫備會談에서 합의한대로 서울과 平壤에서 번갈아 가며 모두 일곱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平壤에서 개최된 제 1차 本會談과 서울에서 개최된 제 2차 本會談은 國土分斷 이후 최초의 南北往來 실현이라는 벅찬 감격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南北赤十字會談의 진행이라기 보다는 시종 축제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本會談 進行經過

區 分	場 所	開 催 期 間
1 次	平 壤	1972. 8. 29 ~ 9. 2
2 次	서 울	1972. 9. 12 ~ 9. 16
3 次	平 壤	1972. 10. 23 ~ 10. 26
4 次	서 울	1972. 11. 22 ~ 11. 24
5 次	平 壤	1973. 3. 20 ~ 3. 23
6 次	서 울	1973. 5. 8 ~ 5. 11
7 次	平 壤	1973. 7. 10 ~ 7. 13

여러가지 행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會談에 임하는 쌍방의 태도는 1천만 離散家族들을 하루 빨리 찾아 주려는 韓赤의 성실한 노력과 人道主義의인 會談姿勢와는 대조적으로 北赤은 會談 벽두부터 南北赤十字會談을 政治宣傳場으로 물고 가려는 태도를 보였다. 北赤側은 平壤에서의 第1次 本會談에서 8명의 이른바 『政黨·社會團體 代表』들을, 그리고 서울에서 열린 第2次 本會談에서는 諮問委員 尹基福과 金炳植을 각각 내세운 『祝賀演說』을 통해 南北間의 人道主義問題의 해결보다 『金日成 思想』을 선전하는데 더 열을 올렸다. 北赤側은 또한 『統一은 곧 최고의 人道主義』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外勢의 간섭을 배제하자』는 등 정치적 발언을 일삼아 마치 南北赤十字會談이 1천만 離散家族들을 찾아주기 위한 會談이 아니라 『統一會談』, 『政治會談』인양 착각케 하는 태도를 취했다. 北赤 代表團의 이러한 『政治優先』 태도는 南北赤十字 本會談의 앞날에 암운을 일게 하는 것이었다.

本會談 議題에 대한 실질적 토의는 일단 축제분위기가 가시고 난 第3次 本會談에서부터 시작되었다. 第3次 本會談에서 大韓赤十字社側은 이 산가족 尋人事業의 조속하고 확실한 성공을 기약하기 위하여,

- ① 가족·친척찾기 사업은 쌍방 赤十字社가 책임지고 주관
- ② 赤十字 人道主義의 本質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의 배제
- ③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
- ④ 당사자의 신상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 ⑤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은 즉각 지체없이 실천
- ⑥ 生死와 住所確認에 정확, 신속성 보장 등 6個原則을 제시하고 議題 第1項 「離散家族·親戚의 주소와 生死확인」사업은 國際尋人事業 방식에 입각하여 쌍방 赤十字社 주관하에 尋人依賴書와 尋人回報書를 작성,교환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하면서 그 書式까지 정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北赤측은 이에 대하여 議題 第1項의 實質討議를 위해서는 그에 앞서 大韓民國의 法律的, 社會的 條件環境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先行條件」으로서 이른바 『南韓에서의 法律的 條件改善과 社會的 環境造成이 필요하다』는 政治問題를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南北離散家族들을 찾아주기 위한 本會談 議題 第1項의 實質的 討議는 진전을 보지 못한채 팽팽한 의견대립만이 노정되었으며 會談은 이때부터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北赤이 第3次 本會談에서 내놓은 제안은

- ① 南韓의 法律과 社會적 환경 개선
- ② 赤十字 「了解說明人員」의 派遣
- ③ 사업범위와 방법은 본인의 호소와 요구에 따라 정하며
- ④ 赤十字 事業機構로서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와 赤十字 代表部를 설치할 것 등 4개항목이었다. 그중에서도 「南韓에서의 法律的, 社會的 條件環境 改善」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議題의 實質的 討議進行을 사실

상 기피한 것이다.

本會談이 이처럼 교착되고 쌍방주장 사이의 간격이 크게 벌어짐에 따라 韓赤은 第4次 本會談에서 일단 北赤이 第3차 本會談에서 제기한 赤十字 事業機構 設置問題에 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韓赤은 赤十字 事業機構로서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를 두고 서울과 平壤에 각기 상대방 赤十字 代表部를 설치할 것과 이를 구체적으로 토의하기 위해 南北赤十字會談 실무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北赤은 이에 대해 갑자기 赤十字 代表部 設置를 외면하고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와 「赤十字 板門店 共同事業所」만을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韓赤은 會談의 교착상태 타개를 위해 北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양측은 우선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와 「南北赤十字 板門店 共同事業所」를 신설하는데 합의하게 되었다.

北赤側이 「先決條件」으로 내놓은 이른바 「南韓에서의 法律的 條件과 社會的 環境의 改善」 문제는 第6次 本會談에서 더욱 구체화된 전제조건으로 나타났다. 第6次 本會談에서 北赤은 議題 第1項의 실질적 討議에 先行하는 조치로서, 大韓民國이

- ① 反共法·國家保安法등 反共立法들을 폐지하고
- ② 反共機關과 단체들을 解體하며
- ③ 일체의 反共活動을 금지하고
- ④ 離散家族을 찾기 위해 北에서 南으로 오는 者들은 물론 그들을 돕는 者들이나 관계자들에게 言論·出版·集會·通行등 活動의 자유와 편의를 제공할 것과 그들의 人身과 휴대품의 不可侵權을 보장하는 法的, 行政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밖에도 北赤은 「赤十字 了解解說人員」을 상대방 지역의 里(洞)단위에 1명씩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에게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모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了解解說事業」을 벌이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北赤이 제의한 이른바 「了解解說事業」이란 쌍방에 의하여 신변과 활동을 전적으로 보장받은 인원들을 相互派遣하여 남북사이에 조성된 불신과 오해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들과 이산가족들의 생활형편등을 해설함으로써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을 찾아내는 효과적인 방도를 研究, 提起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北赤의 「了解解說事業」提議는 議題 第1項의 사업이 마땅히 南北赤十字社의 주관과 책임아래 수행되어야 할 南北赤十字會談의 基本趣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北赤의 제안대로 里(洞)單位에 1명씩의 「了解解說人員」을 派遣할 경우 北側에서는 3만 6,000餘名의 人員이 우리측에 오게 되고 우리측에서는 4,300餘名의 인원이 北韓地域에 넘어가게 되는바, 이처럼 많은 「了解解說人員」들이 相對方 地域에 들어간다는 것은 離散家族를 찾아주는 事業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政治活動을 전개하겠다는 뜻이다. 만약 「了解解說人員」의 활동이 필요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미 第4次 本會談時 合意한 쌍방간의 共同事業機構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北赤은 離散家族들의 주소와 생사를 확인, 통보하는 일은 『赤十字가 개입해서는 안되며 당사자들로 하여금 직접 상대방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대상자들을 만나도록 하자』는 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하여 韓赤은 직접 당사자들이 무작정 南北을 往來하면서 離散家族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장기간의 南北分斷으로 行政區域改編, 住居移轉등 변동이 많았던 점

에 비추어 비현실적이며 赤十字가 먼저 그들의 所在·生死를 확인해 주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北赤이 당사자들의 自由往來를 주장하고 나온 것은 이산가족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自由往來를 구실삼아 反共法撤廢 등 政治的 目的을 달성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北赤의 不合理的하고도 비현실적인 제의에 대하여 韓赤의 李範錫 首席代表는 『北赤의 이른바 「先行條件」문제는 大韓民國 內政에 간섭하는 일이며, 赤十字精神과 赤十字原則에 입각한 人道的 문제란 法律以前, 政治以前, 體制以前의 승고한 문제이기 때문에 赤十字가 추진하는 사업은 여하한 기존의 法律的 社會的 條件에도 저해를 받음이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大韓赤十字社의 傳統이고 國際赤十字의 傳統이며 또한 순수한 人道的 견지에서 이러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大韓民國 政府의 명백한 立場』이라고 밝혔다. 李 首席代表는 이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韓赤은 北韓지역에 현존하는 법률적 사회적 제반여건에 대하여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北赤은 內政干涉的인 부당한 주장을 철회하고 이미 합의한대로 전제조건없이 本會談 議題를 질서있게 토의해 나가자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北赤은 韓國의 反共關係 法律의 철폐를 계속 주장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人道主義를 구현하는 길은 바로 祖國統一을 실현하는데 있다』, 『人道主義事業이라고 해서 祖國統一問題와 분리하여 다룰 수 없으며 오로지 통일문제의 일부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南韓의 反共關係 法律이 先行的으로 철폐되어야 한다』면서 離散家族·親戚 問題를 政治問題와 결부시킴으로써 순수한 赤十字 人道主義 事業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北赤의 非赤十字的 立場은 第7次 本會談에서도 계속되고 會談은 좌초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韓赤은 赤十字會談의 조속한 타결을 바라는 이산가족들과 온 겨레의 기대에 부응하고 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적 사업의 하나로 『1973년 秋夕을 전후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數의 이산가족과 친척들로 성묘방문단을 구성하여 서로 교환하는 사업을 전개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北赤은 이러한 韓赤의 「秋夕 省墓訪問團」相互交流 提議에 대해서도 『根本問題를 외면하는 政策的인 문제이며 오히려 회담의 진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거부했다.

마침내 北韓側은 서울에서의 第8次 本會談이 개최되기 직전인 1973년 8월 28일 南北調節委員會 平壤側 共同委員長 金英柱의 이름으로 大韓民國의 內政을 비난하면서 南北對話의 중단을 선언하는 일방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계기로 南北赤十字 本會談마저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2) 第1次 本會談

은 국민이 열망하던 南北赤十字 本會談이 1972년 8월 30일 오전 10시 平壤 「大同江會館」에서 막이 올랐다. 4박 5일동안의 平壤會談은 양쪽 首席代表의 開會辭와 北韓側 「政黨·社會團體」代表들의 「祝辭」 그리고 本會談 議題를 공식으로 채택하는 간략한 절차 등 儀禮的인 행사로 끝났다. 그러나 韓赤 代表團 일행 54명이 처음으로 北韓땅에 들어가 北韓同胞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담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그 자체가 지니는 歷史的 意義 또한 큰 것이었다.

李範錫 韓赤側 수석대표는 개회연설에서 『民族的 自覺으로 南北赤十字 會談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통일의 召命 앞에 北赤 代表들과 자리를 같이

하여 이산가족의 애절한 소원을 성취시키는데 온갖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北赤의 金泰禧 團長은 『南北 赤十字會談은 四半世紀의 장벽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며 이 회담은 나라의 평화적 통일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우리들 대표단의 사명은 무겁다』고 말했다.

兩側 首席代表는 本會談의 진행원칙에 관한 南北間의 합의문서에 각각 서명했다. 이 합의문서는 豫備會談에서 합의된 5개항의 議題를 本會談 議題로 채택할 것을 재확인한 것이며 南北兩側이 赤十字 人道主義原則에 입각하여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풀어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 것이다.

이날 本會談에서는 北韓의 勞動黨, 民主黨, 在日朝總聯, 天道教靑友黨, 職業總同盟, 農業勤勞者同盟,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 民主女性同盟 등 8個政黨·社會團體 代表들의 축하연설과 그 밖의 단체 및 인사들이 보낸 축전 낭독으로 대부분의 회담시간을 소비하였다. 北韓側의 이른바 「祝賀演說」은 南北 離散家族 問題의 해결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主體思想」 선전과 「다방면적인 교류 및 접촉」, 정당·사회단체 등 各界 各層의 會談事業 참여 등과 같은 정치연설 일색이었다.

第1次 本會談에서의 쌍방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第1次 南北赤十字 本會談 合意書〉

1. 南北赤十字會談에서 쌍방 代表團은 1972年 6月 16日 板門店에서 열린 第20次 南北赤十字 豫備會談에서 채택한 다음과 같은 南北赤十字會談 議題를 1972년 8월 30일 平壤에서 개최된 第1次 南北赤十字會談에서 확

인하고 이를 南北赤十字會談 議題로 한다.

- ①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 ②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에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 ③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書信去來를 실시하는 문제
- ④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문제
- ⑤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2. 쌍방은 自主, 平和統一, 民族의 大團結의 3大原則이 천명된 南北共同聲明과 그리고 赤十字 人道主義原則에 기초하여 南北赤十字會談議題로 설정된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토의, 해결함으로써 南北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하루속히 풀어주며 나아가서 祖國統一의 디딤돌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3) 第2次 本會談

第2次 南北赤十字 本會談은 1972년 9월 13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朝鮮호텔에서 개막되었다. 이날 회담에서는 韓赤側 李範錫 首席代表의 開會宣言과 開會演說로 시작, 이어 北赤 金泰禧 團長의 개회연설, 그리고 金用雨 韓赤總裁, 離散家族代表 金玉吉 梨大總長, 韓赤 諮問委員 金俊燁 教授 및 北赤 諮問委員 尹基福, 金炳植의 祝賀演說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韓赤側 李 首席代表는 北赤 대표들에게 먼저 서울 방문에 대한 同胞愛的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앞으로 議題上的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 ① 南北 이산가족, 친척들의 自由意思 존중
- ② 南北赤十字의 주관과 책임아래 헌신적인 赤十字 사업 전개

③ 國際赤十字의 전통적 사업방침을 기반으로 한 신속·정확한 사업추진 등의 3大方針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서 단 한군데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여도 편지가 배달되지 않는 단절된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이 나라 南北 사이의 障壁』이라고 말하면서 南北 赤十字人들의 서울-平壤往來는 그와 같은 단절의 벽을 반드시 허물게 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어 『南北 赤十字人들의 상호신뢰와 성실한 노력으로 赤十字會談의 契도가 순탄하게 이어져 간다면 이 契도는 언젠가는 祖國統一을 위한 다음 段階의 歷史的 課業의 契도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여하한 난관이 닥쳐도 南北 쌍방 代表團이 赤十字人으로서의 긍지와 성실과 인내를 갖고 서로 신뢰하고 협조한다면 반드시 南北 離散家族 問題의 해결을 위한 우리의 임무는 원만히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金用雨 韓赤總裁는 축사에서 『兩側이 서로 차이점을 찾기보다는 공통점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하고 『금년 赤十字의 世界標語가 「人道主義의 架橋」이므로 동포애와 민족적 사명감으로 이 架橋에 서광을 비춰주기 위해 모든 불신과 쓰라린 과거를 모두 묻어버리자』고 호소했다.

이산가족을 대표한 金玉吉 梨大總長은 『理念과 制度가 있기에 앞서 契제가 있고, 이 契제는 부모와 형제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歷史의 방향을 돌이킬 개인도 단체도 없으므로 우리는 다같이 이 契제에 봉사하려는 정신과 정성만으로 민족의 至上命令에 따라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北赤의 金泰禧 團長을 비롯한 尹基福, 金炳植 두 諮問委員은 第1次 會談때와 같은 政治宣傳으로 일관된 연설을 하여 우리 국민들을 실망

시켰으며 내외여론을 놀라게 했다.

北赤 金泰禧 團長의 開會演說만 하더라도 『祖國統一이야말로 최고의 人道主義이며 分裂로 인한 겨레의 고통을 가장 철저하게 풀어주는 것』이라는 등 이산가족찾기 사업을 위한 赤十字會談은 아예 제쳐놓고 당장 통일 문제로 뛰어들자고 강조하는 발언으로 시종했다. 더우기 祝賀演說에 나선 北赤 諮問委員 尹基福은 赤十字會談의 성공을 기원하는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채 시종일관 『영광스런 民族의 首都 平壤……』, 『우리 民族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金日成……』등 정치선전을 늘어놓았다.

한편 하루 뒤인 9월 14일 오후 6시 45분 쌍방 수석대표는 北赤 代表團 속소인 타워호텔에서 兩側 代表團과 諮問委員들이 합석한 가운데 2개항의 합의문서를 각각 서명, 교환하였다. 5분만에 끝난 합의문서 서명은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第2次 南北赤十字 本會談 合意書〉

1. 쌍방은 온 겨레의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여 南北赤十字會談의 議題로 설정된 모든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民主主義의 原則과 자유로운 原則, 南北共同聲明의 정신과 동포애 그리고 赤十字 人道主義精神을 철저히 구현한다.
2. 쌍방은 第1次 및 第2次 南北赤十字會談을 통하여 더욱 다져진 쌍방간의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하여 第3次 南北赤十字會談부터는 議題에 대한 討議를 진행하며 第3次 南北赤十字會談은 1972年 10月 24日 平壤에서, 第4次 南北赤十字會談은 1972年 11月 22日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4) 第3次 本會談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第2次 本會談의 합의에 따라 본격적으로 議題 5 個項을 토의하게 되는 第3次 本會談은 1972年 10월 24日 平壤에서 열렸다.

이 會談은 4半世紀만에 赤十字人의 손으로 분단의 장벽을 뚫은 그 동안의 흥분과 감격을 가라앉히고 議題의 實質的 討議에 들어간 뜻깊은 회담이었다. 동시에 이 會談은 南北 雙方間 相反된 입장과 견해차가 뚜렷이 노정되어 會談의 장래에 암영을 던진 교착과 정체의 시발점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公開會議는 北韓赤十字會 代表團 金泰禧 團長의 개회선언 및 기초연설에 이어 大韓赤十字社 李範錫 首席代表의 基調演說 그리고 議題 第1項에 관한 쌍방의 提案說明, 北赤 金泰禧 團長의 會議終了 宣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會議에서 韓赤 李範錫 首席代表는 議題의 實質的 討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본적인 原則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이 事業은 赤十字의 人道性과 中立性의 原則에 입각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2. 이 사업은 흠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을 위한 사업이므로 始終一貫 當事者 本位로 추진되어야 한다.
3. 이 사업은 단절된 血緣的 紐帶를 회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血肉의 性格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4. 合意된 문제부터 지체없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또한 李範錫 首席代表는 議題 第1項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가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人間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人道主義 사업에 있어 基礎的인 事業임을 밝히면서 議題 第1項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방침이 일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大韓赤十字社의 本會談議題 第1項 事業遂行方針〉

1. 쌍방 赤十字가 책임지고 주관하여야 한다.
2. 赤十字 本質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모든 요소는 일절 배제되어야 한다.
3.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當事者 각 개인의 自由意思가 절대 존중되어야 한다.
4. 當事者 각 개인의 身上內容에 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인도적 사업 이외에 이용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5. 쌍방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 지는대로 곧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6. 생사 및 소재에 관한 소식은 正確性이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생사와 소식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척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어 李範錫 首席代表는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사업」의 구체적인 절차는 오랜 傳統과 발달된 技術的 제도를 가지고 있는 國際赤十字 尋人事業의 원리와 방법에서 찾아야 된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大韓赤十字社の 本會談議題 第1項 實踐方案〉

1. 事業의 節次

- 가. 쌍방 赤十字는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주소와 生死를 알아낼 것을 원하는 의뢰를 접수하면, 소정의 의뢰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 수교한다.
- 나. 쌍방 赤十字는 의뢰서에 기재된 照會事項을 신속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所定의 回報書로 작성하여 依賴側 赤十字에 手交한다.
- 다. 쌍방 赤十字는 상대측으로부터 받은 回報書 內容을 지체없이 당초의 依賴人에게 알린다.

2. 南北 赤十字間에 사용될 서식의 제정

쌍방 赤十字 상호간의 이산가족, 친척들의 주소와 生死를 조회하고 그 조사결과를 회보하여 주는데 필요한 서식은 동일서식으로 하고 기재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는 依賴書

가. 對象人에 관한 事項

- (1) 성 명
- (2) 성 별
- (3) 생년월일 또는 현재의 연령
- (4) 헤어진 시기(년 월 일)
- (5) 헤어질 당시의 직업
- (6) 헤어질 당시의 주소
- (7) 그를 찾는데 도움이 될 其他事項(사진포함)
- (8) 그에 관한 소식을 알려줄 만한 다른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나. 依賴人에 관한 事項

- (1) 성 명

- (2) 성 별
- (3) 생년월일 또는 현재의 연령
- (4) 주 소
- (5) 대상인과의 관계

둘째 : 住所와 生死를 알리는 回報書

가. 對象人에 관한 事項

- (1) 성 명
- (2) 성 별
- (3) 생년월일 또는 현재의 연령

나. 確認事項

※ 生者의 소식

- (1) 주 소
- (2) 가족상황
- (3) 건강상태
- (4) 직 업

※ 死者의 소식

- (5) 사망 년월일
- (6) 사망 장소
- (7) 사망 원인
- (8) 墳墓 所在地 또는 奉靈場所
- (9) 遺族狀況
- (10) 기타 소식(사진포함)

다. 依賴人에 관한 事項

- (1) 성 명
- (2) 성 별
- (3) 연 령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는 의뢰서
(앞면)

일련번호

19 년 월 일 작성

	성명	(국문)	성별	생년월일 또 현재연령	년 월 일 (당 세)
		(한문)			
대 상 인	헤 어 진 시 기		년 월 일	헤어질당시직업	
	헤어질 당시주소				
	그를 찾는데 도움 이 될 기타 사항 (사진이 있으면 후면에 붙일 것)				
	그에 관한 소식을 알려줄 만한 다른 사람의 성명 및 주소				
의 뢰 인	성명	(국문)	성별	생년월일 또 현재연령	년 월 일 (당 세)
		(한문)			
	주소				

(서식 1-가) ※ 기재사항이 넘칠 경우엔 후면 보충기재란에 적을 것

(뒷면)

(사진붙이는 곳)

(보충 기재란)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의 주소와 생사를 알리는 회보서

(앞면)

일련번호

19 년 월 일 작성

대 상 인	성 명	(국문)	성별	생년월일 또 현재연령	년 월 일 (당 세)	
		(한문)				
	생 자 의 소 식	주소				
		가족 상황				
직업			건강상태			
확 인 사 항	사 자 의 소 식	사 망 일 자	년 월 일	사망원인		
		사 망 장 소				
	분 묘 소 재 지 또 는 봉 령 장 소					
	유 족 상 황					
		기타소식(사진이 있으면 후면에 붙일 것)				
의 뢰 인	성명	(국문)	성별	연령		
		(한문)	대상인과의 관계			
	주소					

(서식 1-나) ※ 기재사항이 넘칠 경우엔 후면 보충기재란에 적을 것

(뒷면)

(사진붙이는 곳)

(보충기재란)

(4) 對象人과의 관계

(5) 주 소

3. 事業機構 設置

쌍방 赤十字는 가족, 친척들의 주소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文件 交換業務를 취급토록 하기 위하여 「南北赤十字 板門店 事業所」를 설치한다.

그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적 事項은 따로 합의 결정한다.

4. 事業의 開始 時期

쌍방 赤十字는 議題 第1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날로부터 1個月 以內에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건을 교환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事業實踐方案을 내놓으면서 李 首席代表는 쌍방 赤十字가 공동으로 사용할 「심인의뢰서」 및 「회보서」의 양식(별지 참조)을 제시하였다.

한편 北韓赤十字會 김 태희 단장은 議題 5個項을 討議 解決하는데 구현 시켜야 할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會談事業에서 主體的 立場을 철저히 견지한다.
2. 제기된 문제에서 民主主義 原則과 자유로운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3. 會談事業을 통하여 南北間의 相互理解와 信賴를 두터이 하고 민족적 화목과 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4. 모든 문제들의 討議에서 赤十字 人道主義 原則을 철저히 具現한다.
5. 사업에 應當한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擧族的인 온 민족의 事業으로 추진시켜 나가는 原則을 철저히 具現한다.

또한 北赤 김태희 단장은 議題 第1項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1. 南韓에서 모든 法律的, 社會的 장애를 제거하고 당사자들과 協調者들이 民主主義的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고 활동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
2. 쌍방이 적당한 수의 赤十字 了解解說人員을 각각 相對方 現지에 파견할 것.
3.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의 범위는 本人의 호소에 따라 정하며 그들의 주소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방도는 本人의 民主主義的 要求와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따라 정하게 할 것.
4.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를 구성하며 필요한 곳에는 「赤十字 代表部」들을 각각 설치할 것.

議題 第1項에 대한 大韓赤十字社 代表團의 제안은 남북간 분단현실에 알맞을 뿐만 아니라 오랜 전통과 기술적 제도를 가지고 있는 赤十字 尋人 事業의 원리와 방법에 부합되며 國際的으로 통용되는 赤十字事業의 慣例에 입각한 구체적이고도 실현성 있는 제안이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北韓 赤十字會側의 提案은 議題의 實質討議와는 無關한 法律的, 社會的, 政治的 與件이나 분위기의 조성이 離散家族찾기 사업의 전제가 된다는 등 赤十字 성격에서 벗어난 제안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思想과 理念, 制度의 차이를 초월한다』는 「7·4南北共同聲明」精神에도 위배되는 문제들을 내포한 제안이었다.

이와 같이 第3次 本會談에서는 쌍방간의 提案內容이 너무나도 달라 견

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第4次 南北赤十字會談 때부터 南北으로 왕래하는 기자수를 각기 5명씩 늘이기로』 구두합의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5) 第4~7次 本會談

第4次로부터 第7次까지의 本會談은 교착의 연속이었다.

第3次 本會談에서 議題討議를 無限定 지연시키고 방해하기 위하여 政治的 先決條件을 내세운 北赤은 大韓赤十字社 代表團의 끈질긴 노력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시종 부당한 정치적 자세로 일관했으며 급기야는 北側의 一方的인 「8·28」 성명으로 7次 會談을 끝으로 南北赤十字會談마저 중단 상태에 빠졌다.

第4次 本會談은 1972年 11月 22日 大韓赤十字社 會談事務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第3次 本會談에 이어 議題 第1項의 討議에 들어 갔으나 北赤은 여기서도 이른바 「法律的 社會的 先決條件」을 내놓고 이를 계속 고집함으로써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며, 다만 회담 사업 실행을 위한 共同事業機構를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합의를 보았다.

〈第4次 南北赤十字 本會談 合意書〉

1. 南北赤十字會談에서 합의되는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와 南北赤十字 板門店 共同事業所를 설치한다.
2.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와 南北赤十字 板門店 共同事業所의 기능과 운영절차 및 구성은 따로 討議 결정한다.
3. 南北赤十字會談의 合意事項 실행을 위하여 그밖의 機構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으로 討議 결정한다.

第4次本會談에서는 이처럼「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와「南北赤十字 板門店 共同事業所」設置에 관한 合意書를 교환하기는 했으나 이들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는『南北赤十字會談에서 합의되는 사항을 실행기 위하여』라는 막연한 규정만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

李範錫 首席代表는 會談 終了後 公式聲明을 통하여『이번 會談에서도 北韓赤十字會側에 대하여 議題 第1項에 관한 우리측 제안이 赤十字原則에 입각하고 赤十字 國際會議에서 채택된 결의문의 정신에도 부합되는 정당한 것임을 역설하였으며 우리의 주장을 강력히 촉구하였다』고 강조하고『그 결과 南北赤十字會談 合意事項의 성실한 실행을 위한 共同事業機構인「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와「南北赤十字 板門店 共同事業所」를 설치할 것에 합의를 보게 되었다』고 第4次 本會談의 결과를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 합의한 사업기구는 그 후 여러차례에 걸친 韓赤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가 실현되지 못하였다.

第5次 本會談은 1973年 3월 21일 平壤에서 개최되었다.

韓赤側은 이 會談에서 이산가족 및 친척의 확인방법은 이산가족으로부터 받은 조사의뢰서를 상호교환하여 쌍방 赤十字가 이를 확인해 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北側이 주장하는 南韓에서의「法律的, 社會的 條件環境 改善問題」에 관해서는 北韓에도 社會主義, 共產主義의 法律과 社會的 약조건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를 굳이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 ① 赤十字의 權能과 權威에 어긋나고
- ② 7·4 南北共同聲明 精神에 위배되기 때문이며
- ③ 가장 크게는 南北赤十字 사업은 相互 信賴의 바탕위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法律的, 社會的 條件」問題는 南北調節委員會 所管임을 명백히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北側은 이산가족 및 친척의 확인방법으로는 반드시 本人이 직접 상대방 지역을 찾아 나서서 확인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南韓에서 反共法, 國家保安法이 撤廢되어야만 離散 當事者가 자유로이 南北을 오가며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北赤은 가족, 친척의 범위에 在日僑胞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이러한 北側의 주장에 대하여 韓赤側은 지금 우리가 討議하고 있는 것은 議題 第1項「南北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生死를 알아 내며 알리는 問題」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在日僑胞문제는 第5項「기타 人道的으로 解決할 問題」에서 다룰 事項이라고 설명, 남북 離散家族찾기 사업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비단 在日僑胞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흩어진 모든 同胞問題도 다같이 다루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第5次 本會談부터 쌍방 代表團 陣容이 바뀌었는데 韓赤에서는 代表 朴善圭, 鄭喜卿, 徐英勳(3名)이 金裕甲(韓赤 運營委員), 李炳豪(韓赤 運營委員), 崔文鉉(韓赤 靑少年諮問委員)으로, 諮問委員 金俊燁, 梁興模, 朴俊圭, 具範謨, 宋建鎬(5名)가 朴奉植(서울大 教授), 高永復(서울大 教授), 金鎮福(서울신문 論說委員), 李宗夏(延世大 教授), 孫製錫(서울大 教授)으로 교체되었고, 北赤에서는 諮問委員 김길현, 김병식(2名)이 김주철(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서기국 부국장), 박재로(朝總聯 副議長)로 각각 교체되었다.

第6次 本會談은 第5次 本會談의 합의에 따라 예정대로 1973年 5月 9日 과 10日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北側은 第3次 本會談時의 제안내용을 좀더 구체화하여 南韓의 법률적, 사회적 條件環境의 改善, 赤十字 了解解說人員의 派遣, 가족 및 친척 범위

에 전체의 在日僑胞를 포함시킬 것 등을 주장했으며, 또한 諮問委員의 會議 發言權 인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北側은 赤十字 了解解說人員 派遣問題에 대하여,

- ① 赤十字 了解解說人員은 每個 里(洞)에 1명씩 파견하고
- ②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실태를 了解하며,
- ③ 그들에게 言論, 出版, 集會, 通行 등 활동의 자유는 물론 人身과 휴대품에 대한 不可侵權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韓赤側은 北側의 이같은 주장에 대하여 그것은 議題 第1項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문제이므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고 論駁하고, 南北 赤十字會談에서 합의되는 諸事業 및 그 사업의 추진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제사업등은 어떠한 기존의 법률적 사회적 저해도 받지 않을 뿐더러 더우기 人道的 自由原則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大韓民國 政府의 방침인 이상 赤十字會談에서 상대방의 법률적,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赤十字精神과 赤十字原則에 입각한 人道的 問題는 法律以前, 政治以前, 體制以前의 崇高한 문제이므로 우리측은 北韓地域에 존재하는 法律的, 社會的 諸般與件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이른바 法律的, 社會的 條件環境의 造成問題는 바로 政治的인 문제에 속하는 것으로서 赤十字代表들이 討議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赤十字 了解解說人員에 대해서는 이미 第4次 本會談時 합의한 共同事業所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了解解說人員들이 상대방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彼此間에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고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기 보다 가중시킬 우려마저 있으므로 北韓赤十

字會가 了解解說人員의 활동을 요청해야 할 만한 사정이 아니라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在日僑胞 包含問題에 대해서는 비단 在日僑胞 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게 모든 海外同胞들의 고통을 다 풀어주어야 할 것을 천명하고, 다만 토의순서에 있어서 議題 第1項에서 토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議題 第5項 「기타 人道的으로 解決할 問題」에서 討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諮問委員의 發言權 인정에 대해서는 本會談 進行節次에 관한 合意書에 의해 會議發言은 首席代表가 하되 필요시에는 餘他代表도 발언할 수 있으므로 諮問委員들의 발언은 會談進行에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하였다.

第7次 本會談은 1973年 7月 11日 平壤에서 개최되었다.

韓赤側은 議題 第1項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을 뿐 아니라 쌍방 주장의 현저한 견해차로 회답이 교착상태에 빠져 들어가고 있음을 고려하여 議題 第1項과는 별도로 회담진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며, 人道主義事業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범적 사업으로서 「秋夕 省墓訪問團」의 相互交流를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다.

『大韓赤十字社 代表團은 議題 第1項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에 대한 오랜 기간의 討議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 진전이 없음을 고려하여 會談進展의 기본이 되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회담을 촉진하고, 아울러 南北 赤十字間의 人道主義 事業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의한다.

쌍방은 올해의 당면사업으로서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로 「秋夕省墓訪問團」을 구성하여 상호 방문토록 한다.

쌍방은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한 諸般事項을 토의하기 위하여 代表 각 2명과 隨行員 각 3명으로 實務者會議을 구성하고 곧 협의를 개시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北赤側은 省墓訪問團 문제는 法律的 社會的 環境造成이 선결된 후에 議題順序에 따라 討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내용의 共同聲明을 발표하자고 주장했다.

1. 南韓의 現行 反共法規의 撤廢
2. 反共活動의 금지와 反共團體의 해체
3. 사업 참가자에 대한 人身, 所持品의 不可侵 및 言論, 出版, 集會, 通行 등 활동의 자유와 편의보장
4. 現 軍事的 對峙 및 緊張狀態 解消를 위한 적극적 조치
5. 以上 條項들을 당국이 법적, 행정적으로 조치하고 이를 내외에 선포

이러한 北赤側의 정치적 주장으로 第7次 本會談도 끝내 아무런 진전없이 폐회됐다. 다만 第8次 本會談 日字는 쌍방 赤十字間의 直通電話나 板門店 連絡事務所를 통하여 협의 결정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北韓側은 同年 8月 28日 들인 「平壤放送」을 통하여

- ① 大韓民國이 「6·23 宣言」을 철회하고
- ② 反國家 保安事犯들의 처벌을 중지하여 그들의 政治活動을 합법화시키며
- ③ 刑執行中에 있는 反國家 保安事犯들을 석방하고

④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共同委員長을 교체하며

⑤ 同 委員會에 각 政黨, 社會團體와 各界各層의 人民 代表들을 참가시키지 않는 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이른바 「8·28 聲明」을 발표했다. 南北調節委員會 會議를 중단시킨 이 「8·28 聲明」 발표 이후 北側은 南北 赤十字 本會談까지도 아울러 停滯狀態로 몰고 갔다.

다. 北韓의 對話中斷 聲明

1973년 8월 28일 오후 6시 北韓의 「평양방송」은 돌연 正規放送을 중단하고 『重大放送』이라는 예고하에 南北調節委員會 평양측 공동위원장 金英柱의 名義로 된 장문의 성명을 全文 보도했다. 동 성명에서 北韓은 이보다 앞서 8월 8일 日本東京에서 발생한 金大中납치사건과 大韓民國 중앙정보부장(당시)인 李厚洛 서울측 공동위원장을 결부시켜 李厚洛부장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면서 大韓民國 중앙정보부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적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李厚洛을 비롯한 南朝鮮중앙정보부 깡패들과는 마주 앉아 國家大事를 논의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南北調節委員會운영의 일방적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北韓은 동 성명에서 그들이 일방적으로 南北調節委員會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실제 이유는 金大中납치사건이 아니라 같은 해 6월 23일 발표된 朴正熙 대통령의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에 있음을 명백히 했다. 北韓은 6·23 선언을 자기들 멋대로 『2個朝鮮路線의 공개적 宣布』라고 규정하고 大韓民國이 『南北對話의 간판으로 인민을 기만하고 민족분열을 고착화하여 2個朝鮮을 조작하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大韓民國이 『南北共同聲明을 완전히 뒤집어다』고 억지를 썼다.

이에 대해 李厚洛 서울側 共同委員長은 다음날인 8월 29일 聲明과 內外記者會見을 통해 北韓側의 8·28 對話 中斷宣言은 『韓半島의 진정한 평화

와 통일을 지향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인 6·23 宣言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평가와 지지에 당황한 나머지 대화를 껌으로써 평화통일 노력자체를 파탄시키려는 것』이라고 규탄, 이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同 8·28 聲明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신의 직책이 中央情報部長이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 자신은 이미 1972년 5월 平壤에서 처음 金日成을 만났을 때 中央情報部長이라는 사실과 中央情報部の 주임무가 共產主義者들을 단속하는 일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에 대해 金日成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 직접 平壤에 왔기 때문에 당신을 신임한다』고 말한 바 있다.

北韓側은 南北調節委員會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종 필요한 운영세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共同事務局을 발족시키며 共同事務局을 南北共同으로 板門店에 건축하자는 서울側의 제의를 끝내 외면했다.

南北 쌍방은 상호 비방, 중상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바 있으나 北韓側은 이러한 합의는 아랑곳 없이 격렬한 對南誹謗放送과 暴力革命指令을 계속하고 있다.

大韓民國은 南北 相互間의 사회적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류와 협력방안을 폭 넓게 제시했으나 이것도 北韓側에 의해 거부되어 왔다.』⁵¹⁾

그러나 北韓은 이미 南北對話의 중단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다. 8·28 金英柱성명에서 北韓은 비록 南北調節委員會운영의 중단만을 언급했으나 南北赤十字會談의 운영도 예외는 아니었다. 南北赤十字會談은 1973년 7월 10일 ~13일 평양에서 제 7차 본회담이 개최된데 이어 합의된 순번에 따라 서울에서 열릴 제 8차 본회담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北赤측은 제 7차 본회담 이후로는 서울·평양간의 직통전화를 통한 韓赤과의 전화통화를 기피함으로써 제 8차 본회담개최를 위한 실무협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으로써 본회담의 사실상 중단을 강요했다.

8·28 성명에서 北韓측은 『北과 南사이에는 아직 의견의 차이가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은 조건하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회담을 계속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며 이를 위하여 쌍방이 다같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南朝鮮의 당국자들과 각 정당·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北韓측의 대화계속 用意表明은 대화는 그들이 중단시키면서 그 책임은 상대방인 대한민국측에 전가시켜 보려는 말장난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북한은 同聲明에서 대화계속의 조건으로 大韓民國이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요구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다음은 同聲明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南朝鮮 당국자들이 만일 진실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응당 「쌍방사이에 합의된 南北共同聲明의 원칙을 尊重하고」, 「2개의 朝鮮路線을 취소하며」, 「祖國統一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그만 두고」……「逮捕·投獄된 애국자들을 석방하여야 한다.」 南北調節委員會는 응당 전민족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하며 그를 위하여서는 당국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南北朝鮮의 각 정당·사회단체,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표들이 참가해야 한다. 오직 이렇게 될 때에만 北과 南사이의 대화가 민족적 대단결의 기초위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다」⁵²⁾

이 聲明에 동원된 용어들은 北韓의 赤化統一路線을 理論化한 이른바 「南朝鮮革命」 이론에 등장하는 용어들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다.

- ① 北韓이 말하는 『공동성명의 원칙을 존중』하고 『2개의 朝鮮路線을 취소』하며 『祖國統一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그만두고』, 『체포·투옥된 애국자들을 석방하라』는 것은 大韓民國이 『反共政策을 버리고 이른바 「聯共」정책을 채택하고』, 『6·23 선언을 취소하며』 『間諜 활동으로 이미 투옥되어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석방하라』는 애기가 된다. 즉 北韓이 요구하는 또 하나의 對話再開 조건은 大韓民國이 스스로 '자진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다.⁵³⁾

- ② 南北調節委員會에 정당·사회단체 및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표들이 참가해야 된다는 北韓의 주장은 南北調節委員會를 그들이 말하는 「大民族會議」로 변질시키자는 것이다.⁵⁴⁾

라. 南北調節委員會 副委員長會議

南北調節委員會 서울측은 1973년 11월 15일 南北직통전화를 통해 南北調節委員會 제 4 차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면서 만약 南北調節委員會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양측 幹事委員間의 접촉을 통해 이를 토의할 것을 제의하는 전화통지문을 평양측에 보냈다. 이 제의의 결과로 쌍방은 南北調節委員會의 改編問題를 포함하여 위원회 운영개개를 위해 필요한 문제들을 토의할 목적으로 南北調節委員會 부위원장회의를 板門店에서 갖기로 합의, 이를 板門店 공동경비구역 韓國측 지역의 「自由의 집」과 北韓측 지역 「板門閣」에서 번갈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南北간에는 다음과 같이 총 10 회의 부위원장회의가 개최되었다.

副委員長會議 經過

區 分	場 所	日 時
1 차	板 門 閣	1973년 12월 5일
2 차	自由의 집	1973년 12월 19일
3 차	板 門 閣	1974년 1월 30일
4 차	自由의 집	1974년 2월 27일
5 차	板 門 閣	1974년 3월 27일
6 차	自由의 집	1974년 4월 24일
7 차	板 門 閣	1974년 6월 28일
8 차	自由의 집	1974년 9월 21일
9 차	板 門 閣	1975년 1월 8일
10 차	自由의 집	1975년 3월 14일

1973년 12월 4일의 제 1 차 부위원장회의 하루 전인 12월 3일 李厚洛共同委員長은 중앙정보부장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南北調節委員會 공동위원장직도 사임했으며 이에 따라 張基榮 부위원장이 서울측 공동위원장직을 대리하도록 임명되었다.

한편 평양측은 부위원장회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11월 16일 北韓의 「로동당」, 「조선민주당」, 「天道教靑友黨」이 大韓民國의 民主共和黨·新民黨·民主統一黨 및 유령단체인 「統一革命黨」앞으로 보내는 書翰을 서울측에 수교했다. 동 서한은 『南北의 정당·사회단체 및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소집을 제의하는 것이었는데 北韓은 이를 통해 南北調節委員會의 재개에는 관심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측의 張基榮·평양측의 柳章植사이에 열린 부위원장회의에서 서울측은 北韓측의 南北調節委員會 개편안의 내용이 합리적인 것이라면 서울측은 이를 肯定的으로 고려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北韓측의 구체적인 개편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측은 또 1973년초부터 다시 격화되기 시작한 北韓측의 對南非難, 誹謗과 각종 도발행위로 南北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南北共同聲明과 南北調節委員會 구성 및 운영에 관한 合意書에 明文化된 조항들에 의거한 南北調節委員會 정상운영의 조속한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제 1 차 및 제 2 차 부위원장회의를 통하여 평양측은 大韓民國의 反共政策을 是非하고 6·23선언을 비난하는데 급급할 뿐, 南北調節委員會 재개방안에 관한 토의는 완강하게 기피했다. 서울측은 제 2 차 회의에서 北韓측의 委員會 개편주장을 고려하여 南北쌍방의 위원수를 5명에서 10명내외로

늘리고 여기에 「當局」대표 외에도 정당 및 사회단체 인사를 참여시키는데 동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성의 있는 토의를 진행시키자고 평양측에 촉구했다.

그러나 제3차 부위원장회의에서 평양측은 도저히 실현가능성이 없는 「개편안」을 내놓음으로써 南北調節委員會의 존재를 진실로 원하는지 의심케 하였다.

즉 委員會를 개편하되 개편되는 새 委員會는 쌍방에서 각기 5명 이상의 당국의 代表, 각기 60~70개의 政黨·社會團體에서 각기 5~20명의 代表, 그밖에 各界各層의 「人民」의 代表들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 改編案에 따른다면 새로운 南北調節委員會는 아마도 한쪽에서 최소 350명, 최대 1,500명의 「위원」이 나오는 700명 내지 3,000명의 쌍방 「위원」으로 구성되는 기구가 된다. 北韓측은 또 이른바 「各界各層의 人民」들이란 北韓의 『노동자·농민·병사·근로인텔리·청년학생』, 南韓의 『노동자·농민·군인·지식인·청년학생·민족자본가·小資產계급』⁵⁵⁾을 지칭한다고 설명하고 이에 덧붙여 南韓의 경우는 『통일에 반대하는 政黨·社會團體·個人』은 同委員會(참여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통일에 반대하는』이란 수식어는 北韓측의 부연설명에 의하면 『共產主義에 반대하는』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北韓측의 「論理」에 의하면 『共產主義에 反對하는 것은 민족의 단결에 반대하는 것이고, 민족의 단결에 반대하는 것은 통일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⁵⁶⁾이라는 것이다.

南北韓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고 쌍방 지역에 존재하는 「정당」과 「사회단체」의 개념 및 組織原理가 크게 다르며 주민들의 一般意思를 형성하는 방법과 제도를 달리하고 있는 韓半島의 현실을 감안할 때, 北韓측의 「개편안」은 大韓民國에 대해 공산주의 政治秩序

의 수락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不當性은 자명한 것이었다. 평양측 스스로도 이같은 부당성을 자인한 나머지 제 4 차 부위원장회의에서 문제의 「개편안」을 자진 철회했다. 그러나 평양측은 그 대신 『南北調節委員會』는 개편 없이 그대로 놓아 두고 이와는 별도로 南北의 정당·사회단체 및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표들로 「南北政治協商會議」를 구성, 통일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는 여기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새로이 내놓았다. 이와 함께 평양측은 對話再開를 위해서는 大韓民國이 ① 6·23 선언을 철회하고, ② 反共정책을 포기, 反共法·國家保安法을 폐지하고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합법화시키며, ③ 駐韓美軍을 철수시키고, ④ 北韓측의 통일방안을 수락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부위원장회의는 이같은 상황하에서 더 이상 진전을 보일 수 없었다.

1974년 8월 15일 光復節 기념식장에서 있었던 대통령 암살기도 사건으로 大韓民國 국민들의 對北韓 감정이 크게 격앙되고 그해 11월 高浪浦北方 비무장지대에서 北韓이 파내려 오고 있던 南侵用 땅굴이 처음으로 발견되어 세계의 耳目이 여기에 집중되자, 평양측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어 오던 부위원장회의마저 중단시키고 쌍방간의 접촉은 대변인간의 접촉으로 격하시킬 것을 기도했다. 서울측이 이에 불응하자 1975년 1월에는 南北調節委員會의 자기측 부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교체, 柳章植을 해임하고 그 후임에 北赤의 「상무위원」의 신분을 가지고 南北赤十字會談 北赤측 제 3 석대표로 있던 조명일을 임명함으로써 부위원장회의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격하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하여 속개된 부위원장회의도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평양측은 1975년 봄 印度支那半島의 赤化를 초래한 越南戰의 종결직후 金日成이 中共에 이어 東歐공산국 및 「아프리카」 親北中立國순방에 나선 것과 때를 같이하여, 쌍방간의 합의로 5월 30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 11 차 부위원장회의의 「무기연기」를 서울측에 일방적

으로 통고함으로써 南北調節委員會에서의 대화를 완전히 중단시켰다.

다. 南北赤十字 「代表會議」와 「實務會議」

(1) 南北赤十字 「代表會議」

北韓의 8·28 對話中斷 聲明과 더불어 南北調節委員會 운영이 중단된 것에 맞추어 北赤은 순번에 따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南北赤十字 第8次 本會談의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를 기피하여 적십자회담 역시 중단시켰다. 大韓赤十字社는 이와 같이 중단된 本會談을再開하기 위하여 1973년 11월 15일 電話通知文을 통해 『第8次 本會談을 年內에 개최하기를 희망하며 이에 대한 세부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連絡責任者會議」를 개최하자』고 北韓赤十字會側에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11월 21일 쌍방 連絡責任者 사이에 會談再開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서 韓赤은 第8次 本會談을 1973년 12월 19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北赤側은 本會談 개최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채 次期 회의시에는 代表 1名씩을 각각 포함시키자고 제의했다. 北赤側의 「代表 1명 포함」提議에 韓赤이 동의함으로써 南北間에는 本會談 中斷後 4個月半만에 비로소 板門店에서 접촉의 형태로나마 「代表會議」가 성립되었다. 韓赤에서는 金達述 代表가, 北赤에서는 조명일 代表(75. 1. 南北調節委 평양側 副委員長長으로 選任됨)가 각각 참석한 가운데 1973년 11월 28일부터 1974년 5월 29일까지 모두 7차례 「代表會議」가 개최되었다.

大韓赤十字社側은 代表會議를 통해 本會談을 무조건 조속히 재개할 것

과 모든 문제는 會談席上에서 討議,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강조하고 두 차례나 구체적인 本會談 開催日(73. 12. 19, 74. 4. 9~10)를 제시하면서 合意事項에 따라 조속한 시일안에 第8次 本會談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北赤에 제의하였다.

그러나 北赤측은 本會談『再開條件』으로 ① 韓赤대표단의 改編 ② 南韓에서의『애국적 인민과 청년학생에 대한 탄압중지』를 요구하면서 ③『서울은 회담개최에 적합한 분위기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第8次 本會談은 서울 대신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第8次 本會談이 열릴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쌍방의 交替首席代表를 책임자로 하는「本會談豫備會議」를 板門店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이같은 北赤의 제의는 本會談의 서울·평양 輪番開催를 기피하여 서울과 평양간의 왕래를 단절하려는 것이었으므로 韓赤은 北赤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本會談再開를 촉진하기 위한 타협안으로 실질적으로는 本會談의 축소판이 될「南北赤十字會談臨時會議」를 板門店에서 열고 本會談再開問題와 本會談議題案件들을 討議·解決하게 하고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면 本會談을 개최하자고 수정제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쌍방은 第6次「代表會議」(1974년 5월 22일)에서 다음과 같은「南北赤十字 實務會議」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南北赤十字 實務會議 開催에 關한 合意書〉

쌍방 赤十字會議 대표들은 板門店에서 會談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 쌍방 赤十字代表들의 접촉을 끝내고 빠른 시일안에 板門店에서 쌍방 代表團의 交替首席代表(副團長)를 책임자로 하는 실무회의를 가진다.

둘째 : 實務會議에서는 本會談 議題에 대한 豫備的 討議를 진행하며 동

시에 本會談 再開問題를 토의 해결한다.

세째 : 實務會議는 本會談이 다시 열릴 때까지 진행한다.

네째 : 實務會議 날짜, 構成, 運營節次 문제는 따로 토의한다.

(2) 南北赤十字「實務會議」

제 7 차 南北赤 本會談 이래 교착된 南北赤十字會談의 정상화를 위하여, 南北 雙方代表가 반년넘어 접촉을 가진 결과 「실무회의」 개최에 합의를 보았고, 이어서 1974년 7월 10일부터 板門店 中監委 회의실에서 쌍방 交替 首席代表를 책임자로 하는 實務會議가 열리게 되어 「本會談 議題의 豫備 的 討議」와 「本會談 再開問題」를 협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實務會議는 1977年 12月 9日까지 3年餘에 걸쳐 25차례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의 會議進行經過와 쌍방 代表團 名單은 아래와 같다.

實務會議 進行經過

년 도	구 분
1974	1차(7. 10), 2차(7. 24), 3차(8. 28), 4차(9. 25), 5차(11. 5), 6차(11. 29)
1975	7차(1. 24), 8차(2. 28), 9차(3. 26) 10차(5. 8), 11차(7. 21), 12차(8. 22) 13차(10. 23), 14차(11. 28),
1976	15차(2. 12), 16차(4. 10), 17차(6. 9), 18차(8. 20), 19차(10. 19), 20차(12.10)
1977	21차(2. 11), 22차(4. 28), 23차(7. 15) 24차(10. 14), 25차(12. 9)

〈韓 赤〉

交替首席代表 金 鍊 珠
代 表 金 達 述

代 表 鄭 炷 年

〈北 赤〉

副 團 長 主 張 준

代 表 趙 明 일 (第 7 次 회의부터 서성철로 교체되었다가 第 17 次부터 다시 정재일로 交替됨)

代 表 金 련 주 (第 20 次 회의부터 交替도 없이 일방적으로 不參함)

1974年 7月 10日에 있는 第 1 次 實務會議에서 韓赤은

① 赤十字 본연의 사명 충실, ② 人道主義 奉仕精神 구현, ③ 本會談 개를 위해 實務會議 조속 종결 등 실무회의에 임하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會談의 부진 및 중단책임이 전적으로 北赤側의 政治問題 제기와 내정간섭에 있음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다음 사항을 제의했다.

① 第 8 次 本會談을 1974年 8月 30日 서울에서 개최한다.

② 議題 第 1 項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示範의 事業으로 「老父母의 주소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事業」을 우선 실시한다.

이 「老父母事業」은 南北赤十字 쌍방이 「尋人依頼書」와 「尋人回報書」를 相互 交換하고 곧이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板門店에서 면회도 하고 자유로운 방문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韓赤이 이 「老父母事業」을 제의한 것은 1천만 離散家族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있어 이미 연로해서 앞날을 기약하지 못하는 老父母의 주소와 生死를 확인하는 사업은一刻을 다투는 긴급한 과제라는 점과 함께, 議題 第 1 項 討議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우선 示範的으로 이 사

업을 실시함으로써 議題討議에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는데 참뜻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北赤은 서울의 분위기는 會談開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종래주장을 되풀이 하고 「老父母事業」에 대해서는 법률적 條件과 社會的 環境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거부했으며, 第7次 本會談時 이미 제의한 바 있는 「條件環境論」을 각색한 「共同聲明」採擇案을 또다시 제기하였다.

그들이 제기한 조건환경 개선을 위한 「共同聲明」의 내용은

- ① 反共法, 國家保安法 및 緊急措置 등을 철폐할 것.
- ② 反共團體 및 反共機構을 해체할 것.
- ③ 反共政策 및 軍事挑發을 중지할 것.
- ④ 政黨, 社會團體들의 赤十字事業 참가 및 활동을 보장할 것.
- ⑤ 以上 條項의 法律的, 行政的 조치를 관계당국에 요구할 것 등이다.

實務會議는 거듭되었으나 北赤側은 赤十字運動의 영역을 벗어나는 정치적 주장인 이른바 「조건환경개선」주장을 고수, 韓赤側의 조속한 本會談再開努力을 외면했다. 韓赤은 會談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第6次 實務會議에서 老父母問題의 우선해결을 위한 구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의했다.

첫째, 南北赤十字 쌍방은 本會談 議題 第1項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적 사업으로 「老父母의 주소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사업」을 우선 실시한다.

둘째, 老父母라 함은 그들의 자녀 또는 친척들과 서로 南北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60세 이상의 남녀노인들을 말한다.

셋째, 「알아내며 알리는 방법」은 1972年 10月 24日 第3次 本會談에서 大韓赤十字社 代表團이 제안한 「尋人依賴書 交換」 방식으로 해결한다.

네째, 「老父母의 주소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사업의 진행과 더불어 당사자(老父母와 그 자녀 및 친척)들의 희망에 따라 相逢, 訪問, 書信交換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相 逢

南北赤十字 쌍방은 生死, 소재지가 확인된 老父母와 그 자녀 및 친척들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희망에 따라 수시로 板門店에서 자유로운 상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南北赤十字 쌍방은 板門店에 「面會所」를 설치하고 相逢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② 訪 問

南北赤十字 쌍방은 生死, 所在가 확인된 老父母와 그 자녀 및 친척들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희망에 따라 서로 상대방을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방문시기와 기간은 新正 및 秋夕名節을 전후하여 15일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수시 방문도 할 수 있도록 한다.

南北赤十字 쌍방은 방문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③ 書 信 交 換

南北赤十字 쌍방은 老父母와 그 자녀 및 친척들 사이에 書信交換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선하며 이를 위하여 板門店에 「南北郵便物 交換所」를 설치 운영한다.

다섯째, 南北赤十字 쌍방은 第 4 次 本會談에서 합의한 「板門店 共同事

業所」를 조속히 발족시키며 그안에 上記「面會所」와「郵便物 交換所」를 설치 운영토록 한다.

1975년에 들어와 처음 열린 第7次 實務會議(75. 1. 24)에서 韓赤은 금년에는 北赤이 赤十字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第8次 本會談을 서울에서 개최할 것과 이미 제의한 老父母事業을 하루빨리 수락할 것을 촉구하면서, 大韓民國은「6·23宣言」以後 소련 및 中國 등 共產國家內的 이산가족들과도 書信을 교환할 수 있게 된 사실을 밝히고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書信 교환조차 불가능한 곳은 오직 北韓地域 뿐임을 지적하면서 南北間에 전면적인 門戶開放을 하여 이산가족의 고통을 조속히 풀어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北赤은「서울분위기」와「條件環境 改善」등 선행조건을 계속 되풀이 하면서 老父母事業 實現을 거부하는 한편「6·23 宣言」은 분열주의 정책이며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한 人道主義 사업의 실현은 물론 本會談도 再開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第7次 實務會議부터는 北赤 代表中 조명일 대신에 서성철이 참가하였다.

韓赤은 第8次 實務會議(1975년 2월 28일)에서는 老父母와 그들의 이산 자녀들간의 사진교환을, 그리고 第13次 實務會議(1975년 10월 23일)에서는 ① 新正과 秋夕을 이용한 이산가족「省墓訪問團」의 상호교환과 ② 老父母와 그들의 이산자녀들간의 板門店「面會所」運營 및「우편물교환소」운영을 제의했다. 韓赤이 제안한「南北離散家族 省墓訪問團 交換」方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韓赤十字社 代表團은 오늘 南北의 1천만 이산가족들과 5천만 동포의 기대에 부응하고 교착된 南北赤十字會談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人道的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 ① 南北赤十字 쌍방은 남북간의 民族的 信賴를 회복하며 이산가족문제
의 해결을 촉진하는 시범적 사업의 하나로서 「南北離散家族 省墓訪問
團」을 상호 교환한다.
- ② 이 省墓訪問團의 交流事業을 매년 秋夕, 新正, 舊正, 寒食等 우리 민
족의 명절을 기하여 실시한다.
- ③ 쌍방은 今年 秋夕을 기하여 第1次 「南北離散家族 省墓訪問團」의 상
호교류를 실시하며 그 인원과 체류기간 및 기타 절차상의 문제들은
쌍방 협의하에 결정한다.

※ 第1次 「南北離散家族 省墓訪問團」은 500명 정도로 1週間 체류」

그러나 北赤側의 태도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北赤側은 『이산가족 ·
친척의 인도적 고통은 통일이 달성되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本末이 顛倒
된 주장을 하면서 이론의 여지가 없이 정치적 문제인 大韓民國의 ① 6·23
평화통일의교정책선언 ② 반공정책 및 ③ 駐韓美軍撤收問題등을 赤十字
회담에서 토론할 것을 고집했다.

마침내 北赤은 1978년 3월 20일로 예정된 제 26 차 실무회의를 하루 앞
둔 3월 19일 「평양방송」을 통해 엉뚱하게도 韓·美合同 軍事機動訓練 「팀·
스피리트 78」을 구실로 동 훈련이 『적십자회담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시
킨다』고 비난하면서 제 26 차 실무회의를 『무기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선
언, 25차까지 계속되어 온 實務會議마저 중단시키고 말았다.

바. 南北直通電話의 斷絶

南北調節委員會와 南北赤十字會談등 두갈래 南北對話의 중단이 몰아온 또 하나의 사태는 南北直通電話의 단절이다.

南北直通電話는 南北赤十字 第1次 豫備會談(1971. 9. 20)에서 南北赤十字 쌍방이 板門店 「自由의 집」과 「板門閣」에 각각 常設連絡事務所를 설치하고 連絡事務所間에 直通電話 2회선을 가설키로 한 합의에 따라 同年 9 月 22日에 처음 설치되었다.

그후 南北赤十字 豫備會談이 진행되는 동안 南北間의 정치적 대화문제가 대두되어 쌍방 실무자의 비밀접촉에서 우리측이 北側에 대해 서울·平壤間의 直通電話 架設을 제의하였으며 쌍방 합의에 따라서 1972年 4月 29 日에는 서울·平壤間을 잇는 역사적인 南北直通電話가 비공개리에 개통됐다.

곧이어 平壤을 방문한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은 金日成과 만나는 자리에서 『南北間에 예기치 않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南北間 수시 對話通路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南北直通電話의 공식화를 提議, 金日成이 이에 동의하여 1972年 7月 4日 「南北共同聲明」 발표와 동시에 이의 설치를 발표함으로써 공식화되었던 것이다.

그후 南北을 잇는 連絡通路는 南北赤十字 中央機關間 2회선, 南北赤十字會談用 通信網 18회선, 板門店의 連絡事業所間의 2回線과 南北調節委員會間의 1회선을 포함하여 모두 23회선의 통신선을 유지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南北直通電話는 南北間의 會談開催에 따른 그때 그때의 절차협의나 南北高位層(李厚洛·朴成哲)의 秘密交換訪問의 실현과 7·4 南北共同聲明 발표에 크게 공헌하였고, 특히 휴전선에서의 충격사건, 東西海에서

의 어부 및 漁船拉北事件等 南北間의 예기치 않은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현상 악화를 예방키 위한 협의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그 운용에 있어서는 「南北直通電話 架設 및 運用節次에 관한 合意書」에 따라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平壤間 直通電話는 매일 오전 9시-낮 12시, 오후 4시-8시사이에 운용돼 왔고, 赤十字 中央機關間 直通電話(서울-平壤)는 매일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4시-6시사이에, 板門店의 「自由의 집」과 「板門閣」間的 直通電話는 公休日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오후 4시사이에 운용되어 왔다.

杜絶이전까지의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南北間의 通話數는 試驗通話 5,637회(調節委: 1,108회, 赤十字: 1,850회, 板門店連絡事務所: 2,679회), 本通話 1,051회(調節委: 238회, 赤十字: 45회, 板門店連絡事務所: 768회)以外에 서울과 平壤에서 調節委員會나 赤十字會談이 열릴 때는 報道用으로 크게 활용되기도 하였으며, 1973年 8月 28日 北韓側의 一方的인 대화 중단선언으로 南北對話가 교착상태에 빠진 뒤에도 계속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1976年 8月 18日 板門店 도끼만행사건 직후인 1976年 8月 30日 北韓이 東海에서 자유로이 어로중이던 우리측 어선 第3新進號를 납치해감에 따라 이의 송환을 협의하기 위하여 韓赤側이 電話通知文을 발송코자 하였지만 北赤側이 이의 접수를 거부함으로써, 南北分斷 4반세기만에 역사적인 개통을 보았던 南北直通電話는 모두 단절되고 말았다.

사. 南北調節委 서울측 代表 및 北韓 「祖國戰線」 代表 接觸

(1) 「1. 19 對北 提議」

1979年 1月 19日 朴正熙大統領은 年頭記者會見을 통해 그동안 중단되어 온 南北對話를 재개하기 위하여 時期, 場所, 水準에 아무런 구애됨이 없이

南北韓當局間에 무조건 직접대화를 갖자는 적극적인 제의를 北韓側에 내놓았다.

「나는 어떠한 시기나, 어떠한 장소에서나, 또는 어떠한 수준에서든 南北韓當局이 서로 만나서 아무런 前提條件도 없이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하면 韓半島에서 同族相殘을 막고 5천만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諸般問題, 다시 말해서 그동안 南北韓이 提示해 온 모든 분야의 문제들을 직접 논의하기 위해서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같은 朴正熙大統領의 「1·19 對北提議」는 南北間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던 대화통로인 南北調節委員會와 南北赤十字會談이 모두 북한측의 일방적인 대화거부로 인하여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南北韓의 책임있는 當局이 무조건 직접만나 南北對話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大韓民國은 이 「1·19 對北提議」를 통하여 南北쌍방 당국간의 회담이 마련되면 北韓側이 제기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南北間의 모든 문제들을 폭넓게 협의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모든 수준의 회담을 고려할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필요하다면 정상회담까지도 고려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大韓民國의 이러한 획기적 제의에 대하여 北韓側은 그들의 책임 있는 當局이 계속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1979년 1월 23일 北韓內의 일개 社會團體에 불과한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中央委員會의 명의로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첫 반응을 보였다.

「(우리는) 北과 南의 각 政黨·社會團體들로 구성되는 「全民族大會」를 소집할 것을 제의한다.」

이 대회에는 北의 각 政黨·社會團體들과 民主共和黨을 포함한 南朝鮮의 모든 政黨·團體들의 代表들 및 各界各層의 愛國的 인사들, 그리고 海外同胞들의 조직들과 개별적 인사들이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대회를 올해 9월 초 平壤이나 서울에서 열며 대회의 成果的인 준비를 위하여 6월 초순에 平壤에서 國內와 海外에 있는 각 政黨·團體들의 實務級 代表들이 雙務的 또는 多務的 예비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

北韓側은 이 성명에서 大韓民國의 「1·19 對北提議」를 받아들이는 대신 소위 「全民族大會」의 소집 및 同 豫備會談의 개최를 제의한 외에도 ① 1979년 2월 1일 10시를 기하여 쌍방 당국이 각각 7·4 共同聲明의 이념과 원칙을 재확인하며 그를 엄숙히 준수할 것에 대한 태도를 공식으로 성명할 것 ② 동시에 官·民間을 막론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에 의한 상대방에 대한 中傷·誹謗을 그만 둘 것 ③ 1979년 3월 1일 10시를 기하여 쌍방 軍事當局이 상대방을 敵對視하고 위협하는 모든 軍事行動을 무조건 중지할 것 등을 아울러 제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北韓側은 1월 25일 勞動黨中央委員會 政治委員이며 副主席인 朴成哲의 담화를 비롯하여 北韓의 이른바 각종 단체의 명의로 「祖國戰線」聲明을 支持, 그 실현을 촉구한다는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이에 大韓民國政府는 1월 26일 政府代辯人(文化公報部長官)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北韓側의 의사표시는 南北韓當局이 … 이미 7·4 南北共同聲明으로 합의한 사항들에 대하여 北韓側이 이를 준수하겠다는 것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7·4 南北共同聲明을 비롯한 그간 南北間에 합의된 모든 사항들이 쌍방의 책임있는 當局間 對話를 통해 이루어졌듯이 앞으로의 南北對話도 쌍방의 책임있는 當局間에 이루어질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임을 지적하고, 『현재까지 南北韓이 제시한 모든 문제들을 조속히 협의하기 위하여 구태여 1979년 6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서울이나 平壤에서 南北韓 當局間的 豫備會談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에 대한 직접 책임있는 北韓當局의 회담을 촉구했다.

이와 같이 大韓民國 정부대변인이 南北韓 當局間 豫備會談을 6월 이전에라도 개최할 것을 제의한데 대하여 北韓側은 1월 27일 「祖國戰線」中央委員會 書記局의 성명을 발표하고 1월 23일의 「祖國戰線」中央委員會 聲明에서 6월 초로 제의했던 「全民族大會」의 소집을 위한 「實務級 豫備會談」을 4월 초로 앞당길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北韓側은 끝내 책임있는 당국이 나서지 않는 가운데 그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그들이 임의로 선정한 의제를 가지고 南北對話를 진행시켜 보자는 속셈을 드러냈으며, 2월 10일에는 「祖國戰線」 명의로 그들 나름대로 선정한 大韓民國의 各界 人士와 團體 앞으로 그들의 1월 23일자 「祖國戰線」中央委員會 聲明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해 옴으로써 지금까지 南北對話와 관련하여 北韓側이 보여준 일방적이고 선전적인 작태를 되풀이 했다.

이에 大韓民國政府는 1월 29일 文化公報部 代辯人 성명을 통하여 『北韓當局은 大韓民國의 제의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한낱 사회단체가 실현성 없는 政治宣傳만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大韓民國의 기본입장은 이미 천명된 바와 같이 금년 6月 以前 어느 때든지 아무런 前提條件없이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쌍방의 책임있는 當局間의 豫備會談을 열고 여기에서 그동안 쌍방간에 제의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자는 것이며, 이와 같은 우리 政府의 제의가 있는지 상당한 기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北韓當局의 성의있는 회답이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직접 책임있는 北韓當局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러나 北韓側은 책임있는 당국의 회답은 계속 회피한 채 1월 31일 「朝鮮中央通信社」 성명을 통해 1월 23일자 「祖國戰線」 中央委員會 聲明에서

제의한 내용에 따라 2월 1일 오전 10시를 기하여 對南誹謗·中傷을 중지할 것을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주장함으로써 東問西答格의 宣傳의 반응을 보였다.

(2) 會談 成立과 進行

大韓民國은 이상과 같이 단절된 南北對話를 재개시키기 위하여 「1·19 對北提議」를 기점으로 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北韓當局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였으나, 北韓側은 계속 「祖國戰線」을 앞세워 책임있는 당국이 직접 나서는 것을 회피하고 다만 「7·4 南北共同聲明」의 原則履行을 운운하면서 南北間의 접촉시기를 앞당기자는 大韓民國의 제의에 대해서만 肯定的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大韓民國은 北韓側에서 「7·4 共同聲明」에 관한 履行問題를 거론하고 있는 이상, 南北韓의 책임있는 當局間에 7·4 共同聲明 基本精神의 이행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어 왔던 南北調節委員會를 조속히 재개하고 南北直通電話를 재개통·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聲明戰을 종식시킬 필요성에 유의하게 되었다.

이에 1979년 1월 31일 閔寬植 南北調節委員會 서울측 共同委員長代理는 성명을 발표하고 北韓側에게 南北調節委員會를 재개하여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7·4 南北共同聲明의 이행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 본인은 南北共同聲明의 理念과 原則의 재확인과 合意事項의 성실한 履行을 보장함에 있어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길은 그것을 주관하는 南北調節委員會를 재개하여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인은 그동안 중단되어 온 南北調節委員會를 조속히 再開하는데 同意할 것을 平壤側에 촉구한다.

南北間의 문제를 포함한 雙務의인 事案이나 문제는 一方的인 통고나 주장만으로는 解決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또한 平壤側이 一方的으로 중단한 바 있는 서울~平壤間 直通電話를 즉각 再開하여 南北間의 의사소통이 신속하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

大韓民國은 이 성명을 통하여 「시기와 장소 그리고 수준에 구애받지 않는 책임있는 南北當局間 對話提議」와 함께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기존 南北間 對話機構인 南北調節委員會의 재개를 아울러 요구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생산적이고 실효성있는 南北間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北韓側은 이상과 같은 1월 31일자 南北調節委員會 서울측의 성명에 대하여 1979년 2월 5일 소위 「祖國戰線」中央委員會 書記局의 성명을 통해 『調節委員會와 같은 극히 제한된 기구를 가지고서는 민족앞에 나선 舉族의인 위업을 온 겨레의 의사에 맞게 실현할 수 없으며 그것은 이미 불합리한 것으로 되어 실제에 있어서 … 그 존속의 意義를 상실하고 말았다.』고 주장하면서 南北調節委員會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대신 『(「全民族大會의 召集」과 같은) 全民族的인 대화와 協議機構를 마련하기 위한 예비적 協議機構로서 「民族統一準備委員會」를 발족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이 『「民族統一準備委員會」를 마련하기 위하여 2월 20일 12시에 板門店에서 北側 連絡代表와 南側 連絡代表가 만날 것』을 제의했다.

이어 北韓側은 2월 12日 「祖國戰線」中央委員會 書記局의 보도라는 형식으로 소위 「民族統一準備委員會」의 결성을 협의하기 위해 「祖國戰線」을 대표하는 北韓側 連絡代表 4명을 그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예정된 일시와 장소에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北韓側의 태도에 대하여 大韓民國政府는 2월 12日 政府代辯人

의 記者會見을 통해 「1·19 對北提議」에서의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수준에서든 南北韓 當局이 아무런 前提條件 없이 서로 만나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논의한다』는 기본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하고, 다만 北韓側이 7·4 共同聲明을 비롯한 南北雙方間 合意事項의 이행을 주관하고 있는 기구인 南北調節委員會에 대해 거론하고 있으므로 同機構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필연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南北調節委員會 서울측도 같은날 李東勲 代辯人의 성명을 발표하여 南北調節委員會는 쌍방간의 합의에 따라 『分斷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도록 되어 있는 폭 넓은 對話機構』임을 지적, 北韓側에 의한 『존재의 상실』, 『극히 제한된 機構』 운운 및 『南北調節委員會를 그만두고 그 대신 이른바 「民族統一準備委員會」를 발족시키자』는 등 일방적인 주장의 부당성을 논박했다. 이어 『南北對話 再開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1973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南北調節委員會 第3次 本會議에 이어 平壤에서 열릴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平壤側의 거부로 열리지 않고 있는 南北調節委員會 第4次 本會議을 무조건 再開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하여 1979년 2월 17일 오전 10시 板門店 「自由의 집」에서 쌍방 副委員長이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하여 北韓側은 2월 13일 「祖國戰線」 中央委員會 書記局 代辯人 聲明을 통해 北韓側이 「民族統一準備委員會」의 결성 협의를 위해 이미 일방적으로 선정 통고한 4명의 連絡代表를 2월 17일 오전 10시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회의실로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北韓側이 我田引水格의 성명을 발표하자 南北調節委員會 서울측

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같은 板門店地域이니 만큼 접촉장소에 구애하지 않을 것』과 『우리의 南北對話 再開努力은 7·4 南北共同聲明의 원칙과 합의사항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는 당연히 南北調節委員會를 정상화하는 문제』이므로 『우리는 2월 17일 板門店 접촉에서 平壤側 人士들을 통하여 이같은 우리의 뜻을 平壤側에 알리고자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동시에 동 접촉에 나갈 南北調節委員會 서울측의 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로써 南北調節委員會 第4次 本會議 開催問題를 협의하기 위한 雙方調節委 副委員長間의 접촉을 제외한 調節委 서울측대표와 소위 「全民族大會」를 전제로 한 「民族統一準備委員會」의 결성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連絡代表」의 자격을 내세운 北韓側 「祖國戰線」대표 사이에 1979년 2월 17일, 3월 7일 및 3월 14일 3차례에 걸쳐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회의실에서 변칙적인 남북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3 차례의 변칙대좌에 참석한 쌍방의 대표 명단은 다음과 같다.

〈調節委 서울側〉

閔 寬 植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副委員長
成 秉 春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委 員
鄭 洪 鎮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幹事委員
李 東 馥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代 辯 人

〈北韓側 連絡代表〉

權敏俊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副委員長 (朝鮮勞動黨 代表)
 李昌善 政務院 部長 (政府代表)

金錫俊 朝鮮民主黨 中央委員會 副委員長 (朝鮮民主黨 代表)
白俊赫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 書記局 副局長
(「祖國戰線」代表)

이 같은 南北接觸은 비록 그것이 상호 성격과 자격이 다른 대표들간의 만남이기는 하나 1975년 5월 30일로 예정되었던 南北調節委 第11次 副委員長會議와 1978년 3월 20일로 예정되었던 南北赤十字 第26次 實務會議가 北韓側에 의해 무기한 연기된 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진 쌍방간의 대화라는 점에서 내외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1·19 對北提議」의 취지에 따라 책임있는 南北當局間的 실효성 있는 생산적인 대화를 갖거나 아니면 7·4 南北共同聲明의 기본정신 및 합의사항에 의거하여 南北調節委員會의 운영을 정상화하자는 大韓民國의 주장과 소위 「民族統一準備委員會」의 구성을 위한 「連絡代表會議」를 요구하는 北韓側 주장은 끝내 평행선을 그었다.

1979년 2월 17일 첫번 접촉에서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은 南北對話 재개를 위한 기본입장을 개선하고 南北調節委員會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南北調節委員會 평양측에 제의했다.

첫째, 南北調節委員會 第4次 本會議을 1979년 4월 3일 平壤에서 개최할 것.

둘째, 南北 쌍방간에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1979년 2월 20일 오전 9시를 기해 南北調節委員會의 南北直通電話를 개통시킬 것.

셋째, 南北調節委員會 再開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南北調節委員會 관계

자의 접촉을 1979년 3월 7일 오전 10시 板門店에서 가질 것』

또한 南北調節委 서울측은 1973년 12월 19일의 第2次 副委員長會議에서 현재 각기 5명으로 되어 있는 南北調節委員會의 쌍방 委員數를 각기 10명 내외로 늘리고 여기에 정당인과 사회인사도 참여시키도록 하자는 擴大改編案을 제의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지금도 합리성과 능률성의 테두리 안에서 언제든지 南北調節委員會의 擴大改編을 위한 협의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확실히 한다』고 밝혔다.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은 또한 南北間의 平和定着問題와 相互信賴 回復問題는 南北 雙方間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같은 합의는 각기 자기측 지역 내에서 합의사항의 실천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는 南北 쌍방의 책임있는 당국간에 이루어질 때야야 비로소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이같은 자명한 사리때문에 大韓民國이 南北의 책임있는 當局間의 직접적인 대화를 주장해 왔음을 강조하고 北韓側이 當局間 會談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北韓側은 「民族統一準備委員會」를 마련하기 위한 「祖國戰線」을 대표하는 連絡代表라는 입장을 내세워 『지금 시기로 말하면 北과 南사이에 대화가 처음으로 시작되던 때와 같이 南北關係를 단순히 조절이나 할 때가 아니고 통일문제를 實質的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統一準備委員會 같은 것을 새로 구성하고 실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 접촉의 자리에서 「民族統一委員會」의 발족을 위한 實務節次를 협의할 것을 제의했다.

南北雙方은 이날의 접촉을 끝내고 같은날 오후 南北調節委員會 서울측의 李東馥 代辯人과 北側의 「祖國戰線」中央委員會 書記局 副局長 白俊赫

이 南北直通電話의 재개와 관련된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비공개 접촉을 가졌으나 北韓側이「南北調節委員會 直通電話」의 재개통을 거부함으로써 동 접촉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다.

이어 1979年 3月 7日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회의실에서 두번째 南北接觸이 이루어져 서로의 기본 입장을 밝히고 南北對話問題를 논의하였으나 서로의 입장을 접근시키지는 못했다.

南北調節委員會 서울측은「2. 17」대좌시 南北調節委員會 平壤側에 제의한 3개 項目에 대하여『調節委員會 平壤側 관계자로부터 可否間 아무런 의사표명이 없을 뿐 아니라 南北調節委員會 쌍방 관계자들간의 접촉의 자리로 마련된 이 접촉장소에도 平壤側은 하나의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이어 南北調節委員會 서울측이 北韓의「祖國戰線」을 대화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北韓側은『調節委員會는 5년전에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南北調節委員會의 存在自體를 부인하면서 이른바「民族統一準備委員會」를 발족시킬 것을 고집했다.

南北調節委員會 서울측 대표와 평양측 連絡代表 사이의 세번째 접촉은 1979年 3月 14日 다시 진행되었다.

이 접촉에서도 북한측은 계속「祖國戰線」대표의 이름으로 참석함으로써 南北調節委員會 관계자나 책임있는 北韓當局의 대표가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大韓民國側 주장을 외면했다.

이에 調節委 서울측은 그동안 두차례의 변칙적인 南北接觸을 통해 ①調節委 第 4 次 本會議을 4월 3일 平壤에서 개최하고 調節委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제의했으며 ②調節委가 南北關係를 조절이나 하는 제한된 기구가

아님을 논증했고 ③ 또한 調節委를 확대 改編하여 당국자 이외에 政黨·社會團體 인사들에게까지 참여의 폭을 넓히고 調節委의 5個 分科委員會를 발족시키는 과정에서 각 해당 분과별로 보다 광범위한 인사들의 참여를 도모할 것을 제의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세차례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南北間의 변칙적인 접촉을 지양하고 그대신 정상적인 南北對話를 마련하기 위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實務代表들 사이의 접촉을 가질 것을 다음과 같이 제의했다.

『1. 이 접촉에는 쌍방에서 각기 3명의 실무대표가 참가한다.

2. 첫 접촉장소는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회의실로 한다.

3. 첫 접촉일시는 1979年 3月 28日 오전 10시로 한다.

4. 이 접촉에서는

가. 南北調節委員會 문제

나. 南北 當局間 會談 문제

다. 기타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의에 대하여 平壤側의 肯定的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측에서는 3명의 實務代表가 3月 28日 이 장소(板門店)에 나올 것이다.』

한편 北韓側은 이에 대하여 그들의 代表團 명칭을 「政黨·社會團體 및 當局 連絡代表」라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일견 새로운 뜻이 보이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北韓側 제안은 『調節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南側이 調節委를 대표함을 취소하고, 이미 이루어진 連絡代表 接觸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1979年 1月 23日 以後 우리側(北韓側)에서 내놓은 모든 제안들과 취한 조치들이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 등 장황한 전제조건을 달아 놓고 그 조건하에서

「祖國戰線」이라는 「모자」를 벗을 용의만을 표명했을 뿐 종래의 기본태도나 주장내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었다.

이날 調節委 서울측이 實務代表會議을 3月 28日 개최하자고 제의한데 대해 北韓側은 4月 5日 종전과 같은 명칭의 네번째 접촉을 갖고 그들의 제안을 토의하자는 주장을 고집하는 가운데 세 차례에 걸친 南北間 變則 對坐는 끝을 맺고 南北調節委員會를 正常化시키려는 大韓民國의 노력은 무산되고 말았다.

(3) 南北韓當局 實務代表會談의 流産

1979년 3월 26일 大韓民國 政府代辯人은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3월 14일의 제 3 차 접촉에서 調節委員會 서울측이 그동안의 南北間的 비정상적인 접촉을 그만두고 그대신 南北 쌍방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당국의 실무대표 접촉을 3월 28일 오전 10시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 바 있다』고 밝히고 大韓民國 當局 實務代表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韓國側 實務代表〉

首席代表 : 董 勳(國土統一院 次官)
代 表 : 盧 昌 憲(外務部 公使)
代 表 : 李 庚 植(文化公報部 副代辯人)

또한 이 성명은 『南北韓 實務代表 접촉에서 필요하다면 비공개리에 그동안 쌍방이 제기한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北韓側은 1979년 3월 27일 「政黨·社會團體 및 當局 連絡代表團」

성명이란 것을 발표하고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지금까지 「祖國戰線」을 대표하여 접촉에 참가했던 4명의 連絡代表가 그대로 「政黨·社會團體 및 當局 連絡代表」라는 명의로 참가할 것임을 밝히고 4월 2일 板門店에서 「第4次 連絡代表接觸」을 갖자고 제의했다.

한편 大韓民國 當局實務代表團은 3월 28일 예정대로 오전 10時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회의실로 나가 北韓側의 實務代表團을 기다렸으나 北韓側 代表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南北韓 當局 實務代表 會談은 결국 유산되고 말았다.

董勳 大韓民國 當局實務代表團 首席代表는 實務代表接觸이 유산되자 板門店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 우리측은 지난 1월 19일 南北對話의 재개를 위한 하나의 획기적인 제의로 南北韓 쌍방 당국이 시기·장소·수준에 구애됨이 없이 直接 會談할 것을 提議한 바 있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 일행이 오늘 이자리에 나왔다.

이 당국간 對話의 門戶는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열려 있다.

또 우리는 南北韓 쌍방간의 合意의 所産인 南北調節委員會가 一方的으로 부정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南北調節委員會 運營 정상화에 의한 南北對話 再開의 門戶 역시 항상 열려 있음을 분명히 해 둔다.

우리는 北韓側이 5천만 민족의 僥運과 內외의 輿望을 올바르게 깨달아 더 이상 지체없이 당국간 對話의 자리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

아. 南北韓 卓球協會 會議

大韓民國의 「1·19 對北提議」로 南北間에 변칙적이긴 하나 調節委員會의 정상화를 위한 南北接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北韓側은 1979년 2월 20일 돌연히 北韓體育指導委員會 委員長 김유순과 北韓卓球協會 會長 金

得俊을 발신인으로 大韓體育會 朴鍾圭會長과 大韓卓球協會 蔡榮喆會長 앞으로 방송을 통한 서한을 발송하고,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平壤에서 개최되는 제 35 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에 南北韓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월 27일 오전 10시에 쌍방 탁구협회 대표들이 판문점에서 만날 것을 제의했다.

이에 大韓體育會와 大韓卓球協會는 2월 24일 對北放送通知文을 통해 人的·物的 교류 및 협력의 증대로 南北相互間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南北關係를 개선하는 것이 民族同質性 회복에 기여하는 첩경이므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교류와 협력방안을 大韓民國이 기회 있을 때마다 北韓側에게 제의해 왔음을 상기시키고, 2월 27일 오전 10시 板門店에 4명의 대표를 보내 北韓側 代表들과 平壤에서 개최되는 第35回 世界卓球選手權大會를 위한 南北韓 卓球單一팀 구성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갖기로 했음을 발표했다.

〈大韓卓球協會 代表團〉

- 代 表 : 蔡 榮 喆 (大韓卓球協會 會長)
- “ : 李 宗 夏 (大韓體育會 副會長)
- “ : 千 榮 石 (大韓卓球協會 專務理事)
- “ : 鄭 炷 年 (大韓卓球協會 理事 代辯人)

한편 北韓卓球協會側은 2월 24일 同 協會 代辯人 성명을 통해 南北韓單一팀 구성문제를 협의키 위해 金得俊 北韓卓球協會 會長을 團長으로, 朴茂成 北韓卓球協會 副會長, 金德基 北韓卓球協會 書記長, 金善日 北韓卓球協會 委員을 北韓側 대표로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南北韓 卓球協會間의 첫 회의가 1979年 2月 27日 오전 10시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

員會 회의실에서 열리게 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하여 南北韓 卓球協會會議은 총 네차례(2月 27日, 3月 5日, 3月 9日, 3月 12日) 진행되었다.

1979年 2月 27日 오전 10시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회의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大韓卓球協會 代表團은 南北韓間에 卓球單一選手團 構成問題의 협의를 계기로 南北韓間에 모든 종목에 걸쳐 체육교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大韓民國側이 南北韓間의 체육교류와 國際競技에 있어서 單一選手團의 出戰問題를 여러번 제한한 바'있음을 상기시키면서 南北韓 卓球單一選手團 구성에 관한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南北韓 卓球單一選手團 構成問題는 우선 國際卓球聯盟 규약의 정신을 준수하고 동 규약의 조항에 합치되어야 하며,

둘째, 南北韓 單一選手團 구성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大韓卓球協會 蔡榮喆 會長은 第 35 回 世界卓球選手權大會 對陣表 추첨 일정이 3月 14日과 3月 15日로 이미 결정되어 있고 또한 南北韓 卓球單一選手團의 選手選拔 및 훈련을 비롯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될 제반문제를 고려하여 南北韓 卓球單一選手團 구성문제는 늦어도 3월 12일까지 합의되어야 하며, 만일 南北韓 卓球單一選手團 構成問題에 관한 쌍방간의 이견조정 지연으로 韓國卓球選手團의 第 35 回 世界卓球選手權大會 참가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南北韓 卓球單一選手團 構成에 관한 합의가 3月 12日 이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北韓卓球協會側이 韓國卓球選手團의 第 35 回 世界卓球選手權大會 참가를 보장하고 韓國卓球選手團이 板門店을 통과하여 同 大會에 참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北韓側은 처음부터 단일팀 구성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요구함과

동시에 節次問題에 관한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단일팀 구성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과시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南北韓 卓球單一選手團 구성을 위해 『① 選手選拔은 가장 우수한 選手 選拔原則으로 國際卓球聯盟의 順位 査定委員會가 발표한 개인등급 사정에 들어 있는 우수선수를 우선적으로 뽑고 나머지는 양측에서 절반씩 같은 수로 하여 모두 18명의 선수를 선발한다. ② 대회출전에 앞서 平壤에서 공동훈련을 하며 韓國側 선수들에게 平壤에서의 모든 생활편의를 제공한다. ③ 選手團 團長은 兩側에서 다함께 1명씩으로 하여 共同團長制를 채택한다. ④ 單一選手團의 명칭은 종래 어느 측도 쓰지않던 「高麗」라고 한다』 등 일견 구체성을 띤 것 같으나 실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는 지엽적 내용의 제안을 내놓았다.

3月 5일에 열린 두번째 會議에서도 大韓卓球協會 蔡榮喆 會長은 南北韓 卓球協會 代表들이 板門店에서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南北間의 체육교류가 이미 실현되고 있었다면 國際競技에서의 單一選手團 出戰問題는 더욱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볼 때 南北間의 체육교류의 일환으로 單一選手團 구성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韓國選手團이 國際卓球聯盟의 會員國으로서 당연히 갖고 있는 대회참가 기득권을 北韓側이 보장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드러내 보이자 北韓側의 單一팀 구성 제의가 韓國選手團의 個別出戰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韓國選手團의 個別出戰 기득권을 우선 보장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北韓側은 大韓卓球協會 代表團의 제의에 대하여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다만 南北韓 單一팀을 구성하는 原則에 먼저 합의할 것만을 고집하면서 1次會議 때와 대동소이한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 하는가 하면, 「統一팀」제의의 의의만을 강조하는데 치중함으로써 韓國選手團의

대회참가를 봉쇄하려는 그들의 본래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3月 9日의 세번째 회의에서도 大韓卓球協會 蔡榮喆會長은 南北韓 卓球 單一팀 구성은 전반적인 南北韓 체육교류 원칙하에서 이뤄져야 하며 北韓側은 그 정신에 입각하여 韓國選手團의 平壤大會 참가를 우선 보장하라고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北韓側의 金得俊 團長은 지난 두차례의 회의때와 같이 單一팀 구성에 따른 제반 절차문제의 토의를 되풀이 주장함으로써 北韓側의 單一팀 구성 제의가 韓國選手團의 平壤大會參加를 저지하려는 의도였음을 다시한번 분명히 했다.

3月 12日 第4次 會議에서도 大韓卓球協會側은 지난 2月 27日 첫 會議에서 平壤大會의 對陣表 추점 일정이 3月 14日과 3月 15日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점과 또한 單一選手團의 選手選拔 및 훈련을 비롯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문제들을 고려하여 單一選手團 構成問題는 늦어도 3月 12日까지 합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國際卓球聯盟 會員國인 韓國選手團의 대회참가 기득권에 대한 先保障 요구를 北韓側이 거부함으로써 單一選手團 구성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北韓側은 2次會議時 그들이 제의한 「合意書」 초안에 大韓卓球協會가 國際卓球聯盟會員으로서 第35回 世界卓球選手權大會에 참가할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으나, 이러한 기득권 인정은 쌍방이 단일팀구성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한 때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하며 會議決裂責任을 大韓卓球協會側에 전가시키기 위해 北韓측이 종래 주장하던 무조건 「先 原則的 合意」 주장과 본질적으로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위장제안을 내놓고 회의를 지연시키려 했다.

이에 대해 大韓卓球協會側은 南北韓 卓球協會 會議가 어디까지나 民族

的 宿願인 전반적인 南北韓 體育交流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北韓側이 이 會議를 平壤大會의 행사에만 한정시키는 일방적인 자세는 그릇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韓國選手團이 第35回 世界卓球選手權大會에 출전할 수 있는 기득권을 먼저 보장한다는 共同聲明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北韓側은 끝내 이를 거부함으로써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한국선수단의 평양대회 참가를 저지하려던 北韓側의 單一팀 구성제의는 순수한 「스포츠」정신을 유린하고 정치선전 목적에 이용했다는 오점만을 남긴채 종결되었다.

자. 南北韓 總理會談을 위한 實務代表 接觸

(1) 實務代表 接觸의 成立

1980年 1月 11日 北韓側은 放送을 통해 「統一과 關聯된 중대한 提案을 담은 편지를 南側에 전달하기 위해 1980年 1月 12日 오후 2시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회의실에 2명의 연락원을 보낼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사」 명의로 보도했다.

南北調節委員會 서울측은 1980年 1月 12日 오후 2시 2명의 연락관을 板門店에 보내 北韓側의 편지를 받아 왔다.

동 편지는 北韓의 副主席 兼 黨祕書이며 「祖國平和統一委員會 委員長」인 金一 명의로 大韓民國 各界人士 10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수취인으로 한 것이었으며, 나머지 1통은 北韓의 政務院總理 李鍾玉이 「大韓民國 國務總理 申鉉禧」 앞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이들 北韓側 편지의 내용은 부분적으로는 각기 상이한 표현을 사용하였

으나 대체로 공통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각 수취인과 개별적으로 만날 것을 제외 한 것이었다.

北韓側 便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제는 외세를 排擊하고 같은 民族끼리 합작하고 단결하여 統一을 實現하는 것으로 民族의 出路을 열어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화가 다시 열린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主張하고 있는 폭 넓은 政治協商會議와 함께 北과 南의 當局者 會談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高位當局者會談도 成熟시켜 나갈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立場으로부터 우리는 貴下와 직접 만나 격의없는 의견을 나누자는 것을 제외합니다.

우리의 접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며 장소는 板門店이나 平壤 또는 서울도 좋으며 제 3국도 무방할 것입니다……』

한편 북한측은 1월 22일 방송을 통하여 美國, 日本, 西獨등에 거주하는 10名の 海外同胞에게도 「金一」의 명의로 위와 같은 편지를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北韓側이 발표한 10名の 수취인은 在日居留民團長 1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9名 모두가 이제까지 해외에서 反韓親北活動을 展開해 온 인물들로 되어 있었다.

大韓民國은 이상과 같은 北韓側 편지들과 관련하여 北韓의 「祖國平和統一委員會 委員長」 명의로 國內外 個別의 人士들에게 각각 발송된 편지들과 北韓 政務院 總理가 大韓民國 國務總理 앞으로 보내온 1통의 편지의 성격을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는 大韓民國의 국호를 사용하면서 南北總理間의 對話를 제외 한 점에 유의해서 이를 南北韓 當局間 대화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1980年 1月 18日 當時의 崔圭夏大統領은 年頭記者會見에서 大韓民國政府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北韓側은 南北韓 總理끼리 서로 만나자는 內容의 書翰을 보내왔다.

本人은 이같은 北韓側 태도는 그간 南北韓間 책임있는 當局의 對話를 추진 해온 우리 政府의 일관된 努力에 대해 北韓 당국이 처음으로 어느정도 肯定的인 反應을 보인 것으로 우선 보고자 한다.

이미 關係當局에 대해 南北總理間 對話를 積極的인 姿勢로 檢討하도록 지시 한바 있음을 밝혀두며 이에따라 政府는 近日中 이 問題에 대한 政府의 見解를 北韓 當局에 통고하게 될 것이다.』

이어 1980年 1月 24日 大韓民國은 板門店 南北調節委員會 연락관을 통해 北韓側 政務院 總理 李鍾玉이 申鉉禧 國務總理 앞으로 서한을 보내온 데 대한 申總理의 回翰을 北韓側에 전달했다.

『…… 우리는 서로 理念과 體制를 超越하여 1千萬 離散家族들에게 人道的 再會의 길을 열어주며, 經濟·社會·文化·體育등 各分野에 걸친 廣範한 南北 교류와 協력을 실현함으로써 相互理解와 信賴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또한 南北의 責任있는 當局間에 會議를 가질 것을 거듭 提議한 바 있었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일관된 입장에서 本人은 南北의 總理가 조속히 직접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本人은 南北의 總理가 서로 만나는데 필요한 제반 절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實務級 代表 接觸을 다음과 같이 가질 것을 提議합니다.

- 實務代表團의 構成 : 각각 차관급 首席代表를 포함하는 3名의 實務代表와 약간명의 隨行員
- 接觸 場所 : 板門店內의 「自由의 집」 또는 쌍방이 合意하는 場所
- 첫 接觸 日時 : 1980年 2月 6日(水) 10 : 00』

위와 같은 內容의 大韓民國의 제의에 대하여 北韓側은 1月 30日 接觸場所만을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會議室로 수정제의하고 나머지 提議 내용은 사실상 大韓民國의 原案을 수락하는 回翰을 판문점을 통해 보내왔다.

이렇게 하여 南北雙方은 1980년 2월 6일 오전 10시 板門店 中立國 監督

委員會 會議室에서 南北韓 總理會談의 절차 마련을 위한 첫 實務代表 接觸을 갖기로 합의했으며 동 접촉에 참가할 實務代表團의 명단을 2月 5日 각각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大韓民國側〉

首席代表 : 金 永 周(外務部 本部大使)
代 表 : 鄭 宗 植(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長)
代 表 : 李 東 馥(南北會談事務局長)

〈北 韓 側〉

首席代表 : 玄 峻 極(勞動黨中央委員會 副部長兼 政務院參事)
代 表 : 白 俊 赫(政務院 局長)
代 表 : 林 春 吉(政務院 局長)

(2) 實務代表 接觸의 經過

南北韓 總理會談의 節次問題를 협의하기 위한 實務代表 接觸은 쌍방에서 각기 3명의 대표와 2명의 隨行員등 5명씩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北韓側에 의하여 동 접촉이 일방적으로 중단될 때까지 도합 10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10 차례에 걸친 實務代表 接觸의 進行經過는 다음과 같다.

實務代表 接觸 進行經過

區 分	場 所	日 字
1 차	中監委 會議室	1980. 2. 6
2 차	板 門 閣	1980. 2. 19
3 차	自由의 집	1980. 3. 4
4 차	板 門 閣	1980. 3. 18
5 차	自由의 집	1980. 4. 1
6 차	板 門 閣	1980. 4. 18
7 차	自由의 집	1980. 5. 6
8 차	板 門 閣	1980. 5. 22
9 차	自由의 집	1980. 6. 24
10 차	板 門 閣	1980. 8. 20

〈實務代表 接觸 및 南北總理間 對話의 進行節次問題〉

第1次 實務代表接觸에서 大韓民國 實務代表團은 『南北總理間의 對話에 필요한 制반 준비를 하는 이번 實務代表 接觸이 장기간의 對話斷絶狀態로 부터 벗어나 진정한 대화와 평화통일의 길을 다지고 구체적 결실을 맺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동 접촉에 임하는 기본입장을 밝히고 南北韓의 總理가 만나는 데 필요한 節次問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大韓民國 實務代表團은 南北總理間의 대화가 조속한 시일내에 능률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南北總理間 대화의 절차문제를 다음 과 같이 제안한다.

- ① 對話의 日時 : 南北總理間의 대화에 수반되는 制반 절차문제가 습 意되는 대로 정한다.
- ② 對話의 場所 : 南北總理間 대화의 場所는 第3國으로 하되 「스위스」 의 「제네바」를 희망한다.
- ③ 對話의 議題 : 南北總理間 대화의 의제는 實務接觸에서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隨行員 構成：쌍방 總理가 각기 長官 또는 次官級 補佐官 2名, 次官 補 또는 局長級 보좌관 2名과 記錄, 通信, 連絡, 公報에 필요한²실무요원 약간명을 대동한다.
- ⑤ 會議場 施設 및 標識：특별한 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회의탁자 위에 쌍방 총리의 명패만 비치한다.
- ⑥ 南北總理間 對話의 記錄：쌍방이 각기 편리한 방법으로 기록을 유지하며 속기사와 녹음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⑦ 合意事項의 處理：합의내용을 각기 2통씩의 문서로 작성하여 각기 서명한 문서를 1통씩 교환한다.
- ⑧ 對話의 公開與否 問題：非公開로 하되 합의에 따라서는 쌍방 總理間의 單獨對話도 할 수 있다.
- ⑨ 報道：각기 편의대로 행하며 합의에 따라서는 共同報道도 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側은 南北總理會談을 위한 實務代表 接觸에 나왔으면서도 『南北韓 總理接觸은 政治人들과 政治人들의 다각적인 접촉의 일환으로써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그들의 기본입장을 밝힘으로써, 南北總理間의 對話를 회담으로 보지 않고 이른바 『南北政治協商會議』의 일환으로 이를 이용하려 했다. 北韓側은 總理間 對話 節次問題와 관련하여 『總理들의 접촉장소는 서울과 平壤을 왕래하는 것이 좋다』는 제안을 내놓고 南北韓 總理의 왕래 및 「接觸」에 필요한 7개항의 절차문제를 제안했다.

- ① 總理들의 접촉장소는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는 것이 좋다.
- ② 隨行人員의 구성은 補佐員, 專門家, 技術人員등 30명과 기자를 포함한 보도원 30명 등 60명으로 한다.

- ③ 會談代表들의 신변안전 등은 매회 접촉때마다 각서를 교환하여 보장하고
- ④ 接觸形式은 公開, 非公開등 필요에 따라 융통성을 갖고 접촉하며
- ⑤ 보도는 과거의 대화경험을 살려 합의문이 작성되면 동시에 하고
- ⑥ 往來節次와 滯留日程은 4~5日 정도로 하고 相對側 인원에 대해서는 초청측이 책임을 지며
- ⑦ 總理들의 첫 접촉이 하루라도 일찍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이번 실무 대표접촉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이다.

1980年 2月 19日에 있는 第2次 접촉에서 쌍방은 第1次 접촉때 각각 내놓은 절차문제 제안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여 南北韓 總理會談의 公開與否, 合意事項 處理, 記錄 및 報道問題 등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으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장소문제와 의제문제에 관해서는 현격한 異見을 보였다.

隨行員 構成問題는 장소문제가 어느 곳으로 합의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할 문제이므로 場所問題 妥結時까지 討議를 유보하였다.

總理會談 節次問題에 관한 第2次接觸에서의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공개여부 문제 : 公開 또는 非公開로 하되 매 대화시에 협의 결정한다.
- ② 합의사항 문제 : 合意文은 각기 2통씩 작성하여 서명후 상호 1통씩 교환한다.
- ③ 기록문제 : 기록은 速記, 錄音, 錄書等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④ 보도문제 : 보도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하되 합의시에는 공동보도한다.
- ⑤ 일시문제 : 실무대표 접촉의 경과에 따라 協議 決定한다.
- ⑥ 시설, 표지문제 : 특별한 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탁자위에 쌍방 총리

의 명패만 비치한다.

한편 大韓民國 實務代表團은 동 實務代表 接觸의 進行節次問題와 관련 하여 이 접촉을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① 會議를 非公開로 진행하고 ② 2次 會議부터는 「自由의 집」과 「板門閣」에서 윤번으로 개최하며 ③ 서로의 연락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南北 直通電話를 이용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하여 北韓側은 첫 會議를 공개로 할 것을 주장, 첫 회의는 공개로 진행되었으며 다음 회의는 그때 그때 협의하자고 하여 동 實務代表 接觸은 회의 시작시마다 公開與否問題를 협의해서 공개 또는 비공개를 정하게 되었다.

場所問題와 南北直通電話 運用問題에 대해서는 北韓側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大韓民國 제의대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同 實務代表 接觸이 진행되는 동안 2個回線의 南北直通電話가 實務代表團間에 운용되었다.

〈總理間 對話의 呼稱問題〉

總理間 對話의 성격을 반영하는 呼稱問題에 대하여 大韓民國 實務代表團은 第4次 및 第6次 접촉에서 『南北總理間의 대화를 쌍방이 「相逢」, 「接觸」이나 또는 「總理間 對話」로 상이하게 부르고 있는 것은 첫째 부자연스럽고 둘째는 쌍방의 高位當局者가 만나는 모임의 성격을 확실하게 한다는 뜻에서도 그 호칭을 統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대화의 호칭을 「南北總理會談」으로 統一해 사용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北韓側은 이를 끝내 거부한채 相互 便宜主義라는 구실을 내세워 「相逢」이나 「接觸」이란 呼稱만을 사용했다. 이것은 北韓側이 南北總理間 對話를 회담으로써 진행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總理會談 場所問題〉

3月 14日 第2次 접촉에서 大韓民國 實務代表團은 장소문제에 관해 『우리측은 회의에서 거론되고 있는 장소중에서 어느 곳은 굳이 반대하고 어느 곳은 반드시 고집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는 점을 전제로 밝히고 『北韓側이 1月 11日 字 書翰에서 장소는 「板門店이나 平壤 또는 서울도 좋고 또 第3國도 무방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측이 北側의 擇一的 제안 중에서 第3國을 선택한 것이지 먼저 우리측이 第3國으로 하자는 제안을 낸 것은 아니다』고 밝히면서 다만 南北對話 경험에서 보면 對話場所는 第3國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측 實務代表團은 『第3國의 境遇 「제네바」를 희망하는 것은 꼭 「제네바」라야 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다만 國際會議을 위한 제반 與件 面에서 「제네바」가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본 것이며 第3國 가운데 어느 곳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서로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伸縮性 있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北韓側은 對話場所를 第3國으로 하는데 반대하고 1月 11日 字 便紙에서 第3國을 列舉한 것은 『어디까지나 피치 못할 경우에 하나의 가능한 장소로 第3國을 예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함으로써 場所問題에 대해서 전후가 맞지 않는 모순된 태도를 취했다.

總理會談 場所問題는 第3次 및 第4次 接觸에서 토의를 거듭한 끝에 결국 쌍방이 總理會談場所를 板門店으로 하자는 修正提議를 각각 내놓았으며 이러한 쌍방의 제안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합의를 보았다 .

- ① 總理間 對話場所는 板門店으로 하며 會談은 「自由의 집」과 「板門閣」에서 번갈아가며 진행한다.
- ② 總理間 對話의 장소를 板門店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할 때는 쌍

방 總理가 상호 협의키로 한다.

그리고 첫 總理間 대화장소를 「自由의 집」과 「板門閣」中 어느 곳으로 하느냐 하는 問題는 첫 總理間 對話日時와 함께 협의 결정키로 했다.

또한 總理會談 場所問題의 타결에 수반되는 補佐人員의 구성, 지원 및 取材便宜, 軍事分界線 往來問題 등에 관해서도 雙方間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一部文句와 표현에 관한 실무적 조정을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쌍방 首席代表가 지명하는 1名씩의 實務代表가 따로 만나 文案調整을 하기로 합의했다.

〈總理會談 議題問題〉

1980年 2月 19日에 있는 第3次 접촉에서 大韓民國側은 『南北의 總理가 만나게 된다면 總理間 對話가 문제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 實質討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제의 事前合意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北韓側은 『議題의 事前合意로 總理接觸에서의 協議範圍와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議題問題의 事前合意에 반대했다.

한편 北韓側은 1980年 3月 4日 第3次 接觸에서 그들의 태도를 바꾸어 議題問題 事前合意에 原則的인 동의를 표시함으로써 議題問題의 토의에 다소 진전을 보였으며 3月 18日에 있는 第4次 接觸에서 南北雙方은 각각 다음과 같은 議題案을 제시했다.

韓國側은

① 議題 第1項：南北間의 相互信賴 조성문제

- 南北間 相互交流·協力の 實施로 相互信賴와 이해의 바탕을 마련하고 민족적 同質性을 회복하는 문제
-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불편을 덜어 주는 문제

② 議題 第2項：韓半島의 平和定着問題

③ 議題 第3項：祖國의 平和統一問題를 제기한데 대해,

북한측은 『北과 南의 각 분야에 걸쳐 합작하고 단결하여 조국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촉진시킬데 대하여』로 하자고 제의하였다.

大韓民國 實務代表團은 第4次 접촉에서의 提案說明과 第6次 및 第7次 접촉에서의 부연설명을 통하여 『統一은 非現實의인 구호나 政治宣傳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쌍방이 平和統一의 터전을 닦는 實質的이고 現實的인 조치를 취하고 그 실적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축적해 나감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南北總理間 對話는 民族의 重大事를 논의하는 중요한 회담인 만큼 여기에 상정할 의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측 議題案은 南北總理間 對話의 討議案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窮極의 目標인 平和統一을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과 단계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優先順位에 따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측 議題案은 項目別 分離討議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討議項目의 設定順序가 만드시 討議順序를 엄격히 제약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總理會談에서 相互合意에 따라 또는 편의에 따라 어느 정도 一括討議 또는 大體討議도 할 수 있고, 議題가 설정된 순서에 따라 個別的 討議도 할 수 있다는 융통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우리측 議題案에 대한 설명에 대해 北韓側은 그들의 議題案이 包括的 「單一議題案」으로서 大韓民國側의 議題案보다 「統一指向的」이라느니 「總理接觸」을 조속히 실현하는데 보다 합리적이라는 등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우리側 議題案은 「分裂指向的」이라고 왜곡·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大韓民國側은 第8次 접촉에서의 발언을 통하여 『그동안의 의제에

관한 협의과정을 돌이켜 볼때 비록 다같이 自主的 平和統一을 追求한다고
는 하고 있으나 南北 쌍방은 서로 本質的으로 상이한 統一接近方法을 생
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전제하고 우리측 의제안의 제안취지와는 달리
北韓側의 議題案은 『그 의미가 너무 막연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
지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의제에 합의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고 논박했다.

그리고 이어 大韓民國 實務代表團은 北韓側의 議題案에 사용된 「合作」·
「團結」등의 단어들에 대하여 北韓側에서 일방적인 政治的 意味를 부여하
고 있는 사실을 지적, 北韓側의 전통적인 暴力政策에 의한 「南朝鮮 革命」,
共産化 統一路線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과해쳤다.

『貴側 高位當局者의 發言과 公式文獻에 의하면 貴側이 말하는 南北間의 「合
作」은 「南北의 廣範한 群衆을 民族的으로 階級的으로 각성시키고 그들로 하여
금 首領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하며 首領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祖國統一을
위한 鬭爭에 나서게 하는 것」이며 또한 「南北間의 모든 分野에서 提起되는 問
題를 다 北半部의 社會主義力量에 의거하여 풀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貴側이 사용하는 「團結」이라는 單語의 政治的 意味는 「南朝鮮 당국으
로 하여금 「反共」 소동을 그만두고 「聯共」의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풀
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貴側은 「自主的 平和統一」을 「南朝鮮에서 美帝侵略者를 몰아내
고 植民地統治를 清算하여 南朝鮮에서 참다운 人民의 政權이 서면 北半部의
社會主義力量과 南朝鮮의 愛國의 民主力量의 團合된 힘에 의해 成就되는 것」
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때 貴側이 總理間 對話의 議題에 「合作」과 「團結」이라는 표
현을 사용하겠다고 고집하는 理由는 明白하다. 즉, 貴側은 總理間 對話에서 眞
正한 平和統一 方案을 협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總理間對話 議題에 이들 用
語가 표현될 경우 우리가 이들 단어에 貴側이 一方的으로 부여한 政治的 意味
까지도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변하려 하고 있다.

貴側의 議題案에서 엿볼 수 있는 貴側의 意圖를 짐작하건대 貴側은 對話에

의한 南北關係의 改善과 解決 그리고 참된 祖國의 平和統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南北 雙方의 高位當局者인 總理間의 對話마저도 貴側이 傳統的으로 追求해 온 폭력에 의한 共產化 統一路線의 한 部分인 「南朝鮮 革命」의 條件을 성숙시키는 手段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으며 貴側 體制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統一을 追求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1980年 6月 24日에 있는 第9次 접촉에서 大韓民國 實務代表團은 議題問題의 조속한 타결과 總理會談의 早期實現을 위하여 南北 쌍방의 主張을 절충한 포괄적인 새로운 議題案과 함께 첫 總理會談의 日時 및 場所問題에 대한 제안을 일괄하여 제의했다. 새로운 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總理會談 議題問題

總理會談의 의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議題 第1項：南北間에 교류와 협력의 실시로 相互信賴를 조성하고 緊張을 완화하는 문제
- ② 議題 第2項：祖國의 平和統一 問題

둘째, 總理會談 첫 會談日時 問題

첫 總理會談을 오는 8月中이나 늦어도 9月中에 개최하며 總理會談을 板門店의 兩側 地域을 왕래하며 열기로 한 합의에 따라 두번째 總理會談을 첫 總理會談後 1個月 이내에 개최한다.

셋째, 總理會談 첫 會談場所 문제

첫 總理會談 장소는 「自由의 집」과 「板門閣」中 貴側의 희망을 考慮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그러나 北韓側은 大韓民國側의 이 같은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實務代表接觸과는 상관없는 大韓民國 國內問題를 거론하는가 하면 『첫 實務接觸

때 交換했던 신임장에 서명한 남쪽의 總理가 사임했으므로 討議가 無意味하다』는 엉뚱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議題討議 自體를 외면했다.

(3) 實務代表 接觸의 膠着과 中斷

北韓側은 1980年 2月 6日 첫 實務代表 접촉이 있는지 不過 1個月餘 經過後부터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 시작했다. 北韓側은 한편으로는 實務代表 接觸을 진행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對話相對方에 대해 武力挑發行爲를 자행함으로써 과연 대화에 임하고 있는 北韓側의 진정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北韓側은 1980年 5月 22日 第 8 차 접촉시부터는 實務代表 接觸의 信任狀에 서명한 大韓民國의 總理가 없다는 엉뚱한 트집을 잡아 接觸自體가 무의미하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접촉의 진전을 가로막고 나섰다. 당시 大韓民國은 國內政治의 필요에 따른 內閣改編과 國會가 休會中이라는 상황때문에 대한민국의 憲法節次에 의한 國務總理 任命에 관한 國會의 동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國務總理 「署理」로 집무하고 있었는데, 이런 問題를 이유로 國務總理의 자격시비를 들고 나온 것은 南北總理間 對話問題에 걸었던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자 實務接觸의 중단책임을 大韓民國에 전가하려는데 의도가 있었다고 하겠다.

또한 北韓側은 第 9 次 接觸부터 北韓側 首席代表 玄峻極이 신병을 이유로 實務代表 接觸에 불참하는 不誠實한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北韓側은 南北 實務代表 接觸이 매 2 주 간격으로 개최되는 관례를 깨고 第 9 次 접촉은 1個月 後로, 第 10 次 접촉은 2個月 後로 接觸間隔을 연장시켜 오다가, 1980년 8월 20일 第 10 次 접촉에 나타난 北韓側 代表들은 會議劈頭부터 第 11 次 접촉을 9月 30日로 연기할 것을 一方的으로 주장, 접촉의

正常的인 진행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쌍방은 次期接觸을 9月 26日에 가질 것만을 합의하고 산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北韓側은 第11次 접촉을 이틀 앞둔 1980年 9月 24日 그들의 방송을 통해 南北 實務接觸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南北直通電話마저 받지 않으므로써 모처럼 마련된 實務代表 接觸도 1980年 2月 6日의 첫 接觸以來 7個月만에 完全 決裂되고 南北對話의 통로는 또 다시 막혀버렸다.

北韓側의 이같은 一方的인 接觸中斷에도 불구하고 大韓民國 實務代表團은 9月 26日 성명을 통해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南北關係의 實質的 개선을 위한 6個項目의 획기적인 새 방안을 北韓側에 공개제의했다.

- ① 南北總理會談 의제는 實務代表 接觸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總理會談 成立後 쌍방 總理들이 직접 협의 결정키로 한다.
- ② 첫 南北總理會談을 11月 둘째 週(11. 3~11. 8)중에 개최하고, 두번째 會談을 그로부터 1個月 이내에 개최한다.
- ③ 첫 總理會談 장소는 이미 南北間에 합의된 板門店의 「自由의 집」과 「板門閣」이나 또는 서울·平壤중에서 北側이 희망하는 장소로 하고 두번째 會談場所는 첫 會談場所에 상응하는 相對側 장소로 하며, 그 이후의 會談은 순서에 따라 쌍방지역에서 번갈아 개최한다.
- ④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위하여 기타 합의를 요하는 節次事項은 쌍방이 지정하는 대표 각 1名이 專門要員을 대동하고 별도의 接觸을 통하여 協議 解決한 後 쌍방 首席代表의 共同確認을 거쳐 확정한다.
- ⑤ 이상과 같은 우리측의 새 제안을 토의하기 위해 第11次 實務代表接觸을 1980年 10月 7日 「自由의 집」에서 갖는다.
- ⑥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關係改善, 그리고 이에 의한 韓半島의 平和와 안정을 희구하는 內外의 염원을 고려하여 南北實務接觸 代表團間에

운용되고 있는 南北直通電話 2個 回線은 앞으로도 중단없이 계속 운용한다.

그러나 北韓側은 이같은 우리의 劃期的인 妥協案을 外面했으며 끝내는 9月 25日 10時 30분에 있었던 連絡通話를 마지막으로 南北直通電話의 운용마저 중단시킴으로써 그들은 南北間의 緊張緩和나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에는 당초부터 아예 관심조차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註> (第 1 部)

- 1) U. 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Conferences at Cairo and Teheran, 1943 (Washington, D.C : U.S. Gov't Printing Office, 1961), pp. 399~404.
- 2)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Conferences at Malta and Yalta (Washington, D.C. : U.S. Gov't Printing Office, 1955), p. 984.
- 3) Robert E. Sherwood, Roosevelt and Hopkins : An Intimate History (New York : Harper and Bros., 1948), p.777.
- 4)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Conferences at Malta and Yalta, p.770.
- 5) 前掲書, p.984.
- 6) Leland M. Goodrich, Korea, A Study of U.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56), pp. 11~12.
- 7) U.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A Decade of American Foreign Policy : Basic Documents, 1941~1949 (Washington, D.C : U.S. Gov't Printing Office, 1950), p.50.
- 8) Harry S. Truman, Memoirs (2 vols. : New York : Doubleday & Co., 1956), Vol. 2 (Years of Trial and Hope), p. 317.
- 9)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5 : The British Commonwealth and the Far East (Washington, D.C. : U.S. Gov't Printing Office, 1969), Vol. IV, pp. 1037~1040.

10) 前掲書, pp. 1037~1040.

11) 方仁厚, 北韓「朝鮮勞動黨」의 形成과 발전(서울: 高大亞研, 1970), p. 242.

12) 俞完植·金泰瑞, 「北韓 30年史」(서울: 現代經濟日報, 일요신문社, 1975), pp. 99~103.

13) 前掲書, pp. 94~98.

※ 이 자료에 따르면, 1946년 2월 당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17개 책임부서 가운데 12개 부서는 이미 共產黨이 장악했으며, 나머지 5개 부서도 「北朝鮮民主黨」 2명, 「新民黨」 1명, 「無所屬」 2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 가운데 「北朝鮮民主黨」은 이미 共產黨의 「友黨」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14) 「金日成 選集」(평양: 「朝鮮勞動黨」출판사, 1963), pp. 26~27 :

Statement of President Truman on Sept. 16, 1945 ; in U.S. Dept. of State Bulletin, Sept. 23, 1945, p. 435 : Gen. Hodge's Declaration in Supreme Command for Allied Powers, Summation of Non-military Activities in Japan and Korea, NO. 1(Sept. 1945), p. 177.

※ 문헌에 의하면 金日成은 이미 1945년 12월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 제 3 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현단계에서 우리 黨의 정치노선은…… 北朝鮮을 통일된 民主主義 獨立國家 건설을 위한 강력한 「民主基地」로 轉變시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15) U.S. Dept. of State, Moscow Meeting of Foreign Ministers : Dec. 12~16, 1945(Washington, D.C. : U.S. Gov't Printing Office, 1946), pp. 14~16.

16) 「北朝鮮民戰重要文獻集」: 『民主建國에 있어서 「北朝鮮民戰」의 역할』(평양: 「北朝鮮民戰」, 1947), pp. 6~7.

17) 大韓民國 公報處가 1952년에 발행한 「蘇聯軍政의 始末」은 『해방 이후 1949년 8월까지 사이에 北韓을 탈출하여 自由大韓으로 넘어 온 越南同胞의 총 수는 3백 28만 3천 명에 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18) U.S Armed Forces in Korea, Summation of U.S. Army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August, 1946, p. 101.

※ 美·蘇共同委員會의 蘇聯측 수석대표 「스티코프」 中將은 제 1 차 美·蘇共同委員會의 결렬을 4일 앞둔 1946년 5월 8일 駐韓美軍사령관 「하지」 中將을 예방한 자리에서 『蘇聯이 특정 인사와 세력의 배제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韓半島가 蘇聯에 접경해 있기 때문에 韓半島에 수립되는 과도적 민중 정부는 반드시 蘇聯에 대해 友好的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스크바」 3相會議 결정에 반대한 韓國人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蘇聯을 모욕하고 蘇聯의 열

굴에 먹칠을 한 것이며 만약 그들이 권력을 잡을 때에는 그 정부는 蘇聯에게 충실치 않음은 물론 그 정부 관리들은 아마도 韓國民들 사이에 反蘇 감정을 선동하게 될 것이다.]고 소련의 속셈을 드러냈다.

Carl Berger, The Korean Knot, A Military and Political History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57), p.67.

- 19) 俞完植·金泰瑞, 「北韓 30年史」, p.103.
- 20) U.N. Official Record, Second Sessio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12 (II), pp. 16~18.
- 21) U.N. Document A/575, add. 1, p. 8.
- 22) U.N. Document A/AC, 19/48.
- 23) Foreign Broadcasting Information Service, Daily Report, May 13, 1947, Korea, LLL 2 ; June 18, 1947, Far Eastern Section, Articles and Speeches, P. 8.
- 24) George N. McCune and Arthur L. Grey, Korea Today(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v50), pp. 246~247.

1948년 8월 15일 南韓 지역에서 大韓民國 정부 수립이 선포된 뒤 北韓 방송은 8월 25일 『南韓 全域에서 共産黨이 실시한 총선거가 실시되어 총 유자격 유권자의 77.5%가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572명의 「最高人民會議」 대의원 중 360명의 南韓 출신 대의원이 선출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北韓共産政權 수립의 정통성을 왜곡선전했다.

그러나 北韓側의 南韓 지역 선거 실시 주장은 실제로 실시된 일도 없거니와 北韓側이 불법적으로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선거에 참가했다는 유권자 수가 「유엔」 감시하에 공개적으로 실시된 선거에 참가한 유권자 수보다 65만 명이 나 더 많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터무니 없는 날조임이 자명하다.

- 25) 韓國戰爭 당시 南北韓의 兵力 및 重要裝備의 比較는 다음과 같다.

〈兵 力〉

軍別	區分	人 民 軍	國 軍	比 率
陸 軍		10個 師團(30個 聯隊)	8個 師團(22個 聯隊)	
		120,880名	67,416名	
	其他 特殊部隊	61,800名	其他 支援部隊	
	계	182,680名	계 94,974名	

軍別	區分	人 民 軍	國 軍	比 率
海 軍		4,700名	7,715名	1 : 1.7
空 軍		2,000名	1,897名	1.1 : 1
海 兵 隊	(陸戰隊)	9,000名	1,166名	7.8 : 1
總 計		198,380名	105,752名	2 : 1

〈重 要 裝 備〉

區 分 裝備別	人 民 軍		國 軍		比 率
	口 徑	數 量	口 徑	數 量	
迫 擊 砲	120 ^{mm}	225門	81 ^{mm}	384門	1.8 : 1
	82 ^{mm}	1,142門	60 ^{mm}	576門	
	61 ^{mm}	360門			
曲 射 砲	122 ^{mm}	172門	105 ^{mm}	91門	6 : 1
	76 ^{mm}	380門			
高 射 砲	85 ^{mm}	12門			國軍 全無
	37 ^{mm}	24間			
對戰車砲	45 ^{mm}	550門	57 ^{mm}	140門	3.9 : 1
戰 車	T-34	242臺			國軍 全無
裝 甲 車		54臺		27臺	2 : 1
自 走 砲	SU-76	176門			國軍 全無
航 空 機	YAK-9	未 詳	L-4機	8臺	9.6 : 1
	IL-10	"	L-5機	4臺	
	IL-2	"	T-6機	10臺	
	訓練機	"			
	偵察機	"			
計		211臺	計	22臺	9.6 : 1
警 備 艇		30隻		28隻	1.1 : 1

出處：國土統一院

26) 민족의 證言：韓國戰爭實錄(서울：中央日報社，1973)，1卷，pp. 232~250.

27) Dean Acheson, U.S. Dept. of State, Bulletin, 「Crisis in Asia, Examination

of the U.S. Policy], (Washington, D.C : U.S. Gov't Printing Office, 1950), p. 116.

「에치슨」 당시 미국무장관은 동 연설을 통해 『美國의 極東 방위선은 「알류산」 列島에서 日本 本州를 거쳐 琉球로 이어진다…… 방위선은 琉球에서 「필리핀」 으로 연결된다…… 이 방위선 밖에 위치한 나라의 安保에 대해서는 軍事的 공격에 대하여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만약 공격이 있을 때에는…… 제 1 차 조치는 공격을 받은 국민이 이에 저항하는 것이며 그리고 난 연후에 「유엔」 憲章에 의한 全文明世界의 공약에 의존해야만 한다』라고 선언하였다.

- 28) U.S. Dept, of State, Bulletin, July 17, 1950, p. 93 ; 金世珍(編), Korean Unification, pp. 127~128.
- 29) 俞完植·金泰瑞, 「北韓 30年史」, pp. 137~138.
- 30) 「離散家族白書」, 1976. pp. 76~77.
- 31) 康仁德(編), 「北韓全書」, 上卷, p. 37.

〈越南人統計〉

出身道別	人員數	居住地別	人員數
黃海道	1,364,600	서울	1,314,000
平南	1,132,900	釜山	600,400
平北	843,200	京畿	636,900
咸南	1,205,600	江原	545,500
咸北	596,700	忠北	166,600
		忠南	318,200
		全北	231,800
		全南	424,400
		慶北	438,100
		慶南	450,400
計	5,143,000	濟州	16,700

出處：「1976 현황」, 以北 五道廳

- 32) 俞完植, 「北韓에서의 政治肅清」, 1945~1976(서울 : 國土統一院, 1977), pp. 207~242.
- 33) 「정치사건」,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528~529.
- 34) 「근로자」 (「勞動黨」 이문기관지), 1974년 4월호 : 『위대한 수령을 모신 우리 인

- 민의 끝없는 영예와 행복』(평양 : 「근로자」社, 1974)
- 35) 1986-先進韓國 (서울 : 民主共和黨, 1978), pp. 455~465.
 - 36) 康仁德(編), 「北韓全書」, 中卷, pp. 33~40.
 - 37) 前掲書, p. 35.
 - 38) 前掲書, p. 51.
 - 39) 南北韓 經濟力 比較, 서울, 國土統一院, 1987.
 - 40) 1970년 8월 24일~29일간 워커히에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국통일문제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결과 :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oblem of Korea Unification Report,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 1971.」
 - 41) 李基遠, 南北對話와 韓國安保, 統一研究(第2輯), 統一研究會, 1973. p.62
 - 42) 北韓概要, 平和統一研究所, 1986. p.171.
 李世震, 北韓의 經濟, 國土統一院 統一研修所, 1982. p.15, p. 23.
 南北韓比較叢書, 國土統一院, 1982. p.48
 - 43) 1968년 「닉슨·사토폰 공동성명」에서는 韓國과 自由中國의 安全은 日本의 安全保障과 직결된다고 밝혀져 있다.
 - 44) 李榮一, 南北對話論(Ⅱ), 統一研修所, 1980. p.12.
 - 45) 東亞日報, 1970. 8. 15, 1면기사 참조.
 - 46) 勞動신문, 1970. 11. 21, 사설 참조.
 - 47) 合同年鑑, 合同通信社, 1973. p. 615.
 - 48) 前掲書, pp.615~616.
 - 49) 「離散家族白書」(서울 : 大韓赤十字社, 1976) pp. 99~101.
 - 50) 『戰時에 있어서의 民間人보호에 관한 「제네바」 제4협약』 제 25~26조 및 제 10조 : 「이산가족 재결함에 관한 赤十字국제회의 호소문」: 제 19차 赤十字국제회의 결의 제 20호 : 제 20차 赤十字국제회의 결의 제 19호 등 각 참조.
 - 51) 南北對話(제 2호), 韓國國際文化協會, 1973. 9. pp. 17~20, pp 42~50.
 - 52) 東亞日報 安保統一問題調査研究所(編), 「安保統一問題基本資料集」, 續北韓編 (서울 : 東亞日報社, 1974), p.424.
 - 53) 1974. 4. 17 평양방송의 김일성노작해설에 따르면, 김일성은 남북한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① 남한에 있는 자본가의 공장과 외국인 투자 기업체의 국유화 ② 남한에 있는 사유농지의 일체 몰수 ③ 南韓과 미국·일본간의 경제협력 관계 단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평화통일의 선결조건이 「대한민국 체제의 공산화」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54) 1973. 9. 9 金一「祖平統」委員長은 북한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 기념보고 대회」에서 『통일문제는 개별인사나 어느 통치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없다』면서 통일문제는 『당국자의 범위를 벗어나 전민족의 범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大民族會議」를 소집할 것을 역설하였다.
(남북대화 제 4 호, p 13)
- 55) 金日成이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 제 4 기 8차 전원회의에서 강조한 「3大革命力量強化」 지시에 의하면, 『南朝鮮 革命力量이란 노동자 계급(당)이 영도하는 노·농동맹군을 주력군으로 삼고,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소시민 등에 이르는 각계각층을 혁명의 보조군으로 하여 反美 反政府鬭爭의 統一戰線을 구축하는 것』을 뜻한다.
(章洙棟, 北韓의 對南戰略, 民主統一論, 1988. pp.101~102)
- 56) 北韓은 타도대상을 美帝와 買辦資本家, 反動官僚階層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反共勢力을 지칭하고 있는 셈이다.
(章洙棟, 北韓의 對南戰略, 民主統一論, 1988. p.124)

第 2 部

南北對話의 多様な 展開와 示範事業 推進

1. 北韓의 對話論理

70년대의 南北對話는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矛盾을 내재하고 있었던 지도 모른다. 分斷 이후 4반세기 동안 불신과 긴장으로 이어져온 南北關係의 현실상황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改善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합의를 추구하고 또 合意事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만 한다.

그러나 北韓側은 南北對話에 임하는 基本立場이 「내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強奪的 협상논리에 있었다. 즉 北韓은 대화를 赤化統一의 달성을 위해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수단으로서 택했을 뿐이다.

北韓은 南北調節委員會가 정식으로 운영을 개시하고 南北赤十字 本會談이 시작되자 이들 두갈래의 南北對話를 推進하기 위하여 쌍방간에 합의된 사항들을 一方的으로 무시하였으며, 거두절미된 合意事項의 일부 표현만을 들고 나와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수락할 수 없는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대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행태로 일관했다.

南北調節委員會의 경우, 北韓은 調節委의 실무기능 정비나 실천가능한 사업분야를 가려내는데는 관심이 없었고, 다만 「南北共同聲明」 합의사항인 「統一 3原則」에 일방적이고 獨斷的인 해석을 부여하고 大韓民國의 內外政策을 부당하게 간섭·시비하는 데만 열중했다.

北韓은 統一 3原則의 하나인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 아래 大韓民國이 北韓으로부터의 아무런 상응조치도 없이 자진하여 ① 反

共法·國家保安法을 폐지하고, ② 이들 법에 의하여 有罪 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者들을 석방하며, ③ 大韓民國內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합법화시키는 등, 反共정책을 포기하고 「聯共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¹⁾ 北韓은 또 南北간의 군사력 균형과는 상관 없이 그러한 군사력 균형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는 駐韓美軍의 일방적 철수와 韓國軍의 장비현대화를 저지하는데 목적을 둔 이른바 5개 항목 군사제안²⁾의 수락을 역시 대화의 「先行條件」으로 요구했다. 北韓은 大韓民國이 이 5개 항목 군사제안을 수락하지 않는 한 『對話의 진전도, 南北관계의 개선도, 통일문제의 해결도 불가능하다』고 공언했다. 北韓은 뿐만 아니라 大韓民國의 6·23선언이 『2개의 朝鮮을 고정시키는 민족분열정책』³⁾이라고 強辯하면서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大韓民國에 대해 그들의 이른바 「평화통일방안」을 일방적으로 수락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北韓은 한편에서 『통일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협의·결정』을 주관할 對話기구로 南北調節委員會를 발족시키는데 합의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동시에 南北調節委員會의 합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책동을 추진하고 있었다.

金日成은 南北쌍방이 南北調節委員會를 발족시키는데 합의한 「南北共同聲明」이 발표된 후 아직 同委員會가 발족되기도 전인 1972년 9월 17일 日本 毎日新聞과의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南北調節委員會를 하루 빨리 구성, 운영하여 南北共同聲明에 적된 사항을 추진시키며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나라의 통일문제는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와 같은 제한된 범위의 접촉과 협상만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나라의 통일을 위한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더욱 폭 넓고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을 실현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南北간의 불신임과 오해를 풀고 이해를 증진시키며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 방책들을 토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南北朝鮮 諸政黨·社會團體들의 連席會議나 南北當局者들의 회의 또는 우리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南朝鮮 「국회의원」들의 연합회의 같은 정치협상을 시급히 진행할 것을 주장한다……」⁴⁾

1972년 11월말에 발족된 南北調節委員會가 겨우 두번째 회의를 끝낸 직후인 1973년 4월 16일 金日成은 「시아누크」의 평양방문 환영대회에서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南北調節委員會의 사업에 南北의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을 참가시켜 그 폭을 넓히든지 또는 南北調節委員會 사업은 南北調節委員會 사업대로 진행하고, 北과 南의 각정당·사회단체대표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가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자는 것을 주장한다……」⁵⁾

여기서 金日成은 그 자신의 입으로 北韓이 南北調節委員會의 구성·운영에 동의한 것은 同委員會를 합의된 「룰」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南北調節委員會를 일단 발족시키기까지는 하되 그 뒤에는 同委員會를 이른바 「南北政治協商會議」(뒤에는 「大民族會議」)로 직접 변질시키든가 아니면 이를 징검다리로서 하여 「정치협상회의」의 별도 소집으로 유도하려는데 목적을 두었을 뿐임을 명백히 시사하고 있다.

北韓의 이같은 對話論理는 南北赤十字會談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南北赤十字會談은 韓半島 分斷의 정치적 해결이 무한정 지연되는 상황하에서 분단으로 인한 고통은 이산가족의 경우가 가장 심각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 이 문제를 인도적인 견지에서 赤十字기관의 주선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 보자는데 그 취지가 있었다. 따라서 南北赤十字會談의 임무는 本會談議題에서와 같이 ①주소와 생사의 확인 및 통보, ②상봉과 방문, ③서신왕래, ④재결합, ⑤기타 문제 등의 구체적 실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南北調節委員會와 마찬가지로 北韓은 이같은 사업의 실천보다는 赤十字會談을 징검다리로서 하여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데 그 의도가 있었다.

北赤은 『우리나라의 인도주의 문제는 통일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인도주의 사업은 統一문제와 분리하여 다룰 수 없으며, 오로지 統一문제의 일부로 추진해야 한다』⁶⁾는 논리로 쌍방간에 합의된 의제항목의 토의는 거부하고 의제항목 토의의 「선행조건」으로 이른바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의 개선」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北赤의 이른바 「법률적, 사회적 조건·환경개선」주장은 大韓民國이 ①反共法·國家保安法을 포함한 일체의 反共關係法을 폐지하고, ② 일체의 反共 활동을 금지하고, 反共團體와 기관의 활동을 금지, 이들을 해산하며, ③「사업」참가차 北韓으로부터 南韓地域에 오는 이산가족·친척 당사자·협조자·관계자들에게 언론·출판·집회·통행의 자유는 물론 신체 및 소지품에 대한 不可侵權을 보장하고, ④이산가족·친척 상호간의 尋人사업은 赤十字기관이 개입함이 없이 당사자들이 협조자와 관계자의 도움아래 직접 『자유롭게』 다니면서 찾게 하며, ⑤駐韓美軍을 철수시키는데 동의하라는 것이었다.⁷⁾ 이같은 北赤의 주장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명백한 정치성 때문에 赤十字會談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임은 물론이었거니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한 주장에 담긴 北赤의 의도에 있었다.

이상과 같은 대화과정에서 보여준 北韓의 主張과 태도는 어떠한 形態의 南北對話도 결과적으로 北韓의 對南赤化戰略을 실현하기 위한 手段으로 활용하여 大韓民國內의 혼란에 편승하면서 統一戰線戰術을 구현하려는 政治的 수단임을 웅변해 주고 있다. 그러다가 北韓은 그들의 「계산」과 「판

단]이 誤判임이 드러나면 바로 對話를 一方的으로 中斷하면서 對話中斷의 責任을 大韓民國에 轉嫁하는 常套의인 수법을 재연한 것이다.

이같은 北韓의 의도는 1980년대초의 南北關係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1979年 「10·26事態」이후 大韓民國의 內部情勢가 한때 不安한 틈을 보이게 되자 北韓은 곧 이에 편승하여 南北對話를 政治的 宣傳攻勢에 활용하려는 그들의 의도에 따라 南北總理間 對話의 節次마련을 위한 實務代表 接觸에 호응해 왔었다.

그러나 同 實務代表 接觸이 進行됨에 따라 쌍방간에는 同 實務代表 接觸에서 반드시 合意되어야 할 本질문제인 南北總理間 對話의 呼稱問題와 議題問題 討議過程에서 意見이 대립된채 接觸自體가 難航을 거듭해 오던 중 大韓民國이 安定을 回復해 나가자 北韓側은 大韓民國의 國內問題를 들고 나와 對話의 先決問題로 제시했다. 이후 북한은 회의진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다가 급기야는 1980年 9月 24日 實務接觸 不參을 一方的으로 宣言해 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北韓측이 진실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南北間의 대화와 협력이 아니라 對立과 分裂을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南北間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南朝鮮革命」 수행을 위한 公式的 「면허장」 밖에는 없다. 1972年 7月 3日 역사적인 南北共同聲明 발표를 하루 앞두고 北韓의 中央放送은 金日成이 제 5차 당대회에서 한 「사업총화보고」 내용을 해설하면서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의 互相關係」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祖國統一은 어디까지나 南朝鮮革命이 수행되는 조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南朝鮮革命은 南朝鮮地域에 해당되는 문제이며 祖國統一은 南朝鮮 全地

域을 포괄하고 있다. 南朝鮮革命은 南朝鮮人民들을 民族的·階級的으로 해방하기 위한 反帝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 革命課業을 제기하며 <祖國統一은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기치 밑에 民族解放革命을 全國的 範圍에서 完遂하는 것을 自己課業으로 한다>… 祖國統一을 實現하는데는 平和的 方途와 非平和的 方途가 있지만 南朝鮮革命을 수행하는데는 오직 唯一하게 暴力的 方法밖에 없다… 美帝侵略者와 그走狗를 때려 부수고 人民이 政權을 쟁취하기 위한 南朝鮮革命은 절대로 平和的 方法으로 解決할 수 없으며 오직 革命的 暴力에 의해 서만 승리 할 수 있다.』⁸⁾

여기서 북한이 말하는 「自主的 平和統一」이란 어디까지나 南韓에서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 革命」이라는 이름의 「南朝鮮革命」이 먼저 수행되고 이에 따라 ①美軍撤收 ②大韓民國 政府 退陣 ③「人民政權」樹立이 이루어짐으로써 韓國의 「인민정권」과 北韓의 「김일성정권」이 합작하여 「平和統一」을 달성한다는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⁹⁾ 결국 北韓측은 이러한 「平和統一」을 전제로 「南朝鮮革命」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南北對話에 호응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단 南北韓간에 오랜 斷絶을 깨고 여러 형태의 대화가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1970년대의 南北對話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성과를 바라며 대화를 주시해온 온건권에 크나큰 실망을 안겨준 점에서는 冷徹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大韓民國의 統一推進 努力

가.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 提議

南北對話가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뒤에도 끊어진 對話通路를 잇기 위해 大韓民國은 꾸준히 노력을 경주해왔다.

印支戰方式의 「민족해방전쟁」의 기도가 좌절되고 大韓民國이 10·26사태에 따른 정치적 공백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감에 따라 北韓側은 대화의 문을 오히려 더욱 굳게 닫아 걸었다.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남조선혁명」 노선을 그대로 고수했으며, 韓國政府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1981年 1月 12日 새해 國政演說에서 全斗煥大統領은 北韓의 金日成主席에게 『아무런 부담이나 조건없이 서울을 방문하라』고 招請하고 그 자신도 같은 條件으로 招請된다면 『언제라도 北韓을 訪問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¹⁰⁾

全斗煥大統領의 國政演說 가운데 關聯部分은 다음과 같다.

『本人은 오늘 지난 날의 일들을 굳이 是非함이 없이 南北韓間의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결정적 契機를 마련하고 同族間의 戰爭再發을 막는데 劃期的 契機를 마련하며 또한 中斷된 南北對話를 無條件 再開하여 平和統一의 길을 열어가는데 歷史的 契機를 마련하기 위하여 南北韓 당국의 最高責任者가 번갈아 상호 방문할 것을 嚴肅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北韓의 「金日成 主席」이 아무런 負擔과 조건없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招請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그가 서울에 滞在하는 동안, 一切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서울과 다른 都市 및 농촌의 실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가 願

하는 그 어느 장소라도 방문하는데 모든 협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本人은 또한 같은 條件으로 본인이 北韓을 방문하도록 그가 招請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北韓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¹¹⁾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 相互訪問 提議는 첫째, 南北韓 信賴造成의 決定的 契機를 마련하고 둘째, 同族相殘의 戰爭再發을 防止하기 위한 確固한 契機를 마련하며 셋째, 南北對話를 再開시키는 歷史的 契機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1. 12 提議」는 그 自體가 實로 획기적인 對北提議였다. 南北間에 成果를 期約할 수 없고 信賴의 바탕이 없는 會談의 開催보다는 남북한 當국의 최고책임자가 相互訪問하는 것이 南北韓 社會의 相互開放으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信賴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誤判에 의한 戰爭再發의 危險을 제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¹²⁾ 뿐만 아니라 이같은 상호방문이 北韓에 의해 受諾된다면 이를 實踐에 옮기는 過程에서 여러가지 形態의 接觸과 對話가 이루어져 中斷된 南北對話를 再開하는 자연스런 契機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1. 12 提議」를 거부했다. 「1. 12 提議」로부터 1週日後인 1981年 1月 19日 北韓側은 副主席 金一이 「祖國平和統一委員會」의 委員長資格으로 발표한 聲明을 통해 「1. 12 提議」는 『平和統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첫 출발부터 흐지부지 시간이나 끌면서 2個의 朝鮮을 造作하려는 分裂策動』이라고 非難했다. 또한 南北對話 再開의 「前提條件」으로 ① 現 南韓政府의 退陣과 容共政權의 登場, ② 政治犯 釋放 ③ 反共關係法令 廢止 및 反共機關·團體 解體 ④ 「6·23宣言」의 撤回 ⑤ 駐韓美軍 撤收 등 5個項目을 나열했다. 그는 大韓民國 大統領에 대하여 人신공격을 하며 現 南韓의 政府當局과는 상대할 생각이 없음을 명백히 했다.¹³⁾

그로부터 5개월 뒤인 1981年 6月 5日 全斗煥 大統領은 平和統一政策諮

問會議 첫 會議에서의 개최사를 통해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間의 直接 會談」을 提議했다.

開會辭 가운데 관련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북한 김일성주석에게 아무런 부담과 조건없이 서로를 방문하도록 초청한 지난 1월 12일자 제의의 수락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북쪽에서 먼저 서울에 와도 좋고 본인이 먼저 평양에 가도 좋으며, 그 선후의 선택은 북한당국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본인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의의 취지를 발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인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새로운 제의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만약 북한측이 피치못할 사정때문에 본인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본인을 북한으로 초청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 대신 남북한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다른 어떤 장소에서든지 직접 만나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판문점이나 제3국을 포함하여 만나는 장소의 선택은 북한당국에 일임합니다.』¹⁰⁾

이 최고책임자간의 「직접회담」은 1월 12일의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 相互訪問」 提議를 發展시켜 보다 具體化한 것으로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大韓民國의 實踐意志를 内外에 申明했다고 하겠다.

「6. 5提議」는 「1. 12提議」의 단순한 부연에 끝나지 않고 金日成에게 회담의 시기와 장소의 選擇權을 일임함으로써 南北關係의 改善과 統一에의 접근을 과감하게 시도했다는 점에서 劃期的인 것이며, 아울러 分斷된 민족의 統一念願이 결코 무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과 만일 전쟁이 재발되면 勝者도 敗者도 없는 파괴와 폐허만이 남는 민족자멸의 狀態를 招來할 뿐이라는 現實認識을 분명히 함으로써 내외로부터 공감을 받았다.

「1·12提議」가 南北韓當局의 最高責任者 相互訪問 提案이었다면 「6·5提議」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金日成과 直接 회담을 갖고 相互訪問 問題를 비롯 그동안 南北韓當局이 提議했던 統一方案을 包含한 모든 問題들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것을 提議하고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희망을 함께 밝혔다.

또한 「6·5提議」에서는 「當局者會談」 뿐만 아니라 통일문제의 결정권자인 온 겨레앞에 「南北韓社會」의 전면적인 相互開放을 촉구함으로써 北韓側의 基本路線인 武力赤化統一의 망상을 포기하도록 촉구하고 상호 민족적 신뢰를 조성하여 80년대에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었다.¹⁵⁾

「6·5提議」는 「1. 12提議」에 대한 補完的인 성격을 띄고 있지만 상호교환방문을 제외하고는 「1. 12提議」에서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용이한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 특히 南北韓 쌍방이 지금까지 提起한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자 함으로써 의제마저 완전히 개방한 포용력 있는 提議였다.

「6·5提議」 가운데 또한 重要的 點은 北韓側이 즉각적인 社會의 完全開放을 할 수 없을 경우, 經濟, 文化, 學問, 郵便, 체육교류부터라도 시작해서 차차 完全交流, 完全開放을 이루는 段階의 方法을 提示하여 北韓側으로 하여금 選擇의 融通性을 갖도록 配慮하고 있다는 점과,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韓國을 대표하는 인사와 이번 提議를 肯定的으로 協議해 주기를 希望하고 國際機構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임을 밝혀 우리의 統一努力을 폭넓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誇示한 점들이다.

그러나 北韓側의 反應은 「6·5提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北韓側은 1981년 6월 10일 노동신문과 방송논설을 통해 大韓民國側을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6·5提議」는 『統一問題를 論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순한 목적을 노리고 있다』고 억지를 썼으며, 1981년 7월 1일에는 前 南韓政治人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이른바 「在北 平和統一 促進協議會」 結成 25周

年 기념식에 보낸 축하문에서 金日成은 『現南朝鮮 政府와는 어떤 형태의 대화나 접촉도 할 수 없다』며 「6·5提議」를 正面으로 拒否했다.¹⁶⁾

이 「6·5提議」는 1983년 1월 18일 제 115 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의 새 해 國政演說을 통해 구체적인 의제가 제시됨으로써 大韓民國側이 회담에 임하는 진지성을 과시했다.¹⁷⁾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 會談」의 협의과제로 제시된 4개항은 다음과 같다.

- ① 南北韓間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문제
- ②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과 북한이 주장하는 統一方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문제
- ③ 국제무대에서 南北韓間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民族力量의 낭비를 방지하는 문제
- ④ 平和統一을 촉진시키기 위한 國際的 與件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문제

나. 「20個 示範實踐事業」의 提議

大韓民國側은 1982년 2월 1일 孫在植 國土統一院長官 聲明을 통해 北韓側에 대하여 민족화합을 위해 20個項에 걸친 具體的인 示範事業을 함께 추진해 갈 것을 제의했다.

同 聲明은 民族和合을 실현하여 民主統一을 달성해야 한다는 온 겨레의 念願에 부응하고자 하는 大韓民國側의 立場을 분명히 밝히고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實踐精神에 立脚한 民族和合 促進措置의 一環으로서 北韓

當局에 대해 우선 당장에라도 實踐에 옮길 수 있는 示範事業을 推進할 것을 要求한다』고 밝혔다.

20個項 示範實踐事業 提議內容은 다음과 같다.¹⁸⁾

- ① 南北間에 自由로운 通行을 保障하는 하나의 措置로서 서울·平壤間 道路를 連結, 開通한다.
- ② 南北 離散家族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우선 그들間에 郵便交流 및 相逢을 實現한다.
- ③ 설악산 以北과 금강산 以南地域을 觀光·休養地로 設定하여 자유 관광 공동지역으로 개방한다.
- ④ 海外同胞들의 祖國訪問을 共同으로 주관하고 판문점을 통과하여 쌍방지역을 자유로이 방문하도록 한다.
- ⑤ 南北間의 자유로운 교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仁川港과 鎭南浦港을 우선적으로 개방한다.
- ⑥ 南北間에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謀略放送 裝置와 放送聽取 統制裝置를 除去하여 쌍방 正規放送을 자유로이 청취하도록 한다.
- ⑦ '86年 아시아 競技大會 및 '88年 올림픽대회에 北韓側 選手團이 판문점을 通過하여 참가하도록 한다.
- ⑧ 南北을 방문하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板門店을 通過하여 쌍방 지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⑨ 南北 漁夫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유로운 共同漁撈區域을 설정한다.
- ⑩ 南北間의 關係改善 및 信賴增進을 위하여 政治人, 경제인, 청년학생, 勤勞者, 文藝人, 체육인 등 各계인사간의 상호 親善訪問을 實施

한다.

- ⑪ 南北社會의 실상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쌍방기자들의 相對方 地域內에서의 자유로운 取材活動을 보장한다.
- ⑫ 民族文化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민족사의 共同研究를 推進한다.
- ⑬ 南北間에 각 종목별 體育親善交換競技를 개최하며 각종 國際競技大會에 단일팀을 構成하여 참가한다.
- ⑭ 쌍방 주민의 生活便宜를 도모하기 위하여 日用生産品의 교역을 實施한다.
- ⑮ 民族經濟의 번영을 위하여 南北間 自然資源의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을 실현한다.
- ⑯ 南北間의 産業發展에 기여하기 위하여 同一製造業體間의 技術者 交流 및 生産品전시회를 교환·개최한다.
- ⑰ 非武裝地帶內에 共同競技場 施設을 마련하고 이를 南北間의 친선 경기에 이용한다.
- ⑱ 非武裝地帶內의 동식물 自然生態系를 연구하기 위하여 공동 학술 조사를 실시한다.
- ⑲ 南北間에 군사적 緊張을 완화하기 위하여 非武裝地帶內의 군사시설을 완전히 철거한다.
- ⑳ 南北間에 軍備統制 措置를 협의하며 쌍방 軍事責任者間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용한다.

北韓側은 2월 16일 이른바 「祖國平和統一委員會」 성명을 통해 『20項의 示範事業이란 것도 새로운 것이 아니며 대부분 우리(北韓)가 남북합작과 교류를 위하여 역사적으로 제기해온 방안들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¹⁹⁾는 식으로 이 제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南北間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統一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은 그들이 반응을 보인 것과 같이 이미 그들도 南北間

교류, 체신의 연결 등을 운위한 바 있어 아무런 거부할 명분이 없었으며, 그들의 거부는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을 드러낸 셈이라고 하겠다.

다. 「南北韓 高位代表會談」提議

北韓側은 大韓民國側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과 「20個 示範實踐事業」提議에 대한 국내외적 지지가 확산되고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거부한 그들의 태도가 지탄의 대상이 되자 「祖國平和統一委員會」명의로 성명(1982. 2. 10)을 통해 「南北政治人 聯合會議」를 개최하자고 주장해 나왔다.

北韓側은 同 聲明에서 大韓民國 當局은 물론 현존하는 정당 사회단체들마저 부정한채 그들의 대좌할 수 있는 資格을 시비하면서, 大韓民國側 참석인사 50명을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지명하는 한편 그들의 特定人員 50명과 함께 「南北政治人 聯合會議」를 多務的 圓卓會議 形態로 개최하자고 주장했다.²⁰⁾

그러나 大韓民國側은 이와 같은 北韓側의 부당하고 비현실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을 봉쇄하고 있는 北韓側을 對話의 廣場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大韓民國側은 1982年 2月 25日 孫在植 國土統一院長官 聲明을 통해 北韓側의 그릇된 자세를 하루속히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南北쌍방간의 정상적인 대화를 통해 民族의 罔원인 平和統一을 앞당기고자 하는 일념에서 「南北韓 高位代表會談」을 提議했다.

「南北韓 高位代表會談」提議 내용은 다음과 같다.²¹⁾

첫째, 南北韓은 3月중(1982年)에 서울이나 平壤 또는 板門店에서 「南北韓 高位代表會談」을 개최한다.

둘째, 「南北韓 高位代表會談」에서는

- ① 統一憲法를 마련할 民族統一協議會議 구성과 南北韓關係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을 開催하는 문제
- ② 北韓側이 1982年 2月 10日 提議한 회의에 관한 문제
- ③ 南北韓間의 交流·協力, 社會開放과 緊張緩和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협의한다.

세계, 「南北韓 高位代表會談」에 參席할 쌍방 대표단은 각기 閣僚級을 首席代表로 하는 대표 9명으로 한다.

<大韓民國側 代表團 名單>

- 首席代表 : 盧泰愚 (第2政務長官)
- 次席代表 : 金相球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事務次長)
- 代表 : 李榮一 (民主正義黨 國會議員)
- 代表 : 金文錫 (民主韓國黨 國會議員)
- 代表 : 姜棋弼 (韓國國民黨 國會議員)
- 代表 : 白璨基 (民主社會黨 國會議員)
- 代表 : 李洪九 (平和統一政策諮問委員)
- 代表 : 金泰瑞 (國政諮問會議 諮問委員)
- 代表 : 宋漢虎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長)

「南北韓 高位代表會談」提議에서는 北韓側이 주장한 「南北政治人 聯合會議」開催問題까지도 검토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南北間의 어떤 문제이든 쌍방간의 대화를 통해 성실히 결정해 나가려는 넓은 아량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大韓民國側 代表團 構成에서는 政府當局代表, 政黨代表,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代表 등을 참여시킴으로써 汎國民的 意思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또한 당국, 정당 등 各界 代表로 비중있는 代表團을 構成, 그 權威를 높

이고 統一對話 문제를 비롯한 南北間 實質問題의 解決能力을 부여하였으며, 北韓側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排擊하지 않고 그들의 사정도 일단 대화에서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賦與하였다.

3.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가. 提案 背景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지난 1970년대에 南北韓間에는 여러 형태의 南北對話가 시도되었고 大韓民國 政府는 일련의 平和統一 原則을 闡明한 바 있다. 그러나 北韓當局의 무성의와 그들의 韓半島 武力赤化路線 추구로 말미암아 南北韓間에는 생산적인 합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大韓民國 政府는 새 시대를 맞이하여 自主民族國家의 완성이라는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지난 10년간의 南北對話 과정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함께 과거의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平和統一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기하겠다는 자세로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 會談」을 제안했다. 그러나 北韓側의 거부로 가까운 시일안에 南北韓 頂上會談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全斗煥大統領은 1982年 1月 22日 國政演說을 통하여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내외에 闡明하게 된 것이다.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 會談」의 실현시 제시될 예정이었던 이 방안을 공개하게 된 것은, 北韓側이 大韓民國의 진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있을 수 있는 의문점을 불식함으로써 빠른 시일안에 南北頂上會談등 南北韓의 대화에 호응토록 한다는 데도 그 뜻이 있었다.

이날의 國政演說 가운데 대북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펼쳐진 歷史의 敎訓에 비추어 볼 때 南北韓 雙方중 어느 一方이 自己의 思想, 理念, 制度를 앞세워 自己가 願하는 方式의 統一만을 고집하는 한 統一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統一은 長久한 歲月에 걸쳐 한 甞 줄한 歷史, 같은 문화와 같은 전통을 이어 온 하나의 民族이라는 입장에 서서 이를 해결하려 할 때라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統一은 어느 特定階層이나 集團에 의하여 獨占的, 排他的으로 主導되어 서도 안되고 武力 또는 暴力의 方法으로 추구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統一은 어디까지나 民族自決의 原則에 依據하여 各該 全體의 自由意思가 반영되는 民主的 節次와 平和의 方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本人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本人이 지난해 1月 12日과 6月 5日 두 차례에 걸쳐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의 相互訪問과 直接 會談을 제의했던 것도 바로 民主的 節次와 平和의 方法에 의한 統一의 길을 虛心坦懷하게 찾아 보자는데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의가 실현되도록 지금까지 기울여 온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本人은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 會談이 실현될 境遇提示하려고 構想했던 統一方案을 밝힘으로써 北韓當局과 全世界에 대하여 우리의 참뜻을 이해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平和統一을 성취하는 가장 合理的인 길은 南北韓間에 民族的 和合을 이룩하여 民族全體의 統一意志를 한데 모아 統一憲法을 채택하고 그 憲法에 따라 統一國家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本人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統一憲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雙方 住民의 뜻을 대변하는 南北代表로 假稱「民族統一協議會議」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서 民族·民主·自由·福祉의 理想을 추구하는 統一民主共和國를 실현하기 위한 統一憲法을 기초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統一憲法草案이 마련되면 雙方은 南北韓 全域에 걸쳐 民主方式에 의한 自由로운 國民投票를 실시하여 統一憲法을 確定 公布하고 그 憲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選舉를 실시, 統一國會와 統一政府를 구성함으로써 대망의 統一國家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統一祖國의 政治理念과 國號, 對內外政策의 基本方向, 政府形態와 國會構成을 위한 總選舉의 방법과 시기 및 절차등은 民族統一協議會議가 構成되어 쌍방이 統一憲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토의, 합의할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統一憲法草案은 民族統一協議會議에서 제시될 것입니다.

北韓側이 진정 祖國의 民主的 平和統一을 바란다면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民族統一協議會議에서 그들이 구상하는 統一憲法 초안을 正堂堂하게 내어놓고 우리측의 초안과 비교·검토하는 가운데 하나의 단일안을 만드는 절차에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南北 쌍방간에 이같은 統一憲法의 마련을 위한 역사적인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우선 신뢰가 조성되어야 하고 民族生活의 모든 영역에서 統一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착실하게 해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南北쌍방은 그동안의 民族自害의이며 非正常的인 관계에 終止符를 찍고 하루속히 民族的인 화합을 실현할 수 있는 民族自愛的인 正常關係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見地에서 本人은 南北 쌍방이 무엇보다도 相互關係를 정상화하고 이 기초위에서 民族和合을 具體的으로 실현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統一을 이룩할 때까지의 實踐措置로서 다음의 合意事項을 內容으로 하는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을 체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첫째, 쌍방은 장차 統一國家가 수립될 때까지는 瓦惠平等의 原則에 입각하여 相互關係를 유지해 나간다.

둘째, 쌍방은 쌍방간 紛爭問題 解決에 있어서 모든 形態의 武力 및 暴力의 使用 또는 威脅을 완전히 지양하고 모든 문제를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平和의 方法으로 해결한다.

셋째, 쌍방은 相互關係에 있어서 現存하는 상이한 政治秩序와 社會制度를 相互 認定하며 서로 相對方의 內部問題에 일체 간섭하지 아니한다.

네째, 쌍방은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와 戰爭防止를 위하여 現存 休戰體制를 維持하면서 軍備競爭의 지양과 軍事的 對峙狀態의 해소조치를 협의한다.

다섯째, 쌍방은 분단으로 인한 民族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며 民族의 신뢰와 화합의 氛圍氣를 조성하기 위해 相互交流와 협력을 통하여 社會的 개방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離散家族의 人道的 再會問題를 포함해서 南北間의 自由로운 人的 往來와 多角的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交易, 交通, 郵便, 體育, 學術, 教育, 文化, 報道, 保健, 技術, 環境保存 등 제분야에서 협력하며 이를 통하여 民族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다.

여섯째, 쌍방은 統一이 이루어질 때까지 思想, 理念, 制度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전세계 모든 나라들과 자기 체결한 모든 雙務的 및 多者間 國際條約과 협정을 존중하며 民族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한다.

일곱째, 쌍방은 閣僚級 全權代表를 임명하여 자기 서울과 平壤에 常駐 連絡代表部를 설치한다. 쌍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連絡代表部의 임무를 具體的으로 정하며 자기측 管轄領域에 주재하는 相對便 連絡代表部의 任務遂行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한다.

本人은 北韓側이 하루속히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間의 會談에 호응하여 이 자리에서 이상의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虛心坦懷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本人은 조속한 時日안에 閣僚級을 首席代表로 하는 南北쌍방의 高位代表團間의 豫備會談을 개최하여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間의 會談을 實現시키는 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大韓民國 政府는 만약 北韓側이 이같은 豫備會談 開催 제의에 동의한다면 이 豫備會談에 소정의 代表團을 派遣할 모든 準備를 이미 갖추어 놓고 있다는 事實도 밝혀 두고자 합니다.²²⁾

나. 主要 內容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分斷祖國을 平和的으로 統一하기 위한 方案으로서 統一憲法의 제정으로부터 總選舉를 통한 統一民主共和國 完成에 이르는 일련의 過程을 具體的으로 제시했다.

<統一憲法 草案을 위한 「民族統一協議會議」 構成 提議>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서는 『統一은 民族自決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체 겨레의 自由意思가 반영되는 民主的 節次와 平和的 方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基本原則에 따라 平和的 統一을 성취하는 가장 合理的인 길로서 統一憲法을 채택하고 그 憲法에 따라 統一國家를 完成시킨다는 것을 그 핵심으로 밝히고 있다.²³⁾

즉 ① 南北쌍방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들로 「民族統一協議會議」를 구성하고

② 이 協議會에서 民族·民主·自由·福祉의 理想을 추구하는 統一民主共和國 實現을 위한 統一憲法 草案을 마련하고

③ 이같이 마련된 統一憲法 草案은 南北韓 지역에 걸쳐 民主方式에 의한 自由로운 國民投票를 실시하여 確定·公布하고

④ 이렇게 確定된 統一憲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選舉를 실시하여 「統一國會」와 「統一政府」를 구성함으로써 統一國家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統一祖國의 政治理念과 國號, 對內外政策의 基本方向, 政府形態와 國會構成을 위한 總選舉의 방법과 시기, 절차 등은 「民族統一協議會議」가 구성되어 여기에서 統一憲法을 起草하는 가운데 討議, 合意될 問題』임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南北韓 基本關係에 關한 暫定協定 締結 提議>

統一은 「民族統一協議會議」에서 起草하고 國民投票로 확정된 「統一憲法」의 절차에 따라 이룩되는 것이 가장 現實的이고 合理的인 方法이다. 그렇지만 南北韓의 現實的인 思想·制度·價值觀의 차이 및 심화된 對決論理로 인하여 이같은 歷史的인 작업이 短期間內에 순조롭게 완성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서는 「統一憲法」의 절차에

의한 統一國家가 이룩될 때까지 南北關係를 平和的·正常的 關係로 전환 시킬 수 있는 補完的 措置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南北韓 基本關係 暫定 協定」의 締結提議가 바로 그것이며, 暫定協定을 통해 「統一憲法」의 節次에 따른 統一實現의 全過程을 보완해 나가자는 것이다.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서 제시된 「南北韓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⁴⁾

- (1) 統一까지 瓦惠平等 原則에 입각한 相互關係 유지
- (2) 紛爭問題는 武力과 暴力을 지양하고 대화로서 平和的으로 해결
- (3) 서로 상대방의 政治秩序와 社會制度를 인정하고 內政問題 不干涉
- (4) 休戰體制를 유지하고 軍備競爭 지양과 軍事的 對峙狀態 해소문제 협의
- (5) 多角的인 교류, 협력을 통해 相互 社會開放 추진
(離散家族再會, 交易, 交通, 郵便, 通信, 體育, 學術, 教育, 文化, 報道, 保健, 技術, 環境保存 등)
- (6) 統一까지 全世界 모든 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雙務的, 多者間 國際條約과 협정을 존중하고 民族利益에 관한 문제를 서로 협의
- (7) 서울과 平壤에 각기 常駐 連絡代表部 設置

다. 主要 特徵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主要特徵은 다음과 같다.

<平和統一의 靑寫眞 提示>

- (1) 統一原則: 大韓民國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武力·暴力統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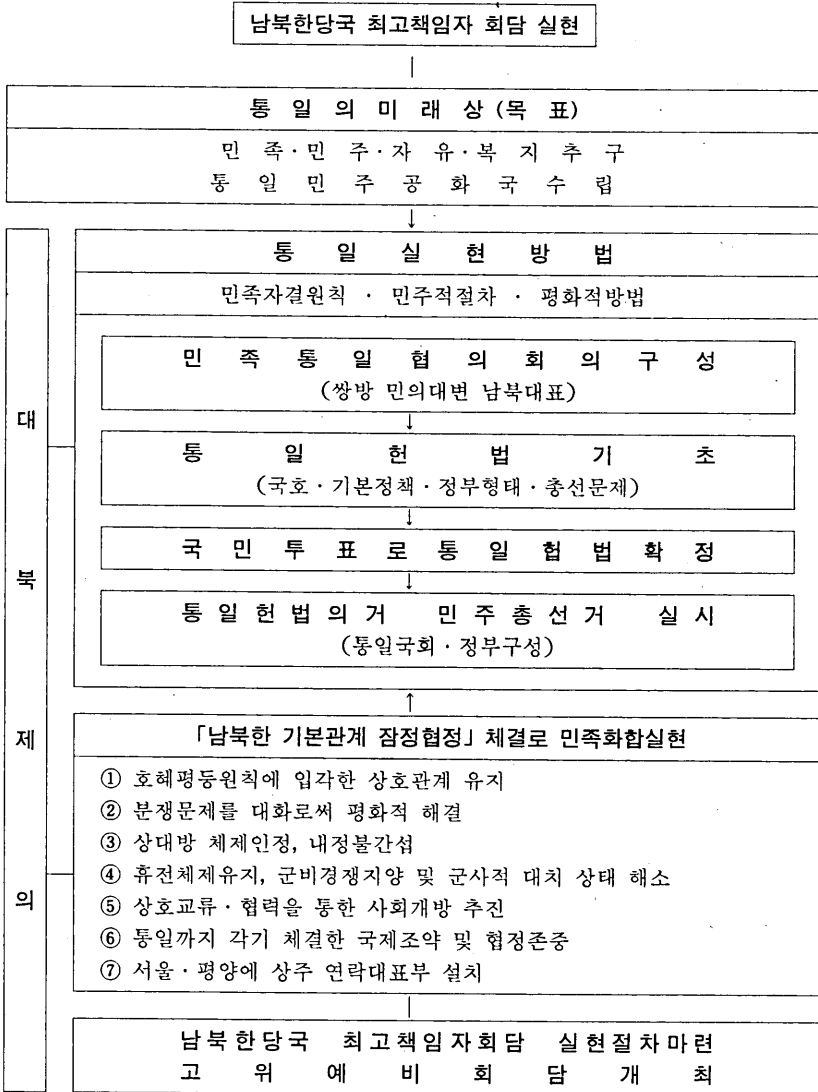
아닌 平和統一, 赤化統一이 아닌 民主統一, 階級과 성분에 의한 統一이 아닌 民族統一의 原則을 分明하게 提示하고 있다. 즉

- ① 統一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느 一方이 자기의 意思·理念·制度를 앞세워 자기가 원하는 統一方式만을 고집해서는 안되고
- ② 어느 特定階層이나 집단에 의하여 獨占, 排他的으로 주도되어서도 안되며
- ③ 武力이나 暴力의 방법으로 추구되어서도 안되고
- ④ 어디까지나 民族自決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全體의 自由意思가 반영되는 民主的 節次와 平和的 方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2) 統一까지의 過程 :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또한 분단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統一完成까지의 과정을 設計·提示하고 있다. 즉 우선 雙方 住民의 의사를 대변하는 南北의 대표로 「民族統一協議會議」를 구성하여 「統一憲法」을 起草하고, 南北韓 全域에서 自由·民主方式으로 실시하는 國民投票를 통해 「統一憲法」을 확정된 다음, 이 「統一憲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民主的 總選舉를 실시하여 統一國會를 구성하고 統一政府를 수립함으로써 民族·民主·自由·福祉의 理想을 追求하는 統一民主共和國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3) 統一與件造成을 위한 民族和合 追求 :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계급과 성분에 의한 차별을 지양하는 단일민족국가로서의 統一祖國의 미래상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統一은 長久한 세월에 걸쳐 한 핏줄, 한 歷史, 같은 文化와 傳統을 이어온 하나의 民族이라는 입장에 서서 이를 해결할 때라야 비로

<內容構圖>



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단언함으로써 大韓民國이 追求하는 統一은 階級 革命을 내용으로 하는 赤化統一이 아니라 民族和合을 내용으로 하는 民主 統一임을 다짐하고 있다.

이같은 統一의 완성을 위하여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超越한 民族和合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南北韓이 공동으로 강구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對決論理의 克服>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우리 民族이 自主的 努力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統一을 指向하기 위한 合理的이며 現實的인 과정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北韓側이 주장해 온 방안까지도 充分히 考慮하고 그 一部를 肯定的으로 收斂함으로써 대화를 통해 합의의 영역을 최대한으로 넓혀 보려는 誠意와 아량을 보여 주고 있다.

즉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서는 統一憲法을 마련하기 위해 「民族統一 協議會議」와 같은 全民族的 對話機構를 제의함으로써 北韓側이 宣傳的 次元에서 主張하고 있는 「大民族會議」「全民族大會」「民族統一 促進大會」등을 토의의 대상으로 적극 포용하였고, 또한 『統一憲法을 초안하는 과정에서 쌍방의 提案을 함께 놓고 協議하자』고 제의함으로써 北韓側의 聯邦制 案도 언제든지 토의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統一祖國의 政治理念·國號·國內外政策 基本方向·政府形態와 統一國會 構成을 위한 總選舉 方法·節次 등은 民族統一協議會議에서 마련된 統一憲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北韓側 案도 협의대상으로 할 수 있음을 밝혔다.

〈一貫性的 土臺위에서 統一方案 集大成〉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대한민국의 統一方案의 基조인 緊張緩和와 民族的 信賴回復을 통해서 統一을 달성한다는 基本精神을 견지하면서도 이를 보다 發展的으로 具體化시켰다.

즉,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기존 統一原則 第1, 2項(平和定着과 信賴回復)을 南北韓 基本關係 暫定協定の 骨子 7個項目으로 구체화시켰으며 同 原則 第3項(總選舉에 의한 統一)은 統一國家를 완성하는 과정에 수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南北韓 基本關係 暫定 協定을 통해 종래의 「南北韓 相互 不可侵 協定」提議(1974年 1月 18日)와 「6·23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1973年 6月 23日)의 對北關係 조향도 수용함으로써 당시까지의 大韓民國의 平和統一方案을 集大成 했다고 할 수 있다.

4. 分野別 對話進行

가. 概 觀

1984년 하반기이래 南北間에는 赤十字會談, 經濟會談 및 國會會談 예비 접촉에 이어 IOC중재하에 體育會談이 열리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南北對話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1971년 9월에 시작된 南北赤十字 豫備會談과 1972년의 역사적인 7.4 南北共同聲明을 토대로 南北調節委員會 會議가 진행되었던 1970년대를 제 1기 南北對話로 본다면, 이처럼 다양한 접촉과 대화의 통로가 마련된 시기는 분명 第 2期 南北對話라 할 수 있다.

1973년 8월 28일 金英柱 聲明을 계기로 南北對話가 중단된 이후에도, 南北間에는 여러차례에 걸쳐 접촉이 있어 왔고, 第 5 共和國 政府가 출범한 이후에도 LA 올림픽 南北韓 단일팀 구성·출전 문제와 南北間 체육교류 문제를 협의하는 등 간헐적인 대화가 없었던 바는 아니다.

그러나 모두 可視의 성과를 쌓아 올리지 못하고 一回性으로 끝나고 말았다.

제 2기 南北對話에서는 양적으로도 다양하고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높은 内外의 기대와 관심을 바탕으로 南北 離散家族 故鄉訪問團 및 藝術公演團의 상호교류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

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南北韓 관계가 질적인 면에서도 진일보했다고 하겠다.

제 2 기 南北對話는 平和統一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열망과 이를 바탕으로 大韓民國 政府가 일관되게 경주해 온 積極的이며 多角的인 대화추진 노력의 결과였다.

북한 또한 「버마」사건으로 國際社會에서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駐韓美軍撤收를 겨냥한 「3者會談」의 개최분위기를 조성하며 經濟沈滯 극복을 위해 대서방접근의 발판을 마련해 보겠다는 體制內的 需要에서 대화에 호응해 나왔다.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大韓民國 政府는 南北間 對話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同族間 戰爭再發防止와 信賴回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 相互訪問」과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을 제의했으며,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천명하고 南北間에 당장 실시할 수 있는 社會開放, 交流協力, 緊張緩和에 관한 「20個 示範實踐事業」을 北韓當局에 제의하는 등 대화를 통해 南北間의 현안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왔다.

뿐만 아니라 1983년 10월 北韓側이 저지른 「버마」暗殺爆發蠻行 事件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인 1984년 8월 20일 全斗煥 大統領은 夏季記者會見을 통해 南北이 經濟分野에서 민족적 유대를 회복하고 共同繁榮을 이룩하기 위하여 서로간에 交易과 經濟協力を 실시할 것을 제의했으며, 『北韓側이 동의한다면 북한동포들의 生活向上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大韓民國側의 이같은 일련의 제의에 대해 부정적 태도로 일관해 왔던 北韓側은 1984년 9월초 南韓地域에서 水災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동년 9월 8일 이재민들을 위한 水災物資 제공을 大韓民國側에 제의해 왔다.

당시 大韓民國으로서의 自力으로 수재를 복구할 수 있었고 따라서 世界赤十字社聯盟의 원조 제의마저 사양한 처지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韓民國側은 이를 통해 南北間에 相扶相助의 선례를 마련하고 南北關係改善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염원에서 北韓側 제의를 수락하기로 결정함으로써,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사이에 南北赤十字間에 수재물자 인도·인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大韓民國側은 수재물자 인도·인수를 계기로 이를 보다 폭넓은 交流·協力の 관계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수재물자 인도·인수가 끝난 1984년 10월 4일 劉彰順 大韓赤十字社 總裁가 北韓 赤十字會에 書翰을 보내 南北赤十字會談의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申秉鉉 副總理兼 經濟企劃院 長官도 1984년 10월 12일 北韓側에 南北 經濟會談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大韓民國側의 이같은 제의를 北韓側이 마침내 수락함으로써 1984년 11월 15일 南北經濟會談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고, 1984년 11월 20일에는 10여년간 중단되어 왔던 南北赤十字 本會談 재개를 위한 豫備接觸이 板門店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듬해인 1985년 5월 28일에는 第 8 次 南北赤十字 本會談이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다.

한편 北韓의 「最高人民會議」는 제 2 차 南北經濟會談과 第 8 次 南北赤十

字 本會談을 눈 앞에 둔 시점인 1985년 4월 9일 南北間에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문제를 협의하자는 명분아래 南北國會會談을 개최할 것을 제의해 왔다.

이에 대해 大韓民國 國會는 不可侵宣言 문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南北韓 政府當局間의 會談을 통해서 협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하면서도 南北國會會談 개최에 따른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豫備接觸을 가질 것을 제의함으로써 1985년 7월 23일 板門店에서 제 1차 豫備接觸이 열리게 되었다.

이리하여 南北韓은 1984년 11월이래 1년 남짓한 기간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經濟會談 5 회, 赤十字會談 3 회, 그리고 國會會談을 위한 豫備接觸 2 회 등 總 16 회의 교류와 접촉을 가졌다.

그 결과 南北赤十字會談에서는 離散家族再會를 위한 의제 5 개항 사업의 토의에 적지않은 진전을 보았을 뿐 아니라, 비록 제한된 규모이긴 하나 「南北 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의 교환방문을 실현시킴으로써 분단이래 처음으로 民間次元의 인사왕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5년 9월 20일부터 4일간에 걸쳐 이루어진 동 교환방문에서 서울과 平壤에서는 分斷 40년이라는 오랜세월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총 100명의 방문 단중 65명이 92명의 家族·親戚들과 劇의으로相逢, 재회의 감격을 나누었다.

또 南北經濟會談에서는 쌍방 副總理級을 委員長으로 하는 經濟協力 共同機構를 설치하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는 등 상품교류와 經濟協力에 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으며, 南北國會會談 豫備接觸에서도 本會談議

題 등 몇가지를 제외한 그밖의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면서 國會會談 開催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시범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등 南北分斷史上 일대 전환을 이룬 이러한 상황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北韓側이 1986년 1월 20일 大韓民國側의 연례적인 「팀·스피리트」 軍事訓練을 구실로 진행중이던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大韓民國側의 거듭된 대화재개 촉구에 불응함으로써 제 2기 南北對話도 재개된지 1년여만에 중단되고 말았다.

北韓側이 70년대의 南北對話 과정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前提條件을 내세우는 등 스스로 대화에 장애를 조성함으로써 南北間의 직접대화를 통한 民族問題 해결노력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비록 짧은 기간동안이긴 하나 제 2기 남북대화는 相扶相助의 先例를 남기는 등 南北間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으며, 統一民族史에 새 이정표를 세운 의미있는 기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나. 南北體育會談

올림픽경기를 비롯, 국제경기대회에 南北韓이 단일팀으로 출전할 것을 촉구한 大韓體育會側의 제의(1981. 6. 19)를 계속 외면해 온 北韓側은 「버마 아웅산 폭파테러사건」과 영화인 최은희, 신상옥 납치사건등 그들이 恣行한 일련의 對南挑發로 南北間에 과거 어느 때보다 緊張이 高潮된 상황에서, 1984년 3월 30일 北韓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겸 북한올림픽위원

회 위원장 김유순 명의로 鄭周永 大韓體育會長 앞으로 書翰을 보내왔다. 북한측은 同 書翰에서 同年 7월 로스엔젤레스에서 개최되는 제 23회 올림픽경기대회와 그 이후에 계속 있게 될 아시아 및 세계선수권대회에 南北韓이 단일팀을 構成·出戰하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大韓體育會는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참가 선수명단 제출마감일이 불과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단일팀 구성 문제를 協議·解決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버마」사건등에 대해 一言半句의 시인·사과도 없이 南北體育會談을 제의한 北韓側 제의의 진실성에 의문을 가지면서도, 이를 南北間의 人的·物的 交流와 협력증대의 계기로 삼기 위해 4월 2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書翰을 北韓側에 전달하였다.

『나는 귀하의 3월 30일자 편지를 받았습니다.

작년 10월 9일 우리의 國家元首 弑害를 노려 우리의 외교사절을 집단 살해한 버마 暗殺爆發蠻行에 대해서 이번 귀하의 편지에서도 한마디 言及이 없다는 것을 나는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마 暗殺爆發蠻行은 같은 피를 나눈 同族은 물론 平和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에 대한 중대한 犯罪行爲요, 인류의 平和와 團합을 指向하는 올림픽 정신에 크게 위배된 행위입니다.

비록 체육인간이라 하더라도 같은 민족을 集團殺害한 이러한 不法의이고 야비한 犯罪行爲를 범한데 대하여 사과하는 뜻을 표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버마 暗殺爆發蠻行에 대해서 北韓當局이 남득할만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해 왔으며 이를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측이 南北韓 체육인간의 會談을 제의하고 나선데 대해서는 懸案의 모든 問題와는 별도로 순수한 스포츠 정신에 따라 이를 肯定的으로 검토하기

로 했습니다.

오는 7월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릴 제 23회 올림픽대회와 그후의 각종 세계선수권대회에 南北韓이 단일팀을 構成하여 참가하자는 것도 우리가 이미 여러차례 促求했던 것입니다.

1981년 6월 19일 曹相鎬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와 1982년 뉴델리 아시아 경기대회에 南北韓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자고 제안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南北體育代表會談을 열자고 貴側에 促求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를 3년 앞두고 南北韓 단일팀을 만들어 共同出戰하자고 提案했을때 貴側이 주저없이 호응해 올 줄로 믿었습니다.

또한 우리 大韓民國 政府는 1982년 2월 1일 「20개 示範實踐事業」을 貴側에 제시하면서 南北韓間에 친선 교환경기를 개최하고 각종 國際競技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것과 체육인간의 상호 親善訪問을 실시할 것을 提議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이같은 모든 提議는 民族和合의 차원에서 提議한 것이며 따라서 貴側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귀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를 비롯한 각종 國際競技에 단일팀을 構成하여 참가하자고 했던 이같은 우리 提議에 귀측이 뒤늦게나마 호응해 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개최될 1986년 아시아 競技大會와 1988년 올림픽대회에도 南北韓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남과 북은 1982년 뉴델리 아시아 競技大會에서 각기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록 綜合優勝의 영광은 얻지 못했지만 우리 민족의 優秀性을 세계에 實證한 것입니다.

만약 南北韓이 단일팀을 構成하여 뉴델리 아시아 競技大會에 참가했었다면 綜合優勝도 바라볼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서독과 동독이 1950년대에 단일팀을 構成하여 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데는 1951년 6월부터 1956년 11월까지 5년여에 걸쳐 200여회의 會談이 개최되어야 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는 말할 것도 없고 1986년 아시아 競技大會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목표로 하더라도 그 準備期間

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 4월부터라도 서울과 평양 등에서 각종 親善競技를 교환 開催하여 단일팀 구성을 위한 南北相互의 의지를 대내외에 강력히 표명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를 비롯한 國際競技大會에 단일팀으로 참가할 선수들의 選拔을 조금도 지체없이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南北韓 단일팀 構成 및 體育交流 사업을 推進하기 위한 회담을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南北間의 直通電話를 개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1. 첫 會談日時 : 1984년 4월 9일 오전 10시
 2. 會談場所 :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회의실
 3. 代表團 構成 : 南과 北의 體育會 및 올림픽위원회 副委員長을 首席代表로 하는 각 4명의 대표
 4. 會談議題 : ①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1986년 아시아 競技大會,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비롯한 앞으로 있을 國際體育競技大會에 참가할 南北 단일팀을 構成하는 문제
② 南北體育交流를 실시하는 문제
- 귀측의 肯定的인 호응을 기대합니다.]²⁵⁾

(1) 第 1 次 會談

우리측의 提議에 대해 北韓側이 호응해 오에 따라 第 1 次 南北體育會談은 1984년 4월 9일 오전 10시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회의실에서 열리게 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大韓體育會 代表團〉

首席代表 : 金 鍾 圭 (대한체육회 부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代 表 : 金 宗 河 (대한핸드볼협회 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代 表 : 李 宗 夏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

代 表 : 任 台 淳 (대한축구협회 이사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代 表 : 南 廷 文 (대한탁구협회 이사겸 대한체육회 이사)

〈北韓側 代表團〉

代表團長 : 김 득 준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副 團 長 : 박 무 성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서기장)

代 表 : 김 세 진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겸 체육 기술지도위원회 부
위원장)

代 表 : 서 명 호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代 表 : 석 태 호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겸 북한 체육기술보급사 부
사장)

이 會談에는 사정에 의해 北韓側 團長 김득준이 불참함에 따라 南北 쌍방 각기 4명의 대표가 參席하였다. 첫 會談에서 大韓體育會 代表團은 北韓側이 1983년 10월 9일, 17명의 大韓民國 외교 사절들을 집단폭살하고 國家元首를 危害하려했던 버마 暗殺爆發蠻行과 최은희·신상옥 拉致事件과 같은 일련의 挑發行爲를 恣行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南北의 체육인들이 마음놓고 接觸하고 協力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北韓側이 이에 대해 시인·사과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들에 대해 北韓當局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은 體育會談에 임하는 北韓側의 誠實性·信賴性에 관계될 뿐 아니라 장차 南北韓 체육선수들이 國際競技에 공동으로 참가하거나 단일팀 構成에 필요한 선수선발을 위해 南北韓을 왕래하면서 경기를 갖게 될 때 그들의 신변안전과도 직접 관련되는 문제임을 역설하였다.

또한 大韓體育會側은 그간 大韓民國이 南北韓間의 體育交流와 國際競技

에 단일팀을 構成해서 출전하는 문제를 수차례에 걸쳐 제의해 온 사실을 상기시킨 후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競技大會는 말할 것도 없고 1986년의 아시아 競技大會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목표로 하더라도 단일팀 構成을 위한 準備期間이 결코 많지 않음을 지적하고, 4월부터라도 쌍방지역에서 각종 親善競技를 교환·개최하여 단일팀 구성을 위한 南北相互의 의지를 대내외에 闡明하자고 提議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본입장에 입각하여 大韓體育會 대표단은 會談 議題로서 ①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1986년 아시아 경기대회,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비롯한 앞으로 있을 國際體育競技大會에 南北韓이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와 ② 南北體育交流를 실시하는 문제 등 2개항을 제시하고, 우선 제 1항 國際競技에 참가할 단일팀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7개항의 구체적 提案을 하였다.

1. 選手選拔問題

가. 選手選拔은 종목별 選拔戰을 통하여 가장 우수한 선수를 선발한다.

나. 選拔戰은 서울·평양등 南北韓 지역에서 번갈아 開催한다.

다. 세부사항은 분야별로 委員會를 두어 決定한다.

2. 選手 및 任員團 構成問題

IOC憲章 등에 준거하여 쌍방간에 協議하여 決定한다.

3. 選手訓練問題

가. 선발된 선수들의 訓練을 위하여 南北의 既存施設을 최대한 이용하되 필요시에는 非武裝地帶내에 共同競技場 시설을 마련한다.

나. 훈련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쌍방 競技團體間의 合意에 따른다.

4. 選手團 經費

共同負擔을 원칙으로 한다.

5. 團 旗

오른표지 밑에 로마자 「KOREA」를 표기한다.

6. 團 歌

「아리랑」으로 한다.

7. 選手團 呼稱

호칭표기는 「KOREA」로 하며, 우리말로는 「대한」으로 부르기로 한다.

한편 北韓側 대표단은 會談劈頭부터 버마사건은 大韓民國의 자작극으로 體育會談과 무관할 뿐 아니라 최은희·신상옥 납치사건도 大韓民國이 날조한 것이라는 억지주장으로 일관하였다.

體育會談의 運營·節次문제 토의에 들어가자 北韓側은 會談場所문제, 體育會談用 直通電話 가설문제등 會談進行의 제반문제의 토의에 응하였으며, 회담의제도 ① 제 23 회 올림픽 競技大會와 그 이후에 진행되는 國際 體育競技大會들에 北과 南이 유일팀으로 출전할데 대하여, ② 北과 南이 體育分野에서 合作과 交流를 실현할데 대하여 등 2 개항을 提示하였다.

그러나 北韓側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大韓體育會側이 버마 사건과 최은희·신상옥 拉致事件에 대한 發言을 撤回하지 않으면 더이상 會談을 계속할 수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였으며, 次期 會談일자만이라도 결정하지는 大韓體育會側의 요구를 묵살한채 일방적으로 會談場을 退場하였다.

이날 會談이 끝난후 大韓體育會側은 金鍾圭 수석대표의 記者會見과 鄭周永 大韓體育會會長의 성명을 통해 첫 회담에서 보인 北韓側의 불성실한 會談자세와 일방적인 퇴장으로 會談이 중단된데 대해 遺憾을 표시하고 하루속히 南北體育會談을 재개하여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1986년 아시아 경기대회,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비롯한 앞으로 있을 國際

體育競技大會에 참가할 南北단일팀 구성문제와 南北體育交流를 실시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주중에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會議室에서 두번째 南北韓 體育會談을 개최할 것』을 北韓側에 제의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의내용은 추후 書翰을 통해 傳達할 것이라고 밝혔다.

(2) 第2次 會談

大韓體育會側의 두차례(4.12 및 4.17)에 걸친 會談再開 촉구의 결과 第2次 會談은 1984년 4월 30일 쌍방 각기 5명의 대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4시간 37분간 진행되었다.

北韓側은 會談劈頭부터 제1차 會談 유산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비마사건에 대해서도 이를 大韓民國側이 조작한 「자작극」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함으로써 會談은 공전을 거듭하였다.

大韓體育會 대표단은 제1차 會談이 北韓側 대표들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말미암아 中斷되었던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는 이 會談을 순수한 스포츠 精神과 同胞愛를 바탕으로 하여 相互信賴와 和合의 분위기 속에서 誠實히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大韓體育會 대표단은 비마사건과 최은희·신상옥 拉致事件과 같은 非人道的 行위는 南北韓間의 信賴와 和合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으로서 南北對話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北韓當局이 비마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곧 그들이 진실로 대화를 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근본자세문제와 관련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促求하였다.

이어 大韓體育會 대표단은 會談의 議題問題에 있어서는 제 1 차 회담시 大韓體育會側이 제안한 2개항의 議題가 사실상 北韓側의 제안까지도 포용하고 있고 또 용어상의 표현도 더 분명한 만큼 大韓體育會側案을 議題로 採擇하는데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가 時期的으로 촉박한 점을 들어 『단일팀 구성에 필요한 선수선발을 서울과 평양에서 지체없이 번갈아 가질 것』과 分野別 委員會를 두어 선수선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즉각 協議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北韓側은 의제문제와 관련하여 제 1 차 會談때 그들이 提示했던 제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8개항의 단일팀 構成方案과 5개항의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단일팀 構成案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이의 우선 合意를 주장함으로써 회담에 積極的이라는 인상을 부각시키려는데 부심하였다.

〈北側의 단일팀 構成 方案〉

1. 選手選拔 原則과 방법
 - 가. 가장 우수한 選手를 選拔
 - 나. 選拔競技 場所는 南과 北의 지역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非武裝地帶에서도 가능
 - 다. 종목별로 南과 北의 선수 및 지도원 망라
2. 選手들의 訓練
 - 남·북의 施設을 번갈아 利用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제 3의 場所에서도 실시
3. 財政 및 條件 保障
 - 장소를 提供하는 측에서 負擔하며 제 3의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共同負擔
4. 選手團員

選手團員數는 IOC 憲章과 종목별 聯盟의 規約등에 준하되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

5. 單一팀 名稱

「高麗」, 英文으로는 「KORYO」로 표기

6. 單一팀 깃발

흰색 바탕에 토색 한국지도를 그리고, 그 밑에 영어로 「KORYO」 표기

7. 團 歌

「아리랑」

8. 「唯一팀 共同 事務局」 설치 (板門店)

단일팀 構成과 준비 등 實務問題 처리

〈北側의 로스엔젤레스올림픽 單一팀 構成案〉

1. 참가 종목은 남과 북이 협의하여 결정

2. 선수 선발은 5월 20일 까지 완료

3. 선수선발

가. 선발경기를 원칙

나. 예선경기를 통해 참가자격을 받게 된 종목은 자격을 받은 팀이 母體가 되고 상대측 선수들을 유입

다. 기타 종목은 최근 國際, 國內競技 성적과 기록에 의해 쌍방이 추천하여 결정

4. 共同訓練은 6월 1일부터 출발하기 전까지 진행

5. 기타 문제들은 단일팀 構成方案과 종목별 代表들간의 協議에 의해 해결

제 2 차 會談은 北韓側이 우리의 內部問題와 體制問題에 대해 비판하게

됨에 따라 급기야 南北會談史上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險惡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議題는 토의조차 하지 못한채 끝나고 말았다.

제 3 차 會談의 開催與否와 會談日字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書翰을 통해 연락하기로 하였다.

(3) 제 3 차 會談

제 3 차 會談은 쌍방 5명의 代表全員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5일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會議室에서 개최되었다.

제 3 차 회담에서 北韓側은 부당한 전제조건을 새로이 제시하고 이에 대한 大韓體育會側의 「선확답」을 요구하면서 大韓體育會 대표단의 거듭된 議題討議를 거부함으로써 1, 2차 會談때와 같이 본질문제의 토의에는 들어가지도 못했다.

제 3 차 會談은 北韓이 5월 24일 체코의 프라하에서 개최된 공산 11개국 體育關係者會談에 참가하여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不參決定에 가담했기 때문에 會談에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주목의 대상이었다.

大韓體育會 대표단은 로스엔젤레스 올림픽이 불과 두달 앞으로 迫頭하였으며 體育會談이 시작된지 한달반이 경과했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음을 지적하고, 1, 2 차 회담에서 제의한 2개항의 의제를 중심으로 토의하자고 促求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의제 제 2 항 「南北體育交流를 실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大韓體育會側은 『① 南北韓間에 交換競技를 개최한다. ② 南北韓이 개최하는 國內體育行事に 서로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③ 南北 쌍방간에 體育人들이 서로 왕래한다. ④ 南北 쌍방간에 체육에 관한 技術과 資料를 교환한다. ⑤ 南北韓 쌍방이 개최하는 體育行事を 포함한 體育活動과 시설등

에 관한 취재를 위해 기자들이 相互訪問할 수 있도록 한다. ⑥ 南北 쌍방 선수들의 轉地訓練을 위해 서로 便宜를 제공한다. ⑦ 南北 共同으로 體育講習會를 열고, 공동 부담으로 非武裝地帶내에 共同 體育施設을 建立한다.] 등 7개항의 體育交流方案을 새로이 제시하고, 이날 會談에서 원만한 토의가 進行되기를 希望하였다.

그러나 北韓側은 두차례의 會談이 공전된 것은 大韓體育會側이 會談의 基本問題와는 상관이 없는 「정치적 도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會談 공전의 책임을 大韓體育會側에 전가하면서 ① 體育會談에서 정치적 발언으로 難關을 조성하고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단일팀 출전을 방해한데 대해 認定하고 사죄할 것과 ② 앞으로 會談에 政治問題를 들고 나오지 않고 또한 政治挑發을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할 것을 會談進展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北韓側은 大韓體育會側의 거둬진 촉구에도 불구하고 議題討議를 거부하였으며, 제 4 차 會談日字를 결정하자 大韓體育會側의 주장에 대해서도 편지를 통해 연락하자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會談을 중단시켰다.

한편 鄭周永 大韓體育會 會長은 1984년 5월 29일 北韓側에 전달한 서한에서 제 4 차 南北體育會談을 6월 1일 板門店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鄭周永 會長은 동 서한에서 제 3 차 會談에서 보여준 北韓側의 태도는 누가 보아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단일팀 구성을 참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인지 根本적으로 의문을 갖게 한다고 指摘하고, 會談에 임하는 北韓側의 자세 시정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北韓側은 이같은 大韓體育會側의 제의에 대해 아무런 反應도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6월 1일 오후에 보내온 답신에서 제 3 차 會談에서 그들이 제기한 두가지 전제조건을 앞서 워 제 4 차 會談의 개최를 拒否했다.

北韓側의 이러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당초 北韓側이 로스엔젤레스 올림픽에 南北韓이 단일팀을 構成·出戰하자고 제의한 것은 공산권 국가들에 동조하여 로스엔젤레스 올림픽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워놓고 동 대회에 南北韓이 단일팀으로 참가하지 못하게 된 책임을 大韓民國側에 전가함으로써 동 대회 不參名分을 획득하고, 동시에 버마사건에 대한 大韓體育會側의 시인·사과요구가 體育會談에 難關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구실을 앞세워 이를 더 이상 추궁할 수 없도록 봉쇄함으로써 이 문제와 관련한 國際社會의 非難輿論을 불식시켜 보려는 저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온 民族의 輿望과 會談成事를 위한 大韓體育會側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에 南北韓이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鄭周永 大韓體育會 會長은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참가선수명단 제출 마감일인 6월 2일에 즈음하여 記者會見을 갖고,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에 個別參加가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어 鄭會長은 體育會談의 전망에 대해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個別參加에도 불구하고 『體育會談을 계속하여 앞으로 열릴 國際體育競技大會에 南北韓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문제와 體育交流問題를 실시하는 문제를 協議·解決해 나간다는 지금까지의 우리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闡明하고 北韓側이 조속히 會談에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²⁶⁾

그러나 北韓올림픽위원회는 6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에의 불참을 公式宣言하였다. 北韓側은 동성명에서, 미국에서 反共·反社會主義 策動이 공공연히 敢行되고 있는 환경에서는 『선수들의 身

邊安全이 擔保될 수 없으며, 또 올림픽 個別參加가 민족 여망에도 배치된다』는 억지주장으로 그들의 불참을 정당화하려 하였다. 또한 北韓側은 올림픽대회는 『모든 나라 선수들이 그 어떠한 政治的 壓力도, 精神的·肉體의 구속도 받지 않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곳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것이 금후 올림픽 운동의 健全한 發展을 위하여 나서는 매우 절박한 문제라고 認定하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나라 民族 올림픽위원회들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²⁷⁾ 당초 南北體育會談에 나온 그들의 목적이 南北韓 단일팀 구성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다. 水災物資 引渡·引受와 南北赤十字 實務接觸

(1) 南北赤十字 實務接觸의 成立

全斗煥 大統領은 1984년 8월 20일 하계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南北關係는 하루속히 止揚되어야 하며 民族和合과 平和統一을 위해 南北韓間에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南北間의 교역과 經濟協力』을 실시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고 『北韓側이 동의한다면 北韓同胞의 生活向上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技術과 物資를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全斗煥大統領은 『우리는 질이 좋은 생활용품이나 醫藥品과 自動車·機械類등을 많이 생산하여 국제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北韓은 우리에게 부족한 石炭·鐵鑛石과 같은 자원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 『南北韓이 각각 제 3국과도 交易을 하고 經濟協力을 하면서 동족간에 交易과 協力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大韓民國側의 노력에 北韓側이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²⁸⁾

동 제의는 南北關係의 비정상상태에서 연유되는 민족에너지의 浪費를 막고 相互交流와 협력을 통해 南北間 信賴를 蓄積시켜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統一基盤을 구축하겠다는데 그 깊은 뜻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동포에 적 차원에서 北韓이 當面하고 있는 만성적인 經濟沈滯와 이로인해 같은 동포인 北韓住民들이 겪고 있는 민생고의 해결을 고려함으로써 6천만 민족의 공동 번영을 追求해 나가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北韓側은 1984년 8월 25일자 노동신문 論評을 통해 동 제의에 대해 상투적인 非難을 해 음으로써 전혀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²⁹⁾ 이같은 상황에서 1984년 9월 8일 北韓側은 돌연 放送을 통해 『北韓赤十字會가 南韓지역의 水災民에게 쌀 5만석, 천 50만미터, 시멘트 10만톤, 기타 의약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물자를 수재민에게 시급히 전달할 수 있도록 大韓赤十字社가 積極 協力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大韓赤十字社는 8월의 暴雨로 人的·物的災害가 발생하였으나 大韓民國 國民들의 團合된 힘과 따뜻한 온정으로 단기간내에 救護와 復舊作業이 마무리 되었으며, 이에 따라 9월 3일 世界赤十字社聯盟(LRCS)이 水災民에 대한 원조를 제의해 왔을 때도 사양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도, 北赤의 提議를 수락함으로써 南北韓 關係改善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일념에서 9월 14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韓赤總裁 聲明을 발표하고 인수절차 협의의 위한 쌍방 赤十字 實務接觸이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되기를 희망하였다.

『全斗煥 大統領은 지난 8월 20일 기자회견에서 南北韓 經濟交流 및 協力の 필요성을 力說하면서 北韓住民들의 生活向上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과 물자를 北韓側에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내외에 闡明한 바 있습니다.

우리측이 北韓住民들에게 生活物資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한 것은 가정용품, 의약품 등과 같은 生活用品들에 대한 北韓住民들의 수요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순수한 同胞愛와 人道主義 精神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이같은 우리의 人道的 提議에 대해 北韓側이 부정적 태도를 보여 오던중 지난 9월 8일 北韓赤十字會側은 방송을 통해 最近의 우리측 水害와 關聯하여 水災民들을 위하여 쌀 5만석, 천 50만미터, 시멘트 10만톤, 기타 의약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서울과 지방에서 暴雨로 인하여 罹災民을 낳고 財産上的 피해를 입었으나 국민 모두의 團合된 힘과 노력으로 단기간내에 완전히 復舊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피해복구를 끝마치기는 하였으나 北韓赤十字會側이 우리의 水害에 관심을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大韓赤十字社는 지난 8월 20일 金斗煥 大統領의 人道主義的 提議에 적극 부응하여 이번 北韓赤十字會側의 提議를 받아들이는 바이며, 이달중에 北韓側이 제시한 물자가 우리측에 모두 인도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北韓赤十字會가 배에 물품을 싣고 인천 또는 부산항에 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世界赤十字社聯盟이 지난 9월 3일 水災民을 위한 援助를 提議해 왔을 때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復舊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중히 사양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側의 提議를 받아들이는 것은 同族間에 인도적인 문제에서부터 진정한 相扶相助의 길을 트고 나아가서 南北韓의 關係를 改善해 나가려는데 그 참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北韓側에서도 災害가 발생하면 우리는 人道的 次元에서 物資提供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南北韓의 두 赤十字社間에 이루어질 새로운 接觸과 交流를 계기로 南北韓 사이에 和合과 相扶相助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같은 인도적 차원의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北韓赤十字會側이 제의한 물자의 인수절차를 協議하기 위하여 早速한 시일내에 쌍방 赤十字社의 實務者 接觸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³⁰⁾

한편 北赤側은 9월 14일 방송을 통해 韓赤의 實務接觸 提議에 동의하여

北赤中央委員會 한응식 副委員長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를 1984년 9월 18일 오전 10시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會議室에 派遣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韓赤은 9월 15일자 電話 通知文을 통해 李榮德 韓赤 副總裁를 首席代表로 하는 5명의 代表名單을 발표하였으며, 北赤側도 9월 17일 北赤 代表名單을 통보해 옴으로써 南北赤十字社間의 實務接觸이 열리게 되었다.

쌍방 대표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首席代表：李 榮 德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代 表：趙 哲 華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代 表：宋 榮 大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협의회 위원)
代 表：崔 殷 範 (대한적십자사 구호봉사부장)
代 表：李 峻 熙 (대한적십자사 사회사업자문위원)

〈北韓赤十字會 代表團〉

代表團長：한 응 식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代 表：최 원 석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代 表：최 기 봉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장)
代 表：백 영 호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서기장)
代 表：리 남 인 (북한적십자회 남포시위원회 부위원장)

(2) 南北赤十字 實務接觸과 水災物資 引渡·引受

北側 水災物資 인도·인수문제를 協議하기 위한 南北赤十字間의 實務接觸은 1984년 9월 18일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會議室에서 열려 무려 6

시간 35분동안 進行되었다.

李榮德 韓赤側 수석대표는 실무접촉에서 北赤側이 최근 南韓地域의 水害에 관심을 보이고, 또 水災民을 위한 物資提供까지 提議한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物資引渡·引受方法에 관한 基本立場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물자를 引渡·引受하는 주체는 南北韓의 두 赤十字社가 된다.

둘째, 물자의 引渡·引受는 9월중에 完了한다.

셋째, 물자의 運搬은 배로 한다.

넷째, 물자의 引渡·引受장소는 運搬거리 등을 감안하여 仁川港으로 한다.

다섯째, 물자는 全량 일괄하여 引渡·引受한다.

여섯째, 물자의 引渡·引受와 관련한 業務連絡을 위하여 南北直通電話를 운영한다.』

또한 李榮德 韓赤 首席代表는 水災物資의 引渡는 引受하는 측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世界赤十字社聯盟의 規約과 일반관례임을 상기시키면서, 物資輸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하려면 北韓의 南浦港과 최단거리에 있는 仁川港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부연 설명하였다.

한편 北赤側은 물자는 陸路와 海上을 이용하여 수송할 것과 서울, 東草港, 仁川港 및 釜山港 등을 물자전달장소로 제시하였다. 특히 物資傳達方法과 관련하여 北赤側은 北側船員과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引受·引繼儀式을 거행하고 또 이들이 직접 水害地域을 방문하여 水災民을 위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韓赤側은 당초 海上만을 이용하자던 입장에서 自動車 輸送을 위해 이미 물자를 開城에 집결시켜 놓았다는 北赤側 사정을 양해함으로써 쌍방간 海上과 陸路를 통해 물자를 輸送하는데 原則的인 合意를 보았으며, 海上輸送의 경우에도, 韓赤側이 北側이 주장한 東草대신 港灣施設이 더 좋은 北坪港을 이용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北側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仁川港과 北坪港을 이용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그러나 육상수송의 경우, 韓赤側이 引渡·引受장소로 板門店 남측지역을 주장한데 반해 北赤側은 굳이 서울까지 직접 輸送하겠다고 고집함으로써 전혀 意見의 接近을 보지 못했으며, 급기야 北赤側은 韓赤側의 거듭된 合意促求를 묵살한 채 차기 接觸을 9월 21일에 갖자는 말만 남기고 一方的으로 퇴장해 버리고 말았다. 이로써 1977년 12월 제 25 차 南北赤十字 實務會談 이래 7년만에 열린 쌍방 赤十字社間의 接觸도 北赤側이 人道主義 정신을 외면함으로써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實務接觸이 끝난뒤 韓赤側은 李榮德 實務接觸 首席代表와 劉彰順 韓赤總裁 명의의 성명을 각각 발표하고 水災物資 引受·引渡를 위한 절차문제 토의가 北韓側의 불성실한 태도로 말미암아 合意를 보지 못한데 대해 遺憾을 표명하였다. 특히 劉彰順 總裁는 『北韓側이 眞心으로 물자를 줄 의사를 갖고 있다면 다른 條件을 고집하지 말고 이달중에 仁川, 北坪, 板門店까지 그들의 물자를 배와 자동차로 신고 올 것』과 『9월중에 물자를 완전히 인도할 구체적인 運搬計劃을 미리 우리측에 연락해 준다면 가장 迅速하고도 簡便한 方法으로 물자 인수에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劉彰順 韓赤總裁의 성명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미 報道된 바와 같이 오늘 板門店에서 열린 南北赤十字 實務接觸은 우리 측이 급일중에 모든 문제를 妥結하기 위하여 協議를 계속하자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北韓側이 이를 外面하고 일방적으로 退場함으로써 끝나고 말았다.

오늘 南北韓 赤十字社間의 實務接觸은 北韓赤十字會側이 우리측 水災民에게 주겠다고 한 물자를 大韓赤十字社側에 인도하는 節次問題를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北韓側은 처음부터 國際赤十字 活動의 原則과 관례를 무시하고 엉뚱하게도 그들의 물자를 자동차에 싣고 全國의 水災民을 직접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겠다고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고집하였다.

우리측은 받는 쪽이 물자 引渡場所를 지정하는 赤十字 慣例에 따라 北韓側의 물자를 가장 迅速하고도 편리한 방법으로 引受하기 위하여 仁川港을 물자의 引渡場所로 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측은 北側의 希望을 받아들여 물자의 引受場所로 仁川港 이외에도 北坪과 板門店을 추가하는 등 讓步와 誠意를 다하였다.

그러나 北韓側은, 仁川, 北坪, 板門店을 물자인도장소로 合意하고 다른 節次問題 논의로 넘어가자는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을 外面하고 끝까지 서울까지 와서 물자를 인도하겠다고 고집함으로써 그들의 物資提供 제의가 純粹한 人道主義와 同胞愛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이와같은 北韓側의 자세가 根本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南北赤十字社間의 接觸이 더 계속되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接觸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節次問題가 北韓側의 불성실한 태도로 말미암아 合意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遺憾으로 생각한다.

北韓側이 眞心으로 물자를 줄 意思를 갖고 있다면 다른 條件을 고집하지 말고 이달중에 仁川, 北坪, 板門店까지 그들의 물자를 배와 자동차에 싣고 오면 될 것이다.

우리는 北韓側이 9월중에 物資를 완전히 인도할 具體的인 物資運搬 계획을 미리 우리측에 연락해 준다면 가장 迅速하고도 簡便한 방법으로 物資引受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둔다.』³¹⁾

한편 北赤側은 實務接觸에서 그들이 보여준 부당한 고집과 일방적인 退場으로 『人道主義를 위장한 北側提議의 저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

아지는 등 內外輿論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9월 19일 돌연 태도를 돌변하여 實務接觸 北側 대표단장 한웅식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그들의 물자를 일단 韓赤이 요구한 仁川, 北坪, 板門店으로 싣고 오겠다고 밝혔다.

北側의 이러한 태도변화에 따른 物資提供提議를 韓赤이 受諾함으로써, 南北赤十字間에 수재물자 引渡·引受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쌍방 赤十字社는 8회에 걸쳐 電話通知文을 교환하고 수재물자 傳達方式, 北側人員에 대한 편의 및 身邊安全保障등 물자 引渡·引受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거쳐 9월 29일부터 10월 4일간에 걸쳐 수재물자 引渡·引受 작업을完了하였다.

특히 물자 引渡·引受과정에서 北側이 韓赤의 거듭된 요청에 뒤늦게나마 呼應해 옴으로써 1984년 9월 29일을 기해 중단 8년 1개월만에 南北間에 直通電話를 再開·運用하게 된 것은 동 사업이 낳은 또 하나의 成果라고 하겠다. 9월 18일 南北赤十字 實務接觸에서 原則적으로 합의하고 쌍방이 10월 8일 및 10월 11일 電話通知文을 통해 확인, 시행키로 한 南北直通電話 운영방침은 다음과 같다.

〈南北直通電話 運營方針〉

1. 南北赤十字間의 直通電話는 앞으로 계속 운영한다.
2. 南北赤十字間 直通電話는 일요일과 쌍방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운영함을 原則으로 하며,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상에 지정된 시간과 날짜에 구애됨이 없이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設定하여 運營한다.
3. 공휴일은 24시간전에 서로 상대방에게 알려준다.

4. 쌍방 통신 實務者間的 試驗通話는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에 하
되 홀수날에는 韓國側이, 짝수날에는 北韓側이 각기 상대방을 呼出하
며 만약 直通電話 回線에 이상이 생기면 임의의 시각에 서로 시험을
요구한다.
5. 南北赤十字間 直通電話의 통화내용은 쌍방의 合意에 따라 秘密을 보
장한다.

라. 南北赤十字會談

(1) 南北赤十字 豫備接觸과 本會談의 成立

大韓赤十字社는 南北赤十字間의 수재물자 引渡·引受를 계기로 이를 보
다 폭넓은 교류·협력관계로 擴大·發展시키기 위해 수재물자 引渡·引受
가 끝난 1984년 10월 4일, 北側 수재물자 引渡責任者의 한사람이며 南北
赤十字 실무접촉 北側 대표단장인 한웅식을 통해 南北赤十字會談의 재개
를 促求하는 書翰을 北赤 중앙위 손성필 위원장 앞으로 보냈다.

劉彰順 韓赤總裁가 10월 6일 記者會見을 통해 공개한 대북서한 全文은
다음과 같다.

『나는 최근 南北赤十字間에 우리 水災民을 위한 물자의 引渡·引受를 成功
적으로 끝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귀측이 적지않은 인원과 輸送手段을 동원하여 물자를 보내준 것을 고
맙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물자는 이미 水災民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南北赤十字間에 물자를 주고 받은 것은 同胞愛와 人道主義的 차원에서
분단의 장벽을 뛰어 넘은 歷史的 사건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이번에 우리가 이룩한 人道主義的 事業이 오늘의 斷

切된 南北韓 사이에 새로운 接觸과 交流의 길을 넓히는 훌륭한 先例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南北의 온 겨레는 이번 水災物資 교류가 단순히 서로 물자를 주고 받는 일로 끝나지 말고 장차 南北으로 흩어진 수많은 家族들과 親戚들이 再會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폭 넓은 人道的 事業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1千萬 離散家族들의 再會를 실현하기 위해 南北赤十字會談을 시작한지도 만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흩어진 血肉들의 苦痛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커녕 중단된 南北赤十字會談을 재개하는 문제에서도 아직 이렇다할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理念과 體制를 超越하여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고 있는 세계적 趨勢 속에서 血肉을 지척에 두고서도 생사 확인과 書信往來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南北韓間의 현실은 참으로 불행하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南北離散家族들간에 소식을 주고 받고 再會의 길을 트는 것은 離散家族를 비롯한 우리 겨레 전체의 간절한 念願인 동시에 南北赤十字人들이 수행해야 할 嚴肅한 사명으로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切迫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南北赤十字間의 接觸이 기필코 離散家族 再會問題를 실현하는 會談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南北赤十字會談을 하루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우리측의 主張에 대하여 귀측도 原則적으로 동의하리라고 믿으면서 가능하면 이달 중에 會談이 열리기를 希望합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회답을 기대합니다.』³²⁾

한편 北赤 중앙위 손성필 위원장은 10월 29일 이러한 韓赤側의 赤十字會談 재개 제의를 受諾하는 電話通知文을 보내왔다. 동 電通文에서 北赤側은 會談再開에 따른 실무문제 협의를 위한 南北赤十字 대표들간의 豫備接觸을 가질 것을 제의하면서 11월 20일 오전 10시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會議室에 3명의 대표를 派遣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韓赤側은 11월 14일 對北電話通知文을 통해 趙哲華 韓赤 事務總長을 수석대표로 하고, 宋榮大 韓赤 災害救護協議會 委員과 崔殷範 韓赤救護奉仕部長을 대표로 하는 3명의 代表名單을 北赤側에 통보하였으며, 北赤側도 이틀후인 11월 16일 서성철 北赤 中央委 常務委員을 대표단장으로, 박영수 北赤 中央委 副部長, 박동준 北赤 中央委 課長을 대표로 派遣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南北赤十字間의 豫備接觸이 열리게 되었다.

1984년 11월 20일 오전 10시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會議室에서 열린 豫備接觸은 1971~72년의 南北赤十字 豫備接觸에서 쌍방이 이미 합의한 사항들을 토대로 제 8 차 本會談 개최에 따른 議題, 場所, 대표단구성 등 諸般實務節次를 재확인하는 形式으로 進行되었기 때문에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韓赤側 趙哲華 首席代表는 제 8 차 南北赤十字 本會談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南北赤十字 본회담 운영에 관해 쌍방이 이에 승낙한 사항들을 재확인하고 아울러 추가로 합의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協議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討議案件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제 8 차 南北赤十字 本會談의 장소문제

本會談의 장소는 1971년 10월 6일 제 3 차 南北赤十字 豫備會談에서 쌍방이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 가면서 開催하기로 한 바에 따라 제 8 차 南北赤十字 本會談은 서울에서 開催한다.

2. 南北赤十字 本會談 의제문제

南北赤十字 本會談의 의제는 1972년 6월 16일 제 20 차 南北赤十字 豫備會談에서 쌍방이 합의한 대로

- ①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 ②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에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相逢을 실현하는 문제
 - ③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의 자유로운 書信去來를 실시하는 문제
 - ④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再結合 문제
 - ⑤ 기타 人道的으로 해결할 문제
- 이상 5개항으로 한다.

3. 南北赤十字 本會談 代表團 구성문제

本會談 대표단은 쌍방이 합의한 대로 首席代表는 쌍방 赤十字社 副總裁級으로 하고 대표 각 7명, 諮問委員 각 7명, 隨行員 각 20명, 報道陣 각 25명으로 한다.

4. 常設 會談連絡事務所 運營問題

常設 會談連絡事務所는 1971년 9월 29일 제 2 차 南北赤十字 豫備會談의 합의사항에 따라 그 기능을 정상화하고 板門店 「자유의 집」과 「판문각」 사이의 直通電話를 재개통·운영한다.

5. 기타 運營節次問題

身邊保障, 往來節次, 滯留期間과 會談日程, 표지, 장비 및 소지품, 交通, 通信, 會談場외의 활동, 會談場 시설, 會議記錄, 會議公開與否, 報道陣, 會談運營形式, 合意文件 작성 및 발표, 便宜提供에 관한 문제는 1972년 8월 11일 제 25 차 南北赤十字 豫備會談의 합의사항대로 한다.

6. 제 8 차 南北赤十字會談 개최일자 문제

제 8 차 南北赤十字 本會談은 본 豫備接觸이 終結된 날로 부터 1개월이내에 개최한다.』

北赤側은 韓赤의 제의에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本會談이 중단된지 오랜 시일이 경과했고 또 그동안 客觀的 情勢가 변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北赤側은 대표단 구성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出版, 報道機構가 증설되었을 뿐 아니라 출판기재의 다양화에 따라 종사자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된 점을 지적하면서 쌍방 報道陣을 각기 종전의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대신 隨行員을 20명에서 15명으로 줄일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韓赤側은 수행원수는 종전대로 20명으로 하되 記者數는 北側 제안대로 50명으로 할 것에 동의함으로써 쌍방은 報道陣과 隨行員을 각기 50명과 20명으로 구성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이와함께 北赤側은 本會談이 11년이상 중단되었다가 재개된다는 사실을 들어 서울에서 열릴 제 8차 會談과 평양에서 열리게 될 제 9차 會談은 祝祭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쌍방 藝術人들의 交換公演을 가질 것을 집요하게 주장했다. 韓赤側은 그러한 祝祭行事는 赤十字會談 본연의 임무와 會談의 조속한 타결을 기원하고 있는 1千萬 離散家族들의 念願에 부합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과거 관례대로 주최측이 公演을 담당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접촉에서 쌍방이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南北赤十字 豫備接觸 合意事項〉

1. 本會談 場所問題

제 8차 회담은 서울에서, 제 9차 회담은 평양에서 한다.

2. 本會談 議題問題

1972년 6월 16일 제 20차 南北赤十字 예비회담에서 쌍방이 既合意한 5개항을 의제로 한다.

- ①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 ②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에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

은相逢을 실현하는 문제

- ③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 ④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再結合 문제
- ⑤ 기타 人道的으로 解決할 문제

3. 本會談 代表團 構成問題

代 表 : 7명

諮問委員 : 7명

隨 行 員 : 20명

記 者 : 50명

4. 常設連絡事務所 運營問題

板門店 상설연락사무소의 기능 및 直通電話를 즉시 재개한다.

5. 本會談 公開與否問題

8, 9차 本會談은 공개로 하며, 그후 會談부터는 비공개를 原則으로 하되 쌍방향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 있다.

6. 本會談 其他 運營節次問題

身邊保障, 往來節次, 표지, 장비 및 소지품, 교통, 통신, 會談場외의 활동, 會談場 시설, 편의제공 등에 대해서는 1972년 8월 11일 제25차 예비회담, 1972년 10월 25일 제3차 本會談의 추가 합의사항대로 한다.

그러나 제8차 會談일자와 關聯해서는 北赤側이 처음에는 주최측인 韓赤에 일임한다고 했다가 韓赤側이 1984년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로 하자고 제의하자, 돌연 태도를 바꾸어 과거 本會談이 12월과 1월에는 개최된 적이 없다고 하면서 1985년 1월 23일에 열 것을 주장함으로써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直通電話를 통해 協議하기로 하였다.

한편 韓赤側은 11월 22일 北赤側에 電話通知文을 보내고 豫備接觸에서 밝힌 北側의 의견을 고려하여 제 8 차 本會談을 1985년 1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개최하고 會談일정을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北赤도 동년 12월 14일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北赤側은 제 8 차 會談에 참가할 北側 대표단의 서울 滯留일정과 기타 實務의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85년 1월 10일로 합의된 쌍방 連絡官 접촉을 하루 앞둔 1월 9일, 돌연 韓赤側에 보낸 電話通知文을 통해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大韓民國側의 「팀·스피리트 85」 훈련을 구실로 제 8 차 會談의 一方的 연기를 통보하고, 會談연기의 책임을 大韓民國側에 轉嫁하였다.

北韓側이 會談연기의 구실로 내세운 「팀·스피리트 85」 훈련은 한·미 양국이 防禦를 목적으로 1976년이래 年例의으로 공개리에 실시해 온 平和維持 훈련이며, 大韓民國側은 이를 立證하기 위해 훈련계획을 北韓側에 사전 통보하고 그들이 동 훈련에 參觀토록 수차에 걸쳐 초청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팀·스피리트」 훈련기간 중에도 이에 관계없이 여러차례 대화가 進行되었으며 특히 「팀·스피리트 84」 訓練期間중인 1984년 4월초에는 北韓側이 南北體育會談에 呼應하여 南北 쌍방간에 會談이 열렸던 사실을 勘案한다면 「팀·스피리트」 訓練을 구실로 한 會談연기 통보는 결코 正當化될 수 없는 주장이었다.

北韓側이 大韓民國의 연례적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합의한 제 8 차 會談일정을 一方的으로 연기하고, 韓赤側의 거듭된 대화재개 促求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韓赤 劉彰順 總裁는 1985년 3월 25일, 北赤 중앙위 손성필 위원장 앞으로 재차 다음과 같은 내용의 電話通知文을 보내고 北赤側의 一方的 연기통보와 불참으로 유산된 제 8 차 南北赤十字

本會談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면서 제 8 차 會談을 5月 15日 10時에 서울에서 개최하고, 會談일정을 5月 14일부터 17日까지 (3泊 4日)로 할 것을 제의했다

『나는 지난 1月 23日 서울에서 열기로 쌍방간에 합의한 제 8 차 南北赤十字 會談이 귀측의 一方的 연기통보와 불참으로 말미암아 유산된 후 두달이 지나도록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遺憾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온 겨레는 12년만에 모처럼 재개하기로 된 南北赤十字會談이 연기되고 있는데 대해 크게 失望하고 있습니다.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과 親戚들을 찾아주고 그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赤十字人들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일입니다.

따라서 南北赤十字會談은 그 어떠한 이유나 변명으로도 더 이상 연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견지에서 나는 제 8 차 南北赤十字會談을 1985年 5月 15日 10時에 서울에서 개최하고 會談일정을 5月 14일부터 17日까지 (3泊 4日)로 할 것을 귀측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나는 우리측이 제 8 차 南北赤十字會談의 주최측으로서 귀측 대표단의 숙소 등 會談개최에 따른 諸般事項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會談일정에 대한 귀측의 의견을 會談 개최 1개월 전까지 회신해 주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北赤側은 4月 4日 손성필위원장 명의의 電話通知文을 보내, 韓赤의 會談개최 제의에 동의하면서 다만 會談일자는 5月 28日로 하자고 수정 제의하였으며, 韓赤도 같은날 北赤의 수정제의에 동의하는 회신을 보냄으로써, 제 8 차 南北赤十字 本會談은 5月 27일부터 5月 30日 (3泊 4日)에 걸쳐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어 쌍방 赤十字社는 세차례 (5月 20日, 5月 23日 및 5月 25日)에 걸쳐 사전 連絡官 接觸을 갖고 本會談의 일정 및 기타 실무문제를 협의하고, 會談에 참가할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였다.

쌍방 대표단 名單은 다음과 같다.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 首席代表 : 李 榮 德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代 表 : 趙 哲 華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代 表 : 宋 榮 大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협의회 위원)
代 表 : 李 炳 豪 (대한적십자사 홍보자문위원)
代 表 : 鄭 鎔 碩 (대한적십자사 청소년자문위원)
代 表 : 李 峻 熙 (대한적십자사 사회사업자문위원)
代 表 : 李 炳 雄 (대한적십자사 총무부장)

- 諮問委員 : 趙 德 松 (조선일보 논설위원)
諮問委員 : 金 東 煥 (일천만 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 이사·변호사)
諮問委員 : 李 慶 淑 (숙명여대 교수)
諮問委員 : 鄭 時 成 (대한적십자사 회담운영위원)
諮問委員 : 安 秉 俊 (연세대 교수)
諮問委員 : 李 相 禹 (서강대 교수)
諮問委員 : 韓 昇 洲 (고려대 교수)

〈北韓赤十字會 代表團〉

- 團 長 : 이 종 료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부위원장)
副 團 長 : 서 성 철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상무위원)
代 表 : 한 연 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상무위원)
代 表 : 박 영 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동포사업부장)
代 表 : 김 완 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문화선전부장)
代 表 : 박 동 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국제부 부부장)
代 表 : 김 창 현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조직계획부 부부장)

諮問委員 : 강 석 승 (노동당 중앙위 위원·부장)
 諮問委員 : 김 석 준 (사회민주당 중앙위 부위원장)
 諮問委員 : 최 희 준 (천도교청우당 중앙위 부위원장)
 諮問委員 : 임 춘 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諮問委員 : 김 영 남 (직업총동맹 부위원장)
 諮問委員 : 김 창 룡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중앙위 부위원장)
 諮問委員 : 박 재 로 (조총련 중앙상임위 부의장)

大韓民國 政府는 5月 18日, 鄭石謨 內務部長官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제 8 차 赤十字會談에 참가할 北側 대표단, 隨行員 및 取材記者들이 南北을 왕래하고 우리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身邊安全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쌍방간의 事前接觸과 협의를 거쳐 1985年 5月 27日 정오 北赤代表團 84명이 板門店을 경유, 서울에 도착함으로써 南北赤十字 本會談이 중단 12年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다.

(2) 第 8 次 本會談

第 8 次 南北赤十字 本會談은 1985年 5月 28日과 29日 양일간에 걸쳐 서울 웨라튼워커힐호텔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第 1 日 회의에서는 韓赤側 李榮德 首席代表의 개회선언과 인사로 시작, 北韓赤十字會 이종률 단장의 인사, 北赤 諮問委員 강석승 및 韓赤 趙德松 諮問委員의 축하인사에 이어 쌍방 수석대표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李榮德 韓赤側 首席代表는 基調演說을 통해, 南北赤十字 회담의 목적은 『하루 빨리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에게 再會의 길을 열어주고 이를 통해서 南北間에 民族和合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窮極의으로 조국의 平和統一에도 이바지』하는데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는 의제를 하나하나 具體的으로 토의·해결하고 합의된 사업을 하루 빨리 實現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쌍방이 豫備接觸을 통해 再確認한 5개항 의제토의와 관련한 韓赤側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韓赤의 議題 5個項 討議關聯 提案〉

첫째,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國際赤十字의 離散家族찾기 사업의 관례에 따라 쌍방 赤十字가 離散家族찾기 依頼書와 回報書를 주고 받음으로써 離散家族들의 생사와 주소를 알아내고 알려주는 사업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相逢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原則적으로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방문과 상봉의 기간, 장소, 횟수 등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방문의 경우에는 초기에 많은 희망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이 예상되므로 대규모의 團體訪問團을 상호 交換하도록 하고, 상당한 수의 報道 인들이 수행하여 취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봉의 경우에는 板門店에 面會所를 설치하여 상봉하거나 또는 본인들이 원하는 편리한 장소에서 상봉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의 자유로운 書信거래를 실시하는 문제입니다.

書信거래는 便紙, 葉書등 본인이 편리한대로 하며 電話, 電報 등의 通信

手段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통신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配達業務는 원활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미 제 4 차 本會談에서 합의한 바 있는 南北赤十字 板門店 공동사업소가 설치되면 거기에서 南北의 郵便物 교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제,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再結合 문제입니다.

우리는 통일이 되기 이전이라도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들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가족들과 再結合하여 함께 살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의제 제 5 개항에는 의제 제 1 항에서 부터 제 4 항까지에 포함되지 않은 離散家族문제와 관련된 人道的 事業들을 쌍방이 협의해서 더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돌아가신 분들의 遺品과 遺骨의 送還, 墳墓의 移葬 등 離散家族 문제와 관련된 인도적 사업을 예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李榮德 首席代表는 이상과 같은 입장에 따라 5개항 의제의 실천방안을 조속히 협의, 해결할 것과 늦어도 8월 15일까지는 제 4 차 會談에서 사업추진기구로 합의한 바 있는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와 「南北赤十字 板門店 共同事業所」를 발족, 離散家族찾기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아울러 5개항 의제의 실천방안이 모두 합의되기 이전이라도 離散家族찾기 사업을 促進시키기 위한 示範事業으로 「離散家族 故鄉訪問團」을 구성, 1985년 8월 15일을 기해 상호 교환할 것도 아울러 제의하였다.

이에 반해 北赤側은 離散家族·親戚들의 고통을 한시 바빠 덜어주기 위해서는 『과거의 진부한 방식을 버리고 참신한 새로운 方途를 모색』해야 한다고 하면서 5개항의 의제를 통틀어 일괄토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北赤側은 離散家族 문제 해결방도중의 하나에 불과한 자유왕래만 해결 되면 기타 人道的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自由往來 문제를 우선 토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北赤의 自由往來 關聯 提案〉

1. 自由往來 節次

- ① 내왕자는 쌍방 赤十字 단체 발행 신임장 제출
- ② 내왕자는 출발 1개월 전 대상자와 행선지 통지
- ③ 내왕자의 행선지는 헤어진 때의 家族, 親戚이 살던 곳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 ④ 내왕자의 체류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 가능
- ⑤ 내왕자의 軍事分界線 통과지점은 板門店, 鐵原으로 하고 합의에 따라 늘릴 수 있음.

2. 來往者 範圍

- ① 가족은 흩어질 당시의 가족과 출생자녀
- ② 친척은 방계에서 8촌, 처·외가는 4촌까지
- ③ 그밖에 요구하는 친척도 포함

3. 便宜 및 安全保障

- ① 板門店 및 鐵原 共同事業所 및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 설치
- ② 숙식, 교통, 통신 등 편의는 상대측 적십자 단체가 보장

- ③ 緊急救濟, 의료상 방조 필요시는 상대측 적십자 단체가 무상 봉사
- ④ 안전보장은 赤十字 단체들의 중개하에 쌍방당국이 대책 수립
- ⑤ 구체적 토의는 별도로 함.

또한 北赤側은 南北赤十字會談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방 40들을 맞이하는 8월을 기해 쌍방 적십자사 총재들이 각기 赤十字 會員들로 구성된 100명 정도의 예술단을 대동하고 상호 방문하여 傳統的인 民俗 歌舞를 기본으로 하는 축하공연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제 2일 회의에서 韓赤側은 北側이 제기한 자유왕래 문제는 의제 제 2항으로 쌍방이 이미 합의한 사항이며, 既 合意한 문제에 대해서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北側이 자유왕래가 離散家族問題 解決의 『가장 先決的이고 중핵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과거 제 3차 本會談에서 이른바 法律的 조건과 社會的 환경의 개선이 의제 토의의 先決문제라고 한 귀측의 주장을 다시 연상시켜 주고 있다』고 지적, 『과거와 같은 政治的 전제조건을 제기하거나 우리측의 내부문제를 시비하기 위해 자유왕래를 또 다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언제든지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北赤側은 『5가지 의제에 共通的으로 관계되고, 흠어진 家族·親戚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서 가장 先決的이고 중핵적인 방도는 자유왕래임』을 내세워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합의할 것을 되풀이 주장하였다.

또한 北側은 1970년대 초에 우리측의 내부 문제를 거론한 그들의 입장이 합리적이었다는데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強辯함으로써, 결국 의제 5개항 사업의 구체적인 토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이에 韓赤側은 會談의 실질적 진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北側이 제안한

藝術公演團 交換訪問 제의를 수용하여 「南北離散家族 고향방문 및 藝術公演團」의 상호교환방문을 北赤側에 제의하였으며, 北側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南北離散家族 고향방문단과 藝術公演團」의 상호교환을 실시하기로 일단 합의했다. 회의가 끝난후 쌍방 실무대표는 별도 接觸을 갖고 1985年 8月 15日을 기해 「離散家族 고향방문단 및 藝術公演團」 교환방문을 실시하는데 합의하였으며, 具體的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7月 15日 실무대표 접촉을 갖기로 했다.

제8차 南北赤十字 本會談은 비록 실질문제에 대한 생산은 없었지만, 1973年 7월의 제7차 本會談 이후 12년동안 中斷되었던 會談이 재개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다.

(3) 第9次 本會談

第9次 南北赤十字 本會談은 1985年 8月 27日 오전 10時, 평양 「인민문화궁전」 회의실에서 개막되었다.

제1일 회의는 北赤側 이종률 단장의 개회선언과 인사로 시작, 韓赤 李榮德 首席代表의 인사 및 趙德松 諮問委員의 축하인사에 이어 北赤 자문위원 강석승의 인사말 순서로 진행되었다. 쌍방 수석대표의 基調演說에 앞서 쌍방간의 세차례 실무접촉의 결과 1985年 8月 22日 합의한 바 있는 「離散家族 고향방문 및 藝術公演團」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 문안을 쌍방 회담 대변인이 각기 낭독하고 쌍방 수석대표가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이날 會談에서 韓赤 李榮德 首席代表는 지난 15년간 끌어온 南北赤十字 會談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조국 해방 40돌이 되는 1985년을 기해서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이 직접 고향을 찾고 혈육을 만나는 사업을 실천에 옮길 것을 呼訴하면서, 第8次 會談에서 쌍방이 의제 5개항을 일

팔토의할 것과 자유왕래원칙에 합의한 사실에 기초하여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토의·해결하려는 趣旨에서 「南北赤十字 本會談 의제 5개항의 사업실시에 관한 合意書(案)」와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왕래 절차에 관한 合意書(案)」를 비롯하여 本會談에서 위임된 諸般事業을 이행하고 보장하기 위한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 및 南北赤十字 板門店 共同事業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合意書(案)」등 3개의 合意書(案)를 제시하였다.

또한 離散家族·親戚들을 위한 赤十字事業을 원활히 추진하고 쌍방 赤十字間의 긴밀한 협조를 도모하는 한편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자기측 인원 에 대한 협조와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赤十字 代表部」를 설치할 것도 아울러 제의하였다.

韓赤側이 제시한 3개 合意書(案)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議題 5個項의 事業實施에 관한 合意書(案)〉

第 9 次 南北赤十字 本會談에서 大韓民國 大韓赤十字社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赤十字會 쌍방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에게 조속히 再會의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첫째, 쌍방은 쌍방 赤十字의 주관과 협조하에 의제 5개항 사업들을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사업은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離散家族찾기 依頼書와 回報書를 주고 받음으로써 실시하는 방법과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과정에서 알아내는 방법으로 병행하여 실시한다.

離散家族찾기 依賴書와 回報書의 교환에 따른 절차와 서식등 구체적인 방법은 제 3 차 本會談에서 大韓赤十字社가 제의한 방식대로 한다.

2.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방문과 상봉을 실현하는 사업은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 실시한다.

상봉의 경우 당사자들의 希望에 따라 板門店이나 기타 장소에 면회소를 설치하여 상봉할 수 있도록 한다.

板門店 面會所의 설치 및 운영은 「南北赤十字 板門店 共同事業所」가 담당한다.

3.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의 서신거래는 봉합편지, 엽서 등 당사자들이 편리한대로 하며 電話, 電報등의 通信手段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南北의 서신거래 업무는 「南北赤十字 板門店 共同事業所」가 담당하도록 한다.

4.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의 再結合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다.

재결합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적 사항은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에서 협의·결정한다.

5. 기타 인도적으로 解決할 사업은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에 제기하여 협의·결정하도록 한다.

둘째, 이상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당사자들의 자유왕래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셋째, 쌍방은 南北赤十字會談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 4 차 南北赤十字 本會談에서 합의한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와 「南北赤十字 板門店 공동사업소」를 조속히 발족시킨다.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와 「南北赤十字 板門店 공동사업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별도로 정한다.

네제,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을 위한 赤十字事業을 원활히 추진하고, 쌍방 赤十字間의 긴밀한 협조를 도모하는 한편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자기측 인원에 대한 협조와 연락등의 업무를 遂行하기 위하여 서울과 平壤에 각각 「赤十字 代表部」를 설치·운영한다.

다섯째, 본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効力を 발생하며, 상호 합의에 의해 폐기하지 않는 한 그 効力は 계속 유효하다.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 및 「南北赤十字 板門店 共同事業所」의 構成과 運營에 관한 合意書(案)>

1. 設置目的

쌍방은 南北赤十字會談에서 합의한 諸般事業을 성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이하 「共同委員會」라 한다)와 南北赤十字 板門店 공동사업소 (이하 「共同事業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 共同委員會

가. 機能

- ① 南北赤十字會談에서 쌍방이 합의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며,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조정·해결한다.
- ②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再會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이 제기되는 모든 人道的 문제를 협의·결정한다.

나. 構成

共同委員會는 쌍방에서 각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共同委員長은 副總裁(부위원장)급으로 한다.

다. 運 營

- ① 共同委員會의 회의는 板門店에서 개최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쌍방합의에 따라 서울 또는 平壤에서 개최할 수 있다.
- ② 共同委員會는 매 3개월마다 定期會議를 가지며, 어느 일방이 요청하면 臨時會議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共同委員會의 회의는 非公開로 하되, 쌍방의 합의에 따라 公開로 할 수 있다.
- ④ 共同委員會의 합의사항은 공동사업소에 委任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3. 共同事業所

가. 機 能

- ①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기 위한 離散家族찾기 依頼書와 回報書를 교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②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의 서신거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板門店에서 상봉하기를 희망하는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을 위하여 板門店內에서의 면회업무를 수행한다.
- ④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板門店 통과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⑤ 共同委員會의 운영과 관련한 일반사무를 담당하며, 共同委員會의 합의에 의해 委任되는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한다.

나. 構 成

공동사업소는 쌍방에서 각기 赤十字 中央機關의 部長級 所長 1명과

필요한 사무인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사업소의 부서와 그 사무인원의 수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다. 運 營

- ① 쌍방은 板門店에 공동사업소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사용한다. 단 공동사업소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暫定的으로 大韓民國 大韓赤十字社는 「평화의 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赤十字會는 「板門閣」에 각기 공동사업소를 설치·운영한다.
- ② 쌍방 공동사업소의 所長은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비공개회의를 갖는다.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가질 수 있다.
- ③ 쌍방은 본 합의서 서명·교환후 1개월이내에 공동사업소를 동시에 설치·운영한다.
- ④ 공동사업소의 건축문제와 공동사업소에 관한 운영세칙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効力을 발생하며 상호 합의에 의해 폐기하지 않는 한 그 効力은 계속 유효하다.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自由往來 節次에 관한 合意書(案)>

1. 南北으로 왕래하는 가족의 범위는 헤어질 당시의 家族과 그후 출생한 자녀로 하며, 친척의 범위는 방계에서 8寸, 처가 및 외가로는 4寸으로 한다.
2. 南北으로 왕래하는 家族들과 親戚들의 왕래목적은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생사와 주소확인, 방문 및 상봉 등으로 하며, 기타의 목적으로 당사자들이 자유왕래를 희망할 경우에는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에서 협의·결정한다.

3. 南北으로 왕래하는 家族들과 親戚들은 자기측 赤十字가 발급한 남북왕래 증명서를 지참한다.

동 증명서에는 왕래의 목적, 행선지, 체재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4. 南北으로 왕래하는 家族들과 親戚들에 대하여 해당 赤十字는 출발 1개월전에 왕래자들과 그들의 행선지를 상대측 赤十字에 통지한다.

5. 南北으로 왕래하는 家族들과 親戚들의 행선지는 그들의 고향 또는 헤어질 당시 그들이 살던 곳과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대측 赤十字의 협조하에 변경할 수 있다.

6. 南北으로 왕래하는 家族들과 親戚들의 상대측 지역 체류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대측 赤十字의 협조하에 연장할 수 있다.

7. 南北으로 왕래하는 家族들과 親戚들의 軍事分界線 통과지점은 板門店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더 늘릴 수 있다.

8. 南北으로 왕래하는 家族들과 親戚들에 대한 숙식, 교통, 통신등 제반편의는 상대측 赤十字가 책임지고 보장한다.

9. 南北으로 왕래하는 가족들에게 긴급 구제와 의료상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상대측 赤十字가 무상으로 봉사한다.

10. 남북으로 왕래하는 家族들과 親戚들에 대한 안전보장문제는 왕래자 전원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쌍방 赤十字의 증개하에 쌍방당국이 책임지고 이를 보장하도록 한다.

11. 본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상호 합의에 의해 폐기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이상 韓赤側이 제시한 3개 합의서(안)에는 5개항 의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사업실천방안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또한 제 8차 회담

에서의 北赤側 제의·주장까지도 충분히 수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北赤側은 제 8차 本會談에서 『5개항 의제를 일괄토의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도로서 자유왕래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유왕래 문제에 관한 합의서안만을 제시하고, 이를 우선 채택한 연후에 사업의 추진방도와 절차를 토의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의제 5개항 사업실시를 위한 일괄토의와 일괄합의를 반대하였다.

즉, 北赤側은 1단계로 「자유왕래문제」의 합의를 채택하고 2단계로 자유왕래 이외의 기타 방도를 토의·해결하며 3단계로 의제의 구체적인 실현과 관련된 절차를 토의할 것을 주장하는 등 제 8차 회담에서 쌍방이 합의한 「일괄토의·해결」원칙과 배치되게 離散家族문제의 단계적 해결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離散家族들과 親戚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제의 구체적인 실현과 관련된 절차토의 時限을 1986년 9월까지로 주장함으로써 동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내었다.

〈北赤側의 自由往來 關聯 合意書(案)〉

1. 南北赤十字會談 의제를 일괄토의함.
2. 의제실현에서 중핵적이며 포괄적인 방도를 자유내왕으로 하며 자유내왕을 통하여 離散家族·親戚들의 의사와 念願에 맞게 사업을 추진
 - ① 離散家族·親戚들은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에 가서 직접 家族·親戚들의 주소와 생사를 확인
 - ② 離散家族·親戚들은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에 가서 親戚를 방문하고 임의의 지역에서 자유롭게 家族·親戚들과 상봉
 - ③ 이산가족들은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에 가서 재결합하는 문제를 협의·실현

- ④ 離散家族·親戚들은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에 가서 省墓하고 유품을 처리하며 遺骨도 이전
3. 자유 내왕이외에 제기되는 기타 방도들도 離散家族·親戚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도로 함.
 4. 의제의 매 항의 실현과 관련되는 기타 방도들은 자유왕래문제에 대한 합의를 채택한 다음에 토의·확정
 5. 절차문제는 자유왕래방도와 그밖에 제기되는 기타 방도를 합의한 다음에 함께 토의
 6. 離散家族·親戚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도와 절차문제 토의는 1986년 9월로 함.

8月 28日에 속개된 제 2 일 회의에서는 첫날회의에서 쌍방이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질토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北赤側이 8月 27日에 있었던 「모란봉경기장」사건을 집중 거론하고 회의진행을 기피함으로써 본질문제의 토의에는 들어가지도 못한채 끝나고 말았다.

첫날회의가 끝난 8월 27일 오후, 韓赤代表團 일행은 평양 시내 「학생소년궁전」에서 「청소년체조」를 관람키로 했으나, 北赤側이 당초 약속과 달리 예정에도 없는 「모란봉경기장」으로 韓赤代表團 일행을 안내하여 북한정권의 선전을 목적으로 한 카드섹션과 대규모 전쟁 매스게임을 연출함에 따라 韓赤代表團 일행은 도중에 관람을 중단하였다.

北赤側이 「모란봉경기장」에서 5만명의 청소년과 10만명의 관중을 동원, 그들의 체제와 관련된 政治性 있는 군사 매스게임을 연출한 것은 누가 보아도 그 진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특히 北赤側이 참관내용·장소·시간등을 여러차례 반복하면서 사전에 그 정확한 내용을 韓赤代表團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北赤側이 赤十字會談을 계획적으로

政治的 목적에 이용하려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政治的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쌍방 합의사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赤側은 會議가 시작되자마자 이날 會議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1일회의의 합의를 무시한채 공개리에 「모란봉경기장」사건을 거론·시비하면서 韓赤側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수차에 걸친 韓赤側의 본질문제 토의촉구에 끝내 불응함으로써 이날 會談은 공전되고 말았다.

(4) 第10次 本會談

第10次 南北赤十字 本會談은 1985年 12月 3日 오전 10時 서울 웨라톤 위커히호텔에서 개막되었다.

이 會談은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이긴 하나 分斷 40년만에 처음으로 離散家族들이 직접 고향을 방문하여 헤어진 家族·親戚들과 상봉, 감격을 나누는 직후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會談의 성과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제 1일 會議에서 韓赤 李榮德 首席代表는 기조발언을 통해 9차會談에서 제시한 「南北赤十字 本會談 의제 5개항의 사업실시에 관한 합의서」,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자유왕래 절차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南北赤十字 板門店 공동사업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등 종합적인 합의서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이를 일괄 토의하여 종합적인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赤十字會談을 하루속히 마무리짓고 사업실천단계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이어 李榮德 首席代表는 第 9 次會談에서의 쌍방제안에는 離散家族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최대한 尊重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의제 5개항을 조속히 토의, 그 성과를 합의서로 채택하자는 점등 공통점이 있는 반면 의제 토의방식과 합의서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韓赤側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의제 토의방식에서 우리측은 의제 5개항을 순차성에 구애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토의·해결한다는데 쌍방이 이미 합의한 만큼, 마땅히 5개항 의제의 항목별 실천방안을 다함께 제시하고 이를 綜合적으로 討議·解決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측은 의제 5개항을 일괄토의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자유왕래문제를 먼저 합의하고 자유왕래 이외에 제기되는 기타 방도와 의제의 구체적 실현과 關聯된 節次문제등은 자유왕래 문제에 대한 합의를 採擇한 다음 討議·確定하자고 함으로써 의제 5개항의 일괄해결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습니다.

의제 5개항의 일괄토의는 第 8 次 會談에서 쌍방간의 합의사항이며 의제토의를 効率的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방식인 만큼 마땅히 이를 尊重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합의서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측은 5개항 사업실시를 비롯하여 자유왕래절차, 그리고 사업실시에 필요한 기구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具體의 내용을 담은 綜合의인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서 귀측의 提案에는 그러한 綜合의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더우기 귀측은 자유왕래 이외에 제기되는 기타 方途와 議題의 具體의 실현과 關聯된 절차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토의한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읍니다. 나는 14년간 지속된 南北赤十字會談을 하루속히 마무리 짓고 합의된 사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쌍방이 함께 올려놓고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離散家族문제 해결의 첩경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비록 쌍방간에 다소간 見解를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離散家族문제 해결에 뜻을 같이하고 있고 서로 이해와 호양의 정신을 충분히 발휘해 나간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本會談을 成功的으로 終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오늘 會談에서 귀측이 우리측의 안에 상응하는 종합적인 안을 제시하고 쌍방안을 놓고 토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측이 제시한 綜合的인 합의서 案이 그동안 귀측이 주장한 내용들까지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우리측 안을 토대로 토의를 진행시켜 나간다면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韓赤側은 사업실천 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이라도 離散家族 故鄉訪問團 사업의 좋은 성과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족전통의 명절인 1986年 舊正을 기하여 離散家族 故鄉訪問團 교환사업을 거듭 실시할 것과 지난번 서울과 平壤에서 상봉하고 다시 헤어진 가족들 간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상호 서신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아울러 제의하면서, 北側이 이 두가지 문제에 동의한다면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과 절차문제를 합의할 실무대표회의를 별도로 가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韓赤側이 제시한 3개 합의서(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南北赤十字 本會談 의제 5개항의 사업실시에 관한 합의서(안)〉

大韓民國 大韓赤十字社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赤十字會 쌍방은 인도주의정신에 따라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에게 조속히 재회의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첫째, 쌍방은 쌍방赤十字의 주관과 협조하에 의제 5개항 사업들을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사업은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離散家族찾기 依頼書와 回報書를 주고 받음으로써 실시하는 방법과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과

정에서 알아내는 방법으로 併行하여 실시한다.

離散家族찾기 依賴書와 回報書의 교환에 따른 절차와 서식 등 구체적 방법은 第3次 本會談에서 大韓赤十字社가 제의한 방식대로 한다.

2.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방문과 상봉을 실현하는 사업은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 실시한다.

상봉의 경우 당사자들의 희망에 따라 板門店이나 기타 장소에 면회소를 설치하여 상봉할 수 있도록 한다.

板門店 면회소의 설치 및 운영은 「南北赤十字 板門店 共同事業所」가 담당한다.

3.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의 서신거래는 봉합편지, 엽서 등 당사자들이 편리한대로 하며, 전화·전보 등의 通信手段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南北의 서신거래업무는 「南北赤十字 板門店 共同事業所」가 담당하도록 한다.

4.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재결합은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줌으로써 실현한다.

재결합을 위한 실무적 사항은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에서 협의·결정한다.

5. 기타 人道的으로 해결할 사업은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에 제기하여 협의·결정하도록 한다.

둘째, 이상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당사자들의 자유왕래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세째, 쌍방은 南北赤十字會談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

4 차 南北赤十字 本會談에서 합의한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와 「南北赤十字 板門店 共同事業所」를 조속히 발족시킨다.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와 「南北赤十字 板門店 共同事業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별도로 정한다.

네째,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을 위한 赤十字事業을 원활히 추진하고, 쌍방 赤十字間의 긴밀한 협조를 도모하는 한편 상대측 지역에 滯留하는 자기측 인원에 대한 협조와 연락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과 平壤에 각각 赤十字 代表部를 설치·운영한다.

다섯째, 본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상호 합의에 의해 폐기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자유왕래 절차에 관한 합의서(안)>

南北赤十字 本會談 의제 5개항의 사업실시에 관한 합의서에 의한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자유왕래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南北으로 왕래하는 가족의 범위는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후 출생한 자손으로 하며, 친척의 범위는 傍系 8寸, 처가 및 외가로는 4寸으로 한다.
2. 南北으로 왕래하는 家族들과 親戚들의 왕래목적은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생사와 주소확인, 방문 및 상봉등으로 하며, 기타의 목적으로 당사자들이 자유왕래를 희망할 경우에는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에서 협의 결정한다.

3. 南北으로 왕래하는 家族들과 親戚들은 자기측 赤十字가 발급한 南北 往來證明書를 지참한다.

同 證明書에는 왕래의 목적, 행선지, 체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4. 南北으로 왕래하는 家族들과 親戚들에 대하여 해당 赤十字는 출발 1개월전에 왕래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왕래목적, 행선지, 체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대측 赤十字에 통지한다.

5. 南北으로 왕래하는 家族들과 親戚들의 행선지는 그들의 고향 또는 헤어질 당시 그들이 살던 곳과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대측 적십자의 협조하에 변경할 수 있다.

6. 南北으로 왕래하는 家族들과 親戚들의 상대측 지역 체류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상대측 赤十字의 협조하에 연장할 수 있다.

7. 南北으로 왕래하는 家族들과 親戚들의 軍事分界線 통과지점은 板門店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더 늘릴 수 있다.

8. 南北으로 왕래하는 家族들과 親戚들에 대한 숙식, 교통, 통신 등 제반편의는 상대측 赤十字가 책임지고 보장한다.

9. 南北으로 왕래한 家族들과 親戚들에게 긴급 구제와 의료상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상대측 赤十字가 무상으로 봉사한다.

10. 南北으로 왕래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에 대한 신변안전문제는 왕래자 전원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쌍방 赤十字의 중개하에 쌍방 당국이 책임지고 이를 보장하도록 한다.

11. 본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상호 합의에 의해 폐기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 및 「南北赤十字 板門店 共同事業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南北赤十字 本會談 의제 5개항의 사업실시에 관한 합의서에 의한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 및 「南北赤十字 板門店 共同事業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設置目的

쌍방은 南北赤十字會談에서 합의한 제반사업을 성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이하 「共同委員會」라 한다)와 「南北赤十字 板門店 共同事業所」(이하 「共同事業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 共同委員會

가. 機能

- ① 南北赤十字會談에서 쌍방이 합의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며,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조정·해결한다.
- ②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재회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이 제기되는 모든 인도적 문제를 협의·결정한다.

나. 構成

共同委員會는 쌍방에서 각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共同委員長은 副總裁(부위원장)급으로 한다.

다. 運營

- ①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板門店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에 따라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할 수 있다.

- ② 共同委員會는 매 3개월마다 定期會議를 가지며, 어느 일방이 요청하면 臨時會議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共同委員會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쌍방이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 있다.
- ④ 共同委員會의 합의사항은 共同事業所에 위임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3. 共同事業所

가. 機能

- ①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기 위한 離散家族찾기 依賴書와 回報書를 교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남북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사이의 書信去來 업무를 수행한다.
- ③ 板門店에서 상봉하기를 희망하는 남북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을 위하여 板門店內에서의 面會業務를 수행한다.
- ④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板門店 통과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⑤ 共同委員會의 운영과 관련한 일반사무를 담당하며, 共同委員會의 합의에 의해 위임되는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한다.

나. 構成

공동사업소는 쌍방에서 각기 赤十字 中央機關의 部長級 所長 1명과 필요한 사무인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사업소의 부서와 그 사무인원의 수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다. 運營

- ① 쌍방은 板門店에 공동사업소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사용한다. 단 공동사업소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暫定的으로 大韓民國 大韓赤十字社는 「평화의 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赤十字會는 「판문

각]에 각기 공동사업소를 설치·운영한다.

- ② 쌍방 공동사업소의 소장은 매주 1회씩 定期的으로 비공개회의를 갖는다.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가질 수 있다.
- ③ 쌍방은 본 합의서 서명, 교환후 1개월 이내에 공동사업소를 동시에 설치·운영한다.
- ④ 공동사업소의 건축문제와 공동사업소에 관한 운영세칙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상호합의에 의해 폐기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그러나 北赤側은, 의제 5개항을 일괄 토의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第9次本會談에서 제시했던 자유왕래에 관한 제안을 일부 補充하여 합의서 형식으로 제시하고 이를 우선 채택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離散家族·親戚들 가운데서 연령상, 신체상, 기타 사정으로 자유왕래를 할 수 없는 대상들에 한해 적용할 이른바 「자유왕래 이외의 기타방도에 관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會談에서의 北赤側 제안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유왕래 관련 합의서(안) 요지〉

1. 자유왕래 원칙

- ① 당사자인 離散家族·親戚들의 인격 최대한 존중
- ② 왕래자의 인도적 활동을 장애하는 일체의 간섭·통제를 금함
- ③ 왕래자의 신변을 구속하는 일을 금지

2. 자유왕래 범위

- ① 가족은 흩어질 당시의 가족과 출생 자녀
- ② 친척은 傍系에서 8寸, 처·외가는 4寸까지
- ③ 그밖에 요구하는 親戚도 포함

3. 자유왕래 절차

- ① 왕래가족·친척들은 자기측 赤十字 단체에 신청
- ② 왕래자는 출발 1개월전 대상자와 행선지 통지
- ③ 왕래자의 행선지는 헤어질 당시 가족·친척들이 살던 곳, 직장소재지, 상봉할 곳 등
- ④ 왕래자의 체류기간은 1개월 정도로 함.

4. 왕래자들의 왕래수단과 통과지점

- ① 왕래자의 교통수단은 희망에 따라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로 함.
- ② 왕래자의 통과지점은 육로는 板門店과 鐵原, 해상으로는 元山港과 釜山港, 南浦港과 仁川港, 航路로는 順安飛行場과 金浦飛行場으로함.

5. 왕래자의 편의보장

- ① 숙식, 교통, 통신 등 편의는 상대측 赤十字 단체가 보장
- ② 긴급구제, 의료상 幫助 필요시는 상대측 赤十字 단체가 무상봉사
- ③ 구체적 문제는 별도 토의

6. 왕래자의 신변안전 보장

- ① 신변안전보장은 赤十字 단체의 중개하에 쌍방당국이 대책수립
- ② 신변안전보장과 관련한 구체적 토의는 별도로 함.

〈자유왕래 이외의 기타 방도들에 대한 제안요지〉

1. 자유왕래할 수 없는 家族·親戚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방도

- ①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親戚들은 자기측 赤十字 단체에 의뢰
- ②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親戚들은 자기가 신뢰하는 대리인을 상대

측 지역에 보내 주소와 생사확인

- ③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親戚들은 상대측 단체·개별인사들에게 의뢰하여 주소와 생사확인
2. 자유왕래할 수 없는 家族·親戚들의 상봉 실현방도
 - ① 상봉은 板門店과 鐵原 그밖의 당사자들이 원하는 장소
 - ② 상봉 편의를 위해 板門店, 鐵原 그밖의 상봉장소에 공동사업소 설치
3. 자유왕래할 수 없는 家族·親戚들의 서신거래 실현방도
 - ① 편지, 엽서 등 우편물 교환
 - ② 전화, 전보등 통신수단 이용
 - ③ 우편물 교환절차, 전화, 전보 절차는 따로 토의
4. 자유왕래할 수 없는 家族·親戚들의 재결합 실현방도
 - ① 당사자의 편지거래 통해 재결합 실현
 - ② 당사자는 자기의 親戚과 信賴하는 중개자를 내세워 재결합 실현
 - ③ 당사자들은 쌍방 赤十字 단체에 의뢰, 재결합 실현
5. 기타 人道的으로 해결할 문제의 실현방도
 - ① 당사자는 信賴하는 대리인을 통해 遺品처리 및 遺骨이전
 - ② 당사자들은 쌍방 적십자 단체에 의뢰, 유품처리 및 遺骨이전
 - ③ 친우소식을 알아내고 알리며, 자유로운 방문과 상봉 및 서신거래의 실현방법은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경우와 같이 함.
 - ④ 이외 쌍방합의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는 더 토론할 수 있음.

第2日 會議에서 쌍방은 補充發言을 교환하고 토의를 진행시켰으나 異見을 좁히지 못하였다.

韓赤 李榮德 首席代表는 첫發言을 통해 쌍방이 第8次 본회담에서 합의한 「의제의 일괄토의」 및 「자유왕래」 원칙을 준수하고 의제 5개항을 조속

히 타결하기 위해 北韓側도 종합적인 합의서안을 내놓을 것을 거듭 促求하였으며, 離散家族들을 자유왕래와 비자유왕래로 구분한 사업추진 방도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 尊重原則에 위배되는 것임을 지적하는 등 다음과 같이 北韓側 제안의 불합리성을 論駁하였다.

『먼저 귀측의 이 새 제안은 귀측이 말하고 있는 자유왕래자들과 자유왕래를 할 수 없는 일부 대상자들에 한하여 적용하는 의제 5개항의 사업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과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귀측의 자유왕래에 관한 합의서 초안에서는 의제 제 3 항을 푸는 방법에서 자유왕래자들을 통하여 상대측 지역에 있는 자기의 家族·親戚들에게 구두 혹은 서면으로 소식을 전한다고 하고 있는데 반하여 소위 기타방도들에 대한 제안에서는 자유왕래를 할 수 없는 일부 대상자들에 한하여서만 편지·엽서등의 우편물 교환과 전화, 전보등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자유왕래를 할 수 없는 일부 대상자들에게만 南北間의 우편물 교환과 통신수단 이용이 허용되고 자유왕래자들에게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 같은 오해를 사게 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귀측 提案을 글자 그대로 읽어 본다면, 자유왕래자들에게는 서신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자유왕래를 할 수 없는 일부 대상자들에게만 그것이 허용되는 것 같은 誤解와 混亂을 초래할 우려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誤解와 混亂은 南北離散家族찾기 사업의 대상자를 귀측이 굳이 자유왕래자들과 자유왕래를 할 수 없는 일부 대상자들로 구차스럽게 구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는 미리 예방하고 빨리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나는 離散家族들의 종류를 구대여 자유왕래자 또는 비자유왕래자와 같은 형태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구별해야 하는 것은 자유왕래 또는 문서교환과 같은 사업 방법이며, 離散家族들은 누구든간에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기마음대로 이 사업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原則과 精神에 따라 내놓은 것이 바로 의제 5개항의 해결을 기본합의서로 하는 大韓赤十字社 대표단의 제안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귀측의 자유왕래에 관한 합의서 草案과 기타 방도들에 대한 提案에는 의제 5개항에 대한 해결방안들이 각각 平行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왕래에 관한 의제 5개항의 해결방안이 따로 있는가 하면 기타 방도에 대한 의제 5개항의 해결방안이 또 따로 있어 本末이 전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측도 잘 아는 바와 같이 南北赤十字 本會談이 해결해야 할 기본사명은 어디까지나 의제 5개항의 해결에 있으며, 따라서 의제 5개항의 해결이 합의서의 主가 되어야 하고 그 방도나 절차는 마땅히 從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순서인 것입니다.

예를들면 의제 제 1항문제의 해결에 있어 귀측은 자유왕래자는 직접 상대측 지역에 가지 않으면 주소와 생사를 알아낼 수가 없고 赤十字 단체들에 의뢰하는 방법은 비자유왕래자가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제 제 2 항 상봉문제에 있어서도 비자유왕래자에 대해서는 板門店이나 鐵原같은 일정장소에서 상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자유왕래자에 대해서는 임의의 지역에서 상봉하는 것으로 하여 차별을 두고 있고 또 사실상 방문문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모순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3 항 서신거래 문제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자유왕래자와 비자유왕래자에게 본인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차별을 두고 있고 제 4 항 재결합문제에서도 자유왕래자들이 적십자기관을 이용하거나 서신거래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여 「직접 상대측 지역」에 가지 않는 한 재결합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귀측 제안은 또한 遺骨이나 遺品을 처리하는 제 5 항 기타 인도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자유왕래자들이 직접 상대측 지역에 가지 않는 한 적십자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측이 자유왕래에만 편중된 나머지 기타 방도들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동시에 의제 5개항의 해결을 從으로 본 본말전도의 생각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南北赤十字 本會談의 기본사명은 어디까지나 의제 5개항을 해결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기본사명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자유왕래나 다른 방도들은 마땅히 의제 5개항을 해결하는 각각의 방법들로 그 밑에 종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측은 기타 방도에 관한 제안 가운데서 「방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친우」라는 새 사업대상을 갑자기 제기했습니다.

「친우」문제는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며 귀측도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70년대 예비회담 과정에서 귀측

에 의해 제기되었다가 이미 의제토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제안내용에도 걸맞지 않고 또 쌍방 합의하에 토의대상에서 이미 제외키로 한 「친우」문제를 새삼스럽게 다시 제기한데 대해서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³⁹⁾

그러나 北赤側은 「자유왕래」 및 「자유왕래이외의 기타 방도」들에 대한 그들 제안의 정당성과 합리성만을 강조함으로써 회담의 진전을 끝내 외면하였으며, 1986年 舊正을 기해 제 2의 고향방문단을 교환할 것과 1985年 9월에 상봉한 離散家族들간의 서신교환을 촉구한 韓赤의 제의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하였다.

쌍방은 제 11차 本會談을 1986年 2월 26일 平壤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北韓側이 1986年 「팀·스피리트」 韓美合同訓練을 구실로 삼아 대화를 中斷시킴으로써 南北赤十字會談은 1988年말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마.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의 交換訪問

(1) 實務代表 接觸

제 8차 南北赤十字 본회담에서 합의한 「南北離散家族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실현문제를 합의하기 위해 쌍방 赤十字 代表團은 제 8차 본회담이 끝난 직후 1985年 5월 29일과 5월 30일 두차례의 실무접촉을 가졌다.

각기 2명씩의 대표가 參席, 비공개리에 진행된 동 접촉에서 쌍방은 1985年 8월 15일을 기해 「南北離散家族 고향방문 및 藝術公演團」의 교환방문

을 실시하는데 합의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문제를 協議하기 위한 實務代表 接觸을 1985년 7월 15일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合意하였다.

〈實務接觸 合意事項〉

1. 쌍방은 금년 8월 15일 광복절 40주년을 前後해서 「離散家族 故鄉訪問團과 藝術公演團의 교환방문」을 推進하기로 合意하고, 그 왕래절차, 방문단 규모, 체재일정 등 구체적인 문제를 協議하기 위하여 오는 7월 15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쌍방 實務代表들의 接觸을 갖기로 한다.
2. 實務代表 接觸에서 쌍방의 대표 각 3명과 수행원 각 3명이 참가하기로 한다.
3. 동 實務接觸에서는 제 10 차 南北赤十字 本會談 일자를 함께 協議하기로 하였다.
4. 쌍방 實務代表 接觸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가) 제 1 차 實務代表 接觸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교환방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법과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南北赤十字간의 제 1 차 실무대표 접촉은 1985년 7월 15일 오전 10시 판문점 中立國 監督委員會 회의실에서 비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접촉에는 韓赤側에서 宋榮大 대표를 비롯하여 李峻熙 대표와 李柄雄 대표가 참석하였고, 北赤側에서는 박영수, 김완수, 박동춘등 각기 3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이날 접촉에서 韓赤側은 「南北離散家族 고향방문 및 藝術公演團」의 교환방문이 빠른 시일안에 實現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具體的 방안을 제시하였다.

〈基本問題 關聯事項〉

1. 訪問團의 名稱

방문단의 명칭은 「南北離散家族 고향방문 및 藝術公演團」으로 한다.

2. 訪問團의 構成 및 規模

- ① 방문단은 쌍방 적십자사 中央機關 責任者 (大韓赤十字社 總裁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赤十字會 중앙위원회 위원장)를 단장으로 하여 離散家族 고향방문단, 藝術公演團, 취재기자 그리고 인솔 및 지원인원으로 構成한다.
- ② 故鄉訪問團의 규모는 300명으로 하며 藝術公演團은 제작진과 출연진(합창, 무용, 연기, 연주 등)을 포함하여 100명으로 한다.
- ③ 취재기자의 수는 100명 규모로 한다.
- ④ 인솔 및 支援人員은 인솔단장을 포함하여 50~60명으로 한다.

3. 訪問團 交換方法

방문은 동시 교환방문 방식으로 한다.

4. 訪問時期

교환방문 시기는 1985년 9월 20일 ~ 9월 26일(6박 7일)로 한다.

5. 訪問地 및 訪問方法

고향방문 인원은 방문지에 따라 특별시·직할시 및 각 도별로 방문단을 編成하고 특별시·직할시 및 각 道廳所在地에서 적정수의 방문조로 나누어 자기 故鄉을 직접 방문토록 하며, 수행기자도 동행·취재케 한다.

6. 相逢의 範圍

直系 존·비속은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 이후에 출생한 가족을 포함하고, 친척의 경우 방계는 8촌, 처·외가는 4촌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生死·所在가 확인된 친척도 포함한다.

7. 藝術公演團의 公演場所 및 公演回數

- ① 공연장소는 상호 편리한 장소를 제공하도록 한다.
- ② 공연회수는 1일 1회로 하며, 총 2~3회로 한다.

8. 公演內容

- ① 이념 및 政治性向의 요소를 배제하고 民族傳統 중심의 예술을 내용으로 한다.
- ② 특정인의 찬양, 정치선전, 대중선동의 성향이 있는 장치, 소품, 도구, 음악 등은 배제한다.
- ③ 공연시 사회자의 설명은 하지 않기로 한다.

9. 公演臺本 交換 및 公演場 事前 點檢

- ① 공연대본은 방문 8일전에 교환하도록 한다.
- ② 연출상의 구성문제, 장치전환문제, 음향·조명·효과문제 등 공연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연출가, 무대감독, 무대장치·조명·음향 기술자 등 공연기술 인원이 공연장을 사전답사하도록 한다.

10. 公演時間

국제관례에 따라 120분 정도로 한다.

〈行政 및 節次問題 關聯事項〉

1. 身邊安全保障

방문 8일전에 신변안전보장 각서를 상대측에 수교하고 방문 7일전에 관계당국의 신변안전 보장성명을 발표한다.

2. 輸送 및 通信

- ① 방문단의 인원, 장비 및 기타 필요한 물품의 서울·平壤간 수송은 방문하는 측이 자기측의 차편(장비, 인원포함)을 이용하도록 한다.
- ② 赤十字 總裁 및 그 수행원, 지원인원의 업무연락 및 고향방문단의 고향방문에 필요한 차편은 초청측에서 제공한다.
- ③ 방문기간중 서울·平壤간 행낭을 1일 2회 운영한다.
- ④ 방문기간중 업무연락 및 취재기자 송고용으로 현재 가설되어 있는 南北直通電話 20회선을 이용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合意에 따라 增設한다.
- ⑤ 고향방문단의 지방체류 및 이동시에는 방문측 인원들이 자기측의 連絡本部와 통신연락이 가능하도록 초청측은 통신망 구성을 보장한다.

3. 記者의 取材活動

초청측은 방문측 기자들의 離散家族 상봉 현장에 대한 취재활동을 보장하고 취재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4. 通過場所와 通過節次

- ①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한다.
- ② 통과절차는 인원의 경우 자기측 차편에 승차한 상태에서 초청측이

확인하도록 하며, 장비 및 소지품을 제외한 물품의 경우는 별도로 확인하도록 한다.

5. 訪問者 名單 通報時期

- ① 故鄉訪問團의 명단은 방문 15~20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② 예술공연단, 취재기자 및 지원인원의 명단은 방문 8일전(신변안전 보장 각서 전달시)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6. 故鄉訪問者 名單作成 樣式

- ① 고향방문자 명단의 방문자 난에는 방문자의 姓名, 性別, 고향, 방문대상자와의 관계, 방문대상지를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 ② 고향방문자 명단의 방문대상자 난에는 방문대상자의 姓名, 性別, 연령, 고향, 헤어진 때를 기재하고 기타 가족찾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첨부한다.

7. 藝術公演團, 取材記者團, 支援人員 名單作成 樣式

고향방문자 이외의 방문단 구성인원 명단에는 성명, 성별, 연령, 참가구분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8. 訪問者의 標識

- ① 고향방문단, 예술공연단, 지원인원은 赤十字휘장에 자기측을 표시하는 내용의 標識를 附着한다.
- ② 기자는 방문단 표지외에 기자완장을 착용하며 기타 사항은 남북적십자 회담의 관례를 준용한다.

9. 所持品

- ① 개인은 의류, 화장품 등 일용품 및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녹음기, 라디오, 간단한 의약품, 취재에 필요한 필기구류 등을 소지할 수 있다.
- ② 사무용 물품은 공연의상, 약품, 소도구, 음악기기, 특수조명기구, 무대장치 등 공연에 필요한 用品과 취재기자용 物品 및 기록용품, 기타 필요한 行政用品 등으로 한다.

10. 訪問者의 活動 및 所持品 휴대상의 준수사항

- ① 사상·체제 및 특정인의 宣傳·讚揚 또는 비방을 하지 않으며 관련자료 및 危險物質의 휴대를 禁止한다.
- ② 訪問團員이 휴대한 물품에 대하여는 검문, 검색, 압수를 할 수 없다.
- ③ 위의 ①항에 위배되는 행위 및 물품에 대하여는 인수 책임자에게 通報하여 조치토록 한다.
- ④ 방문자는 자기측 赤十字社 總裁(위원장)가 발행하는 신분확인 증명서를 소지한다.

11. 滯留日程

- ① 방문 8일전에 체류일정표를 상대측에 수교하고 일정을 협의, 결정한다.
- ② 訪問團 인수책임자의 상대측 적십자 事業機關 방문, 기타 행사, 축제 및 관광지 참관은 체류일정 협의시 결정한다.
- ③ 藝術公演團의 공연활동 이외의 觀光, 축제, 행사참관 등도 체류일정 협의시 결정하며 첫 공연 이후에 實施되도록 한다.

12. 宿 所

- ① 방문단 일행은 같은 숙소에서 숙식하도록 한다.
- ② 숙소내에 방문단의 연락 및 지원업무용 사무실 제공을 保障하도록 한다.
- ③ 숙소내에 취재기자의 기사작성 및 송고용 기자실(사진현상·인화실 포함)제공을 保障하도록 한다.

13. 其 他

- ① 방문단이 상대측 지역을 방문중에는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도록 한다.
- ② 초청측은 공연개막전 방문측이 공연무대에서 사전연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便宜를 제공한다.
- ③ 공연무대장치의 보조인원 및 일반 조명기구 제공 등 기타 공연에 관련되는 문제는 초청측에서 便宜를 제공한다.
- ④ 공연 프로그램은 공연하는 측이 제작 휴대하여 배포하도록 한다.

한편 北赤側은 제 8 차회담의 합의사항과 직접 고향을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이산가족들의 염원과는 배치되게, 방문지를 서울과 평양으로만 국한시킬 것을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藝術公演團의 규모를 故鄉訪問團과 동수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예술단 규모를 100명으로 하자고 제안했던 제 8 차 本會談시의 주장과는 달리 이를 300명으로 늘릴 것을 主張하였다.

특히 藝術公演團의 공연문제와 관련하여 北赤은, 韓赤側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특정인을 찬양하는 정치적 요소를 배제할 것을 주장한데 반해, 공연내용을 통제하지 말 것과 실황중계, 선전 게시물 및 포스터의 설치 등을 주장했다.

다만 訪問團 교환시기와 관련하여 쌍방은 예술공연을 위한 사전답사의 필요성을 공히 인정함으로써 3월중에 방문단을 교환하자던 종래의 입장에

서 9월중에 실시하기로 원칙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날 접촉에서 가장 큰 견해차이를 보인 방문지 및 방문단 규모와 관련하여 南北 쌍방은, 방문지 문제는 北赤側이 더 研究·檢討하기로 하였으며, 방문단 규모에 대해서는 韓赤側이 검토하여 제 2차 접촉에서 계속 協議하기로 하였다.

이날 접촉에서 北赤의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北赤提 案 內 容〉

1. 방문단의 명칭과 구성, 체류기간, 교환시기 및 방법문제

- ① 訪問團의 명칭 : 赤十字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 ② 訪問團의 구성 : 총 700명
 - 고향방문단 300명, 예술단 300명, 기자 및 실무일꾼 각기 50명
- ③ 訪問團의 상대측 지역 체류기간 : 3박 4일
- ④ 訪問團의 교환시기 : 韓赤側의 9월 제의에 동의

2. 예술단 교환문제

- ① 공연내용과 시간 : 각기 편리한 내용으로 하며, 2시간 이내
- ② 공연회수 : 3~4회
- ③ 공연내용 소개 :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각기 실황중계를 하며 공연소개 포스터 부착

3. 고향방문단 문제

- ① 대상자 : 南과 北에 고향을 둔 당사자
- ② 평양과 서울에서 가족·친척들과 相逢

4. 편의 및 안전보장문제

- ① 相對側지역에 체류하는 기간, 숙식을 비롯한 일체의 편의는 招請者側이 무료로 보장
- ② 각기 關係當局에서 신변안전과 관련 안전보장성명을 발표하며, 그 문본을 방문 3일전에 교환
- ③ 방문단의 相對側 지역 체류기간의 구체적 일정은 쌍방이 사전에 합의한데 따라 招請側의 안내에 따름.

(나) 제 2 차 實務代表 接觸

7월 19일에 열린 제 2 차 實務代表 접촉에서 北赤側은 회담벽두부터 제 1 차 접촉에서 그들이 내놓은 제안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반면 韓赤側 제안은 공정성을 결여한 제안이라고 강변하면서 방문지를 제 1 차 접촉에서 그들이 주장했던 대로 서울과 平壤으로 국한하자고 주장하였다.

北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韓赤側은 제 1 차 접촉에서, 방문지 문제는 北側에서 검토하고 방문단의 규모에 대해서는 韓赤側이 검토하기로 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고향방문단이 직접 그들의 고향을 방문할 수 있게만 된다면 고향방문단과 藝術公演團의 규모는 별 문제없이 타결될 수 있다고 신축성 있는 立場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赤側은 방문지를 서울과 平壤으로 하기로 한 것은 제 8 차 本會談에서 쌍방간이 이미 합의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따라서 방문단이 직접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는 韓赤側의 주장은 실무접촉에 난관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되풀이 주장하였다.

이에 韓赤側은 방문지를 서울과 平壤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제 8 차 本會談에서 합의한 「故鄉訪問團」이라는 말속에는 직접 고향을 가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방문지 문제를 비롯한 제반문제

를 하나 하나 토의·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韓赤側이 쌍방간의 타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접촉이 끝난 30분후에 쌍방 대표 1명씩이 별도로 만나 좀 더 협의할 것을 提議한데 대해 北赤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쌍방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른 상태에서는 더 만나 보아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차기 접촉일자의 합의마저 거부하고 韓赤이 北側제안에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직통전화로 연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제 3 차 實務代表 接觸

제 3 차 실무대표 접촉은 쌍방 적십자 실무자간의 두차례(8월 17일 및 8월 19일 : 板門店)에 걸친 비공식 접촉에서의 합의에 따라 1985년 8월 22일 상오 10시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회의실에서 비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는 비공식접촉에서 실무자간에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쌍방이 각기 미리 작성해 온 합의서(안)들을 놓고 문안조정 형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큰 쟁점없이 「南北離散家族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법과 절차문제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보았다.

쌍방은 동 사업을 1985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에 걸쳐 동시 교환방문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규모는 적십자 중앙기관 책임자를 단장으로 하여 고향방문단 50명, 예술공연단 50명, 취재기자 30명 및 지원인원 20명 등 총 151명으로 하고, 방문지는 서울과 平壤으로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南北離散家族 고향방문 및 藝術公演團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

1985년 8월 22일 개최된 제 8 차 南北赤十字 本會談의 제 3 차 실무접촉에서 쌍방은 조국광복 40주년을 계기로 離散家族 고향방문 및 藝術公演團의 교환방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1. 방문단의 명칭

방문단의 명칭은 각기 편리한대로 부르되, 大韓赤十字社側은 「南北 離散家族 고향방문 및 藝術公演團」으로 한다.

2. 방문단의 구성 및 규모

① 방문단은 쌍방 赤十字社 중앙기관 책임자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를 단장으로 하여 離散家族 고향방문단, 예술공연단, 취재기자 그리고 지원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방문단의 규모는 赤十字社 중앙기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각기 총 151명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은 서울과 平壤을 고향으로 한 인원을 위주로 하여 50명으로 한다.
- 예술공연단 (제작진과 출연진)은 50명으로 한다.
- 취재기자는 30명으로 한다.
- 지원인원은 20명으로 한다.

3. 방문단 교환방법

방문은 동시 교환방문 방식으로 한다.

4. 방문시기

교환방문 시기는 9월 20일 ~ 9월 23일 (3박 4일)로 한다.

5. 방문지

서울과 平壤으로 한다.

6. 상봉의 조정과 범위

- ① 쌍방은 離散家族 고향방문단 인원들에 대해 적십자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가족과 친척을 찾아서 상봉시켜 주는 편의를 제공한다.
- ② 상봉의 범위에 있어, 직계 존·비속은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 이후에 출생한 가족을 포함하고, 친척의 경우 방계는 8寸, 처·외가는 4寸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생사·소재가 확인된 친척도 포함한다.

7. 藝術公演團의 공연장소 및 공연회수

- ① 공연장소는 초청측이 성의를 가지고 제공하는 시설이 완비된 극장으로 한다.
- ② 공연회수는 총 2회로 한다.

8. 공연내용

- ① 공연은 민족전통 가무를 중심으로 하며, 상대방을 비방·중상, 자극하지 않는 내용으로 한다.
- ② 공연시 사회자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상대측을 비방·자극하지 않는 원칙하에 공연 종목만을 소개할 수 있다.

9. 공연 프로그램 교환 및 공연장 사전 답사

- ① 공연프로그램은 방문 3일전에 相對側에 通보하도록 한다.
- ② 연출상의 구성문제, 장치전환문제, 음향·조명·효과문제 등 공연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적십자 인원 2명과 공연 기술 인원 3명이 1985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공연장을 사전답사토록 한다.

10. 공연시간

120분 정도로 한다.

11. 신변안전보장

방문 7일전에 관계당국의 신변안전보장 성명을 발표하고 그 문본을 상대측에 수교한다.

12. 수송 및 통신

- ① 판문점을 넘어 자기측에 들어오는 방문단의 인원, 장비 및 기타 필요한 물품의 수송에 대해서는 초청측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한다.
- ② 방문기간중 서울·平壤간 행낭을 1일 2회 운용한다.
- ③ 방문기간중 업무연락 및 취재기자 송고용으로 현재 가설되어 있는 南北直通電話 20회선을 이용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합의에 따라 증설한다.

13. 기자의 취재활동

초청측은 방문측 기자들의 離散家族 상봉 현장에 대한 취재활동을 보장하고 취재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14. 통과장소와 통과절차

통과지점은 板門店으로 하고 통과절차는 南北赤十字會談의 관례에 따른다.

15. 방문자 명단 통보시기

- ① 고향방문단의 명단은 방문 10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② 예술공연단, 취재기자 및 지원인원의 명단은 방문 3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16. 고향방문자 명단 작성 양식

- ① 고향방문단 명단의 방문자란에는 방문자의 성명, 성별, 연령, 고향, 방문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 ② 고향방문자 명단의 방문대상자란에는 방문대상자의 성명, 성별, 연령, 고향, 헤어질 때를 기재하고 기타 가족찾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첨부한다.

17. 예술공연단, 취재기자단, 지원인원 명단작성 양식

고향방문자 이외의 방문단 구성인원 명단에는 성명, 성별, 직위, 참가구분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18. 방문자의 표지 및 증명서 소지

- ① 고향방문단, 예술공연단, 지원인원은 赤十字 휘장에 자기측을 표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한다.
- ② 기자는 방문단 표지외에 기자완장을 착용하며, 기타 사항은 南北赤十字會談의 관례를 준용한다.
- ③ 방문자는 자기측 赤十字社 총재(위원장)가 발행하는 신분확인 증명서를 소지한다.

19. 체류일정

방문 7일전에 체류일정표를 상대측에 수교하고 일정을 협의·결정한다.

20. 기 타

- ① 방문단이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중에는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도록 한다.
- ② 숙식, 통신 등 방문단 인원들에 대한 편의는 초청측에서 제공한다.
- ③ 초청측은 공연개막전 방문측이 공연무대에서 사전 연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 ④ 공연무대장치의 보조인원 및 일반조명기구 제공 등 기타 공연에 관련되는 문제는 초청측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 ⑤ 공연프로그램은 공연하는 측이 제작 휴대하여 배포하도록 한다.

「南北離散家族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이 1985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로 합의됨에 따라 쌍방 赤十字社는 4차례(9월 8일, 9월 10일, 9월 17일 및 9월 19일)에 걸쳐 사전연락관 접촉을 갖고 교환방문 추진에 따른 제반 실무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각기 151명의 방문단 명단과 고향방문단이 상봉을 희망하는 家族·親戚들의 명단을 함께 교환하였다.

이와함께 쌍방 정부당국은 각기 相對側 방문단 151명이 南北을 왕래하고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신변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9월 13일 그 성명문본을 상호 교환하였다.

한편 예술공연단 교환공연과 관련해서도, 쌍방은 실무접촉에서의 합의에 따라 5명의 사전답사반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각각 상대방 지역에

파견하여 공연장을 사전 답사·점검하는 등 세심한 사전준비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사전접촉과 협의를 거쳐 南北間에는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離散家族의 고향방문과 이에 따른 家族·親戚 상봉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2) 「南北離散家族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실현

1985년 9월 20일 오전 9시 30분을 기해 「南北離散家族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동시 교환방문이 실현됨으로써, 南北間에는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민간차원의 인적교류라는 귀중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쌍방 赤十字社 총재 인솔하에 板門店을 경유, 서울과 平壤에 도착한 이들 일행 151명은 곧바로 3박 4일간의 방문일정에 들어갔다.

동 교환방문을 통해 서울과 平壤에서는 분단 40년이라는 오랜세월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총 100명의 방문단중 65명이 92명의 家族·親戚들과 극적으로 상봉, 재회의 감격을 나누었다.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이루어진 상봉에서, 平壤을 방문한 韓赤側 방문단 중에서는 35명이 41명의 家族·親戚들과 상봉하였으며, 北側은 30명이 51명과 상봉하였다.

한편 예술공연단도 9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서울예술단은 平壤대극장에서, 그리고 平壤예술단은 국립극장에서 각기 공연을 가졌다.

오랜 단절과 불신속에서 어렵게 이루어진 교환공연이란 점을 고려해야 하겠으나 서울 藝術團의 공연내용중 민속무용부분은 北側 관중으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은 반면, 平壤예술단의 국립극장 공연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군대식 집단체조를 연상케 하며 중국과 소련풍을 많이 모방하고 있어 민족 고유예술과는 거리감을 느꼈다는 것이 이를 관람한 대다수 관중들의 반응이었다.

韓赤이 光復 40주년을 맞아 離散家族찾기 사업의 촉진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제의한 「離散家族 고향방문단」 사업은 1985년 9월 23일 정오 쌍방 代表團 각 151명이 板門店을 통해 자기측 지역에 전원 무사히 귀환함으로써 3박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마쳤다.

同 離散家族 고향방문사업은 비록 방문지역과 방문단 규모가 제한되고 또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離散家族이 직접 南北을 왕래하면서 家族·親戚들과 만날수 있는 선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으며, 1970년대 南北대화가 시작된 이래 대화로 이룩된 최초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대화를 통한 南北 韓 문제의 해결전망을 밝게 해준 획기적 이정표라고 하겠다.

바. 南北經濟會談

(1) 會談의 成立

水災物資 인도·인수를 계기로 南北間에 교류·협력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申秉鉉 副總理兼 經濟企劃院長官은 1984년 10월 12일 北韓 政務院 副總理 최영림 앞으로 서한을 보내 『정부의 차관급을 首席代表로 하여 南北韓 經濟當局 및 民間經濟團體 대표들이 참가하는 南北經濟會談을 개최』하여 南北間 物資交易과 經濟協力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申秉鉉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우리 政府는 귀측에 대하여 南北韓 교역과 經濟協力を 조속히 실시할 것을 제의하고 이를 통해 南北韓의 관계개선과 共同繁榮을 추구해 나갈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측의 이같은 조치는 근 40년동안 서로 담을 쌓고 살아온 南北韓 동포들 사이에 經濟分野에서 상부상조하는 길을 트고 이를 계기로 온 겨레가 염원하는 祖國統一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보자는데 그 참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南北韓의 物資交易와 經濟協력이 실현될 수만 있다면 이는 당장 南北韓 동포들의 생활에 직접 보탬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장차 모든 분야에서 南北韓의 均衡發展과 공동번영, 그리고 民族和음을 이룩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날마다 치열해지고 있는 國際的 경제경쟁 속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權益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南北韓이 더 이상 반목과 대결로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지 말고 이념과 제도를 超越하여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최근 우리 정부가 제의한 南北韓간의 物資交易와 經濟協력이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근에 와서 귀측이 외부와의 經濟協력을 위한 새로운 制度的 조치를 모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같은 조치가 앞으로 南北韓의 經濟交流와 협력의 길을 열어 놓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측 經濟人과 企業들이 南北韓 교역과 경제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南北韓 당국의 經濟分野 대표들과 民間經濟團體 대표들이 虛心坦懷하게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南北韓間的 교역과 經濟協력을 추진하는 상설기구로서 쌍방 당국과 경제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南北韓 經濟協力機構를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정부의 차관급을 首席代表로 하여 南北韓 경제당국 및 民間經濟團體 대표들이 함께 참가하는 南北經濟會談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南北韓間的 이러한 會談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그 개최일시와 장소의 결정을 귀측에 일임하는 바입니다.

귀하의 肯定的인 회답을 기대합니다.』³⁴⁾

또한 全國經濟人聯合會, 韓國貿易協會,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및 大韓商工會議所 등 경제 4단체도 10월 13일, 申秉鉉 副總理의 南北經濟會談

제의를 지지하여 北韓側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하는 「經濟 4團體長 合同 聲明」을 발표하고, 南北間에 교역 및 합작투자가 가능한 분야까지 具體的으로 제시하면서 이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闡明하였다.³⁵⁾

한편 北韓側은 10월 16일 政務院 副總理 김환 명의로 大韓民國側에 보내온 답신에서, 南北經濟會談 개최제외에 호응하여 제 1 차 會談을 1984年 11月 15日 板門店에서 개최할 것과 代表團은 政府次官級을 首席代表로 하는 5명의 대표로 구성할 것 등을 알려 왔다.

이에 대해 大韓民國 政府는 11月 2日, 재차 申秉鉉 副總理 명의로 電話 通知文을 北韓側에 보내고, 北韓側이 南北經濟會談 제외에 호응해 온 것을 환영하면서 南北間에 교역과 經濟協力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표단에 政府當局 대표와 함께 여러 분야의 經濟團體 대표가 참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대표단을 각기 7명으로 구성하자고 수정 제의하였다. 大韓民國側의 이러한 수정제외에 北韓側이 동의해 옴으로써 第 1 次 會談이 1984年 11月 15日 板門店 중립국 감독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게 되었다.

11月 12日과 13일 直通電話를 통해 쌍방에 각기 통보한 南北經濟會談 대표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大韓民國側 代表團〉

- 首席代表 : 金 基 桓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 代 表 : 車 相 弼 (상공부 제 2 차관보)
- 代 表 : 具 本 泰 (국토통일원 연구부장)
- 代 表 : 金 仁 俊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 代 表 : 申 奉 植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
 代 表 : 盧 鎭 植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代 表 : 林 秉 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임이사)

〈北 韓 側 代 表 團〉

- 團 長 : 리 성 록 (무역부 부부장)
 代 表 : 계 형 명 (채취공업위원회 참사)
 代 表 : 백 준 혁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무위원)
 代 表 : 허 항 찬 (조선대외경제협조 총회사 부사장)
 代 表 : 리 진 식 (금속공업부 국장)
 代 表 : 손 중 철 (무역경제연구소 부소장)
 代 表 : 김 해 룡 (조선광명연합회사 부사장)

(2) 第 1 次 會 談

第 1 次 南北經濟會談은 1984年 11月 15日 오전 10시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회의실에서 열려 南北間의 교역과 경제협력 실시문제를 협의하였다.

經濟會談으로서는 분단이후 처음 열린 이날 會談에서 쌍방은 會談의 운영절차와 일부 交易品目에서 사실상 합의를 보았을 뿐 아니라 의제에도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여 南北經濟交流와 협력의 실현에 대한 내외의 기대와 전망을 밝게 해 주었다.

한국측 金基桓 首席代表는 이날 會談의 첫발언을 통해 『南北經濟會談이 잘 진행되어 南北間에 교역과 經濟協力이 실현될 수만 있다면, 이는 南과 北의 동포들의 생활에 직접 보탬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신뢰조성 그리고 民族和合을 도모하는 데에도 적지않게 기여』 하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쌍방이 이를 위해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金基桓 首席代表는 會談의 의제로, ① 南北간에 교역을 실시하는 문제, ② 南北간에 經濟協力を 실시하는 문제 등 2개항을 제시하고, 우선 의제 제 1 항 物資交易실시와 관련하여 交易品目, 交易量, 去來方式, 결제 통화 등 10개항의 구체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南北關係 當局간에 交易協定과 세부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첫째, 交易品目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며 쌍방이 원하는 품목 중에서 거래가 비교적 용이한 것부터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귀족으로부터 무연탄, 철광석, 선철, 연피, 아연피, 규사, 고철등과 명태, 누에고치, 쌀, 옥수수, 피마자 등 농수산물 그리고 기타 한약재 등을 구입하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우리측이 생산하는 鐵鋼 및 그 제품, 銅 및 그 제품, 알루미늄제품등과 가정용품 및 공업용 봉제기, 경운기, 승용차, 2륜자동차 등 기계류, 시계,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 음향기기등 전기, 전자제품, 섬유사, 섬유원료, 섬유직물, 담요 등 섬유류 그리고 그밖에 고무벨트, 피아노, 황산가리, 정제 글리세린과 의약품등을 귀측에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교역량은 쌍방의 대내수급사정과 對外貿易 규모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가격은 原則的으로 客觀的 國際價格을 기준으로 하되, 교역당사자간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째, 거래당사자, 즉 交易의 主體는 쌍방당국이 지정하는 특정 交역기관 또는 商社로 하되 처음에는 가급적 거래창구를 일원화하였다가 점차 多元化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섯째, 거래방식은 제 3 국은행이 발행하는 L/C에 의한 거래가 가장 合理的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交易을 추진하기 위하여 초기단계에는 尙상무역형태도 무방할 것이며, 交역이 확대될 경우에는 清算協定方式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결제업무의 취급은 제 3 국은행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의 진전에 따라 양측의 외국환은행을 창구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결제통화는 우선 南北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國際交換性通貨 (US\$, DM, ¥, £ 등) 중에서 선정하여 사용하다가 장차 南北間에 결제에만 통용되는 새로운 결제단위를 창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덟째, 南北間 교역은 외국과의 무역이 아니므로 關稅를 부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홉째, 輸送문제는 大量貨物의 경우 原則的으로 구입측 船舶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철도수송이 가능하도록 南北間에 鐵道를 연결하는 작업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소량의 화물은 자동차를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板門店에 共同荷役場을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열째, 이밖에도 南北間 物資交易에 수반되는 通關, 檢査, 通信問題와 사고 처리 및 이견조정문제등 구체적 사항은 쌍방간의 협의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측은 南北間에 物資交易을 추진하면서 無煙炭, 鐵鑛石 등 資源開發,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 音響器機 등 家電製品 생산, 폴리에스텔사 등 纖維類 생산, 醫藥品 및 化粧品 생산, 그리고 觀光 및 해운사업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合作投資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상과 같은 南北間의 교역 및 經濟協力을 원활하게 그리고 持續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쌍방의 關係當局 및 經濟團體 인사들로 구성되는 가칭 「南北經濟協力委員會」를 설치할 것을 아울러 北韓側에 제의하였다.

한편 北韓側은 南北間에 經濟的 合作과 교류를 실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복잡성이 예견된다고 전제하고 이를 克服하기 위해서는 쌍

방이 自主·平和統一·民族大團結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쌍방 의사존중 및 相互性의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하면서, 會談議題는 『北과 南사이의 경제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하여』³⁶⁾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經濟合作方案과 物資交流方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北韓側의 經濟合作 관련 提案〉

1. 地下資源 공동개발과 이용문제

쌍방이 자기의 勞力과 設備를 가지고 상대방지역의 鑛산과 탄광을 개발

2. 어업분야의 합작문제

南北이 공동漁撈區域을 설정하고, 漁場을 공동개발·이용하며, 水産合營會社를 설립

3. 農業分野 합작문제

南韓의 서해 간석지를 공동개발하거나 軍事分界線에 의해 끊어진 관개망을 다시 연결시켜 이용

4. 共同協力機構로 「南北經濟協力委員會」를 설치

〈北韓側의 物資交流 관련 提案〉

1. 交 流 商 品

① 販賣希望品目：鐵鑛石, 石炭, 마그네샤크링카, 一般工作機械, 採取設備 등 公업상품과 명태, 쌀, 강냉이 등 農水產物

② 購入希望品目：철강재, 중석광, 납사, 섬유 등 公업상품과 남해어족, 소금, 감귤등 農水產物

2. 去 來 方 式

물자교류는 原資材, 完製品과 農水産物을 有無相通하되, 原資材는 原資材끼리, 完製品은 完製品끼리, 農水産物은 農水産物끼리 교류하는 것이 합리적임.

3. 輸 送

鐵道·港灣이용이 능률적이며, 이를 위해 京義線을 연결하고 北側의 南浦港, 元山港과 南側의 仁川港, 浦項港을 개방·이용토록 함.

이날 會談에서 쌍방은 交易品目, 자연자원의 개발, 南北共同漁撈區域의 설정, 京義線 鐵道連結, 「南北經濟協力委員會」 설치등에서 공통된 의견접근을 보였다. 특히 物資交易과 관련해서는 韓國側이 구입을 희망하고 北韓側이 판매하기를 바라는 품목으로서 無煙炭, 鐵鑛石, 마그네샤크링카, 옥수수, 명태 등에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였고, 한국이 판매를 희망하고 北韓側이 구입하기를 바라는 품목으로서 철강재, 섬유등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의제문제에 있어서 北韓側이 會談의제로 「北과 南사이의 經濟分野에서 協作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하여」로 할 것을 고집하여 이견을 보였으나, 韓國側이 절충안으로서 「南北間에 物資交易과 經濟協력을 실시하는 문제」로 제시하자 北韓側도 「協作」을 「협력」으로 수정하는등 한국측 제의에 접근해 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北韓側이 갑자기 다음 會談때 이를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함으로써 이날 會談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北韓側은 이와함께 會談직전의 歡談과 會談終了 직전의 발언 등 두차례에 걸쳐 申秉鉉 副總理와 北韓의 김환 부총리간의 접촉을 제의하고 이를 申秉鉉 副總理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會談에서 한국측은 經濟會談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다음 會談부터는 原則적으로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과 쌍방간에 업무연락과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미 가설되어 있는 南北直通電話 회선중에서 별도 經濟會談용 회선을 지정, 이용할 것등을 제의하였으며 北韓側도 이에 동의하였다.

(3) 第2次 會談

1984年 12月 5일에 열기로 합의된 제 2차 會談은 北韓側이 板門店 총격 사건과³⁷⁾ 「팀스피리트 85」훈련을 구실로 두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연기함으로써 제 1차 회담이 개최된지 6개월만인 1985年 5月 17일에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

이날 會談에는 韓國側에서는 車相弼 代表대신 林仁澤 新任商工部 第2次官補가, 그리고 北韓側에서는 백준혁 대표대신 한영읍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무위원이 나오는 등 각기 1명씩의 대표가 교체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金基桓 大韓民國측 首席代表는 『회담의제를 결정하고 다음 사업토의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임을 指摘하고, 會談의제는 제 1차 회담에서 쌍방간에 의견접근을 본 바 있는 『南北間의 교역과 經濟協力을 실시하는 문제』로 합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金基桓 首席代表는 會談의 효율적인 운영과 좋은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 1차 會談에서 쌍방이 제시한 내용중 공통되는 사항을 재확인하고 진지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미 南北 쌍방간에 의견이 합치된 鐵鑛石, 無煙炭, 마그네샤크링카,

옥수수, 명태, 철광석, 섬유 등 공통 交易品目を 중심으로 우선 교역을 실시할 것과 교역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北韓側이 판매하기를 희망하고 또 우리측이 구입하기를 희망했던 품목 가운데 하나인 無煙炭 30만톤을 당장 北韓側으로부터 구입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아울러 올해안에 京義線 철도가 연결되기를 희망하면서 鐵道 연결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 철도 실무자간의 接觸을 1개월 이내에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이날 會談에서 物資交易 및 經濟協力 추진과 관련하여 金基桓 首席代表가 제안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지난번 1차會談때에 쌍방이 내놓은 提案중에서 오늘 우선적으로 토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미 쌍방의 의견이 합치된 交易品目에 대해서는 당장 교역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측은 올해 안에 南北交易이 시작되기를 희망하면서 交易實現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당장 귀측으로부터 30만톤의 無煙炭을 구입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쌍방이 서로 의견을 조정하면 이미 의견이 합치된 交易物資 이외에도 交易品目を 더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앞으로 우리측은 귀측이 구입하기를 희망한 품목중 김, 미역, 굴, 멸치 등 남해수산물, 소금, 감귤 등 特産物과 각종 工産品을 판매할 수 있으며, 귀측도 우리측에게 판매하기를 희망하는 原資材와 農水産物등을 추가로 더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交易方式에 대해서 우리측의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나는 귀측이 제시한 交易方式 즉 原資材는 原資材끼리, 完製品은 完製品끼리, 그리고 農水産物은 農水産物끼리 교류하자는 방안이 절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交易方式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측의 생각으로는 귀측이 말한 交易方式으로 物資交易을 실시할 경우, 거기에는 交易品目이 매우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교역을 확대하

여 나가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原資材나 完製品이나 農水産物이나 구별할 것이 아니라 여러 품목을 포괄하는 求償貿易을 실시하고 교역확대에 따라 차차 清算協定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나는 우리측이 제의한 10개항의 物資交易 방안을 토대로 南北交易協定을 체결하여 物資交易을 실시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귀측의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쌍방이 다같이 제기한 鐵道連結문제는 사실상 합의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南北間 物資交易實現과 때를 맞추어 鐵道輸送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측은 올해안에 京義線 鐵道가 연결되기를 희망하며 철도연결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 철도 실무자간의 接觸을 1개월 이내에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항구개방문제에 대해서는 物資交易 개시와 더불어 우리는 仁川港과 浦項港을 귀측에 개방하고, 귀측은 南浦港과 元山港을 우리측에 개방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船積 및 揚荷에 있어서 經濟性을 높이기 위하여 船積港은 販賣者가, 揚荷港은 購入者가 그때 그때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서로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합의하면 4개항구 이외의 다른 항구도 개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이미 쌍방간에 그 필요성을 인정한 두가지 經濟協力分野에 대해서 다소 意見調整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귀측은 지난 會談때에 『쌍방이 자기의 노력과 설비로 상대측 鑛山과 炭鑛을 이용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귀측이 鐵鑛石 鑛山과 炭鑛을 우리측에 제공하고, 우리측이 重石鑛山과 몰리브덴 鑛山을 귀측에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측도 잘 아는 바와 같이 重石은 오히려 귀측에 埋藏量이 더 많고 우리측의 몰리브덴 鑛山은 그 埋藏量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귀측과 공동으로 개발할 만큼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그 대신 세계적으로 그 품질이 우수하고 埋藏量도 귀측과 나누어 쓸 수 있을 만큼 풍부한 고령토와 규석광산을 귀측에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우리측의 이 代案을 받아들인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합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南北의 漁民들을 위해 共同漁撈區域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쌍방이 具體的인 방안을 내놓고 협의를 진행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가지 技術的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쌍방의 실무자간 接觸을 통하여 협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세제, 南北經濟協力委員會 설치문제는 쌍방이 각각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을 조정해 나가면 이것도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지난번 회담때 貴側이 제의한 「서해안 간석지 공동개발」 문제와 「관개망 연결」 문제에 대하여 우리측의 입장을 말하고자 합니다.

나는 干潟地 개발사업과 관개망 연결사업 같은 것은 우리측의 技術수준, 그리고 공사경험등을 고려해 볼 때 南北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측은 국내외에서 干潟地 개발실적이 많을 뿐 아니라 國際水準의 훈련된 우수한 專門技術者와 장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干潟地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귀측에서도 알고 있듯이 우리측은 싱가포르에서 바다 매립공사를 하고 있고, 중동, 리비아 등에서 대규모 관개공사를 하는 등 해외 여러나라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그 技術과 能力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軍事分界線에 의해 끊어진 관개망 연결문제는 우리의 관개공사로 農業用水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北韓側은 구체적인 물자교역이나 경제협력에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南北間의 「경제합작과 교류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쌍방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南北經濟協調共同委員會」를 새로 구성하자고 주장하면서 제 1차 회담에서 쌍방간에 거의 의견이 접근되었던 의제문제의 토의마저 회피하였다.

특히 한국측이, 北韓側의 「南北經濟協調共同委員會」 구성에 관한 제의

에 대해서는 이를 검토하여 다음 회담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이날 회담에서는 의제문제를 비롯하여 쌍방이 이미 내놓은 제안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려면 실무급 회담보다 실권을 가진 높은 급의 권위있는 회담을 하는 것이 어느모로 보나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토의진행을 거부함으로써 「南北經濟協調共同委員會」를 발족시켜 사실상 진행중인 회담을 대체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제 2 차 회담에서 北韓側이 제시한 「南北經濟協調共同委員會」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南北經濟協調共同委員會」構成·運營 관련 提案〉

1. 구성 및 조직

- ① 위원장(부총리급) 및 부위원장(장관급) 각 1명, 위원 7명(장관 또는 차관급)과 사무장 1명(차관급)
- ② 7개 분과위원회 (각 5명씩 구성) 설치: 자원개발, 공업·기술, 농업, 수산, 상품교류, 운수·체신, 금융·재정

2. 기 능

- ① 南北間 경제협력과 교류의 대상 및 규모를 협의 결정하고 동 협력과 교류의 기본형식과 방법을 결정하며, 협력과 교류에 관련된 통일적인 기획을 협의
- ② 쌍방 합의사항과 토의 결정된 사항을 보장하고, 쌍방간에 제기된 분쟁을 협의 조정
- ③ 분과위원회를 지도하고 기타 문제를 협의 결정

3. 운 영

- ① 공동위원회는 분기별로 한번씩 平壤·서울에서 개최하며, 분과위원회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되, 공동위원회 제 1 차 회의는 9월 平壤에서 개최
- ② 공동위원회 운영세칙은 별도 협의하여 제정

(4) 제 3 차 會談

제 3 차 南北경제회담은 1985년 6월 20일 오전 10시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會議室에서 열렸다.

金基桓 한국측 수석대표는 첫발언을 통해 1, 2차 會談에서의 쌍방 제안 중에는 공통점과 의견이 일치된 사항이 많았음을 상기시키고, 이날 會談에서는 物資交易 및 經濟協力과 관련하여 지난 1, 2 차 회담에서 내놓은 쌍방 제의의 공통점과 서로 의견이 접근된 사항을 종합 정리하고 이와 함께 쌍방의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협의·이행기구로서 南北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문제도 함께 포함하는 합의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北韓側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하였다.

이 제안의 골자는 1, 2차 會談에서 쌍방이 내놓은 공통점을 확정시키는 것과 함께 北韓側이 요구한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협력기구의 구성을 받아들일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南北間에 모처럼 마련된 경제회담을 성과적으로 마무리짓자는데 뜻이 있었다.

이날 회담에서 韓國측이 제시한 「南北間 物資交易 및 經濟協力推進과 南北經濟協力共同委員會 設置에 관한 合意書(案)」는 다음과 같다.

〈南北間 物資交易 및 經濟協力推進과 南北經濟協力共同委員會 設置에
관한 合意書(案)〉

쌍방은 호혜와 평등을 바탕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인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을 희망하고,

쌍방간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의 추진이 우리 민족의 번영과 복지의 증진과 平和統一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신의와 성실로 상호간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을 실시할 것을 다짐하면서,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과 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상호간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지원조치를 취한다.
2. 물자교역 또는 경제협력 사업의 당사자는 품목별 또는 사업별로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교역기관, 법인, 단체 또는 당국으로 한다.
3. 쌍방간의 교역은 쌍방이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실시한다.

가. 교역대상품목은 우선 다음 품목으로 시작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

① 南側이 판매할 품목: 철강재, 섬유, 소금, 감귤, 남해수산물 (김, 미역, 굴, 멸치 등)

② 北側이 판매할 품목: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샤크링카, 명태, 옥수수

나. 교역량은 쌍방의 수급 사정을 감안하여 교역당사자간 상담을 통해 결정한다.

다. 교역물품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교역 당사자간 합

의에 의해 결정한다.

- 라. 교역방식은 제 3 국 은행을 발행인으로 하는 쌍방 同時開設條件附信用狀 방식으로 하되, 쌍방간의 교역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구상무역을 위한 無換去來方式으로도 할 수 있다.
 - 마. 決濟業務는 쌍방이 합의하는 제 3 국 은행이 담당하도록 한다.
 - 바. 決濟通貨는 영국 파운드화와 스위스 프랑화로 한다.
 - 사. 쌍방은 상호간의 물자교역에 대하여 물자의 대외거래시 부과되는 關稅와 이와 유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아. 쌍방은 타방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通關, 檢査, 事故處理 등에 있어 일반적으로 대외거래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4. 쌍방은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에 따른 物資輸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京義線 철도를 연결하기로 한다.
 5. 쌍방간의 교역물품의 수송방법은 교역물품의 특성, 중량, 운송비 등을 감안하여 교역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해상운송의 경우에 교역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의 입항, 정박, 하역 및 출항 등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며, 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보장한다.
 6. 쌍방은 쌍방 주민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그 대상사업은 우선 다음 사업으로 시작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
 - 가. 공동어로구역 설정사업
 - 나. 지하자원 공동개발 사업
 7. 경제협력 사업의 규모, 실시방법 및 조건, 실시시기 등에 관하여는 경제협력 사업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8. 쌍방은 타방의 경제협력 사업의 당사자가 자기 지역내에서 경제협력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쌍방이 합의할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재

- 산세, 관세 및 기타 조세부담을 감면할 수 있다.
9. 쌍방은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에 따른 해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南側은 인천항과 포항항, 北側은 남포항과 원산항을 각각 개방하고, 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다른 무역항도 개방하도록 한다.
 10.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에 필요한 통신시설을 신설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확장한다.
 11. 쌍방은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의 타방 당사자가 구매예정 물품의 검사 또는 협력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등을 위하여 자기 지역 또는 海域을 방문하여 검사 또는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2. 쌍방은 타방의 물자교역 또는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된 인사의 왕래 및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교통, 통신, 숙식, 의료 등에 관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13. 쌍방은 타방의 물자교역 또는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된 인사가 자기 지역 또는 해역에서 입은 신체상의 위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14. 쌍방은 이상과 같은 쌍방간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남북간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을 협의·결정하며,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 서명 후 30일 이내에 쌍방의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南北經濟協力共同委員會(이하 「共同委員會」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5. 共同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가. 共同委員會는 쌍방에서 각각 부총리급 공동위원장 1명, 장관(부장)급 부위원장 1명, 당국 및 경제계 인사로 구성되는 위원 5명, 도합 각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장·차관(부장·부부장)급으로 한다.
 - 나. 共同委員會 안에 物資交易分科委員會와 經濟協力分科委員會를 두

고 필요시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特別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共同委員會 또는 각 分科委員會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 각 分科委員會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쌍방 각각 5명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중에서 쌍방 공동위원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고, 위원은 국장급으로 한다.

라. 共同委員會 산하에 실무문제를 관장하는 共同事務局을 둔다. 사무국장은 공동위원장이 공동위원회 위원중에서 각각 지명하며, 사무국에는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사무원을 두고 동 사무국의 위치는 판문점으로 한다.

16. 共同委員會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가. 南北間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에 관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나. 南北間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의 확대·발전방안을 협의·결정하며 그 이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다. 南北間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에 관한 합의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조정한다.

라. 南北間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역물품의 안전수송 및 관계자의 자유왕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마. 南北間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한 상호 인사왕래, 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정보 및 자료교환 등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바. 기타 南北間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7. 分科委員會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가. 共同委員會에서 합의 또는 위임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협의·결정하고 그 이행을 보장한다.

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약정안을 작성하여 共同委員會에 제출한다.

다. 소관분야에서 제기된 문제를 협의·해결하고 필요시 이를 공동위원회에 제기한다.

18. 共同事務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가. 共同委員會 및 分科委員會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소집, 회의장소와 안전준비, 회의진행, 기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된 견본, 자료 및 서신의 교환을 위하여 공동물품교환소를 설치·운영한다.

다. 기타 쌍방간 교역물자 수송, 인적왕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연락업무의 수행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19. 共同委員會 및 分科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共同委員會 및 分科委員會 회의는 판문점에서 가지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울과 평양에서도 가질 수 있다.

나. 共同委員會는 원칙적으로 매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열며 분과위원회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열 수 있다.

다. 共同委員會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필요시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공개로 할 수 있다.

라. 共同委員會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쌍방의 교역당사자, 경제 협력 사업 당사자 및 공동사무국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참가시킬 수 있다.

마. 기타 共同委員會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협의하여 정한다.

20. 共同事務局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共同事務局은 이 합의서 서명후 30일 이내에 설치한다.

나. 共同事務局은 共同事務局 전용 건물을 판문점 내에 건설할 때가

지 「평화의 집」과 「板門閣」을 각각 임시 사무실로 사용한다.

다. 共同事務局 전용사무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한다.

21.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22. 이 합의서는 발효일로 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일방이 타방에 대해 이 합의서의 폐기의사를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1년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씩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
23.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으로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 다음 서명자는 각자의 最高當局者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합의문서에 서명하였다.

1985년 ○월 ○일 板門店에서 동등히 정본인 원본 2부를 작성, 교환하였다.

韓國側의 이러한 적극적 제의에 대해 北韓側은 「南北經濟協調共同委員會」 구성과 관련, 제 2 차 회담에서 그들이 제안한 내용만을 합의서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제 2 차 회담에서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 주장하였다.

결국 이날 會談에 나타난 쌍방의 입장차이는, 大韓民國側이 1, 2차 會談에서의 쌍방 제안내용중 사실상 의견일치를 본 사항을 기구 구성문제와 함께 묶어서 합의하자고 제의한데 반해 북한측은 1, 2차 회담의 결과를 무시하고 기구문제만을 합의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北韓側은 大韓民國側의 포용성 있는 발의를 계속 외면만 할 수 없게 되자 마침내는 「南北間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추진과 南北經濟協力共同委員會 구성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해 왔다.

이같은 南北間의 합의에 기초하여 南北 쌍방은 기 제시한 合意書(案)들

을 검토하여 제 4 차 會談에서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측이 제 2 차 회담때에 제의한 북한의 무연탄 30만톤 구입문제와 京義線 철도 연결공사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문제에 대한 北韓側의 회담을 요구한데 대해서 北韓側은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합의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협의는 앞으로 구성될 共同委員會의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사업의 조속한 실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마) 제 4 차 회담

제 3 차 회담에서 南北 쌍방이 합의서 채택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南北經濟會談 진전에 대한 내외의 기대가 높은 가운데 제 4 차 南北經濟會談은 1985년 9월 18일 오전 10시 板門店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비공개리에 진행되었다. 南北 쌍방은 제 3 차 회담에서의 합의대로 각기의 수정된 합의서 초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쌍방이 제시한 합의서안들에 대한 大體討議를 회피하고 이를 바로 실무회의에 넘길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韓國側 金基桓 首席代表는 첫발언을 통해 먼저 제 3 차 회담에서 南北 쌍방이 「南北間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추진과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南北經濟協力 共同委員會 설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던 점을 상기시키고, 다음과 같이 한국측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물자교류에 관한 사항

(1) 교류품목

교류대상품목을 선정하는 것은 물자교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순서입니다.

쌍방은 이미 판매희망품목과 구입희망품목을 각기 제시해 놓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 쌍방의 의견이 일치되는 여러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쌍방의 의견이 일치되는 품목들을 합의서에 명시하고 쌍방 합의에 따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교류량과 통관 및 검사

교류량과 통관 및 검사에 대해서는 다소의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서로 의견을 조정하면 기본적인 합의를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3) 거래방식과 결제업무 취급은행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측은 귀측의 주장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 거래방식은 清算去來方式로 하고 결제업무의 취급은행은 南과 北의 은행이 직접 담당하는 방식으로 하되,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을 조속히 착수·실천하기 위하여 清算約定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쌍방이 공통으로 거래하고 있는 제 3 국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해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교류당사자, 가격결정방법, 결제통화, 수송방법, 관세문제

이들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실무회의에서 협의하여 문안을 조정토록 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1) 사업대상

經濟協力事業對象에 있어서는 제 1, 2차 회담과정에서 쌍방간에 의견이 일치된 분야 즉, 共同漁撈區域 設定과 지하자원 공동개발등을 합의서에 명시하고 쌍방합의에 따라 다른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2) 사업규모, 방법 및 형태

이 문제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經濟協力事業의 당사자간에 협의·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조세와 관련한 특혜 부여문제

쌍방의 체제에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쌍방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및 기타 조세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4) 토지 및 자원등 이용료문제

이 문제는 우리측 개념으로 보면 개인의 소유권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세째, 「南北經濟協力 共同委員會」 설치사항

이 문제에 대해서는 南北間의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쌍방의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南北經濟協力 共同委員會를 설치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므로 기본적인 견해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共同委員會의 기능과 운영문제는 쌍방의 제안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원만히 타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능과 관련하여 앞으로 설치될 共同委員會는 채택될 합의서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어야 하겠습니다.

共同委員會의 분과위원회는 우리측이 제안한 물자교류 분과위원회와 경제협력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시 별도의 특별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여 적절히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측은 공동위원회의 산하에 실무문제를 관장하는 共同事務局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고 귀측은 사무장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南北間의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이 확대·발전될 것에 대비하여 상설적인 실무기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우리측 입장에 대해서는 귀측도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한국측은 제 3 차 會談에서 쌍방이 제시한 합의서안을 검토·수정하여 새로운 합의서초안을 제시하고, 이날 회담에서는 쌍방 제안에 대한 대체적인 토의를 거쳐 주요문제들에 대한 상호 이견을 좁힌 다음,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토의와 문안조정을 위해 쌍방 경제회담 대표 각 3명과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각기 7명 이내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1개월 이내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측은 합의서에 대한 내외의 신뢰와 기대를 더욱 북돋우고, 이에 대한 쌍방의 실천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분단 40년이 되는 금년안에 우리측이 제의한 무연탄 30만톤을 구입하는 문제와 쌍방간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京義線 철도 연결사업의 年內 착수를 희망하고 이에 대한 北韓側의 긍정적인 호응을 거듭 촉구하였다.

한편 北韓側은 제 3 차 會談에서 각각 분리 제시한 방안, 즉 「南北經濟 協調 共同委員會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 「南北韓 經濟合作과 교류를 위한 16개 방안」, 「南北商品交流 委員會 構成案」을 종합 정리하여 하나의 합의서 초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쌍방 제안중에는 아직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주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제시한 합의서(안)를 토의없이 바로 實務代表 接觸會議에 넘길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韓國側은 기본적인 사항을 토의하고 넘겨주어야 실무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임을 지적하고, 이날 회담에서 쌍방 합의서 초안의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대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北韓側은 이를 회피하였으며, 쌍방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次期會談에서 의견을 제시하자고 하였다.

또한 北韓側은 韓國側이 촉구한 무연탄 구입문제와 京義線 鐵道 年內 연결작업 착수제외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합의서를 채택하여 南北共同委員會가 구성되면 동 위원회에서 토의하자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경제회담에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토의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4 차 南北經濟會談은 南北 쌍방이 각기 합의서 초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南北經濟會談을 한단계 더 진전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날 회담에서 南北 쌍방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은 다음 9개항에 걸쳐 서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雙方 合意書 草案의 主要 差異點〉

區 分	南	北
合 意 書 名 稱	○南北間의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추진과 南北經濟協力共同委員會 設치에 관한 합의서	○北과 南사이의 경제협력 및 상품교류의 실현과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조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서
事業推進 原則明記	○합의서 전문에 순수경제원칙 명시 - 호혜·평등, 민족번영, 복지증진, 평화통일 기여	○통일 3원칙(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을 포함하여 합의서 첫장에 독립조항으로 설정
交流對象 品 目	○1, 2차 회담시 합의품목을 합의서에 명시하고 합의품목부터 교류시작 - 南側 판매가능품목 : 철강재, 섬유, 소금, 감귤, 남해수산물(김, 미역, 굴, 멸치 등) - 北側 판매가능품목 :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샤크링카, 명태, 옥수수	○1차회담시 쌍방 제안품목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에서 협의·결정
去來方式 및 決濟 業務取扱 銀 行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청산협정 체결전까지 잠정적으로 제3국은행 발행 신용장방식을 적용 ○쌍방이 지정하는 남북한의 은행으로 하되 잠정적으로 제3국은행 이용	○청산결제방식 ^{*)} ○쌍방이 지정하는 남북한의 은행

區 分	南	北
經濟協力 對 象	○1, 2차 회담시 의견이 일치된 공동어로구역 설정, 지하자원 공동개발사업을 합의서에 명시	○부존자원의 공동개발과 이용부터 시작 (원칙적으로 공동위원회에서 협의·결정)
共同委員 會 機能	○기 합의사항 (교류품목등) 의 이행기능을 공동위원회 기능 속에 명시	○기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기능 명시 불필요
分科委員 會 數	○2개 분과위 우선발족(물자교류, 경제협력) *사업확대에 따라 특별분과위, 소위원회 설치	○6개 분과위 발족(자원개발, 공업 및 기술, 농업 및 수산, 상품교류, 운수 및 체신, 금융개정등) * 될수록 부분별로 세분화
署名者의 權限委任 明 示	○합의서 서명자가 최고당국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았음을 명시	○쌍방 단장의 서명으로 충분(최고당국자로부터 권한위임 명시 불필요)
署名欄의 呼稱明記	○합의서 서명난에 국호 명기	○北側代表團, 南側代表團 방식으로 명기 (국호표기 불필요)

(바) 제 5 차 會談

1985년 11월 20일에 열린 제 5 차 회담에서 南北 쌍방은 「南北間 物資交流 및 經濟協力推進과 南北經濟協力 共同委員會 설치에 관한 합의서」 채택과 관련, 제 4차 회담에서 쌍방이 각기 제시한 합의서 내용중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 9가지 쟁점중 3개항 즉 「합의서 명칭문제」, 「사업추진의 원칙문제」, 그리고 이미 쌍방간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교류품목의 명시문제」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하였다.

金基桓 수석대표는 제 4차 회담에서 쌍방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에는 『共通點과 類似點이 있으며 차이가 있는 몇가지 문제는 서로 노력한다면 쉽게 타결이 가능』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합의서 명칭문제」, 「사업추진의 원칙문제」, 「교류대상품목 명시여부」, 「거래방식 및 결제은행」, 「경제협력대상사업 명시여부」, 「공동위원회 기능」 및 「분과위원회수」등 7개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합의서의 명칭문제에서 쌍방간에는 표현상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제 3 차 회담에서의 쌍방 합의를 존중하여 「南北間 物資交流 및 經濟協力推進과 부총리급을委員長으로 하는 南北經濟協力 共同委員會 설치에 관한 합의서」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둘째, 사업추진의 원칙조항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 합의서의 전문에서 약간의 표현상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南北韓의 경제적 유대회복, 민족의 변영 그리고 平和統一등 南北經濟會談이 지향하는 공통된 기본정신과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조항을 추가로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물자교류 문제에 있어서 우리측은 제 1, 2차 회담에서 쌍방이 제시한 품목중 의견이 일치된 품목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서 귀측의 합의서 초안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측은 1년이상 지속된 南北經濟會談의 결과를 총망라하고 합의된 내용을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쌍방간에 의견의 일치를 본 교류 품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째, 去來方式과 決済銀行問題에서 쌍방간에는 다소의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것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측의 의견으로는 원칙적으로 청산결제방식과 남·북은행의 직접 결제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쌍방은행간에 청산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제 3 국은행 발행신용장에 의해서 거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우리측은 장차 共同委員會가 새로운 사업대상을 협의하더라도 이미 1, 2차 회담과정에서 쌍방간에 의견의 일치를 본 공동어로구역 설정문제, 지하자원 공동개발 문제 등 經濟協力 事業對象을 이번 합의서에 명시할 것을 주장합니다.

경제협력사업의 구체적인 규모, 방법, 條件, 실시시기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측은 사업당사자가 이를 결정하자고 하였으며 귀측은 이 문제를 共同委員會에서 협의·결정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귀측이 주장한 대로 共同委員會에서 어느 정도 협의·결정되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사업을 집행하는 당사자간에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귀측이 우리측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共同委員會의 기능문제입니다. 우리측은 지난 제 1, 2차 회담에서 이룩한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사업에 관한 기 합의사항의 이행문제를 공동위원회 기능속에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미 지난번 회담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매우 합리적이며 귀측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일곱째, 共同委員會내에 分科委員會의 수에 있어서 쌍방간에는 아직도 의견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과위원회 문제는 우선 물자교류분과위원회와 경제협력분과위원회를 먼저 발족시키고 사업의 확대에 따라 필요한 특별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설치문제를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측의 입장입니다.

아울러 大韓民國側은 南北間에 물자교류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것과 무연탄, 철강재등 쌍방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서로 사고 팔자는 데에 대해서는 벌써 1년전에 사실상 합의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제의한 무연탄 30만톤 구입문제와 관련, 南北經濟會談에 대한 내외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금년안에 쌍방간에 等價方式에 의한 물물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北韓側은 서명자의 「최고책임자로부터 권한위임 명시문제」와 서명

난의 「국호사용문제」등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였으며, 「합의서명칭」 등 쌍방이 사실상 합의했던 사항도 이를 반복하고 나섰다.

「사업추진의 원칙문제」에 대해서도 韓國側은 합의서 전문에 南北韓의 경제적 유대회복, 민족번영 그리고 평화통일로의 기여등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의 목적과 함께 北韓側이 주장하는 통일 3원칙을 전문에 넣을 수 있다고 밝히고, 다만 중복되는 원칙조항을 추가로 둘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데 반해, 北韓側은 굳이 원칙문제를 별도의 獨立條項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계속 고집함으로써 이 문제 역시 합의에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 제 1, 2차 會談에서 쌍방간의 의견이 합치된 교류품목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韓國側은 1년 이상 지속된 南北經濟會談을 성과적으로 마무리 짓고 이미 합의된 사업을 성실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문제를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北韓側은 이마저 거부함으로써, 이날 회담에서 쌍방은 전혀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또한 北韓側은 共同委員會의 우선 구성을 계속 주장함으로써 경제회담을 실무접촉수준으로 사실상 격하시키고 실질적인 토의를 지연시킬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보였다. 쌍방은 의견조정을 위한 회담이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 6 차 회담을 1986년 1월 22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北韓側은 제 6 차 會談 개최 이틀을 앞둔 1986년 1월 20일 「탐·스피리트 86」 군사훈련을 구실로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킴으로써 결국 南北經濟會談은 중단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1986년 1월 22일 金基桓 首席代表는 회담이 유산된데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北韓側이 조속히 제 6 차 會談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본인은 오늘 板門店에서 열기로 쌍방이 合意한 第 6 次 南北經濟會談이 北韓側의 一方的 中斷通報로 인해 유산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北韓側은 우리측의 군사훈련을 구실로 지난 1월 20일 온 민족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南北對話를 一方的으로 中斷한다는 南北會談 代表團 共同聲明을 방송을 통해 발표하고 이어 1월 21일에는 오늘 10시로 예정된 제 6 차 남북경제 회담에 나오지 않겠다는 電話通知文을 우리측에 보내어 왔습니다.

우리측은 1월 20일 首席代表 合同聲明을 통해 北韓側의 회담중단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1월 21일에는 對北電話通知文을 통해 쌍방간의 합의사항이 존중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빠른 시일안에 第 6 次 南北經濟會談이 開催되기를 促求한 바 있습니다.

지금 온 겨레는 南北經濟會談이 하루빨리 진전되어 南北間의 物資交流와 經濟協力이 실현되어 和合과 信賴의 터전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겨레의 염원을 받들어 北韓側은 겸허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하루 빨리 對話의 場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³⁹⁾

사. 南北國會會談 豫備接觸

(1) 成 立

1985년 4월 9일, 제 2 차 南北經濟會談(85. 5. 17)과 제 8 차 南北赤十字本會談(85. 5. 28)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北韓側은 돌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형섭 명의로 蔡汶植 國會議長 앞으로 서한을 전달하고, 南北國會會談을 개최하여 南北間의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채택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했다.

北韓 최고인민회의 제 7 기 4차회의에서 「大韓民國 國會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채택되어 이날 오후 板門店을 통해 전달된 동 서한에서, 북한측은 3자회담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적십자회담이나 경제회담으로서는 긴장완화와 같은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南北間의 전쟁위험을 가시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실천적 조치를 위한 대책』으로서 南北國會會談을 개최할 것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예비접촉을 5월초 板門店에서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동 서한의 사본을 民主正義黨, 新韓民主黨, 韓國國民黨 등 3당총재들에게 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蔡汝植 國會議長은 4월 10일 國會議長室로 盧泰愚 民正黨 代表委員, 李敏雨 新民黨 總裁, 李萬燮 國民黨 總裁등을 초치, 北韓側이 보내온 서한을 각각 전달하고 北側 제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합의내용을 발표하였다.

『남북대화문제는 통일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各 政派間의 이해관계를 떠나 초당적으로 긴밀하게 협의 대처함으로써 平和統一 과업을 앞당기는데 각 정당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우리측은 꾸준하고 성실한 南北對話를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접근한다는 일관된 방침에 따라 국회와 정당이 함께 논의하여 北側에 조속히 성의있는 회답을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회의 대응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南北 交渉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는 남북대화 추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대화의 효율적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와 정당은 통일 문제 관계당국의 방침에 호응,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南北國會會談 제의와 관련된 국회와 정당의 연락업무, 회의주선, 발표 등은 院이 구성될 때까지는 國會事務總長이 담당하기로 했다.』⁴⁰⁾

한편 李珍雨 國會事務總長은 국회개원의 지연과 함께 北韓側이 당초 5월 초로 제의한 국회회담 예비접촉이 어렵게 됨에 따라 5월 8일 북한 최고 인민회의 상설회의 사무장 김봉주 앞으로 회신을 보내고, 국회가 開院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회답을 보낼 것이라는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한편 大韓民國側은 12대 국회가 開院되자, 5월 16일 의장단·3당 교섭단체 대표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對北 回信文案이 담긴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國會運營委員會는 南北國會會談 回信文案 起草 小委員會를 구성하고, 同 小委에서 기초한 결의안을 채택, 6월 1일 國會 本會議에 상정하였으며, 제 125 회 임시국회 제 15 차 본회의에서 南北國會會談에 관한 對北 回信文案이 담긴 동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1985년 6월 3일 李載濬 國會議長 명의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형섭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南北間의 협의기구 구성문제와 기타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하기 위해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환영하면서, 이에 따른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국회의원 각 5명이 참가하는 예비접촉을 7월중에 板門店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大韓民國 國會가 북한측에 보낸 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大韓民國 國會는 귀 최고인민회의가 보내온 서신을 접수하고 각 정당간의 충분한 협의와 의원들의 진지한 토의를 거쳐 本會議 議決로써 회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조국 광복 40년을 맞는 올해야말로 민족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위대한 조국 건설을 위해 南과 北이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적인 신뢰와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의 기쁨을 마련하는 역사적 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0년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할 수 없는 시련과 통한의 세월이었으며 상호 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한 피를 나눈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애를 발휘하여 단합된 힘으로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온 겨레의 열망인 平和統一을 이룩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는 상호 불신이며 이같은 상호 불신은 대화와 교류의 단절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대화를 갖자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새로운 南北 接觸이 재개되고 특히 南北經濟會談과 적십자회담이 열리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또한 중단된 남북체육회담도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겨레는 南北經濟會談과 赤十字會談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하루속히 南北間에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이 실현되고 혼어진 가족·친척들이 자유롭게 고향을 찾고 자기 혈육을 만나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이것이 나아가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平和統一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오래전부터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쌍방의 책임있는 당국간의 협의에 의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임을 강조하고 귀측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는 귀측에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의 실현과 이 회담에서 다룰 우선 과제로서 긴장완화와 전쟁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긴장완화와 민족화합을 위한 실천적 조치로서 南北韓 기본

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도 아울러 제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침선언 문제도 그것을 실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南北韓 政府當局의 회담을 통해서 협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가침선언 문제를 비롯하여 南北間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문제를 우리측과 진지하게 협의하고 이를 통해 民族統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貴 最高人民會議가 귀측 관계당국으로 하여금 우리측이 주장하는 南北韓 當局 최고책임자회담 등 南北韓 정부 당국간의 회담에 동의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측도 잘 아는 바와 같이 立法機關의 고유기능은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 당국이 체결한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동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남북의 立法機關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민족적 과업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통일헌법의 제정문제를 협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 과업이야말로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인 동시에 南北 國會에 거는 으뜸가는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南北의 國會는 이러한 민족적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한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한 統一憲法 制定事業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들로 協議會議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전 민족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南北의 國會는 바로 이러한 統一憲法 制定事業을 추진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민족사적 사명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貴 최고인민회의와 더불어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남북간의 협의 기구 구성에 따른 제반문제와 기타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하기 위해 南北國會會談 개최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南北國會會談이 南北間의 긴장완화 및 신뢰회복과 나아가서 조국의 平和의 統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大韓民國 國會는 南北國會會談 개최에 관한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國會議員 각 5명이 참가하는 예비접촉을 오는 7월중에 판문점에서 갖기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제의에 대한 貴 최고인민회의의 회답을 기대합니다.』⁴¹⁾

大韓民國側의 이러한 제의에 北韓側이 7월 5일 최종적으로 동의해 음으로써 南北國國會談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 1 차 예비접촉이 1985년 7월 23일 板門店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게 되었다.

南北國國會談 豫備接觸 쌍방 대표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大韓民國 國會 代表團〉

首席代表 : 權 正 達 (民主正義黨)
代 表 : 丁 時 采 (民主正義黨)
代 表 : 慎 順 範 (新韓民主黨)
代 表 : 朴 寬 用 (新韓民主黨)
代 表 : 姜 慶 植 (韓國國民黨)

〈北韓 最高人民會議 代表團〉

團 長 : 전 금 철 (조선노동당)
副 團 長 : 주 창 준 (조선노동당)
代 表 : 최 장 룡 (조선노동당)
代 表 : 럽 국 렬 (조선사회민주당)
代 表 : 우 달 호 (천도교청우당)

2. 경 과

1985년 7월 23일에 열린 제 1 차 예비접촉에서 南北 쌍방은 우선 南北國

會會談 개최에 따른 절차문제에는 대부분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가장 중요한 議題問題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를 보지 못했다.

北韓側 대표단은 南北國會會談을 열어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것이 南北間의 『긴장완화문제, 평화보장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방도』이며, 『이 제안이 실현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에 고무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등 4월 9일자 서한에서 밝힌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 주장하면서 本會談의 形式, 議題, 代表團 構成問題, 會談場所 등 기타 절차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北韓側 제안요지)

○ 회담형식

국회연석회의 또는 국회대표회담

○ 대표단 구성

- 연석회의 : 100명 정도가 상대측 국회 본회의에 참가
- 대표회담 : 9-11명으로 구성
- 團 長 : 國會議長 또는 副議長

○ 회담장소 : 서울과 平壤

○ 회담의제

-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하여
- 통일헌법 제정문제를 토의할데 대하여

○ 회담일시 : 예비접촉이 끝나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

○ 직통전화 : 國會會談 전용 직통전화를 서울·平壤간에 연결

이에 대해 大韓民國側 權正達 수석대표는, 정부 당국간에 토의 해결해야 할 불가침에 관한 문제를 南北國會會談에서 협의·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南北國會會談에서는 마땅히 그 권능에 알맞는 統一憲法 제정과 이를 위한 協議機構 構成問題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權正達 首席代表는 그간 대한민국 정부는 南北韓 當局 최고책임자회담을 열어『긴장완화와 전쟁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과『平和의 남북관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실천적 조치로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 행사 지양, 상호 내정불가침, 군비경쟁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등을 포함하는「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의 체결등을 北韓側에 촉구해 온 사실을 상기시키고, 北韓側이 진실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불가침 문제를 논의할 의향이라면 北韓當局이 大韓民國 정부의 제의에 호응해 나오도록 촉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大韓民國側은 분단 40년이 되는 지금까지 평화통일 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공동의 目標나 章典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統一憲法 제정을 통해 統一祖國의 청사진을 밝히고 統一祖國이 지향할 방향과 민족의 진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과 같은 입장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 代表團은 南北國會會談 개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다.

『첫째, 쌍방은 온 겨레의 통일염원에 부응하여 南北國會會談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일시는 이 예비접촉의 마지막 단계에서 협의·결정한다.

둘째, 쌍방은 南北國會會談을 서울과 平壤에서 번갈아 개최한다.

세째, 南北國會會談에 참가하는 쌍방의 대표단은 각각 11명으로 구성하며, 쌍방 首席代表는 國會議長이 지명한다.

네째, 南北國會會談의 의제는 「統一憲法을 기초하기 위한 民族統一協議會議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와 이에 따른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다섯째, 南北國會會談 추진에 따른 제반업무 연락을 위하여 쌍방간에 국회회담용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여섯째, 기타 南北國會會談 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쌍방의 협의하에 정한다.」

의제문제 토의에 있어 北韓側은 「統一憲法 제정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問題」를 계속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해야 할 의제로 고집함으로써 의견의 접근을 보지 못했다.

특히 北韓側은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問題를 국회회담에서 우선적으로 토의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國會會談에서는 『쌍방이 불가침의 필요성과 의의를 인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무를 지니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는 쌍방 정부당국에 일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굳이 國會會談을 열어 불가침선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논리에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절차문제에 있어서는 쌍방 제안내용이 대체로 비슷하였으며, 따라서 本會談 首席代表의 級問題와 제 1 차 회담 개최장소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제 1 차 接觸에서의 合意事項〉

1. 회담형식
쌍방 국회의 대표회담으로 한다.
2. 대표단 규모
각각 11명으로 구성한다.
3. 회담장소
서울·平壤을 번갈아 가면서 개최한다.
4. 일 시
예비회담이 끝나고, 1개월내 첫회담을 개최한다.
5. 보도·기록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6. 대표단의 왕래절차·편의보장
종래 南北對話의 관례에 따른다.

1985년 9월 25일에 비공개로 진행된 제 2 차 예비접촉에서도 南北쌍방은 회담의제등 중요문제에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제 1 차 접촉에서의 쌍방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끝마쳤다.

大韓民國側 權正達 首席代表는 이날 회의의 첫 발언을 통해, 먼저 제 1 차 접촉에서 쌍방간에 의견의 일치를 본 회담형식, 대표단 구성, 장소, 보도문제등 제반절차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확인하고, 이날 회의에서는 제 1 차 접촉에서 쌍방간에 합의를 보지 못한 의제문제, 쌍방 首席代表의 級問題 및 제 1 차 본회담 장소문제등을 협의·결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먼저 의제문제와 관련하여 大韓民國側은 「통일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민

족통일협의회의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와 이에 따른 통일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의제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北韓側이 주장하는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문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權正達 首席代表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실권과 책임을 갖고 있는 해당 정부당국이 관장하고 처리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이며, 북한측도 제 1 차 접촉에서 불가침문제를 비롯하여 긴장완화와 전쟁문제가 쌍방의 정부당국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솔직히 인정한 만큼, 北韓側이 진실로 南北間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목적으로 우리측과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고자 한다면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당국이 요구하는 회답에 하루빨리 동의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침문제를 포함하여 南北間의 긴장완화와 신뢰조성 문제가 단순한 약속이나 선언만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南北關係의 모든 분야에서 화해와 교류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北韓側은 제 1 차 접촉에서 그들이 제의한 내용과 南北 쌍방간에 의견의 접근을 본 절차문제들을 묶어 合意書 草案形式으로 제시하고, 「불가침문제」는 민족의 생사와 운명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므로 國會와 같은 권위있는 政治機關에서 다루어야 한다면,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문제의 國會會談에서의 토의를 거듭 주장하였다.

그러나 韓國側은 가령 國會會談에서 불가침선언을 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서는 선언적 의미밖에 없으므로 실천력을 가진 政府當局에서 또다시 다루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불가침문제」를 國會會談의 의제로

삼자는 北側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北韓側은 더이상 「불가침문제」를 국회회담 의제로 거론할 수 없게 되자, 「南과 北 사이에 긴장을 완화하며, 조국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로 그 의제를 수정 제의했다.

그러나 韓國側은 北韓側이 수정 제의한 의제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無議題」나 다름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따라 의제문제는 이날 접촉에서도 의견의 접근을 보지 못했다.

이밖에도 1차 접촉에서 쌍방간에 異見을 보인 首席代表의 級에 대해서 韓國側이 쌍방 國會議長이 임명하는 常任委員長級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하자고 신축성을 보인 반면, 北韓側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할 것을 고수했다.

한편, 쌍방은 제 3 차 접촉의 장소를 제 1, 2 차 접촉때와 같이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회의실로 할 것인지 아니면 北韓側이 제의한대로 「統一閣」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와 일자문제에 대해서는 직통전화를 통해 협의·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北韓側이 1986년 1월 20일 「팀스피리트 86」 훈련을 이유로 南北間의 모든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에 따라 쌍방이 전화통지문을 통해 1986년 2월 18일에 열기로 합의했던 제 3 차 접촉은 끝내 유산되고 말았다.

아. 「로잔느」 體育會談

(1) 成立背景

1981年 9月 30日 「바덴바덴」에서 개최된 제 84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가 제 24회 올림픽대회 개최지를 서울로 결정한 이래,北韓側은 동대회 저지를 위해 온갖 방해책동을 벌여 왔다.

北韓側은 韓半島에 긴장이 상존하고 있음을 부각, 서울이 올림픽개최지로서는 부적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올림픽경기의 서울개최는 『두개 朝鮮政策의 가장 악랄한 표현』이며 『長期執權의 이용물』이라고 非難하면서, 이는 『인민들 사이의 理解와 親善을 도모하고 平和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體育技術을 교류하고 발전시킨다는 올림픽의 基本理念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사마란치」 IOC委員長은 IOC 주재하의 南北韓 體育會談 개최문제를 제기하고, 1985年 2月 1日에는 IOC 執行委員會 결정사항으로 이를 南北韓 올림픽위원회에 제의하였다.

南北韓 올림픽위원회 委員長 앞으로 보낸 書翰에서 IOC측은, IOC위원장 주재하에 IOC측 대표 6명과 南北韓 올림픽위원회 대표 각 6명으로 代表團을 구성하며, 의제는 쌍방에게 政治的 發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① 양 NOC간 (南北韓 올림픽위원회)의 스포츠관계, ② 1988年 제 24회 올림픽대회 등으로 「로잔느」에서 會談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같은 IOC측의 제의에 대해, 大韓올림픽위원회(KOC)측은 1985年 3月 31日 서울올림픽에 대한 IOC총회의 결정사항이 尊重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IOC주재하의 南北體育會談을 受諾하였으나, 北韓側은 제 24 회 올림픽 開催地를 변경해야 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동 제의를 계속 외면해 오다가 1985年 7月 6日, 돌연 태도를 바꾸어 同 會談에 참석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IOC 측은 7月 24日, IOC주재하의 南北體育會談이 「로잔느」에서 개최될 것임을 공식 발표하고, 8月 1日 제 1 차 회담일자(1985. 10. 8 ~10. 9)를 南北韓에 각기 통보함으로써 1984年 5月로 중단된 南北體育人간의 接觸이 IOC 주재하에 1년반만에 「로잔느」에서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

IOC 및 南北韓 올림픽위원회의 대표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제올림픽위원회 代表團〉

- 사 마 란 치 (IOC 위원장, 스페인)
- 시 베 르 코 (IOC 제 1 부위원장, 루마니아)
- 쿠 마 르 (IOC 제 2 부위원장, 인도)
- 바 이 츠 (IOC 제 3 부위원장, 서독)
- 가 프 너 (IOC 사무총장 대리, 스위스)
- 셰이크 파워드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회장, 쿠웨이트)

〈大韓올림픽위원회 代表團〉

- 首席代表 : 金 宗 河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 次席代表 : 張 忠 植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 代 表 : 崔 萬 立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 代 表 : 李 宗 夏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 代 表 : 任 台 淳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代 表 : 南 廷 文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北韓 올림픽위원회 代表團〉

團 長 : 김 유 순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副 團 長 : 진 충 국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代 表 : 한 장 은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代 表 : 안 복 만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代 表 : 조 명 황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代 表 : 장 응 (북한올림픽위원회 사무차장)

(2) 제 1 차 會談

IOC 주재하의 제 1 차 南北體育會談은 1985年 10月 8日~9日까지 2일간 IOC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느」에서 非公開리에 進行되었다.

「사마란치」 IOC委員長이 주재한 同 會談은 IOC측과 南北韓올림픽위원회 대표간의 3자합동회의가 2회, IOC측과 大韓올림픽위원회(KOC)간 개별회의 2회, 그리고 IOC측과 北韓올림픽위원회간 개별회의 2회로 進行되었다. 그러나 北韓側이 제 24 회 올림픽대회의 南北韓 共同主催案을 제시하고 이를 고집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10月 8일에 열린 제 1 일 회의에서 KOC측 金宗河 首席代表는 基調發言을 통해 제 24 회 올림픽대회의 개최권은 올림픽 憲章의 規定에⁴²⁾ 의거, 『IOC가 KOC와 서울시에 公式적으로 위임』하였으며, 따라서 『제 24 회 서울올림픽대회의 開催權과 대회조직에 관한 의무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既定事實』이라고 지적하고, KOC는 IOC가 부여한 특권에 따라 그 책임을 다할 것임을 먼저 분명히 하였다.

이어 金宗河 首席代表는 서울올림픽대회에는 『北韓의 體育人들도 올림

픽 憲章에 따라 모든 나라의 선수단과 똑같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문호가 활짝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올림픽 憲章과 우리의 올림픽 主權을 尊重하는 바탕위에서 北韓側이 참가하는 문제가 협의』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北韓側은 이날 회의의 첫 發言을 통해 IOC憲章과 올림픽 기본 정신에 배치되게 제 24 회 올림픽 경기대회를 南北韓이 공동으로 주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北韓側 김유순 대표는 『제 24 차 올림픽경기대회 장소문제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조선인민의 통일위업과 올림픽운동의 건전한 발전에 극히 위해로운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 24 회 올림픽대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南北韓이 각각 절반씩 나누어 경기를 치루어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細部方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北韓側 提案內容〉

1. 大會 主催

共同으로 主催하며,⁴³⁾

南北韓이 이 경기에 「유일팀」으로 출전

2. 大會 名稱

「조선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조선 平壤-서울올림픽경기대회」

3. 競技種目割當

平壤과 서울에서 각각 절반씩 나누어 진행

4. 開·閉幕式

할당된 종목에 따라 平壤과 서울에서 각각 진행

5. 自由往來 問題

- ① 선수들과 역원들, 記者들과 觀光客들이 陸·海上 운송수단 및 航空便을 이용하여 平壤과 서울 사이를 자유로이 왕래

② 자유로운 왕래를 위하여 平壤과 서울간의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며, 南浦港과 仁川港간에 旅客航路를 개설

③ 왕래자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하고 왕래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記者들과 觀覽客들에게 사증을 따로 發給하지 않고 통과지점에서 通過證을 發給

6. 텔레비전 放映權과 利益金 배당

放映權은 계약되는 데에 따르며, 利益金은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배당

7. 共同主權을 위한 常設機構

① 共同主權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南北共同常設機構를 구성

② 機構名稱은 「조선올림픽경기대회 共同組織委員會」 또는 「조선 平壤·서울올림픽경기대회 共同組織委員會」로 함.

한편 KOC측과의 個別會談에서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88올림픽대회의 서울 開催를 決定한 1981년 「바덴바덴」 IOC 總會決定을 尊重하고, 또 올림픽 憲章 및 IOC와 KOC간의 契約內容도 준수할 것이라는 IOC측 基本立場을 밝히고, KOC측에 대해 北韓側이 서울올림픽대회를 보다 뜻있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具體的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希望을 표시하였다.

이에 KOC측은 서울올림픽 組織委員會가 제 24 회 서울올림픽의 競技進行, 場所, 日程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큰 무리없이 재조정 가능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핸드볼 등 2~3개 종목의 예선경기를 北韓地域에 배정하는 문제와 남자단체 사이클 도로경기의 北韓地域 통과문제에 대해 검토의의를 표명하고, 아울러 南北韓의 開·閉會式 동시 입장과 올림픽기간중에 실시할 문화행사에 北韓側이 참여하는데 대해서도 歡迎한다는 입

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선수임원들의 南北韓 왕래문제, 競技運營에 필요한 물품수송문제, 通信網構成問題, 身邊保障問題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10월 9일에 속개된 제 2 일 회의에서 KOC측은 南北韓 단일팀 구성문제에 대해 그간 南北韓간에 國際競技大會에 단일팀을 구성·출전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體育會談이 板門店에서 몇차례 진행된 바 있으나 北韓側이 L·A올림픽 不參을 계기로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사실을 상기시키고, 『언제든지 南北 體育交流 문제와 단일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北韓側과 板門店에서 會談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北韓側은 제 2 차 3者合同會議에서도 非現實的인 南北韓 공동 개최안과 단일팀 참가만을 거듭 주장함으로써 제 1 차 「로잔느」會談은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제 2 차 會談을 1986年 1月 8日~9日 양일간 「로잔느」에서 갖는다는 데만 합의하고 끝났다.

이들간의 회의가 끝난 10月 9日 하오 IOC측과 南北韓 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사마란치」 IOC위원장인 記者會見을 통해 발표한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IOC의 제안에 따라 南北韓 NOC대표단은 1985年 10月 8日과 9日 스위스 로잔느 IOC本部에서 IOC대표단과 만났다.

이 會談의 개최목적은 제 24 회 서울올림픽에 모든 韓國國民이 참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방안을 摸索하자는 데 있었다.

會談은 「사마란치」 IOC위원장의 주재하에 友好的이고도 올림픽 정신에 입각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양측 대표단은 그들의 입장을 밝히고 提案을 내놓았다.

IOC는 이것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양측이 IOC憲章의 철저한 尊重과 1981년 84차 「바덴바덴」에서의 IOC결정사항의 遵守를 강조했다.

약간의 진전사항이 있기는 했으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後續會談이 필요하다고 IOC는 판단했다.

따라서 3者は 내년 1月 8日과 9日에 로잔느에서 다시 會談을 갖기로 동의했다.』

(3) 第2次 會談

1986年 1月 8日~9日 양일간에 열린 제 2 차 會談은, 제 24 회 올림픽대회 組織權限을 서울시에 부여한 1981년 IOC총회의 결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더 이상 會談議題가 될 수 없음을 전제로 IOC 執行委員會가 채택한 會談議題에 따라 진행되었다. IOC가 1985年 10月 23日 南北 쌍방에 통보한 議程은 다음과 같다.

- ① IOC위원장 환영인사
- ② 제 24 회 올림픽대회 開會式에서 南北韓 선수단의 共同入場問題 협의
- ③ 北韓地域에서 개최될 수 있는 자유종목의 협의
- ④ 양측의 관할지역을 사용하여 개최될 수 있는 종목의 협의
- ⑤ 文化行事に 北側이 참가하는 문제 협의
- ⑥ 協商 後續措置 및 IOC委員長 終結發言

그러나 제 2 차 會談에서도 北韓側은 IOC측이 제시한 議題와 背馳되게 제 24 회 올림픽 대회의 共同主催 및 단일팀 출전문제를 여전히 주장함으로써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사마란치」 IOC委員長은 첫날 회의의 인사말을 통해 제 24 회 올림픽대회의 개최장소가 이미 1981년 「바덴바덴」 IOC총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로 確定되었으며 그동안 서울과 IOC간에 諸般協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더 이상 再論의 여지가 없다는 IOC측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IOC로서는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 1984년 LA올림픽의 經驗에 비추어 올림픽 운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것이며 특히 分斷國家인 南北韓의 현실을 고려하여 北韓올림픽위원회가 제 24 회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번 會談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OC측 金宗河 首席代表는 基調發言을 통해, KOC측에 부여된 제 24 회 올림픽의 開催權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既定事實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再確認하면서 『올림픽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올림픽 憲章과 국제올림픽위원회 總會의 결정사항은 존중되어 왔고 앞으로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金宗河 首席代表는 北韓側이 올림픽 憲章과 IOC 총회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서울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것을 촉구하면서, ① 서울올림픽대회 開會式에 南北韓 선수단이 함께 입장하는 문제 ② 핸드볼 등 일부 남자단체 球技種目の 예선경기를 北韓地域 경기장에 배정하는 문제 ③ 南北韓 지역을 연결하는 싸이클 단체 도로경기를 실시하는 문제 ④ 서울올림픽대회 기간중 北韓側이 文化行事에 참가하는 문제 등을 KOC가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거듭 밝히고 이번 會談에서는 이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北韓側은 의제에서 제외된 「共同主催」주장을 다시 되풀이하고, 특히 議程 제 2 항 「올림픽경기대회 開會式에 南北韓 선수단이 공동으로 입장하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IOC주재하에 南北韓 단일팀 구성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 議題 外的인 문제만을 거론하였다.

金宗河 首席代表는 北韓側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측은 오래 전부

터 南北韓간의 體育交流문제와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문제를 협의하려고 노력』해 왔음을 상기시키고, 『단일팀 構成問題는 1988年 제 24 회 서울올림픽대회에만 局限시켜 협의할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번 會談의 의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지적, 『단일팀 構成問題는 어디까지나 南北韓 당사자들 사이에 直接會談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맡겨 두는 것이 合理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 2 일 회의에서의 개별접촉에서 「사마란치」 IOC委員長은 이번 會談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北韓側의 입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 제 3 차 會談을 6월에 가질 것을 제의해 오에 따라 KOC측은 北韓側이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共同主催 및 단일팀 구성 주장을 철회하고 IOC의 의제에 따라 진지하게 토의진행에 협조한다면 제 3 차 會談에 호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個別接觸 결과를 토대로 IOC측은 제 3 차 會談이 마지막 會談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1986年 6月 10日 ~11日, 양일간에 제 3 차 會談이 개최될 예정임을 3者 合同會議에서 발표하였다.

이어 金宗河 KOC측 首席代表는 이번 會談에서 IOC측이 채택한 의제에 기초하여 올림픽憲章과 그 정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北韓側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매우 現實적이고 合理的 제안을 내 놓았다고 말하고, 올림픽헌장과 IOC 총회결정을 존중하고 IOC가 정한 의제에 따라 토의를 진행한다면 北韓이 제 24 회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입장에서 앞으로도 진지한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北韓側도, 이번 會談에서 일부분제는 합의에 도달했으며, 나머지 문제도 더 研究·論議하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4) 第3次 會談

IOC 주재하의 제 3 차 南北體育會談은 1986年 6月 10日~11日 양일간에 걸쳐 제 1, 2차 會談때와 마찬가지로 「로잔느」의 IOC본부에서 비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제 3 차 會談에서 IOC측은, 제 1, 2 차 會談 및 南北韓과의 個別會談結果를 토대로 중재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受諾여부를 6월말까지 回信해 줄 것을 南北 양측에 요청함으로써 會談을 조속히 타결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北韓側은 종래 주장해오던 「共同主催」 및 「단일팀구성」문제를 거론치 않는 대신 올림픽경기의 南北分散 개최문제, 大會名稱, 組織委員會 및 文化行事등에 대한 무리한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會談의 타결展望을 여전히 흐리게 하였다.

6月 10日에 열린 제 1 일 회의에서 金宗河 首席代表는 그동안 KOC측이 올림픽주최의 榮光을 우리 겨레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에서 IOC측의 성의있는 중재노력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IOC측이 마련한 會談議題에 따라서 『제 24 회 서울올림픽대회에 北韓선수들이 보다 뜻있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方案들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金宗河 首席代表는 IOC측이 제 2 차 會談에서 제시한 4개항의 의제를 討議·解決하는데 성의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解決된다면 『제 24 회 서울올림픽대회를 통해서 南北韓의 相互開放이 이루어지고 신뢰와 平和的 關係를 마련하는 歷史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이번 會談의 성공여부는 우리 모두가 『올림픽 憲章과 국제 올림픽위원회 總會의 결정을 존중』하는데 있다는 점을 지적, IOC와 北韓側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北韓側은 종래 그들이 주장해 온 「공동주최」 및 「단일팀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言及하지 않는 대신 일부 競技種目的 北韓地域 開催權 확보에 주력하였다.

北韓側 김유순 단장은 지난 3月 IOC와 북한간의 個別接觸에서 南과 北이 경기를 나누어 개최하는 문제와 大會名稱, 組織委員會, 文化行事, 기타 올림픽 행사등에 관해 그들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하고, 『제 24 회 올림픽대회를 조직함에 있어 파생되는 기본문제』, 즉 北韓지역에 배정할 경기종목문제가 해결되면 기타 부수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北韓側의 이러한 태도는 종래 共同主催를 주장해 온 그들의 기본입장에 대한 변화라기보다 일부 경기종목의 北韓지역 開催權 확보를 통해 사실상 공동주최의 명분을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3者 合同會議에 이어 진행된 個別會議에서, IOC측과 KOC측은 北韓地域에 배정할 競技種目 문제에 대해 重點的으로 토의하였다.

IOC측은 KOC측에 대하여 결승전을 포함한 몇개 競技種目を 北韓지역에 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측의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KOC측은, 北韓側이 올림픽 憲章과 「바덴바덴」 IOC총회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제 24 회 서울올림픽대회에 무조건 참가할 것을 확실히 밝힌다면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결승전을 포함하는 2개 종목의 경기를 北韓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올림픽대회 開會式 入場問題

올림픽대회 開會式때 우측에는 우리측 선수가 3열로 우리의 유니폼을 입고 우리의 國旗를 들고 입장하며, 좌측에는 北韓側 선수가 3열로 그들의 깃발아래 그들 유니폼을 입고 行進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IOC측도 이에 贊同한 바 있다.

2. 決勝戰 포함 特定競技 北韓 배정문제

- ① 1, 2차 會談時에 제시한 바 있는 남자 배구, 남자 핸드볼, 일부 축구 예선경기의 北韓지역의 배정은 아직 北韓側으로부터 回答을 받지 못했으므로 北側이 이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 ② 北側이 올림픽 현장과 IOC 총회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제 24 회 서울올림픽대회에 무조건 참가하겠다는 태도를 확실히 밝힌다면 서울올림픽대회 組織委員會(SLOOC) 主管으로 決勝戰을 포함하는 2개 종목의 경기를 北側에 배정할 용의가 있다.
- ③ 北韓側에 배정할 수 있는 競技種目은 決勝戰을 포함하는 탁구와 양궁이다.
- ④ 우리측의 제안에 北側이 呼應한다면 競技場施設 확인문제, 인원왕래문제 및 왕래인원의 신분보장문제, 競技運營에 필요한 물품수송 및 통신문제 등을 協議·解決해야 할 것이다.

3. 南北韓地域 연결 경기실시문제

南北韓地域 연결경기로서 사이클 단체 도로경기를 北韓지역에서 출발하여 서울에 도착토록 하는 방안을 1, 2차 會談에서 제의한 바 있다.

4. 文化行事 참가문제

제 24 회 서울올림픽대회 기간중에 실시되는 각종 文化行事에 北側

의 참가를 환영한다.

5. 제 24 회 서울올림픽 呼稱問題

제 24 회 서울올림픽대회의 呼稱문제는 변경될 수 없다.

6. 경기종목 北韓 배정시 機構 구성문제

특정경기의 北韓 배정과 關聯하여 서울올림픽대회 組織委員會와는 별도로 다른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올림픽憲章에 違背되며, 고려될 수 없다.

6月 11日에 속개된 제 2 일 회의에서 「사마란치」 IOC委員長은 제 1 일 회의에서 제의한 바 있는 決勝戰을 포함한 탁구, 양궁 등 2개종목의 北韓 지역 개최문제, 도로 사이클경기의 南北韓지역 연결실시문제, 蹴球 예선경기 1개조의 北韓지역 追加配定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IOC측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서신을 통해 南北양측에 공식 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6월말까지 IOC측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마란치」委員長은, 南北韓이 동 중재안에 동의할 경우 實務接觸을 통해 諸般 관련사항을 협의한 후 제 4 차 會談을 소집하겠다고 밝히고, 10월로 예정된 IOC총회 이전에 모든 것이 解決되어야만 IOC총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IOC측 제안에 南北韓이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이틀간의 회의가 끝난 6月 11日 하오 記者會見을 갖고 제 3 차 會談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IOC주재하에 김종하·김유순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南北韓 NOC대표단이 1986년 6월 10일~11일간 IOC본부에서 제 3 차 會議를 가졌다.

1988년 제 24 회 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眞心으로 희망하는 쌍방 NOC 측은 協調的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폭넓은 토의를 갖고 상호 이견을 상당히 좁혔다.

IOC측은 올림픽 정신 및 1981년 「바덴바덴」 IOC총회 결정사항을 尊重한다는 기본정신으로 제 24 회 올림픽대회에서 예정된 몇몇 競技種目を 北韓側에 배정토록 제의하였는 바, 특히 決勝戰 포함 2개 종목을 北韓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제의하였다.

또한, IOC측은 추가종목의 부분적인 北韓지역 배정과 올림픽 관련 文化行事의 北韓側 참여를 제의하였다.

南北韓 NOC측은 이러한 IOC측 제안을 검토, 1986년 6월 30일한 원칙적인 수락여부를 IOC측에 통보할 것이며, 양측은 南北韓 지역의 競技開催 장소에 대한 모든 올림픽 가족의 자유왕래 보장을 이미 IOC측에 確約하였다.

양측 통보접수후 IOC측은 大會開催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상의 諸般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제 4 차 會談을 개최할 것이다.』

(5) 第 4 次 會談

IOC주재하의 제 4 차 南北體育會談은 제 3 차 會談이 개최된지 13개월만인 1987년 7월 14일 ~ 15일 양일간에 걸쳐 「로잔느」의 IOC本部에서 열렸다.

제 4 차 會談이 1년이상이나 지연된 것은, IOC측 중재안에 대해 北韓側이 『原則的으로는 受諾한다』고 하면서도 종목의 추가배정 및 경기의 組織 運營등과 관련, 일련의 요구조건을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1986年 6月 12日 「사마란치」 IOC委員長은 제 3 차 會談에서 밝힌대로 決勝戰을 포함한 탁구와 양궁경기를 北韓지역에서 개최하고, 南北연결 도로 사이클경기 및 蹴球 1개조 豫選競技를 北韓지역에 배정하며, 올림픽 관련 文化行事를 南北韓 양지역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이른바 IOC측

중재안을 담은 公式書翰을 南北韓 양측에 전달하였다.

이같은 IOC측 제의에 대해 KOC측은 1986年 6月 30日 北韓올림픽위원회측이 올림픽憲章과 1981年 「바덴바덴」 IOC總會의 결정사항을 尊重하고 제 24 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아무런 조건없이 참가할 것을 促求하는 입장에서 IOC측 중재안을 受諾하였다.

한편 같은 날 北韓側도 IOC측의 제의에 동의하여 卓球과 洋弓을 北韓地域에서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書翰을 IOC측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동 書翰에서 北韓側은 올림픽 競技種目이 24개입에 비추어 卓球과 洋弓등 2종목만을 北韓지역에 배정하는 것은 너무 적은 숫자라고 지적, 그들이 요청한 종목이 할애되도록 IOC측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제 4 차 會談에서는 大會名稱, 機構, 運營 등의 문제와 競技種目數에 대한 협의가 계속되기를 희망함으로써 IOC측 중재안에 대해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IOC측 중재안에 대해 北韓側이 이처럼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IOC측은 제 4 차 會談개최여부에 대한 北韓의 眞意를 타진하기 위해 4차례에 걸친 書信交換과 한차례의 接觸(1987. 2, 「로잔느」)을 가진 바 있으며, 이러한 接觸을 토대로 1987年 4월 KOC와 가진 個別接觸에서 제 4 차 會談을 열어 『懸案問題를 실질적으로 토의』할 것을 재의했다.

이러한 IOC측의 중재에 의해 열린 제 4 차 會談에서도 北韓側은 올림픽 경기의 南北韓 共同主催 등 종래 그들의 주장을 되풀이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南北의 인구비례에 따라 올림픽 競技種目的 1/3인 8개종목을 北韓지역에 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展開하는 등, 종전보다 오히려 梗塞된 입장을 보였다.

7月 14日에 열린 제1일 회의에서 KOC측 金宗河 首席代表는 먼저 『IOC측 중재안을 구체화하고 보다 발전시키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제4차 會談이 열리게 된 것을 歡迎하면서, 지난 3차례의 會談에서 서울올림픽대회를 歷史上 어느 대회보다도 훌륭히 치르기 위해 『아량과 인내심을 발휘하여 대회의 결실을 거두어 보려는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金宗河 首席代表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IOC중재안을 토대로 일부 競技種目的 平壤開催에 따른 올림픽 가족의 자유로운 南北韓 왕래보장문제를 비롯하여 組織·運營등 實務的이고 技術的 문제를 조속히 協議·解決』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北韓側이 이번 會談에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가할 것과 전세계 올림픽 가족에게 南北간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고, 서울에서의 공식 開·閉會式에 기꺼이 참가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會談의 원만한 타결에 협조』해 줄 것을 促求했다.

그러나 北韓側은 IOC측 중재안을 무시한채 제24회 올림픽경기의 南北韓 共同主催, 大會名稱, 조직위 구성문제 및 開·閉會式 문제등에 대한 그들의 종래 주장을 되풀이 했다.

北韓側은 蹴球 完全競技를 포함하여 8개의 完全競技를 北韓地域에 배정해야 하며 平壤에 따로 組織委員會를 구성하고, 開·閉會式을 서울과 平壤에서 균등하게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IOC측은 이날 오후에 가진 KOC와의 個別會議에서, 제3차 會談에서 그들이 제시했던 중재안을 약간 수정하여 『여자배구와 사이클 남자 개인 도로경기를 北韓지역에서만 개최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KOC측의 의견을 타진해 왔다.

KOC측은 이에 대한 答辯에 앞서 이번 제4차 會談이 기존 중재안의 具體的·實務的·技術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北韓側이 또다시 共同主權 문제를 거론하고 인구비례 운운한 것은 IOC중 재안을 무시하고 本會談를 原點으로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만약 北韓側이 共同主權 주장을 철회하고, 서울에서의 공식 開·閉會式에 참가하며, 모든 올림픽 가족의 南北間 자유왕래를 보장한다면, 「사마란치」 IOC委員長의 제의를 『肯定的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月 15일에 속개된 제 2 일 회의에서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제 4 차 會談에서 北韓 배정 경기종목에 「약간의 개선」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南北韓에 대해 이 「改善案」에 대한 수락여부를 1987年 8月末까지 IOC측에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후, 다음과 같이 共同聲明을 발표하고 제 4 차 會談을 끝마쳤다.

〈IOC側의 共同聲明 要旨〉

IOC는 올림픽 憲章에 따라 1981年 9月 30日 「바덴바덴」에서 제 24 회 올림픽대회 開催地를 서울로 결정한 사실을 再確認하였다.

제 24 회 올림픽대회의 成功과 모든 NOC의 참가를 보장하기 위한 IOC의 꾸준한 노력에 대해 모든 關係者들은 注目하기 바란다.

IOC는 4 차에 걸친 會談, IOC대표단의 平壤訪問 결과, 最近 國際競技聯盟(IF)과 各國 NOC들과의 협의에 근거, 既存 仲裁案을 수정하여 다음 경기종목의 조직을 北韓 NOC에게 부여한다.

- ▲ 탁구·양궁(남·여). 여자배구
- ▲ 축구 예선 1개조
- ▲ 사이클 남자 개인 도로경기

IOC제안에 대해 양 당사자는 제 24 회 올림픽대회 招請狀을 1987年 9月 17日까지 IOC가 각 NOC에 발송하는 사실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빨리 「로잔느」 IOC본부에 회신해야 한다.

IOC는 IOC의 제안이 올림픽 운동 歷史上 例外的이고 前例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6) 北韓의 會談中斷 宣言

1987년 7월 16일 「사마란치」 IOC委員長은 제 4 차 會談에서 제시한 IOC측의 수정 중재안을 담은 서한을 南北韓 양측에 공식 전달했다.

金宗河 대한올림픽위원회(KOC) 委員長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IOC측은 1981年 9月 30日 「바덴바덴」에서 올림픽 憲章에 따라 제 24 회 올림픽대회를 開催하는 榮光은 「서울시」에 부여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종전의 IOC측 제안을 修正, 決勝戰을 포함한 洋弓 및 卓球경기와 여자 排球競技, 蹴球 1個組 豫選競技 및 사이클 남자 개인 도로경기를 北韓地域에 배정할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KOC측은 1987年 8月 17日 IOC측에 回信을 보내고, 北韓側이 그들의 공동주최 주장을 철회하고 南北자유왕래를 보장하며 서울 開·閉會式에 무조건 참가할 것을 약속한다면 IOC측 수정 중재안을 수락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北韓側은 1987年 8月 4日 김득준 北韓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한 담화에서, IOC측이 제 4 차 會談에서 제시한 調整案은 『종래의 제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우리의 공동주최 요구와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함으로써 IOC측 수정 중재안에 대해 1차 부정적 反應을 보였다. 또한 8월 11일에는 진충국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記者會見을 통해, IOC측이 제시한 수정 중재안에 대한 그들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同 記者會見에서 北韓側은 ① 올림픽 競技種目중 5개의 完全競技種目과 1개의 不完全競技를 北韓地域에서 개최할 것과 ② 제 5 차 會談에서는 北

韓地域에 배정할 종목문제 뿐만 아니라 경기대회의 명칭문제, 組織委員會 구성문제, 開幕式과 閉幕式문제, TV放映權 問題등을 包括적으로 토의하며, ③ 제 24 회 올림픽 경기대회 招請狀이 발송(9월 17일)되기 이전인 8월중에 제 5 차 會談을 개최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특히 北韓側은 北韓地域 配定競技種目으로, 決勝戰까지 포함한 탁구, 양궁, 여자배구 및 축구의 전 경기외에도 싸이클 도로경기 대신 다른 종목의 전 경기와 또 다른 1개 종목의 추가배정 등 과도한 요구를 함으로써 IOC 측의 仲裁努力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8월 24일 IOC측이 『北韓側이 수정 중재안을 수락할 경우에 한해서 제 5 차 會談을 開催』하겠다는 입장을 北韓側에 통보하자, 北韓側은 8월 31일 「사마란치」 IOC委員長 앞으로 答信을 보내 IOC측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제 5 차 會談을 開催할 것을 촉구하면서 9월 17일 이전에 제 5 차 會談 開催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 24 회 올림픽 경기대회 招請狀 發送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IOC측은 9월 4일, 北韓側에 재차 서한을 보내고 『IOC측 중재안을 北韓側이 수락할 경우에 한해서만 제 5 차 會談이 가능』하다는 종래 입장을 거듭 確認하는 한편, 北韓側의 招請狀 發送 연기요청에 대해서도 이는 올림픽 개최 1년전에 招請狀을 발송해야 하는 올림픽 헌장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 北韓側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한편 北韓側은 IOC중재로서는 그들의 「올림픽 共同主催」 요구가 관철되기 어렵다고 판단, 「로잔느」 會談은 일단 유보한채 南北間의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金宗河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9월 12일자 김유순 北韓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한에서 北韓側은 「로잔느」회담의 교착이 『南北間의 입장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먼저 남북간에 雙務會談을 열어 쌍방간의 차이점을 줄인 후에 제5차 會談을 개최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기본방도라고 주장하면서 『로잔느 3者 共同會議의 테두리 안에서』 南北雙務會談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北韓側의 이러한 태도는 「로잔느」會談에서 그들이 주장해 온 「共同主催」 실현이 어려울 뿐 아니라 招請狀이 발송되고 나면 「共同主催」 명분자체가 현저히 약화될 것을 예상, 시간의 촉박성을 내세워 南北雙務會談 개최를 제의함으로써 그들이 마치 현안문제 타결에 성의가 있는듯이 과시하고 IOC 중재안을 수락하지 않은데 대한 내외의 비난여론을 모면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로잔느」會談 결렬의 책임을 韓國側에 전가하려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한올림픽위원회는 9월 24일 北韓側에 書翰을 보내 南北雙務會談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北側 논리의 不當性を 지적하고, 제24회 올림픽대회 參加申請 마감일이 4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北韓側이 IOC 중재안을 조속히 수락함으로써 「로잔느」會談이 성공적으로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동 서한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제24회 올림픽대회가 『1981년 「바덴 바덴」 국제올림픽위원회 總會 決定에 의해 서울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競技種目の 平壤 配定問題를 협의하기 위한 「로잔느」會談에 임한 것은 국제올림픽운동의 活性化를 도모하고 南北關係 改善과 民族和合에 寄與하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올림픽위원회측은 北韓이 『「로잔느」會談의 교착원인이 마치 南北間의 입장차이에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南北올림픽위원회간의 會談을 갖자고 제의함으로써 문제를 다른데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

하고, 『「로잔느」會談에서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南北間 自由往來問題 등 여타 절차문제들은 南北올림픽위원회간의 會談에서 응당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올림픽위원회측의 이러한 立場表明에도 불구하고 北韓側은 10월 12일 또다시 南北間 雙務會談의 개최를 재촉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대한올림픽위원회측은 『「로잔느」會談에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제반절차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 올림픽위원회간 會談도 진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기본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北韓側은 제 24 회 올림픽 共同主催와 관련, 그들 주장의 관철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자 1987년 10월 23일 談話를 발표하고, 현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는 한 올림픽 공동주최 문제는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會談의 사실상 中斷을 宣言하였다.

북한올림픽위원회 김유순 위원장 명의의 談話에서 北韓側은 12월 16일의 대통령 선거결과 南韓의 民主勢力이 집권하게 되면 단일팀을 구성하여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 共同主催문제도 무난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IOC측에 대해 大韓民國의 대통령 선거결과가 나올 때까지 雙務會談과 제 5 차 「로잔느」會談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제 13 대 大韓民國 大統領選舉가 끝나는 1987년 12월 이후에는 제 24 회 올림픽경기대회와 관련하여 협의를 갖는다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北韓側이 그때까지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한 것은, 會談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해서라기 보다는 그간의 회담부진의 책임을 大韓民國側에 전가시키는 한편, 당면한 大韓民國 大統領

領 選舉期를 틈타 南韓사회내에 混亂을 조성해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1988년 1월 12일 北韓側은 『南韓이 단독으로 강행하려는 올림픽경기에 는 불참할 것이며 「南北連席會議」에서 올림픽공동주최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입장을 선포할 것』이라는 공식성명을 냄으로써 北韓側의 올림픽 不參方針을 확인했다.

이로써 서울올림픽 競技大會에의 北韓 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85年 10月이래 2년간 계속되어 온 IOC 및 南·北韓 3者間의 「로잔느」 體育會談은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大韓民國側은 이후에도 北韓側의 서울올림픽 참가를 위해 IOC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올림픽憲章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양보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1988년 9월 17일 開會式前까지도 門戶를 열어놓았으나, 北韓側은 끝내 민족화합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동참하기를 거부했다.

4. 對話의 膠着과 南北韓關係 動向

가. 對話膠着의 背景

1986年 1月 20日, 北韓側은 1月 22日로 예정된 제 6 차 南北經濟會談을 불과 이틀 앞두고 돌연, 長文의 성명을 발표하고 2월 10일부터 실시된 「팀·스피리트 86」 韓·美 年例 合同軍事訓練을 구실로 진행중인 대화의 중단을 一方으로 선언했다.

南北經濟會談 代表團, 南北赤十字會談 代表단 및 南北國會會談 예비집측 대표단 등의 공동명의로된 同 聲明에서 北韓側은 「팀·스피리트」 훈련이 北韓을 『선제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 연습』이라고 규정, 동 훈련이 끝나고 會談분위기가 좋게 마련되는 때에 가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對話中斷의 책임을 韓·美 양측에 전가하였다.

이에 大韓民國側은 같은 날 하오, 權正達 國會會談 豫備接觸 首席代表, 金基桓 經濟會談 首席代表 및 李榮德 赤十字會談 수석대표의 합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미 쌍방이 합의한 모든 會談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北韓側에 촉구하였다. 또한 『北韓側이 진정으로 緊張緩和와 통일을 원한다면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대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호응해 나옴으로써 南北間의 信賴構築에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밝히고, 관례적인 軍事訓練을 구실로 삼아 예정된 會談의 개최를 거부하는 北韓側 태도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팀·스피리트」 訓練은 방어를 목적으로 한 平和維持 訓練이며, 과거 10년 동안에 걸쳐 계속 실시되어 온 年例의인 것으로서, 올해에도 있을 것임이 새갈래의 南北會談에 대한 쌍방간의 日字 合意가 이루어질 때에 이미 豫見되었던

것이다.

軍事訓練으로 말하면 이는 軍隊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면 세계 어느 나라 이기간에 당연히 실시하는 것이 상식이며, 軍事訓練을 하지 않는 軍隊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非正常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軍事訓練을 비밀리에 하는가 公開的으로 하는가, 攻擊的인가 防禦的인가에 있으며, 이에 따라 政세를 緊張시키는가 또는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인가에 있는 것이다.

「팀·스피리트」訓練이 北韓側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大韓民國側이 北韓側에게 그 실시내용과 訓練期間을 과거 여러차례에 걸쳐 正式으로 事前通報해 왔으며 또한 參觀까지도 초청해 왔다는 사실에서 입증되고 있다.

北韓側은 지난해만 해도 非武裝地帶 일대에서 연대급 및 사단급 軍事訓練을 실시하고 北韓 전지역에 걸친 대규모의 各兵科 군대가 참가하는 軍事訓練을 실시하면서도 그것을 公開的으로 발표하거나 우리측에 통보해 온 사실이 없다.

北韓側의 軍事訓練이 이처럼 비밀리에 실시되고 있는 점과 非武裝地帶 일대에 攻擊的인 武力을 증가하고 있는 바로 그 점이 우리측으로 하여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防禦的 軍事訓練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北韓側이 관례적인 軍事訓練에 대해 시비 하면서 예정된 會談을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正當化될 수 없으며 대화앞에 人爲的인 障礙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南北은 과거 쌍방의 軍事訓練이 실시되는 기간중에도 南北總理會談을 위한 實務代表 接觸등 여러차례에 걸쳐 會談을 가진 바 있으며, 가까운 예로는 「팀·스피리트」훈련이 진행중인 1984년 4월초 南北體育會談을 시작할 때에는 北韓側은 이를 會談과 관련지어 시비하지 않았다.

北韓側은 84年 11月 23日 板門店 銃擊事件을 挑發하고서도 그 책임이 마치 大韓民國側에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면서 예정된 南北經濟會談을 유산시켰을 뿐 아니라 작년초에도 연례적인 軍事訓練을 非難하면서 이미 날짜까지 합의한 經濟會談과 赤十字會談의 개최를 거부한 바 있다.

南北間의 긴장상태는 北韓側의 주장처럼 우리측의 軍事訓練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40년간의 分斷狀態에서 누적된 相互不信과 敵對關係의 결과이다.

南北對話를 成功的으로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에 신의를 지키고 信賴를 蓄積하는 일이며 그것은 쌍방간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는 대화자세를 갖는데서 부터 具現되어야 한다.」⁽⁴⁾

「팀·스피리트」訓練期間中 南北對話 開催事例

훈련 시기	남북대화 개최 사례
'79. 3. 1~3.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탁구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2 차 회담 ('79. 3. 5) - 제 3 차 회담 ('79. 3. 9) - 제 4 차 회담 ('79. 3. 12) ○ 남북조절위 서울측 대표와 북한측 「祖國戰線」 대표간의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2 차 접촉 ('79. 3. 7) - 제 3 차 접촉 ('79. 3. 14)
'80. 3. 1~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 대표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3 차 접촉 ('80. 3. 4) - 제 4 차 접촉 ('80. 3. 18) - 제 5 차 접촉 ('80. 4. 1) - 제 6 차 접촉 ('80. 4. 18)
'84. 2. 1~ 4월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차 남북 체육 회담 ('84. 4. 9)

그러나 北韓側의 對話中斷 의사는 확고불변한 것이었다. 1月 21日 北韓側은 이성록 南北經濟會談 北側 대표단장 명의로 제 6 차 南北經濟會談의 연기를 大韓民國側에 공식 통보하고 1月 22日로 예정되었던 제 6 차 南北經濟會談을 유산시켰다. 또한 赤十字會談 및 國會會談 예비접촉에 대해서도, 같은날 北側 會談 대표단장 명의로 電話通知文을 각기 大韓民國側에 보내 제 11 차 南北赤十字會談 (1986. 2. 25~2. 28 : 平壤)과 제 3 차 南北國會會談 예비접촉(1986. 2. 18 예정)의 中斷을 통보, 大韓民國側의 거듭된 회담개최 促求에도 불구하고 진행중인 南北對話들을 모두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나. 大韓民國의 對話再開 努力

(1) 既存對話 再開 努力

赤十字·經濟會談 등 쌍방간에 합의한 일련의 會談日程을 北韓側이 일방적으로 연기시키고 大韓民國側의 거듭된 再開촉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大韓民國側은 중단된 대화의 재개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1986年 3月 26日 赤十字會談, 經濟會談 및 國會會談 豫備接觸 등 각 會談 首席代表들은 (經濟會談 首席代表는 金基桓 海外協力委員會 企劃團長에서 文煥甲 經濟企劃院 次官으로 교체되었으며 1986. 3. 24 北韓側에 통보하였음) 각기 北韓側에게 電話通知文을 보내고 쌍방간에 합의된 會談이 北韓側의 일방적 연기로 유산되어 아직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經濟會談은 4月 30日, 國會會談 제 3차 豫備接觸은 5月 14日 板門店에서 각각 개최하고, 제 11차 赤十字會談은 5月 27日 平壤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北韓側은 3月 31日 國會會談 豫備接觸 北側 대표단장 전금철, 그리고 4月 1日에는 經濟會談, 赤十字會談 北側 대표단장 명의 등으로 각기 電話通知文을 보내고, 「팀·스피리트」 훈련이 계속되고 있음을 문제삼아 大韓民國側의 대화재개 제의를 또다시 거부하였다.

또한 北韓側은 4月 24日에도 「팀·스피리트」 訓練終了와 때를 같이하여 「南北會談 北側 代表團 共同聲明」을 발표하고 大韓民國側의 常時 軍事訓練과 韓·美 安保協議會 등을 비난하면서 對話再開를 거부하고 對話中斷

의 책임을 오히려 大韓民國側에 전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北韓側은 6月 9日 (6月 17日 편지전달) 돌연 南北韓 國防長官과 駐韓 유엔군司令官이 함께 참가하는 「3者 軍事會談」의 개최를 제의하고 同 會談이 진전되면 기존의 南北對話에 『劃期的인 局面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3者 軍事會談의 개최를 기존대화 재개의 前提條件으로 내세우는 부당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大韓民國側은 1986年 7月 11日 다시금 北韓側에 電話通知文을 보내고, 그간 대화재개를 계속 외면해 오고 있는 불성실한 태도를 시정, 北韓側이 무조건 南北對話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각 會談 首席代表 명의로 北韓側에 전달한 電話通知文에서 大韓民國側은 제 6 차 經濟會談은 8月 6日, 國會會談 제 3 차 예비접촉은 8月 13日 각기 板門店에서 개최하고, 제 11 차 赤十字會談은 8월 28일 平壤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대화재개를 위한 大韓民國側의 이러한 일관된 노력에 대해, 北韓側은 분야별 會談代表團 명의로 성명을 각기 발표하고 이에 호응하기를 거부하였다.

北韓側의 이같은 대화거부 태도로 말미암아 「팀·스피리트」 훈련이 끝나는 시기에 가면 대화가 다시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輿望은 무산되고 南北關係는 다시금 惡化되어 대화가 언제 재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2) 南北 水資源當局會談 提議

1986年 10月 21日 北韓은 이른바 「大自然 改造」라는 미명하에 江原道 이북지역 일원에 金剛山發電所 建設에 착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간 北韓側의 金剛山發電所 建設이 강원도 이남지역에 미칠 문제점들

을 예의 검토해 온 大韓民國側은 10月 30日 李圭孝 建設部長官 명의의 對北聲明을 발표하고 北韓側의 金剛山댐 建設이 야기하게 될 기상·생태 및 經濟·軍事的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 하천이용에 관한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國土의 平和의 이용에 逆行하는 北韓側의 金剛山 發電所 建設計劃을 즉각 중지할 것을 促求했다.

李圭孝 建設部長官의 聲明內容은 다음과 같다.

『北韓側은 최근 江原道 以北一圓에 이른바 金剛山發電所를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의 軍兵力을 투입, 공사를 착수했으며 이를 단기간내에 완공하겠다고 報道機關을 통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北韓側의 이와같은 發電所 建設計劃은 그들의 발표와는 달리 우리측에는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北韓側이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이 發電所는 北韓에서 가장 큰 發電所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로 미루어 發電所 규모는 최소 80만kw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래 水力發電所 건설의 입지조건은 풍부한 수자원과 낙차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金剛山發電所는 설계상 北韓地域을 흐르는 北漢江의 水資源을 최대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休戰線 바로 북쪽에 北漢江 本流와 金剛川이 만나는 合流地點 下流에 댐을 건설하고 또 淮陽地域에서 30~60km 구간의 터널水路를 굴착, 이를 통해 저수한 물을 元山지방으로 逆流시켜 이 지역에 생길 300m 이상의 自然落差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려는 계획으로 分析되고 있다.

이 發電所 건설계획에 대해 우리가 크게 우려하는 문제는 먼저 北漢江 上流의 水資源을 남에서 동북방향으로 逆流시키게 됨으로써 北漢江 水系로 부터 南쪽 化천방면에 유입되어온 연간 18억톤 정도의 工業·農業·生活用水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아울러 華川 이남 5개댐의 발전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 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볼 때 한강의 중요한 발원지인 北漢江 상류를 逆流시

킴으로써 금강산, 설악산 등 韓半島 동부지역의 自然生態系 破壞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더우기 깊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北漢江의 水資源을 元山쪽으로 逆流시켜 300 m 정도의 自然落差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댐수위가 350 m 이상을 유지해야 하므로 이 댐의 높이는 적어도 200 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렇게 될 때 이 댐의 최대 저수능력은 무려 200억톤에 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방대한 양의 물을 담고 있는 댐의 自然的 또는 人爲의 破壞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 댐이 우리측에 潛在的 威脅을 주게 되는 시기는 9억톤 내외의 물을 저수할 때 부터이며 이 댐이 붕괴될 경우를 가상한다면 초당 30만톤의 급류가 放流되어 華川 이남 우리측 5개댐의 보호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경우 엄청난 水量이 일시에 팔당을 거쳐 한강하류로 유입됨으로써 지난 1984年 9月 한강 洪水때의 10배에 달하는 물이 漢江堤防을 넘쳐 首都圈 一圓을 포함한 한강 전유역을 가공할 水魔가 뒤덮게 될 것임은 自明한 것이다.

9억톤의 물이 주는 피해가 이렇진대 200억톤의 물을 담은 거대한 댐이 무너질 경우 물이 급류를 형성하여 화천으로 유입되고 華川 이남 5개댐을 순식간에 차례로 破壞하면서 漢江下流 전역을 엄습, 강원, 경기, 서울을 포함한 韓半島의 허리부분을 완전히 황폐화하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災害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北韓 當局이 추진하고 있는 金剛山發電所 건설계획이 河川이용에 관한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國土의 平和의 이용에 逆行하는 것으로 단정하면서, 특히 이 댐의 안전문제는 바로 우리의 死活이 걸린 최대 관심사임을 분명히 지적하며 南北으로 貫流하고 있는 水源의 이용문제가 北韓當局의 일방적인 목적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 아님을 명백히 밝혀둔다.

따라서 우리는 金剛山發電所 建設計劃은 당장 중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며 北韓當局이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입장에 동의할 것을 강력히 促求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政府는 北韓側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적절한 對備

策을 철저히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 밝히는 바이다.⁴⁵⁾

그러나 北韓側은 11月 4日 전력공업위원회 資源開發局長 명의의 談話를 발표, 大韓民國側의 항의를 一蹴하였다.

同 談話에서 北韓側은, 金剛山發電所 건설계획은 『金剛山 일대의 水資源을 개발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平和的 建設事業』으로서 이는 洪水피해의 방지등 南側에도 『유익한 점들이 많다』고 주장하는 한편, 금강산담 건설문제는 北韓의 『내부문제이며 제 3자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함으로써, 동 담 건설이 南北間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北韓側이 이와 같이 金剛山담 건설계획 중지를 촉구한 10月 30日 大韓民國의 제의를 정면 거부하고, 南北間의 협상 가능성마저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大韓民國側은 동 담 건설공사의 中斷을 北韓側에 거듭 종용하는 한편, 대화를 통한 분쟁해결 노력을 일관되게 경주하였다.

大韓民國側은 1986年 11月 6日 李基百 國防部長官 대북성명과 11月 21日 李雄熙 文公部長官 대북성명을 통해, 北韓側의 金剛山담 건설에는 분명히 『軍事戰略的 저의』가 있음을 지적하고, 北韓側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하거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11月 26日에는 國防部, 建設部, 文化公報部 및 國土統一院 등 關係 4部長官의 合同談話를 발표하고, 金剛山담에 대한 對應책을 建設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발표하였다.

同 4部長官 談話에서 大韓民國側은 金剛山담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위조치로써 北漢江 水系의 남쪽에 對應담(평화의 담)을 建設하기로 했으며, 만약 北韓側이 담 建設을 중지한다면 南北韓 共有河川

의 水資源 이용에 따른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였다.

關係 4部 長官의 合同談話文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政府는 최근 北韓側이 金剛山發電所를 위한 대규모 댐 건설을 통해 가공할 대남 水攻武力을 확보하려는데 대해 그들의 軍事的 저의를 명백히 지적하고 民族 共同繁榮의 次元에서 동 건설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강력히 促求한 바 있습니다.

또한 北韓側의 이같은 일방적 댐 건설계획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화같은 糾彈輿論이 전국 坊坊曲曲에서 비등하고 있으며 海外言論을 중심으로 한 國際社會의 여론도 北韓側의 무모한 침공계락을 날날이 폭로하면서 분노하는 세계의 표정을 연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北韓側은 이러한 내외의 糾彈輿論에 아랑곳 없이, 오늘 이 시각에도 댐 建設工事を 강행하고 있으며 동 공사에 대한 일언반구의 言及도 없이 도리어 뻔뻔스럽게도 우리측의 「모함운운」이라고 날조선전을 자행하면서 민족과말의 죄과를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政府는 지금까지 北韓側의 肯定的 反應을 기다리면서 國民生存權 守護의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응책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심도깊은 연구분석과 국민전체의 한결같은 여망 및 안보위기 극복의 지혜를 최대한 수렴하여 거국적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 왔습니다.

따라서 政府는 北韓側이 強行하고 있는 金剛山댐 축조의 가공할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정당한 國家保衛的 自위조치로써 北漢江 水系の 남쪽에 그들의 水攻을 예방할 수 있는 대응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방대한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政府는 이에 따른 대응댐 건설의 技術的 檢討, 所要豫算의 確保 등 그 준비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政府는 이같은 대응조치가 국민 모두의 한결같은 굳건한 안보 의지에서 始發되고 있다는데 대해 크나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며 北韓側의 水攻에 의

한 또 하나의 赤化野慾을 無實化시키는 「평화의 댐」 건설에 온 국민의 聲援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政府는 北韓側이 民族的 良心으로 돌아와 무모한 國力消耗戰을 포기하고 民族和解와 相互信賴를 바탕으로 民族 共同繁榮의 大道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만약 北韓側이 金剛山댐 건설사업을 중지한다면 南北韓 共有河川의 水資源 이용에 따른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闡明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民族愛의 충정에 대해 北韓當局이 肯定的으로 호응해 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北韓側의 平和破壞 陰謀와 民族自害策動 앞에서 더욱 굳건한 단합의 자세로 이를 분쇄하고 우리의 生存과 國家安保를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이같은 위기앞에 政府와 國民은 한 덩어리가 되어 슬기와 용기를 발휘하여 北韓共產集團의 對南挑發에 직면한 難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⁴⁶⁾

또한 大韓民國側은 1986年 11月 28日 李圭孝 建設部長官 명의의 서한을 北韓 정무원 電力工業委員長 앞으로 보내고, 南北 水資源當局會談을 열어 共有河川의 합리적 개발·이용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北韓側은 1986年 12月 25日, 金剛山댐 建設과 관련하여 이른바 「電力工業委員會 白書」라는 것을 발표하고, 동 댐의 건설이 南側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강원도 一圓의 洪水被害를 없애주는 등 오히려 유익한 점이 많다는 從來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이에 대해 大韓民國側은 1987年 1月 16日 建設部長官 명의의 對北聲明을 통해 南北 水資源當局會談의 개최를 거듭 촉구하고, 北韓側이 金剛山댐 建設을 포기한다면 이로인한 損失에 대해 보상할 용의까지 있음을 밝혔다.

大韓民國側은 동 성명에서 1986年 12月 25日 北韓側이 발표한 金剛山댐

建設關聯 白書는 水攻威脅을 은폐하기 위한 것임을 지적하고, 댐건설과 관련한『立地條件, 安全性, 規模 등 技術·實務的 현안문제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南北韓 關係專門家들로 共同調查團을 편성,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의했다.

또한『北韓側이 水資源의 공동이용과 공동조사를 위한 대화에 성의를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 北漢江 水資源의 逆流 計劃을 포기한다면』그로 인해 받게 되는 北韓側의 電力損失量에 대해 충분한 報償과 電力供給을 해 줄 용의가 있음도 아울러 闡明했다.

大韓民國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댐 건설에 따라 필연적으로 고조될 南北間 緊張狀態와 무모한 國力消耗戰을 어떻게 해서든지 未然에 방지하고, 民族共同繁榮의 길을 摸索해 보려는 일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側은 大韓民國側의 제의를 끝내 외면했으며, 南北 水資源當局會談 開催를 제의한 1986年 11月 28日 對北書翰에 대해서 이를 접수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이에 大韓民國側은 金剛山댐 建設問題의 「對話와 協議」에 의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1987年 2月 28日 금강산댐 건설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평화의 댐」을 착공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南北韓間에는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었다.

(3) 南北總理會談 提議

北韓側이 3자군사회담에 이어 南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의 우선 개최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盧信永 國務總理와 李基百 國防部長官은 1987年 3月 17日 북한 정무원총리와 인민무력부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고 南北總理會談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동 서한은 北韓側이 1987年 3月 3日 (2월 28일자) 南北高位級 政治·軍事會談 개최를 되풀이 주장해 온데 대한 答信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동 서한에서 大韓民國측은 『南北間 관계개선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平和統一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시급히 타개하고 南北間에 初步的이고 실질적인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南北水資源會談과 중단된 기존대화를 즉각 재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大韓民國側은 이러한 南北關係改善을 통해 상호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조성된 바탕위에서 南北總理會談을 개최하여 南北間의 제반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을 北韓側에 제의하였다.

盧信永 國務總理와 李基百 國防部長官의 대북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3월 3일 귀측에서 보내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남북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南北間 신뢰관계의 회복과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南北間 관계개선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평화통일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이번 편지에서 정치·군사회담이 열려야만 기존 南北對話를 재개할 수 있다고 했을 뿐 아니라, 정치·군사문제까지도 토의할 수 있다고 한 우리측의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 제의에 대해서 마저도 政治·軍事會談이 열려 성과적으로 進行되어야 개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을 회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와 같은 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비정상적인 南北關係를 더 이상 방치해 둘 경우 민족의 不幸과 苦痛만이 더욱 가중되

리라고 우려하면서 이를 타개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不信과 對決을 지양하고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 가려면 우선 신뢰의 바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귀측은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南北赤十字會談, 南北經濟會談 등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고 쌍방이 서로 약속한 합의사항을 파기하였으며 회담과 무관한 군사훈련문제를 회담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會談앞에 難關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상대방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金剛山댐 건설공사를 強行함으로써 南北間에 긴장을 더욱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귀측의 태도는 南北間에 불신과 反目を 심화시켜 왔고 이로 인해 오늘의 현실은 쌍방간에 우선 신뢰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南北間에 초보적이고 실질적인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새로운 緊張과 不信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귀측의 金剛山댐 建設問題와 관련하여 南北水資源會談을 지체없이 개최하고 南北共有河川의 수자원 이용과 개발에 관한 문제를 협의·해결하는 한편 중단된 既存對話를 무조건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南北水資源會談과 중단된 기존대화가 열려 相互信賴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조성된 바탕위에서 南北總理會談을 개최하여 쌍방이 제기하고 있는 南北間의 관계개선과 緊張緩和에 필요한 諸般問題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을 貴側에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여 南北總理會談이 열리면 이땅의 平和와 統一을 위해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될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을 조속히 실현시키는데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귀측이 진정으로 南北間의 관계개선과 平和統一을 바라는 겨레의 염원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우리측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우선 南北水資源會談을 3월중으로 板門店에서 개최하고,

4월중에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經濟會談을 平壤과 板門店에서 각각 열 것을 제의합니다.

회담은 빠를수록 좋으며 이들 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귀측에 일임하는 바입니다.』⁴⁷⁾

이에 대해 3월 30일 北韓側은 大韓民國側에 회신을 보내 南北總理會談 개최 제의에 동의하고,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예비회담을 1987년 4월 23일 板門店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北韓은 회담형식면에서는 總理會談을 수용하면서도 내용면에서는 總理會談에서 협의할 사항을 긴장완화에 필요한 諸般問題로 한정함으로써 종래 政治·軍事會談에서 논의하자고 한 상호비방 중상중지, 다각적인 교류와 합작문제등 政治的 대결상태 해소문제는 제외하였다.

뿐만 아니라 北韓側은 南北高位級 정치·군사회담을 재촉구한 3월 3일자 대남편지에서 표명한 바 있는 政治·軍事會談과 기존 대화를 병행 개최하고, 금강산발전소 문제도 토의가능하다고 한 종래의 입장을 후퇴시켜 「先 總理會談 開催」, 「後 既存對話 再開」 입장으로 태도의 변화를 보였으며, 政治·軍事會談을 제의할 때와는 달리 總理會談을 위한 豫備會談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것은 豫備會談 과정에서 그들이 政治·軍事會談에서 거론하려던 군비 축소, 「팀·스피리트」 훈련중지등 군사문제만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總理會談의 實現 여부는 大韓民國 國內政局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조정해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1987년 4월 10일 盧信永 國務總理는 이근모 북한 정무원 총리 앞으로 재차 서한을 보내고 南北水資源會談을 1987년 5월 6일 板門店에서,

6 차 南北經濟會談을 1987년 5월 12일 板門店에서, 제 11 차 南北赤十字會談을 1987년 5월 19일 平壤에서 각각 개최할 것을 제의함과 아울러 이들 회담이 개최되어 진전되면 가까운 시일내에 南北 總理會談 豫備會談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盧信永 國務總理의 대북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貴下의 3월 30일자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귀하가 우리측의 南北總理會談 제의에 호응해 올 뜻을 보인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측이 南北總理會談의 開催를 제의한 것은 南北間의 관계개선과 긴장완화를 통해 平和統一의 기반을 조성하고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려는 염원에서였습니다.

南北總理會談이 열려 성과적으로 추진되려면 귀측도 지난 3월 3일 보내온 편지에서 인정했듯이 쌍방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측은 지난번 편지에서 南北水資源會談과 중단된 南北赤十字, 經濟會談 등을 우선 개최하여 상호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조성된 바탕위에서 南北總理會談을 開催할 것을 提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이번 回答便紙에서 南北總理會談에 앞서야 할 南北水資源會談의 개최와 기존대화의 재개에 대해 외면함으로써 사실상 南北總理會談의 實現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南北間에 긴장과 대결이 심화되어 있는 것은 누적된 不信과 오랜 단절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과 단절을 해소하고 신뢰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나 또 80년대에 와서 거둔 모처럼의 회담의 성과로 보아서도 南北 서로가 성실히 그리고 중단없이 會談을 진행시키고 이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最善의 方途임을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처럼 모든 南北對話가 중단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이미 進行되어 오다가 귀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기존대화의 脈을 활발히 이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귀하도 이미 지난 3월 3일 보내온 편지에서 『중단된 여러 갈래의 南北會談을 다시 열고 南北最高位級會談을 개최하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하면서 중단된 南北對話 재개의 뜻을 밝힌 바 있음을 유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南北間 緊張激化의 源泉이며 서로간에 부질없는 소모만을 강요하게 될 금강산댐 건설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그 토의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이 문제가 지니고 있는 심각성과 切迫性으로 보아 南北水資源會談을 하루 빨리 개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南北水資源會談과 중단된 既存對話가 열려 상호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조성되면 南北總理會談의 준비도 순조롭게 進行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측은 南北水資源會談을 5월 6일 板門店에서 개최하고, 제 6차 南北經濟會談을 5월 12일 板門店에서 열며, 제 11차 南北赤十字會談을 5월 19일 平壤에서 가질 것을 貴側에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회담들이 개최되어 진전되면 가까운 시일내에 南北總理會談을 準備하기 위한 豫備會談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⁴⁸⁾

그러나 北韓側은 4월 24일 「정무원 대변인 성명」을 발표, 南北總理會談을 포함한 南北對話를 전면 거부하면서 對話中斷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였다.

동 성명에서 北韓側은 『非政治的 會談으로서의 南北間의 政治·軍事的 대결로부터 오는 불신과 反目을 해소할 수 없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大韓民國側의 對話提議를 南北間의 모든 대화를 거부하기 위한 『시한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非難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北韓側은 『이제 南韓 當局者들은 南北對話와 긴장완화에 대하여 더 이상 운운할 자격도 없게 되었으며, 南北會談을 재개할 수 있

는 절호의 機會마저 막아버린 反民族的 행위의 후과에 대하여 원천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4) 南北外務長官會談 提議

북한이 南北韓과 미국이 참가하는 多國的 軍縮協商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1987년 8월 3일 大韓民國 政府는 外務部 성명을 발표하고, 北韓側에 대해 유엔총회 개최 시기인 9월중 뉴욕 또는 편리한 장소에서 南北外務長官會談을 열어 양측의 모든 관심사를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동 성명에서 大韓民國側은 北韓側이 주장하는 南北間 軍縮問題 협의는 南北韓 유엔가입 및 주변 4강에 의한 교차승인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南北韓 교류협력의 실현을 통한 신뢰회복과 평화정착이 이룩되어야 그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한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하여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外務部의 對北聲明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는 민족화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온 겨레의 염원인 平和統一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으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南北韓 당사자간의 會談을 통해 협의·해결해 나가는 것이 겨레의 염원에 부응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믿고 있다.

평화와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이며 그 주체는 당연히 우리 民族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北韓側이 南北韓 關係改善과 긴장완화에 진정으로 關心이 있다면 그 토대가 되는 신뢰구축에 誠實性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동안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信賴回復을 위해 南北赤十字會談, 南北

經濟會談, 南北國會會談 예비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1985년 가을에는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까지 相互交換함으로써 흩어진 혈육간에 제회의 눈물을 흘리는 감격의 순간도 맛보았다.

더우기 이 가운데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經濟會談은 이제 쌍방이 조금만 양보하고 협력한다면 구체적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段階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北韓側이 1986년 1월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삼아 일방적으로 모든 會談을 중단시킨 채 3者 軍事當局者會談을 제의한데 이어 또다시 미국을 포함한 3者 軍縮協商을 제네바에서 갖자고 들고 나온 것은 南北韓 당사자 해결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南北韓間의 현안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南北赤十字會談, 南北經濟會談 등 그동안 北韓側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既存對話를 재개하여 성실히 발전시켜 나가면서 水資源會談을 하루속히 열어 相互信賴의 基盤을 다져 나가는데 있다.

또한 南北韓間의 군축문제 협의는 南北韓 UN가입 및 주변 4강에 의한 교차승인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南北韓 交流協力の 實現을 통한 信賴回復과 平和定着이 이룩되어야 그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南北韓의 군축문제는 한반도가 당면한 현실상황하에서 군사충돌 방지는 물론 平和維持를 위한 제도적 安全裝置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南北韓 不可侵協定 체결과 UN가입 및 교차승인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南北韓 外務長官會談」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

이 會談에서는 既存對話의 再開·發展과 水資源問題의 協議·解決 등 信賴構築問題와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 및 平和를 定着하기 위하여 軍縮을 포함한 諸般問題 그리고 南北總理會談을 成事시켜 궁극적으로는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 會談을 실현시키는 문제 등 兩側의 모든 關心事를 協議할 수 있을 것이다.

同 會談은 南北韓 外務長官이 금년 UN 總會에 참석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總會 開催 直後부터 9월末 사이에 뉴욕에서 開催하든가 또는 같은 시기에 相互 便利한 場所에서 開催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北韓側이 南北間의 信賴回復과 關係改善을 위한 우리의 충정을 올바르게 理解하고 이에 肯定的으로 呼應해 오기를 期待한다.』⁴⁹⁾

大韓民國側의 南北外務長官會談 제의를, 韓半島 통일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비록 分斷의 責任이 민족외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은 南北韓 當事者에게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특히 相異한 이념과 체제하에서 40년 이상 불신과 적대관계를 유지해 온 南北韓間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화해나 신뢰 구축의 선행을 필요로 하지만 南北外務長官會談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 軍縮을 포함한 諸般問題 등 양측의 모든 관심사를 협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北韓側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한 것이었다.

한편 北韓側은 1987년 8월 6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무장관도 함께 참가하는 3者 外務長官會談을 개최하여 軍縮問題등을 우선 협의할 것을 주장, 종래 그들의 3者會談을 되풀이함으로써 大韓民國側의 南北外務長官會談 제의를 거부하였다.

同 聲明에서 北韓側은, 大韓民國側이 南北外務長官會談을 개최하여 유엔가입과 교차승인문제 등을 논의하자는 것은 南北對話를 『나라와 민족의 분열을 영구화하려는데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韓半島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군축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北韓側은 軍縮問題의 해결에는 『駐韓美軍問題가 불가피하게 관련되므로 軍縮問題를 토의하기 위한 협상에는 반드시 미국이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도 함께 참가하는 3者 外務長官會談을 빠른 시일안에

제네바 또는 그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할 것과 이를 준비하기 위한 次官級 예비회담을 1987年 8月末이나 서로 합의하는 날자에 板門店에서 가질 것을 提議하였다.

특히 예비회담과 관련하여 韓·美 양국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美·北韓 및 南北韓間의 쌍무적 豫備接觸도 無妨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동 제의를 통해 對美 公式 接觸通路를 마련하기 위한 계기를 삼으려는 의도를 보였다.

이에 大韓民國 政府는 1987年 8월 13일 外務部 대변인 성명을 발표, 南北韓 및 美國이 참가하는 3자 外務長官會談의 개최를 주장하는 北韓側 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北韓側에 대해 南北外務長官會談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促求하였다.

동 성명에서 大韓民國側은 『南北韓間의 모든 문제는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직접 당사자인 南北韓間에 협의·해결되어야 하며』 北韓側이 주장하는 『軍縮問題協議는 南北韓 不可侵協定 체결, UN 가입, 주변 4장에 의한 交叉承認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強調하였다.

그러나 北韓側은 1987年 9월 24일 外交部 부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3者 外務長官會談을 열어 軍縮問題를 협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南北韓 次官級 豫備會談의 개최를 거듭 주장, 大韓民國側이 제의한 南北外務長官會談을 끝내 거부하였다.

다. 北韓側의 對話關聯 主張

(1) 3者 軍事會談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赤十字會談·經濟會談 등 1986년초에 개최될 예정이던 일련의 南北對話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大韓民國側의 거듭된 對話再開 促求에 불응해 온 北韓側은 1986년 6월 17일 (6월 9일자 서한) 人民武力部長 오진우 명의로 李基百 國防部長官에게 서한을 발송, 南北韓 國防部長官과 駐韓 유엔군 司令官이 참가하는 「3者 軍事會談」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동 서한에서 北韓側은, 현재 한반도의 정세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緊張과 戰爭 危險의 직접적 요인이 되고 있는 「軍事演習과 武力增強 中止問題」, 「兵力과 軍備縮小問題」, 「休戰協定 遵守問題」 등을 협의하기 위한 軍事當局者 會談을 7월중에 개최할 것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豫備接觸을 6월 27일 板門店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北韓側은 『軍事會談이 열리고 緊張緩和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다면 南北對話에도 획기적인 局面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3者 軍事會談」 개최를 사실상 經濟會談, 赤十字會談 등 다른 대화의 전제조건화 하였다.

北韓側의 서한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우리나라에 조성된 緊張된 정세는 우리 軍事當局者들로 하여금 民族과 세계앞에서 책임적인 緩和措置를 시급히 취해 나갈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도 아는 바와같이 40여년동안이나 分裂의 비운을 겪고 있는 우리 民族에게 있어서 나라의 평화와 平和統一을 실현하는 것보다 더 중대하고 절실한 과업은 없습니다.

겨레의 이 간절한 念願을 반영하여 지난해 北과 南사이에는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고 여러갈래의 會談들이 진행되었으며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民族 分斷이래 처음으로 赤十字藝術團과 故鄉訪問團이 교환되어 겨레의 아픈 마음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올해에 들어와 南北關係는 다시 대화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긴장상태는 일층 激化되어 南北對話들이 일시에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정세는 사실상 어떤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戰爭이 터질 수 있는 위험한 局面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戰爭이 일어나면 그것은 國土를 荒廢化시키고 온 민족을 核慘禍에로 몰아 넣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北에도 南에도 다같이 이로운 것이 없다는 점을 나는 귀하도 부정하지 않으리라고 認定합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戰爭의 危險으로부터 나라와 民族을 구원하는가 못하는가, 중단된 대화를 다시 잇는가 잇지 못하는가 하는 중대한 시기에 온 겨레와 인류는 우리들, 책임있는 軍事當局者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나는 朝鮮人民軍 최고 사령부의 평화발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戰爭危險을 가시기 위한 실제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책을 취하려는 진지한 念願에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人民武力部長과 大韓民國 國防部長官, 남조선 주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참가하는 軍事當局者會談을 가질 것을 귀하에게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軍事當局者會談에서는 무엇보다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戰爭危險을 막고 緊張狀態를 緩和하는데서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緊迫하고도 切實한 문제를 협의의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서는 緊張激化와 戰爭危險의 直接的 要因으로 되고 있는 軍事演習과 武力增強을 중지하는 문제, 兵力과 軍備를 축소하는 문제, 朝鮮停戰協定을 원안의 요구대로 준수하는 문제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會談에서는 이밖에 朝鮮半島의 긴장을 緩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귀하가 제기하는 문제들도 함께 토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會談場所는 板門店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그밖의 상호 편리하다고

보는 다른 곳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會談 개최날자는 7월중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나는 軍事當局者들이 會談을 마련하기 위하여 豫備接觸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각기 임명하는 3명정도의 實務代表와 적당한 수의 수원들로 오는 6월 27일에 板門店에서 豫備接觸을 가질 것을 아울러 제의합니다.

軍事當局者會談이 열리고 緊張緩和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다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의 새 전기가 마련되게 될 것이며 南北對話에서도 획기적인 국면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귀하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戰爭危險을 가시며 나라의 平和統一 위업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새로운 발기에 긍정적인 호응을 보리라라는 기대를 표시합니다.」

한편 北韓側은 6월 17일 大韓民國側에 書翰을 보낸 것과 같은 시간에 「립시」駐韓 유엔군 사령관 앞으로도 동일한 내용의 書翰을 전달하였다.

당초 6월 7일, 北韓側은 人民武力部長 명의의 書翰을 駐韓 유엔군 총사령관이 아닌 美 8軍 사령관겸 韓·美 聯合司令官에게 전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UNC측에서는 동 書翰의 手交는 軍事停戰委의 관례에 따라 유엔군 總司令官과 北韓軍 最高司令官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北韓側이 이러한 관례를 따른다면 北韓側 書翰을 접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7일 정작 北韓側은 軍 最高司令官이 아닌 最高司令官 제1대리인 人民武力部長 오진우 명의로 표기된 서한을 유엔군 총사령관 앞으로 보내오으로써 休戰協定 署名 當事者의 格과 그간의 慣例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진행중이던 대화를 一方的으로 중단시키고 이들 會談과는 다른 「3者 軍事會談」을 새로이 개최할 것을 제의한 것은 이를 통해 韓半島 問題를 성

실히 해결해 보겠다는 자세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음과 같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⁵⁰⁾

첫째,北韓側이 軍事訓練 中止 등 軍事問題 解決을 위한 南北韓 및 미국 간의 「3者 軍事會談」을 제의한 것은 이를 통해 그들이 1984년 1월이래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3者 會談」으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것이다.

둘째,北韓側이 經濟, 赤十字會談 등 기존의 南北對話 再開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軍事問題 해결을 위한 「3者 會談」을 제의하고 「軍事會談」이 잘 진전되어야 南北對話가 재개될 수 있다고 한 것은 南北對話 再開거부에 대한 내외의 非難을 모면하는 동시에 對話中斷의 책임을 大韓民國側에 전가하려는 것이다.

셋째, 시기적으로 보아北韓側의 「3者 軍事會談」 제의는 1986년 8월 26일~9월 7일간에 걸쳐 「짐바브웨」에서 개최될 非同盟 頂上會議과 9월 6일부터 8일까지 平壤에서 개최될 이른바 「韓半島 平和非核地帶化 國際會議」 등을 겨냥하여 南北對話 및 韓半島 緊張解消의 근본적인 障礙要因이 「팀·스피리트」訓練 및 駐韓美軍 등에 있다는 國際輿論을 조성함으로써 「팀·스피리트」訓練 中止, 駐韓美軍 撤收 등北韓側의 주장에 대한 國際的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이다.

한편 大韓民國側은 6월 24일 李基百 國防部長官 명의의 답신을北韓側에 전달하고 「3者 軍事會談」의 개최를 제의한北韓側 주장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 우선 經濟會談과 赤十字會談 등 기존대화의 재개에 호응해 나올 것을北韓側에 촉구하였다.

「나는 6월 17일 귀하가 보내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귀측도 아는 바와 같이 지난해 南北韓間에는 赤十字會談과 經濟會談 등 여러 갈래의 會談이 진행되었고 분단이후 처음으로 離散家族 故鄉訪問團과 藝術公演團을 상호 교환하게 되어 온 겨레를 기쁘게 해 주었을 뿐 아니라 南北韓 關係改善에 커다란 기대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 들어 귀측은 유감스럽게도 일방적으로 대화를 中斷시키고, 會談의 조속한 재개를 促求하는 우리측의 제의마저 거부함으로써 南北韓 關係를 다시금 불신과 긴장의 분위기로 몰아 넣어 平和와 統一을 갈망하는 南北의 온 겨레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측이 진행중이던 대화를 중단시켜 놓고 軍事演習 중지와 軍備縮小등을 내세워 南北韓 國防長官과 國際聯合軍 司令官이 참가하는 軍事當局者 會談을 하자고 제의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戰爭危險은 그동안 우리측이 군사정전위원회 會議를 통해 명백히 입증한 바와같이 바로 귀측의 무모한 軍事力 增強과 우리에게 대한 敵對 政策 그리고 휴전협정의 위반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근본원인을 덮어두고 緊張緩和과 信賴造成을 위해 아무런 성의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軍事會談을 하자는 것은 누가 보아도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귀측이 중단시키고 있는 赤十字會談과 經濟會談부터 먼저 재개하고 離散家族 再會와 經濟交流를 조속히 실현하여 南北間의 실질적인 緊張緩和과 신뢰를 回復하는데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귀측은 그 어떤 형태의 軍事會談을 제기하여 선전활동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우리측이 이미 제의한 바 있는 「非武裝地帶의 진정한 非武裝化」 「주요 軍事訓練의 상호통보」 「주요군사훈련 相互參觀 초청」 「공동경비구역내에서의 상호확인제도 실시」등 군사적 緊張緩和 방안부터 토의하는데 呼應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귀측이 진정으로 韓半島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戰爭을 방지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을 개최하는 것이 平和와 統一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임을 인식하고 하루속히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

者會談에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⁵¹⁾

이에 앞서 1986년 6월 21일 駐韓 유엔司側도 6월 17일자 北側 書翰에 대한 回信을 전달하고 北韓側이 「3者 軍事會談」에서 협의·해결하자고 제의한 내용은, 그것이 南北韓間에 적절히 토의되어야 할 안전임을 지적하고, 다만 軍事停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언제라도 토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유엔司側에서는 緊張緩和를 위한 重大提案⁵²⁾들을 이미 軍事停戰委員會에 상정해 놓고 있음도 상기시켰다.

그러나 北韓側은, 그들의 「3者 軍事會談」 제의에 대해 韓·美 양측이 그 不當性을 지적하고 거부하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월 3일 軍事會談과 관련 2차 書翰傳達計劃을 大韓民國側에 통보해 왔으며, 大韓民國側이 이의 접수를 거부하자 7월 11일 방송을 통해 「3者 軍事會談」의 개최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韓·美 양측에 대한 非難宣傳을 격화하였다.

(2) 南北高位級 政治·軍事會談

1986年 12月 30日 金日成은 最高人民會議 제8기 제1차 회의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南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의 개최를 제의하였다.⁵³⁾

동 연설에서 金日成은 南北間에 『政治的 對決狀態를 완화하여 민족내부의 진정한 信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南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同 會談이 결실을 가져와야 중단된 南北對話가 재개될 수 있으며, 政治·軍事會談과 기전대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어야 南北高位級 會談을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金日成의 연설요지는 다음과 같다.

『…… 오늘 조성된 정세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열쇠는 하루빨리 침예한 政治的 對決狀態와 軍事的 緊張狀態를 완화하며 民族內部에 진정한 信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祖國統一을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南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南과 北사이의 심각한 불신은 주로 政治·軍事的 對峙狀態로 부터 생기고 있으며 그것을 풀고 信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쌍방의 政治軍事 實權者의 노력여하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南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에서는 상호 誹謗中傷을 중지하며 南北사이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여 民族的 紐帶를 도모하는 문제와 같은 당면한 政治的 對決狀態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협의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무력을 축소하고 軍備競争을 중지하며 軍事分界線 非武裝地帶를 平地帶로 만들고 큰 규모의 軍事演習을 그만두는 문제와 같은 당면한 긴장완화 조치들이 협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南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에서는 中立國 監督委員會의 권능을 높일데 대한 대책을 협의하여 軍事分界線 非武裝地帶에서 쌍방의 軍事行動을 감시할 기구로서 中立國 監督委員會 成員國들인 체코, 폴란드, 스위스, 스웨덴의 군사인원들로 中立國 監視軍을 조직하는 문제를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의외에도 政治·軍事情勢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南朝鮮측이 내놓는 어떠한 제한에 대해서도 토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南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에서 쌍방이 제기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이 會談에 쌍방의 高位當局者들과 함께 軍事實權者들도 참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南北高位級 政治·軍事會談 提案은 共和國 政府가 일관하게 견지하여 온 民族的 團結과 祖國統一路線의 구현이며 우리의 평화노력의 또 하나의 뚜렷한 표시입니다.

우리의 새 提案에는 어떤 복잡한 환경에서도 동족사이의 不信과 對決을 가시고 信賴와 團合을 도모하며 朝鮮半島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며 나아가서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共和國 政府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실로 南北사이의 현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우리와 함께 나라의 평화와 平和統一의 길로 나갈 것을 바란다면 마땅히 우리의 이성의 있는 제안에 肯定的인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南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이 쌍방사이에 信賴를 도모하고 緊張緩和의 새 국면을 마련하며 전반적인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서 중대한 轉換點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南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이 좋은 결실을 가져온다면 南과 北사이에는 수십년동안 쌓여온 불신의 감정이 풀리고 民族的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움트게 될 것이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야의 대화도 성과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어 北韓側은 1987년 1월 11일 盧信永 國務總理와 李基百 國防長官 앞으로 보내온 北韓 정무원총리 이근모와 人民武力部長 오진우 공동 명의의 서한을 통해 「南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의 開催를 정식으로 제의하였다.

방송을 통한 공개 제의 형식의 동 서한에서 北韓側은 「政治·軍事會談」을 개최하는 것이 『나날이 激化되고 있는 政治的 對決狀態와 軍事的 緊張狀態를 해소하고 平和와 平和統一의 돌파구를 열어 나갈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救國對策』이라고 주장하면서 제 1차 會談을 1987년 1월 27일 板門店에서 개최하되, 同 會談에 참가할 대표단은 副總理級을 단장으로 하고 軍總參謀長級을 부단장으로 하는 7~9명 정도의 당국자들과 군사실권자로 구성할 것을 제의하였다.

진행중이던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놓고 「3者 軍事會談」을 제의한 데 이어 또 다시 「南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제의하고 同 會談의 개최와 진전을 기존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와같은 태도는 기존대화 중단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고 대내외적으로 그들의 平和이미지를 부각시키는 偽裝平和攻勢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北韓側이 동 제의를 통해 武力縮小, 軍備競争中止, 非武裝地帶의

平和地帶化 및 大規模 軍事鍊習中止 등을 협의하자고 주장한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緊張緩和를 원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美軍撤收를 실현시키고 韓國軍의 戰力增強을 抑制하여 그들의 軍事的 優位를 계속 確保하려는데 그 진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中立國 監視軍의 組織問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同 監視軍 창설을 구실로 駐韓美軍撤收 주장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北韓側의 이러한 「政治·軍事會談」 개최 제의에 대해 全斗煥 大統領은 1987년 1월 12일 國政演說을 통해, 赤十字會談·經濟會談 등 北韓側이 중단시킨 기존대화의 재개와 함께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의 개최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이 열리게 되면 「政治·軍事會談」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였다.

한편, 大韓民國側은 1월 14일 赤十字會談, 經濟會談 및 國會會談 예비접촉 등 南北會談 首席代表들의 合同聲明을 통해 기존 南北對話의 조속한 재개를 거듭 촉구하였다.

동 성명에서 大韓民國側은 赤十字會談·經濟會談 등 기존대화를 중단시킨 北韓側이 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3者 軍事會談」이나 「政治·軍事會談」등과 연관시켜 『그것이 열려 진전되지 않고서는 기존대화를 진행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南北對話를 불순한 政治的 目的에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부터는 무엇보다 既存對話를 잘 진행시켜 南北韓間에 人的·物的의 交流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신뢰의 바탕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⁵⁴⁾

아울러 동 성명은 北韓側이 진정으로 南北韓間의 緊張緩和와 和合과 統

—을 원한다면 『비현실적인 주장을 앞세워 기존대화를 거부하는 그릇된 태도』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중단된 대화를 재개하는데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大韓民國側이 이렇듯 입장을 거듭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北韓側은 1987년 1월 30일 「政治·軍事會談」의 개최를 촉구하는 書翰을 다시 보내 왔으며, 「先 政治·軍事會談 開催, 後 既存對話 再開」라는 그들 주장이 대내외적으로 호응을 받지 못하자 3월 3일 또다시 國務總理와 國防部長官 앞으로 書翰을 보내왔다.

北韓側은 동 서한에서 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이 열리게 되면 金剛山發電所 建設問題를 토의하고 기존대화도 병행 추진할 수 있다는 등 일면 종래 입장을 다소 완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는 했으나, 「政治·軍事會談」을 既存對話 再開의 前提條件化하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였다.

(3) 多國的 軍縮協商

大韓民國側의 一連의 對話提議를 모두 거부하고 對話中斷의 책임을 전가시키는데만 급급해 온 北韓側은, 1987年 7月 23日 「政府 聲明」이란 것을 발표, 韓半島에서의 「段階別 軍縮實現問題」를 논의하자는 이른바 「多國的 軍縮協商」을 새로이 제의하였다.

동 성명에서 北韓側은 『韓半島의 첨예한 軍事的 대치상태는 오직 완전한 軍縮을 실현함으로써만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南北韓의 무력을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축소하여 1992년부터는 각각 10만 이하의 병력을 유지하고, 南北韓의 兵力이 축소되는데 따라 駐韓美軍도 단계적으로 철수하여 南北韓의 兵力이 10만으로 축소되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력을 철수하고 駐韓 美軍事基地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러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 南北韓과 美國간의 3者 會談에 中監委 成員國 代表들이 傍聽으로 참가하는 「多國의 軍縮協商」을 1988년 3월 제네바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北韓側 聲明의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통일된 疆土에서 영원히 戰爭과 불안을 모르고 평화롭게 살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열망에 맞게 조선반도에서 緊張을 완화하고 平和統一을 促進시키는데서 決定的 局面을 열어놓기 위하여 대규모적인 단계별 武力축감을 실현할데 대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闡明한다.

첫째, 조선에서 北과 南의 武力均衡은 서로 무력을 증강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서로 무력을 축감하는 방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北과 南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무력을 縮小하며, 1992년부터 각각 10만이하의 兵力을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南과 北의 兵力이 먼저 단계적으로 縮小되는데 따라 남조선 주둔 美軍도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北과 南의 武力이 10만으로 축소되면 美國은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武力을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撤廢하여야 한다.

셋째, 조선의 北과 南은 각기 자기측의 武力縮小 政형을 상대측에 통지하고 세계에 공포하여야 하며, 美國은 자기군대의 撤收 政형을 우리측에 통보하고 세계에 공포하여야 한다.

한편 板門店에 있는 中立國 감독위원회는 조선의 北과 南에서의 武力縮小 政형과 美軍撤收 政형을 확인하기 위한 檢證事業을 단계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넷째, 北과 南의 병력이 축소되는 기간과 그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武力衝突의 위험성을 방지하며, 계속 平和를 유지하기 위하여 軍事分界線 非武裝地帶를 平和地帶로 만들고 여기에 中立國 監視軍을 주둔시킨다.

다섯째, 조선반도에서의 武力縮小와 철수 및 그에 대한 檢證問題, 軍事分界線 非武裝地帶의 평화지대로의 轉換, 中立國 監督委員會 권능확대와 中立國 監視軍 組織 및 그 배치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조선의 北과 南, 美國과의 會談

에 中立國 監督委員會 成員國들인 폴란드, 체코, 스위스, 스웨덴 대표들이 傍聽
으로 참가하는 多國的인 軍縮協商을 1988년 3월 제네바에서 진행한다.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政府는 조선반도에서의 실제적인 武力縮小의 돌파
구를 열기 위하여 1987년 말까지 조선인민군 10만명을 일방적으로 줄일 것이
다.』⁵⁶⁾

「多國的 軍縮協商」제의는 그간 北韓側이 주장해 온 「3者 會談」('84. 1),
「3者 軍事會談」('86. 6)의 용어를 각색하면서 토의내용을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혀 새로운 제안은 아니다.

北韓은 「3者 軍事會談」을 제의하면서 軍事演習中止, 武力增強中止, 兵力
및 軍備縮小, 休戰協定遵守 등을 토의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會談形式面에서 보아도 1986年 12月 金日成이 南北韓間의 직접 會
談方式으로 제의한 이른바 「南北 高位級 政治·軍事會談」에서 다시 3者
會談형식으로 후퇴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중단된 既存對話의 재개에 대해서
일체 言及하지 않음으로써 南北韓間의 직접 대화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더우기 多國的 軍縮協商의 개최시기를 大韓民國의 새정부 출범이후인 1988
年 3月로 제의하여 8개월이나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대화나 緊張緩和 또
는 軍縮자체에 뜻이 있다기 보다는 大韓民國내에 軍縮, 駐韓美軍撤收등의
여론을 조성, 國論分裂을 기도함으로써 민주화에로의 순항을 방해해 보려
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北韓은 1960年 4. 19 직후에는 聯邦制 統一方案
을 제의하였으며, 1979年 10·26 직후에는 「南北總理會談」을 비롯한 南北
政治人간의 쌍무적·다무적 접촉을 제의하는 등 大韓民國이 政治的 轉換
期에 처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國論分裂을 겨냥한 僞裝平和攻勢를 전개해
왔다. 따라서 北韓側의 多國的 軍縮協商 제의도 이러한 전술적 목적과 함

계 大韓民國側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大韓民國이 好戰國家라는 역선전의 구실을 마련해 88서울올림픽의 成功的 개최 분위기를 흐트러 보자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이례적으로 「제네바」를 會談場所로 제의하고 中立國 成員國의 참여를 내세워 國際的인 선전효과를 고려하고 있는 데서도 일견 확인된다.

한편 北韓側이 多國的 軍縮協商을 제의하면서 1987년말까지 10만병력 축소계획을 일반적으로 발표한 것은 北韓의 심각한 경제부진에 따른 軍事費 負擔의 고통을 드러낸 일면도 있으나, 1986년 9월 이미 경제건설에 투입한 15만 兵力중 일부를 제대시켜 계속 軍事的 조직하의 건설공사에 종사토록 조치한 것을 추인한 것으로서 軍縮次元에서 평가할 만한 의의는 없다고 하겠다.

〈註〉 (第2部)

- 1) 北韓은 1980. 10. 10 노동당 6차 대회에서 「高麗民主聯邦共和國 창립방안」을 제시하면서, 大韓民國이 ① 反共法과 國家保安法 폐지, ② 통일혁명당을 포함하여 大韓民國내의 모든 政黨·社會團體 및 個人人事들의 「연공」 활동을 합법화 ③ 미·북한 平和協定締結과 駐韓美軍撤收 ④ 현 大韓民國 政權의 퇴진 ⑤ 美國의 內政干涉중지 등의 전제조건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 1973. 6. 23 金日成은 「후사크」 체코공산당 서기장·환영대회에서 ① 軍備競爭의 중지 ② 南北韓軍隊의 10만이하로의 減縮 ③ 駐韓 美軍撤收 ④ 외국으로부터의 軍裝備 導入 中止 ⑤ 平和協定締結 등을 내용으로 하는 「祖國統一에 관한 5대 綱領」을 발표하였다.
- 3) 1973. 6. 23 金日成의 「5대 강령」 주장내용 참조.
- 4) 金日成, 「每日新聞과의 會見內容」, 東亞日報社 安保統一問題調查研究所(編), 「安保統一問題基本資料集」, 續北韓篇(서울: 東亞日報社, 1974), p.138.
- 5) 金日成, 前掲書, pp.183~184.
- 6) 離散家族白書, 大韓赤十字社, 1976. pp.63~64
- 7) 北韓概要, 平和統一研究所, 1986. p.316.

- 8) 조선중앙방송, 1972. 7. 3.
- 9) 1980. 10. 10 金日成의 노동당 6차대회 演說내용 참조.
- 10) 南北對話 第 25 號, 1981. 3. p.8.
- 11) 前揭書, p.11.
- 12) 前揭書, pp.14~18.
- 13) 前揭書, p.63.
- 14) 南北對話 第 26 號, 1981. 7. p.14.
- 15) 前揭書, p.8
- 16) 前揭書, pp.44~47.
- 17) 南北對話 第 31 號, 1983. 3. pp.7~18.
- 18) 南北對話 第 28 號, 1982. 2. pp.83~86.
- 19) 南北對話 第 29 號, 1982. 10. p.33
- 20) 前揭書, pp.33~38.
- 21) 前揭書, pp.7~16.
- 22) 南北對話 第 28 號, 1982. 2. pp.8~12.
- 23) 前揭書, pp.13~24.
- 24) 前揭書, pp.15~18.
- 25) 南北對話 第 35 號, 1984. 8. pp.28~29.
- 26) 前揭書, pp.54~56.
- 27) 前揭書, pp.53~54.
- 28) 南北對話 第 36 號, 1984. 11. pp.8~12.
- 29) 前揭書, p.29.
- 30) 前揭書, pp.34~35.
- 31) 前揭書, pp.44~45.
- 32) 前揭書, pp.87~88.
- 33) 南北對話 第 40 號, 1986. 3. pp.48~51.
- 34) 南北對話 第 36 號, 1984. 11. pp.64~65.
- 35) 前揭書, pp.71~72.
- 36) 金日成은 1980년 10월 「高麗民主聯邦共和國」 창립방안을 제시하면서 南과 北의 聯邦制 실현뒤에 시행하겠다는 정책들을 「10大 施政方針」으로 주장했는데, 제 3 항이 『經濟的 合作과 交流를 실시하여 民族經濟의 自主的 發展圖謀』로 되어 있다.
- 37) 이 사건은 蘇聯人 청년의 망명을 저지하기 위해 수십명의 北韓側 경비병이 군

사 분계선을 불법으로 월선, 충격을 가해온데서 발단된 것으로 이는 北韓側에 의한 명백한 休戰協定 違反이자 제 2의 판문점 「도끼 蠻行事件」이었다.

- 38) 清算決濟方式 : 북한의 對外決濟制度를 보면 사회주의 제국가와는 일정한 결제 기간(통상 1년)까지의 상호거래상의 차액만을 결제하는 清算計定 去來方式을 이용하고 있다. 즉, 社會主義 제국가와는 지불협정을 체결하여 협정국간에는 무역거래에서 現金決濟를 하지 않고 대화관계를 기록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대화차액만을 現金決濟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과의 거래에서는 清算計定去來와 現金決濟方式을 병용하고 있으며 서방선진국과의 거래는 「마르크」 「파운드」 「프랑」 등 교환가능통화로 결제하고 있다.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서울, 1983. p.648)

39) 南北對話 第 40 號, 1986. 3. p.73.

40) 南北對話 第 38 號, 1985. 8. pp.118~119.

41) 前揭書, pp.121~123.

42) 올림픽현장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 4 조

- ① 올림픽대회를 개최하는 榮譽는 도시에 부여
- ② 開催都市를 선정하는 것은 IOC의 전권에 속함.

○ 제 33 조

- ① IOC는 올림픽대회 開催 豫定地로 선정된 도시가 속하는 國家의 NOC에 올림픽대회의 조직을 위임.

○ 제 34 조

- ① 모든 경기는 올림픽대회 開催地로 선정된 도시의 메인 스타디움이나 그 근처에서 거행.
- ② 開催都市는 IOC의 동의를 얻어 자국내의 다른 도시 또는 장소에서 경기 분담 거행.
- ③ 決勝戰과 開·閉會式은 IOC와 조직위간에 별도합의가 없는 한 개최도시에서 거행.

43) 北韓이 주장하는 「공동주최」란 용어자체가 北韓의 신조어로서 유권적인 개념 정의를 할 수 없으나, 北側이 주장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제 24 회 主權을 南北韓이 공유,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치룬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대회명칭을 제 24 회 올림픽대회 조선평양으로 하고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며 開·閉

會式을 서울과 平壤에서 均衡하게 실시하고 受益事業의 독자추진 및 일정한 배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국 서울올림픽과 완전별개의 독립된 대회를 조직, 결국 2개의 올림픽을 개최하자는 것임.(대한올림픽위원회, IOC주재 南北體育會談 經過, 1988. 7 참조.)

- 44) 南北對話 第 40 號, 1986. 3. pp.69~72.
- 45) 南北對話 第 42 號, 1987. 4. pp.58~60.
- 46) 前揭書, pp.62~64.
- 47) 前揭書, pp.30~32.
- 48) 南北對話 第 43 號, 1987. 9. pp.29~31.
- 49) 前揭書, pp.38~40.
- 50) 南北對話 第 41 號, 1986. 8. pp. 57~58.
- 51) 前揭書, pp.59~60.
- 52) 4대 신뢰구축방안(CBM : confidence Building Measures)은 군정위 제 408 차, 410 차, 412 차, 433 차 本會議시 유엔사측이 제시한 것으로 그 내용은
 - ① 非武裝地帶의 진정한 非武裝化
 - ② 主要軍事訓練의 사전통보 제안
 - ③ 공동감시소조 기능 부활 및 중감위의 DMZ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권 부여
 - ④ 共同警備 구역의 안전보장 등이다.
- 53) 第 2 期 南北對話 趨進現況, 1988. 8. 國土統一院 pp.112~115.
- 54) 南北對話 第 42 號, 1987. 4. pp.19~22.
- 55) 南北對話 第 43 號, 1987. 9. pp.33~36.

제 3 부

南北韓 交流·協力時代에의 進入

1. 새로운 南北韓 關係의 摸索

南北韓「交流·協力時代」開幕의 천명은 한마디로 분단 40여년을 넘어선 시점에서 새로운 南北關係의 모색을 뜻한다. 다시 말해 긴장과 대결의 南北韓 關係를 清算하고 民族共同體 의식을 바탕으로 共存共榮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할 당위성의 다른 표현이다.

그동안 南北關係는 「對話없는 對決時代」로부터 출발하여 「對話있는 對決時代」를 지나 「交流있는 對決時代」를 거처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交流·協力時代」의 開幕은 앞서 이루어진 南北關係의 進展을 바탕으로 결실을 이루는 歷史的 의미를 지닌다.

분단과 더불어 우리 民族社會 앞에 전개된 「對話없는 對決時代」는 우리의 民族共同體를 크게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4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南과 北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冷戰構造的 極限對決狀態로 치닫게 하였으며, 민족상잔의 비극적 체험에도 불구하고 「제2의 6·25」라는 망령에 시달리게 하였다.

한편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國際關係의 脫冷戰을 도모하는 美·蘇데탕트에서 비롯된 주변정세의 새로운 변화는 南北關係의 변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南北對話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美·蘇和解의 움직임으로 인해 분단이후 최초로 대화시대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였던 1970년대의 南北對話는, 「宣傳戰·心理戰·情報戰」의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北韓側의 기도로 말미암아 형식적인 대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對話있는 對決時代」라는 한정된 개념에 머물고 말았다.

1970년대 南北對話에서 「敵對的 對決構造」를 「善意的 競爭構造」로 전환코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보다는 대결에 더 치우침으로써 결국 「제 1 기 대화시대」의 전개라는 歷史的 의미 이상의 의의를 남기지 못했다.

1970년대 南北對話로 특징지어지는 「제 1 기 대화」는 北韓이 대화에 임하는 태도 즉 對話戰術에 대한 本質的 파악을 가능하게 하였다. 실제로 北韓이 대화에 임해온 태도는 제 1 기 南北對話 이후 지금까지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北韓社會가 「남조선 해방」이라는 목표를 버리지 않는 한 혁명적 목적성과 관련한 「全部 아니면 無(All or Nothing)」의 타결양식을 벗어버릴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러나 한편 제 1 기 대화시대에 나타난 北韓의 對話戰術은 이같은 본질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형태상으로는 政治的 선전방식으로서의 다양성이라는 양면성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南北對話에 이론을 제공해온 北韓의 統一方案들은 결국 대화에 임했을 때 언제나 표리가 일치하지 않는 하나의 僞裝戰術로 드러났으며, 이 점이 새로운 不信과 대결의 불씨가 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北韓의 對話戰術과 태도는 共產主義가 지니는 특성과 결부되고 있다.¹⁾ 즉 共產主義에 있어서는 변화지 않는 革命的 목표 이외에는 무엇이나 변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변화가 合理化되는 동시에 戰術의 무기로 평가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상 南北對決構造의 극복 내지는 대결의 止揚을 모색해 나갈 「南北 交流·協力時代」로의 進入은 이같은 北韓體制的 屬性과 對話戰術의 展開樣相 그리고 그 의미와 한계를 충분히 인식한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北韓社會가 한 순간에 本質的인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점차 民族共同體的 존재양식으로의

접근을 유도함으로써 窮極的으로는 脫革命社會的 存在樣式的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南北交流·協力時代」 개막의 의미는 대화와 교류에 병행하여 대결구조와 對決樣相이 불식되지 못하고 있던 제 1, 2기 南北對話의 교훈에서 비롯된다.

제 1기 南北對話를 대변한 것이 「7·4 南北共同聲明」으로 특징지어 지는 1970년대 南北對話라고 한다면, 제 2기 南北對話는 赤十字會談 뿐 아니라 經濟會談, 國會會談, 體育會談 등 다양한 대화창구를 마련하게 된 1980년대 중반의 南北對話를 말한다.

1970년대 南北對話가 北韓의 對話戰術에 대한 反射의 대응과 安保次元의 경계에 큰 비중을 두었던 데 비해, 1980년대 중반의 제 2기 南北對話는 北韓의 政治協商의 對話戰術에 대한 보다 積極的인 대응으로 직접적인 接觸과 人的·物的 교류의 계기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한 차원 성숙된 對應姿勢를 보이고 있다.

특히 北韓側의 혁명적 목적성과 이로 인한 硬直된 대화자세에도 불구하고 南北關係를 새로운 彈力性으로 대처해 나간 점에서 제 2기 南北對話過程은 남북교류·협력시대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源泉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1984年 가을에 개막된 제 2기 南北對話는 大韓民國 政府가 그동안 기울여 온 積極的이며 多角的인 대화추진 노력의 결과였다.²⁾

더구나 1985년은 祖國光復 40년, 國土分斷 40년이 되는 해였다는 점에서 南北赤十字會談, 經濟會談, 國會會談 예비접촉 등 여러 分野에 걸친 南北對話의 활발한 진행은 韓民族에게 큰 의미를 안겨 주었다. 또한 제 2기 남북대화에서는 分斷이후 처음으로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團 및 藝術公演團의 상호교환과 같은 대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交流있는 對決시대」로 평가되는 이러한 제 2기 南北對話時代를 이끈 統一政策의 指標는 「民族和合 民主統一」이었다. 즉 제 2기 南北對話는 기본적으로 民族和合과 和解의 길을 摸索하면서 民主統一의 方途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집약되며, 이를 統一政策으로 체계화하여 제시한 것이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이었던 것이다.³⁾

民族和合이란 南北間의 不信을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결구조를 克服해 나가는 方途를 모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접근자세가 아닐 수 없다. 화합과 화해란 일단 서로간의 입장이나 見解의 차이를 부각시키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현실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제 2기 南北對話가 제 1기와 다른 진전을 가져올 수 있게 한 原動力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특히 大韓民國 政府는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우선 南北間에 당장 실시할 수 있는 諸措置, 즉 南北韓의 社會開放, 交流協力, 緊張緩和등을 위한 「20개 示範實踐事業」을 1982년 2월 1일 北韓 當局에 제의하였는데, 이는 社會開放을 통한 交流協력과 이에 근거한 信賴回復을 바탕으로 軍事的 긴장을 완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合理的인 접근과정의 제안이었다.

「20개 示範實踐事業」제의를 결국 民族共同體의 回復과 共存共榮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南北韓 交流·協力時代」로의 진입을 예고하고 그 필요성을 촉구한 노력의 표시였던 것이다.

北韓側의 경우, 1980년대의 南北對話에서도 여전히 「南朝鮮革命」노선의 추구라는 낡은 태도에 얽매어 「政治優先」에 따른 조건부 주장을 내세우다가 하면 合意事項을 수시로 뒤집는 행태를 반복했지만, 구체적인 대화진행면에서 몇가지 1970년대와는 다른 변화를 보여 주기도 하였다.

우선 北韓側이 제한적이긴 하나 人的 交流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동의해

나왔다는 점이다. 金日成 唯一思想이 지배하는 閉鎖社會인 北韓으로서는 開放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으며, 따라서 1970년대만 해도 南北會談에 따른 人的 交流를 극력 기피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北韓은 赤十字會談의 참가 記者數를 증가시킬 것을 요청하는가 하면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團 및 藝術公演團」 相互交換에도 응해 나왔다. 물론 이러한 「개방」 과시의 뒷면에는 그들의 戰術의 수요가 있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자체가 南北韓關係를 한걸음 더 進展시키는 動因이 된 것은 틀림이 없다.

또 한편으로는 北韓側이 다양한 대화채널을 수용하는 가운데 스스로 금기시해 오던 經濟會談 開催에 호응해 나온 점도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北韓側은 南北韓 國力比較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經濟協力·物資交易 등에 대해서는 알레르기적 拒否反應을 보여왔었다. 그러나 北韓은 1984年 11月 개최된 제 1 차 南北經濟會談에서 상세한 物資交易方案을 제시하는 등 積極性을 보였으며, 韓國側 제안과도 공통점이 많은 합리적인 案을 제시했었다.⁴⁾

물론 1985年 5月 2차會談에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우리는 物資交易이나 하려고 經濟會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會談형태를 시비하고 나섬으로써 교착상태를 빚었지만, 經濟會談은 남북관계사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南北韓관계의 재설정 움직임은 「對決構造」를 「和解協力構造」로 전환시킬 밑거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周邊情勢를 능동적으로 움직여 나갈 民族力량의 가능성을 보여준 새로운 진전이였다.

여하튼 北韓側은 1986년에 접어들면서 年例的으로 실시되어 온 ทัพ스피리트 軍事訓練을 구실로 進行중이던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제 2기 南北對話時代의 막을 내리게 하고 말았다.

北韓側으로서는 대화가 더 진전될 경우 體制開放이 불가피한 한계에 봉

착하게 될 것을 우려한 한편, 大韓民國側으로부터 더 이상 「反對給付」를 얻어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⁵⁾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제 1·2기 南北對話를 통해 얻어지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제 1·2기 南北對話 모두 守勢的인 北韓을 우리측이 對話의 場으로 이끌어 들임으로써 가능했다는 점이다. 北韓側은 대화 그 자체의 중요성 보다도 대화의 명분을 앞세우고 이를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하는 戰略的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속성이 充足될 때에만 대화에 응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대화에 임하는 北韓側의 태도는 항상 政治協商戰術로 일관하였으며, 대화채널의 多邊化가 이같은 北韓側의 政治的 일괄 해결태도를 상쇄시켜 줄 수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대화의 과정을 통해 北韓側의 새로운 변화가능성을 추출해 내는 것보다는 北韓側의 새로운 태도변화가 선행됨으로써 진정한 대화가 成立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제 1·2기 南北對話 모두 이를 中斷하게 된 책임을 北韓은 언제나 대화의 상대방인 韓國側에 일방적으로 전가해 왔다는 점이다. 더우기 이 경우에 내세운 北韓의 이유가 대화를 중단시킬만한 돌발사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화 破綻의 책임만을 모면하기 위한 意圖的 구실에 불과하였었다. 이는 결국 北韓側이 대화를 대화로써 가능케 하는 신뢰를 스스로 저버림으로써 오히려 불신감과 對決意識의 표출을 초래하여 왔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같은 北韓側의 태도는 그들의 일방적인 중단 선언이나 합의사항의 번복이 상호 존중과 신뢰의 근거를 순간간에 무너뜨린다는 사실에 조금도 개의치 않는 태서도 단적으로 드러났었다.

對話의 成立과 進行과정 그리고 중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같은

교훈들은 「對話있는 對決時代」로서의 제 1기 南北對話와 「交流있는 對決時代」로서의 제 2기 南北對話가 지니는 의미와 한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제 1·2기 南北對話의 의미와 한계를 전제해 놓고 본다면 과연 「南北交流·協力時代」의 개막이 얼마나 간단치 않은 내용을 함축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사실 명실상부한 「交流·協力時代」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제 1·2기 南北對話가 펼쳐버리지 못했던 對決構造의 과감한 轉換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南北關係를 보는 시각과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交流·協力時代」에의 진입은 우선 南北이 서로를 競爭이나 對決의 상대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民族이라는 民族共同體 意識 아래 共同繁榮을 추구해 나갈 同伴者로서 볼 때 비로소 가능하다.

大韓民國의 第 6 共和國은 이러한 南北韓의 새로운 存在樣式을 정립키 위해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현실적인 南北韓 대결구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탕위에서 民族統一에 관한 具體적이고 實質적인 접근을 통해 민족본연의 참모습을 되살림으로써 民族共同體가 하나로 존재할 수 있는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는 또한 스스로의 能動的 認識轉換이 南北韓關係의 새로운 位相定立으로 이어지고 결국 「交流·協力時代」에의 진입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포하고 있다.

제 1·2기 南北對話를 표류시켰던 制約여건들을 완화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6共和國 政府의 새로운 시도들은 統一環境의 변화와 함께 「南北交流·協力時代」를 가능케 하는 의지와 집념의 실천인 것이다.

2. 韓半島 周邊情勢와 統一環境

1980년대 후반의 國際情勢와 韓半島를 둘러싼 周邊情勢는 급격한 변화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統一環境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國際情勢를 東西關係와 東北亞情勢로 구분지어 볼 때 그 관계는 더욱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 나가는 양상임을 뚜렷이 체감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1980년대 후반의 東西關係는 美·蘇를 중심으로 개방과 화해의 질서로 재편되는 轉換期的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1980년대 후반 國際情勢變化의 소용돌이를 일으킨 것은 「고르바초프」의 등장이다. 1985년 3월 蘇聯에 「고르바초프」 정권이 출범한 이후 美·蘇는 불과 8개월만인 1985년 11월 제네바에서 美·蘇頂上會談을 개최하였고, 그후 1986년 4월의 레이카비크 豫備頂上會談, 1987년 12월의 워싱턴 頂上會談, 1988년 5월의 모스크바 頂上會談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의 지도자가 4차례에 걸쳐 만났다.

마치 年例頂上會談의 성격으로 정착된 것처럼 느껴질 만큼 밀접해진 美·蘇관계는 그 내용의 진전 여하에도 불구하고 東西關係의 안정과 和解摸索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 왔음이 사실이다.

이처럼 1985년 이후 매년 개최된 美·蘇頂上會談에서 양국의 관심은 1차적으로 양측의 軍備競争을 조절하는 「軍縮」의 필요성에 초점이 모아졌고, 이는 「中距離 核戰力 廢棄協定(INF)」의 체결로 귀결되었다.

이로 인해 美·蘇兩國은 일단 核武器를 내세워 東西緊張을 야기시키거나 동서관계를 좌우하는데 비중을 두는 軍事的 부담을 덜게 되었다. 이는 東西關係가 1970년대 데탕트시대보다 훨씬 내실화된 1980년대 후반의 신

네탕트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말해 준다. 즉 1970년대 네탕트가 軍事的 문제를 우회한 단순한 형태의 政治의 네탕트였다고 한다면, 1980년대 후반의 신네탕트는 軍事力의 函數關係를 포함시킨 包括的 형태의 政治의 네탕트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네탕트시대의 변화하는 흐름과 그 의미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 「고르바초프」의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톡선언」⁶⁾과 1988年 9月 16日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의 演說 및 여기서 제기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평화안」의 提案⁷⁾이다. 이보다 열흘후인 9月 27日 유엔총회연설에서 蘇聯外相 「세바르드나제」에 의해 발표된 蘇聯外交의 「脫理想化」 선언 내용 역시 國際情勢의 새로운 變化가능성과 國際社會의 새로운 存在樣式 추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중요한 指標이다.

특히 蘇聯外相 「세바르드나제」는 『國際社會에서의 階級鬭爭은 끝났으며,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國際關係의 基本원리가 될 수 없다』⁸⁾고 선언하여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세바르드나제」의 言及처럼 國際社會에서 이데올로기가 영향력을 상실하고, 階級鬭爭에 바탕을 둔 적대적 競爭關係가 止揚될 수 있다면 國際關係는 平和的 공존과 同伴者的 협력관계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신네탕트시대의 진전은 보다 알찬 결실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蘇聯 外交패턴의 새로운 轉換으로 평가되는 이같은 입장 천명은 蘇聯 자체내의 변화, 즉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라는 改革·開放政策의 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의 轉換에 근거한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볼 때 이데올로기적 편향성과 閉鎖性을 과감히 탈피하는 開放的 자세는 國際社會에서의 보편적 가치추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平和的 共存의 정착으로 連繫되어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南北韓關係 역시 北韓이 이데올로기적 편향성과 閉鎖性에서 과감히 탈피해 나감으로써 和

解와 共存의 틀을 정립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蘇聯을 비롯한 共產圈의 開放과 改革으로의 자세전환이 北韓에게도 새로운 자극이 되게 할 필요가 있으며, 盧泰愚 大統領의 「7·7특별선언」 이후 계속된 南北韓關係 改善을 위한 大韓民國 政府의 일방적인 조치 등은 北韓이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보다 수월하게 수용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배려가 아닐 수 없다.

한편 韓半島 統一環境의 대외적 여건을 좌우하는 東北亞情勢도 東西關係의 변화에 相應하는 커다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1986年 7月 28日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선언」은 中·蘇關係 개선을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시대」의 개막에 積極적으로 대응하는 蘇聯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 선언은 極東地域의 資源開發을 중시하고 日本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연안 여러나라와의 合作投資 및 經濟協力の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蘇聯의 對아시아 관계 促進에 가장 큰 장애가 되어온 中國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讓步的 자세를 표명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톡선언」은 이처럼 蘇聯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平和定着을 위해 새로운 관심을 보인 것인 반면,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적극 진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진단되기도 한다.

그것은 蘇聯이 그동안 제의해 온 「아시아 集團安保」 구상의 實質的이고 具體的인 포석의 일환인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평가는 蘇聯의 對아시아政策이 앞으로 보다 적극화될 경우 아시아·태평양의 橋頭堡 確保를 위해 極東에서의 새로운 「힘의 均衡」을 모색하는 方向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견해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蘇聯의 움직임은 東西關係의 진전과 더불어 東北亞情勢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中·蘇頂上會談을 계기로 中蘇關係의 정상화 및 긴밀한 협력관계로의 발전이 이루어질 경우, 南北韓關係의 계속된 緊張狀態는 오히려 南北韓을 이같은 情勢變化의 번두리로 밀어낼 가능성도 있다. 다시말해 전반적인 和解 물결속에 南北韓만이 孤島와 같이 남게 된다면 大局의 見地에서의 民族力量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統一環境을 놓고 볼 때 中蘇관계가 진전되고 日本이 여기에 발맞춰 나감에도 불구하고 南北韓이 이를 外面하고 내적인 緊張狀態에 머물러 彈力性을 잃게 된다면, 그 상황은 마치 19세기말의 韓半島 周邊狀況과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재연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 때문에 第6共和國의 과감한 北方政策 전개와 南北韓關係 개선노력은 우리의 統一環境을 國際環境에 증속시키지 않고 獨立變數的인 위치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東北亞情勢 변화에 있어 中核的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中國은 21세기 중반까지 經濟的으로도 先進國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내세워 적극적인 對外開放政策을 추구하고 있다. 「4大 現代化政策」을 표방한 鄧小平은 1982년 이후 實用主義路線을 對外戰略에까지 적용시켜 自主獨立外交路線을 천명하고, 1984년 이후 본격적인 經濟體制 改革 및 政治改革을 단행하였다.

특히 中國은 1984년에 深圳, 珠海, 汕頭, 廈門 등 4개 경제특구를 포함하여 14개에 이르는 經濟特別開發區域을 설정하였으며, 1985년에 와서는 전체 海岸都市를 개방하는 등 본격적인 開放經濟政策을 실시해 오고 있다.⁹⁾

또한 日本은 세계최대의 經濟大國으로 浮上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에 알맞는 國際的 지위와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日本의 비대한 經濟力은 中蘇關係의 개선과 더불어 東北亞情勢 변화에

새로운 힘으로 드러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의 東西關係와 東北亞情勢의 변화양상을 이상과 같이 진단해 보았을 때, 韓半島 統一環境은 상당히 流動的이며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第6共和國 政府가 추진해 온 과감한 北方政策의 전개와 「南北交流·協力時代」를 先導해 나갈 前向的 統一外交政策의 전개는 이같은 情勢變化를 주체적으로 맞이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民族共同體의 회복과 발전을 통해 民族自尊과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7·7特別宣言」은 韓半島 統一環境에 있어서의 南北韓關係를 독립변수적인 위치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南北關係의 개선이 東西關係의 안정과 緊張緩和에 기여하는 것임을 부각시킨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와 함께 12년만에 160개국의 젊은이들이 理念과 體制, 人種과 宗教를 초월하여 한마당을 이룬 人類和合의 大祝祭였던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大韓民國의 國際的 位相을 확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속의 韓半島가 차지하는 의미를 새롭게 인식시켜준 계기를 이루었다.¹⁰⁾

비록 北韓의 올림픽 참가가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東西和解에 대한 세계인의 확신을 이끌어 냈으며, 또한 비정상적인 韓半島의 긴장과 대결상황이 하루빨리 남북당사자들의 주도하에 개선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입증했다고 하겠다. 이같은 결과는 東西 兩陣營을 막론하고 南北韓關係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가능성을 공감케 함으로써 우리 政府의 전향적 統一外交政策의 實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실제로 中·蘇를 비롯한 東歐共產圈과 제3세계 非同盟圈 국가들에 이

르기까지 88서울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나라가 大韓民國의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北韓의 政治宣傳的 공세에서 비롯된 先入見과 偏見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大韓民國의 북방정책은 北韓을 고립시키기 보다는 國際社會의 일원으로 떳떳이 설 수 있게 하는 「和解」와 「共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세계질서의 재편 노력에 부응함과 아울러 그 구체적인 결실을 낳고 있다.

물론 中·蘇 貿易事務所의 개설과 헝가리, 체코, 폴란드, 유고 등과의 交易 및 常駐代表部의 설치 움직임등 급격한 관계개선 가능성이 北韓의 경계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자율적 經濟開放과 교차접촉이 南北關係改善은 물론 앞으로 보다 성숙된 統一環境 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北韓 스스로도 점차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¹¹⁾

東西理念과 體制를 넘어선 開放政策 전개와 國際的 협력관계의 모색은 21세기를 내다보는 國際社會의 새로운 存在樣式이며 평화와 번영을 향해 전진하는 세계사의 큰 흐름이 요구하는 당위이다. 北韓 역시 이러한 흐름을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만은 없으며, 그 역행이야말로 자기체제의 存立基盤을 허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7·7 特別宣言」에서부터 1988年 10月 18日의 「유엔총회연설」로 이어지는 6共和國의 일련의 統一外交政策 표명은, 그동안 東北亞情勢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어 오던 韓半島 統一環境을 새로운 차원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南北和解時代」를 앞당겨 실현하려는 강력한 실천의지의 발로라 하겠다.

또한 이는 앞으로 21세기라는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며 美·蘇·中·日의 強大國들과 함께 共同主役으로 미래설계에 참여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바람직한 役割分擔을 상징함으로써 韓民族의 自尊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원대한 비전을 내포하고 있다.

3. 「南北高位當局者會談」提議

李賢宰 國務總理는 적극적인 대화재개 노력의 일환으로 1988年 6月 3日 北韓 이근모 정무원 총리에게 보내는 書翰을 통해 쌍방의 각료급을 수석 대표로 하는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을 6월중 서울 또는 平壤에서 개최하고자 제의하였다.

이 書翰은 5月 31日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6월 3일 판문점에서 북한측에 전달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북한측이 書翰接受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政府 代辯人이 공개 발표했다.

李賢宰 國務總理의 對北書翰 全文은 다음과 같다.

『우리 민족이 南北으로 갈라진지 반세기가 가까이 다가오도록 아직도 分斷의 試鍊을 克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平和的인 통일을 하루속히 실현해야 하는 民族史的 課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기간동안 우리 겨레는 南北으로 단절되어 反目과 對立으로 점철된 痛恨의 시대를 살아왔으며, 이러한 분단역사는 반만년 우리 民族史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같은 불행한 과거를 하루빨리 清算하고 통일된 民族으로서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노력을 더이상 뒤로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南과 北은 여러차례에 걸쳐 여러형태의 대화를 가져왔고 또 부분적인 결실도 없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읍니다.

나는 그 이유가 南과 北이 서로를 불신하고 있고 하나의 뿌리를 지닌 民族 共同體라는 의식을 확고히 발전시키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南北간에 쌓인 不信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같은 民族으로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相互信賴가 증진되어 가면 南北간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民族的 유대가 회복될 것이며 평화통일의 길도 가까워지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더우기 우리나라 歷史上 처음으로 우리땅에서 열리게 되는 제 24 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지금 우리 겨레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이 대회가 東西和解의 場은 물론 南北間 화합의 轉機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외의 기대와 念願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대회에 南北이 함께 참가함으로써 民族的 경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나는 평화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을 조속히 제거하면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해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의 개최를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南北高位當局者會談에서는 제 24 회 서울올림픽대회에 南北이 함께 참가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南北의 政治人, 經濟人, 言論人, 宗教人, 文化·藝術人, 體育人, 學者 및 學生 등의 인적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 온 민족의 기대 속에 추진되었던 赤十字會談, 經濟會談, 國會會談 등 기존대화의 재개를 주선하는 문제, 그밖에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南北이 서로가 같은 민족이라는 입장에만 선다면 이같은 문제들은 아무런 어려움없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며, 나아가 통일로 향한 새 역사를 창조하는 디딤돌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會談이 빠른 시일내에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가능한 금년 6월 중 서울 또는 平壤에서 첫 會談이 개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의 대표단은 閣僚級을 수석대표로 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는 이상과 같은 나의 제의에 대해 귀하의 肯定的인 呼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¹²⁾

지난 1986年 1月 南北對話가 단절된 이후 2년반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民族의 自尊과 和合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시바빠 分斷構造를 해소하고 南北關係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의는 88서울올림픽을 民族和合의 대제전으로 승화시킴으로써 南北관계 개선을 위한 결정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명제를 확인함과 함께 그동안 大韓民國의 經濟發展과 민주화 노력의 結實로 이루어진 인식의 대전환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李賢宰 國務總理의 對北提議는 盧泰愚 大統領이 취임사에서 밝힌 평화통일을 향한 「南北協力時代의 開幕」선언을 뒷받침하고 可視化하기 위한 조치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제의는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점차 고조되는 것과 함께 북한의 88서울올림픽 참가문제 및 학생교류를 포함한 南北間의 人的·物的 交流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의견들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시키겠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입장의 표명이었다.

특히 제 24 회 서울올림픽 대회가 東西和解의 장이 되어야 함은 물론 民族和合의 대제전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과 세계인의 기대는 責任과 權限이 있는 南北 쌍방 당국간의 직접적인 협의와 타결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背景에서 제의된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의 기본적인 취지는 우선적으로 88서울올림픽에의 北韓 참가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함에 있었다.¹³⁾

그동안 일부 경기종목의 北韓地域 배정문제를 놓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주재아래 南北體育會談을 진행해 왔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중재안을 北韓側이 受諾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당시 서울올림픽대회를 불과 10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大韓民國 政府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자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人的 교류의 문제는 南北間 교류와 協力時代의 開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政治人, 經濟人, 言論人, 宗教人, 文化·藝術人, 學者 및 學生 등의 광범한 인적 교류를 통해 南北간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民族的 유대감을 강화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더구나 이같은 인적 교류는 세계적인 개방화 추세에 副應할 뿐 아니라, 같은 分斷國家들인 臺灣·中國 또는 東西獨의 교류추세와도 符合하는 것으로서 南北이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또한 그동안 南北간에 진행되었던 赤十字會談, 經濟會談, 國會會談 등이 1986年 1月 이후 北韓側의 일방적인 거부로 中斷상태에 있으나, 北韓側이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을 통하여 조금만 성의를 보일 경우 당장이라도 실무적인 진척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임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側이 진정으로 南北關係를 정상화시키고 민족통일을 바라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기존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계기 마련을 위해서라도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을 受諾하고 民族的 신뢰회복과 화합을 이루는데 동참하여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書翰接受 자체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6月 6日에는 「南北連席會議 北側準備委員會」라는 명의를 성명을 통해 『南北連席會議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 형식으로 南北當局者會談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우리측의 제의를 거부하였다.¹⁴⁾

더구나 서한접수 대상자인 정무원 총리 대신에 「南北連席會議 準備委員

會」라는 僞裝團體를 내세웠을 뿐 아니라, 南北韓의 모든 문제를 당국간의 대화보다는 各黨·各派·各界·各層 인사가 참여하는 「連席會議」 형식의 政治協商무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大韓民國 사회내의 政黨會談, 學生會談 등의 統一論議 확산요구 움직임에 便乘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北韓은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의 제의내용을 회피하면서도 이를 「南北連席會議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으로 고려한다거나, 『南北連席會議가 소집되면 여기서 올림픽공동주최를 비롯한 中斷된 會談의 재개문제, 人的 交流문제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하여 大韓民國이 제시한 當局間 會談形式 및 의제 등에 일견 伸縮性을 보이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北韓側이 南北間에 이미 합의단계에 到達해 있는 대화를 기피하면서 「南北連席會議」나 「學生會談」과 같은 다른 방식의 대화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실질적인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北韓側은 1987年 11月 大韓航空機 爆破蠻行事件 이후 國際的 糾彈과 비난을 회석시키면서 大韓民國 내부의 國論分裂과 사회혼란을 조성하기 위해 일련의 對南 便紙攻勢를 전개하면서 줄곧 「南北連席會議」나 「學生會談」을 주장해 왔었다.

제 6 공화국 출범후 첫번째 공식 대화제의인 「南北高位當局者會談」개최 제의를 北韓側이 거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이로써 南北 信賴構築을 위한 새 전기 마련의 전향적 의지는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4.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을 위한 「7·7 大統領 特別宣言」

가. 背景 및 趣旨

盧泰愚 大統領은 1988年 7月 7일 第6共和國의 출범과 함께 표명하여온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의 새시대 구현의지를 可視化하기 위한 「特別宣言」을 발표하였다. 「7·7 大統領 特別宣言」은 새공화국이 추진해 나갈 統一·外交政策의 基本方向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南北關係와 北方政策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뚜렷한 의지와 民族共同體 실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담고 있다는데 기본적인 의의가 있다.¹⁵⁾

「7·7선언」은 국제적인 화해와 긴장완화 추세에서 비롯된 統一環境의 변화를 그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 모색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범국민적 열망을 결집한 것이다.

大韓民國은 6共和國 出帆에 따른 민주발전의 가속화와 경제의 지속적 성장으로 민족의 장래에 대한 확고한 自信心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統一政策 推進에 있어 새로운 認識과 發想의 轉換에 대한 요청으로 나타났다.

또한 韓半島의 統一環境과 관련하여 「고르바초프」등장이후 꾸준히 추진되어온 미·소 접근이 구체적 結實로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신데탕트 시대의 開幕이 豫見되는 가운데, 88서울올림픽이 東西間의 이념분쟁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화해시대의 문을 열 결정적 계기로서 기대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역시 내외상황의 변화에 부응하여 북한의 국제적 고립탈피를 지원하고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韓半島에 平和를 정착시키고

오랜 反目과 民族自害의 늪에서 벗어나 南北關係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같은 필요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주역국가들 향한 民族自尊의 새時代 開拓을 주도하면서 민족통일의 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한 第6共和國의 政策意志가 「7·7 선언」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盧泰愚 大統領은 1988年 4月 21日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임기를 南北間의 和解와 協力を 통해 平和統一의 길을 열어나가는 시대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약 한달 후인 5월 28일 야당 총재들과의 청와대 회담에서도 『민족이 함께 잘사는 共同體를 이룩한다는 입장에서 統一政策을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었다.¹⁰⁾

아울러 「7·7선언」은 한반도 분단상태를 우리 民族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解決하는 方案을 모색하고 국민적 합의의 창출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7·7선언」의 취지는 첫째, 南北韓은 모두 지금까지 서로를 競爭이나 對決의 相對로 보아왔던 시각에서 탈피하여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協力하고 共同繁榮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둘째, 이제 앞으로는 우리 민족 전체가 다함께 잘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大局的 次元에서 民族의 將來를 내다보아야 한다는 것. 셋째, 우리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함께 關心을 쏟아야 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또한 「7·7宣言」은 이같은 趣旨를 구체적으로 可視化해 나갈 각종 후속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점은 『북한측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姿勢를 보여 온다면 보다 전진적인 措置를 취해 나갈 것』임을 強調한 것과 같이 南北韓관계란 결국 民族和合의 共同努力에 의해서만 진전

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大韓民國 次元에서 民族和解와 協力에 기여하는 정책이라면 아무런 條件없이 일방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實踐意志를 표명한 것이다.

나. 意義와 特徵

「7·7宣言」은 統一環境의 변화와 南北關係의 새로운 발전이라는 여건의 성숙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자는데 기본적인 意義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南北對決時代를 清算하고 閉鎖된 북한사회를 개방으로 유도하며, 그 相互關係를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南北關係를 「선의의 동반자 관계」로 승화시키려는 뜻과 함께, 이를 위해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시대적 요구로 부각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民族統一에 접근하는 視角과 認識에 큰 획을 그어 놓은 「7·7 선언」의 의의는 대체로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는 측면과 大韓民國 政府의 統一·外交政策의 기조 전환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北韓에 대한 認識의 轉換〉

「7·7 宣言」은 무엇보다 북한을 경쟁과 대결, 그리고 敵對하는 對象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의 일부로 포용하여 相互信賴·和解·協力を 바탕으로 共同繁榮을 추구하는 民族共同體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對北韓觀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분단 40여년이 넘는 시점에서 南北韓이 相互斷絶과 불신 속에 民族自衛行爲를 지속해 나간다면 민족역량의 소모는 물론 민족자존의 기틀마저 훼손하게 될 것이란 점에서 이제 南과 北은 한 겨레, 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民族共同體 의식을 조속히 회복해 나가야만 한다.

북한에 대한 인식 전환의 논리는 하나의 民族共同體 아래 南과 北에 2개의 체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북한의 現實的 存在를 인정하고 상호 화해와 협력의 증진을 통해 民族統合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

이같은 인식은 南北韓關係를 독립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이 될 때까지의 잠정적 관계, 즉 한 民族共同體안의 특수한 관계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단적으로 대변한 것이 南北間의 교역을 국가간의 교역이 아닌 民族內部的 交역으로 간주한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의 轉換은 결국 民族統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7·7선언」은 점차 한 민족안의 두 체제라는 分斷의 障壁을 허물고 南北韓間의 적극적인 交流·開放·協力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社會·文化·經濟부문의 공동체로 통합해 가며, 이를 바탕으로 政治的 共同體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한 國家로의 民族統一을 실현한다는 統一理念을 내포하고 있다.

<統一·外交政策의 基調轉換>

「7·7宣言」은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인 정책으로 구체화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統一與件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즉 이 선언은 북한을 內外로부터 고립시켜 결과적으로 북한내부의 변화를 꾀한다는 消極的 態度로부터 오히려 북한이 국제사회의 責任있는 成원으로 참여하는데 協調함과 동시에 미·일등 우방과의 關係改善을 도모케 한다는 적극적인 통일·외교정책으로의 轉換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7·7宣言」의 과감한 政策轉換은 1980년대 중반에서 나타나는 國際社會의 개방적 흐름에 능동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할 우리 民族社會의 진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北韓의 內部的 발전과 變化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우리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南北韓社會의 均衡發展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족성원 전체의 삶의 질이 한단계 높아진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할 당위성을 충족시킨다. 실제로 南北間의 지나친 경제적 격차나 勢力不均衡은 오히려 統一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북한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民族經濟의 均衡發展을 促進하는 건인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민족애의 차원에서도 의미있게 부각되는 것이다.

「7·7宣言」으로 인한 統一·外交政策의 전환은 南北韓間의 인적·물적 교류를 적극 촉진하고, 南北韓社會의 상호신뢰 및 긴장완화의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한편 南北間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를 종식시키면서 國際社會에서의 민족공동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統一民族史의 큰 이정표로 남을 것이다.

다. 6個項 政策宣言

「7·7宣言」은 自主·平和·民主·福祉의 統一理念과 그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民族共同體를 이룩함으로써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의 새 시대를 열어나 가야 한다는 基本精神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7·7宣言」의 理念과 原則의 토대위에서 구체적인 조치로 취해진 6개항 政策宣言의 주요 내용과 特徵은 다음과 같다.

(1) 선언 1항 : 南北同胞間의 적극적인 相互交流 推進과 해외동포의 南北自由往來를 위한 門戶開放

남북간에 쌓인 불신을 씻어내고 民族統合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같은 민족으로서 交流와 協力을 통해 남북간의 상호이해와 民族的 유대감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그동안 반세기가 가까와 오도록 분단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南北이 하나의 뿌리를 지닌 單一民族共同體라는 의식을 확고히 발전시키지 못하고 서로간에 不信만을 누적시켜 온 점에 근거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大韓民國 政府는 이미 北韓側에 「高位當局者會談」 개최를 제의하고 南北間에 政治人, 經濟人, 言論人, 宗教人, 文化·藝術人, 體育人, 學者와 學生등 각계각층 인사들의 인적 교류문제를 폭넓게 협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정부 當局의 교섭과 보장의 바탕 위에서 이같은 인적교류 實現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혀온 바 있다.

한편 선언 제1항은 海外同胞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남북을 자유로이 往來하게 하여 南北間의 不信 해소와 相互 理解 增進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在外國民은 200여만명에 이르고 있고, 소련·중국등 공산권에 거주하는 교포들도 220여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南北和解와 協力の 시대를 열어 나가는 우리로서는 이들의 고통과 불행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물론이다.

우리 民族이 지향하는 統一繁榮은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진 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繁榮을 保障하는 民族共同體를 형성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라고 하겠다.

(2) 선언 2항 : 離散家族들의 생사·주소확인, 書信往來, 相互訪問을 적

극 추선

43년에 걸친 分斷으로 인해 누구보다도 큰 苦痛과 不幸을 감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1천만에 이르는 이산가족이며, 이들의 고통 해소야말로 人道主義的 견지에서 제 1 차적 과제이다.

1970년대 南北對話 이후 大韓民國 政府는 南北間對話를 통해 이산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1985년 가을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교환방문은 바로 그같은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북한측에 의한 남북대화의 중단은 南北 쌍방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南北離散家族의 생사·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에 관한 실무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의 성숙을 방지해 두게 하였다.

선언 2항은 이와같은 南北間의 현실을 토대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정책의지의 표명이다. 앞으로 이산가족들의 南北往來 주선, 南北面會所 설치 등 직접·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생사·주소확인, 書信往來, 相互訪問 및 相逢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지원이 강구될 것이다.

(3) 선언 3항 : 南北韓 交易 門戶開放

南北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번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經濟共同體를 회복·發展시킴으로써 民族經濟의 규모와 질을 한차원 높여야 한다.

이미 南北間에는 수재물자 인도·인수등을 통해 相扶相助의 선례를 마련한 바 있으며, 다섯차례에 걸친 南北經濟會談을 통해 南北間의 물자교역과 경제협력 추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하여 실무적으로 合意書를 채택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進展되어 있다.¹⁷⁾ 그러나 이 역시 南北對話의 全面 中斷으로 더 이상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선언 3항은 이같은 南北關係의 교착을 타개하는데 있어 經濟開放과 交易實施가 중요한 과제임을 전제하고 있는데, 특히 南北間의 관계를 독립

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相互 統一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인식하여 南北間의 교역 그 자체를 민족 내부교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데 큰 특징이 있다. 이에 따르면 大韓民國으로 반입되는 北韓港 船積物資에 대해서 일체 관세형태의 稅金을 부과하지 않게 된다.¹⁸⁾

(4) 선언 4항 : 友邦國과 北韓間의 非軍事的 物資交易에 不反對

선언 4항에서는 友邦國과 북한과의 교역이 북한주민의 民生을 安定시키고 福利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면, 大韓民國 정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南北韓 체제대결의 차원에서 國力競爭을 가속화해온 선상에서 우방들이 북한과의 교역을 自制해 주도록 요청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언 4항은 對共產圈 輸出統制委員會(COCOM)를 통해 규제되는 품목, 즉 군사전략적으로 영향을 주는 품목과 國防·安保에 직접 관련되는 품목을 제외한 비군사적 物資交易을 용인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결과적으로 북한을 國際社會의 일원으로서 참여케 하고 개방을 촉진시킴으로써 民族經濟의 균형적 발전은 물론 民族共同體를 이루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5) 선언 5항 :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自由接觸과 協力 希望

南北韓關係는 민족사회 내부의 관계 발전 뿐 아니라 國際社會에서의 민족적 긍지와 위신을 견지해 나가는 노력으로 고양되어야 한다.

선언 5항은 그동안 南北韓이 國際舞臺에서 치열한 대결외교와 競爭을 통해 民族의 自尊과 위신을 스스로 손상시키고 民族利益을 넓혀 나가는 데 제약을 초래하여 왔음에 유의하면서, 國際的 선망과 찬사를 받는 세계속의 韓國으로서의 의연함과 성숙함으로 북한을 포용하는 대외적 자세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大韓民國 政府는 유엔 및 비동맹등 國際舞臺에서의 外交對決을 지양하며, 북한의 國際機構 가입을 고무해 나가는 한편, 南北代表가 세계 어디서나 자유로이 만나 相互意見을 나누고 화해와 개방의 世界潮流에 동참하며 또 이를 先導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게 될 것이다.

(6) 선언 6항 : 북한과 우방과의 關係改善 協調 用意

大韓民國은 第 6 共和國 출범이후 韓半島 平和定着과 民族統一의 외적 환경 조성을 위해 특히 국교관계가 없는 대륙국가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北方政策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선언 6항은 그러한 정책추진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北韓의 美·日등 우방국과의 관계개선을 용인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협조해 나설 수도 있다는 전진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하겠다.

이는 결국 韓半島의 外的 統一環境을 주도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自主外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 共同的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라. 關聯 實踐措置

「7·7特別宣言」은 南北韓關係와 北方政策에 새로운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南北間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民族統合과 번영을 추구해 나가려는 大韓民國 政府의 적극적 의지를 선언의 형식으로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南北關係 改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를 과감하게 실천해 나감으로써만이 「7·7特別宣言」의 基本精神을 살릴 수 있으며, 大韓民國은 그러한 견지에서 이 선언을 可視化 할 수 있는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講究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선언내용중에 북한측이 호응해 나옴으

로써 實効를 거둘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7·7特別宣言」의 基本精神과 그 眞意가 북한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南北赤十字 實務會議」 開催 提議

「南北赤十字 實務會議」 개최 제의는 「7·7宣言」의 제 2 항에서 『南北赤十字會談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離散家族들간의 생사·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지원한다』고 밝힌 내용의 후속 조치이다.

金相浹 大韓赤十字社 總裁는 1988年 7月 13日 北韓赤十字會 중앙위원회 손성필 위원장 앞으로 보낸 전화동지문을 통해 중단된 南北赤十字會談의 조속한 재개를 거듭 촉구하면서, 그 이전이라도 離散家族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南北赤十字 實務會議」를 개최하여 제 2 차 고향방문단 交換實現 등 實務協議 만으로도 가능한 4개항의 사업들을 우선 추진하자고 제의하였다.

金相浹 總裁의 전화동지문 제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⁹⁾

- ① 이산가족의 生死·주소확인을 위한 신청서와 회보서의 相互 交換
- ② 1985년 「離散家族 故鄉訪問團」 교환 당시 상봉가족 및 쌍방 赤十字를 통해 생존·거주지가 확인된 이산가족간 서신교환 주선
- ③ 海外居住 離散家族들에게 생사·주소 확인, 서신왕래, 가족상봉의 機會 알선
- ④ 금년중 제 2 차 南北離散家族 고향방문단 교환 등 사업을 추진
- ⑤ 이를 위한 「南北赤十字 實務會議」를 7월 30일내에 관문점에서 개최

이와 함께 金總裁는 북한측 이산가족이 親族相逢을 위해 우리측 지역의 방문을 원할 경우 身邊安全 보장과 함께 제반 편의를 제공할 것임을 북한

측에 通報하였다. 뿐만 아니라 大韓赤十字社는 이외에도 「7·7宣言」의 기본정신에 따라 이산가족문제의 우선해결을 위한 각종 실천가능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北韓赤十字會 손성필 위원장은 7월 16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南北赤十字會談이 南側의 반공대결정책과 전쟁소동으로 중단되었다』면서 『赤十字會談의 재개를 가로 막는 제반 요인들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金相浹 總裁가 제기한 「南北赤十字 實務會議」 개최 제의를 사실상 거부하였다.

한편 金相浹 大韓赤十字社 總裁는 「1천만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남북적십자사회담 제의 17주년을 맞은 8월 11일 특별담화를 發表하였다.

金相浹 總裁는 담화문을 통해 북한적십자사회측에 중단된 南北赤十字會談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북녘땅에 있는 가족 친척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이산가족찾기 신청서접수」사업을 南北赤十字會談 제의기념일인 8월 12일 부터 11월 12일까지 3개월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²⁰⁾

大韓赤十字社의 이산가족찾기 신청접수사업은 앞으로 南北赤十字間의 합의에 따라 가족찾기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하여 北赤側에 보낼 이산가족찾기 의뢰서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의미도 갖는다.

(2) 「南北教育當局會談」提議

「南北教育當局會談」제의는 「7·7宣言」에서 각계 각층의 인적교류를 적극 推進해 나간다는 제 1 항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金永植 文敎部長官은 1988년 7월 15일 북한 정무원 교육위원회 변영립 위원장에게 보내는 對北 서한을 통해 가능한 한 7월 30일안에 판문점에서 「南北教育當局會談」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²¹⁾

金 文教長官은 「南北教育當局會談」에서 南北 學生間의 조국순례대행진 추진문제와 친선체육경기 교환개최문제, 그밖에 학생교류추진과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서는 또 祖國巡禮團의 規模를 쌍방 각기 1,000명 정도로 하고, 우리측 학생들은 판문점에서 백두산으로, 북한측 학생들은 판문점에서 한라산으로 행진한 후 귀환하는 방식으로 하여 금년 안으로 첫번 행사를 갖자고 하였다. 또한 친선체육경기 교환개최는 우선 축구, 남녀탁구, 남녀배구 등 구기종목을 택해 쌍방 각기 200명 정도로 選手團을 構成하여, 1차 경기는 1988년 10월 평양에서 그리고 2차 경기는 다음해 4월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아울러 제의하였다.

金 文教長官은 이와 함께 이같은 示範事業이 진전되면 南北學生들간에 음악, 미술, 무용, 연주 등 文化藝術分野에서 공연 및 전시회의 교환개최와 금강산, 경주 등 명승지와 民族史蹟地를 관광하는 「수학여행단」 교환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아울러 밝혔다.

이 제의는 南北韓의 젊은 세대들에게 民族的 信賴와 일체감을 회복시키고 다각적 인적교류의 확대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여기에는 그동안 南北學生會談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학생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되어 있다.

당시 韓國社會의 일부 학생들은 1988년 3월 29일 「김일성대학 청년학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비롯해 3차례에 걸친 對北 공개서한을 내고 南北學生會談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었다.²²⁾

올림픽을 앞두고 韓國內部的 혼란을 기대해 오던 北韓側은 이를 계기로 『南北學生會談 실현을 위해 억세게 싸우라』²³⁾, 『남조선 청년학생들이 남북학생회담을 마련하기 위해 투쟁하는데 대해 모든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²⁴⁾면서 韓國學生들을 부추기는 한편, 「南北學生會談 北側準

備委員會」라는 것을 구성, 이에 적극 호응해 나섰다.

韓國의 一部 學生들을 南北學生會談 成事を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6월 10일 板門店 행진을 강행했으나, 학생들의 신분에 맞지 않는 議題로 一元主義 體制와 교섭에 나서는 데 대해 이의 自制를 促求하는 國民輿論에 의해 무산되었다.²⁵⁾

그러나 이들 학생들은 「6·10 南北學生會談」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제 4차(1988. 6. 11) 및 제 5차(1988. 7. 27) 對北 공개서한을 내고 8월 15일 南北學生會談을 재시도할 것을 선언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會談議題로서 ① 南北 청년학생 상호 교류문제 ② 南北 離散家族 상봉 실현을 위한 청년학생 노력 문제 ③ 제 24 회 국제올림픽대회 共同主催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노력 문제 ④ 南北 청년학생 체육대회 개최(9.15~9. 17) ⑤ 南北間의 軍事的 對峙狀態 해소문제등을 제시하여 政治·軍事問題까지도 다룰 것을 주장하였다.²⁶⁾ 뿐만 아니라 회담에 諸政黨·社會團體, 각계각층 대표들도 참관시킬 것임을 밝힘으로써²⁷⁾ 순수한 學生會談의 성격을 스스로 변질시켰다.

「南北教育當局會談」提議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통일의지를 前向的으로 수용하는 한편, 한걸음 더 나아가 학생들의 자기측 지역내 巡禮主張을 발전시켜 南北韓이 상호 교환하여 상대측 지역을 巡禮케 함으로써 南北關係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코자 하는데 참뜻이 있었다.

한편 북한측은 「南北教育當局會談」提議 내용을 담은 對北書翰을 7월 15일에 傳達하겠다고 通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월 14일 정무원 교육위원회 변영립 위원장의 명의로 對北書翰 접수를 거부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 왔다.

이 전화통지문에서 北韓側은 韓國 政府가 南北學生會談을 방해한다고 비난하고 『뒤늦게 당국이 끼어들어 주선이니 뭐니하고 간섭할 條件이 없다』면서 서한 접수 자체를 拒否했다.

이와 함께 북한측은 7월 17일 또 다시 정무원 대변인 성명을 통해 『學生交流問題는 학생들 자신이 협의·해결할 문제이지 當局이 개입할 性格의 문제가 아니다.』, 『南北教育當局會談을 들고 나온 것은 학생교류문제를 解決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8. 15 학생회담을 가로 막고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여 올림픽 단독개최를 강행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⁸⁾

이같은 북한측의 「南北教育當局會談」 제의 거부는 「7·7선언」의 기본정신을 수용하고 호응하기 보다 南北學生會談 실현을 위한 일부 學生들의 鬭爭을 선동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즉 북한은 학생들의 南北學生會談 개최강행과 이에 따른 韓國政府의 대응봉쇄조치로 사회혼란이 야기되어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파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南北學生會談과 관련한 한국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그릇된 환상과 기대를 갖고 이후 전 선전매체를 동원하여 학생들의 鬭爭 煽動을 가일층 강화하였었다.²⁹⁾

심지어 북한측은 南北學生會談 날짜에 맞추어 6월 10일과 8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학생대표·기자단·선동대 등을 판문점에 내보내고 기자회견, 구호, 노래 등 선전선동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南北教育當局會談」 제의는 사실 전쟁의 미경험세대인 南北韓 學生들이 상대방 체제의 실상을 확인하고 비교·체험함과 아울러 민족적 유대감을 증진시킴으로써 平和統一의 기반을 공고히 하자는데 참뜻이 있었지만, 북한측이 南北學生會談 제의에는 즉각적인 호응을 해 나왔으면서도 이를 실제로 보장하기 위한 당국간의 대화는 거부한 점에서 南北對話를 보는 그들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3) 前向的 對北 外交施策 施行

崔尙洙 外務部長官은 1988년 7월 16일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民族共同體로서의 南北關係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7·7宣言」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실천해 나갈 관련 외교시책을 밝혔다. 그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³⁰⁾

- ①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우리의 우방들이 自國의 法令과 정책에 따라 北韓과 非軍事的 物資를 交易하는데 반대하지 아니함
- ② 비군사적 물자라 함은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의 규제 대상이 아닌 一般商品 및 技術資料를 지칭함
- ③ 이와 같은 교역을 위하여 상담등을 목적으로 한 우리 우방과 北韓 간의 민간인의 往來에 반대하지 아니함
- ④ 상기와 같은 目的을 위하여 우리 우방이 北韓에 民間商社의 지사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데 반대하지 아니함
- ⑤ 國際社會에서 北韓의 위치를 인정하면서 北韓이 유엔현장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世界平和와 人類의 發展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고 北韓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함
- ⑥ 北韓과 소모적 경쟁·대결외교를 지양하고, 北韓이 非同盟 第3世界 國家와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반대하지 아니함
- ⑦ 모든 국제기구, 국제회의를 포함한 외교무대에서 南北韓은 民族共同體로서 중상이나 비방등 비생산적인 論爭을 지양할 것을 北韓에 촉구함.
- ⑧ 北韓이 유엔의 모든 산하기구와 전문기구, 정부간 지역협력 및 개발기구등에 가입하는 것에 협력할 용의가 있음.
- ⑨ 北韓이 세계 어느 지역에서 개최되든 모든 文化·藝術·學術·스포츠

츠 행사등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함

- ⑩ 南北代表가 함께 참가하는 모든 국제회의에서 相互接觸과 대화를 갖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기타 文化·藝術·學術 및 스포츠 행사에서도 南北間의 접촉과 대화를 위해 노력함
- ⑪ 南北의 公館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서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南北 外交官간의 접촉과 대화를 추진함
- ⑫ 미국과 일본 등 우리의 우방이 북한과 文化·藝術·學術,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民間交流를 갖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이에 協調할 用意가 있음
- ⑬ 미국과 일본의 외교관이 북한 외교관과 제3국이나 中立的 環境에서 접촉과 대화를 갖는 것에 반대하지 아니함

이상과 같은 崔 外務部長官의 外交施策 轉換 闡明은 「7·7宣言」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는 大韓民國側의 일방적 조치이다.

이에 따른 외교시책의 변화는 대체로 ① 國際外交舞臺에서의 南北韓 관계개선, ② 우리 우방과 북한과의 관계개선, ③ 우리와 중국·소련·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등 세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는 均衡된 交叉交流와 接觸을 통해 南北共榮의 길을 모색하고 한반도에 안정구조 정착을 도모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崔 外務部長官의 이 외교시책 선언은 우리 스스로가 소모적인 대결외교를 지양할 뿐 아니라 북한도 國際社會에서 책임있는 성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民族自尊의 바탕을 내실있게 다듬어 가자는 뜻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미·일 등이 북한과의 접촉과 交易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북한이 1984년의 合營法 채택 이후 對西方 接觸에 있어 한계에 봉착해 온 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對西方 교역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특히 外務部의 이 조치로 미국은 對北韓 제재조치를 緩和하고 북한과 점진적인 관계개선을 圖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70년대 이래 누적된 북한의 채무불이행 및 大韓民國과의 관계를 감안, 對北交易이 미미한 수준(韓·日間の 약 2% 정도)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日本의 對北輸出金融 規制緩和 또는 日本상사의 北韓 진출, 기술이전 등이 促進될 수 있을 것이다.

崔侏洙 外務部長官은 이와 함께 7月 19日에는 해외동포들의 南北韓 자유왕래를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으며,³¹⁾ 이로써 전 세계에 살고 있는 450여만 명의 해외거주 동포들의 母國訪問이 완전히 개방되었고, 北韓側의 相應한 조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大韓民國의 외교시책 전환으로 民族共同體로서의 南北韓관계가 國際社會에서 可視化될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北韓의 호응여하에 따라서는 그들 사회의 개방이 촉진되고 韓半島 周邊情勢가 平和와 和解의 분위기로 바뀌는 단서로도 될 수 있을 것이다.

(4) 北韓 및 共產圈 資料開放

政府代辯人 鄭漢模 文公部長官은 1988年 9月 3日 『「7·7 宣言」에 따른 對北 門戶開放政策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北韓 및 共產圈 자료를 대폭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大韓民國 政府의 이같은 조치는 앞으로 활성화될 對共產圈 交流 促進등에 따른 정보수요의 증대에 부응하고, 北方政策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北韓 및 共產圈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통해 「남북한 교류·협력시대」를 실효성 있게 보장한다는 의의가 있다.

정부대변인의 北韓 및 共產圈자료 공개에 따른 기본방침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³²⁾

- ① 北韓 및 朝總聯등 반국가단체가 선전목적으로 발행한 자료등 명백히 國憲에 위배되는 자료를 제외한 일반 共產圈 자료는 모두 공개
- ② 北韓의 노동신문과 映像資料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공개
- ③ 일반공개에서 제외된 자료라 할지라도 學術研究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열람·대출 등 이용절차를 간소화
- ④ 政府機關 또는 公共研究機關에서 保有하고 있는 北韓 및 共產圈 정보자료를 각계에 최대한 供給토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資料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綜合資料센터의 설치운영 推進

(5) 對北 非難放送 中止

大韓民國 政府는 남북이 하나의 民族共同體를 향해 共存共榮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7·7特別宣言」의 기본정신에 따라, 1988年 7月 19日 0時를 기해 전방지역에서의 對北 非難放送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KBS 社會教育放送을 통한 대북방송시에도 金日成, 金正日 父子등 北韓側 特定人에 대한 人身攻撃을 지양하기로 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³³⁾

그동안 비난방송의 중지는 1972년에 발표된 「7·4共同聲明」 제 2항 「신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중상하지 않으며」라는 조문에 의거하여 1년동안 실시된 바 있으나, 北韓側의 일방적인 약속과기로 무산되었었다.

大韓民國의 일방적인 對北 誹謗中止 조치는 「7·7 特別宣言」에 따라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北韓資料의 개방 및 在外僑胞들의 北韓訪問 등 對北接觸의 선행조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비방방송과 같은 대결과 敵

對關係의 遺産들을 먼저 정리하고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남북교류·협력 시대」진입을 위한 豫備的 節次이다.

大韓民國은 對北 非難放送 中止措置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平和메시지를 北韓側에 전달하는 등 北韓의 호응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和解와 共存의 틀을 마련키 위한 조치들을 아무런 조건없이 착실히 구현해 나갈 것이다.

(6) 對北韓 經濟開放 措置

大韓民國 政府는 1988年 10月 7日 羅雄培 副總理겸 經濟企劃院長官의 성명을 통해 「7·7 宣言」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경제부문의 南北關係改善을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즉 「7·7 宣言」의 제 3항인 『南北間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南北間 교역을 民族內部交易으로 간주한다.』는 항목을 구체적인 실천단계로 가시화하기 위해 우선 南北經濟會談이 재개되기 이전이라도 향후의 南北間 經濟交流가 民族全體 利益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南北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공동번영해 나가기 위한 經濟共同體의 발전을 내다보며 民族經濟의 규모와 질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 취한 이 措置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⁴⁾

1. 우리측 民間商社나 국내 外國貿易商社에 의해 間接交易형태로 軍事物資를 제외한 南北物資의 국내로의 반입과 북한으로의 반출 및 이의 再搬出入을 허용(民間商社 北韓物資 交易許容)
2. 우리측 民間商社가 北韓의 물자를 제 3국으로 수출하거나 第3國物資의 對北韓 수출을 중계하는 行爲를 허용(民間商社 北韓物資 中斷許容)

3. 북한의 원산지 표시나 상표가 부착된 北韓物資의 국내반입시 원산지 표시 또는 상표를 제거하지 아니함(北韓原產地 表示·商標 附着許容)
4. 간접교역에 의해 우리측으로 직접 인도되거나 단순히 제 3 국을 경유한 北韓原產地 物資에 대해서는 內國間 거래로 간주하여 관세 기타 輸入物資에만 부과되는 諸稅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우리측 물자의 對 北搬出시에도 輸出에 준하여 각종 輸出關聯制度를 인정(直·間接 交易物資 關稅 未賦課)
5. 우리측 民間商社가 제 3 국에서 商談을 목적으로 북측인사를 接觸하거나 北韓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며, 北韓經濟人이 商談目的으로 방한을 희망할 경우 이를 환영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便宜提供과 身邊保障등을 약속(南北經濟人 相互接觸·訪問 許容)
6. 북한선적의 선박이 南北韓 또는 제 3 국의 교역물자를 싣고 國內入港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北韓船籍 商用船舶 入港許容)
7. 상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南北韓 經濟交流에 관련된 法的·制度的 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이러한 法的·制度的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南北韓 間接交易에 대해서는 對外貿易法上的 特殊地域 交易에 관한 諸規定등에 준하여 처리(南北經濟交流 關聯 法制 補完)

大韓民國 政府의 이같은 조치는 南北韓經濟交流 확대를 통해 경제부문에서의 상호보완성을 제고함으로써 經濟共同體로서의 實益을 쌍방이 共有함과 아울러 民族共同體 意識을 회복·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주도적 노력의 표현이다.

아직도 고립과 폐쇄체제를 固守하고 있는 北韓이 개방의 광장으로 나와 경제를 통한 실질적인 接觸에 호응한다면, 經濟的 補完성과 지역적 근접에 따른 이익의 共同受惠는 물론이고 南北間의 대결과 단절 상황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南北간에는 1984년 11월부터 약 1년간 상호경제교류 실현을 위한 5차례의 經濟會談이 개최되어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합의에 도달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措置는 과거의 經驗과 成果를 토대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南北間 經濟會談이 재개되기 이전이라도 어떠한 형태이든 南北韓交易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방적인 실천방안을 提示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조치는 「7·7 宣言」의 기본정신을 최대한 수용하여 南北間 직접교역은 물론 간접교역에 대해서도 상당부분을 民族內部交易으로 간주, 관세등을 부과하지 않고 교역에 관련된 각종 制約要因마저 제거함으로써 南北間 실질적인 經濟交流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 부각된다.

南北間에 이러한 직·간접교역이 진전되어 相互接觸이 增大되고 相互交流 擴大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 남북교류의 전면적 실현을 위한 분위기와 그 기반이 성숙됨으로써 남북경제교류를 본격화하고, 더 나아가 南北韓 긴장완화와 相互均衡發展을 도모해 나가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5. 南北國會會談 豫備接觸

가. 成立 背景

지난 1985年 7月 23日과 9月 25日의 南北國會會談 제 1·2차 예비접촉 이후 1986年 2月 18日로 예정되었던 제 3 차 예비접촉이 北韓側の 南北對話 전면중단 선언으로 결렬되었다.

이번 南北國會會談 준비접촉은 金在淳 國會議長이 大韓民國 國會를 代表하여 1988年 7月 9日 제 142 회 臨時國會 제 20 차 本會議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서울올림픽대회에의 北韓參加 促求決議文」을 담은 서한을 7月 18日 北韓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양형섭 의장에게 전달한데서 비롯되었다.

서울올림픽대회에의 북한참가 촉구결의문

大韓民國 國會는 전인류의 축제인 제 24 회 올림픽대회가 161개 국가의 열렬한 지지와 積極的 참가리에 大韓民國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바, 祖國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와 韓半島의 영원한 平和定着을 갈구하고 희망하는 세계각국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이 역사적 대제전을 민족적 화해와 교류의 일대 계기로 삼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민족적 宿願인 통일의 실현이 눈앞에 다가선다는 확고한 신념하에, 서울올림픽대회를 기필코 성공시켜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면서 北韓側の 성의와 호의적 참가를 강력히 促求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大韓民國 國會는 1988年 9月 17日 개최되는 역사적 서울올림픽대회에 北韓 선수들이 대거 참가할 것을 희망하면서, 北韓當局은 숭고한 올림픽 정신과 취지에 입각하여 또 나아가 民族의 大和解의 起爆劑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積極的 자세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 大韓民國 國會는 北韓當局이 온 세계가 南北韓의 태도와 관계를 주시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서울올림픽대회가 韓民族의 동질성과 우수성을 만방에 과시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행사로 승화되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 大韓民國 國會는 北韓선수들과 동포들이 서울올림픽대회 기간을 중심으로 상당기간동안 南北간을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南韓의 어디든지 방문할 수 있는 보장하에 分斷의 障壁을 헐어버리는 기회로 이용해 줄 것을 희망한다.

- 大韓民國 國會는 南北韓이 서울올림픽대회를 시발로 계속하여 각계각층 그리고 각분야에 걸친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겨레의 궁극적 소원인 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간 肯定的이고 前向的 자세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진지하게 제의한다.

1988년 7월 9일

대 한 민 국 국 회

이같은 金在淳 國會議長의 결의문 전달에 대해 北韓側은 7月 21日 최고 인민회의 상설회의 양형섭 의장 명의로 8월중 제 1 차 「南北國會連席會議」를 平壤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는 대남편지와 함께 「南北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草案을 동봉하여 왔다.

북한측의 서한요지는 다음과 같다.³⁵⁾

『緊張상태를 완화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交流나 交易을 하여도 南北間은 分界線을 사이에 두고 언제 가도 화목한 民族共同體로 될 수 없다.

南北連席會議가 緊張緩和를 위한 합리적인 협상마당으로 생각하지만 동 회 의가 소집되기 이전이라도 우리측이 제의한 바 있는 불가침에 관한 共同宣言을 토의할 것을 예견한 南北國會會談이 가장 적절한 會談이 된다고 본다.

南北國會會談은 여러가지 형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豫備接觸을 거침이 없이 우리 最高人民會議 代議員들과 남측 國會議員들의 連席會議를 소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 討議內容 >

- ① 南과 北의 불가침에 관한 共同宣言을 발표하는 문제

- ② 南側이 제기하는 緊張狀態緩和 및 平和保障에 유익한 문제

<運營方式>

- ① 쌍방 國會議長들의 共同議長制
 ② 平壤 개최시는 최고인민회의 의장, 서울 개최시는 南側 國會議長이 사회
 ③ 회의에서의 토론은 상정된 문제에 대하여 모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진행
 ④ 의결방법은 北側 대의원수를 南側 國會議員數와 대등하게 하고 투표와
 거수방법을 配合,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場所·時期>

- ① 平壤과 서울에서 순번제 개최
 ② 8월중 제 1 차회의를 平壤에서 개최

<南北 不可侵 共同宣言 草案>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반대하여 武力不使用, 武力으로 상대방 不侵害
 ② 완전한 통일시까지 상호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을 對話·協商을 통해 平和的으로 해결
 ③ 상대방에 대한 외국의 侵略이나 武裝干涉 행위에 不加擔·非協調
 ④ 不可侵의 경계선은 1953년 7월 27일 軍事停戰協定에 규정된 軍事分界線으로 함
 ⑤ 상호 무력의 단계적 縮小 및 이와 併行하여 외군·핵무기의 단계적 철거
 ⑥ 현 非武裝地帶를 緩衝地帶로 하며 中立國監視軍을 두어 武力紛爭 방지
 ⑦ 南北不可侵宣言은 각기 타국과 체결한 條約·協定에 제약을 받지 않음]

아울러 7월 26日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양형섭 의장은 金在淳 國會議長에게 보내는 대남서한을 통해 「南北國會連席會議」에서 서울올림픽에의 北韓초청문제와 올림픽 共同主權案을 긴급의제로서 동시에 토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이러한 北韓側의 제의에 대해 金在淳 國會議長은 8월 1日 대북서한을

통해 「南北國會會談」을 8월중에 성사시키기 위한 준비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동 서한에서 金在淳 國會議長은 준비접촉을 위해 15명의 大韓民國 國會議員들을 8월 둘째주중 北韓側이 원하는 일시에 板門店으로 파견 하겠다고 밝혔다.

北韓側은 이에 대해 8月 9日 제3 차 서한을 통해 3~5명의 國會議員을 대표로 「南北國會連席會議」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을 8月 17日 午前 11時 板門店 北側지역인 「統一閣」에서 갖자고 제의해 왔다.

北韓側의 제3 차 서한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南側이 말하는 「南北國會會談」이 제한된 몇사람의 대표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며 다른 政黨·團體들과 각계 인사들을 배제하는 것이라면 우리로서는 그것을 현실에 부합되는 적절한 會談방식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의제문제와 관련하여서는 南側이 言及이 없는 사실로 보아 우리측이 두차례의 편지에서 제기한 의제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의견이 없는 것으로 밖에 달리는 해석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

우리는 國會連席會議를 소집하려는 일념으로부터 南側이 南北國會들 사이에 會談을 가지는데 原則적으로 동의한 사실에 유의하고 다음과 같이 南側과의 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상봉에 나가려고 한다.

① 日 時 : 1988年 8月 17日 午前 11時

② 場 所 : 板門店 북측지역 「통일각」

③ 代 表 數 : 3-5명의 國會議員

④ 議 題

- 南北國會連席會議 제1 차 회의를 平壤 또는 서울에서 8月 26일부터 4박 5일간 개최할데 대한 문제
- 이와 관련한 실무절차(連席會議 장소, 일시, 板門店 통과절차, 身邊安全, 편의보장 등) 문제

실무절차 문제를 토의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 한번의相逢으로도 가능하다고 認定한다.』

大韓民國側은 8月 12日 對北書翰을 통해 會談날짜를 8月 19日로 수정제 의함과 동시에 이어서 8月 17日 電話通知文을 통해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에 참석할 大韓民國側의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였고, 北韓側도 8月 18日 북측 대표단 명단을 통보해 오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지난 1985年 9月 제 2차 國會會談 豫備接觸 이후 2년 11개월만에 南北國會間의 공식적인 대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쌍방간의 準備接觸 代表團 名單은 다음과 같다.

< 韓 國 側 >

首席代表 朴 俊 圭 (民主正義黨)
 代 表 李 漢 東 (民主正義黨)
 代 表 金 瑋 鎬 (平和民主黨)
 代 表 朴 寬 用 (統一民主黨)
 代 表 金 龍 煥 (新民主共和黨)

< 北 韓 側 >

團 長 전 금 철 (조선노동당)
 代 表 안 병 수 (조선노동당)
 代 表 리 동 철 (조선노동당)
 代 表 리 주 응 (조선사회민주당)
 代 表 박 문 찬 (천도교청우당)

나. 會談進行 經過

(1) 第1次 準備接觸

南北國會會談을 위한 제1차 준비접촉은 쌍방 각기 5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988年 8月 19日 午前 11時부터 板門店 北側 지역내에 있는 「統一閣」에서 공개리에 진행되었다.

北韓側의 전금철 단장은 基調發言을 통해 그들이 그동안 대남서한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되풀이 강조하였다. 전단장은 南北國會會談의 형식을 정당·사회단체 대표,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連席會議」로, 의제는 『첫째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 둘째 제24차 올림픽문제와 그밖에 緊張狀態의 緩和를 비롯한 南側이 제기하는 문제』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北韓側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南北國會 連席會議 소집 및 운영과 관련한 합의서 초안」을 제시, 이를 문항별로 토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北韓側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은 다음과 같다.³⁶⁾

〈南北國會 連席會議 召集 및 運營과 관련한 合意書(草案)〉

1. 連席會議 議題

連席會議 의제는 南北不可侵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 제24차 올림픽 경기대회 문제로 하며 그밖에 나라의 緊張狀態를 완화하고 平和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南側이 제기하는 문제도 의제로 함.

2. 連席會議 場所

連席會議는 平壤과 서울에서 번갈아 하며 제1차 連席會議는 平壤에서 개최함.

3. 참가대상과 인원

連席會議에는 쌍방 國會議員 전원과 쌍방에서 각각 國會議員이 없는 政黨, 단체들의 대표와 각계인사 50명씩 참가함.

4. 제 1 차 連席會議 날짜 및 회의기간

제 1 차 連席會議는 1988年 8月 26日에 하며, 회의기간은 4박 5일로 함.

5. 판문점 軍事分界線 통과절차

- ① 쌍방은 각각 連席會議에 참가할 國會議員들과 다른 정당·단체 대표 및 각계인사들, 수원 및 기자들의 성명, 성별, 직위를 밝히고 사진이 첨가된 명단을 매차 상대측 지역에 들어오기 3일전에 상대측에 넘겨 줌.
- ② 連席會議와 관련하여 상대측 지역에 가는 인원들은 자기측 國會나 國會議長이 발급한 신임장 또는 身分證明書を 휴대함.
- ③ 쌍방 인원들의 軍事分界線 통과지점은 판문점 軍事分界線상에 있는 인원 접수측의 관한 건물로 함.
- ④ 쌍방 왕래자들은 판문점 軍事分界線을 넘어선 때부터 자기측 지역에 돌아올 때까지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름.

6. 身邊安全保障

- ① 쌍방은 상대측 인원들이 자기측 지역에 滯留하는 기간 그들의 身邊安全과 불가침권을 責任的으로 보장함.
- ② 身邊安全과 불가침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該當機關은 공식성명을 발표하고 성명 문본을 상대측에 넘겨줌.

7. 便宜保障

연석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에 滯留하는 인원들의 교통 및 통신 手段과 宿食을 비롯한 일체 편의는 주최측에서 보장함.

8. 國會連席會議의 운영절차

- ① 連席會議는 공개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비공개로도 할 수 있음.
- ② 連席會議 참가자들에 대한 資格審査는 쌍방에서 각각 3명으로 구성되는 공동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함.
- ③ 連席會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쌍방에서 각각 5명으로 구성되는 共同運營委員會를 조직함.
- ④ 會議執行은 南과 北의 國會議長들을 共同議長으로 하여 平壤에서 회의를 할 때는 北側이, 서울에서 회의를 할 때는 南側이 담당함.
- ⑤ 의정에 대한 보고 또는 의안은 南과 北에서 각각 제기할 수 있으며, 쌍방 國會에 망라된 정당별로도 제기할 수 있음.
- ⑥ 토론은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모든 회의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하되 토론자 수는 南과 北에서 동수로 함.

- ⑦ 토의된 의안에 대한 可決은 거수 또는 投票의 방법으로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
- ⑧ 의결에 참가하는 國會議員數는 南과 北에서 동수로 하며 會議 議長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음.
- ⑨ 표결결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南과 北에서 각각 5명씩으로 共同計算委員會를 구성함.
9. 會議記錄은 녹음과 녹화, 속기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회의 주최측은 상대측에 필요한 錄音中繼線을 보장함.
10. 이밖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會議開幕前에 쌍방실무자들 사이에서 협의 결정함.

韓國側의 朴俊圭 수석대표는 基調發言을 통해 그간의 南北 왕래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本會談의 형식, 의제, 대표단구성, 本會談 일자 및 장소, 實務節次 문제 등의 체계적인 토의를 주장하였다.

朴俊圭 수석대표의 基調發言文 요지는 다음과 같다.³⁷⁾

『改革과 開放이라는 國際的 추세속에서 민족문제에 대한 새로운 發想과 認識의 대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大韓民國 國會는 전인류의 平和와 友誼가 담긴 祭典인 제 24 회 서울올림픽대회가 이땅에서 열리게 된 歷史的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고 이것을 南北和解와 統一促進의 유리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확신아래 貴側 選手들의 올림픽대회 참가를 촉구하는 決議文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우리 國會議員들은 民族繁榮과 平和統一을 바라는 겨레의 念願과 기대에 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南北國會會談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南北國會會談과 관련한 우리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① 南北國會會談의 形式은 代表會談으로 함.
- ② 대표단은 쌍방 각기 20명의 대표와 40명의 지원인원 및 50명의 取材記者로 구성하며, 수석대표는 議長이 지명하는 重鎮議員으로 함.

③ 의제는 다음의 다섯가지로 함

- 1) 北側 선수들의 제 24 회 서울올림픽 참가 문제
 - 2) 南北간의 人的·物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문제
 - 3) 南北당국간의 不可侵協定締結을 권고하는 문제
 - 4) 南北赤十字會談, 南北經濟會談 재개를 촉구하는 문제
 - 5) 南北頂上會談의 개최를 권고하는 문제
- ④ 합의사항은 共同合意文으로 채택하여 발표하고, 會談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쌍방 5명의 대표로 간사회의 또는 共同運營委員會를 구성·운영함
- ⑤ 제 1 차 南北國會會談은 8월중 平壤에서, 제 2 차 會談은 10월중 서울에서 개최함
- ⑥ 상대측 지역 滯留期間은 3박 4일로 함
- ⑦ 南北왕래철차, 身邊안전보장등 기타 제반 실무절차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南北왕래의 先例를 準用하되 이에 따른 구체적 문제는 쌍방에서 실무대표 1명씩을 선정, 협의·결정토록 함.

南北國會會談은 이미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많은 인원이 모여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올림픽참가를 비롯하여 南北間에 存在하는 數多한 문제를 협의·타협하는 모임이며, 이를 위해 代表會談의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大韓民國은 1974년부터 南北當局間의 불가침협정체결을 제의해 왔으며, 南北國會會談에서 남북불가침에 관한 필요성과 의의를 確認하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具體적이고 實質의인 문제들을 쌍방 당국에 맡겨 협정을 체결토록 촉구하는 것이 國會議員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쌍방 首席代表들의 기초발언내용을 보면 제 1 차 南北國會會談을 8월중 平壤에서 개최한다는 데에는 일치하고 있으나, 會談형식문제와 의제문제등에 있어서는 중대한 입장차이를 나타내었다.

北側은 南北間에 교환한 편지에서 쌍방이 國會會談의 형식을 連席會議로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본 것처럼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한 기초위에서 國會會談의 운영과 절차문제만을 다루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韓國側은 쌍방이 國會間 會談을 가지는데는 原則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몇가지 문제에 의견차이가 있음을 환기시키면서, 쌍방간에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會談의 형식, 의제, 대표단 구성, 기타 實務節次 問題를 준비접촉에서 협의 해결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결국 제1차 준비접촉은 本會談의 형식과 의제를 중심으로 토의를 계속 함으로써 당초 豫備接觸 자체를 거부했던 北韓側 논리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쌍방은 서로의 입장을 개선하는 데만 그침으로써 아무런 진전이 없이 제1차 접촉을 끝내고 말았다.

本會談의 형식에 있어서 韓國側은 北韓側이 제기한 政黨·社會團體 代表, 각계 인사들의 참가문제는 國會會談의 성격상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의제토의의 效率性和 生産的인 결과의 창출, 代議政治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代表會談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의제에 있어서도 韓國側은 北韓側이 제기한 南北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발표문제는 國會의 성격상 쌍방 당국에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北韓側은 그간의 대남서한과 이번 「合意書 草案」에서 제시한 「連席會議」와 「不可侵宣言 共同發表」의 선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韓國側은 南北國會會談에서 해결해야 할 의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으로 보아 8月 20日 午前 11時에 제2차 준비접촉을 속개하자고 제의하였으며, 北韓側도 이에 동의하였다.

(2) 第2次 準備接觸

제2차 준비접촉은 1988年 8月 20日 午前 11時에 板門店 韓國側 지역내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2차 접촉에서는 쌍방간에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 南北國會會談의 형식과 의제문제에 관해 집중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

韓國側은 北韓側의 주장을 대승적으로 수용하여 會談形式·議題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會談의 형식에 관해서는 代議政治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代表會談을 거듭 강조하면서, 만약 南北國會 代表會談이 개최되어 쌍방간에 합의사항이 생산되면 각기 자기측 國會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도 있고 또한 필요하다면 쌍방 國會가 「合同會議」를 열어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會談議題에 대해서도 韓國側은 北韓側의 주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제시하였다.

- ① 제 24 회 올림픽경기대회 문제
- ② 南北간 人的·物的 교류와 협력 문제
- ③ 南北不可侵 문제
- ④ 南北赤十字會談, 南北經濟會談 再開 문제
- ⑤ 南北頂上會談 개최 문제

특히 불가침문제와 관련하여 「南北不可侵問題」로 제시한 것은 北韓側의 입장을 고려하여 우선 쌍방 國會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보자는 포괄적 입장을 취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北韓側은 韓國側이 제시한 절충안에 대해 『전혀 문제해결 방도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硬直된 입장을 보였으며, 불가침공동선언문제와 올림픽문제가 초미의 문제이기 때문에 南北國會 連席會議에서 이를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會談형식에 대해 北韓側은 쌍방 國會議員 954명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最小限의 連席會議」이며, 여기에 정당·사회단체, 각계인사들을 참석시킬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의제에 대해서는 北韓側이 會談이 끝날 무렵 ① 불가침 공동선언 ② 제

24 회 올림픽 문제(韓國側이 초청하는 문제와 공동주최문제) ③ 南北間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문제로 채택할 것을 수정제안하였다. 그러나 교류·협력문제는 南北連席會議가 열려 불가침문제와 올림픽문제가 토의될 경우에 한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한편 韓國側은 불가침과 관련한 의제를 「불가침 협정체결과 불가침 공동선언 문제의 건」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北韓側은 不可侵協定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韓國側은 올림픽 개막일이 迫頭한 만큼 우선 이를 시급히 협의·해결하기 위한 「南北國會會談」만이라도 8月 29日 平壤에서 개최하여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자는 긴급제의를 하였으나, 北韓側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連席會議 주장만을 고집함으로써 쌍방은 어떠한 合意點도 찾지 못하였다.

(3) 第3次 準備接觸

제 3 차 準備接觸은 1988年 8月 22日 午前 11時부터 板門店 北側지역내에 있는 「통일각」에서 진행되었다.

3차회담에서 北韓側은 「連席會議」의 선전에 치중하면서 韓國側의 올림픽 문제 제기를 牽制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韓國側은 제 2 차 접촉에서 내놓은 절충안이 會談형식에 관한 견해차이를 좁히려는 성의를 담고 있으며, 의제문제 역시 견해차이에서 오는 난관을 타개하고 本會談을 위해 준비접촉을 하루속히 매듭지으려는 노력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韓國側이 제 24 회 올림픽문제만이라도 시급히 협의·해결하기 위한 南北國會會談을 8月 29日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긴급 제의한 것은, 불과 며칠 후로 다가온 제 24 회 서울올림픽대회에 南北이 함께 참가함으로

써 民族和合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려는데 그 참뜻이 있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서 北韓側은 會談형식을 南北連席會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였으며, 會談議題에 대해서도 불가침과 관련한 의제는 韓國側이 조정·제시한 「不可侵問題」나 「불가침협정체결과 불가침공동선언문제」로 하는데 동의할 수 없으며, 「불가침협정체결을 권고하는 문제」는 撤回하고 北韓側이 주장해 온 「불가침공동선언채택」만을 의제로 해야한다고 고집하였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해 8월중에 南北國會會談을 개최하자는 韓國側의 긴급제의에 대해 北韓側은 이번 接觸이 올림픽 문제와 불가침문제를 다같이 묶어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北韓側은 올림픽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議題 討議는 가급적 회피한 채 「連席會議」에 대한 선전 위주로 會議를 진행함으로써 사실상 올림픽 개최 이전의 本會談 성사에 뜻이 없음을 나타내 보였다.

이에 대해 韓國側은 시기적으로 올림픽문제 논의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는 現實論과 함께 公開會議가 선전위주로 진행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쌍방 수석대표간 單獨接觸을 먼저 가진 후 諸般문제를 다루자고 제의하였다.

이 쌍방 수석대표 單獨接觸 제의에 대해 北韓側은 4차 接觸日字 결정만을 요구하다가 『돌아가서 연락하겠다』며 會議를 마쳤다.

(4) 雙方 首席代表 單獨接觸

제 3 차 접촉시 韓國側이 쌍방 수석대표간의 單獨接觸을 제기한데 대하여 北韓側은 다음날인 8月 23日 10時 20分경 電話通知文을 통해 당일 11시에 비공개로 만날 것을 통보해 왔다.

그러나 北韓側은 접촉시각을 불과 40분 남기고 만날 것을 알려왔을 뿐 아니라 비공개회의를 주장하면서도 기록요원 1명과 안내실무요원 2명의 동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韓國側은 北韓側 提議가 시간적으로 무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쌍방 수석대표간의 接觸을 8月 24日 午前 11時로 하며, 각기 1명의 隨行員을 동행하도록 수정 제의하였다.

쌍방간의 電話通知文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된 쌍방 수석대표간의 單獨接觸은 1988年 8月 24日 午前 11時 板門店 「평화의 집」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朴俊圭 韓國側 수석대표와 전금철 北韓側 단장간의 單獨接觸은 1988年 8月 24日 午前 11時부터 약 2시간동안 기록을 위한 수행원 각 1명만을 同席시킨채 진행되었다.

韓國側은 北韓의 올림픽 참가문제에 대한 진의를 탐색하였으나, 北韓側은 「連席會議」준비사업을 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韓國側의 의견 조정만 일방적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北韓側은 5~6명으로 이루어지는 代表會談에 대해서는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連席會議」에서 小委員會를 통한 협의를 거침으로써 만장일치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會談형식문제를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韓國側은 쌍방 수석대표간의 單獨接觸이 별다른 성과가 없다

고 판단, 제 4 차 準備接觸을 재개하기로 하고 電話通知文을 통해 8月 26日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5) 第 4 次 準備接觸

제 4 차 準備接觸은 1988年 8月 26日 午前 11時부터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韓國側은 올림픽문제가 시급한 초미의 과제라는데 쌍방이 認識을 같이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올림픽문제를 緊急議題로 한 南北國會會談을 8月 29日 平壤에서 개최할 것을 재강조함으로써 4차 준비접촉에서 올림픽문제를 마무리지을 것을 促求하였다.

이에 대해 北韓側은 會談형식과 관련하여 「連席會議」를 「合同會議」로 바꾸고, 國會議員이 아닌 정당·사회단체, 개별인사의 참가문제는 本會談에서 협의한다는 조건에서 보류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南北의 國會議員 954명 전원이 참가하고 다수결로 의결한다는 종전의 多衆集會式 연석회의를 고수하였다. 불가침문제에 있어서도 北韓側은 그들이 제의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만을 의제로 해야하며, 올림픽문제도 불가침문제와 함께 묶어서 토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韓國側은 서울올림픽 최종 엔트리 마감일을 불과 1주일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北韓選手團의 서울올림픽에의 참가문제를 南北國會會談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促求하였으나, 北韓側은 올림픽문제를 南北國會議員 전원이 참가하는 「合同會議」에서 다수결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韓國側은 北韓側의 입장이 사실상 올림픽문제를 8월중에 해결하자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제 5 차 접촉은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재

개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北韓側이 올림픽문제를 緊急議題로 하는 南北國會會談을 8月 29日 平壤에서 개최하자는 제의에 동의해 올 경우에는 당장이라도 會談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韓側은 제 5차 접촉을 10月 13日에 재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韓國側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제 5차 접촉은 1988年 10月 13日에 개최기로 합의하였다.

(6) 第 5 次 準備接觸

제 5차 準備接觸은 1988年 10月 13日 午前 10時부터 「통일각」에서 진행되었다.

제 5차 준비접촉에서는 쌍방 각기 첫發言을 통해 本會談의 형식문제에 대한 修正案을 제시하였다.

먼저 北韓側은 會談형식과 관련하여 「合同會議」로 하되 참가 인원수를 대폭 축소하여 北韓側은 최고인민회의 전체대의원수의 3분의 1(218명)로, 韓國側은 전체 국회의원수의 절반(150명)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 제의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순히 대표단 규모만을 줄인 것일뿐 多數決原則 고수등 본질적으로 「連席會議」방식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韓國側은 회담형식에 있어 회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견지하면서도 北韓側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는 새로운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南北國會會談은 「개회모임」과 「議題討議」를 위한 代表會談, 「폐회모임」순으로 진행한다.
- ② 「개회모임」과 「폐회모임」은 南北國會議員 전원이 참가하는 合同會議 형식으로 하고 의제토의는 代表會談形式으로 진행한다.
- ③ 「개회모임」에서는 準備接觸에서 합의한 諸般事項을 확인하고 의제토

의를 위해 각기 선정한 대표를 소개하며 쌍방 國會議長이 開會演說을 한다.

「개회모임」은 準備接觸 終了 後 1個月 이내에 平壤에서 개최한다.

- ④ 「議題討議를 위한 代表會談」에서는 상정된 의제를 토의, 쌍방향의에 따라 南北國會會談 의제를 포함하는 共同決議文을 작성한다.

「議題討議를 위한 代表會談」의 代表數는 쌍방이 합의하는 적정 수로 하고 서울과 平壤에서 번갈아 會議를 개최한다.

「개회모임」直後 「議題討議를 위한 제1차 代表會談」을 개최한다.

- ⑤ 「폐회모임」은 「議題討議를 위한 代表會談」에서 합의된 共同決議文을 確認·採擇하며, 「議題討議를 위한 代表會談」이 終了된 後 1個月 이내에 서울에서 개최한다.

- ⑥ 開·閉會모임은 共同議長制로 진행하며 招請側의 國會議長이 會議의 司會를 맡는다.

南北國會議員 전원이 서울과 平壤을 왕래하자는 이같은 韓國側의 伸縮性 있는 제의에 대해 北韓側은 『韓半島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는 등 會談外的인 발언과 함께 開·閉會 모임은 國會議員 전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한편 의제문제와 관련하여 韓國側은 ① 南北赤十字會談, 南北經濟會談 재개 문제를 포함한 南北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문제 ② 南北 불가침문제 ③ 南北 頂上會談 개최문제를 제의하였다.

특히 韓國側의 朴俊圭 수석대표는 『南北 최고당국자들이 이미 頂上會談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頂上會談의 의제에 대해서까지 언급하고 있는 만큼 南北國會의원들이 그 실현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불가침문제와 관련하여 韓國側은 준비접촉에서 불가침의 내용과 성격까지 규정하는 것은 대표단의 임무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 「協定」

과 「宣言」, 「勸告」와 「委任」, 「促求」등 어휘문제에 구애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北韓側은 頂上會談 문제논의는 배제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를 양보할 수 없는 선으로 설정하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7개항의 「不可侵共同宣言 草案」이 선언의 기본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北韓側은 「가짜 불가침」이 있고 「진짜 불가침」이 있다면서 그들의 「不可侵共同宣言 草案」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불가침선언은 「가짜」라고 까지 강변했다.

88서울올림픽이 개최된 직후에 열린 제 5차 준비접촉에서도 쌍방주장은 아무런 접근점을 찾지 못하였으며, 北韓側은 次期接觸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는 등 「南北國會會談」의 성사에 대해 무성의함을 나타내 보였다. 제 6차 준비접촉은 11월 17일에 개최기로 합의하였다.

(7) 第 6 次 準備接觸

第 6 次 準備接觸은 1988年 11月 17日 오전 10시부터 板門店 韓國側地域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第 6 次 준비접촉에서는 會談開始 이후 처음으로 會談形式과 관련한 일부문제에 대해 南北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國會會談을 「개회모임」, 「의제토의를 위한 本會談」, 「폐회모임」 순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開·閉會모임은 南北國會議員 전원이 참석하고 本會談의 대표수는 각각 50명씩으로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韓國側은 會談形式에서 第 5 次 준비접촉시 수정안인 「6개항」 제안을 재강조한데 이어, 의제문제에서 北韓側의 주장을 수용하여 「南北不可侵問題」

를 「南北不可侵宣言問題」로 바꾸어 제안하였다.

이것은 南北 雙方當局이 이미 頂上會談의 의제로서 「不可侵宣言」을 제시해 놓고 있는 상황을 감안함과 동시에, 용어사용의 시비를 해소함으로써 하루빨리 本會談을 성사시키겠다는 전진적 입장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韓國側은 기본적으로 相互不可侵, 不干涉, 紛爭의 평화적 해결 등 南北當局간에 채택할 불가침선언의 기본방향에 대한 南北政治人들의 意志를 공동으로 결의하고 南北當局간에 조속히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도록 권고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韓國側 제안에 대해 北韓側 전금철 단장은 會談形式에서 「開幕會議」, 「기본문제 토의를 위한 代表會議」, 「閉幕會議」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수정제의를 옴으로써 의견상 韓國側 제안에 상당히 접근한 반응을 보였다.

北韓側의 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開幕會議>

- 준비접촉 완료후 1개월내 平壤에서 개최 (南北國會議員 全員參加)
- 준비접촉 합의사항 확인, 대표회의의 쌍방 代表名單 발표, 쌍방 國會議長의 開幕演說, 南北의 각 정당대표 및 개별인사 축하연설

<基本問題 討議를 위한 會議>

- 쌍방 각기 100명이 참가하는 代表會議로 진행
- 第1次 代表會議는 開幕會議 이후 1개월내 서울에서 개최 및 이후 서울·平壤 운번 개최
- 쌍방 각 정당대표들로 「執行部」를 구성, 代表會議의 의견차이를 協議·調整

- 쌍방 5명으로 「共同運營委員會」를 구성, 운영절차문제 협의
- 최종합의는 「一致合意」방식으로 하며 합의사항은 共同合意書로 작성

〈閉幕會議〉

- 代表會議 종료후 1개월내 개최 (南北國會議員 全員參加)
- 共同合意書를 박수로 확인

또한 토의과정에서 北韓側은 「代表會議」에 참석할 國會議員數를 쌍방 각기 100명에서 50명으로 수정하였고, 「執行部」는 南北 同數로 구성하고 운영은 합의제로 할 것임을 아울러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상의 의견접근에도 불구하고 北韓側이 「代表會議」에 二重의인 論理構造를 부여함으로써 본질문제에서 큰 시각차를 드러내었다.

北韓側은 「代表會議」가 쌍무회담형식이 아닌 連坐會議 형식이며, 多數決을 전제로 한 「일치합의」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一致合意制」는 극소수가 반대하고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경우 합의로 인정한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결국 「합의제」를 배제한 애매한 표현에 불과하다.

또한 南北韓관계의 현실과 특성을 감안하여 南北韓의 모든 현안문제는 雙務的 會談形式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韓國側 입장인데 비해 北韓側의 「代表會議」는 회의 참석자가 각자 표결권을 갖고 다수결로 해결해야 한다는 종래 주장을 고수하는 것이었다.

한편 北韓側은 會談議題에 있어서는 우리측의 「南北不可侵宣言問題」 제의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용에 있어 외군철수문제등 기본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頂上會談은 의제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第 6 次 준비접촉은 이와같이 南北쌍방간 異見의 폭을 확인하는데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으로써 일단 南北國會會談의 성사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고 하겠다.

南北 쌍방은 第 7 次 準備接觸을 1988년 12월 15일에 갖기로 합의했다.

6. 「南北頂上會談」提議

盧泰愚 大統領은 1988年 8月 15日 第 43周年 光復節 慶祝辭를 통해 『北韓의 金日成 主席에게 6천만 동포의 염원에 따라 民族의 統合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만나 會談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³⁸⁾

특히 盧泰愚 大統領은 『南北의 指導者가 서로 만나 民族의 將來問題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데 있어 場所, 議題, 節次 그 어느 것도 장애요인이 될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盧大統領의 이같은 「南北頂上會談」提議는 韓半島의 平和定着과 平和統一問題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妥當性과 함께, 전반적인 통일환경 또한 이의 실천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南北이 하나의 民族이라는 民族共同體 의식아래 民族全體의 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갈 것을 밝힌 「7·7 宣言」을 頂上次元에서 先導의으로 구현해 나감으로써, 그 진의를 北韓側에 전달하고 北韓側이 民族共同體 形成에 동참해 나올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실천의지가 표명된 것이기도 했다.

南과 北이 40여년간 對立과 反目的의 관계를 지속해 온 점을 감안한다면 南北頂上이 아무런 조건없이 서로 만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相互不信을 해소하고 교류·협력의 길을 여는데 결정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그간의 南北對話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南北間에는 기본적으로 쌍방 당국 最高責任者의 政治的 決斷을 필요로 하는 중대하고도 복잡한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다.

南北頂上間의 허심탄회한 대화는 이러한 南北間에 미묘하고도 서로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方法인 것이다.

北韓側은 이같은 南北頂上會談 提議에 대해 그들의 政權樹立記念日인 「9·9 節」을 하루 앞둔 9月 8日 慶祝報告大會에서 金日成이 직접 언급하는 반응을 보였다.³⁹⁾

金日成은 연설에서 「南北共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南北頂上會談에서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고 통일국가의 聯邦政府를 세우거나 그 실현을 위한 「平和統一委員會」 같은 것을 창설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平壤을 방문하는데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구체적으로 의제와 장소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이어 『韓國 국민들이 反美 自主化의 기치를 높이 들고 보다 조직화된 대중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南北頂上會談의 조건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大韓民國 당국자들이 外勢依存에서 벗어나 조국의 自主的 평화통일을 위한 全民族的 운동에 합류해 나서야 한다』며 또 다시 前題條件을 내세웠다.

이와함께 金日成은 『朝鮮半島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北韓과 美國사이에 平和協定을 체결하고 南과 北사이에 不可侵宣言을 채택

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美國軍隊와 核武器를 철거시키고 南과 北이 무력을 단계적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면서 軍事問題 優先解決의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였다.

사실 이같은 北韓側 태도는 本質적으로 그들의 對南戰略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國政府는 南北頂上會談의 무조건 개최를 먼저 제의해 놓고 있고 과거와 같은 대응을 지양한다는 입장에서 北韓側의 반응에 留意키로 했다.

李洪九 國土統一院 長官은 9月10日 논평을 통해 『北韓의 最高 責任者가 직접 반응을 보여온 것을 주목한다』고 말하고, 『北韓側이 頂上會談 實踐의 조건으로 그들이 종래 주장해온 일련의 전제조건을 되풀이 한 것은 유감스러우나 南北정상회담의 실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盧泰愚 大統領은 서울올림픽대회가 끝난 1988年 10月 4日 第144회 定期國會에서의 國政演說을 통해 南北頂上會談의 개최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직접 平壤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과 아울러 頂上會談의 議題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⁴⁰⁾

즉 盧大統領은 南北頂上會談에서 『불가침선언과 조국의 통일실현 문제를 비롯하여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懸案을 아무런 제한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南北頂上會談이 하루 속히 열려 民族和解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北韓側이 제시한 의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유연하고 包容力있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서도 北韓側은 1988年 10월 14일 「祖國平和統一委員會」명의로 聲明⁴¹⁾을 통해 南北政治·軍事會談의 개최, 南北連席會議 개최 및 不可侵

문제 해결, 國家保安法 철폐 등 「條件·霧圍氣論」을 주장하며 경직된 자세를 보였다.

南北頂上會談의 성사를 위한 盧泰愚 大統領의 의욕과 집념은 1988년 10월 18일의 유엔총회 연설⁴²⁾을 통해 國際政治 舞臺에서 재확인되어졌다.

盧大統領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平壤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쌍방의 견해와 입장을 털어놓고 논의함으로써 『韓半島에서 平和를 제도화하고 하나의 民族共同體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의 토대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演說에서 주목되는 점은 『불가침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불가침 또는 武力 不使用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할 것』을 제의한 점과, 특히 南北間의 불가침선언이 있기 전이라도 北韓에 대해 절대 먼저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國際社會에 선언한 점이다.

「軍事問題 優先解決」을 주장하는 北韓의 입장에 이같이 전진적이고 신축성있게 대처하는 한편, 南北頂上會談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盧大統領은 이날 演說에서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와 統一實現 方案, 南北間의 交流協力, 軍備縮小등 軍事問題를 포함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타결할 것을 제의했다.

이와같이 第6共和國의 南北頂上會談 제의는 그 성격과 배경⁴³⁾에 있어 기존 제의와는 의미를 크게 달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民族史의 새로운 흐름에 비추어 볼 때도 어느 때보다 높은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7. 開放과 和解의 主導

가. 「民主繁榮의 統一時代」 指向

盧泰愚 大統領은 1988年 10月 4日 제 144 회 定期國會 本會議에서의 國政演說을 통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민적 역량을 바탕으로 「民主繁榮의 統一時代」를 새로운 國家비전으로 제시했다.⁴⁴⁾

盧泰愚 大統領은 아울러 政治·社會의 민주화, 「先進和合經濟」의 추진, 민족통합을 위한 통일기반조성과 적극적인 北方政策 추진, 그리고 民族文化의 계승발전을 第6共和國이 추구할 국가운영목표로 설정하였다.

盧泰愚 大統領은 이와같이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각 부분의 성과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킴으로써 선진된 통일국가로의 길을 열어 나감과 함께, 통일여건의 肯定的 변화와 과감한 北方政策 추진의 성과를 평화통일의 새로운 전기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盧泰愚 大統領의 國政演說은 새로운 世紀에 대응하는 統一民族國家를 내다보며 民族社會의 진로를 모색하는데 역점이 두어지고 있으며, 開放과 和解의 새 흐름을 주도하여 「南北交流·協力時代」를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적극적 대응방안으로 南北韓 頂上會談을 더욱 구체화시킴과 동시에 새 통일방안의 제시계획을 밝히고 있다.

〈새 통일방안 제시천명〉

盧泰愚 大統領은 『우리의 목표는 우리 民族 모두가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동시에 민족공동체가 영

원히 繁榮·發展할 통일국가를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民族統一의 방안은 편협한 冷戰論理나 어느 일방에 선 주장에서 벗어나 그것을 南北兩側이 받아들여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내부의 다양한 통일논의는 물론 北韓側에서 제시해 온 방안 중에서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肯定的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새 통일방안을 수립할 것임을 밝혔다.

大韓民國 政府는 「7·7 特別宣言」을 통해 새 共和國의 南北關係 및 統一에 관한 基本政策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적극 구현하기 위한 후속 실천조치들을 강구하여 왔다. 第6 共和國이 기울여 온 이같은 통일노력은 무엇보다 먼저 北韓과의 敵對 및 競爭關係를 지양하고 南北이 하나의 民族共同體 구성원으로서 「善意의 同伴者關係」라는 새로운 인식을 공유하는데 역점이 두어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國政演說에서의 새 統一方案 提示 闡明은 그동안 통일논의의 場을 활짝 개방하여 國民輿論을 광범히 수렴·반영해 왔던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南北交流·協力時代」를 내다보는 의연한 입장에서 民族社會의 미래구도를 설계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를 대변한다.

이와같이 새 統一方案提示 闡明은 南北關係의 인식과 통일과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체적으로 정책화할 필요성을 고려하며 北韓側이 통일의 광장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실효성도 보장해 나간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새 통일방안은 與野를 포함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북한측의 입장도 수용되어 전향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포괄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章典이 될 것이다.

〈南北韓 頂上會談의 促求〉

盧泰愚 大統領은 國政演說에서 『우선 南北韓의 最高責任者가 만나는 것 자체가 民族和解와 統일의 출발점을 여는 전기가 될 것』임을 강조, 8. 15 光復節 慶祝辭에서 제의한 「南北韓 頂上會談」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였다.

특히 南北韓頂上會談의 議題問題에 있어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不可侵宣言」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南北韓 頂上會談이 형식적인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祖國의 統一實現에 있어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한 것임을 명백히 했다.(관련사항 3部 6章 참조)

〈北方政策 推進의 加速化〉

盧泰愚 大統領은 中國과 蘇聯, 東歐 共產圈國家들에 대해 관계개선을 위한 積極的이고 前向的인 政策을 표명하였다.

그동안 盧泰愚 大統領은 就任이후 세계 모든 나라가 互惠平等의 원칙위에서 서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으며, 이에 따라 中·蘇등 共產圈國家들과의 적극적인 관계수립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北方政策 意志는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즉 社會主義國家들이 東西理念의 障壁을 허물고 서울올림픽에 참가한 것은 물론 문화사절단을 파견하고 貿易代表部를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蘇聯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韓國과의 관계개선을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韓國의 北方政策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태도를 나타냈다.⁴⁵⁾

한편 大韓民國의 北方政策은 결코 北韓의 고립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社會主義國家들로부터 전폭적인 共感을 얻고 있다.

사실상 北方政策推進의 궁극적인 목표가운데 하나는 民族共榮의 입장에서 北韓의 개방을 유도하여 南北間에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는데 있으며, 이점은 國政演說에서 社會主義國家들이 北韓과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北韓의 발전을 돕기를 희망한다는 전진적 의사로 표현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北方政策은 民族共同體의 회복·발전을 전제로 韓民族의 활동무대를 世界全體로 넓히는데 큰 의의를 두게 되며, 민족통일을 성취하는 노력과 밀접한 연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大韓民國 政府의 北方政策은 앞으로 보다 폭넓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나, 經濟關係에서의 實益이라는 관점에서라기 보다는 이같은 南北關係改善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盧泰愚 大統領의 國政演說은 분단 40여 년사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民族社會建設의 포부와 이를 可視化해 나갈 정책적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第6共和國의 前向的 統一外交政策은 결국 北韓의 고립감과 위기감을 해소케 함으로써 「共存共榮의 南北韓 同伴時代」를 열어나갈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물론, 南北韓 관계개선에 있어서는 北韓 스스로의 개방화에 대비하는 내구력의 측정등 신중하고도 단계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國政演說에서言及되어진 南北韓關係 개선과 北方政策推進의 가속화를 위한 과감한 政策意志의 표명은 北韓當局의 불신과 의구심의 폭을 줄이고 南北韓 和解時代에의 共同進入을 위한 새로운 토대 마련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 和解와 統一을 여는 길

盧泰愚 大統領은 1988년 10月 18日 政府樹立 40周年을 기해 大韓民國의 大統領으로서는 최초로 159개 會員國 代表들이 참석한 제 43 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을 여는 길」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盧泰愚 大統領의 유엔총회 연설은 非會員國인 韓國의 세계적 位相이 달라진 상황을 배경으로 韓半島에서의 民族和解와 南北間의 交流·協力, 世界平和와 東北亞 勢力構造의 안정, 統一에의 展望등 21세기를 향한 韓國國民의 화해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세계에 전하였다는 점에서 유엔사에 길이 기록될 만한 歷史的 의미를 지닌다.

특히 東西間에 신데탕트 氣流와 開放·交流·協力 그리고 和解의 흐름이 두드러지는 시기에 「7·7 宣言」에 이어 또다시 동북아 平和定着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자주적인 民族統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획기적인 제안을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극단적인 이념대결로 인한 냉전체제의 희생양으로서 아직까지도 분단의 고통을 감수해오고 있는 韓民族이 스스로 이를 清算하고 세계적인 和解와 開放의 흐름을 주도해 나갈 새로운 좌표가 이 演說에서 설정되었다.

이러한 韓國國民의 화해와 평화에 대한 신념과 冷戰構造에 대한 종식 선언은 세계인의 신뢰와 기대를 모았다.⁴⁶⁾

盧泰愚 大統領은 동북아의 대결구조를 安定·協力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南北關係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새롭고도 실천가능한 접근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세계평화와 한반도 통일여건과의 相關性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새로운 외교지평을 열어나가는 전진

적이고 표용적인 자세를 부각시켰다고 하겠다.

盧泰愚 大統領의 유엔총회 연설에 나타난 주요내용의 배경과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⁴⁷⁾

〈和解와 統一의 實現〉

제 43 차 유엔총회는 제 30 차 總會以後 13년만에 韓半島문제를 총회안건으로 다시 採擇하였고, 그 議題를 「韓半島에서의 平和·和解·對話의 促進」으로 설정했다.

이는 統一問題가 우리 韓民族이 主導的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當爲性和 함께 세계평화와 불가불 關聯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盧泰愚 大統領은 總會演說을 통해 韓半島의 悲劇이 우리 民族의 뜻과는 달리 強大國의 分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켜 韓半島問題 解決의 책임의식을 共有케 하는 한편, 서울올림픽에서 표상된 東西和解의 물결과 그 흐름속에 아직도 온존하는 韓半島의 冷戰對決構造를 대비시키면서 「韓半島 和解와 平和」의 필요성을 도출해 내었다.

또한 盧大統領은 서울올림픽의 「和合과 前進」의 정신을 전달하고 平和와 和解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낙관을 인류 모두에게 심어주는 씨앗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이와 함께 盧泰愚 大統領은 人類社會가 必야호로 冷戰構造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이성과 양식이 지배하는 새로운 和解의 秩序로 轉換되고 있으며, 보다 능동적인 開放·交流·協力을 통해 和解·共存共榮·平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함을 지적했다.

이러한 미래 세계질서의 비전을 제시한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韓國은 東北亞의 평화와 세계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는 平和主導國家로서의 이미

지를 선명히 浮刻시켰으며 開發途上國에게 용기와 희망의 표상이 되었다.

이와 같이 이번 演說은 韓國國民의 矜持와 자신감, 그리고 開放과 和解를 향해 달리는 歷史의 潮流에 대한 확신을 그 기조로 하고 있으며, 이를 韓半島 평화와 통일성취의 전기로 昇華시키려는 강한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東北亞平和協議會議」構想〉

盧泰愚 大統領은 유엔총회 演說에서 東北亞에 平和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해 美國과 蘇聯, 中國과 日本, 그리고 南北韓이 참가하는 「東北亞 平和協議會議」를 열 것을 제의했다.

盧大統領은 『南北韓間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 民族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 韓半島의 永久的 平和는 동북아시아의 對決構造로 인해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지적하고 韓半島에 안정된 平和가 定着되기 위해서는 『南北韓이 모든 이해 당사국들과 합리적이며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말하자면 韓半島의 平和와 祖國統一이라는 2元的 目標를 달성하기 위해 民族自主力의 강화와 國際的 협력을 통한 平和定着의 제도적 보장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구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라 하겠다.

「東北亞 平和協議會議」구상은 한마디로 東北亞地域의 대결구조를 安定·協力·平和構造로 전환시킴으로써 窮極의으로는 태평양지역의 平和와 번영을 추구하는 한편, 韓半島問題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익한 국제환경을 조성해 나가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韓半島問題의 해결에 국한된 制度的 장치의 마련이라기보다 한반도문제를 포함하여 세계적인 和解秩序를 東北亞地域에 能動

의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윈적 모색의 일환인 것이다.

「東北亞 平和協議會議」은 과거 韓半島문제와 관련하여 제의되었던 4者 또는 6者 會談과는 그 내용이나 성격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⁴⁸⁾

지금까지의 관련당사국간 多者會談은 韓半島問題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의 限時的 補完裝置인데 비해, 이 구상은 동북아전체의 포괄적 문제를 다루며 南北韓間 直接協商도 併行 추진하는 「常設協議機構」인 것이다.

또한 理念과 體制를 달리 하는 東北亞地域의 관련국가들이 相互尊重과 互惠의 原則을 바탕으로 同伴者的 關係에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협의해 나간다는 점에서, 불력적 차원을 뛰어넘는 지역협의체를 指向하고 있다.

「東北亞 平和協議會議」제의는 韓半島를 둘러싼 周邊情勢의 變化, 理念과 體制를 초월하여 國家間의 개방과 협력을 추구하는 周邊國들의 기본방향을 결집하였으며, 北韓에게도 활로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진취적인 제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南北和解의 象徵「平和市」建設〉

盧泰愚 大統領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非武裝地帶안에 「平和市」를 건설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이 「平和市」안에서 南北의 離散家族들이 자유로이 만나며 民族文化館·學術交流센터·商品交易場 등을 설치하여 폭넓은 交換·交流·交易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平和市」건설을 제의했다.

「平和市」건설방안은 韓半島에서의 和解·統一努力을 구체화하기 위한 構想 가운데 하나로서 일단 南北간에 人的·物的交流의 계기를 마련하자는데 뜻이 있다. 이를 통해 南北間 교류가 본격화된다면 理念과 體制를

뛰어 넘어 미래의 통일된 조국을 지향하는 하나의 작은 民族共同體를 구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인류사회에 「平和示範區域」으로 개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平和市」는 民族共同體를 이룩하기 위한 제반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南北韓간의 交流와 協力, 대화와 접촉의 場으로서 民族和解의 상징적*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南北頂上會談의 實現意志〉

盧泰愚 大統領은 10月 4日 國會에서의 國政演說에 이어 유엔總會 연설을 통해서도 南北頂上會談의 실현의지를 확고히 표명하였다.

이로써 大韓民國은 南北頂上會談 그 자체를 國際政治무대로 끌어 올렸을 뿐 아니라, 지난 30여년간 군사적 대결을 지속해 온 南北韓關係를 相互信賴와 共存共榮의 관계로 대체해 나가는 「기본적 틀」을 설정해 나갈 길을 열어 놓게 되었다.

특히 軍縮·不可侵宣言 등 軍事問題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論議·解決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지금까지 韓國이 충분한 信賴回復의 기초위에서 軍事問題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온 점을 감안한다면 北韓側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관련사항 3部 6章 참고)

盧泰愚 大統領의 유엔총회 演說은 88서울올림픽을 사상최대의 축제로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自由民主主義體制의 우월성을 입증한 국가의 大統領으로서 韓半島의 分斷을 克服하는 평화통일의 이상과 꿈을 國際政治舞臺에 구체적인 靑寫眞으로 제시하는 뜻깊은 계기를 이루었다.

〈註〉 (第 3 部)

- 1) 任台淳, 南北對話와 北韓의 協商戰術, 民主統一論, 1988.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pp.189~198.
※ 1973년 10월 19일 불가리아 당·정대표단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金日成은 『우리는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으며, 분열주의자들과는 어떠한 타협도 할 수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北韓의 南北對話 또는 對南協商戰略이 革命鬭爭의 한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 2) 第 2 期 南北對話의 開幕과 膠着, 國土統一院, 1986. 12, p.4.
- 3) 金昶泰, 南北韓 統一政策, 民主統一論, 1988. pp.37~47.
南北對話 第 28 號, 1982. 2. pp.7~23.
- 4) 南北對話 第 37 號, 1985. 3. pp.28~38.
- 5) 第 2 期 南北對話의 開幕과 膠着, 國土統一院, p.30
民族和合 民主統一論 IV, 國土統一論, 1985. 12. pp.99~103.
- 6) 고르바초프의 對外政策 資料集, 國土統一院, 1988. 11, pp.5~42.
- 7) 前揭書, pp.43~57.
- 8) 前揭書, pp.61~81.
- 9) 申詰均, 韓半島 周邊情勢와 統一環境, 民主統一論, 國土統一院 統一研究院, pp.152~155.
- 10) 民族再結合의 摸索, 第 37 號, 國土統一院, 1988. pp.3~12.
- 11) Byung-Chul Koh, 「North-South Relations in the Year 2000」, Paper delivered to the conference on 「Korea in the Year 2000」 May 30~June 1. 1985.
金達中, 北韓의 對中·蘇 外交政策, 韓半島 平和와 統一環境 研究, 國土統一院, 1988. 11. pp.176~178.
- 12) 南北對話 第 44 號, 1988. 7. pp.34~36
- 13) 前揭書, pp.37~41.
- 14) 前揭書, pp.42~43.
- 15) 南北對話 第 45 號, 1988. 10. pp.12~17.
- 16) 南北對話 第 44 號, 1988. 7. pp.8~9.
- 17) 第 2 期 南北對話 推進現況, 國土統一院, 1988. 8. pp.29~43.
- 18) 1988. 10. 7 發表된 經濟企劃院의 對北韓 經濟開放 措置 참조.

- 19) 南北對話 第 45 號, 1988. 10. pp.47~48.
- 20) 前掲書, pp.52~53.
- 21) 前掲書, pp.57~59.
- 22) 分斷에서 統一로, 도서출판 일꾼, 1988. 6. pp.239~245, pp.253~254, pp.268~270.
 理念問題週報 第 11 號, 理念問題 研究所, 1988. 4. pp.34~35,
 同 第 14 號, 1988. 4. pp.27~28. 同 18號, 1988. 5. pp.45~47.
 同 22號, 1988. 6. pp.46~48.
- 23) 북한 노동신문, 1988. 5. 19.
- 24) 1988. 6. 17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전금철 담화.
- 25) 南北學生會談에 대한 여론의 시각, 평화문제연구소, 1988. 7. pp.6~19.
- 26) 1988. 7. 27 「전대협」, 제 5 차 서한 참조.
- 27) 1988년 7월 27일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전대협」)는 「북한청년학생에게 보내는 남한 백만 청년학도의 5차 공개서한」을 통해 『청년학생들의 민족화해의 노력을 높이 사는 제정당·사회단체·각계각층의 대표, 그리고 우리 은사님들 20여분을 함께 모시겠다』고 주장하였다.
- 28) 南北對話 第 45 號, 1988. 10. pp.63~65.
- 29) 8. 15 南北學生會談 왜 허용할 수 없는가, 國土統一院, 1988. 8. pp. 19~22.
 統一論議(資料集 I), 國土統一院, 1988. 8. pp.231~293에 수록된 국내 主要日刊紙의 社說, 時論, 解說 資料 등을 참조.
- 30) 南北對話 第 45 號, 1988. 10. pp.66~67.
- 31) 前掲書, pp.67~68.
- 32) 前掲書, pp.76~77.
- 33) 前掲書, pp.71~72.
- 34) 南北對話 第 46 號, 1988. 12. pp. 100~101, pp.104~108
- 35) 南北對話 第 45 號, 1988. 10. pp.117~118.
- 36) 前掲書, pp.128~130.
- 37) 前掲書, pp.130~138.
- 38) 前掲書, pp.88~90.
- 39) 前掲書, pp.108~110.
- 40) 南北對話 第 46 號, 1988. 12. pp.9~19
- 41) 前掲書, pp.43~44, 평양방송, 1988. 9. 8.

- 42) 前揭書, pp.47~59.
- 43) 南北頂上會談의 有用性 및 可能範圍에 대해서는 李基鏞의 「韓半島의 政治와 軍事」(서울:가남사, 1984. pp.59~76) 및 民族和合 民主統一論(Ⅱ)(國土統一院, 1983. 12. pp.9~43) 참조.
- 44) 南北對話 第 46 號, 1988. 12. pp.7~9.
- 45) 奇連洙, 韓國의 對蘇接近方案 摸索, 「蘇聯의 改革·開放과 韓半島」, 國土統一院, 1988. 12. pp.218~224.
- 46) 南北對話 第 46 號, 1988. 12. pp.84~91.
- 47) 前揭書, pp.60~70.
- 48) 盧泰愚 大統領이 提議한 「東北亞 平和協議會議」는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演說을 통해 제의한 군사력의 동결과 감축을 위한 多國協商이나 1975년 9월 「키신저」 美國務長官이 주장하였던 韓半島關聯 當事國間 會談(4者 혹은 6者 會談)에 비하여, 南北韓 當事者 解決을 강조한 점과 東北亞 및 太平洋의 안정, 평화의 제도화, 협력, 번영의 체제화 등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국제회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南北對話 第 46 號, pp.62~66 참조)

附 錄

對北提議 關聯文案 原文 目次

1. 「平和統一構想」宣言 (1970. 8. 15).....	445
2. 「南北赤十字會談」開催 提議 (1971. 8. 12)	452
3. 「平和統一 外交政策」에 관한 特別聲明 (1973. 6. 23).....	453
4. 「南北相互不可侵協定」締結 提議 (1974. 1. 18)	457
5. 「平和統一 3原則」闡明 (1974. 8. 15)	463
6.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 相互訪問」提議 (1981. 1. 12)	472
7.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提議 (1981. 6. 5)	474
8.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闡明 (1982. 1. 22)	481
9.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의 當面課題 提示 (1983. 1. 18).....	485
10. 南北韓 物資交流 및 經濟協力 提議 (1984. 10 20)	488
11. 「南北水資源 關係當局 會談」提議 (1986. 11. 28)	492
12. 統一問題에 대한 政府立場 闡明 (1988. 6. 2)	494
13.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을 위한 「7·7 大統領 特別宣言」 (1988. 7. 7)	495
14. 「南北教育當局會談」提議 (1988. 7. 15)	499
15. 「南北頂上會談」開催 提議 (1988. 8. 15)	502
16. 「民主繁榮의 統一時代」指向 (1988. 10. 4)	504
17. 「韓半島에 和解와 統一을 여는길」(1988. 10. 18)	513

1. 「平和統一構想」宣言

(朴正熙 大統領, 光復節 第 25 周年 紀念 慶祝辭, 1970. 8. 15)

親愛하는 國內外 5千萬 同胞 여러분 !

오늘은 우리 民族이 비할데 없는 感激과 환희속에 맞이했던 祖國光復, 그날로부터 꼭 4半世紀가 되는 날입니다.

25年前 전국 방방곡곡의 거리 거리에서 太極旗의 물결을 수 놓으며 自由解放 만세의 환호성을 소리높이 외치던 그날, 우리 온 겨레는 정녕 티끌만한 사심도 타산도 없는 순수한 愛國愛族의 마음으로 다함께 우리 民族再起의 출발을 기뻐하였고 우리 역사의 새로운 光榮을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 억압과 예속에서 벗어나고 잃었던 祖國을 되찾아,
- 다시는, 祖上들이 당했던 불우한 처지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굳게 맹세하며,
- 새로운 번영의 民族國家를 建設해 보겠다는 푸른 꿈을 펼쳐 보던, 그날의 벽찬 감격과 불타오르던 정열은 영원히 우리의 가슴속에 간직될 불멸의 봉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로부터 어언 2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25년이란 세월은 한 人間이 유아기로부터 소년기와 청년기를 넘어서 이제 그 완숙을 눈앞에 바라보는 한 세대에 해당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한 民族, 한 國家에 있어서도 그간의 성장도를 엄숙히 평가해 보아야 할 역사상의 이정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제, 成年 韓國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內外에 크게 誇示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光復節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감회는 자못 무량한 바

가 없지 않습니다.

지난 25년간의 光復 韓國史는 한마디로 말하여 드물게 보는 『激動의 時期』였고,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 光復의 감격과 환희가 國土分斷의 충격과 불행속에 하루 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는가 하면,
- 번영의 희망과 기대는 北韓 共產集團이挑發한 참혹한 전란속에 한 조각 허공에 뜬 구름처럼 흩어져 버렸고,
- 나아가서 政府樹立 이후의 혼돈과 정체는 급기야 두차례의 政治的 격동의 소용돌이를 치루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爭取한 것이 아니라, 他方에 의하여 주어진 光復을 분간 소화할 만한 主體的 力量을 갖추지 못하였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련과 진통을 피할 수 없었던 필연의 결과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비극을 당하여 결코 좌절하지 않았으며, 역경앞에 끝내 굴하지 않았읍니다.

長久한 民族史를 통하여 수 없이 많았던 内外의 우환을 강인한 의지와 舉族的인 항쟁으로 이겨내고 祖國의 獨立을 보전하여 왔던 굳세고도 억센 우리 民族 本然의 潛在的 力量이 試鍊克服의 途程에서 서서히 그 빛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싹터 오른 民族의 自覺이 凝結하여 잠자고 있던 생명력과 창조력에 점화되어 民族中興의 前進隊列을 整備한 역사적 전환점을 이룩한 것이 바로 지난 1960年代였읍니다.

그로부터 8, 9年! 우리들은 祖國近代化 課業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

올려 왔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온 세계는 50年代의 動亂 韓國이 이제 新生國 發展의 模範國家로 登場했다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우리 民族에 대해서 선망과 경외의 눈으로 쳐다보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보다도 값있게 생각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거둔 외형적 성과보다도 이것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우리 民族의 무한한 저력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떠한 큰 일도 이룩할 수 있다는 자신과 긍지를 일깨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0年代에 착수한 中興課業을 기필코 완수해야 할 사명의 70年代에 들어 섰습니다.

새로운 4半世紀의 歷史의 章이 시작되려는 이 순간, 우리 모두가 다시는 지난 날의 歷史的 前轍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결의와 우리 후손들에게는 보람찬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일층 드높여야 할 것입니다.

親愛하는 國民 여러분!

오늘 光復 第25周年을 맞이하면서 우리 온 겨레가 너 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가슴아프고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國土分斷의 비극입니다.

통일을 향한 民族的 悲願은 지난 4半世紀 동안 하루도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진 일이 없었으나, 한편 統一의 전망은 수많은 난관과 애로에 가로막혀 결코 밝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民族反逆集團이 北韓땅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광신적이며, 호전적인 共產集團은 祖國光復의 첫날부터 全韓半島를 폭력으로 적화하기 위해서 시종일관 광분해 왔습니다.

6·25 南侵의 참혹한 同族相殘에 이어서 휴전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7, 800여건이 넘는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고, 최근에는 무수한 武裝共匪를 남파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실증입니다.

정녕, 金日成과 그 徒黨은 마땅히 歷史와 國民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전범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徒黨은 言必稱 平和統一이니, 南北協商이니, 聯邦制니, 南北交流니 하는 등 파렴치한 상투적 선전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靑天白日下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 그들 스스로가 저지른 戰犯行爲와 緊張造成의 책임을 轉嫁해 보려는 賊反荷杖의 흉계인 것이며,
- 武裝共匪 南派를 위장, 隱蔽하고 소박한 일부 사람들을 眩惑케 함으로써 감상적 통일론을 유발해 보려는 간사한 술책인 것이며,
- 國際輿論의 誤導를 노리는 야비한 속셈인 것입니다.

이 허위와 기만에 가득찬 北韓共產集團의 作態를 믿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나는 단언합니다.

무릇, 共產主義의 政治體制는 基本人權의 蹂躪과 鐵의 紀律에 의한 全體主義의 一黨 獨裁입니다.

그 중에서도 金日成 體制는, 같은 共產圈內에서조차도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형적인 極左 冒險主義와 歷史僞造를 일삼는 개인 신격화가

판을 치는 閉鎖社會입니다.

오늘의 북녘 땅은 그러한 專橫과 공포가 휩쓰는 가운데 戰爭準備에 狂奔하는 하나의 兵燹으로 化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듯 歷史와 民族과 天運과 양심을 외면한 흉악한 武力挑發集團과 대치하여 統一問題를 다루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民族의 悲願인 祖國統一의 難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國土統一이 아무리 절실한 우리 民族의 至上命命이라 하더라도 同族의 流血을 강요하는 전쟁만은 피하여야 하겠고, 통일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꾸준한 인내와 최대한의 양식을 발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金日成 一派의 戰犯集團이 끝내 武力赤化統一의 野慾을 버리지 못하고 폭력적인 침략을 감행하여 왔을 경우에는, 이를 단호히 擊退할 수 있는 「힘의 培養」도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이미 수차에 걸쳐서 統一努力의 본격화는 70年代 後半期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기에 이르면 우리의 主體力량의 충실과 國際的 與件의 성숙으로 통일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으리라고 내다보고, 특히 北韓의 폐쇄적인 社會體制도 시대의 進運인 자유화 물결에 의해 스스로 변질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자유의 힘이 북녘까지 넘쳐 흐를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기를 전망하면서, 나는 光復 4半世紀에 즈음한 뜻깊은 오늘이 자리를 빌어서, 平和統一의 基盤造成을 위한 접근방법에 관하여 나의 구상을 밝히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先行條件이 있는 것입니다.

즉 北韓 共產集團이 지금과 같은 침략적이며 도전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한,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이것은 가면이요, 위장이요, 기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긴장상태의 완화없이는 平和的 方法에 의한 통일에의 접근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를 보장하는 北韓 共產集團의 명확한 태도표시와 그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武裝共匪 南派등의 모든 戰爭挑發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소위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이나 武力革命에 의한 大韓民國의 顛覆을 기도해 온 종전의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하는 것을 명백하게 내외에 선언하고, 또한 이를 행동으로 실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北韓 共產集團이 受諾, 實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유엔」에 의해서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에는,

나는 人道的 건지와, 統一基盤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南北韓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보다 現實的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韓國의 民主·統一·獨立과 平和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인정하고 「유엔」의 권위와 기능을 수락한다면, 「유엔」에서의 韓國問題 討議에 北韓이 참석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구상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北韓 共產集團에 대하여『더 이상 무고한 北韓同胞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戰爭準備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善意의 競爭, 즉 다시 말하자면 民主主義와 共產獨裁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親愛하는 國內外 同胞 여러분!

금년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19세기 후반의 開化期로부터 近 100年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1世紀, 우리 民族은 낙후와 예측과 전란과 혼돈이 겹친 수난을 이겨냈으며,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中興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녕 마지막 中興의 機會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오늘로서 시작되는 앞으로의 4半世紀를 넘기면 今世紀의 末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 2,000년경의 세계와 그 속에서 우리 大韓民國이 서 있을 좌표가 어디이겠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때의 우리 祖國은,

—— 國土統一을 이룩한 지 이미 오랜된 강력한 民族國家로서,

—— 온 국민이 다 함께 繁榮을 謳歌할 수 있는 풍요한 先進 福祉國家로서

—— 世界史의 주류에 당당히 참여하고 기여해 나가는 보람찬 모습으로 변모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착실한 그 준비기간인 것입니다.

1970年代는 이렇듯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우리의 近代 民族史의 途程에서 民族中興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年代의 中興課業을 成就하는 여부는 우리의 힘을 어느 만큼 「生産的」인 목표에 집결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民族의 團結, 힘의 集中, 그것은 정녕 民族中興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당면 課題인 自立經濟와 自主國防을 이룩하는 것도 민족의 단결이며, 민족의 염원인 國土統一을 성취하는 것도 우리의 단결된 힘입니다.

국민 여러분!

25年前 8·15에 謳歌했던 그 감격과 환희를 앞으로 기어이 성취할 祖國統一의 그날, 보다 더 벅차게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단결하여 전진합시다.

2. 「南北赤十字會談」 開催 提議

(大韓赤十字社, 1971. 8. 12)

4半世紀에 걸친 南北간의 장벽은 온갖 民族的 비극의 원천이며 특히 南北으로 갈린 離散家族들의 비극은 今世紀 人類의 상징적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人類愛와 재난의 구호를 위한 봉사를 기본으로 하는 赤十字精神을 구현해야 할 우리에게 있어서 실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산가족들의 비극은 남북간에 장벽이 해소됨으로써 완전히 종식될 것이나, 이것이 短時日內에 이룩되기 어려운 현실하에서 적어

도 1천만 南北離散家族들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들의 소식을 알려 주며 재회를 알선하는 「家族찾기 運動」만이라도 우선 전개해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大韓赤十字社를 대표하여 赤十字精神에 따라 南北간의 순수한 人道的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목적으로 北韓赤十字社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첫째, 南北간의 家族찾기 運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가까운 時日內에 南北赤十字社 代表가 한자리에 마주앉아 회담할 것을 제의한다.

둘째, 本 會談의 節次上의 問題를 협의하기 위하여 늦어도 오는 10월 안으로 「제네바」에서 豫備會談을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제의에 대하여 北韓赤十字社가 放送, 通信網 또는 國際赤十字社를 통해서나 여타 가능한 방법으로 그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

우리는 北韓赤十字社가 赤十字精神에 입각하여 이러한 순수한 人道的 提議를 好意的으로 받아들일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3. 「平和統一 外交政策」에 관한 特別聲明

(朴正熙 大統領, 1973. 6. 23)

親愛하는 5千萬 同胞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온 南北對話의 경험과 國際情勢의 추이에 비추어 민족의 숙원인 祖國統一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平和統一 外交政策을 內外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第2次 世界大戰後 우리는 해방이 되었으나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국토는 兩斷되고 民族은 분열되었습니다.

당초 日本軍의 항복을 받기 위한 軍事的 경계선이라고 하던 38線이 그 후 鐵의 帳幕으로 변하고 南과 北은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 동안 美·蘇 共同委員會가 개최되어 38線의 解消와 統一·民主 政府 수립을 위한 交渉이 있었으나, 美·蘇間의 根本的 對立으로 실패에 돌아가고 결국 韓國問題는 國際聯合에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1947年 第2次 國際聯合總會는 南北韓을 통한 자유로운 總選舉의 實施를 결의하고 이를 위해 韓國臨時委員會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北韓의 거부로 南韓에서만 自由選舉가 실시되어 1948년 8월 15일, 大韓民國政府가 수립되고 國際聯合에 의하여 唯一한 合法政府로 승인 받게 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北韓共產軍의 불의의 침략으로 인한 韓國動亂으로 無數한 同胞가 생명을 잃고 全國土는 초토화되었으며, 3년간의 戰亂끝에 휴전은 成立되었으나 분단은 계속되고 統一은 요원해졌습니다.

나는 이 분단으로 말미암아 동족의 고통을 덜고 平和統一의 基盤을 조성하기 위하여 1970년 「8·15 宣言」에서 南北韓간의 緊張緩和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다음해 8월 12일 우리측은 南北赤十字會談을 제의하였으며, 작년 7월 4일에는 平和統一을 위한 南北共同聲明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리하여 南北對話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近 2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성과는 우리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니다.

우리는 용이하고 實踐可能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南北 간의 장벽을 점차 제거하고,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서 相互間的 不信을 信賴로 代替해 나가는 것이 對話를 生産的으로 운영하는 길이며, 平和統一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北韓측은 不信要素를 남겨둔채 大韓民國의 安全保障을 위태롭게 할 軍事 및 政治問題의 일괄 선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北韓측은 統一을 위한 南北對話의 進行中, 밖으로는 사실상 祖國의 분단을 固定化시키는 행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南北關係의 現狀으로 보아 우리가 기대하는 바 南北對話의 結實을 얻기까지에는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견되며, 상당히 긴 시일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결과적으로 不信의 深化와 緊張의 고조마저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편, 최근의 國際情勢는 第2次 世界大戰後의 冷戰時代가 끝나고 현상유지를 기조로 하는 열강들의 勢力均衡으로 平和共存을 유지하려는 것이 그 주된 潮流라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일련의 周邊情勢의 발전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國土統一이 短時日內에 성취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國際情勢는 우리 民族史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즉, 祖國統一이라는 民族至上의 염원과 목표를 國際情勢의

현실속에서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親愛하는 5千萬 동포 여러분!

우리는 客觀的 現實에 대하여 能動的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祖國統一을 國內外的 현실속에서 실현하는 현명하고도 확고한 方案을 수립하고 이를 강인하게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현실을 직시하고 平和를 이땅에 안착시킴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自主力量으로 통일을 기필코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 祖國의 平和的 統一은 우리 民族의 至上課業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2. 韓半島의 平和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南北韓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우리는 南北共同聲明의 精神에 立脚한 南北對話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완화와 國際協調에 도움이 된다면, 北韓이 우리와 같이 國際機構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國際聯合의 多數會員國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은 전제하에 우리는 北韓과 함께 國際聯合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國際聯合 加入前이라도 大韓民國 代表가 참석하는 國際聯合總會에서의 「韓國問題」 討議에 北韓側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大韓民國은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모든 國家에게 門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 하는 國家들도 우리에게 門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7. 大韓民國의 對外政策은 平和善隣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政策中 對北韓關係 사항은 統一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중의 잠정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北韓을 國家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

親愛하는 南北同胞 여러분 !

나는 우리 祖國이 처해 있는 오늘의 內外情勢를 냉엄히 평가할 때, 이 길만이 緊張緩和의 國際潮流 속에서 民族의 위신과 긍지를 유지하면서 祖國의 平和統一을 自主적으로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앞에는 결코 실망이나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찬 용기와 슬기로 韓半島의 平和, 겨레의 繁榮, 그리고 祖國統一을 위해 힘차게 매진합시다.

4. 「南北相互不可侵協定」締結提議

(朴正熙 大統領, 年頭記者會見, 1974. 1. 18)

問 : 지금까지 北韓과의 관련된 問題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읍니다마는 北韓에서는 平和協定の 締結을 主張하고 있습니다. 이 平和協定 締結에 대해서 大統領閣下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大統領 : 『平和協定을 맺자』하는 얘기는 내가 알기에는 지금부터 2, 3年前인 1971年 8월에 「뉴욕·타임즈」의 어느 記者가 中共을 訪問했을 때에 周恩來 中共首相이 처음으로 끄집어 낸 이야기라고 나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北韓側에서도 자주 이런 얘기를 들고 나왔고, 특히 南北調節委員會 席上에서 北韓側에서는 平和協定이라는 얘기를 여러번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北韓側에서 主張하는 이 「平和協定」이라는 것이 그 어휘를 보면 「平和」란 말이 붙어 있어서 대단히 듣기 좋은데, 과연 그 사람들이 平和를 願해서 이런 協定을 맺자하는 얘기냐, 그것이 진심이나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北韓側에서 主張하는 平和協定の 내용을 따져보면, 서너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일 먼저 들고나오는 것이 外軍撤收를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南韓에 있는 美軍을 전부 撤收시키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南北이 兵力을 各各 10萬 또는 그 이하로 줄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南北이 서로 앞으로는 軍備競争을 하지 말고 外部로부터 裝備나 軍需物資도 들여오지 말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協定이 締結이 되면 지금 있는 休戰協定은 없애버리자, 여기에 平和라는 말을 자꾸 共產主義者들이 들고 나와서 자칫 잘못하면, 國民들이 「平和」란 어휘에 대해서 약간 眩惑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결국 南韓에 있는 美軍은 전부 다 나가고 軍隊는 10萬 以下로 줄이고, 앞으로 外部로부터 武器는 絶對로 들여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休戰協定을 없애버리자, 이런 뜻인데 이것은 즉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한다면, 우리의 國防力을 완전히 無力化시켜 놓고, 보다 더 極端的으로 얘기한다면, 武裝解除를 시켜놓고 앞으로 적당한 기회가 오면 武力으로 南侵을 해서 赤化統一을 하자, 하는 것은 三尺童子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共產主義者들의 提議를 額面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꼭 6·25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며 明若觀火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平和, 平和하지만 이 平和協定の 내용을 보면 대단히 危險千萬한 陰謀와 計略과 함정이 여기에 숨어있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6·25와 같은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았단든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혹 한번쯤 속을지 모르지만, 6·25를 겪은 우리로서는 한번은 속지마는 두번 다시는 속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요즈음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南北韓 聯邦制』云云하는 소리를 들고 나오는데, 이것도 내용을 따져보면 平和協定이라는 것과 똑같은 그런 수법입니다. 그야말로 羊頭狗肉格이다, 양 머리를 내놓고 뒷전으로는 개고기를 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平和, 平和해서 겉으로는 좋은 말을 내놓고 뒷전으로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特別히 警戒해야 할 줄 압니다.

1953년 休戰協定締結 당시에 그 協定條文을 보더라도 여기에는 분명히 外部로부터의 武器搬入을 금지한다는 條項이 明示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休戰協定이 되던 그날 이후에는 外部로부터 南韓이나, 「유엔」 軍側이나, 共產側이나 武器를 들여와서는 안된다는 條項입니다.

그런데, 共產側에서는 이것을 먼저 違反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外部로부터 武器를 자꾸 搬入하기 때문에 「유엔」 軍側에서 여러번 여기에 대해서 抗議를 했지만, 共產側에서는 들은체 만체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條文이 죽은 條文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共產主義者들과의 條約이라든지 協定이란 것은 우리가 警戒해야 되겠고, 이것은 오늘날 「베트남」 休戰協定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休戰協定締結後 1年이 됩니다마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 違反事件이 있고, 수십번 戰鬥가 있는 그런 狀態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共產主義者들이 말하는 「平和」라는 어휘에 대한 概念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平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平和라는 것은, 그야말로 戰爭이라는 것은 완전히 拋棄를 하고 다시는 서로 侵略을 하지 않는다. 武力을 가지고 對決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平和라고 하는데, 共產主義者들이 말하는 平和라는 것은 자기들이 어떠한 目的達成을 위해서 一時的으로 필요할 때, 時間을 얻기 위해서 相對方을 安心시키기 위해서 「平和」云云하는 얘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 동안에 자기들은 무엇을 하느냐, 모는 戰爭準備를 해서 準備가 되면 또 挑發을 한다, 이것은 하나의 僞裝戰術이다, 그래서 北韓側에서는 이 平和協定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요즈음에 와서는 이것을 하나의 政治宣傳目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世界 各國에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은 지금 戰爭을 願하지 않고 平和를 願하기 때문에, 平和協定을 締結하자고 南韓에 提議를 했는데, 南韓에서는 이것을 반대한다. 자기들은 平和를 願하는데 南韓에서는 平和를 願하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宣傳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늘 共產主義者들이 하는 식이 똑 같은데 만약에 그들이 진심으로 平和를 원한다면,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平和協定 같은 것을 새로 맺지 않고 지금 있는 休戰協定만 잘 遵守하더라도 戰爭은 막을 수 있다, 또 7·4 南北共同聲明의 精神을 南北이 성실히 履行한다면 戰爭은 일어나지 않는다,

즉 平和定着이 가능하다고 나는 봅니다.

平和라는 것은 무슨 協定이다, 條約이다 하여 종이 한장에 署名을 했다고 해서 保障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平和를 지키겠다고 하는 意志, 서로 戰爭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意思가 명백히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意思만 분명히 있다면, 協定이 없더라도 戰爭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休戰 協定을 얼마나 충실히 履行을 했느냐 하는 것을 反問하고 싶습니다.

休戰후 지난 20餘年 동안 우리가 알기에는,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1,300餘回나 休戰協定을 違反했습니다. 그러면 協定에 그러한 條文이 없어서 違反을 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또한 7·4 共同聲明을 그들이 얼마나 성실히 지켰느냐, 7·4 南北共同聲明을 내놓고도 최근에 와서 지금까지 아무 말썽이 없었고 條文에도 明示되어 있는 西海 海域을 자기들 管轄海域이라고 強辯하면서 挑發行爲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7·4 共同聲明의 精神이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南北이 平和定着을 위해서 새로운 協定이 꼭 필요하다면, 또 北韓側에서 말하는 것이 眞心이라면 平和協定 云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기회에 『南北間의 相互不可侵協定을 締結하자』하는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不可侵協定」은 그 骨子を 서너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 南北이 서로 절대로 武力侵犯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滿天下에 약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相互 內政干涉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하한 경우에도 現行 休戰協定은 그 効力이 存續되어야 한다 하는, 이 세가지 骨子만 포함된 不可侵協定이 締結된다면, 그리고 이것을 서로 성실히 준수만 한다면, 나는 韓半島에 있어서의 戰爭은 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平和는 維持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지키겠다는 誠意와 意思가 없다면, 이러한 協定을 열번, 스무번 맺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不可侵協定을 맺어 놓고 앞으로는 統一이 될 때까지 平和共存을 해 나가자, 그 동안에 서로 對話도 활발히 하고 交流도 하고 協力도 하여 統一의 기반을 하나하나 다져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昨年 여름에 우리 政府에서 發表한 「6·23 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의 精神과도 일치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統一을 아무리 渴望해도 하루 이틀에 統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지금과 같은 南北의 關係로서는 당장 統一問題를 다룰 수 있는 시기라든지 與件도 成熟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統一이 될 때까지 平和共存을 해 나가면서 그 동안에 南北이 활발히 對話도 하고 교류도 하고 協力도 하여, 平和統一을 위한 기반을 하나하나 다져 나가자, 이것이 6·23 宣言의 精神이요 또한 우리의 主張입니다.

겉으로는 平和協定을 내세우고 平和를 願하는 체하면서, 뒷전으로는 斷전을 피우는 思考方式과 行動을 가지고는 韓半島에 있어서의 平和定着을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나는 지금 北韓側에서 主張하는 平和協定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警戒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5. 「平和統一 3原則」闡明

(朴正熙 大統領, 光復節 第29周年 記念 慶祝辭, 1974. 8. 15)

親愛하는 南北同胞 여러분!

오늘 감격과 희망의 光復節 第29周年을 맞이하여, 나는 먼저 南北의 5千萬 同胞 여러분과 더불어 뜻깊은 이날을 진심으로 경축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같이 경축하는 이 광복의 역사속에는 겨레의 잃었던 生命을 다시 찾은 民族解放의 歡喜와 함께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손으로 祖國再建의 새 設計圖를 實踐에 옮겨 가야 할 희망과 의욕이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광복에는 민족의 自我回復과 現代國家의 창조라는 民族史 上 커다란 새 紀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광복의 의의요 가치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祖國의 平和統一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光復後 近 1代가 지나가려는 오늘에 이르러도 분단의 비극과 긴장의 먹구름 속에서 아직도 光復의 참된 그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을 단순한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해방의 기쁨을 統一의 기쁨으로 승화시키려는 결의와 民族中興의 역사를 이룩하고자 말겠다는 盟誓의 제전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同胞 여러분!

여기서 잠시 지난날의 歷史를 回想해 볼 때에, 우리가 解放과 함께 統

一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더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45年 12월에 만일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自主獨立을 열망하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여, 「모스크바 3相會議」의 信託統治案을 舉族的으로 반대하였
던들, 우리는 그때 이미 統一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건마는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하루밤 사이에 태도를 표변하여 反民
族的인 信託統治案을 贊成, 支持했기 때문에 불행히도 이 땅에도 民族分
裂의 씨가 뿌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뒤이어 1947年 11月, 「유엔」 總會는 信託統治를 반대하는 우리 民族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엔」 감시하의 南北總選舉 실시를 건의하고 선거의
監視任務를 맡을 「유엔」 韓國臨時委員團까지 파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
나 그때에도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또다시 이를 거부함으로써 總選舉에 의
하여 統一政府를 樹立할 수 있었던 최초의 機會를 무참히도 봉쇄하고 말
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엔」 韓國臨時委員團의 入北을 거부하는
한편, 北韓 地域을 強壓的으로 지배하면서 소위 人民軍을 창설하는데 광
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48年 5月에는 南韓에 대한 送電을 중단했고, 같은 해 6月
에는 北에서 南으로 흐르는 禮成江의 물줄기를 끊어 막았습니다. 그리하
여 그들은 國土와 民族을 양단하는 反民族的 蠻行을 서슴치 않고 저질렀
던 것입니다.

그같은 情勢下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득이 겨레의 여망에 따
라 「유엔」의 監視下에 總選舉를 實施하여 1948年 8月 15日 大韓民國政府
를 수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12月 「유엔」은 우리 政府를 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合法 政府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도 지나기 전에 그들은 악랄하게도 당초에 기도했던 바 그대로 韓半島를 적화할 목적으로 기습적인 武力南侵을 자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50年 6·25동란입니다.

그들의 반민족적 만행으로 同族의 귀중한 인명희생은 막대하였고, 전국 토는 거의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北韓 共產主義者의 武力侵略은 國際輿論의 糾彈을 받았고, 드디어 「유엔」은 그들을 『侵略者』로 규정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反共救國의 一念으로 일치단결하여 共產侵略을 물리쳤고, 世界의 많은 自由愛護 國家들은 우리의 이 鬭爭에 積極的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休戰成立 後 1954년에 있었던 「제네바」 政治會談에서,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우리가 제의한 民族的 節次에 의한 平和的 統一方案을 거부함으로써 祖國統一의 機會를 또 다시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赤化野慾을 버리지 않고 이른바 4大軍事路線을 강행하여 군비를 계속 증강하는 한편, 우리에게 대하여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武力挑發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韓半島에는 긴장이 날로 격화되고 전쟁재발의 위험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緊張과 挑發의 양상이 이 이상 더 격화된다면, 그것은 南北을 가릴 것 없이 그야말로 우리 民族 全體가 存亡의 危機에 直面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같은 위기 속에서도 이 땅에서 戰爭 再發을 막고 緊張을 완화하여 5千年 동안 연면히 유지되어 온 우리의 民族史를 단절이 아니라 이를 더욱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야 할 엄숙한 각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使命을 수행하는 첫 길이 南北間의 對話와 交流에 있다는 判斷下에 1970年 光復節에 北韓에 대해 武力 赤化統一 路線을 포기하고 서로 발전과 번영을 위한 平和의 努力을 다하자고 촉구하는 「8·15 宣言」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듬해에 南北赤十字會談을 제의하였고, 또한 1972년에는 온 겨레의 여망을 받들어 7·4 南北共同聲明을 발표하는데 主導的 역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4半世紀 동안 斷切되었던 南北間에 비로소 對話의 門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南北對話의 과정에서 용이하고 實踐可能한 문제부터 해결하여 相互間에 신뢰를 회복하고, 南北間에 가로 놓인 장벽을 漸次的으로 제거해 나간다는 지극히 現實的인 立場에서 모든 誠意와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解放直後부터 統一의 機會를 저해하기만 해 온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도리어 우리의 國家安保를 위태롭게 할 억지 주장만을 되풀이 하면서 對話의 진전을 방해하였으며, 마침내는 南北對話를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나는 작년 6月 23日 平和統一의 大前提인 恒久的인 平和를 이 땅에 정착시키고 平和統一의 實質的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平和統一 外交政策을 內外에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꾸준한 平和努力에 대하여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오히려 남북대화를 갑자기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우리에게 대한 터무니 없는 비방 중상을 더욱 노골화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西海 5島水域과 休戰線 근처에서 각종 軍事的 挑發行爲를 격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긴장고조의 위기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南北間의 戰爭再發을 막기 위해. 今年初에는 北韓側에 대하여 南北相互不可侵協定の 체결을 제의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1945年 8月 15日 光復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民族의 절실한 염원이요, 至上命題인 平和統一을 이룩하기 위해 성실하고도 一貫性 있는 노력을 꾸준히 다각적으로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國家發展을 질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우리의 不可侵協定 提議마저 외면하고, 최근에는 서해와 동해 公海 상에서 우리 어선을 격침 나포하고 경찰경비정을 격침하는 등, 非人道的 이고도 不法的인 만행을 계속 자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말로는 平和統一과 民族의 團합을 云謂하고 있으나, 事實에 있어서는 同族의 分裂과 武力南侵만을 劃策해 오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國民 여러분!

우리 大韓民國이 北韓의 집요한 侵略的 挑發 속에서도 줄기찬 平和努力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國民이 總和團結하여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世界에서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의 고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國土의 모습과 國民의 마음은 새마을 운동으로 더욱 새롭고 희망차게 변모해 가고 있으며, 輸出立國의 파도는 이제 5大洋으로 힘차게 급이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重化學工業 建設의 우렁찬 발걸음은 약진하는 大韓民國의 맥박이 되어 세계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油類波動과 資源難으로 惹起된 昨今の 世界的 經濟不況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經濟成長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준공과 더불어 開通을 자랑하게 된 서울 地下鐵의 建設 등, 大衆 福祉生活의 기반을 착실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國力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戰爭 再發을 막고 平和를 정착시키며, 또한 그 바탕 위에서 平和統一의 實質的 基盤을 造成해 나가는 原動力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同胞 여러분!

歷史의 本質은 根本的으로 創造力이요, 그 主體인 民族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생명력 그것입니다.

創造力에 의하여 歷史는 발전하고 생명력에 의하여 民族은 承繼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民族의 至上念願인 平和統一은 無窮한 創造力을 가진 民族史의 당연한 귀결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을 동포 여러분과 더불어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民族의 찬연한 中興과 繁榮도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 民族의 努力에 의하여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祖國統一을 반드시 平和的인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추구해 온 平和統一의 基本原則을 明白히 천명하고자

합니다.

平和統一을 위한 우리의 基本原則은

첫째, 韓半島에 平和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南北은 相互不可侵協定을 체결하여야 한다.

둘째, 南北間에 相互 門戶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南北對話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多角的인 交流와 協力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 바탕 위에서 공정한 選舉管理와 監視下에 土着人口 비례에 의한 南北韓 自由 總選舉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나는 이와 같은 우리의 平和統一 基本原則이야말로 오늘 國際環境속에서 무력이 아닌 平和的인 方法으로 분단된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實現性 있는 길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平和를 정착시키고 그 平和의 바탕 위에서 통일을 이룩하려는 「先平和·後統一」의 政策基調를 지금까지 확고하게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이를 변함없이 一貫性있게 계속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北韓 共產主義者들에게 한시바빠 民族의 양심으로 되돌아와 7·4 南北共同聲明과 6·23 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의 基本精神에 입각하여, 祖國과 民族의 앞날을 위해 南北對話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平和를 定着시키는데 誠實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일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우리의 6·23 平和統一 外交政策과 不可侵協定締結 제의를 끝내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외치는 통일이 平和統一

이 아니라 武力統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滿天下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平和의 정착이 이룩되지 않은 곳에 平和統一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우리 友邦에 대해서도 對北韓關係에 있어서 衡平의 原則에 입각하여 韓半島에 勢力平衡이 파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우리의 6·23 平和統一 外交政策을 지지하고 韓半島와 東北亞細亞 平和에 기여하는 길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親愛하는 國民 여러분!

民族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民族의 생명은 오직 國家를 통해서만 성장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겨레의 생명을 영원토록 가꾸어 나갈 우리 大韓民國의 至上目標은 다름아닌 祖國統一과 民族中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구한 民族史의 전개속에서 이 至上目標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 다같이 民族中興의 理想主義者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民族中興의 理想主義者란 결코 환상에 사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던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肯定的 요소를 적극 개발하여, 그것을 民族史 創造의 原動力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民族中興과 祖國統一의 基調가 오직 平和에 있으며, 그 平和維持의 原動力은 다름 아닌 國力이라는 것을 신념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民族中興의 드높은 이상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땀흘려 國力培養을 極大化하는데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
미에서 民族中興의 理想主義者란 다른 일방, 착실한 現實主義者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 모두가 民族中興의 理想主義者인 동시에 또한 착실한
國力培養의 現實主義者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
다.

政治人과 특히 우리 社會의 指導層은 分斷祖國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
는 동시에, 國力을 착실히 다져 나가는 것이 곧 祖國統一과 民族中興을
성취하는 가장 가깝고도 빠른 正道임을 깨달아, 일체의 浪費와 非能率의
인 모든 것을 깨끗이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모든 經濟人과 勤勞人들은 서로가 다같이 經濟發展의 향도요 역군이라
는 使命感을 가지고 기업의 公益性 제고와 國力培養의 加速化에 적극 헌
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知識人들은 主體的 民族史觀을 확립하여, 보다 創造的이고
協同的인 次元에서 國家發展에 寄與하고, 國民精神의 醇化和 건실한 社會
氣風의 진작에 선봉이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國民 모두가 다같이 자기의 社會的 職分에서 자신의 課
業 遂行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理想, 民族中興은 틀림없이 역사의 구
체적 현실로 결실되고야 말 것입니다.

國民 여러분!

우리 모두 29年前 그날의 그 감격과 그 정열을 한결같이 統一課業 遂行
에 總集結하여 민족의 위대한 전진을 힘차게 계속해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해방의 기쁨이 統一의 기쁨으로 승화되는 진정한 光復, 祖國 統一의 그날을 자랑스럽게 맞이합시다.

6.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 相互訪問」提議

(全斗煥 大統領, 國政演說, 1981. 1. 12)

今年는 우리가 日本植民地 統治로부터 光復을 찾은지 36年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解放 以後 오늘까지 전개된 南北分斷의 36年史는 우리의 民族史에 있어 또 하나의 비극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同族間의 戰爭, 民族異質化의 深化, 國際社會에서의 相爭, 對話의 中斷 등 그간 우리가 입은 民族的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 民族, 한 言語, 한 文化의 祖國이 하루 속히 單一의 自主·民族·民主國家로 統一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온 民族의 지상과제입니다.

가까이 지난 10餘年을 돌이켜 보면 1972年의 7·4 共同聲明이 발표된 이래 南北間에 개선된 것은 없고 쌍방간에 聲明戰과 一方的 제안만을 되풀이 하면서 서로 말싸움으로 일관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實踐意志의 바탕없이 물거품과 같은 形式的 合意가 아니라 단 한가지의 합의라도 행동으로 입증하겠다는 쌍방의 결연한 의지인 것입니다.

7·4 共同聲明에 담긴 여러가지 약속을 위반하면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武力赤化路線을 拋棄하지 않고 武裝間諜을 繼續南派하고 있으며 이른바 「統革黨放送」과 全休戰線에 걸친 對南放送을 통해 비방을 격화시키고 있는 동시에 해외 反韓團體를 사주하여 政府 전북활동을 되풀이 해 오고 있

입니다.

그러나 우리 軍의 철통같은 安保態勢와 國力の 신장을 기반으로 하는 國民一般의 투철한 國家保衛 결의 앞에서 그들의 韓半島 赤化企圖는 부질 없는 徒勞에 그쳤습니다.

지난 36年間 각기 상이한 사상과 이념과 제도하에 분단되어 살아 온 倍達民族이 다시 뭉쳐 統一되느냐 아니면 이대로 분단된 상태로 살아가느냐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民族的 信賴를 회복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統一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北韓當局에 대하여 劃期的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南北韓間에는 여러가지 형태로 또한 여러가지 수준에서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눈 바 있지만 相互關係의 實質的 改善에 조금도 寄與하지 못한 채 많은 시간과 물자와 정력만을 헛되이 소모하였으며 南北總理會談의 절차 마련을 위한 작년의 實務接觸도 北韓側이 一方的으로 중단시킴으로써 南北韓間의 對話는 현재 다시 끊어진 狀態에 있음을 우리는 다 아는 바입니다.

南北韓이 統一에 이르는 길은, 美辭麗句의 一方的 提案을 濫發하거나 또는 지켜지지 않을 書面約束을 내놓는데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民族的 信賴를 회복하는데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오늘 지난 날의 일들을 굳이 시비함이 없이 南北韓間의 民族的 信賴를 회복하는데 決定的 계기를 마련하고 同族間의 戰爭再發을 막는데 劃期的 계기를 마련하며 또한 중단된 南北對話를 無條件 再開하여 平和統一의 길을 열어가는데 歷史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南北韓 當局의 最高責任者가 번갈아 相互 訪問할 것을 엄숙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北韓의 「金日成 主席」이 아무런 부담과 조건없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그가 서울에 체재하는 동안 一切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서울과 다른 도시 및 농촌의 실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가 원하는 그 어느 장소라도 방문하는 데 모든 協調를 提供할 것입니다.

본인은 또한 같은 조건으로 본인이 北韓을 방문하도록 그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北韓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쌍방 當局의 最高責任者가 相互間의 신뢰를 쌓아 同族間의 戰爭再發을 방지하고 南北對話를 재개하여 平和統一을 이룩할 목적으로 歷史的인 방문을 교환한 후에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하여 끈기있게 노력한다면 南北間의 여하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 實踐 가능한 분야의 쉬운 것부터 하나 하나씩 합의해 나간다면 민족의 宿願인 祖國의 統一이 달성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7.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提議

(全斗煥 大統領,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開會辭, 1981. 6. 5)

친애하는 平和統一政策諮問委員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內外貴賓 여러분!

그리고 6천만 內外同胞 여러분!

우리는 祖國의 平和統一을 지향하는 온 겨레의 意志와 念願을 받들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平和統一을 위한 성실한 의무수행을 명령받은 본인은 오

늘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발족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기구가 平和統一 노력의 구심점이 될 것을 8천여 委員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가 온 거래의 여망과 기대속에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는 지금은 우리 祖國이 南北으로 갈린지 만 36년이 되는 해입니다.

8·15 광복으로 식민통치의 고통은 끝났으나, 우리는 끝이여 생이별과 相殘의 분단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숭한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장구한 세월, 統一獨立國家로서의 民族史를 연면히 이어왔습니다. 특히 北方大陸과 南方海洋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외침의 고난속에서도 우리는 單一民族으로서의 共同體意識과 同質性을 소중하게 보전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전통은 20세기에 접어들어 두 차례의 비극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韓半島에 「統一國家」를 건설하고 이를 지켜 왔으나 금세기 전반에는 「國家」를 상실했었고 후반에는 「統一」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國權喪失과 國土分斷의 양대 비극 가운데서 아직도 후자의 비극, 즉 분단의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단의 고통기간은 올해로써 國權喪失 36년의 고통기간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분단의 고통은 民族全體에 대한 고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같은 고통과 신음에서 온 거래를 하루 속히 헤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南北을 막론하고 오늘을 사는 세대의 民族史的 至上課題입니다.

祖國疆土의 절반을 땀흘려 가꾸어 오늘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우리는 북쪽의 동포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國土를 南北으로 달리는 京釜高速道路가 평양·신의주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것은 애타는 우리의 바람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같은 우리의 소망과 너무나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고속도로는 커녕 기왕에 있었던 철길마저 끊겨 그 殘骸 위에 잡초만이 우거져 있습니다.

더우기 모처럼만에 뚫렸던 대화의 길마저 단절되어 統一을 염원하는 겨레에게 斷腸의 悲哀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南北은 이대로 남남이 될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이던 우리는 둘로 갈라져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핏줄과 우리의 긍지와 우리의 역사는 결코 영구한 分斷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同胞 여러분!

분단은 우리 겨레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第2次 世界大戰의 戰後處理過程에서 파생된 民族外部의 의사에 의한 것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分斷의 책임이 民族 外部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소해야 할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分斷으로 고통받고 손해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며 統一으로 영광과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統一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인 것입니다. 統一의 主體는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 民族 全體입니다. 그리고 統一의 이념은 남의 사상이 아닌 바로 우리 혈관속의 民族魂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親愛하는 同胞 여러분 !

우리는 그동안 統一方法을 가지고 긴 세월을 허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民族統一의 주체는 바로 民族全體라는 명제가 명백한 이상, 統一의 길은 자명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統一은 民族全體의 자유의사와 平和의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력에 의한 결정은 流血戰爭을 뜻하는 것으로서 民族이 원하는 길도, 民族을 위하는 길도 아닌 民族自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韓半島 북쪽에는 무력에 의한 赤化統一의 꿈을 버리지 않는 집단이 엄존해 있습니다. 거래가 염원하는 統一이 결코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武力赤化統一의 꿈이 포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꿈은 文明人의 理性에 反하는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도 가망이 없는 헛된 생각입니다.

전쟁은 破壞와 廢墟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6·25 民族相殘에서 몸서리나는 전쟁의 비극을 이미 겪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이같은 전쟁을 겪게 되면 휴전후 30년간 破壞와 廢墟를 딛고 일어난 창조와 건설과 발전을 南北韓 어디를 막론하고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同族간의 전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방지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戰爭防止를 위하여 전쟁도발의 원인이 되는 偏見과 獨善, 그리고 불신과 오관은 제거되어야 하겠습니까.

본인은 武力赤化統一論者들에게 바로 이같은 民族的 요구를 똑바로 인식하여 戰爭의 妄想에서 깨어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편견과 독선과 불신과 오관의 제거는 상대방의 眞意와 實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부터 비로소 가능해질 것입니다.

本人은 바로 이와 같은 확신에서 지난 1월 12일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의 相互訪問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제의야 말로 祖國統一의 길을 여는 돌파구라고 나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제의가 있는 후 國內外에서 폭넓게 표명되고 있는 지지와 성원은 본인의 그와 같은 신념을 더욱 굳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北韓當局이 아직도 이에 대해 肯定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本人은 이 자리에서 北韓 金日成主席에게 아무런 부담과 조건없이 서로를 방문하도록 초청한 지난 1월 12일자 提議의 受諾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北쪽에서 먼저 서울에 와도 좋고 본인이 먼저 平壤에 가도 좋으며, 그 선후의 선택은 北韓當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본인의 생각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의의 취지를 발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本人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새로운 제의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만약 北韓側이 피치못할 사정때문에 本人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本人을 北韓으로 초청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 대신 南北韓當局의 最高責任者가 다른 어떤 장소에서든지 직접 만나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板門店이나 제3국을 포함하여 만나는 장소의 선택은 北韓當局에 일임합니다.

만일 이같은 最高責任者 會談이 실현된다면 그 자리에서 이미 본인이 제의한 相互訪問 문제와 그 동안 南北韓當局이 제의했던 통일방안을 포함하여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虛心坦懷하게 의논하기를 본인은 희망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만나는 시기도 北韓當局에 일임합니다. 그러나

시기는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北韓當局과의 대화를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北韓當局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韓國을 대표하는 인사와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협의해 주기를 希望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권위있는 국제 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외 6천만 동포 여러분 !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통일의 주체는 民族全體, 즉 우리들입니다. 통일은 民族全體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정당·특정체제·특정사상만의 전유물일 수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最高責任者 會談은 민족전체의 통일의를 연결하는 계기이자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온 겨레가 강렬한 통일의를 정립하고 이 의지가 회담장을 통해 진정으로 반영될 때 비로소 우리는 소망스러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6천만 동포 여러분들이 統一推進의 주역이며, 통일조국의 주인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통일을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통일조국의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選擇의 문제는 전적으로 民族成員 전체의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충실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南北의 현상과 체제를 觀察·檢討하고 分析·比較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온 겨레에게 주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옛말에 百聞而 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이 事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겨레의 榮辱과 盛衰가 걸린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대사를 결정함에 있어 南北韓의 實相을 단 한번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불합리한 일입니다. 단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목격하면 할수록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거에서 본인은 통일문제의 결정권자인 겨레의 시야 앞에 南北韓 當局이 서로 그 사회를 겹쳐하게 開放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창하는 바입니다.

만일 北韓側이 사회의 완전개방을 당장에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우선 體育, 文化, 學問, 郵便, 經濟交流부터라도 시작해서 차차 完全交流·完全開放으로 접근해 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통일에 대한 겨레의 안목을 넓혀주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南北韓 사회의 相互開放은 단절됐던 同族間의 相互信賴와 동포애를 북돋움으로써 겨레를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게 하고 융화의 광장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사에 國權喪失과 國土分斷의 기나긴 밤을 안겨준 20세기도 이제 20년이 채 남지 않았읍니다. 우리의 민족적 일대비극이 이 세기를 넘어 또 한 세기로 이어지는 불행한 사태는 6천만 겨레의 民族魂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세기의 비극을 20세기가 가기전에 말끔히 청산하고 民族雄飛의 새날

을 설계하게 될 때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世代之 위대한 승리로 民族史에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韓民族 전체의 위대한 勝利로서 세계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승리의 그날을 앞당겨 성취하는데 있어서 諮問委員 여러분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건인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의 헌신적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8.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闡明

(全斗煥 大統領, 國政演說, 1982. 1. 22)

그동안 펼쳐진 역사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 쌍방중 어느 일방이 자기의 思想·理念·制度를 앞세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통일만을 고집하는 한 통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統一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 한 핏줄, 한 歷史, 같은 文化와 같은 傳統을 이어 온 하나의 민족이라는 입장에 서서 이를 해결하려 할 때라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은 어느 特定階層이나 집단에 의하여 獨占的·排他的으로 주도되어서도 안되고, 武力 또는 暴力의 방법으로 추구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民族自決의 원칙에 의거하여 거래전체의 自由意思가 반영되는 民主的 節次와 平和의 方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본인이 지난해 1월 12일과 6월 5일 두차례에 걸쳐 南北韓 當局 最高責

任者의 相互訪問과 直接 會談을 제의했던 것도 바로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에 의한 統一의 길을 허심탄회하게 찾아 보자는데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의가 實現되도록 지금까지 기울여 온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본인은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이 실현될 경우 제시하려고 構想했던 統一方案을 밝힘으로써 北韓當局과 全世界에 대하여 우리의 참뜻을 이해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平和統一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南北韓간에 民族的 和合을 이룩하여 민족전체의 統一意志를 한데 모아 統一憲法을 채택하고 그 憲法에 따라 統一國家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統一憲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南北代表로 가칭 「民族統一協議會議」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서 民族·民主·自由·福祉의 이상을 추구하는 統一民主共和國를 실현하기 위한 統一憲法을 기초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統一憲法 草案이 마련되면 쌍방은 南北韓 지역에 걸쳐 民主方式에 의한 자유로운 國民投票를 실시하여 統一憲法을 확정·공포하고 그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選舉를 실시, 統一國會와 統一政府를 구성함으로써 대망의 統一國家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統一祖國의 政治理念과 國號·대내외정책의 基本方向·政府形態와 國會 구성을 위한 總選舉의 방법과 시기 및 절차등은 民族統一協議會議가 구성되어 쌍방이 統一憲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토의, 합의할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統一憲法草案은 民族統一協議會議에서 제시될 것입니다.

北韓側이 진정 조국의 自主의 平和統一을 바란다면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民族統一協議會議에서 그들이 구상하는 統一憲法草案을 정정당당하게 내어 놓고 우리측의 초안과 비교·검토하는 가운데 하나의 단일안을 만드는 절차에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南北 쌍방간에 이같은 統一憲法의 마련을 위한 역사적인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우선 信賴가 造成되어야 하고 민족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統一을 沮害하는 要因들을 착실하게 해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南北 쌍방은 그동안의 民族 自害의이며 非正常的인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하루속히 民族的 和合을 실현할 수 있는 民族 自愛의인 정상관계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본인은 南北 쌍방이 무엇보다도 相互關係를 정상화하고 이 기초위에서 民族和合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統一을 이룩할 때까지의 실천조치로서 다음의 합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을 체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첫째, 쌍방은 장차 統一國家가 수립될 때까지는 互惠平等의 原則에 입각하여 相互關係를 유지해 나간다.

둘째, 쌍방은 쌍방간 분쟁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武力 및 暴力의 사용 또는 위협을 완전히 지양하고 모든 문제를 相互 對話와 協商을 통해 平和의 方法으로 해결한다.

셋째, 쌍방은 相互關係에 있어서 현존하는 상이한 政治秩序와 社會制度를 상호 認定하며 서로 상대방의 內部問題에 일체 干涉하지 아니한다.

네째, 쌍방은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와 戰爭防止를 위하여 현존 휴전체제를 유지하면서 軍備競爭의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조치를 협의한다.

다섯째, 쌍방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며 민족적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개방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離散家族의 인도적 재회문제를 포함해서 南北間의 자유로운 인적 왕래와 다각적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交易·交通·郵便·通信·體育·學術·教育·文化·報道·保健·技術·環境保存등 제분야에서 협력하며 이를 통하여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다.

여섯째, 쌍방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思想·理念·制度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전세계 모든 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모든 쌍무적 및 다자간 국제조약과 협정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한다.

일곱째, 쌍방은 각료급 전권대표를 임명하여 각기 서울과 平壤에 常駐連絡代表部를 설치한다. 쌍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連絡代表部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자기측 管轄領域에 주재하는 상대방 連絡代表部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한다.

본인은 北韓側이 하루속히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간의 회담에 호응하여 이 자리에서 이상의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본인은 조속한 시일안에 각료급을 首席代表로 하는 南北쌍방의 고위대표간에 豫備會談을 개최하여 南北韓 당국 최고 책임자간의 회담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北韓側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大韓民國政府는 만약 北韓側이 이같은 豫備會談 개최 제의에 동의한다면 이 예비회담에 소정의 대표단을 파견할 모든 준비를 이미 갖추어 놓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 두고자 합니다.

9.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의 當面課題 提示

(全斗煥 大統領, 國政演說, 1983. 1. 18)

祖國이 解放된지 38년째를 맞는 지금 우리는 여전히 南北分斷과 軍事的 대치속에서 統일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激動과 混沌이 지배하는 세계사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내외의 挑戰과 試鍊을 헤치고 民族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안으로 平和統一을 향한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밖으로는 國際社會에서 民族의 權益을 계속 늘려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民族이 지난 1세기동안 겪어야 했던 國權喪失과 國土分斷의 뼈아픈 受難을 완전히 극복하고, 또 그러한 恥辱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우리 세대안에 조국통일의 역사적 과업을 우리 손으로 達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가까운 장래에 통일을 향한 民族의 진로를 확고히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 民族은 또다시 세계무대의 변두리로 밀려나 國際政治의 희생물이 되고 과거와 같은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우리 겨레가 겪고 있는 不幸과 苦痛을 헤쳐 나가는 절박한 현실문제인 동시에 겨레의 運命을 좌우하는 중대한 民族의 장

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통일의 基盤과 原動力은 南北이 하나의 民族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南北이 진정으로 民族의 이익을 우선시켜 平和統一을 추구한다면 사상과 제도의 장벽을 과감히 뛰어넘어 조건없는 대화에 마주앉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해 이 자리를 통하여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내외에 闡明하고 北韓側에 대하여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 會談」을 조속히 개최하여 民族의 현실문제와 장래문제를 包括적으로 협의할 것을 거듭 促求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民族全體의 뜻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北韓側의 주장까지도 적극 包容해서 南北對話의 길을 폭넓게 열어 놓은 제안입니다.

統一憲法을 제정하기 위한 「民族統一協議會議」의 구성과 통일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平和統一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南北韓 기본관계에 관한 暫定協定」체결 등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는 우리의 統一方案은 문자 그대로 民族和合과 民主統一로 가는 가장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자기가 원하는 統一方案만을 고집하는 자세를 탈피하고, 民族全體의 자유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협의함으로써 民族의 진로를 공동으로 개척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統一方案을 둘러싸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문제해결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간의 緊張과 對立을 조장하느니 결

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統一方案을 제시한다 해도 말로만 통일을 주장하면서 통일을 위한 대화를 거부한다면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본인은 지금과 같은 극히 부자연스러운 南北韓 관계를 청산하고 역사의 소명과 民族의 여망에 따라 접촉과 대화의 문을 과감히 열어놓기 위하여 하루속히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 會談」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南北韓 當局의 最高責任者가 만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前題條件도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거래 전체의 統一意志를 結集시키고 거래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공동의 광장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접촉과 대화의 광장을 하루속히 마련해 보자는 것이 본인이 강조하고 있는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 會談」의 참뜻이라고 하겠습니다.

- 우리는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 會談」이 실현되면 거기에서
- 南北韓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戰爭再發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며
 -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과 北韓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함으로써 통일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고
 - 國際舞臺에서 南北韓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民族力량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강구하고
 - 나아가서 平和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한 國際的인 여건을 조성하는데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한번 北韓側에 대하여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 會談」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조속한 개최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0. 南北韓 物資交流 및 經濟協力 提議

(全斗煥 大統領, 夏季記者會見, 1984. 10. 20)

내가 그동안 國際情勢의 不安定性과 不確實性을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해 온 것은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는 그러한 격동과 昏迷 樣像이 더욱 가속화되어 바야흐로 동서남북에서 紛爭과 마찰이 계속되는 위기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겠읍니다.

여러분도 아는 바와같이 超強大國의 대립과 東西間의 軍비경쟁이 심화되는 「새로운 冷戰」의 緊張이 전개되고 있고, 이란·이라크전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두나라들의 전쟁이 지역전쟁으로 擴散될 위험이 커지는가 하면, 세계도처에서 폭력주의가 橫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國家利己主義가 더욱 악착스러워져서 보호무역의 강화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 사이에 이른바 「南北國家」間的 갈등 또한 깊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武器體系는 有効半徑과 破壞力이 대륙과 대륙사이를 물론이고 지구전체로 확대되어 있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고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이 깊어져서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지역의 멀고 가까움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다는 데에서 긴장의 확산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강대국의 이해가 교차되고 있는 동북아시아는 불안과 긴장의 대표적인 지역이며, 따라서 世界平和에 있어 하나의 關鍵이 되고 있

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韓半島에서 戰爭이 일어나면 주변 강대국의 개입은 피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이 지역은 물론 世界를 大戰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을 것은 예측하기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韓半島 赤化妄想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北韓共産集團이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지를 지 모른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이미 全世界人들에게 행동으로 응변해 온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北韓의 그러한 暴力戰爭路線이야말로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위협하는 가장 명백한 要因인 것입니다.

따라서 北韓으로 하여금 韓半島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오늘의 동북아는 물론 世界平和의 要諦로서,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민들이 투철하게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이 기회에 강조하고자 합니다.

昨今 동북아정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소련이 극동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여 이 지역의 세력균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中共이 現代化路線과 그에 따른 開放政策을 정착시키면서 美國 및 日本과의 協力을 추구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북아에서의 심상치 않은 기류가 北韓의 暴力戰爭路線을 助長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韓半島의 戰爭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北韓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捷徑은 南北韓 軍事力의 균형을 이룩하고 그들에게 오해의 여지를 단 1%라도 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韓半島 주변 強大國들은 동북아의 平和와 安定을 위하여 매우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親北韓 同盟國이 北韓을 맹목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서방측이 그들에게 성급한 접근자세를 보인다든지 하는 것은 北韓의 오해를 조장하는 決定的인 要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지역의 關係列強들이 韓半島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주변국가들이 보다 建設的이고도 理性的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共產圈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도 理念과 體制를 따지지 않고 互惠平等의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開放政策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南北韓 關係改善에 관한 부분〉

광복 39돌이 며칠전에 지나갔습니다만, 南北韓間에는 아직까지도 대결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分斷의 상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재임기간 중에 기필코 건설적인 南北對話를 열어 平和와 統一의 轉機를 마련함으로써 民族分斷의 歷史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내가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의 相互 訪問과 會談을 제의하고 民族의 和合과 統一을 위한 方案을 제시한 것은 分斷으로 인한 民族의 고통을 解消하고 온 겨레가 번영의 大路를 함께 달려가야 하겠다는 憧憬에서 엮어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北韓側은 시대착오적인 폭력노선을 고수하면서 南北韓의 斷絶과 緊張, 그리고 不信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敵對的이고 또 비정상적인 南北韓關係가 계속되는 것은 民族和合과 平和統一에 매우 否定的인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南北韓의 갈등과 대결은 分斷을 永續化하고 민족역량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는 하루속히 止揚되어야 하며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해 南北韓間에 交流와 協力の 時代를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北韓側은 하루속히 生産的인 南北對話에 호응하고, 離散家族 再會와 經濟交流 등 실질적인 南北交流와 協力を 통해서 민족화합과 통일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질이 좋은 생활용품이나 의약품과 자동차, 그리고 기계류 등을 많이 생산해서 국내에서 쓰고 또 국제시장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우리에게서 부족한 석탄이라든지 철광석 같은 자원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南北韓이 각각 제3국과도 交易을 하고 經濟協力を 하면서 同族間에 교역과 협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더우기 오늘날 주변국가들이 벌이고 있는 發展競爭의 환경속에서 우리 민족이 落後되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先進民族으로서의 面貌를 가추기 위해서는 南北韓間에 經濟協力を 통한 共同繁榮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先進民族으로서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고자 하는 一念에서 남북간의 交易과 經濟協力を 실시할 용의가 있으며, 북한측이 동의한다면 북한동포들의 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技術과 物資를 無償으로 제공할 용의도 있음을 이 기회를 통해 밝혀 두는 바입니다.

民族和合과 統一을 위한 이와같은 우리의 노력에 북한측이 참여할 것을 나는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덧붙여서 지난번 로스엔젤레스 올림픽에 出戰할 단일팀 구성을 위한 南北體育會談이 북한측의 LA올림픽 不參決定으로 流産된 바 있지만 우리 땅에서 열리는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에서는 우리 民族이 하나의 깃발아래 뭉쳐 단일팀으로 출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앞으로 그를 위한 南北體育會談이 개최되기를 나는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 「南北水資源 關係當局 會談」提議

(李圭孝 建設部長官, 1986. 11. 28)

나는 지난 10월 30일자 성명과 11월 26일자 共同聲明을 통해 귀측의 金剛山댐 건설이 우리에게 미칠 심각한 영향에 대해 지적하고 工事を 즉각 中斷할 것을 귀측에 要求한 바 있습니다.

南北間에 새로운 不信과 緊張을 조성하고 엄청난 民族의 災難을 초래하게 될 댐건설에 대해, 우리 국민과 세계 사람들은 커다란 衝激과 심각한 憂慮를 갖고 귀측의 태도를 銳意注視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貴側은 아직까지도 우리측의 정당한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오히려 金剛山댐 건설이 우리측에 불편이나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등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主張만을 늘어놓음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격분을 불러 일으키고 南北關係를 더욱 惡化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金剛山댐 建設計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댐건설로 인해서 休戰線以南 漢江流域에 工業·農業·生活用水의 不足과 生態系의 破壞를 가져옴은 물론 그것이 인위적이든 또는 자연적이든간에 파괴될 경우, 漢江流域 주민들의 人命과 財産에 막심한 被害를 입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貴側이 우리측의 거둬진 댐工事 中斷促求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 추진한다면 南北間의 緊張狀態를 더욱 激化시키고 피차가 곤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南과 北을 淸류하는 河川의 利用問題를 남북간에 協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더우기 민족의 平和統一을 위해 國土의 平和的 利用問題를 상호 협의하는 것은 겨레의 念願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일입니다.

서로 다른 국가와 국가사이에도 共有河川의 利用과 開發에 관해서는 協調하는 것이 公認된 國際慣行일진대 하물며 같은 民族끼리 共有河川問題를 놓고 相互 協議·解決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共有河川에 대해서는 그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연안에 있는 當事者들이 그 이용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國際慣例가 그러하듯이, 南北韓도 共有河川의 공동이용에 관한 협의를 이룩함으로써 民族共同의 利益을 도모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귀측이 하루라도 빨리 金剛山댐 建設工事의 계획 자체를 白紙化하고 南北水資源 關係當局間의 會談을 열어, 北漢江 등 南北共有河川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는 문제를 協議·解決할 것을 귀하에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會談에서는 이밖에 南北共有河川의 公평하고 合理的인 開發·利用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귀하가 제기하는 문제들도 함께 토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會談代表團은 南北 쌍방의 長官級을 首席代表로 하는 각 7명의 代表로 구성하고 會談場所는 板門店 中립國 감독위원회 회의실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회담개최 날짜는 1986년 12월 10일(수요일) 오전 10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우리의 제의가 利害當事者인 우리측의 정당한 權利이며, 온 겨레의 요구와 韓半島의 平和를 바라는 내외의 기대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믿으면서 귀측의 肯定的인 呼應을 바랍니다.

12. 統一問題에 대한 政府立場 闡明

(1988. 6. 2)

정부는 6. 29선언과 제 6 공화국의 출범과정에서 밝힌 民主化 推進 基本方針에 따라 앞으로 統一問題에 관한 논의를 적극 개방하고 건전한 統一논의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이나 공산권 관계자료의 개방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내에 關聯法規의 개정과 자료분류 기준의 완화를 위한 특별기구를 構成·運用할 것이며, 여기에는 각계 전문가와 권위있는 민간단체 인사들의 의견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統一論議는 헌정질서에 기초를 두고 실정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정책의 수행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지금 南과 北은 相互 斷絶 속에서 침예한 대치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교섭 상대방인 북한의 통제된 일원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대북제외나 접촉의 창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로 일원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최근 우리 사회 일부에서 정부를 제쳐놓고 직접 北韓側을 상대로 대북제외나 접촉을 하려는 것은 건전한 統一論議와 실질적인 南北關係 改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마땅히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올림픽이 東西和解의 장이 되어야 하고 民族和合의 대제전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올림픽대회가 남북이 함께 참가하는 민족적 대제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올림픽 개최 확정 이후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南北間의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平和統一의 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한 성의있는 노력 또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민족통일로 향한 전진을 위해서는 南北間에 政治人, 經濟人, 言論人, 文化·藝術人, 體育人, 학자 및 학생등 각계 인사들의 인적 교류와 함께 물질 교류도 실현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정부의 통일외지가 民族全體의 염원아래 실현되어 질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함께 협조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13.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을 위한 「7·7 大統領 特別宣言」

(盧泰愚 大統領, 1988. 7. 7)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온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새 공화국의 정책을 밝히려 합니다.

우리 민족이 南北分斷의 고통을 겪어온지 반세기가 가까와 옵니다

분단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슬한 시련과 고난을 주었으며, 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南北分斷의 장벽을 허물어 번영된 統一祖國을 여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겨레 모두에게 맡겨진 민족사의 소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이한 이념과 체제로 분단된 남북은 同族相殘의 戰爭을 치루었으며,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 그날부터 오늘까지 서로가 서로를 불신·비방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고통스런 分斷狀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南北分斷은 우리 민족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나 民族統合은 우리의 책임아래 우리의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밝은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민족전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和解와 協力の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전쟁의 위험과 대결의 긴장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가 아직 비극적인 分斷現實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民族共同體라는 의식을 등진채 서로를 대결의 상대로 여겨 적대관계를 격화시켜 온데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겨레의 힘과 슬기를 모아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빛나는 역사와 文化傳統을 창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南과 北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民族共同體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번영된 統一祖國을 실현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 길이 곧 民族自尊의 길이며 民族統合의 길입니다.

이제 南과 北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적 유대를 강화해 나갈 적극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결의 관계를 지양해야 합니다.

북한이 책임있는 성원으로 國際社會에 기여하고, 그것이 북한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은 상호간에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6천만 동포여러분

나는 오늘 自主·平和·民主·福祉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社會·文化·經濟·政治共同體를 이룩함으로써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내외에 선언합니다.

1. 政治人, 經濟人, 言論人, 宗教人, 文化·藝術人, 體育人, 學者 및 學生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2. 南北赤十字會談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人道主義의 見地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에 生死·住所確認, 書信去來, 相互訪問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지원한다.

3. 南北間 交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南北間 交역을 民族內部交역으로 간주한다.
4. 南北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5. 南北間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6.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關係改善을 추구한다.

나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조치에 대해 北韓側도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北韓側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온다면 보다 전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나는 오늘의 이 선언이 통일을 향한 남북간의 관계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천만 우리 겨레 모두가 슬기와 힘을 모은다면, 이世紀가 가기전에 南과 北은 하나의 社會的·文化的·經濟的 共同體로 통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우리는 머지 않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14. 「南北教育當局會談」提議

(金永植 文教部長官, 1988. 7. 15)

南北이 서로 갈라진지 43년을 헤아리는 지금 우리는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을 갈구하는 온 겨레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더우기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넘어서서 화해와 共同繁榮을 추구해 나가는 세계사적 조류에서 볼 때 우리 겨레도 민족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맞게 우리가 평화와 통일의 새 지평을 열러 나가기 위해서는 政治·經濟·社會·文化·體育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여 같은 민족으로서 맥을 이어온 民族共同體를 回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수재물자의 인도·인수를 통해 상부상조의 선례를 남겼으며,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의 상호 交換訪問을 성사시킴으로써 40년만에 처음으로 민간인사들이 南北을 왕래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선례와 경험은 소중한 싹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측은 지난 6월 3일 국무총리 서한을 통해 남북간에 人的交流를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을 귀측에 제의한 바 있으며, 이어서 6월 9일 統一院長官 聲明을 통해 남북학생의 交流問題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귀측 또한 최근에 南北間의 다각적인 인적교류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으며 특히 學生交流問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南北間에 대화가 중단되고 있는 현실에서 쌍방 학생들간의 교류는 그 자체로서 매우 뜻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교류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도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나는 南北學生交流 推進問題를 협의·해결하기 위해 하루 빨리 南北教育當局會談을 개최할 것을 귀측에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 회담에서는 이미 쌍방간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祖國巡禮大行進」의 推進問題와 「親善體育競技」의 교환 開催問題, 그밖에 學生交流問題와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祖國巡禮大行進」은 남북 각기 「祖國巡禮推進委員會」를 구성하여 주관토록하며, 자기측 지역만을 순례한 후 板門店에서 만나는 방식보다는 우리측 학생들은 板門店에서 백두산으로, 귀측 학생들은 板門店에서 한라산으로 행진한 후 귀환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순례단의 규모는 쌍방 각기 1,000명 정도로 하되 1985년 9월에 실시되었던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교환방식을 적용하여 상호 동시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祖國巡禮大行進」의 시기와 일정은 남북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올해안에 첫번 행진을 갖고 내년부터 연 4회 정도로 점차 회수를 늘려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親善體育競技 交換開催」는 남북 쌍방의 「대학스포츠위원회」가 주관토록 하며, 우선 蹴球·男女卓球·男女排球등 구기종목을 택해 쌍방 각기

200명 정도로 선수단을 구성하되 점차 경기종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親善體育競技의 交換開催는 봄·가을로 정례화시키고 1차 경기는 금년 10월 平壤에서, 그리고 2차 경기는 내년 4월 서울에서 각각 4박 5일 정도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학생교류사업이 진전되면 남북학생들간에 음악·미술·연주·무용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公演 및 展示會의 交換開催, 금강산·경주등 명승지와 民族史蹟地를 관광하는 「수학여행단」교환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南北學生交流를 원만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통행절차 및 각종 편의제공등에 대한 쌍방 당국간의 합의와 身邊安全保障問題는 그간 南北間의 선례를 따른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南北學生交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南北教育當局間 會談이 빠른 시일내에 개최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가능한 한 7월 30일안에 귀측이 지정하는 날짜에 板門店에서 첫 회담이 열리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쌍방의 대표단은 차관(부부장)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각기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는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南北學生交流가 실현되면 우리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들에게 민족적 신뢰와 일체감을 회복시켜 줌과 아울러 앞으로 南北間에 多角的인 人的交流를 확대 추진해 나가는데 발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5. 「南北頂上會談」開催 提議

(盧泰愚 大統領, 제 43 회 光復節 慶祝辭, 1988. 8. 15)

우리가 世界 모든 나라와 더불어 友好와 協力の 時代를 열어갈 새 地平이 열리고 있습니다

民族解放의 기쁨을 나눌 틈도 없이 우리에게 分斷의 苦痛을 안겨다 주었고, 그 이후 同族相殘의 悽慘한 戰爭을 이 땅위에 치루게 했던 東西冷戰體制의 世界秩序에도 급격한 變化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周邊 強大國간의 관계에도, 또한 이들 국가와 우리와의 사이에도 엄청난 變化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國際社會는 開放과 協力の 물결이 넘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높아진 우리의 民主力量과 民主自尊을 바탕으로 內外情勢를 自主的으로 開拓하여 民族統合의 새 時代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내외동포 여러분

오늘 나는 南北의 모든 同胞들에게 번영된 統一祖國을 하루빨리 實現하기 위해 大和合의 時代를 다 함께 열어 나갈 것을 呼訴합니다.

이제 南과 北은 對決과 戰爭이 아니라 和解와 協力만이 分斷의 苦痛과 試鍊에서 벗어나 民族의 진정한 進歩와 統一을 가져온다는 信念을 實踐할 때입니다.

지난 7월 7일 나는 南과 北이 이제는 共同의 繁榮을 追求하는 民族共同體로서의 關係를 發展시켜 나가야 한다고 宣言한 바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같은 民族間의 分斷障壁은 이제 開放과 交流, 協力으로 허

물어야 합니다.

그러하여 하루빨리 統一의 與件을 成熟시켜 平和的 統一의 轉機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南北韓 當局의 最高責任者가 만나서 對話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問題를 푸는데 있어 가장 效果的이고 빠른 方法입니다.

內外情勢로 보나 우리의 民族的 現實로 보나 그와 같은 만남이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光復 43周年을 맞아 北韓의 金日成主席에게 6千萬 同胞의 念願에 따라 民族的 統合을 實質的으로 推進해 나가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時日안에 나와 만나 會談할 것을 提議합니다.

南北의 指導者가 서로 만나 民族的 將來問題를 허심탄회하게 論議하는데 있어 場所, 議題, 節次, 그 어느 것도 障礙要因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나의 提議에 北韓側이 呼應해 음으로써 民族史에 새로운 章을 열게 되기를 衷心으로 希望합니다.

6千萬 內外同胞 여러분

建國 40年을 맞는 이제, 우리 모두 그동안 이룩한 偉大한 成就와 自信감을 바탕으로 그리고 世界의 祝福속에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른 民族的 드높아질 自尊을 바탕으로 <民主·繁榮·統一의 時代>를 흔들림 없이 열어갑시다.

이 길은 弱小民族으로 나라를 잃었던 서러움 속에 우리들 先烈들이 온갖 苦楚속에 꿈결에도 所望해온 祖國을 오늘의 우리 世代가 실현하는 새로운 光復의 길입니다.

번영된 統一祖國을 이룩하는 것만이 우리 民族史의 진정한 正統性을 되찾아 未完의 光復을 오늘에 完成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自主力量으로 한낱 世界의 周邊國家로서 他律의 分斷을 甘受했던 苦難의 歷史를 이제는 清算합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世紀에는 世界史의 中心에 서서 人類의 平和와 福祉를 위해 當당한 役割을 다할 자랑스러운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갑시다.

16. 「民主繁榮의 統一時代」 指向

(盧泰愚 大統領, 國政演說, 1988. 10. 4)

존경하는 國會議長, 그리고 國會議員 여러분,

저는 오늘 政府가 1989年度 예산안을 國會에 제출함에 즈음하여 새 共和國의 國政運營 方向을 말씀 드리며 審議를 요청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7년을 준비해온 서울올림픽이 올림픽 史上 가장 많은 나라, 많은 選手들이 참가한 史上最大의 大會로서 선진국이 개최한 歷代 어느 대회보다 훌륭한 最上의 大會로 막을 내린 것을 온 겨레와 함께 祝賀합니다.

그저께 저녁 蠶室原頭 서울올림픽의 聖火가 온 世界人의 祝福속에 꺼지기 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밤낮없이 헌신해 왔는지…… 國內外, 우리사회 구석구석에서 앞장서 주신 모든 국민들의 奉仕와 愛國心에 보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 자리 與野議員 모두와 저는 이 大會를 成功으로 이끌어 주신 온 국민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마음 한결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뜨거운 하나가 되어 이 世界人의 거대한 祝祭를 最善의 것으로 만들었으며, 국민 모두가 서울올림픽의 자랑스런 주역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의 榮光은 전쟁과 가난에서 스스로 일어나 世界가 놀란 발전을 이룩한 우리 國民의 偉大한 힘 그 피땀어린 努力의 金字塔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世界속에 우뚝 서 이처럼 자랑스러웠을 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우리 國民은 이제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다는 自信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世紀에 들어와 힘없는 弱小民族으로 남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同胞兄弟가 총뿌리를 맞대고 피를 흘린 痛恨의 어두운 歷史에 終焉을 고하고, 이제 우리는 統一과 繁榮을 이루어 21世紀, 世界의 中心國家로 뛰어 오르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이 民族에게 준 고난과 시련을 스스로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한 勝利입니다.

저는 7個月前 국민이 저에게 大統領의 大任을 맡겨 주시면서 명한 바를 한시도 잊지 않으면서 이 벽찬 成就를 바탕으로 한단계 더 높은 나라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민주번영의 통일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時代의 要請에 따라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가 놀란 <經濟奇蹟> <民主政治의 奇蹟>을 이룬데 이어 올림픽을 성공시킨 <文化國民의 奇蹟>을 이룩한 이 위대한 국민과 함께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벽을 허물고 뛰어넘어 새로운 時代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先進國으로 나아가는데 넘어야 할 世界의 壁은 높습니다.

변영된 민주주의 나라를 만드는데 있어 우리 내부의 두터운 벽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平和統一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지난 40年間 민족을 가르고 슬한 고통과 비극을 주어진 南北分斷의 壁을 허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세계와 미래로 나아가는 데는 적지 않은 挑戰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不安과 不確實性의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를 변영하는 민주선진국, 통일된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民族의 所望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화합과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일에 저의 모든 것 바칠 것입니다.

저는 國政의 最高 責任者로서 나라의 안정을 확고히 하면서 우리앞의 도전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이제 世界는 開放과 和解의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6천만 우리 民族의 운명은 더이상 외세와 타율에 의해 결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국제정세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統一環境을 자주적으로 개척하여 민족통일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저는 저의 임기중 40년간 얼어붙은 남북간에 화해의 봄이 오게 할 것입니다.

南北이 서로 오가며, 교류 · 교역하고 협력하여 민족공동체로서 서로 신뢰하는 바탕을 이룩할 것입니다.

우리는 世界 모든 나라와 協力하여 北韓이 굳게 닫은 門을 개방하여 國際社會에 同參토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民族統合의 굳건한 바탕을 마련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7월 7일 南北韓이 對決과 敵對關係를 과감히 청산하고, 같은 民族共同體로서 민족의 共同繁榮을 추구해 나갈 것을 宣言한 바 있습니다.

저는 第 43 周年 光復節을 기하여 南北韓間의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北韓의 金日成 主席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어디서든 직접 만나 회담할 것을 제의 하였습니다.

지난 9月 8日 北韓의 金日成 主席이 이러한 제의에 대해 反應을 보인 것을 注視하며, 저는 北韓側이 좋다면 기꺼이 平壤을 방문하여 金日成 主席과 만날 것입니다.

南北韓 頂上會談에서는 不可侵 宣言과 조국의 統一實現問題를 비롯하여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懸案을 아무런 제한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겨레가 갈라져서 反目과 對決을 지속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서로 어떠한 條件을 前提하며 대화를 기피하는 것보다 우선 南北의 最高責任者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민족 和解와 統一의 出發點을 여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統一과 관련한 內外情勢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하는 情勢에 부응하면서 民族統一國家를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 모두의 念願을 실현할 새로운 統一方案의 提示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분단된 민족의 소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 공화국의 통일방안을 가까운 시일 안에 국민 여러분께 제시하려 합니다.

우리의 目標은 우리 民族 모두가 自由와, 人間으로서의 基本權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營爲할 수 있는 동시에 民族共同體가 영원히 번영·발전할 統一國家를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民族統一의 方案은 편협한 冷戰論理나 어느 一方에 선 주장에서 벗어나 그것을 南北兩側이 받아들여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內部の 다양한 統一論議는 물론 北韓側에서 제시해 온 方案 中에서도 統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前進의이며 實現可能한 統一方案을 수립함에 있어 國民을 대표하는 國會와 議員 여러분의 적극적인 協調를 기대합니다.

議員 여러분,

저는 우리 우방과의 友好·協力關係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國家를 포함한 東西世界 모든 나라와 關係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世界 모든 나라가 互惠平等의 원칙위에서 서로 正常的인 關係를 갖고 對話를 통해 紛爭의 要因을 해결하며, 共同의 利益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世界的 平和와 人類의 福利에 이바지 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다.

제가 취임한 이후 지난 몇달동안 우리나라와 社會主義國家들간의 交流와 協力の 길이 크게 열리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蘇聯, 中國과 東유럽의 主要 社會主義 國家들이 모두 서울올림픽에 참여한 것은 東西間의 장벽을 허물고 理解와 協力の 時代로 나아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바르샤바 同盟國의 하나인 헝가리와 大使級 常駐代表部를 交換 設置하기로 합의한 것은 새로운 外交地平을 열어가는 역사적 始發點이 될 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中國이 半世紀에 걸친 斷絶의 壁을 넘어 交流와 協力關係를 넓혀가고 있는 것을 의미깊게 생각하며, 고르바초프 蘇聯 共產黨 書記長이 韓·蘇關係에 대해 前進的 자세를 보인 것을 긍정적인 일로 評價합니다.

저는 中國·蘇聯등 東유럽 國家들과 人的·文化的 交流, 航路의 開設, 交易과 經濟協力, 시베리아를 포함한 경제개발 참여등 각 分野에 걸친 協력과 關係改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美國·日本, 유럽 여러나라등 우리의 傳統的인 友邦國들과의 유대를 더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美國은 韓半島의 平和와 自由를 함께 지켜온 盟邦이며, 經濟協力, 通商의 關係에 있어서도 가장 가까운 우리의 同伴者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대외 交易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갈 수 밖에 없습니다.

美國과 日本, 유럽共同體 國家에 대한 우리의 수출이 全體의 70%를 차

지한다는 현실을 直視하면서 정부는 이들 友邦 國家와의 通商마찰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모든 分野에서 相互協力關係를 증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 美國과 日本등 友邦國들이 서울올림픽의 安全을 위해 최대한 협조를 다 해준데 대해 謝意를 표합니다.

정부는 또한 우리의 이웃인 아시아·太平洋國家들과 協力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第3世界의 많은 開發途上國과도 우리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友好關係를 증진해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北方關係 改善過程에서 결코 北韓의 孤立化를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새로운 協力關係를 갖게되는 社會主義國家들이 北韓과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北韓의 발전을 돕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北方關係 改善은 北韓의 開放을 촉진하고 北韓이 責任있는 一員으로 국제사회에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統一與件을 성숙시켜줄 것입니다.

그것은 나아가 東北亞의 安定과 世界平和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統合과 繁榮은 이루어질 것이며 韓半島는 東아시아의 火藥庫가 아니라 世界와 人類의 번영에 기여하는 平和의 땅이 될 것입니다.

현실보다 더 큰 理想을 추구하는 우리들 다음세대의 젊은 순수한 열정은 民族統一과 民族雄飛의 내일을 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南北의 젊은이들이 休戰線을 넘어 南北의 眞實을 스스로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交流할 길을 터나갈 것입니다.

南北韓 大學生의 國土縱走, 南北 靑少年間의 交換 體育大會, 討論會……

그 어떤 것이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交流를 실현함에 있어 當局間에 安全만 보장 된다면 그 규모나 형식에는 구애받을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젊은 世代間의 南北交流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大學의 當局者들과 學生들이 이 문제를 自律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북방정책이 진전되어 우리 젊은이들이 중국·蘇聯·동유럽 여러나라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交流는 비단 젊은 世代間에 뿐만 아니라 사회 各分野, 各職能에 구애 없이 실현되어야 하며 政府는 이를 現實化 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尊敬하는 國會議長, 그리고 議員 여러분,

거대한 세계의 祝典 올림픽을 어느 先進國보다 훌륭히 치를 만큼 우리 民族의 힘은 그 어느 때 보다 크고, 자신감 또한 充滿합니다.

우리에게 他律을 요구해온 세계도 변하고 있습니다.

和解와 協力の 새 물결은 우리 겨레 앞에 새 領域을 열어 우리에게 開拓의 의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民主繁榮의 統一時代>를 힘차게 열어 民族史의 所望을 성취할 시기입니다.

21世紀, 다가오는 年代를 希望의 世紀로 맞기 위해 統一의 길을 여는 일, 繁榮이 넘치는 자랑스런 民主先進國을 만들어 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보람찬 責務입니다.

저는 꿈과 아픔을 국민과 함께 하며 誠心誠意, 이 歷史的 使命에 모든 힘 다할 것입니다.

저는 與野 議員 여러분과 社會 各 部門, 온 국민에게 아낌없는 協力を 요청합니다.

모든 국민의 슬기와 和合, 協力없이 이 간절한 民族의 과업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겨레 모두가 손잡고 世界와 南北, 우리 內部에 가로놓인 많은 벽을 허물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過去보다는 未來, 政派보다는 나라를 위해 우리는 손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자리에 계신 野黨 지도자 여러분이 오늘과 같은 나라의 成長과 民主的 발전을 이룩하는데, 그리고 온 국민의 團合속에 서울올림픽이 빛나는 성공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해 주신것을 높이 評價하며 그 보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르는 抑壓과 抵抗의 소모적 정치는 이처럼 지난 시대의 것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욱 보람찬 歷史와 나라의 밝은 將來를 열어가는 〈創造의 政治〉, 온 겨레에게 前進을 鼓舞하는 〈希望의 政治〉를 實踐해 갑시다.

議員 여러분, 이 나라 지도자 여러분과 저의 노력을 디딤돌로 하여 民主·繁榮·統一의 榮光이 南北의 온 겨레, 우리들 다음 世代 모두의 것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합시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 손잡고 우리 앞에 가로놓인 모든 벽을 허물고 넘어 더 위대한 나라, 빛나는 時代, 和合과 平和가 넘치는 世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傾聽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17. 「韓半島에 和解와 統一을 여는길」

(盧泰愚 大統領, 유엔總會 演說, 1988. 10. 18)

議長, 事務總長, 그리고 尊敬하는 各國代表 여러분,

43年前인 1945年 바로 이때쯤 2次大戰의 終戰을 맞은 세계는 새로운 희망속에 國際平和 秩序를 담당할 유엔의 誕生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終戰은 우리 민족에게 外勢에 의한 植民統治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數千年間 지켜온 나라를 되찾는 莫大의 歡喜와 希望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解放의 기쁨은 잠시 한 때였을 뿐, 어느 날 아침 그것은 國土分斷의 슬픔으로 豹變하였습니다.

終戰의 處理過程에서 降服軍의 武裝解除를 위한 強大國들의 便宜에 따라 北緯 38度地圖上에 韓半島의 中間을 자르는 分斷의 線이 그어졌습니다.

한 民族의 運命을 가르는 이 決定은 우리 겨레의 뜻과는 전혀 無關한 것이었습니다.

이 分斷은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民族을 가르는 높고 험한 障壁이 되었으며 韓半島를 冷戰의 거센 暴風속에 몰아 넣었습니다.

1950년 6월 어느 평온한 日曜日 아침, 侵略에 의한 戰爭이 발발하여 나라를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3年餘에 걸친 이 戰爭에서 理念을 사이에 두고 20個國의 무수한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고 300萬이 넘는 生命이 殺傷되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學生の 制服을 입고 志願兵으로 戰線에 나섰던 나는 술한 젊은이와 무고한 사람들이 戰火속에 피흘리며 숨져가는 것을 보며 平和와 和解를 渴求하였습니다.

우리 民族에게 크나큰 苦痛을 주고 있는 이 分斷과 對決은 어떠한 努力으로라도 終熄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 戰爭은 1953年 7月 砲火를 멈추었으나, 그 결과는 平和도 아닌 休戰이었습니다.

그것은 南北斷絶과 對決의 緊張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時代의 潮流가 스쳐가도 韓半島의 緊張은 얼어붙은 凍土와 같았습니다.

韓國 休戰線上的 時計는 1953年 이후 정지한 채로 서 있어온 것입니다.

韓半島內的 武力紛爭은 언제라도 世界를 戰火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는 危險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각박한 상황으로 人間的으로 치루어야 했던 代價 또한 形言할 수 없습니다.

分斷과 전쟁으로 父母, 男便, 妻子와 헤어져 남북으로 갈라진 數百萬 國民들은 한 世代가 넘도록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화도 교환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南北同胞들간 가슴속의 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절실한 현실을 打開할 길은 과연 없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希望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韓半島에도 和解와 平和의 따뜻한 봄이 오게 해야 합니다.

나는 이번 유엔 總會가 「韓半島에서의 平和·和解·對話의 促進」이라는 時宜適切한 議題를 택한 것을 大韓民國 政府와 國民을 代表하여 歡迎합니다.

議長, 나는 貴下가 이번 總會의 議長으로 選出된 것을 祝賀하며, 이번 總會가 알찬 結實을 거두기를 期待합니다.

議長, 오늘의 세계에는 開放과 和解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戰後體制의 基調가 되어온 冷戰의 葛藤을 人類의 理性과 良識이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對決에서 共存으로, 反目에서 和解로 人類의 期待는 轉換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希望의 徵候를 이 자리 모든 분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8年을 지속해 온 이란·이라크 戰爭이 하비에르 페레스 데 꾸에야르 事務總長의 훌륭한 洞察力과 指導力에 힘입은 유엔의 仲裁努力으로 종식되고 있는데 대해 敬意를 표합니다.

이것은 온 세계 모든 인류가 이 平和의 殿堂에 대해 큰 信賴와 期待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유엔 平和維持軍이 올해 노벨平和賞을 受賞하게 된 것도 이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캄푸치아, 나미비아, 西部사하라에서도 平和를 위한 進

一步의 措施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이건 大統領과 고르바초프 書記長간의 美蘇頂上會談의 결과 人類을 파멸시킬지도 모를 공포의 戰爭要素를 減縮해가는 실천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은 平和를 向해 鼓舞的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議長, 나는 바로 2週日前 幕을 내린 서울올림픽의 <和合과 前進>의 精神을 그대로 가슴에 간직한 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第 24 回 올림픽大會는 12年만에 東西, 南北의 世界가 한자리에 모이고 160個國의 젊은이들이 理念과 體制, 人種과 宗教를 초월하여 한마당을 이룬 人類和合의 大祝祭였습니다.

올림픽史上 最大의 이 祝祭는 平和와 和解가 마침내 世界 곳곳으로 擴散되고 있다는 樂觀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가장 치열한 戰爭을 치루었고 아직도 紛爭의 危險이 있는 땅에서 가장 훌륭한 평화의 祝典이 열린 것은 歷史의 劇的인 反轉이며 우리에게 莫大의 希望을 안겨 줍니다.

그것은 平和와 共榮에 대한 人類 念願에서 우러나오는 世界의 새 흐름이라고 確信합니다.

나는 이 인류의 祭典을 安全한 最善의 大會가 될 수 있도록 參與하고 支援해준 世界 모든 나라 國民에게 感謝드립니다.

第 24 回 올림픽大會는 불과 한 世代前, 戰爭의 廢墟위에서 가난과 굶주림에 떨던 한 民族이 시련을 딛고 피땀어린 努力으로 일어서 이룩한 發展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크나큰 矜持를 느끼며, 韓國民의 成就가 人類和合의 물결을 高潮시키는데 이바지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세계 모든 開發途上國民에게 勇氣와 希望을 더해주는 事例가 되기를 希望합니다.

불과 30年前 남의 나라에 依存하던 貧困한 農業國家가 新興產業國家로 발돋움 한 데에는 부지런한 우리 國民의 높은 教育熱과 成就意慾이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人間의 不可侵한 權利와 타고난 創意, 그리고 自由로운 活動을 最大限 保障하는 開放社會와 自由競爭體制의 利點은 이러한 發展을 이끄는 힘찬 原動力이었습니다.

우리는 國際貿易을 통하여 우리의 빠른 成長이 可能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韓國은 이제 世界 10位圈의 貿易國家로 浮上하고 있습니다.

貿易의 伸張은 우리나라는 勿論 交易相對國의 雇傭과 所得을 向上시켜 相互의 繁榮을 促進해 왔습니다.

世界는 우리에게 分斷과 戰爭의 試鍊을 주었으나 동시에 우리에게 發展과 成長을 위한 도움도 주었습니다.

이렇듯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는 人類가 당면한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理解와 平和, 繁榮을 향해 前進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세계에 進歩를, 그리고 人類에게 희망을 약속하는 것은 開放과 交流, 協力과 和解를 촉진하는 길 이외 또 다른 妙方이 없다고 나는 確信합니다.

閉鎖와 對立, 敵對關係와 紛爭은 우리에게 하나뿐인 이 地球村 어디에서나 災殃과 苦痛을 加重시켜줄 뿐입니다.

國際社會에서 開放과 協力으로 오늘의 成長을 이룩한 韓國은 이제 民主主義와 繁榮, 統一을 열어가는 드높은 自身과 樂觀속에 21世紀를 맞으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抑壓없는 自由를 누리며 各部門이 自律을 享有케 함으로써 個個人과 社會 구석구석마다 活力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힘은 우리의 發展을 더욱 加速化하여 韓半島에 平和와 和解의 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議長, 오늘날의 세계는 한 時代의 매듭을 짓는 중요한 轉換點에 서 있습니다.

이 世上에서 不變하는 것은 變化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유엔이 對決과 紛爭을 解消하는 새로운 和解의 場이 되고 있음을 스스로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冷戰體制의 마지막 遺產으로 남아온 韓半島에서도 緊張緩和과 平和를 위한 努力을 本格化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戰爭이 빚은 不信이 南北韓間의 對決을 낳았습니다.

休戰後 지난 35年間 엄청난 軍事力이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南北으로 맞서 왔습니다.

이 對決의 構造를 종식시키는 것은 서로를 가르는 壁을 허물어 서로 開放하고 交流, 協力하여 믿음을 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接近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지난 7月 7日 이것을 公開的으로 提示했습니다.

나는 南北韓間에 서로가 서로를 不信, 誹謗하며 서로를 敵對視하는 모든 對決의 關係를 止揚할 것을 宣言하였습니다.

나는 南北韓이 한 民族으로서 繁榮을 위해 서로 協力하는 同伴者로서의 關係를 進展시켜나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이 宣言을 통해 南北으로 갈라져 서로간의 通信조차 杜絶된 數百萬 離散家族間的 만남은 물론 政治人, 經濟人, 言論人, 宗教人등 모든 分野에서 南北同胞間的 相互交流와 자유로운 往來를 提議했습니다.

나는 南北韓間에 자유로운 交易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우리의 門戶를 開放하였습니다.

우리는 나아가 民族全體의 繁榮을 위해 南北韓間에 끊어진 道路와 길을 連結하고, 서로가 가진 人力, 技術, 資本을 동원하여 公장을 함께 짓고 國土를 함께 開發하는 關係로 發展시켜야 합니다.

나는 北韓이 당장 門을 열고 開放을 實施하면서, 통일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상징사업으로 休戰線안 非武裝地帶안에 <平和市>를 建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平和市>안에서 30年 이상 헤어졌던 南北의 離散家族들이 자유로이 만나며, 民族文化館, 學術交流센터, 商品交易場등을 설치하여 폭넓은 交換, 交流, 交易을 實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宣言에서, 우리는 對外的으로도 對決의 關係를 止揚할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北韓이 責任있는 成員으로 國際社會에 參與하고, 그것이 北韓同胞의 삶을 潤澤하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國際社會에서 南北韓은 서로의 位置를 認定하고 民族全體의 利益을 위해 協力해가야 합니다.

나는 우리의 友邦國家들이 北韓과 關係를 增進하여 北韓의 開放과 發展에 寄與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北韓과 가까운 社會主義 國家들이 우리와 友好 親善關係를 증진해가더라도 北韓과 더욱 좋은 關係를 維持하면서 그들과 더욱 協力해 나가기 바랍니다.

南北韓이 서로를 尊重하며 繁榮을 위해 協力하는 것은 결코 우리들이 추구하는 最終 目標은 아닙니다.

이것은 民族統合을 위해 信賴를 심는 不可缺한 過程인 것입니다. 이러한 關係가 定着될 때 南北雙方은 平和的인 統一을 實現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議長, 나는 지난 8月 光復節에 즈음하여 北韓의 金日成 主席에게 直接 만나 會談할 것을 提議했습니다.

分斷이래 南北韓은 平和와 統一方案에 관하여 相異한 수많은 提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必要한 것은 南北의 最高責任者가 아무 前提條件없이 直接 만나서 雙方의 見解와 立場을 털어놓고 論議함으로써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可能的 妥協의 실마리를 찾는 데 있습니다.

兩側은 韓半島에서 平和를 制度化하고 하나의 民族共同體를 創出하기 위한 共同의 土臺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金日成 主席이 最近 南北頂上會談에 관해 反應을 보인데 대하여 注目하면서, 나는 可能的 빠른 時日안에 平壤을 訪問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南北頂上會談에서 南北韓間의 基本的인 相互信賴와 安全保障의 틀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不可侵 또는 武力不使用에 合意하고 이를 共同으

로 宣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난 30餘年間 軍事的 對決을 持續하여 온 南北韓間의 關係를 相互信賴와 共存共榮의 關係로 代置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基本的인 틀이 設定되어야 하며, 또한 이는 南北 最高責任者間에만 可能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와 關聯하여 大韓民國은 南北間의 不可侵宣言이 있기 전이라도 北에 대하여 먼저 武力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분명히 宣言합니다.

南北韓은 오늘날과 같은 軍事的 對峙狀態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정된 平和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會談에서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可能케 하는 制度的 裝置와 統一實現 方案, 南北間의 交流協力, 軍備縮小등 軍事問題를 포함한 쌍방이 提起 하는 모든 問題를 진지하게 論議하고 妥結할 것을 提議합니다.

休戰協定을 恒久的인 平和體制로 代替하는 구체적 방안도 이 會談에서 강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議長, 南北韓間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 民族의 自主의 力量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韓半島의 恒久적 平和는 東北아시아 地域의 對決構造로 인하여 周邊國家들과의 關係를 떠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이 現實입니다.

韓半島에 安定된 平和가 定着되기 위해서는 南北韓間에 和解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서울과 平壤이 韓半島의 平和에 利害關係가 있는 모든 當事國들과 더욱 合理的이며 正常的인 關係를 構築할 수 있어야 합니다.

韓國은 美國을 비롯한 傳統的인 友邦國들과 앞으로도 계속 密接한 協力關係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韓半島에서 平和와 安定을 유지하는데 必要的 緊密한 協議와 共同의 努力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韓國은 과거에 理想的 차이로 인하여 相互關係가 疎遠하였던 中國, 蘇聯 그리고 東유럽의 여러나라들과도 關係改善을 위해 積極的인 努力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相互尊重과 平等의 原則위에서 正常的인 關係를 갖고 이를 發展시켜 나가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繁榮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相互 對話와 理解의 通路를 통해 紛爭의 要因을 해결하며 國민간의 友誼와 協力을 넓혀 世界의 平和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지난 몇개월에 걸쳐 中國과 蘇聯등 社會主義 국가들이 우리와 多方面에 걸친 交流와 協力에 전진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무적 현상으로 평가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와 오랜 이웃인 中國이 半世紀에 걸친 斷絶의 壁을 넘어 交流와 協力關係를 넓혀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고르바초프 蘇聯 共產黨 書記長이 韓蘇關係에 대해 積極的인 의사를 표명한 것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最近 相互協力關係가 계속 擴大深化되어온 많은 第3世界의 非同盟國家들과도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유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開發途上國家와는 우리의 成長, 開發의 經驗과 技術을 기꺼이 나눌 것이며 우리의 힘이 자라는데 까지 最善의 協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第3世界의 發展을 위해 寄與할 수 있다면 같은 發展過程을 걷고 있는 우리의 보람일 것입니다.

議長, 이제 太平洋地域은 무한한 潛在力을 갖고 生動力과 發展에의 의지, 國際間的 協力強化로 새로운 번영의 時代를 向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랜 東洋文化의 요람이며 太平洋地域의 한 中心인 東北아시아는 지난1 世紀를 통하여 淸日戰爭과 露日戰爭으로부터 太平洋戰爭, 그리고 韓國戰爭과 오늘의 緊張에 이르기까지 世界平和의 試金石이 되어 왔습니다.

나는 東北아시아의 平和없이 세계의 平和가 없으며, 이 地域國家間的 協力 없이 太平洋 繁榮의 時代는 열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東北亞에 지속적인 平和와 繁榮의 公同한 바탕을 構築하기 위해 美國과 蘇聯, 中國과 日本, 그리고 우리 南北韓으로 東北亞 平和協議會議을 열 것을 제의합니다.

이 會議은 이 地域의 平和와 安定, 이 地域의 發展과 繁榮을 위한 모든 問題를 폭넓게 다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確信합니다.

勿論 이들 關係國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데에는 理念과 體制, 立場의 差異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廣大한 이 지역의 平和와 繁榮을 위한 不可分의 同伴者임을 直視한다면 그러한 難關은 克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構想의 現實化는 韓半島의 平和와 統一을 위해 有益한 國際環境을 造成할 것입니다.

議長, 이제 21世紀를 눈앞에 내다보면서 人類歷史의 한 章이 종결되고 새로운 章이 열리려는 것을 느낍니다.

確實히 地球村에는 새로운 變化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人類는 理念보다는 理性和 智慧가 이끄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人類가 또다시 世界的 紛爭의 黑暗속으로 곤두박질치지 않을 것이라는 保障은 없습니다.

開放과 協力, 平和를 제쳐놓으면 人類에게 이것을 막을 별다른 選擇이 없어집니다.

나는 平和와 發展을 위한 協력이 人類活動의 主流를 형성하는 새 歷史를 바라봅니다.

韓半島에도 緊張과 戰爭의 威脅이 사라지고 韓民族이 兄弟愛로 和合하는 旋律이 人類의 심금을 울릴 때가 올것입니다.

나는 5千年 歷史上 남을 侵略하지 않은 우리民族에게 試鍊이 그치고 平和와 統一의 祝福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韓半島에서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드는 날, 世界에는 確實한 평화가 올것입니다.

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南北의 6千萬겨레와 함께 民族的 大和合을 이룩해 나갈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世代의 엄숙한 使命이며, 새로 자라나는 世代의 꿈이자 情熱인것입니다.

合致된 努力이 解決하지 못한 問題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紛爭과 貧困이 지배했던 땅에서 가장 훌륭한 올림픽이 열렸듯이 韓半島에 分斷의 壁이 허물어지고 和解가 넘치는 날은 머지않아 올것입니다.

議長, 事務總長 그리고 尊敬하는 代表 여러분,

끝으로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서울올림픽 主題歌가 노래하고 있는대로 <손에 손잡고 壁을 넘어서> 平和와 統一을 이룩하려는 우리 겨레의 모든 努力을 아낌없이 支援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平和를 사랑하는 훌륭한 統一國家를 만들어서 人類의 福利에 寄與함으로써 이에 報答할 것입니다.

感謝합니다.

南北關係 主要日誌

1970. 8. 15 朴大統領, 8. 15宣言 : 인도적 見地와 統一基盤 조성에 寄與할 수 있고 南北間에 가로 놓인 人爲的 障壁을 段階的으로 제거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을 용의 표명과 善意的 競爭을 提議
1971. 8. 12 韓赤 崔斗善 總裁, 南北間的 離散家族찾기 운동을 위한 南北赤十字會 談 제의
8. 14 北赤, 南北赤十字會談 개최 提議 受諾, 쌍방 2名の 派遣員을 통한 8. 20. 12:00 板門店에서 文書交換 提議, 韓赤受諾
8. 15 朴大統領, 離散家族찾기會談 적극지원 다짐
8. 20 南北赤十字 第1次 派遣員 接觸(板門店) : 쌍방 南北赤十字會談 제의 및 受諾 文書交換
- 韓赤 : 이창열, 윤여훈
 - 北赤 : 서성철, 럽종련
8. 21 韓赤, 豫備會談 절차제의
- 第1次 豫備會談 : 9. 28. 11:00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會議室
 - 構成 : 쌍방 各 5名の 代表團
 - 代表團 名單交換 : 9. 24. 12:00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
 - 議題討議 : 豫備會談에서 토의
 - 討議事項 : 本會談 節次
8. 26 南北赤十字 第2次 派遣員 접촉(板門店) : 韓赤의 豫備會談 절차 제의 (8. 21字) 전달
8. 27 北赤, 韓赤의 提議에 대한 수정제의
- 第1次 豫備會談 : 9. 20. 11:00
 - 代表團 名單交換 : 9. 16. 12:00
8. 30 南北赤十字 第3次 派遣員 接觸 : 韓赤, 北赤의 修正提案 문서(8. 27) 접수
8. 31 韓赤, 北赤의 수정안 수락

- 第 1 次 豫備會談 : 9. 20. 11 : 00
 - 場 所 :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
 - 代 表 : 各 5 名
 - 代表名單 교환 : 9. 16. 12 : 00
1971. 9. 3 南北赤十字 第 4 次 派遣員 접촉(板門店) : 韓赤, 北赤의 수정제의(8. 27)에 대한 受諾 聲明文 전달
9. 15 韓赤, 南北赤十字 豫備會談 代表 名單發表
- 首席代表 : 김연주(韓赤 保健部長兼 涉外部長)
 - 交替首席代表 : 박선규(韓赤 忠南支社長)
 - 代 表 : 정홍진(韓赤 會談事務局 會談運營部長)
 - 代 表 : 정희경(韓赤 靑少年部 指導委員)
 - 代 表 : 정주년(韓赤 會談事務局 代辯人)
9. 15 北赤, 南北赤十字 豫備會談代表 名單發表
- 團 長 : 김태희(北赤 書記長)
 - 副團長 : 김덕현(北赤 報道部長)
 - 團 員 : 조명일(北赤 文化宣傳部長)
 - 團 員 : 리중학(北赤 參事)
 - 團 員 : 서성철(北赤 文化宣傳部 副部長)
9. 16 南北赤十字 第 5 次 派遣員 접촉 : 南北赤十字 豫備會談 代表團 名單 交換
9. 16 大韓赤十字社, 前方 會談事務所 設置
9. 20 南北赤十字 第 1 次 豫備會談
- 合意事項 :
- 豫備會談 場所 :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會議室
 - 常設 會談連絡事務所 및 直通 往復電話 設置.
韓赤 : 豫備會談進行 節次 7個項 提議.
北赤 : 豫備會談 절차 무시하고 本會談에 관한 議題 제안
9. 22 南北赤十字, 常設 會談連絡事務所 設置 및 쌍방 連絡事務所를 잇는 南北直通電話 개통
- 韓赤 : 自由의 집
 - 北赤 : 板門閣

1971. 9. 29 南北赤十字 第2次 豫備會談 : 豫備會談 진행질차 합의.
 韓赤 : 本會談 開催場所 서울, 平壤으로 제의
 合意事項 :
 ○ 豫備會談 進行節次에 관한 8개사항
 ○ 豫備會談의 議題討議 순서
10. 6 南北赤十字 第3次 豫備會談 : 南北赤十字 本會談 開催場所 서울·平壤으로 합의.
 韓赤이 제의한 本會談 場所 決定에 따른 「18個項의 追加議題」를 기타 進行節次 사항에 포함, 토의키로 합의.
10. 13 南北赤十字 第4次 豫備會談 : 本會談 開催日時問題 토의
 ○ 韓赤 :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豫備會談 마지막에 결정할 것을 주장
 ○ 北赤 : 1972. 12. 10. 10 : 00 개최주장
10. 20 南北赤十字 第5次 豫備會談 : 本會談 開催日時問題 討議.
10. 27 南北赤十字 第6次 豫備會談 : 本會談 開催 일시문제 토의를 일단 뒤로 미루기로 합의, 本會談 議題討議
11. 3 南北赤十字 第7次 豫備會談 : 本會談 의제토의
 ○ 韓赤 : 離散家族찾기문제의 우선적 해결이 타당함을 강조
 ○ 北赤 : 家族, 親戚, 親友 包含主張
11. 11 南北赤十字 第8次 豫備會談 : 本會談 의제토의
 ○ 韓赤 : 「離散家族찾기運動」이 優先的으로 本會談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
 ○ 北赤 : 家族, 親戚, 親友의 自由往來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
11. 19 南北赤十字 第9次 豫備會談 : 本會談 의제토의
 ○ 韓赤 : 폭넓은 家族範圍 示唆
 ○ 北赤 : 家族, 親戚, 親友들의 自由往來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종전 태도 고수.
11. 24 南北赤十字 第10次 豫備會談 : 本會談 의제토의
 ○ 韓赤 : 家族範圍에 北赤側이 생각하는 親戚의 一部도 포함된다고 시사
 ○ 北赤 : 종래의 3個項 提案을 계속 주장
12. 3 南北赤十字 第11次 豫備會談 : 本會談 의제토의

- 韓赤 : 家族, 親戚, 包含하는 6個項의 수정안 제의
- 12. 10 南北赤十字 第12次 豫備會談 : 本會談 의제토의
 - 韓赤 : 第11次 豫備會談서 제의한 수정안 수락을 촉구
 - 北赤 : 韓赤의 수정안에 접근된 내용의 3個案의 수정안을 제시
- 12. 17 南北赤十字 第13次 豫備會談 : 本會談 의제토의
 - 韓赤 : 合理的이고 正當한 韓赤의 수정안수락을 설득
 - 北赤 : 자유왕래 선결을 고집
- 1972. 1. 10 南北赤十字 第14次 豫備會談 : 本會談 의제토의
 - 韓赤 : 南北 離散家族의 고통 해소사업의 시급성 강조
 - 北赤 : 자유로운 왕래 계속 고집
- 1. 19 南北赤十字 第15次 豫備會談 : 本會談 의제토의
 - 韓赤 : 본회담의제를 매듭지을 것을 촉구
 - 北赤 : 자유왕래 선결을 계속 주장
- 1. 28 南北赤十字 第16次 豫備會談 : 本會談 의제토의
 - 韓赤 : 共同事項을 單一文案으로 작성하자고 제의
 - 北赤 : 第17次 豫備會談에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키로 동의
- 2. 3 南北赤十字 第17次 豫備會談 : 本會談 의제토의
 - 韓赤 : 本會談 議題에 대한 6個項의 새 수정안 제시
 - 北赤 : 本會談 議題에 대한 3個項의 새 수정안 제시
- 2. 10 南北赤十字 第18次 豫備會談 : 本會談 의제토의
 - 韓赤 : 相互 接近된 의제를 정리하는 실무적인 討議作業의 필요성을 역설
 - 北赤 : 「알선」이라는 用語는 제한성이 있다고 주장
- 2. 17 南北赤十字 第19次 豫備會談 : 本會談 議題 文案整理를 위한 實務會議의 개최를 함의
- 2. 21 第1次 本會談 議題 文案整理를 위한 실무회담
 - 韓赤 : 정홍진, 정주년
 - 北赤 : 조명일, 리중학
- 2. 24 第2次 本會談 議題 文案整理를 위한 실무회담
- 2. 28 第3次 本會談 議題 文案整理를 위한 실무회담
- 3. 6 第4次 本會談 議題 文案整理를 위한 실무회담

1972. 3. 10 第5次 本會談 議題 文案整理를 위한 실무회담
 3. 17 第6次 本會談 議題 文案整理를 위한 실무회담
 3. 24 第7次 本會談 議題 文案整理를 위한 실무회담
 4. 17 第8次 本會談 議題 文案整理를 위한 실무회담
 5. 9 第9次 本會談 議題 文案整理를 위한 실무회담
 5. 12 第10次 本會談 議題 文案整理를 위한 실무회담
 5. 19 第11次 本會談 議題 文案整理를 위한 실무회담
 5. 22 第12次 本會談 議題 文案整理를 위한 실무회담
 6. 5 第13次 本會談 議題 文案整理를 위한 실무회담
 ※ 本會談 議題 文案整理 작업완료
6. 16 南北赤十字 第20次 豫備會談 : 本會談 의제협의
7. 4 南北共同聲明 서울과 平壤에서 동시 발표
7. 10 南北赤十字 第21次 豫備會談 : 本會談 代表團 구성문제 토의
7. 14 南北赤十字 第22次 豫備會談 : 本會談 代表團 구성문제 토의
7. 19 南北赤十字 第23次 豫備會談 : 本會談 代表團 구성문제 협의
 ○ 南北赤十字 第1次 本會談을 1972年 8月 5일에 개최키로 원칙적으로 합의
7. 26 南北赤十字 第24次 豫備會談 : 本會談 기타 進行節次 토의를 위한 實務會議 구성에 합의, 通信 實務者會議 개최에 합의
7. 27 第1次 本會談 기타 進行節次를 위한 실무회의
 ○ 韓赤 : 정주년
 ○ 北赤 : 리종학
 ○ 場所 :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
8. 3 第2次 本會談 기타 進行節次를 위한 실무회의
8. 9 第3次 本會談 기타 進行節次를 위한 실무회의
8. 11 南北赤十字 第25次 豫備會談(終結) : 本會談 기타 진행절차 합의
 合意事項 :
 ○ 本會談 기타 進行節次 합의확정
 ○ 本會談 日時 :
 第1次 南北赤十字 本會談 : 1972. 8. 30. 10 : 00 平壤에서 개최
 第2次 南北赤十字 本會談 : 1972. 9. 13. 10 : 00 서울에서 개최

1972. 8. 17 韓赤, 南北赤十字會談 本會談 代表團 명단발표
8. 18 南北赤十字 本會談用 直通電話(서울~평양간) 20回線 가설
8. 22 李厚洛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北赤代表團 일행의 신변보장에 관한 성명 발표
8. 22 韓赤, 김희중 諮問委員을 구범모씨로 교체
8. 23 北韓 社會安全省, 韓赤代表團 일행의 신변보장에 관한 성명발표
8. 24 南北赤十字 쌍방은 신변보장 聲明文을 교환(板門店)
8. 25 韓赤, 南北赤十字 第1次 本會談 참가자 54名の 명단통보
8. 25 南北赤十字 中央機關間 직통전화 개통
8. 29~9. 2 南北赤十字 第1次 本會談(平壤)

日 程 :

8. 29 : 韓赤代表團 平壤도착
8. 30 : 南北赤十字 第1次 本會談(10:00~12:55)
8. 31 : 萬景臺 관람, 調節委員長(平壤側)주최 만찬
9. 1 : 學生少年宮殿, 託兒所 관람
9. 2 : 韓赤代表團 平壤出發, 서울도착

合意事項 :

- 議題 5個項의 확인체택
- 7·4 共同聲明 精神과 赤十字原則에 기초하여 離散家族의 고통을 풀어주고, 統一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

9. 12~16 南北赤十字 第2次 本會談(서울)

日 程 :

9. 12 北赤代表團 서울도착
9. 13 南北赤十字 第2次 本會談(10:20~12:25), 秘苑 및 景福宮, 國立博物館 관람, 韓赤首席代表 주최 만찬
9. 14 顯忠祠 관광, 南北赤十字 第2次會議 合意書 發表, 調節委員長(서울側) 주최 만찬
9. 15 南山八角亭 및 地下鐵 관광, 國會議長 주최 만찬, 韓赤首席代表 기자회견
9. 16 北赤 : 김태희團長, 윤기복 諮問委員 調節委員長 禮訪, 北赤代表團 서울 출발

合意事項：

- 議題解決에 民主主義 原則과 自由로운 原則, 南北共同聲明 정신과 同胞愛 그리고 赤十字 人道主義 정신을 철저히 구현
- 第3次 會談부터는 議題討議 진행
第3次 會談日字：1972. 10. 24(平壤)
第4次 會談日字：1972. 11. 22(서울)

1972. 10. 12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第1次 會議

- 場 所：板門店 自由의 집
- 서울側：共同委員長：李厚洛
平壤側：共同委員長代理：박성철

10. 23~26 南北赤十字 第3次 本會談(平壤)

議題 第1項「南北으로 흩어진 家族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問題」토의 개시

日 程：

- 10. 23 韓赤代表團 平壤도착
- 10. 24 南北赤十字 第3次 本會談
午前會議(公開) 10:00~11:25
午後會議(非公開) 15:00~16:10
- 10. 25 朝鮮革命博物館 관람, 調節委員長(平壤側) 주최 만찬
- 10. 26 韓赤代表團 平壤 출발

合意事項：

- 隨行取材記者 5名 증원키로 구두합의

11. 2~4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第2次 會議(平壤)

參加人士：

- 서울側：李厚洛 共同委員長, 장기영 副總理, 최규하大統領 特別補佐官, 강인덕 中情 第9局長, 정홍진 協議調整局長
- 平壤側：박성철 共同委員長代理, 유장식 勞動黨 組織指導部 副部長 兼 對外事業部長, 이경석 內閣參事, 한웅식 勞動黨 中央委員會 政治委 직속 責任指導員, 김덕현 勞動黨 中央委員會 政治委 직속 責任指導員

合意事項：

- 南北調節委員會 구성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 서명 교환
- 對南, 對北放送, 休戰線 對南 對北 확성기放送, 상대측 지역에 대한 전단살포, 1972. 11. 11. 00:00를 기해 중지키로 합의
- 서울側代表, 金日成 面談
- 1972. 11. 11 00:00時를 기해 對南·對北 放送中止, 休戰線 확성기 放送中止, 相互 전단살포 중지에 관한 합의 발효
- 11. 11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평양側에 統一革命黨 방송중지 요구
- 11. 22~24 南北赤十字 第4次 本會談(서울)
 - 日 程:
 - 11. 22 北赤代表團 서울도착, 南北赤十字 第4次 本會談
 - 午前會議(非公開) 10:00~11:15
 - 午後會議(非公開) 15:00~17:32
 - 11. 23 南北赤十字 第4次 本會談 合意書 서명 및 발표, 鮮京化學纖維工場 參觀, 調節委員長(서울側) 주최 만찬
 - 11. 24 北赤代表團 서울출발
 - 合意事項:
 -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와 南北赤十字 板門店 共同事業所 설치
 - 同 機構의 機能과 運營節次 및 구성을 따로 토의결정
 - 그밖의 필요한 機構는 앞으로 토의결정
- 11. 30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第3次會議(서울)
- 11. 30~12. 2 南北調節委員會 第1次會議(서울)
 - 平壤側 代表, 朴大統領 禮訪
- 1973. 3. 10 南北調節委員會 第1次 幹事會議(板門店 板門閣)
 - 3. 14~16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 會議(平壤)
 - 3. 20~3. 23 南北赤十字 第5次 本會談(平壤)
 - 日 程:
 - 3. 20 韓赤代表團 平壤도착
 - 3. 21 南北赤十字 第5次 本會談(非公開: 10:00~11:12), 萬景臺 參觀, 平壤市 人民委員長 주최 만찬
 - 3. 22 會議(非公開: 10:00~12:55), 萬景臺 닭공장 參觀, 國立巧藝劇場 巧藝參觀, 調節委員長(平壤側) 주최 만찬

3. 23 韓赤代表團 平壤출발
 合意事項：
 ○南北赤十字 第6次 本會談 일자결정(5. 9~10 : 서울)
1973. 4. 16 金日成, 시하누크 歡迎大會에서 『南北調節委員에 南北韓 政黨, 社會團體 代表와 各계각층 인사들을 참가시키던가 調節委員會와 별도로 南北韓政黨, 社會團體 代表 및 各계각층 인사가 참가하는 政治協商會議開催』 주장
4. 24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 幹事會議(自由의 집)
5. 8~11 南北赤十字 第6次 本會談(서울)
 日程：
 5. 8 北赤代表團 서울도착
 5. 9 南北赤十字 第6次 本會談(10:00~11:37), 韓赤 首席代表 주취 만찬
 5. 10 會議(10:00~11:57), 北赤代表團 昌慶苑 관광, 調節委員長 (서울側) 주취 만찬
 5. 11 北赤代表團 서울출발
 合意事項：
 ○南北赤十字 第7次 本會談日字 결정(7. 11)
5. 23 南北調節委員會 第3次 幹事會議(板門閣)
6. 10 北韓,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第2次會議의 合意事項을 위반하고 休戰線上的 4個地域에서 확성기에 의한 對남방송 일제히 재개
6. 11 北韓, 直通電話를 통해 상호 중상·비방중지를 재제의 서울側 이를 접수
6. 12~14 南北調節委員會 第3次 會議(서울)
6. 23 朴大統領, 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
6. 23 金日成, 「5大綱領」 발표
6. 26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軍事分界線上 對南放送에 대해 平壤側에 항의
7. 5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統一革命黨放送 中止를 平壤側에 재촉구
7. 10~13 南北赤十字 第7次 本會談(平壤)
 韓赤, 秋夕省墓團 交換訪問을 提議, 北赤 거부

日 程 :

- 7. 10 韓赤代表團 平壤도착
- 7. 11 南北赤十字 第 7 次 本會談(10:00~10:48), 北赤 中央委員會
주최 만찬
- 7. 12 會議(10:00~11:42), 平壤동물원 관람, 調節委員長 代理(平
壤側)주최 만찬
- 7. 13 韓赤代表團 서울도착
- 1973. 8. 1 李洛善 排球協會長, 南北調節委員會를 통해 8. 10 서울 개최 제 2 회
아시아 배구코치 강습회에 北韓을 초청
- 8. 2 北韓, 同 招請을 거부
- 8. 28 南北調節委員會 平壤側 共同委員長 金英柱, 南北對話 일방적 중단선언
- 8. 29 李厚洛 서울側 共同委員長, 8. 28 金英柱 聲明의 不當성을 지적하고
동성명의 철회와 대화재개를 촉구하는 반박 성명발표
- 11. 15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對話再開 幹事會議 개최제의
- 11. 15 韓赤, 第 8 次 赤十字會談 년내개최 협의를 위해 쌍방 連絡責任者 會
議를 11. 16 板門店에서 개최하자고 제의
- 11. 16 南北調節委員會 平壤側 禹장식 副委員長, 장기영 서울側副委員長에게
보낸 서한에서 『大韓民國이 ① 6.23 선언을 취소하고 ②反共法, 國家
保安法 違反者들에 대한 단속을 중지하며, ③ 南北調節委員會를 각
政黨, 社會團體 代表들로 구성하는데 동의할 경우 대화재개를 협의하
겠다』고 주장
- 11. 17 北赤, 11. 21. 10:00 板門店에서 連絡責任者 會議를 갖자고 수정제의,
韓赤受諾
- 11. 21 南北調節委員會 장기영 서울側 副委員長, 禹장식 平壤側 副委員長에
게 서한 발송, 南北調節委員會 第 4 次 會議 조기개최 및 南北調節委
員會 構成 및 인원개편문제 토의를 위해 11. 27. 10:00 板門店에서
회의를 갖자고 제의
- 11. 21 南北赤十字 쌍방 連絡責任者 會議(10:00~10:50)에서 韓赤이 第 8
次 本會談을 12. 19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으며, 北赤은 다음
連絡責任者 會議에는 本會談 代表 1名 참석을 제의
- 11. 22 韓赤, 11. 24 10:00 第 2 次 連絡責任者 會議 개최제의

1973. 11. 22 北赤, 11. 28. 10:00 개최로 수정제의
11. 22 韓赤, 北赤의 수정제의를 수락
11. 27 南北調節委員會 平壤側 유장식 副委員長, 장기영 서울側 副委員長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서울측의 副委員長會議 개최제이에 동의하고 개최일자를 12. 5로 수정제의
11. 27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平壤側 수정제의를 수락
11. 28 南北赤十字 第1次 實務代表會議(板門店 10:00~11:30): 北赤, 12. 19 第8次 本會談 서울開催의 韓赤提議를 거부
12. 3 南北調節委員會 이후락 서울側 共同委員長 사임
장기영 副委員長이 委員長 職務代理로 결정
12. 5 南北調節委員會 第1次 副委員長會議(10:00~12:30): 서울側, 第2次 副委員長會議 日字를 12. 12로 제의
○場 所: 板門店 板門閣
○參席者: 서울側 장기영 副委員長, 平壤側 유장식 副委員長
12. 11 平壤側 第2次 副委員長會議 日字를 12. 19로 수정제의, 서울側 수락
12. 13 韓赤, 第8次 本會談 開催 수락측구 서한을 北赤側에 발송
12. 19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 副委員長會議(板門店 자유의 집)
12. 21 北赤, 이른바 「霧圍氣」내세워 第8次 本會談 平壤개최 주장(電話通知文)
1974. 1. 18 朴大統領, 年頭記者會見에서 北韓에 대해 南北韓이 「相互不可侵協定」을 체결할 것을 제의
○相互間의 武力侵略 배제
○相互間의 내정불간섭
○현행 휴전협정 준수
1. 30 南北調節委 副委員長會議(第3次, 板門閣)
南北調節委員會 擴大改編問題 討議
○서울側: 각 當局·政黨·社會團體에서 10名 内外로 구성
○平壤側: 각 當局者 5名 以上, 60~70個 政黨·社會團體에서 각 5~20名씩으로 구성
2. 25 南北赤十字 第2次 實務代表 접촉(板門店 中監委 會議室)
○韓赤: ① 2·15 西海 어선 격침 및 납치사건에 대한 人道的 조치촉구

- ② 第 8 次 本會談을 1974. 4. 9~10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北赤：韓赤側 제의 외면
- 1974. 2. 27 南北調節委 第 4 次 副委員長會議(자유의 집)
 - 서울側：西海 漁船擊沈 및 납치사건에 관한 5個項의 사태수습 조치 요구
 - 平壤側：① 西海 漁船事件은 間諜船事件이라고 생때.
 - ② 調節委 확대개편문제에 대하여 第 3 次 副委員長會議時 제의했던 북한측 제안을 철회하고, 南北調節委員會는 현 규모대로 하되, 南北 政治協商會議의 병행을 제의
- 3. 11 南北赤十字 第 3 次 實務代表 접촉
 - 北赤側：韓赤側의 1974. 4. 9~10 第 8 次 本會談 서울開催 提議를 거부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板門店 本會談 예비회의 개최를 제의
 - ① 쌍방대표단 부단장을 책임자로 구성
 - ② 本會談議程에 대한 예비적 토의 진행
- 3. 27 南北調節委 第 5 次 副委員長會議(板門閣)
 - 西海 漁船事件문제와 調節委 확대개편문제 논의 반부
- 4. 3 南北赤十字 第 4 次 實務代表 접촉
 - 韓赤側：① 南北赤十字 쌍방과 赤十字 國際委員會의 3者로 구성되는 抑留漁夫 共同調查團을 北韓에 있는 억류 현장에 파견할 것을 제의
 - ② 다음과 같은 板門店 本會談 임시회의 개최를 제의
 - 第 8 次 本會談 開催問題를 협의, 本會談議題를 토의
 - 쌍방 代表團의 首席代表 참가
 - 北赤側：韓赤側 제의 거부
- 4. 24 南北調節委 第 6 次 副委員長會議(自由의 집)
 - 南北調節委員會 정상화문제와 漁船事件問題 논의 반부
- 4. 29 南北赤十字 第 5 次 實務代表 접촉
 - 韓赤側：① 우리側의 臨時會議案과 北側의 豫備會議案의 공동검 모색 제의
 - ② 抑留漁夫와 家族間의 書信交換 알선 제의
 - 北赤側：韓赤側 제의 거부

1974. 5. 22 南北赤十字 第6次 實務代表 接觸
 (쌍방 提案의 공통점에 입각한 절충안에 합의)
 ○會議名稱：實務會議
 ○代表構成：交替首席代表 및 代表 2名씩
 ○場 所：板門店
 ○議 題：① 本會談議題에 대한 예비적 토의
 ② 本會談 개최문제 토의
 ○期 間：本會談 개최시까지
5. 29 南北赤十字 第7次 實務代表 접촉
 第6次 實務代表 접촉시 합의한 實務會議에 관한 구체적 사항 합의
 合意事項：
 ① 첫 會議日時：1974. 7. 10. 10:00
 ② 場 所：板門店 中監委 會議室
 ③ 構 成：쌍방 交替首席代表 및 代表 2名과 쌍방 隨行員
 각기 4名씩
 ④ 會 議 形 式：쌍방 連絡團長間에 협의 결정
6. 28 南北調節委 第7次 副委員長會議(板門閣)
 ○서울側：東海公海上의 우리側 경비정 擊沈事件에 대한 엄중한
 경고
 ○平壤側：東海 경비정사건을 자위권 발동이라고 주장
7. 10 南北赤十字 第1次 實務會議
 ○韓赤側：① 第8次 本會談을 1974. 8. 30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② 「老父母의 生死確認事業」을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할
 것을 제의
 ○北赤側：韓赤側 제의 거부
7. 24 南北赤十字 第2次 實務會議
 ○韓赤側：① 1974. 8. 30 第8次 本會談 서울개최 촉구
 ② 老父母의 住所, 生死確認, 板門店面會, 방문알선 사업의
 우선 실시 촉구
 ○北赤側：韓赤側 제의거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채택 주장
 ① 反共法·國家保安法등 철폐

② 反共團體 및 反共機關 해체

③ 反共政策 중지

④ 政黨·社會團體代表들의 赤十字事業 참가 및 활동 보장

1974. 8. 15 朴大統領 光復節 第 29 周年 慶祝辭에서 「平和統一 3大基本原則」제시

① 南北 相互不可侵協定 체결

② 南北對話 성실 진행

③ 土着人口比例에 의한 南北韓 자유총선거 실시

8. 15 8·15 大統領狙擊事件 發生

8. 28 南北赤十字 第 3 次 實務會議

○ 韓赤側 : 8·15 狙擊事件과 관련 다음 3개항 실행 요구

① 폭력과 살인을 지령하는 北韓의 범죄적 責任者를 처단하도록 할 것.

② 北韓의 暴力革命路線을 배격할 것.

③ 北赤은 北韓當局의 暴力路線에 맹종하는 태도를 탈피하고 회담의 정상화에 성의를 다하고 행동으로 표시할 것.

○ 北赤側 : 8·15 事件이 人道主義會談과 무관하다고 주장

9. 21 南北調節委 第 8 次 副委員長會議(自由의 집)

○ 서울側

- 8·15 狙擊事件과 관련 다음 3개항 요구

① 관련 責任者 처단

② 對南暴力革命政策 拋棄

③ 朴大統領의 平和統一 3大基本原則 수락

- 南北調節委員會再開를 위하여 다음 3개항의 수락을 요구

① 副委員長會議 終結 및 南北調節委의 정상적 運營

② 6·23 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의 수락과 再開될 調節委에서 相互不可侵協定 締結問題를 토의

③ 對南赤化統一路線의 拋棄 및 一切의 暴力과 무력 도발을 중지

○ 平壤側 : 8·15 저격사건 관련을 부인, 다음과 같은 調節委 재개조건을 제시

- ① 6.23 선언 철회
- ② 對美·對日紐帶關係斷絶
- ③ 反共政策 중지
- ④ 調節委와 政治協商會議의 병행수락

1974. 9. 25 南北赤十字 第4次 實務會議
- 韓赤側 : 老父母의 所在, 生死確認, 相逢, 訪問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중용
 - 北赤側 : 韓赤側 제의 거부
11. 5 南北赤十字 第5次 實務會議
- 韓赤側 : 第8次 本會談 서울개최 문제와 老父母問題 우선해결 재촉
 - 北赤側 : 韓赤側 제의 계속 거부
11. 15 非武裝地帶 南方地域 지하에서 北側이 구축한 「땅굴」발견(高浪浦)
11. 29 南北赤十字 第6次 實務會議
- 韓赤側 : 老父母의 生死, 住所確認, 相逢, 訪問, 書信交換을 실시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안 제시
 - ① 60세 이상의 男女老人을 老父母로 함.
 - ② 老父母의 상봉을 위해 板門店面會所 설치
 - ③ 老父母의 書信交換을 위해 板門店郵便物交換所 설치
 - ④ 老父母의 방문을 위해 新正 및 秋夕前後 15日間 방문기간을 설정(사정에 따라 수시방문도 가능)
 - 北赤側 : 韓赤側 제의 거부
11. 30 南北調節委 쌍방 대변인 접촉(板門閣)
- (北側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짐)
- 平壤側 : 副委員長會議 무기연기 제의
12. 2 서울側, 예정대로 副委員長會議를 개최할 것을 촉구(電文)
12. 3 平壤側, 第9次 副委員長會議를 1975. 1. 8로 연기 및 1974. 12. 4 쌍방 代辯人 접촉을 제의(電文)
12. 3 서울側 : 第9次 副委員長會議 1975. 1. 8 연기를 수락하고, 1974. 12. 18 幹事會議 開催를 제의(電文)
12. 4 서울側, 第9次 副委員長會議 延期에 즈음한 대변인 성명

1974. 12. 14 南北調節委 쌍방대면인 접촉(板門閣)
- 서울側 :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 (3) 나항의 명문조항에 의거한 현존 南北調節委 幹事會議를 서울側 제의 대로 12月 18日 개최할 것을 촉구
 - 平壤側 : 幹事會議 改編을 새로운 先行條件으로 제기함으로써 12月 18日 幹事會議 개최를 사실상 거부
12. 18 南北調節委 서울側, 幹事會議 開催 유산에 대한 경위발표
1975. 1. 6 南北調節委 平壤側, 平壤側 副委員長 유장식을 조명일로 교체했음을 통고(直通電話)
1. 8 南北調節委 第 9 次 副委員長會議(板門閣)
1. 14 朴大統領, 年頭記者會見에서 北韓에 대해 다음 사항의 수락을 촉구
- ① 南北相互不可侵協定 체결
 - ② 休戰協定 효력존속 전제하의 유엔軍司 해체
 - ③ 南北韓 同時유엔 가입 또는 大韓民國의 단독유엔 가입 불반대
 - ④ 南北對話의 즉각 정상화
1. 24 南北赤十字 第 7 次 實務會議
1. 24 南北調節委 서울側, 北韓側의 休戰線 확성기 방송재개 항의(直通電話)
1. 25 南北調節委 平壤側, 休戰線 확성기방송재개는 「南韓側의 放送再開에 대한 對應措置」라고 강변(直通電話)
1. 25 南北調節委 서울側, 休戰線 확성기방송재개에 재차항의(直通電話)
1. 28 南北調節委 서울側, 北側이 休戰線 확성기방송을 다시 중지했다고 발표
2. 5 南北調節委 서울側, 한국의 정규라디오·TV방송에 대한 北側의 電波 방해항의(直通電話)
2. 7 南北調節委 平壤側, 韓國의 라디오·TV방송에 대한 전파방해 사실부인(直通電話)
2. 28 南北赤十字 第 8 次 實務會議
3. 14 南北調節委 第 10 次 副委員長會議(自由의 집)
3. 24 鐵原東北方 1.3km 休戰線 非武裝地帶內 50m 지하에서 第 2 의 남침땅 굴발견
3. 26 南北赤十字 第 9 次 實務會議
5. 8 南北赤十字 第 10 次 實務會議

1975. 5. 29 南北調節委 平壤側, 第 11 次 副委員長會議(第 10 次 副委員長會議에서 6월 30일로 合意) 무기연기를 통고(直通電話)
5. 29 南北調節委 서울側, 第 11 次 副委員長會議 既合意대로 개최요구 (直通電話)
5. 29 南北調節委 平壤側, 第 11 次 副委員長會議의 5월 30일 개최 재차거부(直通電話)
5. 30 南北調節委 서울側, 第 11 次 副委員長會議가 平壤側의 불참으로 유산되었음을 비난하는 대변인 성명 발표
6. 2 南北調節委 平壤側, 「對話의 성과가 없기 때문에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第 11 次 副委員長會議를 연기한다.」는 대변인 성명 발표
6. 9 北赤, 第 11 次 實務會議(第 10 次 實務會議에서 5월 12일에 既合意)를 7월 하순으로 연기할 것을 제의(直通電話)
6. 10 韓赤, 새로운 第 11 次 實務會議 일자제시를 요구(直通電話)
6. 11 北赤, 「다음 회담일자는 형편따라 정하자」고 막연한 회답(直通電話)
7. 3 南北調節委 平壤側 共同委員長 聲明
- ① 6·23 宣言은 民族分裂宣言이고 대화과기선언
- ② 大韓民國이 反共政策 견지하는 한 南北對話는 불필요
- ③ 現 韓國政府는 교체되어야 함
- ④ 「大民族會議」 개최
7. 4 朴大統領, 7·4 南北共同聲明 發表 3周年에 즈음한 특별담화 발표
- ① 北韓은 侵略戰爭準備를 중지
- ② 北韓은 일체의 對南間接侵略行爲 및 國際社會에서 동족을 헐뜯는 민족자해행위를 중지.
- ③ 南北調節委員會와 南北赤十字會談의 운영 정상화
7. 5 南北調節委 서울側, 第 11 次 副委員長會議 7월 15일 개최제의(直通電話)
7. 9 南北調節委 서울側, 共同委員長代理 성명
- ① 南北調節委員會 第 4 次 平壤會談 8월 15일 이전 무조건 개최촉구
- ② 調節委 擴大·改編을 포함하여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再開되는 調節委會議에서 토의할 것을 제의
7. 10 韓赤, 第 11 次 實務會議 7월 25일 개최 제의(直通電話)
7. 14 北赤, 第 11 次 實務會議日字를 7월 21일로 수정제의(直通電話)

1975. 7. 14 南北調節委 平壤側, 서울側의 第11次 副委員長會議 7월 15일 개최 제의를 거부(直通電話)
7. 16 韓赤, 北赤의 第11次 實務會議 日字 수정제의에 동의(直通電話)
7. 21 南北赤十字 第11次 實務會議
8. 8 南北調節委 서울側, 第11次 副委員長會議 8월 25일 개최 제의(直通電話)
8. 22 南北赤十字 第12次 實務會議
8. 25 南北調節委 서울側, 平壤側이 서울側의 南北調節委 第11次 副委員長會議 8월 25일 개최 제의를 회답없이 묵살했다고 발표
10. 11 北赤, 第13次 實務會議 10월 23일 개최 제의(直通電話)
10. 13 韓赤, 北赤提議에 同意(直通電話)
10. 13 南北調節委 서울側, 委員會 運營 정상화방안 제의(直通電話)
- ① 南北調節委員會 第4次 本會議 平壤開催가 어렵다면 이를 板門店에서 개최
- ② 調節委 第4次會議 開催問題 협의하기 위한 第11次 副委員長會議 10월 20일 개최
10. 17 南北調節委 平壤側, 서울側 제의 거부(直通電話)
10. 20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南北調節委員會 無條件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
10. 23 南北赤十字 第13次 實務會議
10. 24 南北調節委員會 平壤側, 副委員長會議 거부성명 발표
11. 28 南北赤十字 第14次 實務會議
1976. 1. 26 南北調節委 서울側, 南北調節委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 촉구
2. 10 南北調節委 서울側, 崔圭夏委員을 李用熙委員으로 교체통고(直通電話)
2. 12 南北赤十字 第15次 實務會議
3. 9 韓赤, 李範錫首席代表가 池蓮泰씨로 교체되었음을 통고(直通電話)
3. 31 韓赤, 板門店·서울·平壤 또는 기타의 場所에서 쌍방 首席代表 면담제의(直通電話)
4. 7 北赤, 韓赤의 首席代表 면담제의 거부(直通電話)
4. 10 南北赤十字 第16次 實務會議
4. 12 南北調節委 서울側, 南北古美術品·考古學資料 交換·공동전시 제의

(直通電話)

1976. 4. 18 南北調節委 平壤側, 서울側 제의 거부(平壤放送)
5. 13 韓國 外務部長官성명
- ① 韓半島문제에 관한 當事者間 대화 촉구
 - ② 當事者 合意없는 해결방법(「美·北韓平和協定」주장등)은 民族自決原則에 위배됨을 지적
 - ③ 北側의 休戰協定體制 와해기도 경고
5. 25 北韓, 休戰線(中部地域) 확성기방송 재개
5. 27 南北調節委 서울側, 北韓側의 休戰線 확성기방송 부분재개(5월 25일) 향의(直通電話)
6. 9 南北赤十字 第 17 次 實務會議
7. 3 張基榮 南北調節委 서울側 共同委員長 代理, 7·4 南北共同聲明 4 周年 聲明
- ① 南北調節委 運營 무조건 정상화 촉구
 - ② 當事者 解決原則에 입각한 南北關係 改善·解決 촉구
7. 3 南北調節委 平壤側, 「祖國統一 民主主義戰線」과 연합성명: 「大民族會議」 개최 주장
8. 15 朴大統領 8·15 慶祝辭, 「北韓共產主義者들은 韓半島의 어떠한 문제도 직접 당사자간의 합의나 양해 없이는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닫고 南北對話를 무조건 재개하고 南北調節委員會의 기능을 정상화 시키라.」
8. 18 北韓, 板門店 도끼殺人縱行 자행
8. 20 南北赤十字 第 18 次 實務會議
8. 21 金日成, 8·18 事件에 대한 「遺憾」 표명 메시지 유엔軍司令官에 전달
8. 30 北韓, 南北調節委員會와 南北赤十字間의 南·北直通電話의 신호호출에 응답치 않음으로써 同直通電話의 운용을 중단
10. 19 南北赤十字 第 19 次 實務會議
12. 10 南北赤十字 第 20 次 實務會議
1977. 1. 1 朴大統領 新年辭에서 平和統一을 위한 南北對話의 정상화에 꾸준한 노력 경주를 다짐하고 平和定着과 대화재개를 위한 北韓側의 성의를 촉구

1977. 1. 12 朴大統領 年頭記者會見
 ○食糧援助 제공용의 표명
 ○不可侵協定 締結촉구
1. 25 北韓, 「諸政黨社會團體 連席會議」 南北政治協商會議 提議
1. 28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南北調節委員會 조속정상화 및 南北直通電話 조속개통 촉구성명 발표
1. 28 南北調節委 서울側, 李用熙 委員을 金東祚委員으로 교체 발표
1. 31 韓赤, 朴大統領의 北韓에 대한 食糧援助 提議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데 최대한 奉仕할 용의 표명
2. 11 南北赤十字 第21次 實務會議
4. 28 南北赤十字 第22次 實務會議
5. 9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閔寬植 共同委員長代理 任命
6. 23 朴東鎮 外務部長官, 6·23 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 4周年 성명
 ○南北韓 不可侵協定 締結促求
 ○赤化野慾 버리고 대화에 성의촉구
7. 4 南北調節委 서울側 共同委員長 代理, 7·4 南北共同聲明 5周年 성명
 ① 불가침 협정체결 추진절차 토의 제의
 ② 조절위 조속 재개촉구
 ③ 남북직통전화 재개통촉구
7. 15 南北赤十字 第23次 實務會議
7. 15 外務部 代辯人 北韓의 소위 200海里 經濟水域 설정과 관련성명 발표
7. 22 南北調節委員會 閔寬植 서울側 共同委員長 代理, 平壤側의 이른바 「200海里 經濟水域」 설정과 관련 대북성명 발표
 ○調節委 개최하여 「200海里」 문제토의
 ○늦어도 7월말이전 板門店에서 副委員長會議 개최
 ○ 南北直通電話의 즉시 재개통 촉구
8. 1 政府代辯人(文化公報部長官), 北韓의 200海里 經濟水域設定과 關聯聲明 發表
8. 10 文化公報部 代辯人, 北韓의 200海里 經濟水域 設定과 관련 聲明發表
8. 12 韓赤, 8. 12提議 6周年談話: 南北赤十字本會談의 조속한 정상화 촉구
8. 15 朴大統領, 光復節 第32周年 慶祝辭에서 自主的 統一의 길은 南北의

對話를 통한 信賴回復과 交流擴大로 自由總選舉 실시하는 것임을 천명

1977. 10. 14 南北赤十字 第24次 實務會議
10. 19 朴大統領, 불란서 「르·몽드」紙 주필과 회견을 통해 平和統一 基本原則 천명
- ① 南北韓 相互 不可侵協定 체결
 - ② 相互 門戶開放, 交流協力 실천
 - ③ 인구비례에 의한 自由總選舉
12. 9 南北赤十字 第25次 實務會議
1978. 1. 18 朴大統領, 年頭記者會見에서 統一政策의 기본방침은 「先平和, 後統一」임을 천명하고 대화를 통한 교류확대와 문호개방을 촉구
2. 1 北韓, 外交部 名義로 「備忘錄」 발표
3. 3 南北調節委員會 閔寬植 서울側 共同委員長 代理 성명: 南北의 資源, 技術, 智慧의 공동활용을 통한 交流와 협력의 시대전환 촉구
- ① 南北間의 긴장완화와 平和問題를 비롯한 經濟, 社會文化, 體育 교류등 當面問題들을 토의 해결하기 위하여 南北調節委員會를 무조건 조속 재개
 - ② 南北調節委員會의 再開問題를 협의키 위하여 南北直通電話의 즉각 개통과 副委員長會議 소집
3. 19 北赤, 南北赤十字 第26次 實務會議(3. 20)를 무기연기할 것을 일방적으로 방송을 통해 韓赤에 통보
3. 20 南北赤十字 第26次 實務會議 北赤側 불참으로 유산
3. 20 韓赤, 北赤側의 第26次 實務會議 불참에 따른 조속한 會議再開 촉구 성명
6. 23 朴大統領, 6·23 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 5주년을 맞아 特別談話를 통하여 民間經濟協力促進 協議機構 구성을 北韓側에 제의
7. 4 調節委 서울側 聲明: 南北對話의 무조건정상화와 南北間 경제협력기구 구성 제의 수락 촉구
8. 12 韓赤, 8. 12 提議 7周年 談話: 板門店, 서울, 平壤 또는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쌍방 赤十字 總裁會談 開催제의
8. 15 朴大統領, 光復節 第33周年 慶祝辭: 南北對話의 무조건재개와 南北

- 間的 經濟協力促進을 위한 우리측 노력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
1978. 9. 9 大韓射擊聯盟, 北韓에 서울世界射擊大會 참가를 촉구
10. 27 板門店에서 北韓의 第3南侵 땅굴 발견
1979. 1. 19 朴大統領, 年頭記者會見: 南北韓當局이 어떤 時期, 어떤 場所, 어떤 水準에서든 先제조건없이 만나 모든 分野의 問題에 關係 논의할 것을 제의
1. 23 北韓, 「祖國戰線」中央委 聲明:
 ○2月 1日 10:00기해 「7·4 南北共同聲明」준수를 南北쌍방이 공식 표명
 ○3月 1일부터 軍事分界線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全民族大會」를 9月初 서울이나 平壤에서 개최
 ○6月初 平壤에서 실무급 豫備會談 開催
1. 26 政府代辯人(文公部長官) 聲明: 책임있는 南北韓 當局間 대화촉구
1. 27 北韓, 「祖國戰線」中央委 書記局 聲明: 4月初 「全民族大會」실무급 예비회담 개최
1. 29 文公部 代辯人 聲明: 北韓當局的 責任있는 회담을 거듭 촉구
1. 31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共同委員長 聲明:
 ○南北調節위원회 회의의 조속 재개
 ○서울~平壤間 直通電話 즉각 개통
1. 31 北韓, 「조선중앙통신사」성명:
 ○79. 2. 1 10:00기해 北韓全域에서 비방중상행위 중지
2. 5 北韓, 「祖國戰線」中央委 書記局 聲明: 南北調節委員會 대신, 「民族統一準備委員會」발족 제의
2. 8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金東祚委員을 成秉春 委員으로 교체발표
2. 12 北韓, 「祖國戰線」中央委 書記局 報道:
 ○「民族統一準備委」결성을 위한 北韓側 연락대표 임명
 ○同 代表를 2. 20. 12:00에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에 파견
2. 12 政府代辯人 記者會見: 北韓의 「祖國戰線」을 책임있는 당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當局間 對話」를 요구하는 입장은 불변임을 강조
2. 12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代辯人 聲明: 지연되어 온 南北調節委 第4次 本會議의 개최 협의를 위해 2. 17. 10:00 板門店 「自由의 집」에

- 에서 쌍방 副委員長 접촉을 제의
1979. 2. 13 北韓, 「祖國戰線」中央委 書記局 代辯人 성명 :
 ○「民族統一準備委」 협의를 위해 2. 17. 10:00 板門店에 「祖國戰線」代表 파견
 ○南側에서 「어떤 名義」의 대표가 나오던 「民族」연락대표로 간주
2. 15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代辯人 聲明: 2. 17 板門店에 代表파견
2. 17 南北調節委 서울側 代表 및 北韓 「祖國戰線」代表 接觸 (第1次)
2. 20 北韓 體育指導委 委員長 김유순, 卓球協會 會長 김득준 명의서한: 南北韓 卓球單一 「팀」 구성 문제 제의
2. 24 大韓體育會, 大韓卓球協會 對北 放送回答文 :
 ○南北調節委 서울側 委任에 따라 2. 27. 10:00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에 代表 파견
2. 27 南北韓 卓球協會 會議(第1次)
2. 28 北韓, 人民武力部 代辯人 聲明: 1. 23 「祖國戰線」 聲明중 3. 1. 00:00를 기한 적대행위중지 항목을 3. 1 시작되는 韓·美軍事訓練을 이유로 보류한다고 주장
3. 5 南北韓 卓球協會 會議(第2次)
3. 7 南北調節委 서울側 代表 및 北韓 「祖國戰線」代表 接觸(第2次)
3. 9 南北韓 卓球協會 會議(第3次)
3. 12 南北韓 卓球協會 會議(第4次)
3. 14 南北調節委 서울側 代表 및 北韓 「祖國戰線」代表 接觸(第3次)
3. 24 北韓, 體育指導委 卓球協會 聲明: 第5次 南北韓 卓球協會 會議를 3. 27 가질 것을 제의
3. 26 北韓, 卓球協會 代辯人 聲明: 예정대로 3. 27 10:0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로 代表를 파견할 것임.
3. 26 政府代辯人 聲明 :
 ○3. 28. 10:00 董勳 統一院次官을 首席代表로 하는 3名의 實務代表를 板門店에 파견함.
 ○南北韓 實務代表접촉을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진행함.
3. 27 北韓, 「政黨·社會團體 및 當局 連絡代表團」 聲明: 第4次 연락대표 접촉을 4. 2. 10:00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에서 가질 것을 제의

1979. 3. 27 北韓, 卓球協會代表 板門店 出現: 4. 3. 10:00 板門店 會議室에서 쌍방 卓球協會 代表접촉 제의
3. 28 「大韓民國 當局 實務代表團」 聲明: (板門店: 실무대표접촉 유산)
○北韓側이 더 이상 지체함이 없이 當局間 대화의 자리로 나오기를 촉구함
4. 1 北韓, 「政黨·社會團體 및 當局 連絡代表團」 聲明: 南側은 회담참가 여부를 방송으로 통지하여 주기를 기대함.
4. 2 「大韓民國 當局 實務代表團」 首席代表 記者會見: 平壤當局이 任命하는 政黨·社會團體代表와 만날 용의 표명
4. 2 北韓, 「政黨·社會團體 및 當局 連絡代表團」 聲明: 쌍방 代表 명칭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4.10. 10:00 板門店 中監委 會議室에서 쌍방 연락대표접촉을 제의
4. 2 北韓, 卓球協會 代辯人 聲明: 會談再開問題를 협의하기 위한 개별적 접촉을 희망, 이를 위해 4. 3. 10:00 代表 1名, 隨行員 1名을 板門店 中監委 회의실에 파견할 것임.
4. 3 大韓卓球協會 會長 記者會見: 單一 「팀」問題와 韓國選手團의 世界大會 참가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北韓側은 韓國選手團의 대회참가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4. 3 北韓, 卓球協會 代辯人 聲明: 「統一팀」 구성을 위한 시간이 남아있는 한 會談을 재개해야 함.
4. 7 「大韓民國 當局 實務代表團」 대변인 성명:
○책임있는 北韓當局이 임명하는 대표들과 실질적인 협의를 하고자 함.
○南北當局間 對話와 南北調節委員會 재개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음.
4. 10 北韓, 「政黨·社會團體 및 當局 連絡代表團」 聲明: 連絡代表 접촉의 진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음. 대화가 계속되느냐 안되느냐 여부는 南側의 태도에 달려있음
5. 1 韓赤, 池蓮泰 首席代表가 蘇尙永씨로 교체되었음을 발표
5. 4 大韓卓球協會長 聲明: 平壤世界卓球大會 결과규탄
6. 11 金泳三 新民黨總裁 南北接觸用意表明
6. 23 韓國 外務部代辯人, 6·23 宣言 6周年 聲明

1979. 7. 1 韓美共同聲明：南·北韓·美國 3當局會議 제의
7. 4 南北調節委 서울側 聲明：7. 4 南北共同聲明發表 7周年
7. 10 北韓 外交部 代辯人聲明：3當局會議 거부
8. 12 韓赤 總裁 8. 12 提議 8周年 답화：南北赤十字會談 正常化 促求
8. 15 朴大統領 光復節 第 34 周年 慶祝辭：南北赤十字 會談再開 3當局會議 수락 촉구
9. 20 韓赤代表團 代辯人聲明：南北赤十字 會談再開 促求
11. 15 崔圭夏 大統領 權限代行 施政演說, 北韓側에 南北對話 및 3 當局會議에 응해 올 것을 촉구
12. 20 북한올림픽위, 大韓體育會長에게 모스크바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해 80. 1. 17 會談을 가질 것을 방송으로 제의
12. 21 崔圭夏 大統領 就任辭：北韓側에 南北調節委, 南北赤十字會談, 책임 있는 當局間會談, 3當局會議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
12. 24 大韓體育會長, 12. 20일자 北側提議에 대해 동제의를 공식접수한 바 없다고 논평
12. 26 北韓올림픽위, 南北韓 「유일팀」구성 제의에 관한 서한전달을 위해 12. 27. 12:00 판문점에 2명의 連絡員을 파견한다고 방송으로 통고
12. 27 調節委 서울측, 板門店 中監委會議室에서 북측의 서한 접수
1980. 1. 9 調節委 서울측 代辯人 발표
○大韓體育會長은 1. 11. 12:00 板門店에서 북한 올림픽 위원장에게 서한을 전달할 것임.
1. 11 조절위 서울측, 大韓體育會長의 서한을 北側에 전달
○北側의 제의는 성과기대가 어려우며 南北 친선교환경기를 제의함.
○금년 서울개최 國際競技에 北側의 참가를 환영함.
○모스크바 올림픽후 전반적 體育交流問題를 위한 회담을 제의
1. 11 北韓側, 南北直通電話 재개를 요구 (16:00)
○직통전화 개통을 위해 신호를 보냈으나 통화를 못했음.
○1. 11. 18:00 서울측이 직통전화를 받기 바람.
1. 11 北韓側, 某種의 편지전달 예고 발표
○통일과 관련된 제안을 담은 편지를 1. 12. 12:00 板門店에서 南側에 전달할 것임.

1980. 1. 12 調節委 서울측 代辯人 성명(11:00)
- 1. 11 20:07에 直通電話 신호가 와서 指定通話者가 나올 것을 北側에 요구하자 일방적으로 중단했음.
 - 北側의 모종의 편지전달 통고가 있었던 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를 명백히 하기를 요구함.
1. 12 北韓側, 書信名義 報道(13:00)
- 이종욱 및 김일 명의의 서신을 南朝鮮當局者, 政黨·社會團體代表들에게 보내는 것임.
1. 12 조절위 서울측, 북측 이종욱 및 김일의 서한을 접수
1. 18 崔圭夏大統領, 年頭記者會見에서 南北總理會談 적극 추진의사를 표명
1. 19 북한올림픽위, 1. 21. 12:00 2번째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방송통고
1. 21 조절위 서울측, 북한올림픽위의 2번째 서한을 접수
1. 22 北側, 反韓 海外僑胞人士들에게 김일 명의로 통일을 위한 모임을 제의하는 편지 발송
1. 23 調節委 서울측 대변인, 申鉉碯總理의 이종욱에게 보내는 서한을 1. 24. 10:00 北側에 전달할 것임을 발표
1. 24 조절위 서울側, 北側에 서한전달 및 내용 발표
- 南北間 總理會談을 제의함
 - 總理會談 節次마련을 위해 實務代表接觸을 제의함
 - 代 表 : 次官級首席代表 포함 3명의 대표와 약간명의 수행원
 - 일 시 : 80. 2. 6. 10:00
 - 장 소 : 板門店「自由의 집」 또는 쌍방합의장소
1. 29 北側, 申鉉碯總理에게 보내는 이종욱의 回答편지를 1. 30. 10:00 板門店을 통해 전달 하겠다고 발표
1. 30 調節委 서울측, 이종욱의 회한 접수
1. 30 조절위 서울측, 이종욱 회한 내용발표
- 申鉉碯總理의 南北總理會談 제의 및 그 절차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수락
2. 1 조절위 서울측, 이종욱의 回翰내용을 발표
- 申鉉碯總理의 南北 總理間對話를 위한 實務代表 접촉 제의에 동의함.

- 北側은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겸 정무원참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실무 대표와 2명의 기술인원을 2. 6. 10:00 板門店 중감위 회의실로 파견할 것임.
- 1980. 2. 4 調節委 서울측, 大韓民國 實務代表의 板門店 파견을 발표
 - 次官級首席代表 포함 3명의 實務代表와 2명의 隨行員을 2. 6 10:00 板門店에 보낼 것임.
 - 우리는 申鉉禧總理의 신임장을 휴대할 것이며 북측도 이종욱 政務院總理의 신임장을 휴대하기 바람.
- 2. 5 調節委 서울측, 大韓民國實務代表 명단 발표
 - 수석대표: 金永周(외무부 본부대사)
대 표: 鄭宗植(통일원 정책기획실장)
대 표: 李東馥(남북회담사무국장)
 - 실무 대표단은 2명의 수행원을 대동
- 2. 5 北側 실무 대표단 명단발표
 - 수석대표: 현준극(노동당중앙위 부부장겸 정무원참사)
대 표: 임춘길(정무원 국장)
대 표: 백준혁(정무원 국장)
- 2. 6 南北總理間 對話를 위한 第1次 南北實務代表接觸(板門店 중감위회의실)
 - 쌍방주장
 - 韓國側: 대화의 장소로 「제네바」, 議題 事前合意 必要
 - 北 側: 서울·평양 윤번개최, 의제 사전합의 불필요
 - 合意事項
 - 80. 2. 7. 10:00를 기해 南北直通電話再開
 - 次後 實務代表接觸 場所는 「자유의 집」과 「관문각」교대 개최
- 2. 7 남북직통전화 再開通(10:08)
- 2. 19 제 2 차 南北實務代表 接觸(관문각)
 - 合意事項
 - 總理間對話 節次問題(회의공개여부, 합의사항 작성, 기록, 보도, 일시, 시설, 표지문제 등)
 - 제 3 차 접촉: 80. 3. 4. 10:00 「자유의 집」

1980. 3. 3 韓赤總裁, 北赤 손성필 위원장에게 보내는 放送通知文 발표
 ○ 지난 1. 22 이후 失踪된 제 6, 7 해왕호 선원들의 빠른 귀환을 위해 협조해 주기 바람.
3. 4 제 3 차 南北實務代表 접촉(자유의 집)
 ○ 북측, 場所問題 수정제의
 ① 南北總理接觸 장소를 板門店으로 한다.
 ② 판문점 「板門閣」과 「자유의 집」에서 輪番開催
 ③ 첫접촉은 「판문각」에서 갖는다.
 ④ 첫접촉후 쌍방 合意에 따라 서울·평양 윤번개최
3. 18 제 4 차 南北實務代表 접촉(판문각)
 ○ 合意事項
 ① 總理間 對話 場所는 판문점 「자유의 집」과 「판문각」에서 윤번개최
 ② 대화장소를 옮길 때는 相互協議
 ※ 첫 총리간 대화 장소는 첫 총리간 대화 日時와 함께 협의 결정함.
4. 1 제 5 차 南北實務代表接觸(자유의 집)
4. 16 韓赤代辯人, 北赤 손성필 위원장에게 書翰傳達 預告發表
4. 17 韓赤 李滄總裁, 북적 손성필 위원장에게 서한 전달(12:00 板門店)
 ○ 북측에 억류된 제 6, 7 해왕호 선원을 조속히 송환바람.
4. 18 제 6 차 南北實務代表接觸(판문각)
4. 22 북적, 韓赤 李滄總裁에게 방송통지문
 ○ 韓赤의 拉北漁夫 송환요청에 협조할 용의가 있음.
4. 22 한적총재, 북적 방송 통지문에 관한 「논평」 발표
5. 6 제 7 차 南北實務代表 接觸(자유의 집)
5. 6 北赤, 韓赤에 어부송환에 필요한 자료제시 요구 방송
5. 9 韓赤, 北赤에 書翰傳達 예고 방송통지문 보도
5. 10 韓赤, 拉北漁夫名單 北赤에 전달(판문점)
5. 22 제 8 차 南北實務代表 접촉(판문각)
6. 19 韓國側 板門店地域內 南北韓 總理會談場 건물 준공
6. 23 北韓側, 玄峻極首席代表가 健康上 이유로 第 9 次 南北實務代表 접촉

- 에 불참한다고 韓國側에 통고(直通電話)
1980. 6. 24 第9次 南北實務代表 접촉(自由의 집)
- 韓國側, 2個項의 議題修正案 및 總理會談 첫 회담일시, 첫 會談場所 등에 대한 새로운 제안 제의
 - 北韓側에 議題案에 관련한 4個項의 對北 질문 제출
 - 北韓側, 韓國內部問題를 거론, 議題討議 거부
7. 4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代辯人, 「7·4 南北共同聲明發表」8周年에 즈음하여 성명발표
8. 12 韓赤總裁, 「8·12 南北赤十字會談提議」9周年에 즈음하여 성명발표
8. 20 第10次 南北實務代表접촉(板門閣)
- 北韓側, 韓國 內部問題를 거론하며 第10次 實務接觸 延期 主張
 - 韓國側, 연기주장의 부당성을 반박, 議題問題 토의에 들어갈 것을 중용
 - 次期 접촉을 9月 26日 「自由의 집」에서 갖기로 합의
9. 4 北韓側, 9月 4日 午後 5時부터 休戰線 11個 地域에서 확성기를 통한 對南誹謗放送 개시
9. 5 南北調節委 서울側 代辯人, 北韓의 休戰線 對南 擴聲器放送再開에 대한 성명발표, 對南 비방방송의 즉시 중지와 生産의 對話에 호응할 것을 촉구
9. 12 韓赤總裁, 板門店 連絡官을 통해 北赤委員長에게 書翰 傳達
- 第8次 赤十字 本會談을 10. 28~10. 31間 서울에서 개최할 것.
 - 北韓側이 拉致, 抑留하고 있는 어부들의 송환을 위해 협력해 줄 것.
 - 拉北漁夫, 家族代表들의 北赤에 보내는 호소문 동봉
9. 16 韓赤總裁, 赤十字國際委員會 및 赤十字聯盟 總裁에게 書翰發送, 拉北漁夫의 送還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
9. 24 北韓側 實務代表團, 聲明을 통해 9月 26日 豫定이던 第11次 實務代表接觸에 불참하겠다고 발표, 實務代表 접촉을 일방적으로 중단
9. 25 北韓側 南北直通電話 운용 중단
9. 26 韓國側 實務代表團, 北韓側의 實務接觸 중단에 따른 성명발표, 總理會談의 早速한 實現을 위한 6個項의 새로운 方案 提示, 1980. 10. 7 第11次 實務代表接觸 개최 제의

1980. 10. 7 서울側 實務代表團, 聲明을 통해 北韓側이 我側의 9月 26日字 提議拒否로 第11次 實務代表 접촉 유산 발표
10. 15 南北調節委 서울側 聲明發表
○北韓의 所謂「高麗民主聯邦共和國」主張의 허구성 폭로
○對話를 통한 問題解決 촉구
10. 27 南惠祐 國務總理, 韓赤 創立 75周年 記念 致辭에서 南北赤十字會談 재개에 北赤의 성의 있는 태도 촉구
11. 13 韓赤總裁, 海旺號船員 送還에 즈음한 담화문 발표
○第8次 南北赤十字本會談 再開를 提議한 9. 12字 韓赤總裁 書翰에 긍정적 호응있기를 촉구
1981. 1. 12 全斗煥大統領,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相互訪問 제의
1. 14 國土統一院長官 對北聲明,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상호방문 실현절차 협의를 위한 접촉제의
1. 19 北韓 金一 명의 성명발표: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相互訪問提議 拒否
6. 5 全斗煥大統領,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회담제의
6. 19 大韓體育會會長聲明: 올림픽을 비롯한 國際競技大會에 單一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것과 南北體育人 회담제의
7. 4 南北調節委 서울側 聲明: 北韓側에 南北共同聲明合意事項 이행촉구
8. 12 韓赤總裁, 8. 12 提議 10周年 성명: 南北赤十字會談 재개촉구
8. 20 民族統一 中央協議會 대북성명
11. 16 文公部長官 對北提議: 고고학자료 유물 교류 연구
1982. 1. 22 全斗煥大統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제의
1. 26 北韓 金一名義 聲明: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거부
2. 1 國土統一院長官 對北聲明: 20個 示範實踐事業 제의
2. 10 北韓側, 「南北政治人聯合會議」 제의
2. 25 國土統一院長官 對北聲明: 南北韓 高位代表會談 제의
3. 26 國土統一院長官 對北聲明: 南北韓 高位代表會談 수락촉구
7. 4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共同委員長代理, 共同聲明發表 10周年 성명발표
8. 6 韓赤總裁, 拉北 第五馬山號船舶 및 船員의 送還促求 對北放送通知

文發表

1982. 8. 12 韓赤總裁, 「8·12 提議」 11周年 聲明 발표
8. 15 全斗煥大統領, 光復節 37周年 慶祝辭 「北韓을 포함한 共產圈居住同胞 自由往來」 勸명
1983. 1. 18 全斗煥大統領, 정상회담의 4개 당면과제 제시
1. 18 北韓, 「남북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제의
2. 1 國土統一院長官 대북성명 :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 제의
3. 2 민족통일중앙협의회회의장 대북성명 :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 제의 수락 촉구
4. 1 國土統一院長官 대북성명 : 「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 제의 수락 촉구
6. 1 全斗煥大統領 서울 IPU총회 北韓代表 참석 제의
7. 4 남북조절위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 공동성명 발표 11주년 聲明 발표
7. 6 韓赤總裁,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촉구
7. 24 北韓赤十字會 중앙위, 남북적십자회담 재개제의 거부
8. 12 韓赤總裁, 남북적십자회담 호응 촉구
1984. 1. 10 北韓, 「3자회담」 제의
1. 11 國土統一院長官 성명 : 남북한 직접 대화 촉구
2. 10 國務總理 대북서한 : 남북간 직접대화 호응 촉구
3. 10 國務總理 대북성명 : 남북한 직접대화 호응 거듭 촉구
3. 30 北韓, 南北體育會談 제의
4. 2 大韓體育會會長兼 대한올림픽위원장, 南北體育會談 수락
○ 제 1 차회담 : 4. 9. 10 : 00,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
○ 구 성 : 쌍방 각 5명의 대표단
○ 의 제 : '84로스엔젤레스올림픽 등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 및 남북체육교류 실시 문제
4. 6 北韓, 南北體育會談 대표단 구성 및 개최일자 제의에 동의
4. 7 대한올림픽위원회, 南北體育會談 대표명단 발표
○ 首席代表 : 김중규(대한체육회 부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 代 表 : 김중하 (대한핸드볼협회 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
위원)
 - 代 表 : 이종하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
 - 代 表 : 임태순 (대한축구협회 이사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 代 表 : 남정문 (대한탁구협회 이사겸 대한체육회 이사)
1984. 4. 8 北韓올림픽委員會, 남북체육회담 代表名單 발표
- 代表團長 : 김득준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 副團長 : 박무성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서기장)
 - 代 表 : 김세진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겸 북한체육예술지도위
원회 부위원장)
 - 代 表 : 서명호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 代 表 : 석태호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4. 9 제 1 차 南北體育會談
4. 12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장, 제 2 차 南北體育會談 개최 (4. 18)
제의
4. 14 北韓, 제 2 차 南北體育會談 개최(4. 18) 제의 거부
4. 20 北韓, 제 2 차 南北體育會談 개최(4. 26) 제의
4. 24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장, 제 2 차 南北體育會談 개최일자 수
정(4. 30) 제의
4. 28 北韓, 제 2 차 南北體育會談 일자 수정(4. 30) 제의에 동의
4. 30 제 2 차 南北體育會談
5. 4 사마란치 IOC위원장, IOC중재하 「로잔느」 南北體育會談 개최 제의
5. 9 大韓體育會長겸 대한올림픽위원장, 제 3 차 南北體育會談 개최 (5.11-
5. 14일 중) 제의
5. 12 北韓, 제 3 차 南北體育會談 개최제의 거부
5. 18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장, 제 3 차 남북체육회담 개최 (5.
23) 촉구
5. 23 北韓, 제 3 차 南北體育회담 일자 수정(5. 25) 제의
5. 24 北韓, 「프라하」에서 발표된 공산국가의 「로스엔젤레스」올림픽 불참
공동성명에 참여
5. 25 제 3 차 南北體育會談

- 북측이 우리측에 대해 L.A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방해한 사실을 시인·사과하라고 고집함으로써 의제토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유산
- 1984. 5. 29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장, 제 4 차 南北體育會談 개최 (6. 1) 촉구
 - 6. 1 北韓, 제 4 차 南北體育會談 개최 거부
 - 6. 2 北韓,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불참 발표
 - 6. 2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선수명단 제출
 - 8. 17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장, 제 4 차 南北體育會談 개최 (8. 30) 제의
 - 8. 20 全斗煥大統領, 夏季 記者會見: 남북간 物資交易 및 經濟協力 제의, 대북 기술·물자무상제공 용의 표명
 - 8. 27 北韓, 제 4 차 南北體育會談 개최 제의 거부
 - 9. 8 北韓, 대남수재물자 제공 제의
 - 9. 14 韓赤總裁, 수재물자제공 제의 수락 및 實務接觸 제의
 - 9. 14 北韓, 南北赤十字 실무접촉 제의 수락
 - 5명의 대표를 9. 18 板門店 중감위 회의실에 파견
 - 9. 15 韓赤總裁, 南北赤十字 실무접촉 대표명단 발표
 - 首席代表: 이영덕(韓赤 副總裁)
 - 代 表: 조철화(韓赤 事務總長)
 - 代 表: 송영대(韓赤 災害救護協議會 委員)
 - 代 表: 최은범(韓赤 救護奉仕部長)
 - 代 表: 이준희(韓赤 社會事業諮問委員)
 - 9. 17 北韓,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대표명단 발표
 - 代表團長: 한응식(北赤 中央委 副委員長)
 - 代 表: 최원석(北赤 中央委 常務委員)
 - 代 表: 최기봉(北赤 中央委 部長)
 - 代 表: 백영호(北赤 中央委 副書記長)
 - 代 表: 리남인(北赤 南浦市委 副委員長)
 - 9. 18 수재물자 인도·인수 관련 南北赤十字 실무접촉
 - 北韓側이 수재물자를 수재민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고집하다가 일방적으로 퇴장함으로써 유산

1984. 9. 18 韓赤總裁, 9월중 수재물자 완전 인도 촉구
9. 18 韓赤實務接觸 首席代表, 9월중 수재물자 제공의사가 있다면 72시간전
에 물자운반 계획을 연락할 것을 촉구
9. 19 北韓, 수재물자를 板門店, 仁川港, 北坪港을 통해 수송할 것임을 통보
9. 29 韓赤, 北赤 수재물자 전달인원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각서 전달
9. 29~10. 4 板門店, 仁川港, 北坪港에서 부적 수재물자 인도·인수
○쌀 5만석, 천 50만 m, 시멘트 10만톤, 의약품 14종 등
10. 4 韓赤總裁, 南北赤十字會談 제의
10. 4 대한체육회장겸 대한올림픽위원장, 제 4 차 南北體育會談 개최촉구
10. 12 大韓民國 申秉鉉 副總理, 南北經濟會談 제의
10. 13 경제 4단체장, 南北經濟會談 수락 촉구
10. 16 北韓 정무원 부총리, 南北經濟會談 개최제의 수락
○代表團 構成: 정무원 부부장급을 단장으로 한 5명으로 구성
○日 時: 11. 15
10. 29 北韓, 남북적십자 본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접촉 제의
○日時 및 場所: 11. 20. 10:00,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회의실
○代 表: 3명
11. 2 大韓民國 申秉鉉 副總理, 經濟會談 대표를 7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의
11. 10 北韓 政務院 김환 副總理, 경제회담 대표를 7명으로 하는데 동의
11. 12 大韓民國 申秉鉉 副總理, 경제회담 대표 명단발표
○首席代表: 김기환(海外協力委員會 기획단장)
○代 表: 차상필(商工部 제 2 차관보)
○代 表: 구본태(國土統一院 연구부장)
○代 表: 김인준(大韓商工會議所 전무이사)
○代 表: 신봉식(全國經濟人聯合會 전무이사)
○代 表: 노진식(大韓貿易協會 전무이사)
○代 表: 임병석(中小企業協同組合 中央會 상임이사)
11. 13 北韓, 경제회담 대표단 명단발표
○團 長: 리성록(貿易部 副部長)
○代 表: 계형명(採取工業委員會 참사)
○代 表: 백준혁(朝鮮對外經濟協調總會社 상무위원)

- 代 表 : 허항찬(朝鮮對外經濟協調總會社 부사장)
 - 代 表 : 리진식(金屬工業部 국장)
 - 代 表 : 손종철(貿易經濟研究所 부소장)
 - 代 表 : 김해룡(朝鮮光明聯合會社 부사장)
1984. 11. 14 韓赤總裁, 남북적십자 本會談 예비접촉 대표명단 발표
- 首席代表 : 조철화(韓赤 사무총장)
 - 代 表 : 송영대(韓赤 재해구호협의회의위원)
 - 代 表 : 최은범(韓赤 구호봉사부장)
11. 15 제 1 차 南北經濟會談
11. 16 北韓, 南北赤十字 本會談 예비접촉 대표명단 발표
- 代表團長 : 서성철(北赤 중앙위 상무위원)
 - 代 表 : 박영수(北赤 중앙위 부부장)
 - 代 表 : 박동춘(北赤 중앙위 과장)
11. 19 대한올림픽위원장, 제 4 차 南北體育會談(12월중) 재개 촉구
11. 20 제 8 차 남북적십자 本會談 예비접촉
11. 22 韓赤, 제 8 차 本會談 일정(85. 1. 22~25) 제의
11. 27 北韓, 제 2 차 南北經濟會談 연기
11. 28 南北經濟會談 首席代表, 제 2 차 南北經濟會談 일자 수정 (85. 1. 17) 제의
12. 11 北韓 外交部長, 美國務長官에게 서한 : 북경에서 3차회담 개최 제의
12. 14 北韓, 제 2 차 南北經濟會談 일자 수정제의에 동의
12. 14 北韓, 제 8 차 南北赤十字 本會談 일정 제의에 동의
12. 21 南北經濟會談 대표용 直通電話 시험통화 실시
1985. 1. 1 金日成, 高位級 政治會談 개최 가능성 시사
1. 7 韓赤, 제 8 차 남북적십자 本會談 체류 일정 관련 연락관 접촉 제의
- 일시 및 장소 : 1. 10. 10 : 00, 板門店 중립국 監督委員會 회의실
 - 연락관 2명 파견
1. 9 全斗煥大統領, 서울과 平壤에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제의
1. 9 北赤 中央委員長, 「탐스피리트 '85」 훈련을 구실로 제 8 차 남북적십자 本會談 연기
1. 9 北韓 副總理, 「탐스피리트 '85」 훈련을 구실로 제 2 차 南北經濟會談

의 연기를 통보하고 南北 副總理 접촉 제의

1985. 1. 10 大韓民國 副總理, 합의된 날짜(1. 17)에 제 2 차 南北經濟會談 개최 촉구
1. 10 韓赤總裁, 합의된 날짜(1. 23)에 제 8 차 赤十字 本會談 개최 촉구
1. 17 南北經濟會談 首席代表, 제 2 차 南北經濟會談 유산관련 논평
1. 23 韓赤總裁, 북한측에 제 8 차 南北赤十字 본회담 호응 촉구
2. 1 사마란치 IOC위원장, 남북한 NOC에 IOC주재하 남북 NOC간 회담 개최 (9. 11-12, 「로잔느」)를 제의
3. 13 대한올림픽위원회, IOC위원장의 「로잔느」 體育會談 제의에 동의
3. 25 南北經濟會談 首席代表, 제 2 차 南北經濟會談(4. 18) 제의
3. 25 韓赤總裁, 제 8 차 南北赤十字 본회담(5. 14-17) 개최 제의
4. 4 北韓, 제 2 차 南北經濟會談 일자를 수정(5. 17) 제의
4. 4 北赤, 제 8 차 南北赤十字 本會談 일자 수정(5. 28) 제의
4. 4 南北經濟會談 수석대표, 北側의 제 2 차 南北經濟會談 수정제의에 동의
4. 4 韓赤總裁, 북적의 제 8 차 南北赤十字 本會談 일자 수정제의에 동의
4. 9 北韓 最高人民會議, 南北國會會談 개최 제의
4. 9 北韓 最高人民會議(제 7 기 4차), 「大韓民國 國會에 보내는 편지」 채택
○ 南北國會會談개최 제의를 國會議長 및 3당총재들에게 발송
4. 30 김봉주 北韓 最高人民會議 상설회의 사무장, 南北國會會談 예비접촉제의에 대한 긍정적인 회담을 촉구
5. 8 李珍雨 國會事務總長, 北韓側의 國會會談 제의 관련, 國會가 개원되면 빠른 시일내에 회담을 보내겠다고 통보
5. 10 南北經濟會談 차상필 대표를 임인택 상공부 제 2 차관보로 교체
5. 13 韓赤總裁, 제 8 차 南北赤十字 本會談 관련, 연락관접촉 (5. 15. 14 : 0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제의
5. 14 北赤, 연락관 접촉을 5. 20경 가질것과 구체적인 접촉시일 추후 연락 통보
5. 16 北韓, 南北經濟會談 백준혁 대표를 한영읍(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무위원)으로 교체

1985. 5. 17 제 2 차 남북경제회담
5. 18 韓國 內務部長官, 제 8 차 南北赤十字本會談 참가 北側代表團의 신변 안전보장 성명발표
5. 18 韓赤總裁, 제 8 차 南北赤十字本會談 관련, 쌍방 연락관 접촉 (5. 20) 제의
5. 18 韓赤, 제 8 차 南北赤十字本會談 대표명단 발표
 ○首席代表: 이영덕(대한적십자사 副總裁)
 ○代表: 조철화(대한적십자사 事務總長)
 ○代表: 송영대(대한적십자사 災害救護協議會 委員)
 ○代表: 이병호(대한적십자사 弘報諮問委員)
 ○代表: 정용석(대한적십자사 靑少年諮問委員)
 ○代表: 이준희(대한적십자사 社會事業 諮問委員)
 ○代表: 이병용(대한적십자사 總務部長)
5. 20 北赤, 제 8 차 南北赤十字 本會談 관련 실무대표 접촉(5. 20) 제의에 동의
5. 20 제 8 차 南北赤十字 本會談 관련 연락관 접촉
5. 22 양형섭 북한 最高人民會議 상설회의 議長, 南北國會會談 제의에 대한 조속한 회담 촉구
5. 24 北赤, 제 8 차 南北赤十字 本會談 북측 대표단 명단 발표
 ○團長: 이종률(북한적십자회 中央委 副委員長)
 ○副團長: 서성철(북한적십자회 中央委 常務委員)
 ○代表: 한연수(북한적십자회 中央委 常務委員)
 ○代表: 박영수(북한적십자회 中央委 同胞事業部長)
 ○代表: 김완수(북한적십자회 中央委 文化宣傳部長)
 ○代表: 박동춘(북한적십자회 中央委 國際部 副部長)
 ○代表: 김창현(북한적십자회 中央委 組織計劃部 副部長)
5. 27~30 제 8 차 南北赤十字 本會談(서울)
 合意事項 :
 ○차기회담: 8. 26~29(平壤)
 ○이산가족 故鄉訪問團 및 藝術公演團 교환방문 실시
6. 1 이재형 國會議長, 南北國會會談 예비접촉 제의 (7월중)

○대표단 구성 : 쌍방 國會議員 각 5명

1985. 6. 5 全斗煥大統領, 86아시아게임과 88서울올림픽에 북한측의 참가를 희망
6. 14 北韓, 南北國會會談 예비접촉일자(7. 9) 제의
6. 20 제 3 차 南北經濟會談
- 合意事項 :
- 「南北間 物資交流 및 經濟協力 추진과 副總理級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南北經濟協力기구 설치에 관한 합의서」채택키로 합의
 - 제 4 차 회담 : 9. 18
6. 28 이재형 國會議長, 제 1 차 南北國會會談 예비접촉일자 수정 (7. 23) 제의
7. 5 北韓, 南北國會會談 예비접촉일자 수정제의(7. 23)에 동의
7. 6 北韓, IOC주재하 「로잔느」 南北體育會談 수락
7. 15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藝術公演團 교환방문 관련 제 1 차 南北赤十字 실무접촉
- 2차 접촉 : 7. 19 개최 합의
7. 18 이재형 國會議長, 南北國會會談 예비접촉 대표단 명단 발표
- 首席代表 : 권정달(民主正義黨)
 - 代 表 : 정시채(民主正義黨)
 - 代 表 : 신순범(新韓民主黨)
 - 代 表 : 박관용(新韓民主黨)
 - 代 表 : 강경식(韓國國民黨)
7. 19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藝術公演團 교환방문 관련 제 2 차 南北赤十字 실무접촉
- 제 3 차 회담일자 합의없이 종료
7. 19 北韓, 南北國會會談 예비접촉 관련 北側대표단 명단 발표
- 團 長 : 전금철(朝鮮勞動黨)
 - 副 團 長 : 주창준(朝鮮勞動黨)
 - 代 表 : 최장룡(朝鮮勞動黨)
 - 代 表 : 럽국렬(朝鮮社會民主黨)
 - 代 表 : 우달호(天道教靑友黨)
7. 23 南北國會會談 제 1 차 예비접촉

合意事項 :

- 회담형식 : 대표회담
- 대표단 구성 : 南北 각각 11명
- 본회담장소 : 서울, 平壤 교대로 개최
- 제 1 차 본회담 개최일자 : 예비접촉이 끝나는 때로부터 1개월이내
- 제 2 차 예비접촉 : 9. 25

1985. 7. 24 국제올림픽위원회, 「로잔느」에서 南北體育會談 년내개최 발표
7. 25 대한올림픽위원장, 南北간의 직접적인 體育會談에 北側의 호응 재촉구
7. 30 北韓 政務院 副總理, 88서울올림픽 서울·平壤 공동주최 및 남북한 유일팀 출전 주장
7. 31 국제올림픽위원회, 南北쌍방에 「로잔느」 체육회담일자(85. 10. 8~9)를 통보
8. 2 體育部長官, 북한의 88올림픽 남북한 공동주최 재의에 대한 반박성명 발표
8. 15 全斗煥大統領, 光復節 40周年 慶祝辭 : 긴장완화와 平和定着을 위한 실천적 조치 촉구
8. 22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관련 제 3 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合意事項 :

- 방문단규모 : 151명(단장, 고향방문단 50명, 예술공연단 50명, 취재기자 30명, 지원인원 20명)
- 이산가족 방문지역 : 서울, 平壤
- 방문기간 : 9. 20~9. 23(3박 4일)
- 교환방법 : 동시교환
- 공연회수 : 2회

8. 26~29 제 9 차 남북적십자본회담(平壤)
- 제 10 차 회담 : 11. 26(서울) 개최합의
9. 6 內務部長官, 북한측 예술공연단 사전답사 인원(5명)에 대해 신변 安全保障 성명 발표
9. 7 北韓 社會安全部長, 우리측 예술공연단 사전답사 인원(5명)에 대한 신변안

전보장 성명

1985. 9. 10~12 南北公演場 사전답사반(적십자인원 2, 공연기술원 3), 상호 상대측의 공연장을 사전답사
9. 12 內務部長官, 北韓側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151명)에 대해 身邊安全保障 성명 발표
9. 13 北韓 社會安全部長, 우리측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예술공연단에 대해 신변안전보장 성명
9. 18 제 4 차 南北經濟會談
○ 제 5 차 회담 : 11. 20 개최 합의
9. 20~23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藝術公演團 서울·平壤 동시교환 방문
○ 相逢家族 : 65가족 92명
9. 25 南北國會會談 제 2 차 예비접촉
○ 제 3 차 예비접촉일자 및 장소 : 直通電話를 통해 협의하기로 합의
10. 2 대한올림픽위원회, 「로잔느」 南北體育會談 대표단 발표
○ 首席代表 : 김중하(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 次席代表 : 장충식(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 代表 : 최만립(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 代表 : 이종하(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 代表 : 임태순(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 代表 : 남정문(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10. 6 國際陸上聯盟, 87년 서울에서 열릴 월드컵 마라톤대회 기간중 남북한을 관통하는 역전경주대회 개최 제의
10. 8~9 IOC주재 제 1 차 「로잔느」 南北體育會談
○ 대표단 구성 : 남북한 대표 각각 6명, IOC대표 6명
○ 제 2 차 회담 : 86. 1. 8~9. 개최합의
10. 9 南北國會會談 예비접촉 北側團長, 제 3 차 예비접촉 (10. 16. 통일각) 제의
10. 12 南北國會會談 예비접촉 권정달 首席代表, 제 3 차 예비접촉 일자는 차후 적절한 시기에 연락하겠다고 통보
10. 18 박성철 北韓副主席, 『유엔에서 조선이 유엔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최소한 북남 연방제라도 실현하고 단일국호 밑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

1985. 10. 25 南北國會會談 예비접촉 北側團長, 제 3 차 예비접촉 일자(11. 1)제의
10. 30 南北國會會談 예비접촉 권정달 首席代表, 제 3 차 예비접촉 일자는 定期國會 (9. 20~12. 18)후에 연락하겠다고 통보
11. 5 北赤委員長, 제 10 차 南北赤十字本會談 대표단 일행의 교통수단으로 항공기 이용 제의
11. 7 韓赤總裁, 북측의 회담대표단 항공기 이용 제의에 대해 관례대로 하자는 입장 전달
11. 15 北赤委員長, 제 10 차 南北赤十字 本會談 일자수정(12. 3) 통보
11. 16 韓赤總裁, 북측의 제 10 차 南北赤十字 本會談 일자 수정 제의 (12. 3)에 동의
11. 18 北韓 最高人民會議 常設회의 양형섭 의장, 제 3 차 國會會談 예비접촉 개최 촉구
11. 20 제 5 차 南北經濟會談
○제 6 차 회담 : 86. 1. 22 개최 합의
11. 25 제 10 차 南北赤十字 본회담 관련 제 1 차 연락관 접촉
11. 28 제 10 차 南北赤十字 본회담 관련 제 2 차 연락관 접촉
11. 28 이재형 國會議長, 북한측의 제 3 차 國會會談 예비접촉 개최 촉구회신
12. 2~5 제 10 차 南北赤十字 본회담(서울)
○제 11 차 회담 : 86. 2. 26(수) 平壤에서 개최 합의
12. 20 南北國會會談 예비접촉 권정달 首席代表 제 3 차 國會會談 예비접촉 일자 (86. 2. 18) 통보
12. 24 北韓, 제 3 차 國會會談 예비접촉일자(86. 2. 18)에 동의
1986. 1. 1 金日成新年辭, 最高位級 政治會談 개최 시사
1. 2 南北經濟會談 북측단장, 金日成 신년사 지지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중지요구
1. 3 南北赤十字會談 북측단장, 金日成 신년사 지지
○「팀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 중지요구
1. 4 南北國會會談 예비접촉 북측단장, 金日成 신년사 지지
○「팀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 중지요구

1986. 1. 8~9 제 2 차 「로잔느」 南北體育會談

○ 제 3 차 회담 : 6. 10~6. 11 개최합의

1. 11 北韓 外交部 성명 : 86. 2. 1부터 北韓 전지역에서 軍事訓練 중지용의 표명코, 韓國측의 상응한 조치기대
1. 18 韓美聯合司, 「팀스피리트 86」 訓練計劃(86. 2. 10~4월 중순) 발표
1. 20 北韓側 회담대표단 (經濟·赤十字·國會) 공동성명 : 「팀스피리트 86」 혼란을 이유로 모든 南北會談을 연기
1. 20 韓國側 南北會談 대표단 (國會·經濟·赤十字) 수석대표 합동성명 : 예정된 南北會談 개최를 촉구
1. 21 南北經濟會談 북측 대표단장, 제 6 차 남북경제회담 연기통보
1. 21 南北經濟會談 韓國側 수석대표, 제 6 차 남북경제회담 개최 촉구
1. 22 南北經濟會談 韓國側 수석대표, 제 6 차 남북경제회담 유산과 관련 논평
○ 北韓側의 성실한 대화자세 촉구
1. 22 南北赤十字會談 북측단장, 제 11 차 남북적십자 본회담(平壤) 연기통보
1. 22 南北國會會談 예비접촉 북측단장, 제 3 차 예비접촉 연기통보
1. 23 南北國會會談 예비접촉 권정달 수석대표, 제 3 차 예비접촉 개최 촉구
1. 23 南北赤十字會談 이영덕 수석대표, 제 11 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개최 촉구
2. 10 북한외교부 성명 :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중지요구
2. 18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권정달 수석대표, 예비접촉 개최 촉구
2. 26 남북적십자회담 이영덕 수석대표, 제 11 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개최 촉구
3. 1 全斗煥大統領 3·1節 記念辭,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 연내실현 기대
3. 4 南北經濟會談 김기환 수석대표를 문희갑 首席代表로 교체
3. 11 김일성, 쿠바 「카스트로」 수상 환영대회 연설
○ 제 24 차 올림픽 대회는 政治的 問題로 수수방관 할 수 없음
3. 26 南北經濟會談 문희갑 수석대표, 제 6 차 經濟會談 일자 (4. 30) 제의
3. 26 南北國會會談 豫備接觸 권정달 수석대표, 제 3 차 예비접촉 일자 (5. 14) 제의
3. 26 南北赤十字會談 李榮德 수석대표, 제 11 차 赤十字 本會談(5. 27) 제의

1986. 3. 31 南北國會會談 豫備接觸 북측단장, 「팀스피리트 86」훈련을 이유로 접촉재개는 현실외면이라고 주장
4. 1 南北經濟會談 북측대표단장, 회담재개 문제보다 대화분위기 마련 위해 노력 주장
4. 1 南北赤十字會談 북측대표단장, 회담날자 거론은 현실외면이라고 주장
4. 1 南北經濟會談 문희갑 수석대표, 제 6 차 經濟會談 개최 촉구
4. 1 南北赤十字會談 이영덕 수석대표, 북한측의 성실한 대화자세 촉구
4. 1 南北國會會談 豫備接觸 권정달 수석대표, 대화재개 촉구
4. 3 제 18 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 : 방위능력 향상을 위해 「팀스피리트」 훈련계속 실시
4. 6 北韓外交部 聲明 : 「팀스피리트」훈련의 계속실시는 남북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선포
4. 9 북한최고인민회의 의장, 국회회담제의 1주년 담화
 ○ 「팀스피리트」 훈련의 계속 강화 공언은 남북사이의 대화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며 대화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임
4. 22 北韓 정무원 총리 담화
 ○ 서울올림픽대회 강행은 올림픽운동을 분열시키는 결과 초래
 ○ 남북올림픽 공동주최만이 순조로운 올림픽 보장.
4. 24 北韓側 회담대표단 (경제·적십자·국회) 共同聲明 :
 ○ 「팀스피리트」 훈련을 강행, 南北對話 中斷과 南北관계 악화 책임
 ○ 대화분위기 조성 위해 남측대표단들이 적절한 조치 취할 것
5. 12 全斗煥大統領, 「平統」 제 2 차 지역회의 치사
5. 13 북한 社勞青委員長, 南北學生會談開催 용의 시사
6. 7 北韓, 대남편지 전달의사 통보
6. 10~11 제 3 차 「로잔느」 南北體育會談
 ○ IOC측 중재안 수락여부 86. 6. 30 까지 통보요망
6. 11 軍停委 北側, 6. 7 통보에 대한 조속한 회답을 촉구
6. 12 軍停委 유엔사측, 6. 14 회담하겠다고 통보
6. 14. 軍停委 유엔사측, 편지접수위해 연락관을 파견(6. 17)하겠다고 통보
6. 16 軍停委 북측, 6. 17일 편지전달하겠다고 통보

1986. 6. 16 軍停委 유엔사측, 6. 17 편지접수하겠다고 통보
6. 17 북한인민무력부장 대남편지, 이기백 국방부장관 및 「릿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편지
- 한국·미국·북한의 3자군사회담 제의
 - 군사당국자회담 준비를 위한 예비접촉 개최 (6. 27)제의
6. 21 한미연합사령관, 6. 17 편지와 관련하여 서명자 부적절하나 긴장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서한 유보한다고 통보.
6. 21 북한올림픽 위원회 김득준 부위원장, '88올림픽 공동주최 요구 담화
6. 21 한국측, 3자 軍事會談관련하여 6. 24 서한전달 하겠다고 예고
6. 23 南北國會會談 豫備接觸 북측대표단장, 3자 군사회담 지지담화
6. 23 북한 정무원 성명 : 한반도 비핵·평화지대 창설 협상제의
6. 24 李基百 國防部長官 대북서한
- 기존의 남북대화 재개희망
 - 軍停委에서 제의한바 있는 4대 신뢰구축방안 토의에 호응 기대
 -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 호응 촉구
6. 26 南北經濟會談 북측대표단장, 3者 軍事會談 지지 담화
6. 30 대한올림픽 위원회, IOC 중재안 수락
7. 2 南北赤十字會談 북측대표단장, 3者 軍事會談 지지 담화
7. 3 사마란치 IOC 위원장, IOC 중재안에 대해 북측의 수락여부를 7. 15 한 회신촉구
7. 11 李基百 國防部長官 대북통지문
- 형식적인 편지전달 방법 통한 선전활동 지양
 - 중단된 南北對話 再開 성의 촉구
 - 편지접수 거부 통보
7. 11 北韓 人民武力部長 대남편지
- 軍事當局者會談 7월중 개최 긍정적 호응기대
 - 빠른시일내 예비접촉개최 희망
 - 예비접촉 일시·장소 : 남측에 일임
7. 11 南北國會會談 豫備接觸 북측 대표단장, 제 3 차 예비접촉일자(8. 13) 제의
7. 11 南北經濟會談 文焄甲 수석대표, 제 6 차 經濟會談 일자 (8. 6)제의

1986. 7. 11 南北赤十字會談 李榮德 수석대표, 제 11 차 적십자 본회담일자(8. 28) 제의
7. 14 北韓 인민무력부 대변인 성명 : 군사회담거부 비난하고 군사당국자회담 실현기대
7. 15 南北赤十字會談 북측 대표단성명 : 적십자회담 재개는 일고의 가치도 없고, 군사당국자회담 지체없이 개최
7. 16 南北經濟會談 북측대표단 성명 : 경제회담 재개를 들고 나온 것은 불순한 행위이고, 군사당국자 회담 지체없이 호응촉구
7. 17 南北國會會談 豫備接觸 북측 대표단 성명 : 국회회담 예비접촉 재개는 일고의 가치도 없고 군사당국자 회담 조속개최
7. 19 북한올림픽위원회, IOC에 편지
7. 28 사마란치 IOC위원장의 대북서한 : 회담진전을 위해 IOC중재안에 대한 조건없는 수락 전제
8. 1 북한올림픽 위원회, IOC측에 세부경기종목 증가문제토의를 요구하는 편지
8. 6 南北經濟會談 文焘甲 수석대표 성명 : 제 6 차 經濟會談開催 호응촉구
8. 10 北韓側 會談대표단(경제, 적십자, 국회)대변인 공동성명 : 3차 군사당국자회담 지체없이 수락촉구
8. 11 全斗煥大統領 하계기자회견 :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 會談 및 중단된 대화재개 호응촉구
8. 13 南北國會會談 豫備接觸 權正達 수석대표, 對話再開促求 聲明
8. 15 全斗煥大統領 광복절 41주년 경축사, 기존의 남북대화재개 호응촉구
8. 28 南北赤十字會談 李榮德 수석대표, 제 11 차 赤十字 본회담개최 呼應促求 성명
10. 13 제 91 차 IOC총회, 대변인 기자회견
 ○ IOC중재안의 수락여부를 87. 9. 17까지 서면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最後通牒을 북한에 보내기로 결정
10. 14 북한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IOC총회참석중 올림픽경기 8개종목 배정 요구
10. 21 북한 방송보도, 금강산발전소 착공식진행
10. 24 북한측 회담대표단(경제, 적십자, 국회)연합성명 : 반공대결 책동과

반공파쇼화정책 포기촉구

1986. 10. 30 李圭孝 建設部長官 대북성명 : 금강산 발전소 건설계획중지 촉구
11. 4 북한전력공업위원회 자원개발국장, 금강산 발전소 건설관련 담화
11. 6 李基百 國防部長官 대북성명 : 금강산댐 건설관련 軍事戰略의 자위조치 강구
11. 21 李雄熙 文化公報部長官 대북성명 : 금강산 발전소 건설중지 촉구
11. 26 四部長官(국방, 건설, 문공, 통일)合同談話文 : 금강산댐 건설 중지시 남북한 공유하천의 수자원이용·개발에 관한 모든 문제협의
11. 27 李圭孝 建設部長官 대북통지문, 서한전달 위해 11. 28 연락관 판문점 파견
11. 28 북한 전력공업위원회 성명 : 반공대결로 긴장상태를 격화시킨데 대해 민족 앞에 죄과를 시인, 사죄하는 조건하에서 발전소 建設問題 協議
11. 28 李圭孝 建設部長官 대북서한 통해 남북수자원 당국회담 제의
12. 25 北韓 電力工業委員會 부위원장 기자회견, 금강산발전소 건설내역 白書 발표
12. 29 이재명 건설부 수자원국장 기자회견 : 공유하천·수자원 공동이용에 관한 南北當局間會談 呼應促求
12. 30 金日成, 最高人民會議 제8기 1차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고위급 정치·군사 회담개최 시사
1987. 1. 9 北韓 政務院 總理·人民武力部長, 便紙傳達 連絡員 파견 (1. 10)통보
1. 10 국무총리·국방부장관, 가까운 시일내 편지접수 일시 통보
1. 11 북한 정무원 총리·인민무력부장, 대남편지 통해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의 제의
1. 12 全斗煥大統領 國政演說 :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 호응촉구
1. 14 韓國側 南北會談代表團(국회, 경제, 적십자)首席代表 합동성명 : 조건 없는 기존대화 호응촉구
1. 15 南北國會會談 豫備接觸 북측대표단장, 정치·군사회담 지지담화
1. 16 李圭孝 建設部長官 성명 : 금강산댐 건설공사 즉각중지 및 수자원이회담 호응촉구
1. 16 南北赤十字會談 北側대표단장, 정치·군사회담 지지담화
1. 17 南北經濟會談 북측대표단장, 정치·군사회담 지지담화

1987. 1. 19. 北韓電力工業委員會 聲明 : 남북고위 정치·군사회담에서 금강산 발전소 건설문제 협의
1. 21 北韓 정무원, 인민무력부 대변인 공동성명 : 政治軍事會談 수락촉구
1. 27 北韓 정무원총리·인민무력부장, 편지전달 위해 연락원 파견(1. 28) 통보
1. 27 국무총리·국방부장관, 편지접수 위해 연락관 파견 (1. 30)통보
1. 28 北韓 정무원총리·인민무력부장, 편지전달(1. 30)통보
1. 28 北韓側 회담대표단(적십자, 경제, 국회)공동성명 : 팀스피리트 87훈련을 반대·배격하고 정치·군사회담에 빨리 응할 것.
1. 30 北韓 정무원총리·인민무력부장 대남편지
 ○ 정치·군사회담 제안 검토 위해 20일간의 기간 제공
2. 5 北韓 전력공업위원회 부위원장, 금강산 발전소 문제관련 기자회견
2. 11 국무총리·국방부장관, 서한전달 위해 연락관 파견(2. 13) 통보
2. 12 北韓 政務院 總理·人民武力部長, 편지접수 위해 연락관 파견(2. 13) 통보
2. 12 北韓 올림픽 위원장, IOC-북한간 공식회담 (IOC집행위원회)후 기자회견
2. 13 國務總理·國防部長官, 서한전달 위해 연락관 파견(2. 14) 통보
2. 14 國務總理·國防部長官 대북서한
 ○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 수자원 공동이용·조사 및 정치·군사문제까지 함께 토의할 수 있는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 개최 호응 촉구
2. 27 北韓 政務院 總理·人民武力部長, 편지전달 위해 연락원 파견(2. 28) 통보
2. 27 國務總理·國防部長官, 편지접수 위해 연락관 파견(3. 3) 통보
2. 28 盧信永 國務總理, 평화의 댐 건설 기공식 치사 : 금강산 발전소 건설 공사 즉각 중지 및 수자원 공동 이용을 위한 남북대화 호응 촉구
3. 2 北韓 政務院 總理·人民武力部長, 편지전달 위해 연락원 파견 (3. 3) 통보
3. 3 北韓 政務院 總理·人民武力部長 대남편지
 ○ 政治·軍事會談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最高位級會談 최단시일내

개최

○政治·軍事會談 제1차회의 개최 (3. 26) 제의

1987. 3. 3 北韓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기자회견 : 올림픽 공동주최 및 8개 경기종목 배정 요구
3. 5 北韓 전력공업위원회 대변인, 政治·軍事會談 지지담화
3. 5 남북적십자회담 북측대표단장, 政治·軍事會談 지지담화
3. 5 남북경제회담 북측대표단장, 政治·軍事會談 지지담화
3. 8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북측대표단장, 政治·軍事會談 지지담화
3. 12 盧信永 國務總理, 명의의 서한전달 위해 연락관 파견 (3. 14)통보
3. 14 北韓 政務院 總理·人民武力部長, 편지접수 위해 연락원 파견 (3. 17)통보
3. 16 國務總理·國防部長官, 서한전달 위해 연락관 파견
3. 17 國務總理·國防部長官 대북서한
- 남북수자원회담과 기존대화 재개의 바탕위에서 南北總理會談 개최 제의
 - 南北水資源會談 : 3월중 板門店 개최
 - 南北赤十字·南北經濟會談 : 4월중 평양과 판문점 개최
 - 회담의 구체적인 날짜 : 북측에 일임
3. 19 北韓 外交部 成명 : 미국측 공식인물들과 접촉하여 대화할 준비 되어 있음
3. 26 北韓 政務院 總理·人民武力部長, 편지전달 위해 연락원 파견 (3. 30)통보
3. 28 國務總理·國防部長官, 편지접수 위해 연락관 파견 (3. 30)통보
3. 29 北韓 政務院 總理, 정무원 총리 명의로만 보내는 편지임을 통보
3. 30 北韓 政務院 總理 대남편지
- 總理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회담 제의
 - 대표구성 : 쌍방 總理가 임명하는 部長 (장관)級, 수행원 2명
 - 날짜, 장소 : 4. 23, 오전10시, 板門店 통일각
4. 3 미국, 대북한 인도적 교역추진 제의
4. 5 金日成, 쿠바 「프렌사 라틴아」 통신사장과 회견 : 올림픽 공동주최 위해 1/3이상 경기종목 배정요구

1987. 4. 8 국무총리, 서한전달 위해 연락관 파견 (4. 10) 통보
4. 9 北韓 政務院 總理, 서한접수 위해 연락관 파견(4. 10) 통보
4. 10 盧信永 國務總理 대북서한
- 남북수자원회담과 기존대화 재개 통해 상호신뢰 여건이 진전되면 가까운 시일내 南北總理會談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회담 개최
 - 남북수자원회담 : 5. 6 판문점개최 제의
 - 제 6 차 남북경제회담 : 5. 12 판문점개최 제의
 - 제 11 차 남북적십자회담 : 5. 19 평양개최 제의
4. 23 사마란치 IOC위원장 기자회견 : 제 4 차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개최 일자 (7. 14~15) 발표
4. 24 北韓정무원 대변인 성명 : 남북대화 재개거부 및 아측에 책임전가
4. 26 北韓인민무력부 대변인, 北韓 정무원 대변인 성명 지지담화
4. 26 北韓전력공업위원회 대변인, 北韓 정무원 대변인 성명 지지담화
4. 27 韓國側 정부대변인 대북성명 : 기 제외한 남북회담 무조건 호응 촉구
4. 27 남북적십자회담 북측대표단장, 北韓 정무원 대변인 성명 지지담화
4. 28 남북경제회담 북측대표단장, 北韓 정무원 대변인 성명 지지담화
4. 29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북측대표단장, 北韓 정무원 대변인 성명 지지담화
5. 7 北韓올림픽 위원회 대변인 성명 : 88서울올림픽 공동추최 주장
5. 7 韓美安保協議會議 공동성명 : 「팀스피리트」훈련 계속 실시 및 북한측 참관초청
5. 11 朴世直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기자회견을 통하여 4개종목의 개최를 북한에 넘긴 것은 대단히 관대한 결정이며 더 이상 양보불가 표명
5. 15 北韓側 회담대표단 (경제·적십자·국회) 聯合聲明 :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개최 비난
5. 20 北韓 祖國平和統一委員會聲明 : 통일문제 관련 韓國政府의 견해 비난 및 7개항의 공개질문
5. 23 北韓側 회담대표단 (경제·적십자·국회) 聯合聲明 : 정부견해 철회 및 공개질문에 대한 답변촉구
6. 3 金斗煥大統領, 「평통」 제 4 차 전체회의 개최사에서 기존대화 재개 및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 會談 실현 촉구

1987. 6. 6 北韓 祖國平和統一委員會 聲明: 평통 개회사 비난 및 공개질문장에 대한 답변 촉구
7. 13 北韓 外交部 聲明: 비핵·평화지대 창설과 관련한 입장 천명
7. 14~15 제 4 차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 IOC 수정안 제시
7. 23 北韓 政府聲明: 한반도에서의 단계별 군축실현을 위한 다국적 군축 협상 제의
8. 3 韓國 外務部 聲明: 南北韓 外務長官會談 개최제의
8. 4 北韓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IOC 수정안에 불만, 제 5 차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9. 17이전 소집촉구
8. 6 北韓 외교부대변인 聲明: 남·북한·미국 3者 外務長官會談 제의
8. 11 北韓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기자회견을 통하여 6개 경기종목 개최 주장 및 제 5 차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소집 요구
8. 13 外務部대변인 聲明: 南北韓 外務長官會談 재촉구
8. 15 金斗煥大統領, 광복절 42주년 경축사에서 남북대화재개 및 88서울올림픽 동참 촉구
8. 17 金宗河 대한올림픽 위원장, IOC 측의 수정중재안에 동의하는 서한 발송
8. 28 北韓 외교부 대변인 聲明: 南北外務長官會談 예비회담 호응 촉구
8. 31 北韓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기자회견을 통하여 IOC 측에 올림픽초청 발급연기를 요청
9. 8 外務部 論評
○ 南北外務長官會談 조속 호응 촉구
9. 10 北韓 人民武力部 대변인 담화: 軍縮協商 예비회담 호응 촉구
9. 11 北韓 올림픽 위원장, 대남편지 전달계획 통보
9. 12 金宗河 대한올림픽위원장, 편지 접수 위해 연락관 파견 (9. 15) 통보
9. 15 北韓 올림픽위원장 대남편지
○ 제 5 차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개최에 앞서 남북한 쌍무회담 제의
9. 17 崔悅洙 外務部長官, 제 4 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 기자회견을 통하여 유엔총회 기간중 南北外務長官 접촉용의 표명
9. 21 北韓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올림픽 참가 초청장 발송 비난

1987. 9. 22 金宗河 대한올림픽위원장, 서한 전달을 위해 연락관 파견(9. 24)통보
9. 23 北韓側, 서한접수 동의
9. 24 金宗河 대한올림픽위원장 대북서한
○IOC 중재안 수락 촉구
9. 24 北韓 외교부 대변인 담화: 南北 外務長官會談 예비회담 호응 촉구
9. 26 金日成, 일본사회당 위원장과 회견을 통하여 對美 直接對話 희망 언명
10. 2 北韓올림픽위원장, 편지전달을 위해 연락원 파견(10. 3) 통보
10. 2 金宗河 대한올림픽위원장, 편지접수 위해 연락관 파견(10.12) 통보
10. 5 全斗煥大統領, 제 137 회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남북한 당사자간 대화 노력 천명
10. 6 北韓올림픽위원장, 대남편지 접수일시 수정통보에 동의
10. 12 北韓올림픽위원장, 대남편지
○ IOC 제의 남북올림픽위원회간 2자회담 수락 촉구
10. 15 金宗河 대한올림픽위원장. 서한전달 위해 연락관 파견 (10. 16) 통보
10. 16 北韓올림픽위원장, 서한접수 위해 연락원 파견 (10. 20) 통보
10. 20 金宗河 대한올림픽위원장 대북서한
○ IOC 중재안 수락 거듭 촉구
10. 23 北韓올림픽위원장 담화, 서울올림픽 共同主催 協商 연기 표명
11. 11 北韓祖國戰線 中央委·祖國平和統一委 연합회의에서 「남한의 각당각파·각계각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
11. 20 北韓 外交部長, 유엔사무총장에 보내는 편지
○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반대입장 천명
11. 26 金宗河 대한올림픽위원장, 기자회견을 통하여 북한측에 IOC수정안 수락 촉구
1988. 1. 1 金日成, 南北連席會議 소집제의
1. 12 北韓올림픽위원회 성명: 88서울올림픽 불참선언
1. 13 北韓赤十字會 中央위원장, 편지전달 위해 연락원 파견(1. 14) 통보
1. 14 金相浹 대한적십자사 총재, 편지접수 위해 연락관 파견(1. 14) 통보
1. 14 南北連席會議 北側準備委員長 명의 대남편지
○南北連席會議 소집제의
1. 15 李雄熙 정부대변인 성명: KAL기 사건 사과 및 대화분위기 조성촉구

1988. 1. 19 朴世直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기자회견을 통하여 서울올림픽에 북한 참가문제는 계속 문호를 개방한다고 표명
2. 7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부위원장, 기자회견을 통하여 서울올림픽에 북한 참가 촉구
2. 9 北韓赤十字會 중앙위원장, 1. 13자 대남편지 전달여부를 통보 요망
2. 12 金相浹 대한적십자 총재, 1. 13자 대남편지 대상자에 전달사실 통보
2. 20 南北連席會議 북측준비위원회 성명 : 南北連席會議 소집제의 호응 촉구
2. 25 盧泰愚大統領 취임사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재결합을 위한 對話門戶 개방
3. 1 盧泰愚大統領, 3·1절 기념사 : 서울올림픽에 북한동포 참여환영 표명
3. 5 北韓赤十字會 중앙위원장, 편지전달 위해 연락원 파견(3. 8) 통보
3. 7 金相浹 대한적십자사 총재, 편지접수 위해 연락관 파견(3. 8) 통보
3. 8 南北連席會議 북측준비위원장 제 2 차 대남편지
○남북연석회의 예비회의 개최일자(3. 28) 다시 제의
3. 29 서울대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김일성대학 청년학생들에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하여 南北學生會談 제의
3. 20 南北連席會議 북측준비위원회 사무장 담화 : 南北連席會議 예비회의 소집일자 남측에 일임.
4. 2 北韓赤十字會 중앙위원장, 南北學生會談 관련 편지전달 위해 연락원 파견(4. 4) 통보
4. 4 金相浹 대한적십자총재, 편지전달은 남북관계개선에 무익하며 중단된 적십자회담 재개 호응을 촉구
4. 4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 「서울대 총학생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南北學生會談에 찬동, 판문점 개최 제의
4. 7 北韓 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남한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하여 KNCC선언 지지 및 연대투쟁 선동
4. 21 盧泰愚大統領, 기자회견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협력시대 개막」선언
5. 14 전국대학생대표자 협의회, 南北學生會談 개최 위한 구체적 방안 제의

1988. 5. 17 北韓 전국대학생 연합대회 「남한 대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채택하여 南北學生會談 지시·찬동 및 북측준비위원회 구성
5. 18 北韓赤十字會 중앙위원회, 南北學生會談 북측준비위원회의 편지전달 위해 연락원 파견 (5. 20) 통보.
5. 19 金相浹 대한적십자 총재, 북측통보에 대한 회답은 추후 통보
5. 20 南北學生會談 북측준비위원회 성명: 南北學生會談 실현주장
5. 24 金相浹 적십자사 총재,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촉구
5. 27 金日成, 체코공산당총비서 환영연회 연설에서 남북간 쌍무적·다목적 접촉과 회담 및 서울올림픽 공동주최 주장
5. 31 李賢宰 국무총리, 서한전달 위해 연락관 파견 (6. 3) 통보
6. 2 북한정무원총리, 국무총리의 대북서한 접수 거부
6. 2 鄭漢模 문공부장관, 통일논의 관련 정부의 입장 발표
6. 3 李賢宰 국무총리, 대북서한 방송공개 통해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의
6. 6 남북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성명: 남북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예비회의 형식으로 남북고위당국자 회담 수락용의
6. 8 南北學生會談 북측준비위원회 성명: 남북학생회담 성과적 보장 촉구
6. 9 李洪九 국토통일원장관 성명: 남북고위당국자 회담에서 학생교류문제 우선적 협의 용의표명
6. 10 崔尙洙 외무부장관, 제3차 유엔군축특별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군축 3단계 접근방안 제시
6. 10 南北學生會談 북측대표단장 성명: 南北學生會談 실현투쟁 선동
6. 11 「전대협」등 9개단체 공동주최, 「남북학생회담 보고대회 및 공동올림픽쟁취 범국민대회」에서 南北學生會談 8·15에 재개최 제의
6. 13 북한 전국대학생 연합대회, 「남한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8·15남북학생회담에 북측대표단 파견표명
7. 2 北韓赤十字會 중앙위원회, 북측 학생대표단장의 편지전달 일자(7. 4) 통보
7. 4 金相浹 대한적십자사 총재, 남북학생교류의 성사 위해 쌍방 당국간 대화 촉구
7. 4 南北學生會談 북측 학생대표단장 편지 방송보도
7. 7 盧泰愚大統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에 관한 특별선언」발표

1988. 7. 9 제 142 회 임시국회 제 20 차 본회의에서 <서울올림픽대회 북한참가촉구 결의문> 채택
7. 11 北韓 祖國平和統一委員會 성명 : 7·7 특별선언 비방
7. 13 金相浹 대한적십자사 총재, 문교부장관 서한 전달 위해 연락관 파견 (7.15) 통보
7. 14 北韓 정무원 교육위원장, 문교부장관 서한접수 거부
7. 15 金永植 文教部長官, 방송보도로 남북학생교류 실현을 위한 南北教育當局會談 제의
7. 16 崔伉洙 外務部長官, 7·7 특별선언 관련 외교시책 발표
7. 16 北韓 赤十字會 중앙위원장,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제의 거부
7. 17 북한정무원 대변인 성명 : 남북교육당국회담 수락 거부
7. 19 대한적십자사 대변인 논평
○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재개 촉구
7. 19 崔伉洙 외무부장관, 해외동포의 남북한 방문을 자유화하고 남북한 방문 해외동포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南北韓 關係當局會談 제의
7. 20 韓國 文教部 代辯人 논평
○ 南北教育當局會談 수락 촉구
7. 21 北韓 最高人民會議 양형섭 상설회의 의장,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불가침문제 해결을 위한 南北國會連席會議 개최 제의
7. 26 北韓 最高人民會議 상설회의 양형섭 의장, 「대한민국 국회 김재순 의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南北國會連席會議에서 올림픽공동주최안 토의 제의
8. 1 金在淳 國會議長, 남북국회회담을 8월중에 성사시키기 위한 준비접촉 개최 제의
8. 9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남북국회연석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 일자 (8. 17) 제의
8. 12 金在淳 國會議長,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일자 (8. 19) 제의
8. 15 盧泰愚 大統領, 4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정상회담 제의
8. 17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일자 수락
8. 17 金在淳 國會議長,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단 명단 북측에 통보

- 수석대표 : 박 준 규 (민주정의당)
 - 대 표 : 이 한 동 (민주정의당)
 - 대 표 : 김 봉 호 (평화민주당)
 - 대 표 : 박 관 용 (통일민주당)
 - 대 표 : 김 용 환 (신민주공화당)
1988. 8. 18 北韓, 南北國會會談 준비접촉 대표단 명단 통보
- 단 장 : 전 금 철 (조선노동당)
 - 대 표 : 안 병 수 (조선노동당)
 - 대 표 : 이 동 철 (조선노동당)
 - 대 표 : 이 주 응 (조선사회민주당)
 - 대 표 : 박 문 찬 (천도교청우당)
8. 19 南北國會會談 제 1 차 준비접촉
8. 19 南北國會會談 제 2 차 준비접촉을 위한 연락관 접촉
8. 20 南北國會會談 제 2 차 준비접촉
- 合意事項 :
- 제 3 차 준비접촉 : 8. 22
8. 22 南北國會會談 제 3 차 준비접촉
- 수석대표 단독접촉 제의
8. 23 北韓, 수석대표 단독접촉일자 (8. 23) 통보
8. 23 수석대표 단독접촉일자(8. 24) 수정제의
8. 23 北韓, 南北國會會談 준비접촉 일자 수정제의에 동의
8. 24 南北國會會談 준비접촉 쌍방 수석대표단 단독접촉
8. 24 南北國會會談 제 4 차 준비접촉 일자 (8. 26) 제의
8. 24 北韓, 南北國會會談 제 4 차 준비접촉 일자에 동의
8. 26 南北國會會談 제 4 차 준비접촉
- 合意事項 :
- 제 5 차 준비접촉 : 10. 13
9. 3 鄭漢模 문공부장관, 북한 및 공산권 자료 대폭 공개 결정 발표
9. 8 金日成 「9·9절」 40주년 기념사, 전제조건하의 南北頂上會談 문제 언급
10. 4 盧泰愚大統領, 國政演說에서 南北頂上會談 다시 제의

- 1988. 10. 4 羅雄培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7. 7 선언 경제분야 후속조치 발표
- 10. 13 南北國會會談 제 5 차 준비접촉
- 10. 18 盧泰愚大統領, 유엔총회 본회의 연설
 - 비무장 지대안에 평화시 건설 제의
 - 南北頂上會談 재제의
 - 「東北亞 平和協議會議」 제의
- 11. 7 北韓 中央人民委員會·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政務院 聯合會議, 韓國과 美國政府에 「포괄적 평화방안」을 보내기로 결정
- 11. 16 北韓 政務院 總理, 李賢宰 國務總理에게 보내는 대남서한을 통해 南北高位級 政治·軍事會談 제의
 - 대표단: 副總理級을 단장(부단장: 軍總參謀長級)으로 하는 7~9명 정도의 고위급 정치군사 대표
 - 일시 및 장소: 12월 중순경, 통일각
- 11. 17 南北國會會談 제 6 차 준비접촉

南北對話白書

1988년 12월 20일 인쇄

1988년 12월 26일 발행

발행 :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중앙우체국사서함 4161

인쇄 : 電鋳産業社
